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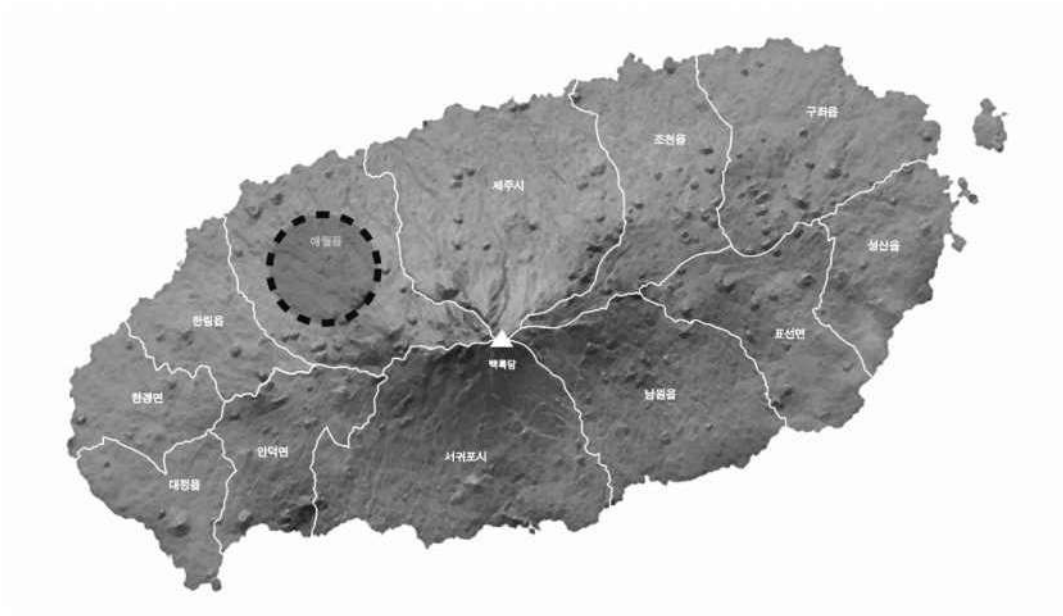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650-01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애월읍 봉성리

구술: 강규방, 김화자
채록·전사·표준어 대역: 고창근

36



Jeju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원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6

애월읍 봉성리

목 차

I. 사업 개요	5
1. 사업 목적	5
2. 사업 기간	5
3. 연구 참여자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6
5. 사업 추진 과정	7
6. 표준어 대역	8
7. 주석	8
8. 제주어 구술 자료집 일람	8
II. 구술 자료	11
1. 조사 마을	11
2. 제보자 일생	38
3. 밭일	72
4. 들일	171
5. 식생활	223
6. 주생활	310
7. 신앙	394
8. 세시풍속	403
연구 참여자	452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결과물인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여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 발간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20년 3월 10일~2020년 12월 31일

3. 연구 참여자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가급적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4년 조사한 대정읍 구역리와 애월읍 봉성리, 2015년 조사한 한림읍 대림리의 구술 채록 보고서는 자료의 양이 적어서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조사하였다. 이미 조사한 내용과 제보자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보자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는 새롭게 제보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과 그 역할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진 현황과 역할

이름	소속	분야	지역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외도동, 안덕면 덕수리
김미진	"	"	연구 책임, 대정읍 인성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	교열 및 감수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제주시 외도동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토평동
최연미	돌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안덕면 덕수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인성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	대정읍 구억리
문덕찬	(사)제주어연구소	"	한림읍 대림리
고창근	제주어보전 및 육성위원회	"	애월읍 봉성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	위촉연구원
서수빈	"	"	연구 보조
현혜경	"	국어국문	"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29	제주시 외도동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이옥희, 강옥자, 고창휘	김순자·허영선
30	제주시 노형동	문춘자, 현춘화	안민희·김보향
31	서귀포시 토평동	조풍자, 김수철, 양성아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양기옥, 김동권	김순자·최연미
33	대정읍 인성리	정인춘	김미진·권미소
34	대정읍 구억리	강영지, 임춘자	김성룡
35	한림읍 대림리	김한보, 홍국진	문덕찬
36	애월읍 봉성리	강규방, 김화자	고창근

5. 사업 추진 과정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약 9개월이 소요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 한 차례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오류를 가급적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하였다.
-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하였다.
-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하였다.
-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하였다.
- ‘하다’의 경우 ‘허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했다. ‘허는구나, 헛구나’처럼 ‘니’로 통일했고,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하였다.
- 제보자의 발음이 표기와 다르게 나는 경우는 발음기호인 대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 보고서의 번호는 2019년에 이어 제주시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부여하였다. 따라서 ‘제주시 외도동’ 구술 자료가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9』가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조사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 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였다. 이는 제보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하였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랐다.
- 표준어 대역은 소괄호(()) 안에 넣었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다. 문맥에 맞게 의역할 경우는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혔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혔다.(예: ‘바령팻’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두었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그대로 두었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제주어에 각주 번호를 부여하였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 등으로 하였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주석을 달았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8. 제주어 구술 자료집 일람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발간한 《제주어구술자료집》은 <표 4>와 같다.

<표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연구자

번호	조사 지점	구술 제보자	연구자
1	제주시 도련1동	양상수, 이술생, 이영숙, 김옥순, 이성칠	김순자
2	조천읍 선흘1리	조수용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수생, 김민순	김선희
4	성산읍 고성리	김두하, 정계춘	김승연
5	표선면 표선리	고옥년, 송봉휴	허영선·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고영주, 정갑선	김보향
7	서귀포시 보목동	강진우, 김금전, 양정상, 이정선, 현원후, 한승옥	최연미
8	안덕면 동광리	홍춘호, 신원홍, 고희정	김성용
9	한경면 고산리	김인세, 이영형, 이술색	신우봉
10	한림읍 월령리	강춘량, 고상춘, 양창부, 문국자	안민희
11	조천읍 함덕리	한아섭, 이용진	김미진
12	구좌읍 한동리	오문봉, 오태봉	김보향
13	성산읍 삼달리	김해생	김미진
14	표선면 성읍리	송순원, 이미생, 현신생	김순자·허영선
15	남원읍 수망리	김상옥, 김두천, 현금옥, 김승남, 고신화	최연미
16	서귀포시 하원리	김기연, 오연옥	김승연
17	안덕면 대평리	강인숙, 양성지	김성용
18	대정읍 신도리	변동휘, 이부자, 유순옥, 박창임, 김희옥, 진옥열	신우봉
19	한경면 청수리	문창립, 강성현, 강대홍, 이오생, 오옥희, 김춘선, 강영래, 고성이, 박성요, 오행순	안민희
20	애월읍 고내리	고두규, 장운삼, 고원방	김보향
21	조천읍 신촌리	김옥녀, 이명언	안민희
22	제주시 우도면	한두영, 고옥녀, 홍한옥	김승연
23	성산읍 온평리	송옥금, 강문홍, 강백년	김순자·허영선
24	표선면 세화리	강필문, 고옥화, 송인생, 장술생, 강기수, 김정자, 현봉화, 김양선	최연미
25	남원읍 대흥리	오윤생	김미진·권미소
26	한경면 신창리	진인중, 이순녀	김보향
27	한림읍 옹포리	장경옥, 양순자, 장정자, 김화원	신우봉
28	애월읍 구엄리	김여환, 홍창자	김성용
29	제주시 외도동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이옥희, 강옥자, 고창휘	김순자·허영선
30	제주시 노형동	문춘자, 현춘화	안민희·김보향
31	서귀포시 토평동	조풍자, 김수절, 양성아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양기옥, 김동권	김순자·최연미
33	대정읍 인성리	정인춘	김미진·권미소
34	대정읍 구역리	강영지, 임춘자	김성룡
35	한림읍 대림리	김한보, 홍국진	문덕찬
36	애월읍 봉성리	강규방, 김화자	고창근

II. 구술 자료

(@1 고창근, @2 문덕찬, #1 강규방, #2 김화자)

1. 조사 마을

101001 @1 그, 옛그저께 요 마을에 대해서 영, 그,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요.
(그, 옛그저께 요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요.)

101001 #1 예.(예.)

101001 @1 이 마을, 그 형성에 대해서부터 먼저 영 말씀해 주십시오.(이 마을 그
형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101001 #1 예.(예.)

101001 @1 이, 그 꼭 요 동네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이 그 꼭 요 동네만이 아
니라 전체적으로.)

101001 #1 아, 전체적으로.(아, 전체적으로.)

101001 @1 예.(예.)

101001 #1 계란, 이 동네부터 말해주.(그러니까 이 동네부터 말하지.)

101001 @1 예. 예.(예. 예.)

101001 #1 이 동네부터. 아, 전체적으로 말했당 이 동네 해주.(이 동네부터. 아,
전체적으로 말했다가 이 동네 하지.)

101001 @1 음.(음.)

101001 #1 전체적으로. 이 저 에 원래 한 스백 년, 삼백팔십구 년 건 확실히 모
르주마는 하여튼 저 짐작에, 합해 보면은 에 이 한 팔구십 년 한 사백 년 한 사람
딱 이 마을에 살아실 거라. 거 기록이 있고, 이름도 알아지고, 문○○이란 사람, 이
마을에.(전체적으로. 이 저 원래 한 사백 년, 삼백팔십구 년 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짐작에 에, 합해 보면은 이 한 팔구십 년 한 사백 년 한 사람 딱 이 마
을에 살았을 거야. 거 기록이 있고, 이름도 알 수 있고, 문○○이란 사람. 이 마을
에.)

101001 @ 예.(예.)

101001 #1 한 사람 딱 살았어. 저 알쪽에 보면은 있는데, 에 그 사람이 뭘 했느
냐 허면은 훈련원 봉사. 직함이. 거 단 건 모르고. 그때 이 때 곳자왈, 이 저 이 오
름에 이 한아름씩 한 나무들이 많이 이빠이 있어 가지고, 그 곳 농사도 안 짓고. 혼
자만 살고. 거 기록인데, 그다음에 이 사람안티 장가든 사람이, 결혼헌 딸한테 결혼
헌 사람이 상가, 더럭¹⁾이라. 상가²⁾에서 에 강 ○ 자 ○ 자라는 할아버지가 이 하르

1) '더럭'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와 하가리를 통틀어 이르던 옛 이름이다.

마지한티 딸한티 결혼을 했어. 문○○이 딸한티. 결혼을 해 가지고, 에, 아마 그 전해오는 말 그 족보에는 웃지마는, 전해오는, 나도 강씨니까 우리 조상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니까, 그 전해오는 전설이 있어마썸. 그 전설이. 아마 그 저 ○ 자 ○ 자 할아버지가 나에 저 십일 대가 됩시다게.(한 사람 딱 살았어. 저 아래쪽에 보면 있는데, 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훈련원 봉사, 직함어. 거 판 것은 모르고. 그때 이 산 꽃자왈, 이, 저 오름에 한아름씩 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꽃, 농사도 안 짓고, 혼자만 살고, 거 기록인데.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장가든 사람이, 그 결혼한, 딸한테 결혼한 사람이 상가, 더럭이지. 상가에서 에, 강 ○ 자 ○ 자라는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한테, 딸한테 결혼을 했어. 문○○의 딸한테. 결혼을 해 가지고. 에, 아마 그, 전해오는 말. 그, 족보에는 없지마는, 전해오는. 나도 강씨니까 우리 조상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니까, 그, 전해오는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이. 아마 그 ○ 자 ○ 자 할아버지가 나의 십일 대가 됩니다.)

101001 @1 음.(음.)

101001 #1 십일 대가 되는데, 에, 이, 공부를 많이 했어. 공부를 많이 하고, 모든 뭐 육효라든지 이 그런 뭐 저 스서삼경을 전부 하고, 과거시험을 한양에 보러 가는 도중에, 가면 한 며칠 걸리지 안합니까. 가서 주막집에 잠자고, 또 또 또 가지고 또 한양까지 가쟈 허면 혼 십여 일 이상 걸영, 걸영만 땡길 때니까. 거 하루는 거 주막집에 거 잠을 자는데, 그 옛날에는 이 미신적인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마썸. 머머 조상 산천이라든지, 관상이라든지, 스주팔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이, 저, 보면은. 아마 그 그 뜰 주막에 주무시는 분이, 그런 그 스주를 보는 사름허고 그찌, 스주, 관상 일 보는 사름허고 그찌 지내게 뵈 모양이라마썸.(십일 대가 되는데, 에, 이, 공부를 많이 했어. 공부를 많이 하고, 모든 뭐 육효라든지 이, 그런 뭐 저, 사서삼경을 전부 하고, 과거시험을 한양에 보러 가는 도중에, 가려면 한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가서 주막집에서 잠자고, 또 또 또 가지고 또 한양까지 가려면 한 십여 일 이상 걸어서, 걸어서만 다닐 때이니까. 거, 하루는 거, 주막집에서 거, 잠을 자는데, 그, 옛날에는 이, 미신적인,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뭐 조상 산천이라든지, 관상이라든지, 사주팔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이 저 보면은. 아마 거, 같은 주막에 주무시는 분이 그런 사주를 보는 사람하고 같이, 사주, 관상 일 보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게 된 모양이에요.)

101001 @1 음.(음.)

101001 #1 그날 저녁에, 지내게 뵈어서, 그 사름이 우리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당신은 한양 가서 과거로 합격허겠지마는 그보다 더 좋은 스주팔자가 있다. 당신 집으로 내려가서 서쪽으로 보민 도내산³⁾이 있는데, 도내 그 저 산 밑으로 가면은 천명 즈손에, 천 저, 삼백 년 집터에다가 천 명 즈손을 거느릴 수 있는 관상이다

2) '상가'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이다.

3) '도내산'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북서쪽에 있는 오름으로, '어도오름', '도노미', '어도악'이라고도 불린다.

허연 이젠 허니까, 그때는 그게 그 모습에 싹 들어 가지고, 고향으로 와 가지고 좇은 곳이 저 도내산이라.(그날 저녁에. 지내게 되어서, 그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당신은 한양 가서 과거로 합격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사주팔자가 있다, 당신 집으로 내려가서 서쪽으로 보면 도내산이 있는데, 도내 그, 저, 산 밑으로 가면은 천 명 자손에, 천 저, 삼백 년 집터에다가 천 명 자손을 거느릴 수 있는 관상이다 하고 이제 하니까, 그때는 그것이 마음에 속 들어서 고향으로 와서 좇은 곳이 저 도내산이야.)

101001 @1 음.(음.)

101001 #1 도내산을 보니 엄청난 곳자왈이거든. 게서 그 꼭 그 관상쟁이 말 듣고 저 상가에 전 재산을 동생에게 물려줘 두고, 자기가 이 처가, 처가가 여기니까.(도내산을 보니 엄청난 곳자왈이거든. 그래서 그 꼭 그 관상쟁이 말 듣고 저 상가에 전재산을 동생에게 물려줘 두고, 자기가 이 처가, 처가가 여기니까.)

101001 @1 음.(음.)

101001 #1 처가 와서 정착을 하는데, 아들이 팔 형제라마씀.(처가 와서 정착을 하는데, 아들이 팔 형제이지요.)

101001 @ 음.(음.)

101001 #1 건 뭐 우리 족보에도 있고. 나 족보도 잇주마는. 팔 형제다.(그것은 뭐 우리 족보에도 있고. 나의 족보도 있지마는. 팔 형제인데.)

101001 @1 음.(음.)

101001 #1 큰처에 스 형제, 작은처에 스 형제, 게서 팔 형제인데. 그 여기가 그 마을 형성하는데 도내산이라고, 도내산.(큰처에 사 형제, 작은처에 사 형제, 그래서 팔 형제인데. 그 여기가 그 마을 형성하는데 도내산이라고, 도내산.)

101001 @1 음.(음.)

101001 #1 이름이. 도내산이 뭐냐 허면은 도내메라. 옛날부터 이 ‘도노미⁴⁾’, ‘도노미’ 합니다.(이름이. 도내산이 뭐냐 하면 도내메이다. 옛날부터 이, ‘도노미’, ‘도노미’ 합니다.)

101001 @ 예. 도내메가 도노미.(예. ‘도내메’가 ‘도노미’.)

101001 #1 예. 멧 산 제단.(예. 메 산 자이니까.)

101001 @ 예.(예.)

101001 #1 도내멘디 도내미로, 도노미로 불렀어. 길 도, 안 내. 멧 산인데, 도내멘데 도노미, 도노미 이렇게 불렀단 말이여.(‘도내메’인데 ‘도내미’로, ‘도노미’로 불렀어. 길 도, 안 내, 멧 산인데, ‘도노미’, ‘도노미’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야.)

101001 @ 예. 도내멘데 도노미.(예. ‘도내메’인데 ‘도노미’.)

101001 #1 도노미, 도노미. 도노미로 불려진. 지금도 도노미령 합니다. 다. 저레 가민.(‘도노미’, ‘도노미’, ‘도노미’로 불린. 지금도 ‘도노미’라고 합니다. 모두. 저리 가면.)

4) ‘도노미’는 애월읍 봉성리의 옛 이름이다.

101001 @ 예.(예.)

101001 #1 저 저 그렇게 해서 마을 완 보니까, 마을 형성된 곳은 어음비리⁵⁾라.
(저 저 그렇게 해서 마을에 와서 보니까, 마을 형성된 곳은 ‘어음비리’야.)

101001 @ 어음.(어음.)

101001 #1 저 어른비, 어른비가 어음비리라. 어음비리 보고 어음리, 어음리.(저 어른비, 어른비가 어음비리라. 어음비리 보고 어음리, 어음리.)

101001 @ 어음비리엔도 험니까?(어음비리라고도 험니까?)

101001 #1 어음비, 그 당시는, 기록에 보민.(어음비, 그 당시는, 기록에 보면)

101001 @ 어름비리.(어름비리.)

101001 #1 예. 갱헨에 보니까 어음비리 도내산, 행정적으로. 그렇게 살았어. 혼자만 사니까.(예. 그래서 보니까 어음비리 도내산, 행정적으로. 그렇게 살았어. 혼자만 사니까.)

101001 @1 음.(음.)

101001 #1 아덜 너 성제, 요답 성제에, 계난 거 비참헌 게 후처에 스 형제는 버려 불었어.(아들 네 형제, 여덱 형제에, 그러니까 거 비참한 게 후처에 사 형제는 버려 버렸어.)

101001 @ 음.(음.)

101001 #1 게 스 형제 손이 이 강○○ 의원 잇잔허파. 국회의원.(거 사 형제 손이 이 강○○ 의원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101001 @1 예.(예.)

101001 #1 그디가 저 후처, 큰 후처에 큰아덜 손이라.(거기가 저 후처, 큰 후처에 큰아들 손이야.)

101001 @ 예.(예.)

101001 #1 그 저 저 저 서자이다 보니까 죽은아덜, 죽은할망. 옛날에는 저 후처는 서자라고 헤가지고 사름 취급을 못 받았습시다게.(그 저 저 저 서자이다 보니까 작은아들, 작은할머니. 옛날에는 저 후처는 서자라고 해 가지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시다.)

101001 @1 음.(음.)

101001 #1 과거도 못 보고. 게서 죽 허게 혼 이삼백 년 무난히 이제 허니까 그 아덜 팔 형제, 그 후처 스 형제는 다 쫓겨 버리고, 스 형제 손이 엄청난, 벌어져 가지고, 머 찰 상당히 잘 됐는데, 그게 도노미가 왜정 때 또 어도리로 바뀌었어.(과거도 못 보고. 그래서 죽 하게 한 이삼백 년 무난히 이제 하니까 그 아들 팔 형제. 그 후처 사 형제는 다 쫓겨 버리고, 사 형제 손이 엄청난, 벌어져 가지고, 뭐 찰 상당히 잘 됐는데, 그게 도노미가 일제강점기 때 또 어도리로 바뀌었어.)

101001 @ 어도리.(어도리.)

101001 #1 왜정 때, 일제강점기 때. 왜 어도리로 바꿨냐면은, 그 일제강점기에서

5) ‘어음비리’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로, ‘어른비’, ‘어음리’, ‘어린비’, ‘어린빌레’ 등으로 불린다.

그 호적을, 호적을 만들면서 리명을 다 조사했어.(왜정 때, 일제강점기 때. 왜 어도리로 바꿨냐면은, 그 일제강점기에서 그 호적을, 호적을 만들면서 리명을 다 조사했어.)

101001 @ 음.(음.)

101001 #1 그때에 올린 것이 어도리로 올렸어. 도노미로 올리질 아녀고.(그때에 올린 것이 어도리로 올렸어. 도노미로 올리질 아니하고.)

101001 @1 아.(아.)

101001 #1 어도리, 어도리 일구로. 이구는 내 말씀드리겠는데. 어도 일구로 그 저 조선총독부에 올렸단 말이여이.(어도리, 어도리 일구로. 이구는 내 말씀드리겠는데. 어도 일구로 그 저 조선총독부에 올렸단 말이야.)

101001 @1 음.(음.)

101001 #1 그 전에는 그런 행정이었어. 그냥 도노미, 도노미고. 그 저 일본 놈들이 와서 구체적으로 지번을 허고, 또 호적을 만들고.(그 전에는 그런 행정이었어. 그냥 도노미, 도노미이고. 그 저 일본 놈들이 와서 구체적으로 지번을 하고, 또 호적을 만들고.)

101001 @2 한자로 적젠 허난 아마도.(한자로 적으려고 하니까 아마도.)

101001 #1 예. 어도 일구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죽 사는데, 마 참 그 당시 민원 제기, 엄청난 민원 제긴디, 다 내 거.(예. 어도 일구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죽 사는데, 마 참 그 당시 민원제기, 엄청난 민원 제긴데, 다 내 거.)

101001 @1 음.(음.)

101001 #1 수만, 수십 만 평이 강씨 우리 조상이. 거 잊지 아녀파. 임자가 엇이니까 다 내 거.(수만, 수십만 평이 강씨 우리 조상이. 거 잊지 않습니까. 임자가 없으니까 다 내 거.)

101001 @ 음.(음.)

101001 #1 그렇게 해서 혼 삼백사십 년 역사가 흐르면서. 게서 근래에 백오십 년 전에는 또 양씨나 김씨나 타성들이 이제 처가살이를 온 거야. 강칩이 장가들어가지고.(그렇게 해서 한 삼백사십 년 역사가 흐르면서. 그래서 근래에 백오십 년 전에는 또 양씨나 김씨나 타성들이 이제 처가살이를 온 거야. 강씨 댁에 장가들어가지고.)

101001 @1 예.(예.)

101001 #1 거 게서 양씨도 있고 김씨도 있고, 있습니다. 원래는 강씨만 살다가.(거 그래서 양씨도 있고 김씨도 있고, 있습니다. 원래는 강씨만 살다가.)

101001 @1 강씨, 양씨, 김씨.(강씨, 양씨, 김씨.)

101001 #1 김씨예. 처가살이로. 강칩이 처가살이로 이디 완 살고, 해서 지금도 그분들이 살고 있어. 저 구멸동⁶⁾에는 흥씨, 현씨가 살고 있고.(김씨예. 처가살이로. 강씨 댁에 처가살이로 여기 와서 살고, 해서 지금도 그분들이 살고 있어. 저 구멸동

6) '구멸동'은 제주시 애월읍 어도리에 있는 자연부락 이름이다.

에는 홍씨, 현씨가 살고 있고.)

101001 @1 홍씨, 현씨. 구멸동.(홍씨, 현씨. 구멸동.)

101001 #1 현씨가 살고 있고, 홍씨는 아마 그 우리 이 설촌해 가지고 얼마 엇어 가지고 거 구멸동이라고 거 저기 이 하천이 있는데, 이 정지내라고. 하천 저쪽은 그 이 어도 경이 아니라서. 원래는.(현씨가 살고 있고, 홍씨는 아마 그 우리 이 설촌해 가지고 얼마 엇어 가지고 거 구멸동이라고 거 저기 이 하천이 있는데, 이 ‘정지내’라고. 하천 저쪽은 그 이 어도 지경이 아니랴어. 원래는.)

101001 @ 음.(음.)

101001 #1 원래는 이 그디 완 살고. 이 어도에 속한 거지. 왜 속했느냐면은 예 옛날 조선시대에는 좌면, 우면을 헛어. 이것이 우면이라.(원래는 이 거기 와서 살고. 이 어도에 속한 거지. 왜 속했느냐면은 예 옛날 조선시대에는 좌면, 우면을 헛어. 이것이 우면이라.)

101001 @ 음.(음.)

101001 #1 애월, 한림, 한경이 우면⁷⁾, 조천, 구좌가 좌면⁸⁾.(애월, 한림, 한경이 우면, 조천, 구좌가 좌면.)

101001 @1 음.(음.)

101001 #1 지금도 구좌, 구좌 안헤여? 그게 좌면, 우면허는.(지금도 구좌, 구좌 아니해? 그게 좌면, 우면하는.)

101001 @1 음.(음.)

101001 #1 그 우리가, 어도리가 이 우면에, 한림⁹⁾에 속했어.(그 우리가, 어도리가 이 우면에, 한림에 속했어.)

101001 @1 음.(음.)

101001 #1 이 하천 때문에. 하천 저쪽은 애월¹⁰⁾, 저, 저, 저 신우면¹¹⁾.(이 하천 때문에. 하천 저쪽은 애월, 저, 저, 저 신우면.)

101001 @2 아아, 구우면¹²⁾, 신우면.(아아, 구우면, 신우면.)

101001 #1 구우면, 신우면.(구우면, 신우면.)

101001 @2 아.(아.)

101001 #1 구우면, 신우면. 신우면이 애월. 구우면이 한림, 한경. 그렇게 역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면에 속했다 말이여.(구우면, 신우면. 신우면이 애월. 구우면이 한림, 한경. 그렇게 역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면에 속했다 말이야.)

101001 @1 음.(음.)

101001 #1 조선시대엔. 왜 우면에 속했느냐. 이 경계할 때 하천으로만 헤연. 요

7) ‘우면’은 옛 제주목의 오른쪽 면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제주시 애월읍, 한림리가 여기에 속한다.

8) ‘좌면’은 옛 제주목의 왼쪽 면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제주시 조천읍과 세화리가 여기에 속한다.

9) ‘한림’은 제주시 한림읍을 말한다.

10) ‘애월’은 제주시 애월읍을 말한다.

11) ‘신우면’은 제주시 애월읍이다.

12) ‘구우면’은 제주시 한림읍이다.

기 가민 큰 하천이 있어. 건디 그 당시 양반 싸움으로, 명월¹³⁾ 오칩 명월 양칩이 대단해여. 그 사무소가 그 명월성에 있어. 회의 보래 그달 가야 돼어.(조선시대엔. 왜 우면에 속했느냐. 이 경계 할 때 하천으로만 했어. 요기 가면 큰 하천이 있어. 그런데 그 당시 양반 싸움으로, 명월 오씨 덕, 명월 양씨 덕이 대단해. 그 사무소가 그 명월성에 있어. 회의 보러 거길 가야 돼.)

101001 @ 음.(음.)

101001 #1 명월성이라고. 그 성, 유명헌, 한림보다도 더 유명한 그 명월이. 그 역사가. 게서 가니까 그때는 완전 가문, 가문 대결이라. 우리 강씨가 너네 우이다. 며. 오씨가 우이다, 양씨가 우이다. 게 명월 오씨가 상당한 모양이여. 권세가. 몰려가지고. 텃세하고.(명월성이라고. 그 성, 유명한, 한림보다도 더 유명한 그 명월이. 그 역사가. 그래서 가니까 그때는 완전 가문, 가문 대결이라. 우리 강씨가 너네보다 위다. 며. 오씨가 위다, 양씨가 위다. 그 명월 오씨가 상당한 모양이야. 권세가. 몰려가지고. 텃세하고.)

101001 @ 음.(음.)

101001 #1 싸와 가지고, 왜 너네 안 부뜨겠다. 우린 저디 신우면에 가겠다. 그래서 신우면으로 부편.(싸워 가지고, 왜 너네 안 붙겠다. 우린 저기 '신우면'에 가겠다. 그래서 신우면으로 붙었어.)

101001 @1 음.(음.)

101001 #1 그 도노미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그 도노미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101001 @2 그 가문 대결은 뭇 뜻이우파? 가문 대결.(그 가문 대결은 무슨 뜻입니까? 가문 대결.)

101001 #1 가문, 성씨 대결.(가문, 성씨 대결.)

101001 @2 아아, 가문 대결.(아아, 가문 대결.)

101001 #1 예. 우리 강씨가 낫다. 너네 양반 텃세로.(예. 우리 강씨가 낫다. 너네 양반 텃세로.)

101001 @1 아아.(아아.)

101001 #1 우리가 양반이다. 너네가 양반이다. 가문 대결, 그렇게.(우리가 양반이다. 너네가 양반이다. 가문 대결, 그렇게.)

101001 @2 아아.(아아.)

101001 @1 그게 어도 일구예. 일구도 여러 동네가 이실 거 아니우파?(그게 어도 일구예. 일구도 여러 동네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1001 #1 어도 일구 그렇주. 그 저, 그 중간에 에 저 서성동¹⁴⁾이 잇고, 동대동¹⁵⁾이 잇고, 중화동¹⁶⁾이 잇고, 구멸동¹⁷⁾이 잇고.(어도일구 그렇지. 그 저, 그 중간

13) '명월'은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를 말한다.

14) '서성동'은 제주시 애월읍 어도리에 있는 한 자연마을이다.

15) '동대동'은 제주시 애월읍 어도리에 있는 한 자연마을이다.

16) '중화동'은 제주시 애월읍 어도리에 있는 한 자연마을이다.

17) '구멸동'은 제주시 애월읍 어도리에 있는 자연부락 이름이다.

에 예 저 서성동이 있고, 동대동이 있고, 중화동이 있고, 구멸동이 있고.)

101001 @1 예.(예.)

101001 #1 저 아래. 또 이.(저 아래. 또 이.)

101001 @2 구면동.(구면동.)

101001 #1 구면동은 어음리고.(구면동은 어음리고.)

101001 @2 어음리.(어음리.)

101001 #1 도저히 거긴 여기에.(도저히 거긴 여기에.)

101001 @2 아, 봉성리하고.(아, 봉성리하고.)

101001 #1 리가 달르고.(리가 달르고.)

101001 @2 다른 데네예.(다른 곳이네요.)

101001 #1 예. 계난 거 어도 이구는 그렇게. 저디 화전에 있어, 솔도¹⁸⁾. 그 어도 이구야.(예. 그러니까 거 어도 이구는 그렇게. 저 곳 화전에 있어, 솔도. 그 어도 이구야.)

101001 @1 예.(예.)

101001 #1 화전동이라고 해 가지고, 저 우에. 저.(화전동이라고 해 가지고, 저 위에. 저.)

101001 @1 그런 동 자 붙이지 안헌 이름덜 잊지 안허파? 무신.(그런 동 자 붙이지 않은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101001 #1 아이고, 하곡말곡.(아이고, 많고말고.)

101001 @1 그런.(그런.)

101001 #1 관전밭¹⁹⁾이라고.(관전밭이라고.)

101001 @1 예. 관전밭.(예. 관전밭.)

101001 #1 또 서건이빌레.(또 ‘서건이빌레’.)

101001 @1 서건이빌레.(‘서건이빌레’.)

101001 #1 예, 수케가름.(예, ‘수케가름’.)

101001 @1 수케가름?(‘수케가름’?)

101001 #1 수케거름.(‘수케거름’.)

101001 @1 거름.(거름.)

101001 #1 딱시 셋각시왓.(또 ‘셋각시왓’.)

101001 @1 셋각시왓.(‘셋각시왓’.)

101001 #1 예. 예, 딱시 이건 케왓.(예. 예, 또 이건 ‘케왓’.)

101001 @1 케왓.(‘케왓’.)

101001 #1 예, 그 빌렛거리.(예, 그 ‘빌렛거리’.)

101001 @1 빌렛거리.(‘빌렛거리’.)

101001 @2 음.(음.)

18) ‘솔도’는 제주시 애월읍 어도리에 있는 한 자연마을이다.

19) ‘관전밭’은 관청 소유의 밭이다. 여기서는 애월읍 어도리에 있는 한 자연마을로 중화동을 가리킨다.

101001 #1 저 동네, 동 전이. 동 전에 사름 사는 요쪽은.(저 동네, 동 전에. 동 전에 사름 사는 요쪽은.)

101001 @1 예.(예.)

101001 #1 머 셋각시왓.(뭘 ‘셋각시왓’.)

101001 @1 예.(예.)

101001 #1 요쪽은 저 저 서건이 저 수케거림.(요쪽은 저 저 ‘서건이’ 저 ‘수케거림’.)

101001 @2 예.(예.)

101001 #1 요 그런 식으로덜 헤연. 요 관전밭. 요 오름 앞에는 또 그 관전밭이라고 헌 것도, 짓도 영 보면은 거 그런 전설이 있어. 벼슬 관 자에 밧 전자라이.(요 그런 식으로들 했어. 요 관전밭. 요 오름 앞에는 또 그 관전밭이라고 한 것도, 짓도 이렇게 보면은 거 그런 전설이 있어. 벼슬 관 자에 밧 전자야.)

101001 @1 음.(음.)

101001 #1 그 고려 때 그 이 군사 훈련을 관청에서, 그 군사 훈련을 했다고 해서.(그 고려 때 그 이 군사 훈련을 관청에서, 그 군사 훈련을 했다고 해서.)

101001 @1 음.(음.)

101001 #1 그 밧디서 관전밭, 관전밭. 지금도 경허난 관전 동네.(그 밧에서 관전 밧, 관전밭. 지금도 그렇게 하니까 관전 동네.)

101001 @1 아.(아.)

101001 #1 저 동네보고 관전 동네, 지금도 경 곺아. 그런.(저 동네보고 관전 동네, 지금도 그렇게 말해. 그런.)

101001 @1 긋사 곺은 큰 내 이름은 무시겨우짜?(아까 말씀하신 큰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101001 #1 정짓내.(‘정짓내’.)

101001 @1 정짓내?(‘정짓내’?)

101001 #1 예. 산내. 최고 큰 내주. 그 북군에서는 켈.(예. 산내. 최고 큰 내지. 그 북군에서는 제일.)

101001 @1 정짓내.(‘정짓내’.)

101001 #1 저 돌오름²⁰⁾이라고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정짓내, 산내.(저 돌오름이라고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정짓내, 산내.)

101001 @2 아아, 그까지 올라간 내려오는 거구나.(아아, 그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구나.)

101001 #1 예 켈, 저 돌오름, 저 열리 우의서, 한라산에서 형성돼언 내려오는 물이 정짓내라.(예 제일, 저 돌오름, 저 열리 위에서, 한라산에서 형성되어서 내려오는 물이 ‘정짓내’라.)

20) ‘돌오름’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영아리오름 북동쪽에 위치한다. 제주시 애월읍과의 경계에 걸쳐진 오름이다.

101001 @1 아아.(아아.)

101001 #1 제일 큰 내주. 정짓내.(제일 큰 내지. ‘정짓내’.)

101001 @1 음. 그 내가 글로 헤여근에.(음. 그 내가 거기로 해서.)

101001 #1 금성천으로.(‘금성천’으로.)

101001 @1 금성. 아아.(금성. 아아.)

101001 #1 금성, 지금은 금성천으로 헛는데, 그 옛날에 또 그 사름 살던 곳이 하나 거 지금도 그 전설밭기 엇고. 부절의라고 흐는 사름이 이디서 혼 삼 키로 우에, 스 키로 우에 가면은 상시므를이엔 현 디 부절의라고 허는 사름이 살았어.(금성, 지금은 ‘금성천’으로 헛는데, 그 옛날에 또 그 사람 살던 곳이 하나 거 지금도 그 전설밖에 없고. 부절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한 삼 킬로미터 위에, 사 킬로미터 위에 가면은 ‘상시므를’이라고 하는 데 부절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

101001 @1 음.(음.)

101001 #1 건 며, 전, 기록은 없지마는 부절의 묘도 잇고, 지금도 묘가 있어. 강 보면은.(건 뭐, 전, 기록은 없지마는 부절의 묘도 잇고, 지금도 묘가 있어. 가서 보면은.)

101001 @2 부씨파? 계난.(부씨입니까? 그러니까.)

101001 #1 으, 일름은 부절의 부씨.(으, 이름은 부절의 부씨.)

101001 @2 부씨.(부씨.)

101001 #1 부썬데, 제주도에서 며, 제일 부썬 모양이라.(부썬데, 제주도에서 뭐, 제일 부자인 모양이라.)

101001 @1 아.(아.)

101001 #1 그디가. 왜 그런, 나오느냐 허면, 지금도 부절의 터라고 있어. 강 보면은 기왓장이 나와. 밧 갈아 가민.(거기가. 왜 그런, 나오느냐 하면, 지금도 ‘부절의 터’라고 있어. 가서 보면은 기왓장이 나와. 밧 갈아 가면.)

101001 @1 아.(아.)

101001 #1 건디 그, 전설이 부절의 집에 은수저, 금수저. 음악이 나와. 은쟁반. 노래가. 김질 메면서 놀래, 부절의 터에 은수저가 금수저가 잇저.(그런데 그, 전설이 부절의 집에 은수저, 금수저. 음악이 나와. 은쟁반. 노래가. 김매면서 노래, 부절의 터에 은수저가, 금수저가 있다.)

101001 @1 아.(아.)

101001 #1 게네 그게 어째서 그렇게 망헛느냐 허면은, 하여튼 고려 때는, 그땐 고려 때로 추측을 허는데, 제주도 그때 탐라국이지. 쥬 부썬데, 어떤 중이 지나가면서 그디 저, 동녕을 갓던 모양이여. 중덜 그렇지 안 헤여게이. 영 동녕을 가니까.(그래서 그게 어째서 그렇게 망헛느냐 하면은, 하여튼 고려 때는, 그땐 고려 때로 추측을 허는데, 제주도 그때 탐라국이지. 제일 부썬데, 어떤 중이 지나가면서 거기 저, 동녕을 갓던 모양이여. 중들 그렇지 안 헤여. 이렇게 동녕을 가니까.)

101001 @1 음.(음.)

101001 #1 부자칩으로 알아 가지고 동녕을 가니까. 아마 그 박집을 현 모양이여. 그 부절의가.(부자칩으로 알아 가지고 동녕을 가니까. 아마 그 박집을 현 모양이여. 그 부절의가.)

101001 @1 예.(예.)

101001 #1 세상, 내가 종 열 개. 저, 남자 종 여자 종 열 개씩 데리고 살고 허니까, 저저, 너 같은 거는 머, 줄 수가 없다.(세상, 내가 종 열 개. 저, 남자 종 여자 종 열 개씩 데리고 살고 하니까, 저저, 너 같은 거는 뭐, 줄 수가 없다.)

101001 @1 예.(예.)

101001 #1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십 년 뒤편은 이 집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게 된 나갓단 말이여. 저런 중 말 안 듣겠다, 살다 보니까 그, 큰 홍수가 일어나 가지고 사람 사는, 전멸해연 다 죽어 붙었어. 게 재산도 다 망하고, 온가족이.(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십 년 뒤편은 이 집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해 두고 나갓단 말이여. 저런 중 말 안 듣겠다, 살다 보니까 그, 큰 홍수가 일어나 가지고 사람 사는, 전멸해서 다 죽어 버렸어. 그래 재산도 다 망하고, 온가족이.)

101001 @1 예.(예.)

101001 #1 게 그, 부절의 묘가 그디 있어. 묘가. 흔 산담²¹⁾만 으섯 자리로. 그런 건 기록은 엇고.(그래 그, 부절의 묘가 거기 있어. 묘가. 한 ‘산담’만 여섯 자리로. 그런 건 기록은 없고.)

101001 @1 음.(음.)

101001 #1 거, 고려 때 그, 부절의가 살았다는 그 전설이.(거, 고려 때 그, 부절의가 살았다는 그 전설이.)

101001 @1 그런 이야기가 내려 왔구나양. 음.(그런 이야기가 내려 왔군요. 음.)

101001 #1 그다음에 예, 그 신명동은, 이건 내가 태어난, 나 사는 동네니까 내가 잘 아는데, 내 아홉 살에 스삼사건이 났어이.(그다음에 예, 그 ‘신명동’은, 이건 내가 태어난, 내가 사는 동네니까 내가 잘 아는데, 내 아홉 살에 사삼사건이 났어.)

101001 @1 예.(예.)

101001 #1 아홉 살, 저, 스십팔 년 예, 음력으로 시월 보름 때지, 그때 제사 이실 때니까 그, 알아지는데 시월 보름. 음력으로 스십팔 년, 예, 그때 스삼스건이 나 가지고, 예, 그 어도 이구가, 이건 일구고 저디, 이구는 예, 요섯 개 마을이여. 여기 비석도 있주마는. 우선 중심지가 자리동, 자리왓²²⁾. 스삼스건 허민 지금도 폭낭 잇고.(아홉 살, 저, 사십팔 년 예, 음력으로 시월 보름 때지, 그때 제사 있을 때니까 그, 알아지는데 시월 보름. 음력으로 사십팔 년, 예, 그때 사삼사건이 나 가지고, 예, 그 어도 이구가, 이건 일구고 저기, 이구는 예, 여섯 개 마을이여. 여기 비석도 있지마는. 우선 중심지가 ‘자리동’, ‘자리왓’. 사삼사건 하면 지금도 팽나무 잇고.)

21) ‘산담’은 무덤 주위로 네모지거나 둥글게 둘러싼 돌담이다.

22) ‘자리왓’은 제주시 애월읍 어도리에 있는 한 자연마을이다.

101001 @1 음.(음.)

101001 #1 자리왓 혼 오륙십 호가 살고 있어. 열리왓²³⁾, 또 마전동이라고 들
팠²⁴⁾. 상시믄름²⁵⁾, 고도리왓²⁶⁾, 예, 머텡이왓²⁷⁾, 겐 요섯 개 믄을이 어도 이구로 뉘
낫어, 어도 이구.(자리왓 혼 오륙십 호가 살고 있어. ‘열리왓’, 또 마전동이라고 ‘들
팠’. ‘상시믄름’, ‘고도리왓’, 예, ‘머텡이왓’, 그래서 여섯 개 마을이 어도 이구로 뉘
였어, 어도 이구.)

101001 @1 음.(음.)

101001 #1 스삼스건 전에는.(사삼사건 전에는.)

101001 @1 전에는.(전에는.)

101001 #1 혼 삼백 년 뉘 믄을덜이라. 믄을덜이. 어도 이구로 해연 등록할 때
예, 그냥 그 명칭을 아까 식으로, 조선 시대에는 머 자리왓이니.(한 삼백년 된 마을
들이라. 마을들이. 어도 이구로 해서 등록할 때 예, 그냥 그 명칭을 아까 식으로, 조
선 시대에는 뉘, 자리왓이니.)

101001 @1 음.(음.)

101001 #1 자리왓은 남평 문씨가 설촌 허고.(자리왓은 남평 문씨가 설촌 하고.)

101001 @2 예.(예.)

101001 #1 남평 문씨가 그 소낭굴²⁸⁾ 문씨덜이.(남평 문씨가 그 ‘소낭굴’ 문씨들
이.)

101001 @2 예.(예.)

101001 #1 그디 문○○이네 그디가 열리왓.(거기 문○○이네 거기가 ‘열리왓’.)

101001 @2 열리왓 맞수다.(‘열리왓’ 맞습니다.)

101001 #1 자리왓은, 저, 남평 문씨 본부가 자리왓인데, 거의 혼, 거의 구십프로
가 남평 문씨가 살았어. 자리왓에.(‘자리왓’은, 저, 남평 문씨 본부가 ‘자리왓’인데,
거의 한, 거의 구십 프로가 남평 문씨가 살았어. ‘자리왓’에.)

101001 @2 어디 요쪽 펜이우파?(어디 요쪽 편입니까?)

101001 #1 요쪽에 지금도 아직 이키로 삼키로. 남평 문씨 설촌인데, 그 본부가
어도이구 자리왓이라. 거의 남평 문씨만 거의 살고, 우리 강씨는 여기 살다가 우리
오대 하르방이 올라간 살았주.(요쪽에 지금도 아직 이 킬로 삼 킬로. 남평 문씨 설
촌인데, 그 본부가 어도이구 ‘자리왓’이야. 거의, 남평 문씨만 거의 살고, 우리 강씨
는 여기 살다가 우리 오대 할아버지가 올라가서 살았지.)

101001 @2 여기 신명동²⁹⁾ 살다가?(여기 ‘신명동’ 살다가?)

101001 #1 아니, 아니. 저, 저디 원래 관전동네.(아니, 아니. 저, 저기 원래 ‘관전

23) ‘열리왓’은 제주시 애월읍 어도리에 있는 한 자연마을이다.

24) ‘물팠’은 제주시 애월읍 어도리에 있는 한 자연마을이다.

25) ‘상시믄름’은 제주시 애월읍 어도리에 있는 한 자연마을이다.

26) ‘고도리왓’은 제주시 애월읍 어도리에 있는 한 자연마을이다.

27) ‘머텡이왓’은 제주시 애월읍 어도리에 있는 한 자연마을이다.

28) ‘소낭굴’은 제주시 애월읍 어도리에 있는 한 자연마을이다.

29) ‘신명동’은 제주시 애월읍 어도리에 있는 한 자연마을이다.

동'에.)

101001 @2 관전동, 예.(‘관전동’, 예.)

101001 #1 관전동에 살다가.(‘관전동’에 살다가.)

101001 @2 예. 거기 살다가.(예. 거기 살다가.)

101001 #1 작은아들이니까 저 자리왓에 올라간 사는데.(작은아들이니까 저 ‘자리왓’에 올라가서 사는데.)

101001 @1 음.(음.)

101001 #1 마침 그, 왜 내가 아느냐면은, 그, 그 당시에 그, 우리 아버지께서 구장을 했어요. 구장. 스삼사건 당시에. 구장.(마침 그, 왜 내가 아느냐면은, 그, 그 당시에 그, 우리 아버지께서 구장을 했어요. 구장. 사삼사건 당시에. 구장.)

101001 @1 어도 이구 구장.(어도 이구 구장.)

101001 #1 어도 이구 구장, 일구 구장은 강○○이엔 헌 사름이 허고, 어도 이구 구장을 헛는데, 하, 그, 영 보면은 그 낮에는 경찰관이 오는 거는, 구장침일 와. 좇아온 건, 나쁜 놈들 내놓으라고.(어도 이구 구장, 일구 구장은 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어도 이구 구장을 헛는데, 하, 그, 이렇게 보면은 그 낮에는 경찰관이 오는 거는, 구장 집엘 와. 좇아온 건, 나쁜 놈들 내놓으라고.)

101001 @1 음.(음.)

101001 #1 그때 영 역사를 보면은, 혼, 스삼사건 당시에 마을마다 구장, 이장이 있는데 거의 죽어서. 살아남질 못해. 폭도한테 죽든지 경찰한테 죽든지.(그때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한, 사삼사건 당시에 마을마다 구장, 이장이 있는데 거의 죽었어. 살아남질 못해. 폭도한테 죽든지 경찰한테 죽든지.)

101001 @1 음.(음.)

101001 #1 이쪽 말 안 들민 이쪽에서 죽여 불고, 저쪽 말 안 들민 저쪽에서 죽여 불고. 구장이.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구장인데, 살은 것은 계난, 원래 성격이 고지식해 놓으니까, 아무 말도 아이 들은 거라. 폭도 말도 아이. 폭도덜 밤이 동넛 아이덜 아니라이? 동네 청년덜이라.(이쪽 말 안 들면 이쪽에서 죽여 버리고, 저쪽 말 안 들면 저쪽에서 죽여 버리고. 구장이.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구장인데, 산 것은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고지식해 놓으니까, 아무 말도 아니 들은 거라. 폭도 말도 아니. 폭도들 밤에 동네 아이들 아니라? 동네 청년들이라.)

101001 @1 예.(예.)

101001 #1 저, 산에 올라간 바로 이 동네 아이덜, 청년덜이 올라 가지고, 며, 저, 쫄 달라. 며, 저, 며 하간 거, 며, 장 달라고 밤엔. 며 구장침을 온 거라. 그 처음에. 처음 스삼스건 예, 스십팔년도, 스삼스건 시월달이니까, 혼 삼월달, 스월달 처음에 내 보면은, 게 공개적으로 텅겨어. 낮이도 총 쏘려메고, 폭도, 저저, 산에 올라간 동네 청년덜이.(저, 산에 올라가서 바로 이 동네 아이들, 청년들이 올라 가지고, 뭐, 저, 쫄 달라. 뭐, 저, 뭐 여러 가지 뭐, 장 달라고 밤엔. 뭐 구장 집을 온 거라. 그 처음에. 처음 사삼사건 예, 사십팔년도, 사삼사건 시월이니까, 한 삼월, 사월 처음에

내 보면은, 거 공개적으로 다녔어. 낮에도 총 둘러메고, 폭도, 저저, 산에 올라간 동네 청년들이.)

101001 @1 아.(아.)

101001 #1 그것 ㄴ라 무장대엔 허지?(그것을 무장대라고 하지?)

101001 @1 예, 무장대.(예, 무장대.)

101001 @2 계난, 경 보민 어도 이구가 잇고 어도 일구가 잇지 안허우파예? 이 동네 봉성리 주변은 예, 어음리, 그다음에 납읍리³⁰.(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도 이구가 잇고 어도 일구가 잇지 않습니까? 이 동네 봉성리 주변은 예, ‘어음리’, 그다음에 ‘납읍리’.)

101001 #1 납읍리.(납읍리.)

101001 @2 납읍리, 그다음 광지리?(납읍리, 그다음 광지리?)

101001 #1 광지리³¹는 저 알마을이고.(광지리는 저 아랫마을이고.)

101001 @2 음.(음.)

101001 #1 저, 어도, 귀덕³²이고.(저, 어도, 귀덕이고.)

101001 @2 귀덕으로 부텃구나예. 귀덕 부트고, 납읍 부트고, 어음 부트고.(귀덕으로 붙었군요. 귀덕 붙고, 납읍 붙고, 어음 붙고.)

101001 #1 예.(예.)

101001 @2 어음 부트고예?(어음 붙고요?)

101001 #1 어음 부트고.(어음 붙고.)

101001 @2 경 행 그 안에 이제, 봉성이 안에 잇고.(그렇게 해서 그 안에 이제, 봉성이 안에 잇고.)

101001 #1 예.(예.)

101001 @2 봉성 일구는 아, 어도 일구는.(봉성 일구는 아, 어도 일구는.)

101001 #1 일구는 예, 그 당시에, 요즘 ㄴ르면 우리가 볼 때에 국회의원 자격된 사람이 이구에 살아서. 일본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현 사름이 어도 이구에 살았는데, 참말로 연설도 잘허고, 고등학교 일본서 나온 사름이, 문○○라고 현 사름이. 그 저, 남평 문씨라. 그디가 아주 종손이라.(일구는 예, 그 당시에, 요즘 같으면 우리가 볼 때에, 국회의원 자격된 사람이 이구에 살았어. 일본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한 사람이 어도 이구에 살았는데, 참말로 연설도 잘하고, 고등학교 일본서 나온 사람이, 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저, 남평 문씨라. 거기가 아주 종손이라.)

101001 @2 음.(음.)

101001 #1 문○○렌 현 사름이 사는데, 우리 아버지허고 현 댓살 밀엔디 막 친헤여. 우리 아버지 구장이라도 그 문○○ 말만 들어. ○○가 이레 험서 하민 이레허고, 저레 험서 허민 저레. 똑똑헌 사름이 잇는데, ㄴ찌 소개령을 냈는데, 하이튼 그 계엄군, 저, 군, 저, 계엄사령부에서 한 일주일간 여유 줘서. 전부 뜯영 나가라,

30) ‘납읍리’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와 봉성리 사이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31) ‘광지리’는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와 금성 사이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32) ‘귀덕’은 제주시 한림읍의 동쪽 끝에 있고, 애월읍 금성의 서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아니면 불살라 버리겠다. 겐디 혼 일주일간에, 보통 옛날 집은 형성된 게, 안거리가 있고, 밧거리가 있고, 쉼막이 있고.(문○○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한 댓살 밑인데 막 친해. 우리 아버지 구장이라도 그 문○○ 말만 들어. ○○가 이리 하십시오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십시오 하면 저리.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같이 소개령을 냈는데, 하여튼 그 계엄군, 저, 군, 저, 계엄사령부에서 한 일주일간 여유 줬어. 전부 뜯어서 나가라, 아니면 불살라 버리겠다. 그런데 한 일주일간에, 보통 옛날 집은 형성된 것이, 안채가 있고, 바깥채가 있고, 외양간이 있고.)

101001 @1 음.(음.)

101001 #1 혼 세대에 꼭 세 채라. 식구들은 하고 세 채인데. 그, 집을 다 뜯을 수가 없어. 안거리만 전부 안거리만 뜯어 나오고, 나머지는 밧거리하고 쉼막은 내버리니까 전부 불살라 버려서. 계서 소개령을 하고 어디 오냐면, 이 동네 거의 오고. 거의 이 동네에 소개, 가까운 친척집이나, 우리도 소개해서 저 구물동에 간 살고 해신디. 그 문○○엔 혼 사람이 기가 막히게, 그 일본에서 참 공부, 대학까지 다녀난 사람. 놈이 집이 밧거리 요 닳은 방 하나 빌어, 식구들, 그때는 혼 식구가 으쌰 열 돼서. 자식들이 예일곱명 돼고, 부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혼 삼 세대가 ㄱ짜 살았거던게.(한 세대에 꼭 세 채라. 식구들은 많고 세 채인데. 그, 집을 다 뜯을 수가 없어. 안채만 전부 안채만 뜯어서 나오고, 나머지는 바깥채하고 외양간은 내버리니까 전부 불살라 버렸어. 그래서, 소개령을 하고 어디 오냐면, 이 동네 거의 오고. 거의 이 동네에 소개, 가까운 친척집이나, 우리도 소개해서 저 구물동에 가서 살고 했는데. 그 문○○라고 하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그 일본에서 참 공부, 대학까지 다녀오던 사람. 남의 집의 바깥채 요 닳은 방 하나 빌려서, 식구들, 그때는 한 식구가 여덟 열 됐어. 자식들이 예일곱 명 되고, 부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한 삼 세대가 같이 살았거든.)

101001 @1 음.(음.)

101001 #1 방 하나에 열 명이 사니까 아주 기가 막히거든. 초가집이. 어디, 심지어는 쉼막 ㄱ짜 디도 빌어 살고. 완 두 달을 살아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밧이 혼 몇 천, 삼천 평 되는 땅이, 이것이 저 강○○라고. 지금도 강, 서문 밧 일등 부재. 강○○니까, 이 밧을 외상으로 빌어오자. 어막이라도 짓어 이녁 집이 살아야지. 우리 아버지 추구린 거야. 문○○가, 그때 경찰이 있었어. 그때에. 주둔소라고.(방 하나에 열 명이 사니까 아주 기가 막히거든. 초가집에. 어디, 심지어는 외양간 같은 데도 빌려서 살고. 와서 두 달을 살아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밧이 한 몇 천, 삼천 평 되는 땅이, 이것이 저 강○○라고. 지금도 강, 서문 밖 일등 부재. 강○○이니까, 이 밧을 외상으로 빌려 오자. 움막이라도 지어서 이녁 집에 살아야지. 우리 아버지 부추긴 거야. 문○○이가, 그때 경찰이 있었어. 그때에. 주둔소라고.)

101001 @1 음.(음.)

101001 #1 스삼사건에 무장대 자꾸 침입허니까. 방지, 저, 경찰이 있는데, 경찰

데리고 서이가 이젠 이 밭 임제한티 훑아간 거라.(사삼사건에 무장대 자꾸 침입하니까. 방지, 저, 경찰이 있는데, 경찰 데리고 서이가 이젠 이 밭 임자한테 훑아간 거라.)

101001 @2 음.(음.)

101001 #1 당신 경찰관은 안 내놓겐 하민 억압으로라도 해야지. 밭을 내놓으시오. 우리 살 길이 없으니까. 우리 친족이주게. 게난 외상으로 이, 앞으로 살당 돈 벌영 받으라. 어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당시는 경찰관은 안 내놓으려고 하면 억압으로라도 해야지. 밭을 내놓으시오. 우리 살 길이 없으니까. 우리 친족이지. 그러니까 외상으로 이, 앞으로 살다가 돈 벌어서 받으라. 어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

101001 @2 음.(음.)

101001 #1 흔 삼천 평 땅. 이 땅을 내놔. 이제 삼천 평을 보조받아 가지고, 어도 이구 사름덜이 스, 저 시월에 소개하고, 바로 삼월달에 이 집을 지언 이 동네 형성현 거라. 그게 신명동이라.(한 삼천 평 땅. 이 땅을 내놔서. 이제 삼천 평을 보조받아 가지고, 어도 이구 사람들이 사, 저 시월에 소개하고, 바로 삼월에 이 집을 지어서 이 동네 형성현 거라. 그게 '신명동'이라.)

101001 @1 아.(아.)

101001 #1 백 호 이 동네. 백 호가 어도 이구라. 게서 일구하고 이구가 오십년도에는 또 합병을 해 붙었어.(백 호 이 동네. 백 호가 어도 이구라. 그래서 일구하고 이구가 오십년도에는 또 합병을 해 버렸어.)

101001 @1 예.(예.)

101001 #1 그래서 어도, 어도리로 간 등록시켜 붙어서. 합병허니까.(그래서 어도, 어도리로 가서 등록시켜 버렸어. 합병하니까.)

101001 @1 예.(예.)

101001 #1 이디. 일구하고 이구가 합병허니까.(여기. 일구하고 이구가 합병하니까.)

101001 @1 예.(예.)

101001 #1 구장도 합병돼어 불고 리장이 되고. 초대 이장이 되고.(구장도 합병되어 버리고, 이장이 되고. 초대 이장이 되고.)

101001 @1 예. 어도리.(예. 어도리.)

101001 #1 어도리로 그때 뉘서. 사삼사건 당시.(어도리로 그때 뉘어. 사삼사건 당시.)

101001 @2 구물동하고 여기가 어도 일구?('구물동'하고 여기가 어도 일구?)

101001 #1 일구.(일구.)

101001 @2 일구.(일구.)

101001 #1 그래서 이 신명동이, 이 마을이 그냥 형성이 뉘니까, 뜬 마을, 낚음이 나 상가나 어음이나, 다 소개해도 그냥 놔이 집이 살다가, 흔 일 년 시니까 이젠 본

고향으로 다 가 가지고, 지키고 사는데. 우리 어도 이구는 또 이디 정착해 부니까.
(그래서 이 '신명동'이, 이 마을이 그냥 형성이 되니까, 딴 마을, 납읍이나 상가나
어읍이나, 다 소개해도 그냥 남의 집에 살다가, 한 일 년 있으니까 이젠 본 고향으
로 다 가 가지고, 지키고 사는데. 우리 어도이구는 또 여기 정착해 버리니까.)

101001 @2 음.(음.)

101001 #1 정착해 부니까 하나토 올라가질 안 해서.(정착해 버리니까 하나도 올
라가질 안 했어.)

101001 @1 올라가질 안 해연.(올라가질 안 했어.)

101001 #1 계난에 이제 그, 스삼스건 당시, 잃어버린 마을로 등록이, 잃어버린.
마을 잃어버린. 그 비석도 있어. 그디 가민. 잃어버린 마을로 등록이 돼서. 이제 신
명동이 비참하게 머, 재건지엔 해여.(그러니까 이제 그, 사삼사건 당시, 잃어버린 마
을로 등록이, 잃어버린. 마을 잃어버린. 그 비석도 있어. 거기 가면. 잃어버린 마을
로 등록이 됐어. 이제 신명동이 비참하게 뭐, 재건지라고 해.)

101001 @1 예.(예.)

101001 #1 재건지, 재건한 마을. 저 보통 일구 사름덜이 나무래여. ㄴ딱 머 머
저디 재건지 것덜, 재건지 것덜.(재건지, 재건한 마을. 저 보통 일구 사람들이 나무
래. 까딱 뭐, 뭐, 저기 재건지 것들, 재건지 것들.)

101001 @1 허허.(허허.)

101001 #1 가난한 것덜 머, 이러한 현상도 있어.(가난한 것들 뭐, 이러한 현상도
있어.)

101001 @1 정착해연에 주로 무슨 일덜 허멍 살아수과?(정착해서 주로 무슨 일
들 하면서 살았습니까?)

101001 #1 농사. 그디 고향에 농사짓던 디. 밭 들어강.(농사. 거기 고향에 농사
짓던 데. 밭 들어가서.)

101001 @1 원래 있던 이녁네 밭디 강은에.(원래 있던 자기네 밭에 가서.)

101001 #1 원래 있던, 여기서 혼 스 키로 오죽. 일구 사름은 가차운 땅이고 이
구 사름은, 스 키로 오 키로민 그렇게 피곤해서.(원래 있던, 여기서 한 사 킬로 오
죽. 일구 사름은 가까운 땅이고 이구 사름은, 사 킬로 오 킬로면 그렇게 피곤했어.)

101001 @1 아아.(아아.)

101001 #1 걸영 땡겨 불.(걸어서 다녀 버릴.)

101001 @2 열리왔은 마을이 지금 이수과?(열리왔은 마을이 지금 있습니까?)

101001 #1 아, 엇어. ㄴ짜, ㄴ짜 이디 와 불언.(아, 없어. 같이, 같이 여기 와 버
렸어.)

101001 @2 사라전?(사라졌어?)

101001 #1 져 문○○이네 다 이디 와 불언.(그래서 문○○이네 다 여기 와 버렸
어.)

101001 @2 응.(응.)

101001 #1 하나가 돼 불언.(하나가 돼 버렸어.)
 101001 @1 기자 머, 보리농사.(그저 뭐, 보리농사.)
 101001 #1 보리농사, 콩 조.(보리농사, 콩 조.)
 101001 @1 조, 팻.(조, 팻.)
 101001 #1 아, 그 모밀.(아, 그 메밀.)
 101001 @1 모밀.(메밀.)
 101001 #1 그거 주로 헨.(그거 주로 했어.)
 101001 @1 요샌, 요샌 여긴 무슨 농사 험수과?(요샌, 요샌 여긴 무슨 농사 하고
 있습니까?)
 101001 #1 아, 여기는 경작지가 워낙 널르고. 흔 삼분지일은 신엄, 괄지, 금성
 사람이 와서 임대해서 벌어.(아, 여기는 경작지가 워낙 너르고. 한 삼분지일은 신엄,
 괄지, 금성 사람이 와서 임대해서 벌어.)
 101001 @1 예.(예.)
 101001 #1 버는데, 예,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양배추라.(버는데, 예,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양배추라.)
 101001 @1 양배추.(양배추.)
 101001 #1 그다음 브로콜리.(그다음 브로콜리.)
 101001 @1 브로콜리.(브로콜리.)
 101001 #1 요즘 보면 하작물에는 저 머 강냉이.(요즘 보면 하작물에는 저 뭐, 강
 냉이.)
 101001 @1 음.(음.)
 101001 #1 옥수수.(옥수수.)
 101001 @1 음.(음.)
 101001 #1 또 수박. 호박.(또 수박. 호박.)
 101001 @1 음.(음.)
 101001 #1 여름에는 그거. 지금, 지금은.(여름에는 그거. 지금, 지금은.)
 101001 @1 여기 오름은, 여기 도노미오름 말양 무시겨 또, 뭐 이수과? 오름.(여
 기 오름은, 여기 ‘도노미오름’ 말고 뭐 또, 뭐 있습니까? 오름.)
 101001 #1 저디 눈오름³³⁾이엔 현 디.(저기 ‘눈오름’이라고 하는 데.)
 101001 @1 눈오름.(‘눈오름’.)
 101001 #1 영 크진 안 허고. 거 쪼끔.(이렇게 크진 안 하고. 거 조금.)
 101001 @1 흥끔 서넛편드레.(조금 서넛 쪽으로.)
 101001 #1 요디, 요디.(요기, 요기.)
 101001 @1 가민 눈오름.(가면 ‘눈오름’.)
 101001 #1 눈오름.(‘눈오름’.)
 101001 @1 눈오름 가기 전에 쪼끌락헌 오름 또 있지 안 허파?(‘눈오름’ 가기 전

33) ‘눈오름’은 제주시 애월읍 서쪽에 낮게 가로누운 오름이다.

에 아주 작은 오름 또 있지 않습니까?)

101001 #1 눈오름이 제일 가까운 데 있고, 지금 한 이 키로.(‘눈오름’이 제일 가까운 데 있고, 지금 한 이 킬로.)

101001 @1 저 우트레 올라가면마썸?(저 위로 올라가면요?)

101001 #1 저 우트레 올라가면 저 돌.(저 위로 올라가면 저 돌.)

101001 @2 이달오름?(‘이달오름’?)

101001 #1 이달봉³⁴.(‘이달봉’.)

101001 @1 이달오름.(‘이달오름’.)

101001 #1 새별오름³⁵.(‘새별오름’.)

101001 @1 새별오름.(‘새별오름’.)

101001 #1 그 우트레 올라가면 저디 궤밀오름³⁶, 동물오름³⁷.(그 위로 올라가면 저기 ‘궤밀오름’, ‘동물오름’.)

101001 @2 켓물오름예?(‘켓물오름’요?)

101001 #1 예. 켓물오름, 동물오름.(예. ‘켓물오름’, ‘동물오름’.)

101001 @1 음.(음.)

101001 #1 그, 부튼 거, 쌍둥이로 영.(그, 붙은 거, 쌍둥이로 이렇게.)

101001 @1 ㄱ사 그, 정진내 말앙 또 내가 동녘펜더레 또 있지 안허파? 내?(아까 그, ‘정진내’ 말고 또 내가 동녘 쪽으로 또 있지 않습니까? 내?)

101001 #1 동녘 쪽에는 엇고.(동녘 쪽에는 없고.)

101001 @1 엇고?(없고?)

101001 #1 내 엇은, 내, 하천 엇은 동네가 납읍이라.(내 엇은, 내, 하천 엇은 동네가 납읍이라.)

101001 @1 아.(아.)

101001 #1 하천 엇은 동네가 납읍이라. 마을마다 하천이 다 있는데.(하천 엇은 동네가 납읍이라. 마을마다 하천이 다 있는데.)

101001 @1 예.(예.)

101001 #1 납읍은 하천이 엇어.(납읍은 하천이 없어.)

101001 @1 엇어양.(없어요.)

101001 #1 겨허고 이 저, 정짓내 이, 저쪽 저, 이게 금성천이엔 현 디 다 부텃주. 어음허고.(그리고 이 저, 정짓내 이, 저쪽 저, 이게 ‘금성천’이라고 하는 데 다 붙었지. 어음하고.)

101001 @1 음.(음.)

101001 @2 금성천예.(금성천요.)

34) ‘이달봉’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서쪽에 있는 오름이다. 달리 ‘이달이오름’, ‘이달오름’이라고도 한다.

35) ‘새별오름’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평화로변의 시온목장 남서쪽에 있는 오름이다. 달리 ‘새별오름’이라고 한다.

36) ‘궤밀오름’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간에 있는 오름으로 ‘궤물오름’, ‘궤미오름’이라고 한다.

37) ‘동물오름’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간에 있는 오름인데, ‘독물오름’이라고도 한다.

101001 #1 경계를.(경계를.)

101001 @2 금성천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라예?(금성천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101001 #1 금성천. 저 솔도 우에. 저 솔도 우에 돌오름이엔 현 디가 이수다.(금성천. 저 ‘솔도’ 위에. 저 ‘솔도’ 위에 ‘돌오름’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101001 @1 음.(음.)

101001 @2 돌오름.(‘돌오름’.)

101001 #1 저 우에. 돌오름 위로, 열리 울로 내려온 물이 이거 산내, 산내 허는 게 금성천이라.(저 위에. ‘돌오름’ 위로, ‘열리’ 위로 내려온 물이 이거 ‘산내’, ‘산내’ 하는 게 ‘금성천’이라.)

101001 @1 그제 응, 정짓내.(그제 응, ‘정짓내’.)

101001 #1 정짓내.(‘정짓내’.)

101001 @1 정짓내.(‘정짓내’.)

101001 #1 정자내지. 정자. 박○○라고. 그디도 저, 건 어음에 살아서. 어음에. 박○○, 정지, 그 사람이.(‘정자내’지. 정자. 박○○라고. 거기도 저, 건 어음에 살았어. 어음에. 박○○, 정지, 그 사람이.)

101001 @1 음.(음.)

101001 @2 정жат내.(‘정жат내’.)

101001 #1 정жат내. 저, 이름 붙여 가지고 정жат내.(‘정жат내’. 저, 이름 붙여 가지고 ‘정жат내’.)

101004 @1 그 내 이신디 며, 큰 바위 ㄱ쁜 건 엇수과? 무신, 저, 어디 서귀포 ㄱ쁜 디 가민 외돌개여, 며 이런 식으로 며.(그 내 있는 데 뭐, 큰 바위 같은 건 없습니까? 무슨, 저, 어디 서귀포 같은 데 가면 외돌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101004 @2 돌? 돌.(돌? 돌.)

101004 @1 영.(이렇게.)

101004 #1 그런 건 엇고.(그런 건 없고.)

101004 @1 엇고.(없고.)

101004 #1 평범허고. 저 우에 퀘물오름 가면 저, 소이터라고 현 디가 잇어이.(평범하고. 저 위에 ‘퀘물오름’ 가면 저, ‘소이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

101004 @1 소이터?(‘소이터’?)

101004 #1 어, 소이터. 그디 절도 잇어나고 현 딘디. 그디 가면은 생수가 나.(어, ‘소이터’. 거기 절도 있었고 한 데인데. 거기 가면은 생수가 나.)

101004 @1 아.(아.)

101004 #1 생수가 나서 소이터물. 생수가 나서. 예, 저쪽에 흑골물도 생수가 나고. 그보다 쪽게 나. 소이터물이 보면은 쪽게 나는데. 이, 그 소이터가 그 퀘물오름 앞에 있는데, 이 정짓내 바로.(생수가 나서 ‘소이터물’. 생수가 나서. 예, 저쪽에 ‘흑골물’도 생수가 나고. 그보다 적게 나. ‘소이터물’이 보면은 적게 나는데. 이, 그 ‘소

이터'가 그 '케밀오름' 앞에 있는데, 이 '정짓내' 바로.)

101004 @2 음.(음.)

101004 #1 그 내인디.(그 내인테.)

101004 @2 그, 들어갈 때 보민 내, 저 물이 하나 잇어예.(그, 들어갈 때 보민 내, 저 물이 하나 있어요.)

101004 #1 예. 그 큰 물.(예. 그 큰 물.)

101001 @1 그게 켓물이 아니고 소이터?(그게 '켓물'이 아니고 '소이터'?)

101001 #1 응. 소이터. 켓디 옛날 여기 그, 가축을 많이 질루왔어.(응. '소이터'. 그런데 옛날 여기 그, 가축을 많이 길렀어.)

101001 @1 예.(예.)

101001 #1 부자덜은 쉼도 몇 십 머리씩 질르고, 백 머리씩 질르고, 몰덜 질르고. 꼭 팔월, 아, 칠월 열나흘날, 음력으로 칠월 십사일 백중날이엿 허여.(부자들은 소도 몇십 머리씩 기르고, 백 마리씩 기르고, 말들 기르고. 꼭 팔월, 아, 칠월 열나흘 날, 음력으로 칠월 십사 일 백중날이라고 해.)

101001 @2 음.(음.)

101001 #1 그디 강 제 지내. 축산업자들.(거기 가서 제 지내. 축산업자들.)

101001 @1 응.(음.)

101001 #1 흐룻밤을 자 가지고. 제 지내고, 우리 저, 축산들 잘 되게 해 줘서. 영 제서 지내는 곳이 소이터. 소이터.(하룻밤을 자 가지고. 제 지내고, 우리 저, 축산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사 지내는 곳이 '소이터'. '소이터'.)

101001 @1 그디 무슨 굴도 이수과? 켓이 이신가마썸? 사름 즘잘 수 있는, 영 오물락허게 들어간.(거기 무슨 굴도 있습니까? 켓이 있는가요? 사름 잠잘 수 있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101001 #1 아, 켓³⁸는, 켓은 그 아래 자굴왓켓이라고 큰 켓이 잇어.(아, 켓은, 켓은 그 아래 '자굴왓켓'이라고 큰 켓이 잇어.)

101001 @1 아. 자울락켓.(아. '자울락켓'.)

101001 #1 자굴왓켓. 자굴, 자굴왓켓.(자굴왓켓. 자굴, 자굴왓켓.)

101001 @1 자굴왓켓.(자굴왓켓.)

101001 #1 자굴왓켓. 또 저 그, 소이터 아래는 흘축뱃켓. 큰 켓이 잇어. 지금도 잇어.(자굴왓켓. 또 저 그, '소이터' 아래는 '흘축뱃켓'. 큰 켓이 잇어. 지금도 잇어.)

101001 @1 아.(아.)

101001 #1 견디 그 자굴왓켓이 여기서 오 킬로. 스삼사건 당시에 그, 오십 선거 반대라고 해 가지고, 어떤 일인지 우리 혼 요숫, 봉신 모르고 므을 사름을 편쩍 우 트로 보내 불엇어. 자동으로 다.(그런데 그 '자굴왓켓'이 여기서 오 킬로. 사삼사건 당시에 그, 오십 선거 반대라고 해 가지고, 어떤 일인지 우리 한 여섯, 영문 모르고

38) '켓'은 위로 큰 바위나 절벽 따위로 가려지고, 땅 속으로 깊숙하게 패어 들어간 굴이다.

마을 사람을 씻은 듯이 위로 보내 버렸어. 자동으로 다.)

101001 @1 음.(음.)

101001 #1 설득을. 하여튼 폭도덜 설득을 받아서.(설득을. 하여튼 폭도들 설득을 받아서.)

101001 @1 예.(예.)

101001 #1 남로당 것덜. 게 우리도 흐룻밤을 오월 십일날 올라가 가지고 오월 십일일날 내려오고. 그 자굴왓퀘에서. 흐 동네가 다.(남로당 것들. 그래 우리도 하룻밤을 오월 십일 날 올라가 가지고 오월 십일일 날 내려오고. 그 ‘자굴왓퀘’에서. 한 동네가 다.)

101001 @1 자굴왓퀘에서 줌.(‘자굴왓퀘’에서 잠.)

101001 #1 열 호가 한번에 그디 간. 흐룻밤 사. 그 오십선거 반대라고 해서 그때. 말짜엔 왜 그디 간, 나도 그, 봄인데 자굴왓퀘 앞에 그, 새왓이 있어. 그때 우린 봉신 모르고 뺑이라고 있어 새.(열 호가 한번에 거기 갔어. 하룻밤 사. 그 오십선거 반대라고 해서 그때. 말짜엔 왜 그디 간, 나도 그, 봄인데 ‘자굴왓퀘’ 앞에 그, 띠발이 있어. 그때 우린 영문 모르고 뺑기라고 있어 띠.)

101001 @1 예.(예.)

101001 #1 그런 거 빠 먹으멍 놀단 기억이 나 가지고 말짜에 알아보니까, 그, 오십 선거 반대하라고 해서 그레 갖단에.(그런 거 빠 먹으면서 놀던 기억이 나 가지고 말짜에 알아보니까, 그, 오십 선거 반대하라고 해서 그리 갔다가.)

101001 @1 아.(아.)

101001 #1 자이 어도 일구 전부. 머 자동적으로 그게 무슨 균중심리로 인해서.(자이 어도 일구 전부. 뭐 자동적으로 그게, 무슨 균중심리로 인해서.)

101001 @1 예.(예.)

101001 #1 전부 선거 반대로, 오월 구일날 전부 올라갔어요. 그런 우리도 자굴왓퀘. 큰 퀘.(전부 선거 반대로, 오월 구일 날 전부 올라갔어요. 그런 우리도 ‘자굴왓퀘’. 큰 굴.)

101001 @2 그 옷드르³⁹⁾ 가면은 그 퀘물.(그 ‘옷드르’ 가면은 그 ‘퀘물’.)

101001 #1 퀘물.(‘퀘물’.)

101001 @2 켓물오름하고 술도까지도 다.(‘켓물오름’하고 ‘술도’까지도 다.)

101001 #1 술도까지, 화전동.(‘술도’까지, ‘화전동’.)

101001 @2 도노미 지역.(‘도노미’ 지역.)

101001 #1 도노미. 화전동이라고 그건 또.(‘도노미’. ‘화전동’이라고 그건 또.)

101001 @2 그게 화전동. 게난 그, 어도리도 목장이 있어났지예.(그게 ‘화전동’. 그러니까 그, 어도리도 목장이 있었죠?)

101001 #1 아이고, 훌축밭게, 훌축밭디. 지금도 있어.(아이고, ‘훌축밭’, 훌축밭디. 지금도 있어.)

39) ‘옷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이다.

101001 @2 흘축밭.(‘흘축밭’.)
101001 @1 흘축밭마씀?(‘흘축밭’요?)
101001 #1 흘축밭. 육소장.(‘흘축밭’. 육소장.)
101001 @1 육소장.(육소장.)
101001 #1 육소장. 일소장은 제주시로 이소장, 삼소장.(육소장. 일소장은 제주시로 이소장, 삼소장.)
101001 @2 예.(예.)
101001 #1 그, 목장으로 육소장을 배정받아 가지고.(그, 목장으로 육소장을 배정받아 가지고.)
101005 @1 아, 흘축밭.(아, ‘흘축밭’.)
101005 #1 흘축밭.(‘흘축밭’.)
101006 @1 옛날에 여기 계난, 꺾사 그 저, 그때는 군인, 아 저저, 경찰도 영 주둔.(옛날에 여기 그러니까, 아까 그 저, 그때는 군인, 아 저저, 경찰도 이렇게 주둔.)
101006 #1 주둔.(주둔.)
101006 @1 헤넛텐 헌디, 그거 말고 기관 ㄴ뎡 건 엇우과? 이 동네 기관은.(했었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기관 같은 건 없습니까? 이 동네 기관은.)
101006 #1 학교벳긴.(학교밖에는.)
101006 @1 학교벳긴 엇고예. 음, 전이 여기 무슨 계나 접. 무슨 그런 것들은 생각나는 거 이수과? 접. 무슨 회.(학교밖엔 없고요. 음, 전에 여기 무슨 계나 접. 무슨 그런 것들은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접. 무슨 회.)
101006 #1 아, 계, 계.(아, 계, 계.)
101006 @1 계.(계.)
101006 #1 계가 많았지.(계가 많았지.)
101006 @1 무슨 계, 무슨 계 있어났수과?(무슨 계, 무슨 계 있었습니까?)
101006 # 하나의 저 계, 계 모임이라고. 아는 사람끼리 모여 가지고, 돈덜 모여서, 아니면 열 명이나 열댓 명씩 조직해 가지고 깻돈을 모아. 어디 노동을 허든지.(하나의 저 계, 계모임이라고. 아는 사람끼리 모여 가지고, 돈들 모아서, 아니면 열 명이나 열댓 명씩 조직해 가지고 깻돈을 모아. 어디 노동을 하든지.)
101006 @1 예.(예.)
101006 #1 배당을 하든지 해서 깻돈 모아 가지고, 그 사람, 계원 중에 경조사가 나나 어디 집을 새로 짓으나 허민 부조를 해 줘. 계원에서 정식으로. 꼭 골루로.(배당을 하든지 해서 깻돈 모아 가지고, 그 사람, 계원 중에 경조사가 나나 어디 집을 새로 지으나 하면 부조를 해 줘. 계원에서 정식으로. 꼭 골고루.)
101006 @1 그런 이름들이 이실 거 아니꽈? 무슨 계. 뭐 그걸.(그런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계. 뭐 그걸.)
101006 #1 하나이 알아지는 거는 저기 저, 천막계라고 허는.(하나 알아지는 거는 저기 저, 천막계라고 하는.)

101006 @1 천막계.(천막계.)
101006 #1 큰 계가 잇었어.(큰 계가 있었어.)
101006 @1 예.(예.)
101006 #1 건 뭐, 혼 백 명, 오십 명 정도.(건 뭐, 한 백 명, 오십 명 정도.)
101006 @1 예. 천막계.(예. 천막계.)
101006 #1 천막계.(천막계.)
101006 @1 마당에 치는.(마당에 치는.)
101006 #1 마당에 저, 대소서 헐 때 이런.(마당에 저, 대소사 할 때 이런.)
101006 @1 예, 예, 천막계.(예, 예, 천막계.)
101006 #1 그때는 돈 받았 빌려주고.(그때는 돈 받아서 빌려주고.)
101006 @1 예, 빌려주고.(예, 빌려주고.)
101006 #1 걸어당 보관하고.(걸어다가 보관하고.)
101006 @1 그릇 같은 거.(그릇 같은 거.)
101006 #1 아, 그릇계도 있고.(아, 그릇계도 있고.)
101006 @1 그릇계도 잇고양.(그릇계도 잇고요.)
101006 #1 아, 그릇 허면은 경조사에덜 빌려 주고. 그 대, 솟꺼지도 다 잇었어.
(아, 그릇 하면은 경조사에들 빌려 주고. 그 대, 솟까지도 다 잇었어.)
101006 @1 예.(예.)
101006 #1 뭐 저, 사발 전부 그, 대사에 허면 사름 많이 대접허쟁 허면은, 집안
에 엇일 거 아니꽈? 계에서 빌어당 헛당 돈.(뭐 저, 사발 전부 그, 대사에 하면 사
람 많이 대접하려고 하면은, 집안에 없을 거 아닙니까? 계에서 빌려다가 했다가
돈.)
101006 @1 어떤, 장례 치르젠 허면 허는 무슨 계, 뭐 있지 았우꽈? 상뒷계? 상
뒷계?(어떤, 장례 치르려고 하면 하는 무슨 계, 뭐 있지 았습니까? ‘상뒷계’? ‘상뒷
계’?)
101006 #1 상뒷계인데, 이 디는 상뒷계가 동별로 다 달라. 상뒷가 중화동이면
중화동 계 상두. 신명동이면 신명동 상뒷계.(상두계인데, 여기는 상두계가 동별로
다 달라. 상두가 중화동이면 중화동 계 상두. 신명동이면 신명동 상두계.)
101006 @1 예.(예.)
101006 #1 서성동은 서성동 상두.(서성동은 서성동 상두.)
101006 @1 음.(음.)
101006 #1 거, 동별로 거, 상두가 다 달라져. 그것ㄴ라 혼 골⁴⁰⁾, 두 골이엿 허
여. 골.(거, 동별로 거, 상두가 다 달라져. 그것을 한 골, 두 골이라고 하여. 골.)
101006 @1 골?(골?)
101006 # 으, 혼 골. 우리 저디 골, 골이라는 거는 그, 혼 골을 다 집나. 전 골을

40) ‘골’은 동네에 장사가 났을 때 남정들이 의무적으로 장지에 나가서 뒷 쓰는 역사를 번갈아 가며 돕는, 동네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집단을 말한다.

빈다. 이런 상뒤에. 조금 가난허거드민 반 골만 빌고.(으, 한 골. 우리 저기 골, 골이라는 거는 그, 한 골을 다 집는다. 전 골을 빈다. 이런 상뒤에. 조금 가난하다면 반 골만 빌리고.)

101006 @1 아아.(아아.)

101006 # 저디 저, 장례식 때에. 그렇게 웬 거.(저기 저, 장례식 때에. 그렇게 된 거.)

101006 @1 혼 골 빌기도 허고.(한 골 빌리기도 하고.)

101006 # 반 골 빌기도.(반 골 빌리기도.)

101006 @1 반 골 빌기도 하고.(반 골 빌리기도 하고.)

101006 # 없는 사람은 가난, 조금 저, 가난헌 사람은 반 골만 빌어 가지고.(없는 사람은 가난, 조금 저, 가난한 사람은 반 골만 빌려 가지고.)

101006 @1 아.(아.)

101006 #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아이고, 저 집이 전 골 저, 동원햐수다. 이런. 지금까지도.(좀 여유 있는 사람은 아이고, 저 집이 전 골 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까지도.)

101006 @1 음. 전 골.(음. 전 골.)

101006 #1 그 저, 장례식 때 혼 골, 반 골.(그 저, 장례식 때 한 골, 반 골.)

101007 @1 혼 골, 반 골. 음. 여기 어떤 뭐, 좋은 풍습 같은 거, 이 동네에 뭐 전해 내려오는, 그런 건 엇우과? 풍습. 특별히 뭐 다른 마을보다 이 동네에만 뭐, 자랑할 만한.(한 골, 반 골. 음. 여기 어떤 뭐, 좋은 풍습 같은 거, 이 동네에 뭐 전해 내려오는, 그런 건 없습니까? 풍습. 특별히 뭐 다른 마을보다 이 동네에만 뭐, 자랑할 만한.)

101001 #1 이 동네에만은, 이 신명동만은 예, 그 우에서, 이구에서 비참하게 완사니까 단체가 잘 돼 가지고.(이 동네에만은, 이 '신명동'만은 예, 그 위에서, 이구에서 비참하게 와서 사니까 단체가 잘 돼 가지고.)

101007 @1 예.(예.)

101007 #1 그, 우리 선배들이 예, 어도 일구 이구 전, 합틀어 가지고 청년회를 조직헌 디가 여기. 혼 오십오년도 쯤에.(그, 우리 선배들이 예, 어도 일구 이구 전, 통틀어 가지고 청년회를 조직한 데가 여기. 한 오십오년도 쯤에.)

101007 @1 아.(아.)

101007 #1 여기 신명동 청년회. 그 신명동 청년회만, 청년회가 영 엇인디, 신명동 청년회만 거 저, 우리 선배들이 영 보면은 지금, 지금 혼 구십 세, 무진생 경오 생덜이 거, 일본에서 공부헌 사람덜이라.(여기 '신명동' 청년회. 그 '신명동' 청년회만, 청년회가 영 없는데, '신명동' 청년회만 거 저,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지금 한 구십 세, 무진생 경오생들이 거,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라.)

101007 @1 음.(음.)

101007 #1 글도 잘 쓰고. 영 알안 보니까 일본에서 중학교 나왔다, 소학교 나오

면은 일본 스혹교 정도만 나와도 한자는 뭐, 여기 최고 수준급이라. 일본 소학교만 나와도 한자는. 일본에는 한자로만 쓰는 모양이더고. 공부를. 국민학교도. 이 사람덜이 참. 그 단체로 이제.(글도 잘 쓰고. 이렇게 알아서 보니까 일본에서 중학교 나왔다, 소학교 나오면은 일본 소학교 정도만 나와도 한자는 뭐, 여기 최고 수준급이라. 일본 소학교만 나와도 한자는. 일본에는 한자로만 쓰는 모양이더라고. 공부를. 국민학교도. 이 사람들이 참. 그 단체로 이제.)

101007 @1 음.(음.)

101007 #1 청년회를 결성해 가지고.(청년회를 결성해 가지고.)

101007 @1 어린 아이덜 막 가르쳐 주꼭 그.(어린 아이들 막 가르쳐 주고 그.)

101007 #1 야학. 야학도.(야학. 야학도.)

101007 @1 야학을 했구나양. 그 혼 오륙십년대에.(야학을 했군요. 그 한 오륙십년대에.)

101007 #1 예. 오십년대에. 응 여자덜 보통. 우리 남자덜은 저디 이 저, 한문서당을 많이 갑니다. 한문.(예. 오십년대에. 응, 여자들 보통. 우리 남자들은 저기 이 저, 한문서당을 많이 갑니다. 한문.)

101007 @1 예.(예.)

101007 #1 서당 많이 다니고.(서당 많이 다니고.)

101008 @1 음. 그싸 그, 특산물이 여기 양배추, 브로콜리.(음. 아까 그, 특산물이 여기 양배추, 브로콜리.)

101008 #1 양배추, 브로콜리.(양배추, 브로콜리.)

101008 @1 브로콜리. 요즘에 또 뭐 특별히.(브로콜리. 요즘에 또 뭐 특별히.)

101008 #1 옥수수.(옥수수.)

101008 @1 아.(아.)

101008 #1 또, 수박.(또, 수박.)

101008 @1 옥수수는 그, 그냥.(옥수수는 그, 그냥.)

101008 #1 강냉이, 강냉이.(강냉이, 강냉이.)

101008 @1 계난 뿌레기⁴¹⁾차 그냥 푼는 걸로?(그러니까 ‘뿌레기’째 그냥 파는 걸로?)

101008 #1 그거 따 가지고 상인덜한테 풀아서.(그거 따 가지고 상인들한테 팔았어.)

101008 @1 아.(아.)

101008 #1 상인덜이 사례 와. 한 해에 얼마씩 그자. 저 통짜 혼 차씩.(상인들이 사례 와. 한 해에 얼마씩 그저. 저 통짜 한 차씩.)

101008 @1 아.(아.)

101008 #1 수박 같은 거는 또 밧떼기로도 풀고.(수박 같은 거는 또 밧떼기로도

41) ‘뿌레기’는 수수, 벼 따위 식물의 이삭이 채 나오기 전에 껍질에 싸여 불룩하게 된 것으로 달리 ‘부레기’, ‘부룩’이라고 한다.

팔고.)

101008 @1 밧떼기로.(밭떼기로.)

101008 #1 이 저, 양배추는 거의 밧떼기로 팔고.(이 저, 양배추는 거의 밧떼기로 팔고.)

101009 @1 예. 그 ㄴ싸 그런 공부들 행 왕은에 청년회 조직한 거, 이제 그런 거 말고, 또 뭐 자랑할 만한 건 잇수과? 이 동네.(예. 그 아까 그런 공부들 하고 와서 청년회 조직한 거, 이제 그런 거 말고, 또 뭐 자랑할 만한 건 없습니까? 이 동네.)

101009 #1 자랑할 만한 건.(자랑할 만한 건.)

101009 @1 다른 마을허고 다른, 그런 건 잇고양.(다른 마을하고 다른, 그런 건 없고요.)

101009 #1 하여튼 단체는 잘 됐어. 이 동네.(하여튼 단체는 잘 됐어. 이 동네.)

101009 @1 아.(아.)

101009 #1 신명동은.(‘신명동’은.)

101009 @1 새로 만들어진 마을이난애.(새로 만들어진 마을이니까.)

101009 #1 계난 동네에서 시위허다시피 허연 죽 살다가, 예, 친구백육십오 년 당시에 저, 전이 도의원 허단 강○○이란 사람이 잇엇어. 도의원.(그러니까 동네에서 시위하다시피 해서 죽 살다가, 예, 친구백육십오 년 당시에 저, 전에 도의원 하던 강○○이란 사람이 잇엇어. 도의원.)

101009 @1 예.(예.)

101009 #1 도의회 부의장까지. 이 사람이 대학도 나오고, 저 ○○건설 사장도 해나고. 이 사람이 군인 간 알오티씨로 군인 간 장교로 제대헤연 왔는데, 뭇 없이 그뻐 청년회가 이 동네에만 잇을 때, 신명동만 이실 뻐인디 와 가지고, 나보단 대요 슷 설 밑엔디, 형님 우리 어도, 그뻐 봉성리 전체 청년회를 조직할 테이니 추진위원장을 맡아 달라. 다 내가, 나보고.(도의회 부의장까지. 이 사람이 대학도 나오고, 저 ○○건설 사장도 했었고. 이 사람이 군대 가서, 알오티씨로 군대 가서, 장교로 제대 해서 왔는데, 뭇 없이 그뻐 청년회가 이 동네에만 잇을 때, 신명동만 잇을 뻐인디 와 가지고, 나보단 대여섯 살 밑인디, 형님 우리 어도, 그뻐 봉성리 전체 청년회를 조직할 테이니 추진위원장을 맡아 달라. 다 내가, 나보고.)

101009 @1 예.(예.)

101009 #1 나 신명동 청년회장 때이지 나. 마트면은 초대청년회장을 자기가 하겠다. 아, 그래서 내가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전체 이 저, 청년덜을 불러다 모아 가지고, 그뻐, 그뻐 한 육십오 년도 경에 봉성리 청년회를 조직허고, 그 사람이 초대 청년회장도 허고.(나 ‘신명동’ 청년회장 때이지 나. 말으면은 초대청년회장을 자기가 하겠다. 아, 그래서 내가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전체 이 저, 청년들을 불러다 모아 가지고, 그뻐, 그뻐 한 육십오 년도 경에 봉성리 청년회를 조직하고, 그 사람이 초대 청년회장도 하고.)

101009 @1 음.(음.)

101009 #1 이렇게 해서 저 그, 시에 가서 도의원도 하고 헛주마는.(이렇게 해서 저 그, 시에 가서 도의원도 하고 했지마는.)

101009 @1 음.(음.)

101009 #1 그런 역사도.(그런 역사도.)

2. 제보자 일생

102001 @1 이제부터 저, 삼촌 나고 자란 그 말씀 해 줘서. 그, 아홉 살.(이제부터 저, 삼촌 나고 자란 그 말씀 해 주십시오. 그, 아홉 살.)

102001 #1 하하.(하하.)

102001 @1 부터.(부터.)

102001 #1 그, 자리왓 동네에 그, 서당이라고 한 거 잇었어. 학교라는 게. 학교.(그, '자리왓' 동네에 그, 서당이라고 하는 거 잇었어. 학교라는 게. 학교.)

102001 @1 자왓?('자왓?')

102001 #1 자리왓 동네.('자리왓' 동네.)

102001 @1 자리왓 동네.('자리왓' 동네.)

102001 #1 그디 서당이 있는데, 그 학교라. 일 학년, 이 학년, 삼 학년, 스 학년 까지. 그 일본서 고등학교 나왔던 강○○라는 사람이 선생인데, 워낙 실력이 좋아 가지고, 내가 혼 삼월달쯤에 서당을 붙어 가지고, 시월달에 춤, 혼 팔월달쯤에 이제 건, 거 폐교해 버리니까.(거기 서당이 있는데, 그 학교라. 일 학년, 이 하년, 삼 학년, 사 학년까지. 그 일본서 고등학교 나왔던 강○○라는 사람이 선생인데, 워낙 실력이 좋아 가지고, 내가 한 삼월쯤에 서당을 붙어 가지고, 시월에 참, 한 팔월쯤에 이제 건, 거 폐교해 버리니까.)

102001 @1 몇 살 때?(몇 살 때?)

102001 #1 아홉 살에.(아홉 살에.)

102001 @1 아홉 살에. 계난 그때.(아홉 살에. 그러니까 그때.)

102001 #1 스삼스건 당시에 삼월달에 부떠서.(사삼사건 당시에 삼월에 붙었어.)

102001 @1 예.(예.)

102001 #1 계난 지금 와서 그 후에 내가 자세, 자세히 모든, 나 거 관심을, 이 마을 형성이나 이제 그런 걸, 판단을 해 보니까, 그 선생이 그 저, 조금 그, 남로당 쪽에 일본에서부터.(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 후에 내가 자세, 자세히 모든, 나 거 관심을, 이 마을 형성이나 이제 그런 걸, 판단을 해 보니까, 그 선생이 그 저, 조금 그, 남로당 쪽에 일본에서부터.)

102001 @1 아.(아.)

102001 #1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예, 우리 그 학생덜을 예, 그, 데모려는 식으로 덜 돌아댕기멍 깃을별로 영 허고, 그런 느낌도 있고.(그런 게 있어 가지고, 예, 우리

그 학생들을 예, 그, 데모하는 식으로들 돌아다니면서 마을별로 이렇게 하고, 그런 느낌도 있고.)

102001 @1 음.(음.)

102001 #1 그, 사삼사건이 나니까 저, 산에 가서 사상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죽 아, 이거 그때 우린 남로당이고 머 알아게?(그, 사삼사건이 나니까 저, 산에 가서 사상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죽 아, 이거 그때 우린 남로당이고 뭐 알아?)

102001 @1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2001 #1 폭도허고 뭐, 경찰만 알지. 절대 몰르고, 나중에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다 현 결 알았고. 그러니깐 한 팔월달 경에 스삼스건, 스십팔년 팔월달 경인데, 우리 학생덜을, 그때 이런 개인집이 학교니까, 나 점심시간에 학교 그 마을에 전부 모여 가지고, 그 학교 안에 그 선생이영 처자식이 같이 살아. 방 하나 영 해 가지고 사는데, 선생 처가 고구마 쳐 가지고 차롱착에 가져왔는데, 먹으라고 학생덜. 먹는데 아, 총소리가 팡팡 난단 말이야.(폭도하고 뭐, 경찰만 알지. 절대 몰르고, 나중에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다 하는 결 알았고. 그러니깐 한 팔월 경에 사삼사건, 사십팔 년 팔월 경인데, 우리 학생들을, 그때 이런 개인집이 학교니까, 나 점심시간에 학교 그 마을에 전부 모여 가지고, 그 학교 안에 그 선생과 처자식이 같이 살아. 방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사는데, 선생 처가 고구마 쳐 가지고 채롱에 가져왔는데, 먹으라고 학생들. 먹는데 아, 총소리가 팡팡 난단 말이야.)

102001 @1 아.(아.)

102001 #1 총소리가. 그 학교를 다 포위해서. 경찰관. 학교를.(총소리가. 그 학교를 다 포위해서. 경찰관. 학교를.)

102001 @1 예.(예.)

102001 #1 그때 그 선생허고 그 읍집이 동네 청년허고 둘이 ㄴ찌 있을 때인데. 우린 몰르고 ㄴ만이 왔었지. 그 선생은 뒤에 대왔디. 대왔더레 도망치더구만.(그때 그 선생하고 그 옆집의 동네 청년하고 둘이 같이 있을 때인데. 우린 몰르고 가만히 앉았지. 그 선생은 뒤에 대밭에. 대밭으로 도망치더구먼.)

102001 @1 음.(음.)

102001 #1 그 청년허고 둘이 도망쳐 가지고 저 동우터레 튀었지. 계란 그때 경찰이 쫓아간에 선생은 총 쏘 죽이고. 한 사람은 강○○엔 현 사람인데, 이 사람 운 좋젠 허니까 총을 발에 맞안게. 발에 맞아도 막 뛰어가 가지고 저 저, 저디 열리왔 동네 금천사라고 있어. 그디 간 곱안에 살았는데, 이 사람은 천운을 가진 사람이라. 그때 꼭, 나중에 스삼사건 연루가, 일로 연루가 웨어실 거여. 일본서 공부 대학까지 현 사람인데.(그 청년하고 둘이 도망쳐 가지고 저 동북쪽으로 튀었지. 그러니까 그때 경찰이 쫓아가서 선생은 총 쏘서 죽이고. 한 사람은 강○○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운 좋으려고 하니까 총을 발에 맞았어. 발에 맞아도 막 뛰어가 가지고 저 저, 저기 '열리왔' 동네 금천사라고 있어. 거기 가서 숨어서 살았는데, 이 사람은 천

운을 가진 사람이라. 그때 꼭, 말쑤에 사삼사건 연루가, 일로 연루가 되었을 거여. 일본서 공부 대학까지 한 사람인데.)

102001 @1 음.(음.)

102001 #1 연루가 뒤편 건디, 경찰덜이 한자를 몰라. 강○○인데 말쑤 애월면 장까지 흔 사름이라. 그 사름이. 스삼스건 당시엔 남로당 애월면장까지 흔 사름인디, 그 경찰덜이 강○○만 나오라는 거여.(연루가 되었을 건데, 경찰들이 한자를 몰라. 강○○인데 나중 애월면장까지 한 사람이라. 그 사름이. 사삼사건 당시엔 남로당 애월면장까지 한 사람인데, 그 경찰들이 강○○만 나오라는 거야.)

102001 @1 흐.(흐.)

102001 #1 강○○인디.(강○○인데.)

102001 @2 허허.(허허.)

102001 #1 말쑤 담 쟈.(말쑤 담 잔.)

102001 @1 예.(예.)

102001 #1 그, 말쑤 언변에 불 화 둘인디.(그, 말쑤 언변에 불 화 둘인데.)

102001 @1 예.(예.)

102001 #1 강○○이 임금 왕 변에 불 화거든게.(강○○이 임금 왕 변에 불 화거든.)

102001 @2 담 자로 보여실 거우다게.(담 자로 보였을 겁니다.)

102001 #1 계난 이제는, 경찰들이 무식해 가지고 뭐 글제를 알아게. 한자를. 강○○만 막 좇이레.(난 이제는, 경찰들이 무식해 가지고 뭐 글자를 알아? 한자를. 강○○만 막 좇으러.)

102001 #1 강○○이 없다 이 마을에.(강○○이 없다 이 마을에.)

102001 @1 흐.(흐.)

102001 @2 허허.(허허.)

102001 #1 허난 그게, 그게 살아 가지고, 말쑤에는, 일본서 고등학교 흔 사름이 난애 애월면에 임시로 왔단 면장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그런, 그때에 보니까 그 선생이 강○○ 선생인데, 일본에서 학교 할 때부터 남로당 계열에. 그, 그때는 아마 이 동네 제주도 청년들이 거의, 거의 그, 그.(하니까 그게, 그게 살아 가지고, 나중에는, 일본서 고등학교 한 사람이니까 애월면에 임시로 왔다가 면장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그런, 그때에 보니까 그 선생이 강○○ 선생인데, 일본에서 학교 할 때부터 남로당 계열에. 그, 그때는 아마 이 동네 제주도 청년들이 거의, 거의 그, 그.)

102001 @2 공부했다는 사람들은.(공부했다는 사람들은.)

102001 #1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마을에 청년, 요망진 사람들은 전부 그 사상으로. 그러헌.(공부했다는 사람들은, 마을에 청년,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그 사상으로. 그러헌.)

102001 @1 삼촌네 부모님은 그때 어떻 헛수과? 계난.(삼촌네 부모님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102001 #1 우리 아버지가 구장 때인다.(우리 아버지가 구장 때인데.)

102001 @1 구장, 어머니도 계실 때.(구장, 어머니도 계실 때.)

102001 #1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지.(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지.)

102001 @1 아.(아.)

102001 #1 그 사름덜, 경찰덜 오면은 잘 멕여야 될 거 아니야. 이, 득도 잡아.
(그 사람들, 경찰들 오면은 잘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이, 닭도 잡아서.)

102001 @1 예.(예.)

102001 #1 영 하고. 밤에는 폭도 오면 또 밥해 주고.(이렇게 하고. 밤에는 폭도 오면 또 밥해 주고.)

102001 @1 예.(예.)

102001 #1 게 저, 우리 아버지는 이 동네 구장, 그 전에도 거 저, 죽은 사름, 경찰한테 죽은 사름도 잇주마는 이레착저레착⁴²⁾ 허당은 꼭 근데. 거 저, 영 허는, 들으니까 거, 동네 아이덜, 폭도덜앞이 막 욱을 허더라고. 너네들이 왜 죄가 없으면은 산에 올라강 사느냐. 왜 여기 뗏뗏허게 집에서 살면서 하지 왜 산에 올라가느냐. 왜 도둑놈^ㄴ찌 산에 강덜 허느냐. 막 욱을 허데.(거 저, 우리 아버지는 이 동네 구장, 그 전에도 거 저, 죽은 사람, 경찰한테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레착저레착’ 하다가는 꼭 말하데. 거 저, 이렇게 허는, 들으니까 거, 동네 아이들, 폭도들한테 막 욱을 하더라고. 너희들이 왜 죄가 없으면은 산에 올라가서 사느냐. 왜 여기 뗏뗏허게 집에서 살면서 하지 왜 산에 올라가느냐. 왜 도둑놈같이 산에 가서들 하느냐. 막 욱을 하데.)

102001 @1 예.(예.)

102001 #1 겨고 경찰한테 낮에 오면은 모른다고만 허고.(그리고 경찰한테 낮에 오면은 모른다고만 하고.)

102001 @1 예.(예.)

102001 #1 폭도덜, 게서 했는데, 그때에 그, 혼, 나는 혼 석 달, 혼 뗏 달인가 학교에 다녀져신가 왔는데. 그때 그 소개민이란 게 그 저, 바로 거지라게.(폭도들, 그래서 했는데, 그때에 그, 한, 나는 한 석 달, 한 뗏 달인가 학교에 다녀나, 왔는데. 그때 그 소개민이란 게 그 저, 바로 거지라.)

102001 @1 음.(음.)

102001 #1 거진데. 저, 도가칩⁴³⁾이라고 향사, 저, 마을회관.(거진데. 저, 도가라고 향사, 저, 마을회관.)

102001 @1 예.(예.)

102001 #1 마을회관이 저 오름 밑에 잇는데, 이젠 틀어 붙엇주마는. 아, 이거 우리야 옷드르 살단 오니까 몰멩하지 아냐? 옷도 바지저고리 입언 다니고. 아, 동네 원 본토백이 아이가, 우리 연령 ^ㄴ뜬 아이가 ^ㄴ찌 놀단, 너 학교 부뜨레 가자. 학교

42) ‘이레착저레착’은 마음이나 행동을 하나로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상태를 표현한다.

43) ‘도가칩’은 마을에 공의사(公議事)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모일 장소로 하는 집으로 ‘도가(都家)’에 대응한다.

부뜨레.(마을회관이 저 오름 밑에 있는데, 이젠 뜯어 버렸지마는. 아, 이거 우리야 ‘웃드르’ 살다가 오니까 ‘몰멩흐지’ 았아? 옷도 바지저고리 입어서 다니고. 아, 동네 원 본토박이 아이가, 우리 연령 같은 아이가 같이 놀다가, 너 학교 붙으러 가자. 학교 붙으러.)

102001 @1 예.(예.)

102001 #1 그 놈이 요망진 놈이난게, 본토백이고 허난 날 돌안 그디 간. 여기서 학교 부뜰 건디. 그 선생 이름이 흥○○이엔 현 선생인디. 그땐 경 허더고. 너 몇 학년으로 부뜰래?(그 놈이 ‘요망진’ 놈이니까, 본토박이고 하니까 날 데려서 거기 갔어. 여기서 학교 붙을 건데. 그 선생 이름이 흥○○이라고 하는 선생인데. 그땐 그렇게 하더라고. 너 몇 학년으로 붙을래?)

102001 @1 허허.(허허.)

102001 #1 거, 경흐는 거라. 아, 그 앞에 간 놈이 이 학년으로 부뜨겠습니다. 겐 나도 이 학년으로 부뜨게.(거, 그렇게 하는 거라. 아, 그 앞에 간 놈이 이 학년으로 붙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학년으로 붙게.)

102001 @1 예.(예.)

102001 #1 그 놈은 저, 이 학년에 다니던 놈.(놈은 저, 이 학년에 다니던 놈.)

102001 @1 아.(아.)

102001 #1 귀덕 학교 다니다가, 난 그놈만 믿언, 이 학년으로 부뜨겠습니다. 허 연.(귀덕 학교 다니다가, 난 그놈만 믿어서, 이 학년으로 붙겠습니다. 했어.)

102001 @2 몇 살 때? 열 살?(몇 살 때? 열 살?)

102001 #1 열 살게.(열 살.)

102001 @2 아.(아.)

102001 #1 나도 이 학년으로 부뒸다. 게니까 부뜰 때, 그 자리왓 서당에서 어떻게 공부헌진 모르지마는 한문은 다 알았지. 더하기 빼기 다 알았지.(나도 이 학년으로 붙었다. 그러니까 붙을 때, 그 ‘자리왓’ 서당에서 어떻게 공부헌진 모르지마는 한문은 다 알았지. 더하기 빼기 다 알았지.)

102001 @1 예.(예.)

102001 #1 한글은 다 알고 한 상태에서 그 학교를 붙은 거라. 붙영 우리 한 이십 명, 이학년이. 그놈이 두달 땡기당 모슬포로 전학 가 불고. 하는데. 공부 아주. 가정 형편이, 우리 아버지 구장하면서 빚을 엄청 내분 거라. 그 당시에. 엄청 곤란했지. 식구는 많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한글은 다 알고 한 상태에서 그 학교를 붙은 거라. 붙어서 우리 한 이십 명, 이학년이. 그놈이 두 달 다니다가 ‘모슬포’로 전학 가 버리고. 하는데. 공부 아주, 가정 형편이, 우리 아버지 구장하면서 빚을 엄청 내버린 거라. 그 당시에. 엄청 곤란했지. 식구는 많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102001 @1 계난 육이오는 초등학교 삼학년 때 낫수과?(그러니까 육이오는 초등학교 삼학년 때 낫습니까?)

102001 #1 삼학년 때.(삼학년 때.)

102001 @1 그때에 공부는 여름 지나면 공부 못한 거 아니라예?(그때에 공부는 여름 지나면, 공부 못 한 거 아니에요?)

102001 #1 아, 쪽 하고. 학교 가.(아, 쪽 하고. 학교 가.)

102001 @1 아, 전쟁 나도?(아, 전쟁 나도?)

102001 #1 예. 폭도 불 붙여 불언 전소한 데 새로. 육이오 전에 인가 받은게 남의 집 빌언, 이 학년 이 집이. 죽 그래도 학교 명칭은 허가 받았 하는데. 중학교는 애월인데 별로 없고, 말도 못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가렌도 안 하고. 초등학교도 가렌도 안 하고, 나대로 가고. 초등학교도 육성회비 낼 때라. 반도 안 가. 돈 엇엉. (예. 폭도 불 붙여 버려서 전소한 데 새로. 육이오 전에 인가 받은 게 남의 집 빌려서, 이 학년 이 집에. 죽 그래도 학교 명칭은 허가 받아서 하는데. 중학교는 애월인데 별로 없고, 말도 못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가라고도 안 하고. 초등학교도 가라고도 안 하고, 나대로 가고. 초등학교도 육성회비 낼 때야. 반도 안 가. 돈 없어서.)

102001 @1 아.(아.)

102001 #1 반도 안 간. 나는 계도 초등학교 졸업혜영 가만히 누워 사는데, 경찰관이 있어. 파견대라고 하는. 사삼사건 당시. 아, 젊은 놈들이 와서 날 불러내는 거라. 파견대 경찰 근무하는 데 가서, 너는 중학교 안 가니까 여기서 근무해야 된다고.(반도 안 갔어. 나는 그래도 초등학교 졸업해서 가만히 누워 사는데, 경찰관이 있어. 파견대라고 하는. 사삼사건 당시. 아, 젊은 놈들이 와서 날 불러내는 거라. 파견대 경찰 근무하는 데 가서, 너는 중학교 안 가니까 여기서 근무해야 된다고.)

102001 @1 예.(예.)

102001 #1 아, 잠도 안 자고 기가 막히게 딱리고.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는 그런 말도 못 하고, 어머니한테 아이고, 잠도 못 자고, 이런 말 하니까, 어머니가 사임당 같은 사람이라. 나, 그때는 외아들이고.(아, 잠도 안 자고 기가 막히게 때리고.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는 그런 말도 못 하고, 어머니한테 아이고, 잠도 못 자고, 이런 말 하니까, 어머니가 사임당 같은 사람이라. 나, 그때는 외아들이고.)

102001 @1 예.(예.)

102001 #1 동생 안 난 때고 한 때에, 어음리 군인이, 경찰이 아니 사난 어음 친구한테 당장 강 방을 빈 거라. 이불 하나 가져가 가지고, 우리 아들 여기서 좀 자게 하라. 아침엔 집에서 나왕 조반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도망가 불면. 마침 간 계 독선생을 만났어.(동생 안 낳은 때고 한 때에, 어음리 군인이, 경찰이 아니 사니까 어음 친구한테 당장 가서 방을 빈 거라. 이불 하나 가져가 가지고, 우리 아들 여기서 잠 자게 하라. 아침엔 집에서 나와서 조반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도망가 버리면. 마침 간 계 독선생을 만났어.)

102001 @1 독선생이렌 하면?(독선생이라고 하면?)

102001 #1 한문 선생인디 아들들하고 공부시키는데, 낮인 그디 가면 한문 선생인디 나를 빨긴 거야. 어머니가. 딸기니까 이놈의 하르방이 상위권 행 나왔는데, 그

디 간에 뭘 보냐면, 보통고시 가르치더라고.(한문 선생인데 아들들하고 공부시키는데, 낮엔 거기 가면 한문 선생인데 나를 맡긴 거야. 어머니가. 맡기니까 이놈의 할아버지가 상위권 해서 나왔는데, 거기 가서 뭘 보냐면, 보통고시 가르치더라고.)

102001 @1 예.(예.)

02001 #1 그때는 고등고시, 보통고시가 있어. 고등고시는 사법고시고, 보통고시는 행정고시라. 그런 거더구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보통고시를 가르쳐.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주산. 그때는 주산이 최고엔 허연. 주산이엔 한 건, 지금은 은행엘 가나 읍사무소엘 가나 다 주산이라.(그때는 고등고시, 보통고시가 있어. 고등고시는 사법고시고, 보통고시는 행정고시라. 그런 거더구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보통고시를 가르쳐.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주산. 그때는 주산이 최고라고 했어. 주산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은행엘 가나 읍사무소엘 가나 다 주산이라.)

102001 @1 예.(예.)

102001 #1 주산을 가르치고. 아, 이젠 그때 영어도 배우고. 자 산, 수학도 보통고시 그런 거, 흔 서넉 달, 일 년도 안 험. 흔 육 개월쯤 돼신가, 해방되어 부난 그, 경찰들 저기 가 부난, 나가 집에 와 불언.(주산을 가르치고. 아, 이젠 그때 영어도 배우고. 자 산, 수학도 보통고시 그런 거, 한 서넉 달, 일 년도 안 해서. 한 육 개월쯤 됐는가, 해방되어 버리니까 그, 경찰들 저기 가 버리니까, 내가 집에 와 버렸어.)

102001 @1 아.(아.)

102001 #1 경헌디 하, 머리가 딱, 도가 튼 거라 그때.(그런데 하, 머리가 딱, 도가 튼 거라 그때.)

102001 @1 음.(음.)

102001 #1 머리가, 공부에 대한 도가.(머리가, 공부에 대한 도가.)

102001 @1 예.(예.)

102001 #1 엄청나게 도가 트고. 주산도 요즘 고등학교 졸업허젠 허민 주산 삼급 못 따는 게 전부주. 못 따는데 전표사는 삼 급을 따서. 그때.(엄청나게 도가 트고. 주산도 요즘 고등학교 졸업하려고 하면 주산 삼 급 못 따는 게 전부지. 못 따는데 전표사는 삼 급을 따서. 그때.)

102001 @1 음.(음.)

102001 #1 주산 보통 스 급 정도 따고.(주산 보통 사 급 정도 따고.)

102001 @2 전표산 부기.(전표산 부기.)

102001 #1 전표사는 한자로 쓰는 거 있어. 가지고 걸으멍 허는 거.(전표사는 한자로 쓰는 거 있어. 가지고 걸으면서 하는 거.)

102001 @2 아아.(아아.)

102001 #1 상고 나왕 영 들어 보니까, 삼 학년 나와도 전표사 못 따지만.(상고 나와서 이렇게 들어 보니까, 삼 학년 나와도 전표사 못 따지만.)

102001 @1 음.(음.)

102001 #1 중학교 일 학년 때 전표사 삼급을 따 불언.(중학교 일 학년 때 전표

사 삼급을 따 버렸어.)

102001 @1 음.(음.)

102001 #1 겐 애월중학교. 부모넌 곤지도 안 허고. 아이, 중학교 가야지. 공부하고 싶어 가지고.(그래서 애월중학교. 부모넌 말하지도 안 하고. 아이, 중학교 가야지. 공부하고 싶어 가지고.)

102001 @1 예.(예.)

102001 #1 그땐 시험 치를 때라고. 중학교 시험.(그땐 시험 치를 때라고. 중학교 시험.)

102001 @1 중학교 시험.(중학교 시험.)

102001 #1 시험 치를 때고. 이제 간 시험 치런. 합격해야 아버지한테 골을 수가 있어. 중학교 합격해야. 그래서 상위권으로 합격 헨에.(시험 치를 때고. 이제 가서 시험 치렸어. 합격해야 아버지한테 말할 수가 있어. 중학교 합격해야. 그래서 상위권으로 합격 하고서.)

102001 @1 예.(예.)

102001 #1 그때에는 그, 광지나 애월이나 신업, 중업, 구업 문딱, 문딱 애월중학교. 중학교 었을 때.(그때에는 그, 광지나 애월이나 ‘신업, 중업, 구업’ 모두, 모두 애월중학교. 중학교 었을 때.)

102001 @1 음.(음.)

102001 #1 아, 그 중학교 가서 해변, 옷드리 걸 나무레여. 옷드리 멘주기 해변 보드레기 하명.(아, 그 중학교 가서 해변, ‘옷드리’ 걸 놀러. ‘옷드리’ 올챙이, 해변 배도라치 하면서.)

102001 @2 허허.(허허.)

102001 #1 모르주. 그런 말 있어. 해변은 보드레기.(모르지. 그런 말 있어. 해변은 배도라치.)

102001 @1 보드레기.(배도라치.)

102001 #1 옷드르는 멘주기.(‘옷드르’는 올챙이.)

102001 @2 멘주기. 허허.(올챙이. 허허.)

102001 #1 아 이, 나무려. 항상. 거 부자주게 잘살주게. 이 해변더레. 참, 우린 소개민이고 옷드리 중에도 최고 가난한 사람인디.(아 이, 놀러. 항상. 거 부자지. 잘살지. 이 해변 쪽에. 참, 우린 소개민이고 ‘옷드르’ 중에도 최고 가난한 사람인디.)

102001 @1 예.(예.)

102001 #1 에이, 이놈으 새끼덜, 내가 공부로 이거 콧덜 멜라 주마. 행,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저 세숫대야에 물 떠다 놓으멍. 즐지 말젠.(에이, 이놈의 새끼들, 내가 공부로 이거 콧덜 놀러 주마. 해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저, 세숫대야에 물 떠다 놓으면서. 즐지 않으려고.)

102001 @1 예.(예.)

102001 #1 그렇게 공부해연, 혼 학급에 육십오 명이라이. 육십오 명인데. 혼 번

탁 시험 천 이등 했주.(그렇게 공부해서, 한 학급에 육십오 명이라. 육십오 명인데. 한 번 탁 시험 쳐서 이등 했지.)

102001 @1 아.(아.)

102001 #1 일학년 때. 경헨 곧, 경허니깐 이것덜이, 부짚 거 아니?(일 학년 때. 그렇게 해서 곧, 그러니까 이것들이, 붙일 거 아니?)

1102001 @1 예.(예.)

102001 #1 그때는 다 이름 공개라. 일등으로 육십오 등까지.(그때는 다 이름 공개라. 일등으로 육십오 등까지.)

102001 @1 예.(예.)

102001 #1 경헨에, 참 그때 역사를 골으면은, 그, 담임선생이 현○○이엔 혼 선생인데 말재엔 교장ㄱ장도 했주마는. 했는데, 나, 학급실장 해서 거.(그렇게 해서, 참 그때 역사를 말하면은, 그, 담임선생이 현○○이라고 하는 선생인데 나중에 교장 까지도 했지마는. 했는데, 나, 학급실장 했어. 거.)

102001 @2 시엣 사름.(시엣 사람.)

102001 #1 으?(으?)

102001 @2 시엣 사름.(시엣 사람.)

102001 #1 시엣 사름. 저, 저 광양⁴⁴.(시엣 사람. 저, 저 광양.)

102001 @2 과양.(광양.)

102001 #1 저기.(저기.)

102001 @2 ○○예식장.(○○예식장.)

102001 #1 정년퇴직 허고.(정년퇴직 하고.)

102001 @2 예.(예.)

102001 #1 ○○예식장 허고. 나 잘 아는디.(○○예식장 하고. 나 잘 아는데.)

102001 @1 예.(예.)

102001 #1 나를 어떻게 친하게 봤는지.(나를 어떻게 친하게 봤는지.)

102001 @1 아.(아.)

102001 #1 시험을 보면은 일등으로 육십오 등까지, 삼일 간 나와 가지고. 이거 등수를 메겨라.(시험을 보면은 일등으로 육십오 등까지, 삼일 간 나와 가지고. 이거 등수를 매겨라.)

102001 @1 웃음.(웃음.)

102001 #1 빵을 사 줘. 늬 다 풀언 가는디 빵을 사 줘.(빵을 사 줘. 남 다 풀어 서 가는데 빵을 사 줘.)

102001 @1 음.(음.)

102001 #1 혼 삼천 원짜리 빵 사다 주면서.(한 삼천 원짜리 빵 사다 주면서.)

102001 @1 음.(음.)

102001 #1 이거 먹으면서. 아, 이젠 일등부터 육십오 등까지 등수를 고르라고.

44) '광양'은 제주시 이도이동의 한 자연마을이다.

그때는 왜 등수를 고르냐 허면은 그때는. 경벳기 못 허주. 그때는 선생이 잘, 괴로 왕 못 허겠더고만. 나난 헛주. 그때 우리 할 때는, 영어 오백 점, 수학 오백 점, 국 어 스백 점, 뮌, 지리 이백 점, 백점, 음악 ㄱ쁜 거. 이런 식으로 해영, 담임선생이 문딱 시험 치른 거 해 주면, 시험지영 다 갖다 주면은.(이거 먹으면서. 아, 이젠 일 등부터 육십오 등까지 등수를 고르라고. 그때는 왜 등수를 고르냐 하면은 그때는. 그렇게밖에 못 허지. 그때는 선생이 잘, 괴로워서 못 하겠더구먼. 나니까 했지. 그때 우리 할 때는, 영어 오백 점, 수학 오백 점, 국어 사백 점, 뮌, 지리 이백 점, 백점, 음악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담임선생이 전부 시험 치른 거 해 주면, 시험지와 다 갖다 주면은.)

102001 @1 예.(예.)

102001 #1 각 선생이 그 점수 문딱 갖다 줄 거 아니라? 수학 선생이 그거 갖다 주고.(각 선생이 그 점수 전부 갖다 줄 거 아니라? 수학 선생이 그거 갖다 주고.)

102001 @1 예.(예.)

102001 #1 수학, 국어 선생 그, 우리 학급에.(수학, 국어 선생 그, 우리 학급에.)

102001 @1 예.(예.)

102001 #1 다 갖다 주면, 그거를 합쳐 가지고 평균점수 내영, 일등으로 육십오 등까지 굴리는 걸, 그걸 나보고 허렌.(다 갖다 주면, 그거를 합쳐 가지고 평균점수 내어서, 일등으로 육십오 등까지 가리는 걸, 그걸 나보고 하라고.)

102001 @2 허허.(허허.)

102001 #1 주산 잘허고 공부도 이등 허난.(주산 잘하고 공부도 이등 하니까.)

102001 @2 허허.(허허.)

102001 @1 예.(예.)

102001 #1 양심상. 어디 그런 게 있어. 제자보고 시험 해영.(양심상. 어디 그런 게 있어. 제자보고 시험 해서.)

102001 @2 허허.(허허.)

102001 #1 경 해연 빵 먹으멍 해나신디.(그렇게 해서 빵 먹으면서 했었는데.)

102001 @1 허허.(허허.)

102001 #1 내중에는 이 선생이, 너는 상고만 가면 무조건 은행에 가. 너는. 백 프로 은행에 가. 상고를 갈 수가 있어게? 애월서. 돈도 엇인디. 어떻 제주도 학교 야간엘 다녀. 방도 엇고, 누게 부모네 친척도 엇고, 늙은 부모네 능력도 엇고. 경해 연 포기해 가지고.(나중에는 이 선생이, 너는 상고만 가면 무조건 은행에 가. 너는. 백 프로 은행에 가. 상고를 갈수가 있어? 애월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제주도 학교 야간엘 다녀. 방도 없고, 누구 부모네 친척도 없고, 늙은 부모네 능력도 없고. 그래서 포기해 가지고.)

102001 @1 음.(음.)

102001 #1 하, 내 그, 독학으로 줌, 법 공부를 줌 혼 이 년 했어.(하, 내 그, 독학으로 줌, 법 공부를 줌 한 이 년 했어.)

102001 @1 예.(예.)

102001 #1 늬덜은 그 당시에 예, 어떻게 했냐면 믱을마다 혼 이십대 뉘면은 짱패덜이 수드락혀. 조직 짱패.(남들은 그 당시에 예, 어떻게 했냐면 마을마다 한 이십대 뉘면은 짱패들이 수두룩해. 조직 짱패.)

102001 @1 예.(예.)

102001 #1 늬 짱패. 귀덕 가민 귀덕 짱패.(날 짱패. 귀덕 가면 귀덕 짱패.)

102001 @2 허허.(허허.)

102001 #1 봉성도 짱패가 혼 열 명 있어. 우리 연령에 패덜이. 견디 우리 봉성도 짱패덜은 있는데, 오야붕이 있고. 이놈으 짱패덜이 나한테는 꼬딱 간섭을 안 헤여.(봉성도 짱패가 한 열 명 있어. 우리 연령에 패들이. 그런데 우리 봉성도 짱패들은 있는데, 우두머리가 있고. 이놈의 짱패들이 나한테는 까딱 간섭을 안 해.)

102001 @2 음.(음.)

102001 #1 딱리지도 안 허고.(때리지도 안 하고.)

102001 @1 음.(음.)

102001 #1 그자 영 말 굴음도. 꼬딱 안 헤여.(그저 이렇게 말하기도. 까딱 안 해.)

102001 @2 자유당 시절이구나.(자유당 시절이구나.)

102001 #1 자유당 시절. 이, 우리 스무 남은, 자유당 시절. 나는 그, 짱패보다도 공부만 헤연. 공부만. 법학도는 육법전서 사다 가지고. 돈딱 한자라.(자유당 시절. 이, 우리 스무 남은, 자유당 시절. 나는 그, 짱패보다도 공부만 했어. 공부만. 법학도는 육법전서 사 가지고. 전부 한자라.)

102001 @1 음.(음.)

102001 #1 옥편 사다 놓으멍, 한잘 독학으로 헤연, 공부를 헤연 놔두니까 씨떡을 때가 잇더구만.(옥편 사다 놓으면서, 한잘 독학으로 했어, 공부를 해서 놔두니까 씨떡을 때가 잇더구먼.)

102001 @1 예.(예.)

102001 #1 이, 특별조치법, 부동산.(이, 특별조치법, 부동산.)

102001 @1 예.(예.)

102001 #1 거 나오니까, 그, 법 공부 헤나니까, 그,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그, 일본법이거든.(거 나오니까, 그, 법 공부 했었으니까, 그,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그, 일본법이거든.)

102001 @1 예.(예.)

102001 #1 완전히 일본법이라. 완전히 저, 거기 허난 뉘 헨에 헌디, 하도 기가 막힌 거는, 우리 믱을 일로 헤연 인재 혼 스십대, 삼십대 후반 뉘나 허연. 군청에 믱을 일 보러 갔더니, 아, 군청에서 지적과장이, 지적과장이 허는 말이, 이 믱을 토지 관계로 헤 가지고 민원 제기허레 갖주게. 경허난 지적과장이 이견 우리 선배 지적과장이 헨 거라 부난 안웁니다 허더라고.(완전히 일본법이라. 완전히 저, 거기 하

니까 뭐 해서 했는데, 하도 기가 막힌 거는, 우리 마을 일로 해서 인제, 한 삼십대, 삼십대 후반 되나 해서. 군청에 마을 일 보러 갔더니, 아, 군청에서 지적과장이, 지적과장이 하는 말이, 이 마을 토지 관계로 해 가지고 민원 제기하러 갔지. 그러니까 지적과장이 이걸 우리 선배 지적과장이 한 거라 버리니까 안 됩니다 하더라고.)

102001 @1 아.(아.)

102001 #1 좀 큰소리 했어. 너 현직, 나 법 공부 허난, 현직이란 게 뭐냐. 전직 현 거 안 된다는 건 말이 아니다. 전직 현 거 아닌 건 현직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 아, 경 끝으니까, 너 강○○이 아니냐. 아, 이놈이, 지적과장이, 아이 바라보니 동창인디, 우리 반에서, 너 공부 잘허던 강○○이 뵈 험나. 영 허난.(좀 큰소리 했어. 너 현직, 나 법 공부 하니까, 현직이란 게 뭐냐. 전직 한 거 안 된다는 건 말이 아니다. 전직 한 거 아닌 건 현직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 아, 그렇게 말하니까, 너 강○○이 아니냐. 아, 이놈이, 지적과장이, 아이 바라보니 동창인데, 우리 반에서, 너 공부 잘허던 강○○이 뵈 하고 있나. 이렇게 하니까.)

102001 @1 예.(예.)

102001 #1 이놈이 흥○○이엔 현 아인디, 구업 아인디. 공부도 흥 삼십 등 안에 도 못 들었어.(이놈이 흥○○이라고 하는 아인데, 구업 아인데. 공부도 한 삼십 등 안에도 못 들었어.)

102001 @1 예.(예.)

102001 #1 육십오 명인디.(육십오 명인데.)

102001 @1 예.(예.)

102001 #1 기가 막혀 이놈이 과장 허는디.(기가 막혀 이놈이 과장 하는데.)

102001 @2 웃음.(웃음.)

102001 #1 아이, 나보고, 너 공부 잘해나니까 특별조치법 때 이거나 말앙 허민 돈벌이 된다 허더라고. 나 허던 거 다 주켄. 넌 공부 잘허난. 하여튼 나가는 대로 엠프 방송을 했어.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사람은 강○○이한테 찾아오라고 말이여.(아이, 나보고, 너 공부 잘했었으니까 특별조치법 때 이거나 말아서 하면 돈벌이 된다 하더라고. 나 하던 거 다 주겠다고. 넌 공부 잘하니까. 하여튼 나가는 대로 엠프 방송을 했어.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사람은 강○○이한테 찾아오라고 말이여.)

102001 @1 아.(아.)

102001 #1 엠프 흥 서른아홉 개. 허니까 사람이 몰리기를 엄청 몰리는 거라.(엠프 한 서른아홉 개. 하니까 사람이 몰리기를 엄청 몰리는 거라.)

102001 @1 예.(예.)

102001 #1 이제는 특별조치법 때는 사법서사도 못 헤여. 므을 사람이 헤야. 거헨 이제는 그거 허연에 므차니까, 이놈이, 너 군청에 왕 일이나 좀 해라.(이제는 특별조치법 때는 사법서사도 못 해. 마을 사람이 헤야.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거 해서 마치니까, 이놈이, 너 군청에 와서 일이나 좀 해라.)

102001 @1 음.(음.)

102001 #1 뭘 일 허느냐 허니. 군수가 영을 내리는데, 이, 도로들 끊어진 거. 법원에 가근엔에 군청으로 이전만. 그거를 이 년 간을. 나 그거 못 헌덴 헛주게. 일 년은 난 못 헌다. 육 개월밖엔 못 헌다. 이 저, 그때 농한기 때밖고.(뭘 일 하느냐 하니. 군수가 영을 내리는데, 이, 도로들 끊어진 거. 법원에 가서 군청으로 이전만. 그거를 이 년 간을. 나 그거 못 한다고 했지. 일 년은 난 못 한다. 육 개월밖엔 못 한다. 이 저, 그때 농한기 때밖에.)

102001 @2 음.(음.)

102001 #1 그땐 농번기 때난.(그땐 농번기 때니까.)

102001 @2 음.(음.)

102001 #1 오월달부터 십이월달까지 육 개월 간. 그 나머지는 육 개월 간. 십일월부터 오월까지는 구청에 강 일하고. 오월부터 밭, 집어서 일하고 했는데, 이놈 새끼가 임시적으로 나 도장 쥔 내 부난에, 그 먹언 가 붙어서. 그, 그때 옛날이라. 나 일년 열두 달 근무한 육개월 봉급을 다 먹어 붙언.(오월부터 십이월까지 육 개월 간. 그 나머지는 육 개월 간. 십일월부터 오월까지 구청에 가서 일하고. 오월부터 밭, 집에서 일하고 했는데, 이놈 새끼가 임시적으로 나 도장 주어서 내 버리니까, 그 먹어서 가 버렸어. 그, 그때 옛날이라. 나 일년 열두 달 근무한 육 개월 봉급을 다 먹어 버렸어.)

102001 @1 웃음.(웃음.)

102001 #1 도장을 찍언. 육 개월은 나 주고.(도장을 찍어서. 육 개월은 나 주고.)

102001 @1 아.(아.)

102001 #1 나, 안 간 건, 나 이름으로 이놈 다 먹어 붙언.(웃음) 웃으며 이제 이 년을 그거 해연 마치난 경행 일 년 해연. 건설과장이 고○○엔 헌 놈이 오란. 아, 우리 건설과에서 삼 년만 해 주렌.(나, 안 간 건, 나 이름으로 이놈 다 먹어 버렸어.(웃음) 웃으면서 이제 이 년을 그거 해서 마치니까, 그렇게 해서 일 년 했어. 건설과장이 고○○라고 하는 놈이 왔어. 아, 우리 건설과에서 삼 년만 해 달라고.)

102001 @1 아.(아.)

102001 #1 경 혼 오 년을 경 해연, 이제 그 저, 점심은 군청에서.(그렇게 한 오 년을 그렇게 했어, 이제 그 저, 점심은 군청에서.)

102001 @1 음.(음.)

102001 #1 하여튼 일용직이주게.(하여튼 일용직이지.)

102001 @1 예.(예.)

102001 #1 반은, 건설과도 반은 먹어 붙고, 반만 나 줄 거 아니라?(반은, 건설과도 반은 먹어 버리고, 반만 나 줄 거 아니라?)

102001 @2 음.(음.)

102001 #1 그때 옛날이주.(그때 옛날이지.)

102001 @2 그, 군대는 안 갔다 올 때?(그, 군대는 안 갔다 올 때?)

102001 #1 군대는, 그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된 거주. 스십 년생은 전국적으로 군 면제라.(군대는, 그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된 거지. 사십 년 생은 전국적으로 군 면제라.)

102001 @2 사십 년 생은.(사십 년 생은.)

102001 #1 왜 그러냐면, 육십구년도에 그 김신조.(왜 그러냐면, 육십구년도에 그 김신조.)

102001 @1 음.(음.)

102001 #1 예비군 창설해 가지고, 육십 구년에는 다, 예비군으로 다 편입해 붙어. 일 기로.(예비군 창설해 가지고, 육십 구년에는 다, 예비군으로 다 편입해 버렸어. 일 기로.)

102001 @1 아.(아.)

102001 #1 경 헨 못 간 거지.(그렇게 해서 못 간 거지.)

102001 @1 아.(아.)

102001 #1 영장만 나오카 부텐 허단 보난 경 뒤편 거라.(영장만 나올까 봐서 하다 보니 그렇게 돼 버린 거라.)

102001 @2 아, 그때만 이것이 후방을 지키다 해 가지고.(아, 그때만 이것이 후방을 지키다 해 가지고.)

102001 #1 예비군 창설하면서, 예, 군대를 안 가 온 거주. 전국적으로 경 해서.(예비군 창설하면서, 예, 군대를 안 가 온 거지.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어.)

102001 @2 음. 그때가 그래서 그랬구나.(음. 그때가 그래서 그랬구나.)

102001 #1 오 년 간 해연, 마천 완에 정직으로. 아이고, 나 그때 돈 삼십만 원 월급 받으명 경 했주. 도저히 아이들 공부, 도저히 시킬 수가 없다 해 가지고.(오 년 간 해서, 마치고 와서 정직으로. 아이고, 나 그때 돈 삼십만 원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했지. 도저히 아이들 공부, 도저히 시킬 수가 없다 해 가지고.)

102001 @1 우리, 여자 삼촌 고향은 어디우파?(우리, 여자 삼촌 고향은 어디니까?)

102001 #1 건, 건 원래 스삼사건 전에는 어음리.(건, 건 원래 사삼사건 전에는 어음리.)

102001 @1 어음리.(어음리.)

102001 #1 어음리. 소개령 내련에 이 동네.(어음리. 소개령 내려서 이 동네.)

102001 @1 음.(음.)

102001 @2 결혼은 언제?(결혼은 언제?)

102001 #1 결혼은 육십사년도에 해실 건데.(결혼은 육십사년도에 했을 건데.)

102001 @2 육십사.(육십 사.)

102001 #1 스물넷에. 건데 고생 많이 했지.(스물넷에. 그런데 고생 많이 했지.)

102007 @1 중매결혼 했수과?(중매결혼 했습니까?)

102001 #1 중매결혼이주. 대구방직 가버리난.(중매결혼이지. 대구방직 가버리니

까.)

102001 @2 음.(음.)

102001 #1 대구방직에 죽 살아서. 옛날. 혼 삼 년.(대구방직에 죽 살았어. 옛날. 한 삼 년.)

102001 @2 어느 편이 이디.(어느 편에 여기.)

102001 #1 대구방직.(대구방직.)

102001 @1 아.(아.)

102001 #1 대구방직, 대구.(대구방직, 대구.)

102001 @2 대구에 간. 대구에 가서.(대구에 가서. 대구에 가서.)

102001 #1 중산간 처녀들은 전부 육지 대구방직이라.(중산간 처녀들은 전부 육지 대구방직이라.)

102001 @1 아.(아.)

102001 #1 방직 생활했지.(방직 생활했지.)

102007 @1 중매?(중매?)

102007 #1 음, 중매 결혼 했지.(음, 중매 결혼 했지.)

102007 @2 스물 네 살에. 계란 두 분 다 스물네 살.(스물 네 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스물네 살.)

102007 #1 동갑.(동갑.)

102010 @1 결혼식은 어디?(결혼식은 어디?)

102010 #1 아, 집이서게.(아, 집에서.)

102010 @1 집이서.(집에서.)

102010 #1 결혼식이 었어.(결혼식이 없어.)

102010 @1 예.(예.)

102010 #1 그때 혈 땀. 도회지 사름덜은 헛주마는, 우리 혈 땀 결혼식이 었어.
(그때 혈 땀. 도회지 사람들은 헛지마는, 우리 할 땀 결혼식이 없어.)

102010 @1 음.(음.)

102010 #1 사진만 찍고.(사진만 찍고.)

102008 @1 사주는 반에 헛디가? 사주.(사주는 봐서 했습니까? 사주.)

102008 #1 사주는 부모님네가 봐실 거라.(사주는 부모님네가 봤을 거라.)

102008 @1 다 반에.(다 봐서.)

102008 #1 택일 허레 가민.(택일 하러 가면.)

102008 @1 예. 경험에 다 헤연.(예. 그렇게 해서 다 했어.)

102008 #1 이. 근데 사주로 보면은 이 저, 우리도 것도 좀 공부해놨주. 금과 금은 상극이라이?(이. 근데 사주로 보면은 이 저, 우리도 것도 좀 공부했었지. 금과 금은 상극이라.)

102008 @1 예.(예.)

102008 #1 우리, 우리 그 경신생은 백락금이고 **은 상생이라. 아주 나빠. 근데

백락금은 윤연금이라. 윤연금이난에 나빠도 윤 현 것이 영 좋다고 해 가지고. 금은 금인데.(우리, 우리 그 경신생은 백락금이고 **은 상생이라. 아주 나빠. 근데 백락금은 윤연금이라. 윤연금이니까 나빠도 윤 한 것이 이렇게 좋다고 해 가지고. 금은 금인데.)

102008 @2 윤 현 금이렌 현 건 금은 금인데 앞에 윤?(윤 한 금이라고 하는 건 금은 금인데 앞에 윤?)

102008 #1 저 저, 그게 연허다, 연허다. 연현 금이다.(저 저, 그게 연하다, 연하다. 연한 금이다.)

102008 @2 아, 세지 안 현 금.(아, 세지 안 한 금.)

102008 #1 세지 안 현 금. 사주를 해연에 그.(세지 안 한 금. 사주를 해서 그.)

102009 @1 장가들 때 무시거 들런 갑디가? 무시거 영 게도.(장가들 때 뭐 들고 갔습니까? 뭐 이렇게 그래도.)

102009 #1 저 저, 예, 그,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 그, 옛날에는 막편지⁴⁵⁾ 가져가는 거 있어. 이. 결혼하기 전에.(저 저, 예, 그,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 그, 옛날에는 ‘막편지’ 가져가는 거 있어. 이. 결혼하기 전에.)

102009 @1 예.(예.)

102009 #1 막편지 거, 혼서 막편지 가져갈 때도, 건 뭐, 신랑도 엇고, 신부도 엇이, 부모 이름으로만 택일 갖다 주고.(‘막편지’ 거, 혼서 ‘막편지’ 가져갈 때도, 건 뭐,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이, 부모 이름으로만 택일 갖다 주고.)

102009 @1 예.(예.)

102009 #1 이렇게 해서 할 때도, 나는 그때 어디사산디 윈, 걸렌 말도 안 혀고. 저저, 예펜, 처녀, 처도 엇어 부니까 갈 필요도 엇고. 대구방직까지 간 결혼 삼일 돼도 와야 말이지.(이렇게 해서 할 때도, 나는 그때 어디인지 윈, 가자는 말도 안 하고. 저저, 여편, 처녀, 처도 없어 버리니까 갈 필요도 없고. 대구방직까지 가서 결혼 삼일 돼도 와야 말이지.)

102009 @1 아.(아.)

102009 #1 방직에서. 와야 결혼할 거 아니라?(방직에서. 와야 결혼할 거 아닌가?)

102009 @1 아.(아.)

102009 @2 웃음.(웃음.)

102009 #1 아, 경현, 삼 일 돼던가? 그때 부산 도라지호가, 부산 도라지호가 이틀에 혼 번 이실 때라.(아, 그래서, 삼 일 되던가? 그때 부산 도라지호가, 부산 도라지호가 이틀에 한 번 있을 때라.)

102009 @1 예.(예.)

102009 #1 게, 그날 아니민 결혼을 못 하게 될 때라.(그게, 그날 아니면 결혼을

45) ‘막편지’는 혼인하기 전에 신랑 쪽에서 정식으로 신부의 집을 찾아갈 때에 가지고 가는 의례적인 문서로, 달리 ‘막편지’라고도 한다.

못 하게 될 때라.)

102009 @2 웃음.(웃음.)

102009 #1 거리 먼 디 살아도 조금 얼굴만 안 때지.(거리 먼 데 살아도 조금 얼굴만 안 때지.)

102009 @1 예.(예.)

102009 #1 ㄴ쁜 동네난. 아, 이젠 도라지 배, 아침 새벽이 강, 내리는 거 보자고 해연. 그날 아니민 결혼 못 허고.(같은 동네니까. 아, 이젠 도라지 배, 아침 새벽에 가서, 내리는 거 보자고 해서. 그날 아니면 결혼 못 하고.)

102009 @1 예.(예.)

102009 #1 아, 이젠 간 그 차, 배 내리는 거 영 도에 산 베렷더니, 아, 보따리 들고 아, 내려오는 거 봐져. 그때 이디 버스도 안 다닐 때.(아, 이젠 가서 그 차, 배 내리는 거 이렇게 도에 서서 보았더니, 아, 보따리 들고 아, 내려오는 거 보여. 그때 여기 버스도 안 다닐 때.)

102009 @1 예.(예.)

102009 #1 괵지 강 버스 타고. 경헨 결혼해도 뒷날, 또 방직에 가 버렸어.(괵지 가서 버스 타고. 그렇게 해서 결혼해도 뒷날, 또 방직에 가 버렸어.)

102009 @1 아.(아.)

102009 #1 방직에 간 그냥 휴가 받아 오니까. 혼 일 년 가까이 살안 왔더라고.(방직에 가서 그냥 휴가 받아 오니까. 한 일 년 가까이 살고 왔더라고.)

102001 @1 예. 일 년 동안 기자 ㅌ로ㅌ로.(예. 일 년 동안 그져 ㅌ로ㅌ로.)

102001 #1 아이, 난 그때 서울 간에 살아 버리고.(아이, 난 그때 서울 가서 살아 버리고.)

102001 @1 서울 간에 살아 불고.(서울 가서 살아 버리고.)

102001 #1 예.(예.)

102001 @2 서울 간 ㅌ헷 헷디가?(서울 가서 ㅌ헷 하셨습니다?)

102001 #1 아이, 막노동.(아이, 막노동.)

102001 @2 막노동.(막노동.)

102001 #1 옛날에 나 저, 스무 설에 제주도는 절대 안 오겠습니다, 해 가지고. 공부도 많이 허고 해연. 비참허고. 해연 부모님네헌티 말씀드리니까 제지내고 ㅌㅌ스에 돈 천오백 원. 그때 돈 천오백 원. 그때 밥 혼 그릇이 삼십 원인가. 최고로 쳐도. 천오백 원을 ㄴ전, 경해연 ㅌ 원, 친척도 없고, 무조건 저디, 아는 사람 주소만 ㄴ전 서울 갔더니, 오일육혁명이 난 해라.(옛날에 나 저, 스무 살에 제주도는 절대 안 오겠습니다, 해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비참하고. 해서 부모님네한테 말씀드리니까 제지내고 ㅌㅌ스에 돈 천오백 원. 그때 돈 천오백 원. 그때 밥 한 그릇이 삼십 원인가. 최고로 쳐도. 천오백 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ㅌ 원, 친척도 없고, 무조건 저기, 아는 사람 주소만 가지고 서울 갔더니, 오일육혁명이 나서 하더라.)

102001 @1 예.(예.)

102001 #1 혁명이 나 가지고, 공장이 하나도 안 돌아감젠.(혁명이 나 가지고, 공장이 하나도 안 돌아간다고.)

102001 @2 음.(음.)

102001 #1 아이 거, 흐는 말이 거, 너는 공부를 좀 많이 잘하니까 중학교때. 저 문산이엔 현 디, 미군부대 시험 치르는 디가 있으니까, 혼번 강 시험 추려 보랜. 아, 이놈을 곱아. 서울서. 나 취직시켜 드라 허니까. 건 어디로 가느냐. 이, 서울역에서 에, 인천 가는 열차 타 가지고 부천 강 내령. 부천서 또 버스 탕 문경.(아이 거, 하는 말이 거, 너는 공부를 좀 많이 잘하니까 중학교 때. 저 문산이라고 하는 데, 미군부대 시험 치르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시험 치러 보라고. 아, 이놈을 말해. 서울서. 나 취직시켜 달라 하니까. 건 어디로 가느냐. 이, 서울역에서 에, 인천 가는 열차 타 가지고 부천 가서 내려서. 부천서 또 버스 타고 문경.)

102001 @2 문산.(문산.)

102001 #1 문산을 간다 해연. 아, 거 해연 그 말 듣고. 아, 정신에도 공부는 좀 허여났으니까 저, 부천 간 내렸어. 부천 간 내리니, 문산 갈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어디레 가는지. 아, 이젠 파출소 들어갔주. 파출소에 들어간.(문산을 간다 해서. 아, 그렇게 해서 그 말 듣고. 아, 정신에도 공부는 좀 했었으니까 저, 부천 가서 내렸어. 부천 가서 내리니, 문산 갈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 아, 이젠 파출소 들어갔지. 파출소에 들어가서.)

102001 @1 예.(예.)

102001 #1 이디 문산 가는 버스 어디서 탑니까 해연. 너 몇 살이냐? 스물흔 설입니다. 너 군인 갔다 왔어? 군인 안 갔다 왔습니다. 너 군인 안 갔다 온 놈이 시험 치러 못 가. 군인 안 갔다 오면. 아, 이놈이 너 취직해영 일이나 하고 가. 아, 경찰관이. 날 돌아단에 저, 소사엔 현 디. 부천군 소사읍이 잇어.(여기 문산 가는 버스 어디서 탑니까 했어. 너 몇 살이냐? 스물 한 살입니다. 너 군대 갔다 왔어?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너 군인 안 갔다 온 놈이 시험 치르러 못 가. 군대 안 갔다 오면. 아, 이놈이 너 취직해서 일이나 하고 가. 아, 경찰관이. 날 데려다가 저, 소사라고 하는 데. 부천군 소사읍이 잇어.)

102001 @2 예.(예.)

102001 #1 소사 그, 오름 앞이.(소사 그, 오름 앞에.)

102001 @2 음.(음.)

102001 #1 아, 그디 이런 가구 공장이 있더라고. 그 경찰관도 참 나, 기가 막혀.(아, 거기 이런 가구 공장이 있더라고. 그 경찰관도 참 나, 기가 막혀.)

102001 @2 하하.(하하.)

102001 #1 하이 저, 사장ㄱ라, 야이 빌영 일헤여. 고맙대게 이제는. 그땐 밥도 굶을 땐디, 쌀밥을 이만씩 해 주고. 혼 덜을 일허니까, 아, 밥값은 천백 원이고, 월급은 구백 원밖에 안 돼니까. 혼 덜에. 기가 막힐 거 아니.(하이 저, 사장한테, 애 빌려서 일해. 고맙대 이제는. 그땐 밥도 굶을 땐데, 쌀밥을 이만씩 해 주고. 한 달을

일하니까, 아, 밥값은 천백 원이고, 월급은 구백 원밖에 안 되니까. 한 달에. 기가 막힐 거 아니.)

102001 @1 예.(예.)

102001 #1 야, 이거, 나 못살겠다. 이 밥값 못 허는, 이, 자존심 상허는 거 아니? 밥값이라도 해야 될 건디. 일은 저, 뻘뻘 이 저, 막 땀으렌만 허고. 경헨 이젠, 나 살길은 없구나 헤연, 이젠 또 이제, 에이 **, 온 김에 갈 때랑 목포로라도 가보자 헤연. 이제, 목포로 완에, 거, 배가 이틀에 혼 번씩. 거 이. 안성호인가.(야, 이거, 나 못살겠다. 이 밥값 못 허는, 이, 자존심 상허는 거 아니? 밥값이라도 해야 될 건디. 일은 저, 뻘뻘 이 저, 막 땀으라고만 하고. 그래서 이젠, 나 살길은 없구나 해서, 이젠 또 이제, 에이 **, 온 김에 갈 때는 목포로라도 가보자 해서. 이제, 목포로 와서, 거, 배가 이틀에 한 번씩. 거 이. 안성호인가.)

102001 @2 안성호.(안성호.)

102001 #1 그 배 타젠 아, 경해도 배 안 떤. 하 이젠 흐룻밤을 자얏 건디, 영 들 으니까, 아는 제주도렌 헨 놈이 저디 가민 조천여관이 잇어. 조천 할망. 게난 그디 그 여관을 좇안 간에.(그 배 타려고 아, 그래도 배 안 떤서. 하 이젠 하룻밤을 자야 할 건디, 이렇게 들으니까, 아는 제주도하고 허는 놈이 저기 가면 조천여관이 잇어. 조천 할머니. 그러니까 거기 그 여관을 찾아서 가서.)

102001 @2 음.(음.)

102001 #1 흐룻밤 살멍 그디 유달산도 강 놀고. 나 그루 후엔 절대 목포 안 가 왔어.(하룻밤 살면서 거기 유달산도 가서 놀고. 나 그 후엔 절대 목포 안 가 왔어.)

102001 @2 웃음.(웃음.)

102001 @1 예.(예.)

102001 #1 조천여관에 흐룻밤 잔 완.(조천여관에 하룻밤 자고 왔어.)

102001 @1 예.(예.)

102001 #1 들어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허는 말이, 너 돈 다 써지난 왔구나.(들어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허는 말이, 너 돈 다 써지니까 왔구나.)

102001 @2 음. (웃음)

102001 #1 돈, 거금이라. 천오백 원, 거금.(돈, 거금이라. 천오백 원, 거금.)

102001 @1 예.(예.)

102001 #1 돈 다 써지난 왔구나, 허멍 헛는다. 예 참, 우리 비참허게 생활허연 이제.(돈 다 쓰니까 왔구나, 하면서 헛는데. 예 참, 우리 비참하게 생활했어 이제.)

102001 @1 예.(예.)

102001 #1 즈식덜은, 나 저, 공부도 일, 이 등 험나난에. 일등 허는 방법을 꼭 ㄱ리쳐 주겠다 헤 가지고.(자식들은, 나 저, 공부도 일이 등 헛었으니까. 일등 허는 방법을 꼭 가르쳐 주겠다 헤 가지고.)

102001 @1 예.(예.)

102001 #1 예, 우리 아덜은 그때 애월중학교, 애월중학교, 이디.(예, 우리 아들은

그때 애월중학교, 애월중학교, 여기.)

102001 @2 예.(예.)

102001 #1 일고 가는 게 그때는 상당히 힘들었어. 일고, 저 성적 좋게 합격해연
에. 어떻습니까, 이, 서울 갑니까, 대학은? 허더라고. 일고 졸업할 때. 나 백 웃고.
그때 사범대학 수학과하고 영문과는 내 들어보니까 학비가 엇고, 나오면은 무조건
선생 발령 받는 거야.(일고 가는 게 그때는 상당히 힘들었어. 일고, 저 성적 좋게
합격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서울 갑니까, 대학은? 허더라고. 일고 졸업할 때. 나
백 없고. 그때 사범대학 수학과하고 영문과는 내 들어보니까 학비가 엇고, 나오면은
무조건 선생 발령 받는 거야.)

102001 @2 음. 맞수다.(음. 맞수다.)

102001 #1 견디 저, 수학교육과 한번, 세긴 허다마는 시험 추려 보렌 허난. 거,
수학교육과 거 저, 전체에서 일등을 했어.(그런데 저, 수학교육과 한번, 세긴 허다마
는 시험 치러 보라고 하니까, 거, 수학교육과 거 저, 전체에서 일등을 했어.)

102001 @2 예.(예.)

102001 #1 일등을 해서 막, 에이플러스 점수 전부 맞고. 해서 수학, 지금 ○○여
중.(일등을 해서 막, 에이플러스 점수 전부 맞고. 해서 수학, 지금 ○○여중.)

102001 @1 아.(아.)

102001 #1 교감. 수학 박사까지 받았어.(교감. 수학 박사까지 받았어.)

102001 @1 아.(아.)

102012 @2 이름은? 이름.(이름은? 이름.)

102012 #1 강○○.(강○○.)

102012 @2 아.(아.)

102012 #1 ○○.(○○.)

102012 @2 강○○? 음.(강○○? 음.)

102012 #1 교감 발령 받았는데.(교감 발령 받았는데.)

102012 @2 아, 이제 한.(아, 이제 한.)

102012 #1 쉼 다섯.(쉼 다섯.)

102012 @2 쉼 다섯. 에에.(쉼 다섯. 에에.)

102012 #1 알아져?(알아?)

102012 @2 얼굴 알아져. ㄴ째 근문 안 해 봐수다마는예. 예, 얼굴 알아지쿠다.
(얼굴 알아. 같이 근문 안 해 봤습시다마는. 예, 얼굴 알겠습니다.)

102012 #1 강○○.(강○○.)

102012 @2 강○○. 예, 예.(강○○. 예, 예.)

102012 @1 ○○여중 교감예.(○○여중 교감.)

102012 #1 교감은 아니고, 지금 교무부장 험신디.(교감은 아니고, 지금 교무부장
하고 있는데.)

102012 @1 연수 받안.(연수 받아서.)

102012 #1 작년 연수 다 받고. 새해 나민.(작년 연수 다 받고. 새해 나면.)

102012 @2 음.(음.)

102012 @1 그다가 큰아들이고. 그다음은 또 누게 이수과?(거기가 큰아들이고. 그다음은 또 누구 있습니까?)

102012 #1 그다음은 법원에.(그다음은 법원에.)

102012 @1 법원에?(법원에?)

102012 #1 예.(예.)

102012 @1 두 번째 아들?(두 번째 아들?)

102012 #1 두 번째. 세 번째는 딸인데, 참 영리해서. 수석만 헌디. 국민학교서부터. 건 첨, 그때 지집아이라 놓으니까. 서울대학 감이주.(두 번째. 세 번째는 딸인데, 참 영리했어. 수석만 했는데. 국민학교서부터. 건 참, 그때 계집아이라 놓으니까. 서울대학 감이지.)

102012 @1 음.(음.)

102012 @2 음.(음.)

102012 #1 고등학교도 교육감, 장관상 받고. 근데 열일곱 살에 가정 형편상 허니까 외환은행이라고 잇어이.(고등학교도 교육감, 장관상 받고. 그런데 열일곱 살에 가정 형편상 하니까 외환은행이라고 잇어.)

102012 @2 음. 예, 예.(음. 예, 예.)

102012 #1 그, 전두환 대통령 댐디, 외환은행은 국가은행일 때라서. 서울 아이덜만 뽑는디, 전두환이가 명령을, 전국에서 공표해 가지고 뽑아라.(그, 전두환 대통령 댐데, 외환은행은 국가은행일 때였어. 서울 아이들만 뽑는디, 전두환이가 명령을, 전국에서 공표해 가지고 뽑아라.)

102012 @1 예.(예.)

102012 #1 왜 서울 아이덜만 뽑느냐. 전두환 때 해연, 일등 헌 아이들만 올라가메. 제주도.(왜 서울 아이들만 뽑느냐. 전두환 때 해서, 일등 한 아이들만 올라가. 제주도.)

102012 @1 예.(예.)

102012 #1 올라가는데, 혼 명 뽑는디 제주도에서, 혼 명 뽑는디 우리 딸이 가순디, 지금 제주도 차장, 지금 케이비 하나은행 저, 잇는데. 저 어디 갔느냐. 서울 중구, 중구 지점 차장이라.(올라가는데, 한 명 뽑는디 제주도에서, 한 명 뽑는디 우리 딸이 갔는데, 지금 제주도 차장, 지금 케이비 하나은행 저, 잇는데. 저 어디 갔느냐. 서울 중구, 중구 지점 차장이라.)

102012 @1 아.(아.)

102012 #1 월급 혼, 엄청나게 받아.(월급 한, 엄청나게 받아.)

102012 @1 시집 가 불언마씀?(시집가 버렸나요?)

102012 #1 시집 간. 흐뭇 씬 들인디.(시집갔어. 사뭇 씬들인데.)

102012 @2 웃음.(웃음.)

102012 @1 웃음.(웃음.)

102012 #1 딸이 씬들인디, 하나은행 차장이라.(딸이 씬들인데, 하나은행 차장이라.)

102012 @1 아.(아.)

102012 #1 서울 살아.(서울 살아.)

102012 @1 음.(음.)

102012 @2 겐 딸 하나, 아들 셋?(그래서 딸 하나, 아들 셋?)

102012 #1 예.(예.)

102012 @2 딸 하나, 아들 셋.(딸 하나, 아들 셋.)

102012 @1 아들 셋마씀?(아들 셋요?)

102012 #1 아들 셋인디, 작은아들은 시 중에 쥘 공부 잘했는데. 거 저, 아주대 공대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갖는다.(아들 셋인데, 작은아들은 셋 중에 쥘 공부 잘했는데. 거 저, 아주대 공대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돼서 갖는데.)

102012 @1 음.(음.)

102012 #1 군인 갔다 완, 딱 퇴학해 두고, 조교 계통에 들어가 불데.(군인 갔다 와서, 딱 퇴학해 두고, 조교 계통에 들어가 버리데.)

102012 @1 조교 계통으로?(조교 계통으로?)

102012 #1 예.(예.)

102012 @1 음.(음.)

102012 #1 결혼행 살아. 서울 쪽에서.(결해서 살아. 서울 쪽에서.)

102012 @1 음.(음.)

102012 #1 그렇게 영리한 놈이라.(그렇게 영리한 놈이라.)

102012 @1 예.(예.)

102012 #1 것도 일고 나오고.(그것도 일고 나오고.)

102012 @2 음.(음.)

102003 @1 삼촌네 어머니는 고향이 어디파?(삼촌네 어머니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102003 #1 어음. 어린비.(어음. ‘어린비’.)

102003 @1 아, 다.(아, 다.)

102003 #1 김○○ 선생이라고 혹시 알 건가?(김○○ 선생이라고 혹시 알 건가?)

102003 @1 예.(예.)

102003 @2 예. 국어.(예. 국어.)

102003 #1 그게, 우리 어머니덜이 참 영리해서. 김○○ 선생 어명이 우리 큰 이모님. 김○○ 선생 모친이 우리 이모님.(그게, 우리 어머니들이 참 영리했어. 김○○ 선생 어머니가 우리 큰 이모님. 김○○ 선생 모친이 우리 이모님.)

102003 @2 음.(음.)

102003 @1 아.(아.)

102003 #1 이모님. 게 스춘.(이모님. 그럼 사춘.)

102003 @2 스춘. 이중스춘.(사춘. 이중사춘.)

102003 #1 이중스춘.(이중사춘.)

101003 @1 이중사춘.(이중사춘.)

102003 #1 케난.(그러니까.)

102003 @1 아.(아.)

102003 #1 김○○ 선생이 경북사대 나왔주께.(김○○ 선생이 경북사대 나왔지.)

102003 @2 예, 예.(예, 예.)

102003 #1 나, 중학교 가니까 통지표 가져 오렌 허더고. 나보고. 통지표 그전 가니까, 다 공부 잘헬젠 허멍, 영어사전을 하나 탁 주언에.(나, 중학교 가니까 통지표 가져 오라고 하더라고. 나보고. 통지표 가져가니까, 다 공부 잘한다고 하면서, 영어사전을 하나 탁 주어서.)

102003 @2 음.(음.)

102003 #1 김○○ 선생 똑똑해여.(김○○ 선생 똑똑해.)

102003 @1 음.(음.)

102003 #1 경북사대 나오고.(경북사대 나오고.)

102003 @2 중학교 때 선생 헤시난, 나이 차이 좀 있구나. 맞아예.(중학교 때 선생 했으니까, 나이 차이 좀 있구나. 맞아요.)

102003 @1 그, 초등학교 이디 어느 펜이마썸? 그 사삼 때 완에.(그, 초등학교 여기 어느 쪽에요? 그 사삼 때 와서.)

102003 #1 아. 그, 도가칩이라고 마을회관 같은 거지.(아. 그, 도가라고 마을회관 같은 거지.)

102003 @1 그디서.(거기서.)

102003 #1 그디서 처음에는 이, 어도가, 이, 어도가 이, 교육열이 옛날부터 아주, 유교사상으로 훈학 같은 거 교육열이 대단해 가지고, 왜정 때에 학교건립을 허는데, 추천을 받는데. 그 당시에 그 ○○○이엔 현 사름이 구장인데, 아주 일본서 대학도 나온 사름인디. 예, 오천 평을, 삼천 평을 부질 회사하면은 초등학교를 허가 주고, 만 평을, 부지를 회사하면은 중학교 허가 주겠다. 헤 가지고, 만평을, 부지를, 저, 지금 만 평을 확보했어.(거기서 처음에는 이, 어도가, 이, 어도가 이, 교육열이 옛날부터 아주, 유교사상으로 훈학 같은 거 교육열이 대단해 가지고, 왜정 때에 학교 건립을 하는데, 추천을 받는데. 그 당시에 그 ○○○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장인데, 아주 일본서 대학도 나온 사람인디. 예, 오천 평을, 삼천 평을 부질 회사하면은 초등학교를 허가 주고, 만 평을, 부지를 회사하면은 중학교 허가 주겠다. 헤 가지고, 만 평을, 부지를, 저, 지금 만 평을 확보했어.)

102003 @1 음.(음.)

102003 #1 헤연, 딱 헨에 허니까, 그만 왜정 때에 간이학교를 허가 받안 허다가 공부를 허젠 허니까, 그만 해방이 되고, 스삼스건이 나 부니까.(해서, 딱 해서 하니

까, 그만 일제강점기 때에 간이학교를 허가 받아서 하다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만 해방이 되고, 사삼사건이 나 버리니까.)

102003 @1 음.(음.)

102003 #1 저, 부지만 혼 만 평 있다가, 그때에 그 간이학교는 지금 저 농협 있는 자런디, 거, 간이학교 잇는디, 스삼스건에 불 문짝 태와 부난에.(저, 부지만 한 만 평 있다가, 그때에 그 간이학교는 지금 저 농협 있는 자런데, 거, 간이학교 잇는 데, 사삼사건에 불 모두 태워 버리니까.)

102003 @1 음.(음.)

102003 #1 폐교가 돼서. 삼스, 스오륙 학년은 예, 애월 가고. 일이삼 학년은 귀덕을 가고. 폐교 돼 부난. 경현에 그다음에 폐교 돼 부난, 옛날 그 향사라고 도가침에, 향사, 마을회관. 그 초가집 잇는데. 그디 허가 받안에 예, 바로 그, 육이오전쟁 직전에. 스삼 당시 허가 받안.(폐교가 됐어. 삼사, 사오륙 학년은 예, 애월 가고. 일이삼 학년은 귀덕을 가고. 폐교 돼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폐교 돼 버리니까, 옛날 그 향사라고 도가에, 향사, 마을회관. 그 초가집 잇는데. 거기 허가 받아서 예, 바로 그, 육이오전쟁 직전에. 사삼 당시 허가 받았어.)

102003 @1 음.(음.)

102003 #1 우리가 그디 그, 집 부근에 집덜 빌언 공부해서. 허가 받안.(우리가 거기 그, 집 부근에 집들 빌려서 공부했어. 허가 받아서.)

102003 @1 음.(음.)

102003 #1 그게 왜. 이디 혼 오학년 나민 초가집 지금 빌언, 짓언에 흑교 허다가, 그 후에 저, 부지가 만 평 그대로. 기부허니까 그대로 살아잇는 거라. 게 이제는 제라허게 집도 교육청에서 짓어 주고.(그게 왜. 여기 한 오학년 나면 초가집 지금 빌려서, 지어서 학교 하다가, 그 후에 저, 부지가 만 평 그대로. 기부하니까 그대로 살아잇는 거라. 그래 이제는 온전하게 집도 교육청에서 지어 주고.)

102003 @1 음.(음.)

102003 #1 체육관도 짓고 현디. 하이튼 내가 연구허기로 스삼스건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일본 와세다대학교 수석이 이 동네 사람이었고, 그 또 그, 2쁜 동창도 흥○○ 국회의원이.(체육관도 짓고 했는데. 하여튼 내가 연구허기로 사삼사건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일본 와세다대학교 수석이 이 동네 사람이었고, 그 또 그, 같은 동창도 흥○○ 국회의원이.)

102003 @2 예.(예.)

102003 #1 와세다대학교 동창이었고.(와세다대학교 동창이었고.)

102003 @2 음.(음.)

102003 #1 그, 강○○이엔 현 사람은 일본 전체 수석을 현 사람인디, 일본에서 전체 고등학교 때 수석 현 사람인디. 예, 사회주의 물들고, 공산주의.(그, 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전체 수석을 한 사람인데, 일본에서 전체 고등학교 때 수석 한 사람인디. 예, 사회주의 물들고, 공산주의.)

102003 @1 음.(음.)

102003 #1 경헌에. 그 와세다 대학교에서 지금 공산주의가, 일등으로 십오등까
장은 전부 그 공산주의. 고등학교 대표했다고 하더라고.(그래서. 그 와세다대학교에
서 지금 공산주의가, 일등으로 십오 등까지는 전부 그 공산주의. 고등학교 대표했다
고 하더라고.)

102003 @2 웃음.(웃음.)

102003 #1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102003 @1 음.(음.)

102003 #1 게 이제,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 설립하면서 서울대학교 상대 교수로
왔다가, 육이오 터지니까 그때 이북으로 가서.(그래 이제,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 설
립하면서 서울대학교 상대 교수로 왔다가, 육이오 터지니까 그때 이북으로 갔어.)

102003 @1 음.(음.)

102003 #1 전해오는 거는, 김일성대학 총장까지 해서. 경 헌에 박헌영이네 숙청
당할 때 ㄴ짜 숙청당해서.(전해오는 거는, 김일성대학 총장까지 했어. 그렇게 해서
박헌영이네 숙청당할 때 같이 숙청당했어.)

102003 @1 음.(음.)

102003 #1 김일성이한테.(김일성이한테.)

102003 @2 이름이?(이름이?)

102003 #1 강○○.(강○○.)

102003 @2 강○○.(강○○.)

102003 #1 경찰덜이, 애월지서 경찰들이 그, 이 우덕집이 사난애 부모네가. 계속
감시해 오라서.(경찰들이, 애월지서 경찰들이 그, 이 윗집에 사니까 부모네가. 계속
감시해 왔어.)

102003 @1 음.(음.)

102003 #1 해 오고. 카드 이, 주고 동향 보고. 게 김일성대학 총장이라 허니까
게.(해 오고. 카드 이, 주고 동향 보고. 그게 김일성대학 총장이라 하니까.)

102004 @1 그,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할 때, 무슨 놀이 허명 살아수과? 뭐, 놀
이.(그,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할 때, 무슨 놀이 하면서 살았습니까? 뭐, 놀이.)

102004 #1 게 저게, 다마치기.(그거 저, 구슬치기.)

102004 @2 빠찌치기.(‘빠찌치기’.)

102004 #1 빠찌치기라고 알 건가. 요만한 종이로.(빠찌치기라고 알 건가. 요만한
종이로.)

102004 @1 종이로.(종이로.)

102004 #1 골령곽으로.(골판지로.)

102004 @1 예. 빠찌치기.(예. 빠찌치기.)

102004 #1 다마치기.(구슬치기.)

102004 @1 다마치기.(구슬치기.)

102004 #1 그, 왜 저디, 구라치기. 구라 저, 총 구라 잇잖아게. 총탄.(그, 왜 저기, '구라치기'. 탄피 저, 총 탄피 잇잖아. 총탄.)

102004 @1 총탄.(총탄.)

102004 #1 꺾테기.(꺾테기.)

102004 @1 예, 예.(예, 예.)

102004 #1 아, 거 저디, 모슬포 사격장 훈련소가 바로 여기주게. 이달봉이엔 헌디.(아, 거 저기, 모슬포 사격장 훈련소가 바로 여기지. '이달봉'이라고 하는 데.)

102004 @1 아.(아.)

102004 #1 그디 강 막 주워다가, 이제 구라치기 허민, 구라는 가인 장시덜이 그, 사 가. 거 낫으로 만든 거니까.(거기 가서 막 주워다가, 이제 '구라치기' 하면, 탄피는 개인 장수들이 그, 사 가. 거 낫으로 만든 거니까.)

102004 @1 낫으로.(낫으로.)

102004 #1 총탄.(총탄.)

102004 @2 구리, 구라. 예.(귀, 탄피. 예.)

102004 @1 음, 구라치기.(음, '구라치기'.)

102004 @2 구라치기.(구라치기'.)

102004 #1 구라. 걸로 탁 맞히면은 기가 막히게 소리 나. 거 저, 상대방 거를.(탄피. 걸로 탁 맞히면은 기가 막히게 소리 나. 거 저, 상대방 거를.)

102004 @1 아.(아.)

102004 #1 거 맞혀야 돼어.(거 맞혀야 되어.)

102004 @1 아.(아.)

102004 #1 구라치기, 다마치기. 하이튼.(구라치기, 구슬치기. 하여튼.)

102004 @1 여자 아이덜은?(여자 아이들은?)

102004 #1 여자 아이덜은 배뿔락 허고.(여자 아이들은 줄넘기 하고.)

102004 @1 배뿔락.(줄넘기.)

102004 #1 긴까라고 알아져? 긴까? 일본말인디. 마당에 영 그때는 초가집이 전부 땅 마당이난에.(긴까'라고 알아? 긴까? 일본말인데. 마당에 이렇게 그때는 초가집이 전부 땅 마당이니까.)

102004 @1 예.(예.)

102004 @2 예.(예.)

102004 #1 영, 영 그려 가지고 영 열 십 제 그렁.(이렇게, 이렇게 그려 가지고 이렇게 열 십 자 그려서.)

102004 @1 예.(예.)

102004 #1 그렁, 출락출락 뛰영 요디 가고.(그려서, 출락출락 뛰어서 요기 가고.)

102004 @1 예.(예.)

102004 #1 또 요디 가고 헤영, 돌아와야 점수 따곡 허는 거. 그 바닥도 집곡.(또 요기 가고 해서, 돌아와야 점수 따고 하는 거. 그 바닥도 집고.)

102004 @1 아, 흔착 다리로만.(아, 한쪽 다리로만.)

102004 #1 예. 흔착 다리, 정계정.(예. 한쪽 다리, 양감질해서.)

102004 @1 예.(예.)

102004 #1 흔착 다리로만 그.(한쪽 다리로만 그.)

102004 @1 예.(예.)

102004 #1 졸락졸락, 정계청.(‘졸락졸락’, 양감질해서.)

102004 @1 졸락졸락 뛰는 거.(‘졸락졸락’ 뛰는 거.)

102004 #1 긴까라고.(‘긴까’라고.)

102004 @1 긴까라마씀?(‘긴까’요?)

102004 #1 음.(음.)

102004 @1 긴까.(긴까.)

102004 @2 일본말이구나?(일본말이구나?)

102004 #1 일본말 긴까. 그때. 긴까, 긴까 해서.(일본말 ‘긴까’. 그때. ‘긴까’, ‘긴까’ 했어.)

102004 @2 긴까.(‘긴까’.)

102006 @1 사삼사건 때 계난 그, 소개 혈 때는 부모님 따라 온 거 아니파양?
(사삼사건 때 그러니까 그, 소개 할 때는 부모님 따라 온 거 아닙니까?)

102006 #1 그렇지.(그렇지.)

102006 @1 형제덜은 어떻 헛수과? 계난 단아덜이우파?(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외아들입니까?)

102006 #1 아, 우리 동생은.(아, 우리 동생은.)

102006 @1 그 후에?(그 후에?)

102006 #1 아주 후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난.(아주 후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

102006 @1 아.(아.)

102006 #1 예, 우리 누님이 서인데, 지금 흔 구십 세 난 누님은 살아 있고. 허고, 저 작은 누이동생도 살아 있고. 지금 흔 무즈생이난.(예, 우리 누님이 셋인데, 지금 한 구십 세 난 누님은 살아 있고. 하고, 저 작은 누이동생도 살아 있고. 지금 한 무자생이니까.)

102006 @1 예.(예.)

102006 #1 무즈생. 칠십이 쟤가 돼고. 또 셋 누님은, 그 저, 어려운 댄디. 셋누님은 상당히 영특한 것 같아. 거 저, 남의 집에 수양딸로 쥐 부니까.(무자생. 칠십이 쟤가 되고. 또 둘째 누님은, 그 저, 어려운 댄테. 둘째 누님은 상당히 영특한 것 같아. 거 저, 남의 집에 수양딸로 쥐 버리니까.)

102006 @1 아.(아.)

102006 #1 수양딸로 제주시 원동에 거 저기, 딸 하나만 신 부자칩 할망. 여관집 할망이라고 현, 저 제주시 지금 저, 동문시장 질 알 쪽에.(수양딸로 제주시 원동에 거 저기, 딸 하나만 있는 부자집 할머니. 여관집 할머니라고 하는, 저 제주시 지금

저, 동문시장 길 아래쪽에.)

102006 @1 예.(예.)

102006 #1 큰 여관집 사장이다. 딸 훗나뵈기 엇은 할망이다. 예, 사위는 그 당시 부시장. 부읍장, 제주시. 건디 이 할망이 오꼴 우리 누이, 나보다 훗나 우이 누님인디, 워낙 착허고 요망지니까 딸로 데령 살아보켄 우리 집이 완 곶아 불어서. 나 수양딸로 삼고 나 재산도 큰뜰허고 꼭 죽어갈 때 반으로 넝겨 주쨌다, 경 해연 내 불어서. 잘 살렌. 내 부니까, 아, 이 할망이 죽었다. 아, 죽은디 그 저, 딸 저 그, 부읍장, 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허던 사름이 안 주켄 허는 거라.(큰 여관집 사장인데. 딸 하나밖에 없는 할머인데. 예, 사위는 그 당시 부시장. 부읍장, 제주시. 그런데 이 할망이 그만 우리 누이, 나보다 하나 위 누님인데, 워낙 착하고 똑똑하니까 딸로 데려서 살아 보쨌다고 우리 집이 와서 말해 버렸어. 나 수양딸로 삼고 내 재산도 큰뜰과 꼭 죽어갈 때 반으로 남겨 주쨌다, 그렇게 해서 내 버렸어. 잘 살라고. 내 버리니까, 아, 이 할머니가 죽었다. 아, 죽었는데 그 저, 딸 저 그, 부읍장, 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하던 사람이 안 주쨌다고 하는 거라.)

102006 @1 웃음.(웃음.)

102006 #1 우리 누님한테. ㄴ찌 살단. 유언헌 걸 안 주켄 허난, 재판, 경찰에 고소해서. 우리 아버지가.(우리 누님한테. 같이 살다가. 유언헌 걸 안 주쨌다고 하니까, 재판, 경찰에 고소했어. 우리 아버지가.)

102006 @1 예.(예.)

102006 #1 경 해연에 이제 경찰서에 간에 반을 갈라주라 해연. 돈을 그때 돈, 칠십스년돈가 해연 이백오십 만원. 지금 허민 혼 이십오 억쨌 될 거라.(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반을 갈라 달라 했어. 돈을 그때 돈, 칠십사 년돈가 해서 이백오십 만원. 지금 하면 한 이십오 억쨌 될 거라.)

102006 @1 예.(예.)

102006 #1 하여튼 그, 제주시 동문시장 질 알 쪽, 큰 삼층 여관.(하여튼 그, 제주시 동문시장 갈 아래 쪽, 큰 삼층 여관.)

102006 @1 예.(예.)

102006 #1 이십오억 정도 쨌 돈이민 혼 재산. 그때 농협 엇은 때난 금융조합이란 게 잇었어. 그때 여관 처리허여 두고 이젠 서울 올라가 불테게.(이십오억 정도 된 돈이면 한 재산. 그때 농협 없던 때니까 금융조합이란 게 잇었어. 그때 여관 처리허여 두고 이젠 서울 올라가 버리데.)

102006 @1 음.(음.)

102006 #1 처녀 본분으로 서울 올라가 부난. 돈만 보관해 쨌. 경헨 마침 결혼을 허였는데, 저, 미군, 미팔군 부대 군관허고 결혼했는디. 아주 똑똑허데 우리 집이 완 보기도 했는디. 저, 어디 사름이나 허민, 저, 성산을 수산이라고 잇어.(처녀 본분으로 서울 올라가 버리니까. 돈만 보관해 두고. 그렇게 해서 마침 결혼을 하였는데, 저, 미군, 미팔군 부대 군관하고 결혼했는디. 아주 똑똑허데 우리 집에 와서 보기도

했는데. 저, 어디 사람이냐 하면, 저, 성산읍 수산이라고 있어.)

102006 @1 예.(예.)

102006 #1 거기, 거기 고, 고씨인데. 고○○. 고씨.(거기, 거기 고, 고씨인데. 고○○. 고씨.)

102006 @1 음.(음.)

102006 #1 경 험 서울서 미군부대. 지금 한국 공무원치고는 군수 급이여. 그때. 미군부대.(그렇게 해서 서울서 미군부대. 지금 한국 공무원치고는 군수 급이야. 그때. 미군부대.)

102006 @1 음.(음.)

102006 #1 미군 막 살 때. 미국 간 살다 오고.(미군 막 살 때. 미국 간 살다 오고.)

102006 @2 음.(음.)

102006 #1 한번은 제주도 왔고렌 전화 와선게, 어디냐면 중문 저, 무슨 호텔이 있는데, 찾아간 찾을 수가 없어. 이름 대니까 이름이 없어. 미국 이름으로 들어가 분 거라. 말째 완 흔 미국 이름으로.(한번은 제주도 왔다고 전화 왔던데, 어디냐면 중문 저, 무슨 호텔이 있는데, 찾아가서 찾을 수가 없어. 이름 대니까 이름이 없어. 미국 이름으로 들어가 버린 거라. 나중에 와서 한 미국 이름으로.)

102006 @1 음.(음.)

102006 #1 건디 갑자기 죽어 불언게. 누원 자단. 흔 예순 서넛쯤에 죽어 불언.(그런데 갑자기 죽어 버렸어. 누워서 자다가. 한 예순 서넛쯤에 죽어 버렸어.)

102006 @1 예.(예.)

102006 #1 그 아덜덜은 삼형제, 아들만 삼 형젠디, 워낙, 서울대하고 경제학과 수석. 강 보면 수석 흔 것도 다 있어. 경제학과 수석.(그 아들들은 삼형제, 아들만 삼 형젠데, 워낙, 서울대하고 경제학과 수석. 가서 보면 수석 한 것도 다 있어. 경제학과 수석.)

102006 @1 음.(음.)

102006 #1 셋 거는 성균관대학교, 그 작은아덜은 동국대학교 나오고.(둘째는 성균관대학교, 그 작은아들은 동국대학교 나오고.)

102006 @1 음.(음.)

102006 #1 지금 큰 스촌은 거, 고○○라고 저, 것ㄴ라 뭐엔 허나. 하, 연구원 거, 무신 은행 같은, 연구원장, 연구원장.(지금 큰 사촌은 거, 고○○라고 저, 그것을 뭐라고 하나. 하, 연구원 거, 무슨 은행 같은, 연구원장, 연구원장.)

102006 @1 음.(음.)

102006 #1 월급 많이 타는 모양이더라고.(월급 많이 타는 모양이더라고.)

102006 @1 금융연구원장.(금융연구원장.)

102006 #1 금융연구원장.(금융연구원장.)

102006 @1 예.(예.)

102006 #1 그 저, 이 저 무슨, 신한은행.(그 저, 이 저 무슨, 신한은행.)
102006 @1 예.(예.)
102006 #1 신한은행 연구원. 신한금융연구원. 그디서.(신한은행 연구원. 신한금융연구원. 거기서.)
102006 @1 음.(음.)
102006 #1 서울서.(서울서.)
102015 @1 큰메누리는 선생 험수과? 큰메누리도?(큰며느리는 선생 하고 있습니까? 큰며느리도?)
102006 #1 선생. 초등학교 선생.(선생. 초등학교 선생.)
102015 @1 아, 큰메누리도 초등학교 선생. 그다음 두 번째 메누린?(아, 큰며느리도 초등학교 선생. 그다음 두 번째 며느린?)
102015 #1 두 번째 메누리는 엇어. 이상현, 거, 법원에 댕기고, 저 뭐, 계장이고 현디 저, 자기 아파트. 월급도 무지하게 하영 타. 법원에 들어간, 이제 이십오 년인데, 결혼을 안 허켄 허는 거라.(두 번째 며느리는 엇어. 이상현, 거, 법원에 다니고, 저 뭐, 계장이고 한데 저, 자기 아파트. 월급도 상당히 많이 타. 법원에 들어간, 이제 이십오 년인데,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라.)
102015 @1 아.(아.)
102015 #1 일절.(일절.)
102015 @1 이제 멧 설이우파?(이제 몇 살입니까?)
102015 #1 막 즉유. 마흔아홉.(막 자유. 마흔아홉.)
102015 @1 마흔아홉인디 장계 안 가켄.(마흔 아홉인데 장가 안 가겠다고.)
102015 #1 안 가켄. 아, 벨 현디 강 좋은 그슴 막 해도 안 가켄.(안 가겠다고. 아, 별난데 가서 좋은 감 막 해도 안 가겠다고.)
102015 @1 아. 웃음.(아. 웃음.)
102015 @2 거, 제주도 제주법원이파?(거, 제주도 제주법원입니까?)
102015 #1 제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
102015 @2 제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
102015 #1 저 지금 아라동 그 좋은 아파트.(저 지금 아라동 그 좋은 아파트.)
102015 @2 음.(음.)
102015 #1 돈 멧 백만 원 월급 탕.(돈 멧 백만 원 월급 타서.)
102015 @1 웃음.(웃음.)
102015 #1 이녀 혼자만 그 돈을 다 써게?(이녀 혼자만 그 돈을 다 써?)
102015 @2 아이고.(아이고.)
102015 #1 자기 집 싯고, 자가용 싯고.(자기 집 있고, 자가용 있고.)
102015 @1 아.(아.)
102015 #1 그, 바로 법원 우에 아라동에 아파트 살고.(그, 바로 법원 위에 아라동에 아파트 살고.)

102015 @2 아이파크구나게.(아이파크구나.)
102015 #1 으?(으?)
102015 @2 아이파크.(아이파크.)
102015 #1 경헌디, 왜 장가를 가? 난 장가는 안 간다.(그런데, 왜 장가를 가? 난 장가는 안 간다.)
102015 @2 웃음.(웃음.)
102015 #1 맨 직원들, 그 법원도 여직원들 오죽 하?(맨 직원들, 그 법원도 여직원들 오죽 많아?)
102015 @1 예.(예.)
102015 #1 벨, 얼굴도이, 일메다 팔십이고 천하 미남이라.(벨, 얼굴도, 일 미터 팔십이고, 천하 미남이라.)
102015 @1 아.(아.)
102015 #1 텔런트엔 헤여. 늬덜은.(텔런트라고 해. 남들은.)
102015 @1 웃음.(웃음.)
102015 #1 미끈허지. 기냥 운동만 헤여. 운동은 뭐냐 허면은, 고등학교 때 저저, 저, 것ㄴ라 태권도.(미끈하지. 그냥 운동만 해. 운동은 뭐냐 하면은, 고등학교 때 저저, 저, 그것을 태권도.)
102015 @1 예.(예.)
102015 #1 태권도 전국 금메달 타나고.(태권도 전국 금메달 땀었고.)
102015 @1 하이고.(하이고.)
102015 @2 음.(음.)
102015 #1 고등학교 때. 검도가 삼단이고.(고등학교 때. 검도가 삼단이고.)
102015 @2 음.(음.)
102015 @1 하이고.(하이고.)
102015 #1 또.(또.)
102015 @2 너무 잘나 부난 장가 못 간 거구나.(너무 잘나 버리니까 장가 못 간 거구나.)
102015 @1 웃음.(웃음.)
102015 #1 계난 지금도 클럽에 강 운동허고 몸.(그러니까 지금도 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몸.)
102015 @1 웃음.(웃음.)
102015 @2 웃음.(웃음.)
102015 #1 근육이, 체육만 해 놓으난 파작. 배도 엇고. 게 법원에 벨 좋은 자리도, 난 장가는 안 간다. 여자는 윈. 거 이상헌 거라.(근육이, 체육만 해 놓으니까 파작. 배도 없고. 그래, 법원에 벨 좋은 자리도, 난 장가는 안 간다. 여자는 윈. 거 이상한 거야.)
102015 @2 귀찮덴.(귀찮다고.)

102015 #1 지금도 법원에 가면은, 법원 팀 테니스 선수로.(지금도 법원에 가면은, 법원 팀 테니스 선수로.)

102015 @2 음.(음.)

102015 #1 육지 뭐, 이십오 년 넘어서. 법원 들어간 지.(육지 뭐, 이십오 년 넘었어. 법원 들어간 지.)

102015 @1 예. 운동을 워낙 좋아해 부난게.(예. 운동을 워낙 좋아해 버리니까.)

102015 #1 운동만 해. 운동만. 지금도 헬스클럽인가 그디만 다니고. 골프, 골프치고.(운동만 해. 운동만. 지금도 헬스클럽인가 거기만 다니고. 골프, 골프치고.)

102015 @1 골프 치고.(골프 치고.)

102015 #1 그 집이 강 보면은 나, 돈이 월, 골프채가, 또.(그 집에 가서 보면 나, 돈이 월, 골프채가, 또.)

102015 @2 웃음.(웃음.)

102015 #1 저디, 검도복이 또 이만인 허게 있어.(저기, 검도복이 또 이만인 하게 있어.)

102015 @2 하하.(하하.)

102015 #1 이만이 거명한 옷. 골프채가 방으로 하나 그뜩이라. 골프 허고. 테니스 허고.(이만이 거먼 옷. 골프채가 방으로 하나 가득이라. 골프 하고. 테니스 하고.)

102015 @2 아이고, 지 좋은 일만 해영 살았신게. 어.(아이고, 자기 좋은 일만 해서 살고 있네. 어.)

102015 #1 그런 못생긴 놈이 어디 있나 거.(그런 못난 놈이 어디 있나 거.)

102015 @2 하하.(하하.)

102015 @1 서울 이신 사위는 무시거 햄수과?(서울 있는 사위는 뭐 하고 있습니까?)

102015 #1 아, 이, 건 저, 건설회사.(아, 이, 건 저, 건설회사.)

102015 @1 건설회사.(건설회사.)

102015 #1 건설회사.(건설회사.)

102015 @1 어.(어.)

102015 #1 거, 또 딸도 그 작산 돈 벌명 즈식도 하나밖에 안 나고.(거, 또 딸도 그 많은 돈 벌면서 자식도 하나밖에 안 나고.)

102015 @1 사위는 육지 사위 험디가?(사위는 육지 사위 했습니까?)

102015 #1 아니, 제주도.(아니, 제주도.)

102015 @1 제주도 사위.(제주도 사위.)

102015 #1 저, 구좌읍.(저, 구좌읍.)

102015 @1 음.(음.)

102015 #1 것도 고씨라. ㄱ뜨.(것도 고씨라. 같은.)

102015 @1 (웃음.) 음.((웃음.) 음.)

102015 #1 고씨. 구좌읍.(고씨. 구좌읍.)

102002 @1 시집, 장가. 계남 장가들 때 부모님이 계셔났지요?(시집, 장가. 그러니까 장가들 때 부모님이 계셨었죠?)

102002 #1 아이고.(아이고.)

102002 @1 예. 그,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셔수과?(예. 그,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02002 #1 아, 우리 아버지네 그때 저, 육십오 세에 잠자단 갑자기 돌아간. 막 건강해났주게.(아, 우리 아버지네 그때 저, 육십오 세에 잠자다가 갑자기 돌아갔어. 막 건강했었지.)

102002 @1 손지, 손지덜 본 다음에?(손자, 손자들 본 다음에?)

102002 #1 저 큰아덜 저, 손지덜 다 본 다음에.(저 큰아들 저, 손자들 다 본 다음에.)

102002 @1 다 본 다음.(다 본 다음.)

102002 #1 육십오 세에.(육십오 세에.)

102002 @1 예.(예.)

102002 #1 거 저, 밧디 갖다 완 누원 자는데, 출, 옛날은 출, 쉼 겨울에 먹을 걸로 출 비어. 출왔디 간 출 비언 나허고 같이 간 완에, 누원 자단 사망해 붙어서. 잠자단. 심장마비인가 그것고라.(거 저, 밧에 갔다 와서 누워서 자는데, 풀, 옛날은 풀, 소 겨울에 먹을 걸로 풀 베어. 풀밭에 가서 풀 비고, 나하고 같이 갔다 와서, 누워서 자다가 사망해 버렸어. 잠자다가. 심장마비인가 그것을.)

102002 @1 아.(아.)

102002 #1 심근경색.(심근경색.)

102002 @2 음, 심근경색.(음, 심근경색.)

102002 #1 고혈압, 이런 식으로.(고혈압, 이런 식으로.)

102002 @1 계남, 농사지으멍 쉼도 하영?(그러니까, 농사지으면서 소도 많이?)

102002 #1 아, 쉼은 별로 안 해연. 흐 서너 개쯤.(아, 소는 별로 안 했어. 한 서너 개쯤.)

102002 @1 예. 들은?(예. 말은?)

102002 #1 들은 엇어나고.(말은 없었고.)

102002 @1 엇어나고, 쉼만 키와났구나양. 농사 허난.(없었고, 소만 키웠었군요. 농사 하나까.)

102002 @2 여기서, 중간이난 쉼막이.(여기서, 중간이니까 외양간이.)

102002 #1 쉼막, 이디 쉼막 잇단. 저거 쇠막이주게.(외양간. 여기 외양간 있다가, 저거 외양간이지.)

102002 @1 원래가 저기가 쉼막.(원래가 저기가 외양간.)

102002 #1 저디 이거, 이거.(저기 이거, 이거.)

102002 @1 아, 이거.(아, 이거.)

102002 #1 쉼막인데, 쉼 안 키우난 이젠 다 뜯은 저, 방 만들어 불었주.(외양간 인데, 소 안 키우니까 이젠 다 뜯어서 저, 방 만들어 버렸지.)

102002 @1 아, 원래 쉼막 헐 때는 초가집이었고.(아, 원래 외양간 할 때는 초가 집이었고.)

102002 #1 초가집.(초가집.)

102002 @1 그다음 스투트 올련에 그냥 싹 바꿨구나.(그다음 슬레이트 올려서 그냥 싹 바꿨구나.)

102002 #1 싹 바꿨주.(싹 바꿨지.)

102016 @2 어르신 병원엔 뭐, 어디 아픈 다님수가?(어르신 병원엔 뭐, 어디 아 파서 다니고 있습니까?)

102016 #1 아, 병원엔 나 거 저, 한마, 올히 저, 작년부터 몸이 안 좋은 저, 한라 병원에 허난에 거, 지침을 자주해전 간 검사 받으난.(아, 병원엔 나 거 저, 한마, 올 해 저, 작년부터 몸이 안 좋아서 저, 한라병원에 하니까 거, 기침을 자주 해서서 가 서 검사 받으니까.)

102016 @2 음.(음.)

102002 #1 기관지 만성 폐질환이엔 헐에.(기관지 만성 폐질환이라고 해서.)

102016 @2 음.(음.)

102016 #1 계속 약 먹으멘.(계속 약 먹고 있어.)

102016 @2 음.(음.)

102016 #1 석 달에 혼 번 약 타당.(석 달에 한 번 약 타다가.)

102016 @1 아.(아.)

102002 #1 겨허고 이, 저, 척추도 시술 받아나고.(그리고 이, 저, 척추도 시술 받았었고.)

102016 @1 아.(아.)

102016 @2 아, 근데 영 앓앙 오래 있어도 괜찮긴, 앓앙 불편허지 안허파? 앓앙 오래 죽. 지금 한 시간 이상 앓아신디.(아, 그런데 이렇게 앓아서 오래 있어도 괜찮긴, 앓아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앓아서 오래 죽. 지금 한 시간 이상 앓았는데.)

102016 #1 괜찮여게.(괜찮아.)

102016 @2 괜찮아. 아.(괜찮아. 아.)

102016 #1 시술 받은 척추 뼈 세 개가 혼번에 꺼꺼져 불언.(시술 받아서 척추 뼈 세 개가 한 번에 꺾어져버렸어.)

102016 @1 예.(예.)

102016 @2 아.(아.)

102016 #1 거, 시술이라고 해서.(거, 시술이라고 해서.)

102016 @2 거, 다 안 짜영. 영, 찢렁.(거, 다 안 짜어서. 이렇게, 찢러서.)

102016 #1 영 헤영은에 땀허는 거.(이렇게 해서 땀하는 거.)

W102016 @2 찢렁 허는 거.(찢러서 하는 거.)

102016 # 세멘트 금 나민 블르듯이 그런 걸로 이디 척추 뼈.(시멘트 금 나면 바르듯이 그런 걸로 여기 척추 뼈.)

102016 @2 예. 시술. 수술, 수술은 막 이레 갈라 놓는 거고.(예. 시술. 수술, 수술은 막 이리 갈라 놓는 거고.)

102016 # 시술, 시술.(시술, 시술.)

102016 @1 시술.(시술.)

102016 # 엑스레이 찍으면 흰히 알아져 지금도.(엑스레이 찍으면 흰히 알아져 지금도.)

102016 @2 음.(음.)

3. 밭일

103001 @1 여, 그, 지금 말고 전이 농사는 뭐.(여기, 그, 지금 말고 전에 농사는 뭐.)

103001 #1 아이고, 전이 박했주. 게 저, 우리 부모네가 그 저, 구장질 허멍 땅을 많이 풀아 불어 가지고.(아이고, 전에 박했지. 게 저, 우리 부모네가 그 저, 구장질 하면서 땅을 많이 팔아 버려 가지고.)

103001 @1 예.(예.)

103001 #1 예, 참, 우리 어렵게. 농살 지어야 땅이 잇을 거. 땅이 잇어야.(예, 참, 우리 어렵게. 농살 지어야 땅이 잇을 거. 땅이 잇어야.)

103001 @1 예.(예.)

103001 #1 이 저, 남의 밭 빌어 가지고. 많이 농사도 짓고.(이 저, 남의 밭 빌려 가지고. 많이 농사도 짓고.)

103001 @1 무신 농사 주로?(무슨 농사 주로?)

103001 #1 아, 이, 주로게 그때 유채.(아, 이, 주로 그때 유채.)

103001 @1 유채.(유채.)

103001 #1 맥주맥.(맥주보리.)

103001 @1 예, 예. 맥주맥.(예, 예. 맥주보리.)

103001 #1 그 저, 그 때문에 이 저, 제주도 그, 농촌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거, 박정희 대통령. 그 전에는 그 비료 엇일 때는 농촌이 상당히 어려웠어. 농촌이 윈, 흥년 들고.(그 저, 그 때문에 이 저, 제주도 그, 농촌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거, 박정희 대통령. 그 전에는 그 비료 없을 때는 농촌이 상당히 어려웠어. 농촌이 윈, 흥년 들고.)

103001 @1 음.(음.)

103001 #1 비료 하기 시작하고. 그, 새마을 사업으로 허고, 유채 허고. 맥주맥을. 국가에서 수매해낫주게. 수매. 국가에서 주로.(비료 하기 시작하고. 그, 새마을 사업

으로 하고, 유채 하고. 맥주보리를. 국가에서 수매했었지. 수매. 국가에서 주로.)
 103001 @1 음.(음.)
 103001 #1 케난 그걸로 다 돈 허연.(그러니까 그걸로 다 돈 했어.)
 103001 @1 유채, 맥주맥 헤난 그 그르⁴⁶⁾엔 그다음 무신.(유채, 맥주보리 하고나
 서 그 그루엔 그다음 무슨.)
 103001 #1 콩 같고.(콩 같고.)
 103001 @1 그디 콩 같고.(거기 콩 같고.)
 103001 #1 조 같고.(조 같고.)
 103001 @1 그디 콩, 조 같고.(거기 콩, 조 같고.)
 103001 #1 음.(음.)
 103001 @1 예. 또 거 끝나민 거기 또 유채.(예. 또 거 끝나면 거기 또 유채.)
 103001 #1 유채.(유채.)
 103001 @1 맥주맥. 아.(맥주보리. 아.)
 103001 #1 고구마도 심고.(고구마도 심고.)
 103001 @1 고구마도.(고구마도.)
 103001 #1 예. 심고. 그때, 지금은 전분공장 잇는디, 전분공장이 엄청 제주도 많
 이 잇었어.(예. 심고. 그때, 지금은 전분공장 없는데, 전분공장이 엄청 제주도 많이
 잇었어.)
 103001 @1 예.(예.)
 103001 #1 한림이나, 저, 모슬포나, 이 저, 하귀나 전분공장. 생고구마로 전분허
 연. 이제는 전분, 전분공장이 잇어져 불고.(한림이나, 저, 모슬포나, 이 저, 하귀나
 전분공장. 생고구마로 전분했어. 이제는 전분, 전분공장이 없어져 버리고.)
 103001 @2 잇어전. 음.(없어졌어. 음.)
 103001 #1 거 수입허기 때문에.(거 수입하기 때문에.)
 103001 @2 뺏데기⁴⁷⁾도 막 받곡예.(절간고구마도 막 받고요.)
 103001 #1 예.(예.)
 103001 @1 케난 보리농산 기자 맥주맥.(그러니까 보리농산 그저 맥주보리.)
 103001 #1 맥주맥.(맥주보리.)
 103001 @1 말고.(말고.)
 103001 #1 쌀보리는 먹을 거.(쌀보리는 먹을 거.)
 103001 @1 쌀보리는 먹을 걸로만.(쌀보리는 먹을 걸로만.)
 103001 #1 식량으로만.(식량으로만.)
 103001 @1 어.(어.)
 103001 #1 주로 맥주맥 허면은 뭐, 백 가마니, 이백 가마니 허영 판매하면 목돈
 댜잖아.(주로 맥주보리 하면은 뭐, 백 가마니, 이백 가마니 해서 판매하면 목돈 되

46) '그르'는 농사를 지었던 자리이다.

47) '뺏데기'는 여기서 '감저뺏데기(고구마 고지)'를 가리킨다. '감저뺏데기'는 고구마를 납작납작하게 썰
 어서 말린 것이다.

잖아.)

103001 @2 그게 돈이라났구나.(그게 돈이었구나.)

103001 #1 그게 아이덜 흑비도 허고. 유채도 경허고.(그게 아이들 학비도 하고. 유채도 그렇게 하고.)

103001 @1 예.(예.)

103001 #1 유채도 혼 닷 섬, 열 섬씩 헤낫주.(유채도 한 닷 섬, 열 섬씩 했었지.)

103001 @1 음.(음.)

103001 #1 엄청나게 이, 밤낮으로 일해. 밤이도 강 보리도 비고.(엄청나게 이, 밤낮으로 일해. 밤에도 가서 보리도 베고.)

103003 @1 보리는 그, 감저 그루 다음, 조그루 다음에 보리 허는 건디, 허젠 허민 뭘, 뚝걸름 썬수과?(보리는 그, 감저 그루 다음, 조그루 다음에 보리 하는 건데, 하려고 하면 뭘, 돼지거름 썬습니까?)

103003 #1 처음에는 예, 저, 비료 잇을 때는, 도 침, 그런, 기가 막현. 생활해서. 우리는 곳 결혼헤연 살젠 허난. 뚝걸름이라고 알았고나게.(처음에는 예, 저, 비료 없을 때는, 도 침, 그런, 기가 막혔어. 생활했어. 우리는 갓 결혼해서 살려고 하니까. 돼지거름이라고 알고 있구나.)

103003 @1 웃음.(웃음.)

103003 #1 통시에, 재래식 통시에 이제.(돼지우리에, 재래식 화장실에 이제.)

103003 @1 예.(예.)

103003 #1 쉼 거름을 그, 혼 덜에 혼 번씩을 퍼다 놔.(소 거름을 그, 한 달에 한 번씩을 퍼다 놔.)

103003 @1 예.(예.)

103003 #1 통시에 퍼다 놓으면은.(돼지우리에 퍼다 놓으면은.)

103003 @1 예.(예.)

103003 #1 도새기가 걸 이제 똥싸멍 살당. 보리 철 돼민 시월달 돼면은 그, 내쳐. 뚝걸름을 내쳐. 보리씨를 걸름에 막 뿌려.(돼지가 걸 이제 똥 싸면서 살다가. 보리 철 되면 시월 되면은 그, 내쳐. 돼지거름을 내쳐서. 보리씨를 거름에 막 뿌려.)

103003 @1 예.(예.)

103003 #1 경 헤영 밭, 밭로 불라.(그렇게 해서 밭, 밭로 밟아.)

103003 @1 예.(예.)

103003 #1 그걸 그, 저, 쉼로 막 이경 땡기멍 불르고, 밭로 막 불리민 이거 뚝걸름이 풀풀헤여. 아, 이젠 그, 저, 멡탕이, 맥 알 건가?(그걸 그, 저, 소로 막 이끌고 다니면서 밟고, 밭로 막 밟으면 이거 돼지거름이 풀풀해. 아, 이젠 그, 저, 망태기, 먹서리 알 건가?)

103003 @2 멡탕이.(망태기.)

103003 #1 멡탕이에 이젠 걸 담아당 밧디 쉼로 시꺼당.(망태기에 이젠 걸 담아다가 밭에 소로 실어다가.)

103003 @2 음.(음.)

103003 #1 그때 구루마도 엇고, 질메에 시꺼당, 다 혼 천 평짜리면은 에, 혼 반, 반은 들어가지. 반.(그때 마차도 없고, 길마에 실어다가, 다 한 천 평짜리면은 에, 한 반, 반은 들어가지. 반.)

103003 @1 아.(아.)

103003 #1 통시. 이제는 보리 갈쟁 허면 그걸 여자가 전부 찢이멍, 요만씩 찢이 멩 온 밧을 헛거. 그 속에 씨가 이시니까.(돼지우리. 이제는 보리 갈려고 하면 그걸 여자가 전부 찢으면서, 요만씩 찢으면서 온 밧을 홀어. 그 속에 씨가 있으니까.)

103003 @1 예.(예.)

103003 #1 허경 이제 보리 갈앙. 허면은 요만씩, 요만씩 다 날 거 아니라? 그걸 비료 엇으니까 그, 걸름으로 헤영, 걸름 때문에 그걸 쉼 맥이던.(섞어서 이제 보리 갈아. 하면은 요만씩, 요만씩 다 날 거 아니라? 그걸 비료 없으니까 그, 거름으로 해서, 거름 때문에 그걸 소 먹이던.)

103003 @1 음.(음.)

103003 @2 그것.(그것.)

103003 #1 그걸 허단에 침, 박정희 대통령이 잘 허데. 최고 잘헌 대통령. 비료공장을 만들안. 비료 허니까 아, 그거 안 해도, 그냥 씨만 뿌려도. 비료 주니까.(그걸 하다가 참, 박정희 대통령이 잘 하데. 최고 잘한 대통령. 비료공장을 만들었어. 비료 하니까 아, 그거 안 해도, 그냥 씨만 뿌려도. 비료 주니까.)

103003 @2 달라전.(달라졌어.)

103003 #1 엄청나게 곡식이 좋안.(엄청나게 곡식이 좋았어.)

103003 @2 웃음.(웃음.)

103003 #1 그, 중산 촌이 잘살게 뉘 거지.(그, '중산간' 촌이 잘살게 된 거지.)

103003 @1 음.(음.)

103003 #1 곡식이 비료만 뿌리니까. 비료, 세상 안 뿌리던 밧 비료 줘 봐. 엄청 곡식이 잘돼 가지고.(곡식이 비료만 뿌리니까. 비료, 세상 안 뿌리던 밧 비료 줘 봐. 엄청 곡식이 잘돼 가지고.)

103003 @1 음.(음.)

103003 #1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농촌 살림은 잘 해서.(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농촌 살림은 잘 했어.)

103003 @2 케난 돛걸름에 씨 행 뿌린 다음에는.(그러니까 돼지거름에 씨 해서 뿌린 다음에는.)

103003 #1 뿌령.(뿌려서.)

103003 @2 ㄱ만 내릅니까?(가만 내버립니까?)

103003 #1 내불영. 내불어.(내버려서. 내버려.)

103003 @2 ㄱ만 내불어?(가만 내버려?)

103003 #1 비료도 엇이 어떻게. ㄱ만 내불민.(비료도 없이 어떻게. 가만 내버려

면.)

103003 @2 뭐 영 끝지 안 허고?(뭐 이렇게 끝지 안 하고?)

103003 #1 아니, 아니. 내불고. 거 밧고랑이라고 현 게 잇어. 고랑.(아니, 아니. 내버리고. 거 밧고랑이라고 하는 게 잇어. 고랑.)

103003 @2 예. 고랑.(예. 고랑.)

103001 #1 고랑에도 툇툇툇 허게 꿇영 내불면은, 그 뒤에 우리 젊은 아이덜은, 이거 요, 꿇영 내 분 디 흙을, 밧로 영 메와, 메와. 경해야 고랑도 나고, 이렇도 나고 경.(고랑에도 툇툇툇 하게 꿇어서 내버리면은, 그 뒤에 우리 젊은 아이들은, 이거 요, 꿇어서 내 버린 데 흙을, 밧로 이렇게 모아, 모아. 그렇게 해야 고랑도 나고, 이랑도 나고. 그렇게.)

103003 @1 예.(예.)

103003 @2 섬피질은 안 허고?(꿈게질은 안 하고?)

103003 #1 섬피⁴⁸⁾질은 안 허고.(꿈게질은 안 하고.)

103003 @1 음.(음.)

103003 #1 섬피질은 나중에 저, 비료 난 때에.(꿈게질은 나중에 저, 비료 난 때에.)

103003 @2 아.(아.)

103003 #1 대강 빼어 낱 섬피질.(대강 뿌려 놓고 꿈게질.)

103003 @2 뿌려 낱. 아, 그건 돛걸름 헐 땐 안 허고.(뿌려 놓고. 아, 그건 돼지 거름 할 땐 안 하고.)

103003 #1 돛걸름 안 헐 때.(돼지거름 안 할 때.)

103003 @1 음. 나중에 보리씨 그냥 밧다.(음. 나중에 보리씨 그냥 밧에.)

103003 #1 예. 비료 나니까.(예. 비료 나니까.)

103003 @1 예. 비료 날 때.(예. 비료 날 때.)

103003 #1 보리가 이렇게, 그렇게 잘돼.(보리가 이렇게, 그렇게 잘돼.)

103003 @1 예. 비료 엇일 땐 돛걸름에.(예. 비료 없을 땐 돼지거름에.)

103003 #1 돛걸름에.(돼지거름에.)

103003 @1 불량. 허고.(발라서. 하고.)

103003 #1 예. 그렇지. 불량.(예. 그렇지. 발라서.)

103003 @1 허고. 게민 보리는 그, 맥주맥허고 술보리 말고 또 다른 건.(하고. 그러면 보리는 그, 맥주보리하고 쌀보리 말고 또 다른 건.)

103003 #1 유채계. ㄴ짜.(유채. 같이.)

103003 @1 ㄴ짜.(같이.)

103003 #1 거 다, 저 저, 월동 작물이주게. 유채.(거 다, 저 저, 월동 작물이지. 유채.)

48) '섬피'는 길쭉길쭉한 잎나무를 여러 개 함께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들고는 뿌린 씨를 묻고 밧이랑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이다. 지역에 따라 '끄서귀', '끄슬귀', '끄슬피', '섬비'라고 한다.

103003 @1 맞수다.(맞습니다.)

103006 @2 보리도 뭐 종류가 좀 있지 않우과?(보리도 뭐 종류가 좀 있지 않습니까?)

103006 #1 아, 잇주. 잇고말고. 보리도 게, 이, 토지가 좋은 밧 싯고 늦인 밧 잇어.(아, 있지. 잇고말고. 보리도 게, 이, 토지가 좋은 밧 잇고, 나쁜 밧 잇어.)

103006 @2 음.(음.)

103006 #1 좋은 밧은, 이런 디 좋은 밧은 앓인뱅이 슬오리라고 해 가지고, 수확도 나고 썬이 많이 나고.(좋은 밧은, 이런 데 좋은 밧은 ‘앓인뱅이’ 쌀보리라고 해 가지고, 수확도 나고 썬이 많이 나고.)

103006 @1 앓은뱅이 슬오리?(앓은뱅이 쌀보리?)

103006 #1 앓인뱅이 슬오리엔 현 게 일반.(앓은뱅이 쌀보리라고 하는 게 일반.)

103006 @2 아, 쥘른.(아, 째은.)

103006 #1 쥘른 거.(째은 거.)

103006 #1 수확도 많이 나고 좋은 밧이난.(수확도 많이 나고 좋은 밧이니까.)

103006 @1 아.(아.)

103006 @2 음.(음.)

103006 #1 늦인 밧은 슬오리 안 같아. 못 웨어.(나쁜 밧은 쌀보리 안 같아. 못 웨어.)

103006 @1 아.(아.)

103006 @2 어.(어.)

103006 #1 크질 안 헤여.(크질 안 해.)

103006 @2 어. 땅이 안 좋으니까.(어. 땅이 안 좋으니까.)

103006 #1 늦인 밧딘 뭘 허느냐. 낭 나는 슬오리라고 해 가지고, 품종을, 수확도 아니 나는 거. 대만 질게 나는 거.(나쁜 밧엔 뭘 하느냐. ‘낭 나는 슬오리’라고 해 가지고, 품종을, 수확도 아니 나는 거. 대만 길게 나는 거.)

103006 @1 낭 나는 슬오리?(낭 나는 슬오리?)

103006 #1 으, 낭 나는 슬오리.(으, 낭 나는 슬오리.)

103006 @1 음.(음.)

103006 #1 그거 허면 늦인 밧디 그거 헤여. 허면은 앓인뱅이 슬오리 에, 천 평에 열 섬 남시민 건 닷 섬밧기 안 나.(그거 하면 나쁜 밧에 그거 해. 하면은 앓인뱅이 슬오리 에, 천 평에 열 섬 난다면, 건 닷 섬밖애 안 나.)

103006 @1 음. 낭 나는 슬오리?(음. ‘낭’ 나는 쌀보리?)

103006 #1 낭 나는 슬오리. 수확이. 낭은 거, 땅, 토질이 늦인, 나쁜 땅은 걸 간다 말이라.(‘낭’ 나는 쌀보리. 수확이. ‘낭’은 거, 땅, 토질이 나쁜, 나쁜 땅은 걸 간다 말이라.)

103006 @1 아. 앓은뱅이 슬오리?(아. 앓은뱅이 쌀보리?)

103006 #1 낭 나는 슬오리.(‘낭’ 나는 쌀보리.)

103006 @1 낭 나는 슬오리.(‘낭’ 나는 쌀보리.)
 103006 #1 여름엔 저기, 조도 개발시리⁴⁹⁾가 있고. 강돌좌리⁵⁰⁾가 있고.(여름엔 저기, 조도 ‘개발시리’가 있고. ‘강돌좌리’가 있고.)
 103006 @1 강돌좌리가 잇구나.(‘강돌좌리’가 잇구나.)
 103006 #1 개발시리는 좋은 맛디.(‘개발시리’는 좋은 밭에.)
 103006 @1 음.(음.)
 103006 #1 건 저, 차조, 차조라고 해서 건 밥 맛도 좋고. 찰떡같이 허고.(건 저, 차조, 차조라고 해서 건, 밥 맛도 좋고. 찰떡같이 하고.)
 103006 @1 음.(음.)
 103006 #1 늦인 밭은 강돌좌리라고 해 가지고, 낭 이만이 나 가지고, 모인조 해 가지고.(나쁜 밭은 ‘강돌좌리’라고 해 가지고, 나무 이만이 나 가지고, 메조 해 가지고.)
 103006 @1 음.(음.)
 103006 @2 음.(음.)
 103006 #1 거 모인조. 이제는 그 모인조가 더 좋아. 거 가장 닦은 거.(거 메조. 이제는 그 메조가 더 좋아. 거, 가장 닦은 거.)
 101001 @1 보리가 십일월?(보리가 십일월?)
 101001 #1 아, 십일월 십오일게.(아, 십일월 십오일.)
 101001 @1 십일월 십오일.(십일월 십오일.)
 101001 #1 다 밭 멘들앗당 파종해영.(다 밭 만들었다가 파종해서.)
 101001 @1 십일월 십오일.(십일월 십오일.)
 101001 @2 음.(음.)
 101001 #1 십일월 오일부떠 십오일.(십일월 오일부터 십오일.)
 103007 @1 보리 영 흐뎡 현 다음에, 이월달에 보리 밍기도 해낫수과?(보리 이렇게 조금 한 다음에, 이월에 보리 밍기도 했었습니까?)
 103007 #1 보리밍긴 여긴 안 해서.(보리밍긴 여긴 안 했어.)
 103007 @1 보리밍긴 안 해영 그냥.(보리밍긴 안 하고 그냥.)
 103007 #1 여기 땅은 보리밍기 안 해도 자갈밭이난에.(여기 땅은 보리밍기 안 해도 자갈밭이니까.)
 103007 @1 아.(아.)
 103007 #1 잘 돼고.(잘 되고.)
 103007 @1 예.(예.)
 103007 #1 저디 동촌터레는 그딘 블라 줘야 돼고.(저기 동촌으로는, 거긴 밍가 줘야 되고.)
 103007 @1 블라 줘야 돼고.(밍가 줘야 되고.)

49) ‘개발시리’는 이삭의 끝이 개의 발같이 세 가닥이고 쌀알이 거무스름한, 차진 조의 한 가지이다.

50) ‘강돌좌리’는 쌀알이 노랑고 메진 조의 한 가지이다.

103007 @2 으, 폭신헤 놓으난 막 블라야지.(으, 폭신헤 놓으니까 막 밟아야지.)
 103007 #1 여기 한림, 한경은, 한림, 애월은 땅이 제주도에서 최고 좋다고 허잖아.(여기 한림, 한경은, 한림, 애월은 땅이 제주도에서 최고 좋다고 하잖아.)
 103007 @1 아. 케난.(아. 그러니까.)
 103007 #1 자갈왓이난 밟지 안 해도.(자갈밭이니까 밟지 안 해도.)
 103007 @1 밟지 안 해도.(밟지 안 해도.)
 103007 #1 저, 구좌, 조천더레 가면은 그 저디.(저, 구좌, 조천으로 가면은 그 저기.)
 103007 @2 푸석푸석헌 땅덜.(푸석푸석한 땅들.)
 103007 #1 먼 블라야주.(모두 밟아야지.)
 103009 @1 검질은 메어낫수과? 보리밭.(김은 땀었습니까? 보리밭.)
 103009 #1 김땀엇지. 땀엇어.(김땀엇지. 땀엇어.)
 103009 @1 보리밭 검질.(보리밭 김.)
 103009 #1 나도 메어낫어.(나도 땀엇어.)
 103009 @1 아.(아.)
 103009 #1 검질메어야 돼어.(김매야 돼.)
 103008 @1 흔 번, 두 번?(한 번, 두 번?)
 103008 #1 아이, 흔 번쫘 메고.(아이, 한 번쫘 매고.)
 103008 @1 흔 번양?(한 번요?)
 103008 #1 예. 검질 보리밭디 검질도 메야주.(예. 김 보리밭에 김도 매야지.)
 103008 @1 삼월에?(삼월에?)
 103008 #1 흔 삼월에. 저, 예. 입춘.(한 삼월에. 저, 예. 입춘.)
 103008 @2 입춘.(입춘.)
 103008 #1 입춘. 입춘 넘으면.(입춘. 입춘 넘으면.)
 103008 @1 입춘 넘으면.(입춘 넘으면.)
 103008 #1 입춘 넘으면은 옷비료도 주고. 검질도 메고.(입춘 넘으면은 옷비료도 주고. 김도 매고.)
 103008 @1 아, 옷비료도 주고.(아, 옷비료도 주고.)
 103008 #1 케난 입춘 넘어도 막 추워.(그러니까 입춘 넘어도 막 추워.)
 103008 @1 추워예.(추워요.)
 103008 #1 그때 검질메당 막 춥고 헤낫어.(그때 김매다가 막 춥고 했엇어.)
 103008 @1 아, 보리밭도 검질메는구나.(아, 보리밭도 김매는구나.)
 103008 #1 아이, 메어.(아이, 매어.)
 103008 @1 입춘 넘으면 음.(입춘 넘으면 음.)
 103009 @2 여기 검질은 어떤 검질 이수과?(여기 김은 어떤 김 있습니까?)
 103009 #1 검질은 저, 보리밭디야. 하작물에 나는 검질이 잇고, 동작물에 나는 검질이 잇어. 동작물에는 주로 저기 스시락쿨, 진풀, 이런 게 동작물이고. (김은 저,

보리밭에야. 하작물에 나는 잡풀이 있고, 동작물에 나는 잡풀이 있어. 동작물에는 주로 저기 ‘스시락쿨’, 별꽃, 이런 게 동작물이고.)

103009 @2 스시락쿨?('스시락쿨?')

103009 #1 으, 스시락쿨허고 진풀.(으, '스시락쿨'하고 별꽃.)

103009 @2 스시락쿨예.(‘스시락쿨’요.)

103009 #1 막 줄 나는 거.(막 줄 나는 거.)

103009 @2 음.(음.)

103009 #1 안 매민 보리 웃터레 올라가. 줄 낭.(안 매면 보리 위로 올라가. 줄 돌아서.)

103009 @1 아.(아.)

103009 #1 스시락쿨.(‘스시락쿨’.)

103009 @1 보리 웃터레 영 감아지명 올라가.(보리 위로 이렇게 감아지면서 올라가.)

103009 #1 올라가 불어.(올라가 버려.)

103009 @1 감아지명 올라가.(감아지면서 올라가.)

103009 #1 계민 보리 우이 더경 보리가 영 안 돼영 죽어 불어.(그러면 보리 위에 덮어서, 보리가 영 안 되어서 죽어 버려.)

103009 @1 아.(아.)

103009 #1 검질 메야지. 여름에는 제완이 검질이라고 있어. 제완이.(김매야지. 여름에는 바랭이라고 있어. 바랭이.)

103009 @2 제안지, 제안지.(바랭이. 바랭이.)

103009 #1 제안지 방석에 앉지 말란 노래도 있고.(바랭이 방석에 앉지 말란 노래도 있고.)

103009 @1 제안지 방석에 앉지 말라.(바랭이 방석에 앉지 말라.)

103009 #1 제안지가, 여름엔 주로 제안지 검질.(바랭이가, 여름엔 주로 바랭이 잡풀.)

103009 @2 그건 무슨 말이파? 제안지 방석에 앉지 말라.(그건 무슨 말입니까? 바랭이 방석에 앉지 말라.)

103009 #1 제완이 검질이 그, 제완이가 이만이 지난 그 방석에 앉았저 현 말이 주게. 제안지 방석에. 제완이가 나면 막 퍼져. 요놈에 제완이.(바랭이 잡풀이 그, 바랭이가 이만이 있으니까 그 방석에 앉고 있다 하는 말이지. 바랭이 방석에. 바랭이가 나면 막 퍼져. 요놈의 바랭이.)

103009 @2 아.(아.)

103009 #1 나 방석에 앉지 말라고. 노래로 검질메명. 사대⁵¹⁾ 노래. 사대.(나 방석에 앉지 말라고. 노래로 김매면서. ‘사대’ 노래. 사대.)

103009 @1 예.(예.)

51) ‘사대’는 검질 매는 소리이다.

103009 @2 스대. 사대.(‘스대’. ‘사대’.)
 103009 #1 사대, 검질메명.(‘사대’, 김매면서.)
 103009 @2 사대.(‘사대’.)
 103009 #1 명예가 있고.(발머리가 있고.)
 103009 @2 음.(음.)
 103009 #1 앞 명예, 뒷 명예. 밧디.(앞 발머리, 뒷 발머리. 발에.)
 103009 @1 음.(음.)
 103009 @2 검질예?(김이요?)
 103009 #1 예. 검질멜 때. 혼자 앞 명예랑 제기 허곡 뒷 명예랑 물러가라는 게, 빨리 앞더레 가라는 말이라.(예. 김멜 때. 빨리 앞 발머리랑 어서 하고 뒷 발머리랑 물러가라는 게, 빨리 앞으로 가라는 말이라.)
 103009 @1 (웃음). 검질 빨리 빨리 메라.((웃음). 김 빨리 빨리 매라.)
 103009 @2 음.(음.)
 103009 @1 저, 어머니 아버진 앞더레 가는데 아이덜은 막 뒤에 처지난 허는 말이로구나.(저, 어머니 아버진 앞으로 가는데 아이들은 막 뒤에 처지니까 하는 말로구나.)
 103009 #1 음. 앞 명예, 뒷 명예.(음. 앞 발머리 뒷 발머리.)
 103009 @1 이제 보리, 혼 덜 후면은 보리 빌 거 아니짜?(이제 보리, 한 달후면은 보리 벨 거 아닙니까?)
 103010 #1 이제 맥주보리만 허주. 맥주보리만.(이제 맥주보리만 하지. 맥주보리만.)
 103010 @1 맥주보리양?(맥주보리요?)
 103010 #1 이제 혼 덜이 아니, 혼 열흘 이시민 비어.(이제 한 달이 아니, 한 열흘 있으면 배어.)
 103010 @1 열흘 이시민.(열흘 있으면.)
 103010 #1 오월 이십오일.(오월 이십오일.)
 103010 @1 보리.(보리.)
 103010 #1 누렁허주게.(누렁지.)
 103010 @1 예. 지금은 저, 다 뭘로, 트, 아 저저, 뭘로.(예. 지금은 저, 다 뭘로, 트, 아 저저, 뭘로.)
 103010 #1 콤바인으로. 콤바인으로.(콤바인으로. 콤바인으로.)
 103010 @1 콤바인으로 다.(콤바인으로 다.)
 103010 #1 바로 비명. 바로 그, 저장고레.(바로 비면서. 바로 그, 저장고로.)
 103010 @1 예.(예.)
 103010 #1 바로 막 거 저, 들리우는 저장고 있어 거.(바로 막 거 저, 말리는 저장고 있어 거.)
 103010 @1 예.(예.)

103010 #1 거기서 나왕 바로 실러 가는 거.(거기서 나와서 바로 실어 가는 거.)

103010 @1 거기 콤바인 허면서 기차 탈곡 다다닥.(거기 콤바인 하면서 그냥 탈곡 다다닥.)

103010 #1 그렇지. 콤바인 허는 사람이. 저장고도 싣주게. 우린 훨씬 편해여.(그렇지. 콤바인 하는 사람이. 저장고도 있지. 우린 훨씬 편해.)

103010 @1 음.(음.)

103010 #1 가만히 이시면은 거, 평당 이십만 원, 물리는 값.(가만히 있으면은 거, 평당 이십만 원, 말리는 값.)

103010 @1 아.(아.)

103010 #1 이십만 원 주면은 자기대로 비어당 자기네 콤바인.(이십만 원 주면은 자기대로 베어다가 자기네 콤바인.)

103010 @1 콤바인 엇일 땐 무시걸로?(콤바인 없을 땐 무엇으로?)

103010 #1 아이고, 옛날 낵 빌어당.(아이고, 옛날 낵 빌려다가.)

103010 @1 낵 빌어당.(낵 빌려다가.)

103010 #1 혼 열씩 빌어당. 일당 주명.(한 열씩 빌려다가. 일당 주면서.)

103010 @1 예.(예.)

103010 #1 빌어당.(빌려다가.)

103010 @1 그, 호미로 다 비영양.(그, 낫으로 다 베어요.)

103010 #1 음.(음.)

103010 @1 경 허고 무끄고. 무시걸로 무껴수과? 그걸.(그렇게 하고 묶고. 무엇으로 묶었습니까? 그걸.)

103010 #1 가마니. 가마니 줄이라고 있어. 가마니, 가마니.(가마니. 가마니 줄이라고 있어. 가마니, 가마니.)

103010 @1 가마니.(가마니.)

103010 #1 가마니 줄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이만씩 도로기로 무경 팔아. 상회에 팔아.(가마니 줄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이만씩 도로기로 묶어서 팔아. 상회에 팔아.)

103010 @2 음.(음.)

103010 @1 음.(음.)

103010 #1 이만이씩 무경. 혼 도로기에 만원이면 만원씩. 파는 거.(이만큼씩 묶어서. 한 도로기에 만원이면 만원씩. 파는 거.)

103010 @2 아 맞아, 맞아.(아 맞아, 맞아.)

103010 #1 그거 사당 혼 발씩 끊영 무껏지.(그거 사다가 한 발씩 끊어서 묶었지.)

103010 @2 거, 막 어릴 땐 안 해, 안 해실 거 아니파예?(거, 막 어릴 땐 안 해, 안 했을 거 아닙니까?)

103010 #1 건 중간에. 어릴 땐, 어릴 때는 그, 보리로.(건 중간에. 어릴 땐, 어릴 때는 그, 보리로.)

103010 @2 보리로.(보리로.)

103010 #1 보리로 영 오그령 무건.(보리로 이렇게 오그려서 묶었어.)

103010 @1 음.(음.)

103010 #1 말재엔 가마니 노로 사단에 해연.(나중엔 가마니 노로 사다가 했어.)

103010 @1 아.(아.)

103010 #1 그렇게 좋아.(그렇게 좋아.)

103010 @1 나중엔 가마니 노로 해연 무건.(나중엔 가마니 노로 해서 묶었어.)

103010 @2 음.(음.)

103010 @1 경 해연에. 그다음 여기 실러단 여기 늘어수과? 아니면 밧디 늘어수과?(그렇게 해서. 그다음 여기 실어다가 여기 쌓았습니까? 아니면 밧에 쌓았습니까?)

103010 #1 밧디. 대부분. 처음에는, 걸름으로 흘 때는 저, 전부 구루마로 집이 시꺼단 놀언에 저디, 흘트는 걸로 흘탄. 맵타기로 두드려당 마당에서 장만해신디.(밧에. 대부분. 처음에는, 거름으로 할 때는 저, 전부 마차로 집이 실어다가 쌓아서 저기, 훑는 걸로 훑어서. 맵타기로 두드려다가 마당에서 장만했는데.)

103010 @1 음.(음.)

103010 #1 내중에는 그 저디, 탈곡기가 나오고 허니까, 그냥 영 밀리민 그냥 장만해지는 탈곡기가 있어. 처음에.(나중에는 그 저기, 탈곡기가 나오고 허니까, 그냥 이렇게 밀리면 그냥 장만해지는 탈곡기가 있어. 처음에.)

103010 @1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3010 #1 영 밀려 가민.(이렇게 밀려 가면.)

103010 @2 음.(음.)

103010 #1 밧디 놀영 놔두면은 밧디 강 영 장만, 그게 아주 편해. 야, 이거 살맛나다.(밧에 쌓아서 놔 두면은 밧에 가서 이렇게 장만, 그게 아주 편해. 야, 이거 살맛난다.)

103010 @1 음.(음.)

103010 #1 허단 말재엔 또 콤바인이 나오고.(하다가 말재엔 또 콤바인이 나오고.)

103010 @2 콤바인은 기냥 다 밧에서 해결해 부는 거 아니꽈?(콤바인은 그냥 다 밧에서 해결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103010 #1 아이 저, 자기대로 해 가. 우린 구경만 허는 거.(아이 저, 자기대로 해 가. 우린 구경만 하는 거.)

103010 @1 예.(예.)

103010 #1 거찌지도 안 혀고, 거기서 바로 농협에 시꺼 가. 건디 이제는 농협에서 맥주보리 아이 받으켄 험서.(건드리지도 안 하고, 거기서 바로 농협에 실어 가. 그런데 이제는 농협에서 맥주보리 아니 받겠다고 하고 있어.)

103010 @1 아.(아.)

103010 #1 아이 받으켄. 맥주보리만 받아시면은 그, 상당히, 왜 좋으냐면, 가격은 안 주어도 이 농사라는 게 연작, 연작 피해가 많이 있어.(아니 받겠다고. 맥주보리만 받았으면은 그, 상당히, 왜 좋으냐면, 가격은 안 주어도 이 농사라는 게 연작, 연작 피해가 많이 있어.)

103010 @1 음.(음.)

103010 #1 양배추만 계속 갈면은 뿌리혹병 걸리고 양배추가 안 돼어.(양배추만 계속 갈면은 뿌리혹병 걸리고 양배추가 안 돼어.)

103010 @1 아.(아.)

103010 #1 계난 가끔 보리 갈양, 땅을 교환해 줘야 다음에 양배추가 되는 건디.(그러니까 가끔 보리 갈아서, 땅을 교환해 줘야 다음에 양배추가 되는 건데.)

103010 @1 음.(음.)

103010 #1 보리 아이 받으켄 해 부니까.(보리 아니 받겠다고 해 버리니까.)

103010 @1 하.(하.)

103010 #1 농협에서.(농협에서.)

103010 @1 그럼, 다른 걸 갈아야 돼큰게.(그럼, 다른 걸 갈아야 되겠네.)

103011 #1 다른 걸 갈아야. 다른 거는 이제는 뭐, 겨울, 겨울 농사에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없어.(다른 걸 갈아야. 다른 거는 이제는 뭐, 겨울, 겨울 농사에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없어.)

103011 @1 겨울 농사라 부난양?(겨울 농사라 버리니까요?)

103011 #1 양배추하고 브로콜리만.(양배추하고 브로콜리만.)

103011 @1 예.(예.)

103011 #1 계난 브로콜리하고 양배추에만. 젊은 사름덜은 그것에만 들언. 대부분.(그러니까 브로콜리하고 양배추에만. 젊은 사람들은 그것에만 쏠려서. 대부분.)

103011 @1 음.(음.)

103011 #1 아이고, 브로콜리도 이 저, 일도 해낫주마는, 꼭 눈 올 때 허는 거라 작업을. 밭디 강. 막 추울 때.(아이고, 브로콜리도 이 저, 일도 했었지마는, 꼭 눈 올 때 하는 거라 작업을. 밭에 가서. 막 추울 때.)

103011 @1 음.(음.)

103011 #1 경 해당 판매.(그렇게 해다가 판매.)

103011 @1 그, 탈곡기 허기 전인 마당에 그거.(그, 탈곡기 하기 전엔 마당에 그거.)

103011 #1 마당에 흘탕.(마당에 훑아서.)

103011 @1 흘타근에.(훑아서.)

103011 #1 처음에는 도깨라는 게 있어.(처음에는 도리깨라는 게 있어.)

103011 @1 도끼로.(도리끼로.)

103011 #1 도끼로 두드렁.(도리끼로 두드려서.)

103011 @1 두드렁.(두드려서.)

103011 #1 거, 불려 가지고 저, 쌀 만들, 저 보리를 만들었는데, 그루후에는 탈곡기가 나와, 보리.(거, 드려 가지고 저, 쌀 만들, 저 보리를 만들었는데, 그 후에는 탈곡기가 나와서, 보리.)

103011 @1 음.(음.)

103011 #1 그, 콧영 텅기명.(그, 끌고 다니면서.)

103011 @2 맞수다.(맞습니다.)

103011 #1 콧영 텅기는 사름덜, 콧영 텅기명 장만해 주고.(끌고 다니는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장만해 주고.)

103011 @1 그때 도리깨로, 아, 도끼로 두드린 다음엔 어디 그다음엔 어디 강 헤 낫수과? 그.(그때 도리깨로, 아, 도끼로 두드린 다음엔 어디 그다음엔 어디 가서 했었습니까? 그.)

103011 #1 도끼로 두드리민 이제는 그, 마당에서 두드리민 거기서 다 불려사주. (도리깨로 두드리면 이제는 그, 마당에서 두드리면 거기서 다 드려야지.)

103011 @1 불려.(드려.)

103011 #1 다 불려 가지고 저, 곡식을 만드는 거지. 곡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저, 물방에엔 현 거 알건가? 물방에.(다 드려 가지고 저, 곡식을 만드는 거지. 곡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저, 연자매라고 하는 거 알건가? 연자매.)

103012 @1 물방에.(연자매.)

103012 @2 음.(음.)

103012 @1 여기, 이 동네도 물방에 잇어낫수과?(여기, 이 동네도 연자매 있었습니까?)

103012 #1 아이고, 동네, 동네 마을마다 잇주. 물방에가. 그 물방에 강 곡식을 둥그렁, 조나 보리나 다 나와야 밥을 해 먹을 거 아니라.(아이고, 동네, 동네 마을마다 있지. 연자매가. 그 연자매에 가서 곡식을 둥그려서, 조나 보리나 다 나와야 밥을 해 먹을 거 아니라.)

103012 @2 음.(음.)

103012 #1 경혜당 이제는, 우리 현 물방에 둥그런 먹어서. 다끄는, 보리 다끄는 기계가, 이 근처에서. 대림에 정미소. 대림에 정미소가 하나.(그러다가 이제는, 우리 현 연자매 둥그려서 먹었어. 다끄는, 보리 다끄는 기계가, 이 근처에서. 대림에 정미소. 대림에 정미소가 하나.)

103012 @1 아.(아.)

103012 #1 다끄는 걸, 보리 다끄는 걸 허더라고.(다끄는 걸, 보리 다끄는 걸 허더라고.)

103012 @1 보리 다끄는 걸.(보리 다끄는 걸.)

103012 #1 으, 그 전엔 물방에 쉼 몰양 빙빙. 둥그리명, 거 이제 물 지치명 해 연, 아주 거칠거칠 허지. 쓸이.(으, 그 전엔 연자매 소 몰고 빙빙. 둥그리면서, 거 이제 물 끼얹으면서 했어, 아주 까칠까칠 하지. 쌀이.)

103012 @1 예.(예.)

103012 @2 물은 몇 번씩 지쳐야 됩니까? 물.(물은 몇 번씩 끼었어야 됩니까? 물.)

103012 #1 물 지치명 해당 닦아다 낡. ㄹ레에 곱앙 걸로 밥 해영 먹어낯주.(물 끼었으면서 해다가 닦아다 놓고. 맷돌에 갈아서 걸로 밥 해서 먹었었지.)

103012 @2 아, 최종적으로 ㄹ레에 곱앙.(아, 최종적으로 맷돌에 갈아서.)

103012 #1 다까다 낡.(다까다 놓고.)

103012 @1 다까다 낡.(다까다 놓고.)

103012 #1 ㄹ레 잇잖아. ㄹ레에 곱면은 보리쌀이 반착으로 끊어져.(맷돌 잇잖아. 맷돌에 갈면은 보리쌀이 반으로 끊어져.)

103012 @1 음.(음.)

103012 @2 음.(음.)

103012 #1 그걸로 밥을 해 먹었주.(그걸로 밥을 해 먹었지.)

103012 @1 음.(음.)

103012 #1 아, 이젠 허다가 다끄는 공장이 나왔다.(아, 이젠 하다가 다끄는 공장이 나왔다.)

103012 @1 음.(음.)

103012 #1 이제 보리를 구루마로 이제 대림에, 대림에 나도 가 왔주마는, 그 밥을 먹어보니 그렇게 최고 맛있어.(이제 보리를 마차로 이제 대림에, 대림에 나도 가 왔지마는, 그 밥을 먹어보니 그렇게 최고 맛있어.)

103012 @1 음.(음.)

103012 #1 엄청 맛 좋아. 저 저, 다끈 보리.(엄청 맛 좋아. 저 저, 다끈 보리.)

103012 @2 음. 다끈 보리는.(음. 다끈 보리는.)

103012 #1 다끈 보리. 야, 그렇게 맛이 좋을 수가 없어.(다끈 보리. 야, 그렇게 맛이 좋을 수가 없어.)

103012 @2 게 ㄹ레에 곱민 막 이제 찰이 부서져 부난.(게 맷돌에 갈면 막 이제 찰이 부서져 버리니까.)

103012 #1 아이고, 부서지고 체가 그냥 돌아져 있어.(아이고, 부서지고 체가 그냥 달려 있어.)

103012 @1 예.(예.)

103012 #1 아멩 들방에 둥그려도 문 아이 까경.(아무리 연자매 둥그려도 전부 아니 까져서.)

103012 @1 꺼끌꺼끌.(꺼끌꺼끌.)

103012 #1 꺼끌꺼끌.(꺼끌꺼끌.)

103012 @2 아.(아.)

103012 #1 하 이거, 다끈 걸로 허니 허양헌.(하 이거, 다끈 걸로 하니 하얀.)

103012 @2 아.(아.)

103012 @1 웃음.(웃음.)

103012 #1 저, 처음 올라갈 때, 서울 간 그 저 어디, 공장에 그 의자 공장 갈 때, 이놈으 밥을. 밥은 잘 주대. 콩나물국에 저, 샘표간장 갖 나온 때. 그놈으 간장이 맛좋기를. 제주도에서 그 간장을 맛 안 봤다 말이여.(저, 처음 올라갈 때, 서울 가서 그 저 어디, 공장에 그, 의자 공장 갈 때, 이놈으 밥을. 밥은 잘 주대. 콩나물국에 저, 샘표간장 갖 나온 때. 그놈으 간장이 맛좋기를. 제주도에서 그 간장을 맛 안 봤다 말이여.)

103012 @2 웃음.(웃음.)

103012 @1 웃음.(웃음.)

103012 #1 샘, 샘, 샘이 나는 샘표간장 허고.(샘, 샘, 샘이 나는 샘표간장 하고.)

103012 @2 음.(음.)

103012 #1 콩나물국허고 밥을. 근밥을 주니, 이거 먹어도 배, 배가, 뻐 이만이 불어도 들어 먹고만 싶어. 게 그렇게 맛있어. 그, 샘표간장.(콩나물국하고 밥을. 흰 밥을 주니, 이거 먹어도 배, 배가, 뻐 이만이 불려도 들어 먹고만 싶어. 게 그렇게 맛있어. 그, 샘표간장.)

103012 @2 맞수다게. 간장이 그뻐 좋아수다. 허.(맞습니다. 간장이 그뻐 좋았습니다. 허.)

103012 #1 아, 그 간장 잊어 불질 안 헤여.(아, 그 간장 잊어 버리질 안 해.)

103012 @1 웃음.(웃음.)

103012 #1 나 서울 갈 때 그 간장.(나 서울 갈 때 그 간장.)

103013 @1 그, 개역도 해 먹어났수과?(그, 미숫가루도 해 먹었었습니까?)

103013 #1 하이고, 개역은 전부. 여름에.(하이고, 미숫가루는 전부. 여름에.)

103013 @1 여름에.(여름에.)

103013 #1 그게 음식이라. 개역 그거 점심 ㄴ뜨면 다. 밧디 가면은 그걸로 점심. 개역으로 먹엇주.(그게 음식이라. 미숫가루 그거 점심 같은 데. 밧에 가면은 그걸로 점심. 미숫가루로 먹엇지.)

103013 @1 개역으로.(미숫가루로.)

103013 #1 개역으로. 물은 저, 요즘 ㄴ뜨면은 위생병, 위장병 걸리는데 하천에 고인 물 떠당 개역 버무령 먹어.(개역으로. 물은 저, 요즘 같으면은 위생병, 위장병 걸리는데 하천에 고인 물 떠다가 미숫가루 버무리서 먹어.)

103013 @1 버무령.(버무리서.)

103013 @2 케난 개역은 어떻 만들어수과?(그러니까 미숫가루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3013 #1 개역? 처음에 만들 때는, 그, ㄴ레에.(미숫가루? 처음에 만들 때는, 그, 멧돌에.)

103013 @2 음.(음.)

103013 #1 막 갈아. 보까 ㄴ정. 보깁. 보리 보깁.(막 갈아. 볶아 가지고. 볶아서.)

보리 볶아서.)

103013 @2 보깡.(볶아서.)

103013 #1 보리로, 생 보리로 보깡, 막 곱앙은엥에, 이제 또 거를 체로 ㄱ를 쳐. 쳐 뒹 밑에 것만 헤영, 꺼끌꺼끌 해도 그, 개역은 거 보끈 거난에 코시롱허주.(보리로, 생 보리로 볶아서, 막 갈아서, 이제 또 거를 체로 가루를 쳐. 쳐 두고 밑에 것만 해서, 꺼끌꺼끌 해도 그, 미숫가루는 거 볶은 거니까 고소하지.)

103013 @2 음.(음.)

103013 #1 ㄱ레에 곱앙.(맷돌에 갈아서.)

103013 @1 보리쌀이 아니라, 보리.(보리쌀이 아니라, 보리.)

103013 #1 보리.(보리.)

103013 @1 보리 그냥 보깡.(보리 그냥 볶아서.)

103013 #1 쌀로 곤 게 아니라, 보리를 곱앙.(쌀로 곤 게 아니라, 보리를 갈아서.)

103013 @1 보리를 곱아근에.(보리를 갈아서.)

103013 #1 보깡, 보깡.(볶아서. 볶아서.)

103013 @1 보깡예.(볶아서요.)

103013 #1 보깡, 곱앙. 곱은 다음에 또 체로 쳐 가지고.(볶아서, 갈아서. 간 다음에 또 체로 쳐 가지고.)

103013 @2 음.(음.)

103013 #1 체는 걸러지고. 남은 것덜만 개역을 만들안.(체는 걸러지고. 남은 것덜만 개역을 만들안.)

103013 @1 보리로 곱도 만들지 안 해수가? 곱. 곱 만들아근에.(보리로 옛기름도 만들지 안 했습니까? 옛기름. 옛기름 만들어서.)

103013 #1 곱은 옛 허젠 만들고.(옛기름은 옛 하려고 만들고.)

103013 @1 옛. 아.(옛. 아.)

103013 #1 옛 허고 저, 조로는 막걸리라고 해서.(옛 하고 저, 조로는 막걸리라고 해서.)

103013 @1 막걸리 만들 때.(막걸리 만들 때.)

103013 #1 청주.(청주.)

103013 @2 청주.(청주.)

103013 #1 저 저, 것도 조라도 개발시리 조라야 돼어. 거 누룩허고.(저 저, 것도 조라도 개발시리 조라야 되어. 거 누룩하고.)

103013 @1 개발시리.(개발시리.)

103013 #1 음.(음.)

103013 @1 음. 개발시리 조.(음. 개발시리 조.)

103013 #1 거, 청주라고 거, 집에서 허면은 지름이 둥글둥글 떠.(거, 청주라고 거, 집에서 허면은 기름이 둥글둥글 떠.)

103013 @1 보리로 헤근에, 저, 곱 헤여근에, 곱감주도 헤연 먹어났수가?(보리로

해서, 저, 엿기름 해서, ‘골감주’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103013 #1 거, 골 현 거는 감주. 감주. 아이고, 요새 우리 작년까지도 제사 때 감주 필수로 했주. 명절 때.(거, 엿기름 한 거는 감주. 감주. 아이고, 요새 우리 작년까지도 제사 때 감주 필수로 했지. 명절 때.)

103013 @1 아, 골감주 해놔구나.(아, 골감주 했었구나.)

103013 #1 케난 우리 집이 이 저, 여저, 저, 처는 이 부근에서 골감주⁵²⁾허고 술, 최고 소문난. 술 잘 만들어.(난, 우리 집이 이 저, 여자, 저, 처는 이 부근에서 골감주하고 술, 최고 소문났어. 술 잘 만들어.)

103013 @1 음.(음.)

103013 #1 청주 같은 거. 그것도 기술이라.(청주 같은 거. 그것도 기술이라.)

103014 @2 거, ㄹ래에 보리 골아근에 등게⁵³⁾ㄹ루 나오지 안 됩니까예? 등게 ㄹ루.(거, 멧뜰에 보리 갈아서 ‘등게 ㄹ루’ 나오지 안 됩니까? 등게 ㄹ루.)

103014 #1 아, 그건 모멸.(아, 그건 메밀.)

103014 @2 아, ㄹ멸이 등게 ㄹ루 나오니까?(아, 메밀이 등게 ㄹ루 나오니까?)

103014 #1 논쟁이 ㄹ를이라고 해 가지고.(나깨 가루라고 해 가지고.)

103014 @2 논쟁이, 아, 보리는 따로 나오는 건 없고?(나깨, 아, 보리는 따로 나오는 건 없고?)

103014 #1 나오는 거 엿어.(나오는 거 없어.)

103014 @2 엿고.(없고.)

103014 @1 도새기 체로.(돼지 체로.)

103014 #1 거 저, 그, 다끈 보리 헐 때에.(거 저, 그, 다끈 보리 할 때에.)

103014 @2 음.(음.)

103014 그, 다끈 보리 헐 때에 그, ㄹ를, 다까난 ㄹ를이 있어.(그, 다끈 보리 할 때에 그, 가루, 다까난 가루가 있어.)

103014 @2 예. 그거.(예. 그거.)

103014 #1 그거.(그거.)

103014 @2 예.(예.)

103014 #1 것도, 없는 사람은 먹고. 경 안 허민 그거 ㄹ져당, 보통 사람은 다 돼야지 주고.(그것도, 없는 사람은 먹고. 그러지 않으면 그거 가져다가, 보통 사람은 다 돼지 주고.)

103014 @1 도새기, 도야지 것으로 예. 보리찍은 또 뭐 해수가?(돼지, 돼지 먹이로 예. 보릿짚은 또 뭐 했습니까?)

103014 #1 아이, 불 솥앗주.(아이, 불 뺏지.)

103014 @1 양?(예?)

103014 #1 화덕에, 예전엔 화덕 엿고, 전기도 없고 하나까니 저 부역에 솥, 저디

52) ‘골감주’는 엿기름으로 만든 감주이다.

53) ‘등개’는 정미소에서 보리를 도정할 때 나오는 찌꺼기이다.

다행이로 침 헤영, 솥 놓양 앓정, 보릿대로 불 습양 보리밥 해 먹고, 조팍 해 먹고.
(화덕에, 예전엔 화덕 없고, 전기도 없고 하니까 저, 부엌에 솥, 저기 다행이로 찻,
해서, 솥 놓고 앓혀서, 보릿짚으로 불 때어서 보리밥 해 먹고, 조팍 해 먹고.)

103014 @2 게, 보리.(게, 보리.)

103014 #1 거 저, 재료, 재료.(거 저, 재료, 재료.)

103014 @1 어.(어.)

103014 @2 어.(어.)

103014 #1 불 살루는 재료라.(불 때는 재료야.)

103014 @2 그러니까.(그러니까.)

103014 #1 보리낭을 엄청 늘어 가지고 겨울에 빠당 불 살루와낫주게.(보릿짚을
엄청 쌓아 가지고 겨울에 빼다가 불 때었었지.)

103014 @1 아.(아.)

103014 @2 게난 보리낭이파?(그러니까 ‘보리낭’입니까?)

103014 #1 보리낭⁵⁴, 보리낭.(‘보리낭’, ‘보리낭’.)

103014 @2 보릿짚 아니지예? 보리낭.(보릿짚 아니죠? ‘보리낭’.)

103014 #1 보리낭이엔 헤여. 보리낭.(보리낭이라고 해. ‘보리낭’.)

103014 @2 보리낭.(‘보리낭’.)

103014 @1 보리낭.(‘보리낭’.)

103014 #1 늘어. 늘엇당 걸로. 겨울 내낭 이만이 산더미 같은 거 판씩⁵⁵ 짚어.
(쌓아. 쌓았다가 걸로. 겨울 내내 이만이 산더미 같은 거 ‘판씩’ 때.)

103014 @1 ㄴ시락도 써수과?(까끄라기도 썼습니까?)

103014 #1 ㄴ시락은 구들, 굴묵 짚고.(까끄라기는 구들, 굴묵 때고.)

103014 @1 굴묵 짚고.(굴묵 때고.)

103014 #1 그, 구들, 온돌. 굴묵 때고.(그, 구들, 온돌. 굴묵 때고.)

103015 @1 음. ㄴ시락 짚고. 그, 너미 하영 곶아 불민.(음. 까끄라기 때고. 그,
너무 많이 말해 버리면.)

103015 @2 웃음.(웃음.)

103015 @1 다음엔 저, 조 농사에 대해서 영, 다음에 양. 와근에 들어 보쿠다.(다
음엔 저, 조 농사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에요. 와서 물어 보겠습니다.)

103015 #1 밧 불리고 허는 거주게.(밭 밟고 하는 거지.)

103015 @2 음.(음.)

103015 @1 들어 볼 거 막 하영 이신디.(물어 볼 거 막 많이 있는데.)

103015 #1 에에.(에에.)

103015 @1 오늘 너미 하영 헤 불민 아프덴 힘직 허고예.(오늘 너무 많이 해 버
리면 아프다고 할 것 같고요.)

54) ‘보리낭’은 여기서 보릿짚이다.

55) ‘판씩’은 씻은 듯이 아무것도 없는 모양을 말하며, 달리 ‘퍼씩’이라고 한다.

103015 @2 웃음.(웃음.)

103015 @1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 이디가 정제라낫수과? 옛날에.(고맙습니다. 아이고 참. 여기가 부엌이었습니까? 옛날에.)

103015 #1 이디 정제.(여기 부엌.)

103001 @1 지난번이 그, 어, 살아온 이야기.(지난번에 그, 어, 살아온 이야기.)

103001 #1 음.(음.)

103001 @1 뭐, 경, 이제 들어 봐수다마는 오늘은 그 밭일.(뭐, 그렇게, 이제 들어 봤습시다마는 오늘은 그 밭일.)

103001 #1 음.(음.)

103001 @1 옛날 밭디서 일헤난 그, 거에 대해근에 흐끔 들어 보쿠다. 밭일에는 주로 어떤, 어떤 일들이 잇어신고마썸?(옛날 밭에서 일했던 그, 그것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밭일에는 주로 어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103001 #1 여기에는.(여기에는.)

103001 @1 예.(예.)

103001 # 이, 우리, 우리 젊은 때까지는. 우리 몇 대 조상, 흐 백 년, 이백 년 전부터 꼭 같은 농술 지었다고 내 생각이 들어집니다. 헌디 여기는 농스밭권 지을 토지가 잇어 놓으니까.(이, 우리, 우리 젊은 때까지는. 우리 몇 대 조상, 한 백 년, 이백 년 전부터 꼭 같은 농사를 지었다고 내 생각이 들어집니다. 헌데 여기는 농사밖에는 지을 토지가 없어 놓으니까.)

103001 @1 음.(음.)

103001 # 예, 콩, 으름에 조, 팻, 모를 거 으름에. 겨울에는 보리. 거 옛날엔 보리밭과 안 갈 때, 중간엔 유채가 나왔주마는.(예, 콩, 여름에 조, 팥, 메밀 거 여름에. 겨울에는 보리. 거 옛날엔 보리밖에 안 갈 때, 중간엔 유채가 나왔지마는.)

103001 @1 음.(음.)

103001 #1 견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허여 놓은 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 기억을 험주. 지금 흐 백삼십, 칠십육 세에 돌아가난.(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허여 놓은 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내 기억을 하지요. 지금 한 백삼십, 칠십육 세에 돌아갔으니까.)

103001 @1 음.(음.)

103001 #1 기억을 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허는 방식을 아버지, 나 때까지 꼭 그 식으로. 나 젊을 때까지는.(기억을 하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허는 방식을 아버지, 나 때까지 꼭 그 식으로. 나 젊을 때까지는.)

103001 @1 음.(음.)

103001 #1 그, 허다가 그, 박정희 대통령 나오면서 이 비료가 나오고, 기계화가 저 처음에 돼수다.(그, 하다가 그, 박정희 대통령 나오면서 이 비료가 나오고, 기계화가 저 처음에 됐습니다.)

103001 @1 음.(음.)

103001 #1 이, 저, 농기계가 시작. 그 경운기라던지 허단에 이제 콤바인 바인다 라던지 그런 농스를 허니까 아주 편해마썸. 이, 소로만 밭 갈고, 사름, 소로만 모든 걸 짐도 시끄고 허다가 경운기 나니까 사름도 타 다니고. 아주 그 춤 지금, 그 후에는 트랙터도 나오고 이제 농사짓는 사름이 그렇게 편해여.(이, 저, 농기계가 시작. 그 경운기라든지 허다가 이제 콤바인 바인더라든지 그런 농사를 하니까 아주 편해요. 이, 소로만 밭 갈고, 사름, 소로만 모든 걸 짐도 싣고 허다가 경운기 나니까 사람도 타 다니고. 아주 그 참 지금, 그 후에는 트랙터도 나오고 이제 농사짓는 사람이 그렇게 편해.)

103001 @1 음.(음.)

103001 #1 지금 그, 요 트랙터 나오고 콤바인 나온 지가 혼 삼십 년, 삼십 년 웨실 겨우다.(지금 그, 요 트랙터 나오고 콤바인 나온 지가 한 삼십 년, 삼십 년 됐을 겁니다.)

보리농사

103002 @1 음. 경헨 그다음 가을 농사에는 저, 보리?(음. 그렇게 해서 그다음 가을 농사에는 저, 보리?)

103002 #1 겨울 농사.(겨울 농사.)

103002 @1 겨울 농사는.(겨울 농사는.)

103002 #1 겨난 이, 저 보, 어떻게 농사 작업을 했냐면, 보리가 혼 십일월달에 파종을 허면 다음 달 지금 오, 지금 딱 저, 장만힐 때라마썸.(그러니까 이, 저 보, 어떻게 농사 작업을 했느냐면, 보리가 한 십일월에 파종을 하면 다음 달 지금 오, 지금 딱 저, 장만힐 때예요.)

103002 @1 지금이 장만힐 때.(지금이 장만힐 때.)

103002 #1 예, 지금 오월달. 오월 혼 중순, 말, 오월 말. 유월 육일이 망종이난에 망종 때 한참 보리 비어당 이제 저, 그것이 홀트는 기계가 잇어났수다.(예, 지금 오월. 오월 한 중순, 말, 오월 말. 유월 육일이 망종이니까 망종 때 한참 보리 베어다가 이제 저, 그것이 훑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103002 @1 음.(음.)

103002 #1 홀탕 이제. 그, 저되.(훑아서 이제. 그, 저기.)

103002 @2 보리클?(보리클?)

103002 #1 예. 장, 장만해나신디, 이, 저, 사름덜 그, 기계 가진 사름덜이 돌아다니명 혼 섬 장만허민 깡통으로 하나 받곡. 보리 값이름.(예. 장, 장만했었는데, 이, 저, 사름들 그, 기계 가진 사름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섬 장만하면 깡통으로 하나 받고. 보리 값으로.)

103002 @2 맥타기로예?(맥타기로요?)

103002 #1 예, 경허고.(예, 그렇게 하고.)

103002 @1 계난 그 얘기를 십일월쯤 저, 보리.(그러니까 그 얘기를 십일월쯤

저, 보리.)

103002 #1 과중을.(과중을.)

103002 @1 과중허기 전부떠 흥번 곶아 봄서.(과중하기 전부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03002 #1 과중허기 전에는 봄에 예, 유월절이라 유월절이 하지, 하지일 거라.
(과중하기 전에는 봄에 예, 유월절이라 유월절이 하지, 하지일 거야.)

103002 @1 예.(예.)

103002 #1 헌디, 유월절이. 유월절 전에 농작물, 으름 농산 다 뿌려, 다 허여마
쌈.(한데, 유월절이. 유월절 전에 농작물, 여름 농사는 다 뿌려, 다 해요.)

103002 @1 예.(예.)

103002 #1 이, 조도 갈곡 콩도 갈곡.(이, 조도 같고 콩도 같고.)

103002 @1 음.(음.)

103002 #1 그, 저, 풋도 갈곡. 단지 모물이엔 헌 것도 다 그때 뭐, 집집마다 흥
천 평 이천 평씩은 헛는데, 모물은 어떻게 재배헛느냐, 모물 알지양? 모밀.(그, 저,
팔도 같고. 단지 메밀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때 뭐, 집집마다 한 천 평 이천 평씩은
헛는데, 메밀은 어떻게 재배헛느냐, 메밀 알지요? 메밀.)

103002 @2 예, 예. 모물 알아집니다.(예, 예. 메밀 알아집니다.)

103002 #1 모물꽃 피곡. 거는 저 칠월달에야 과중허는 거.(메밀꽃 피고. 그거는
저 칠월에야 과중하는 거.)

103002 @1 음.(음.)

103002 #1 건디 우리 헛 때는 모물이 저, 저, 목장에 저, 이, 출왓, 새밭.(그런데
우리 할 때는 메밀이 저, 저, 목장에 저, 이, 꼴밭, 띠밭.)

103002 @1 음.(음.)

103002 #1 쉼 둘로 이겨 가지고, 이, 병에가 이, 잘 날 거 아니여. 이, 직허게.
새라 놓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못양. 그, 우리 조상덜은 그렇게만 해서. 모물 농사
를 허면은 모물이 잘 웨여마쌈. 게 모물로 주로 겨울에는 그 쌀 헤영 풀곡, 용돈 쓰
고.(소 둘로 일귀 가지고, 이, 벳밥이 이, 잘 날 거 아니야. 이, '직하게'. 띠라 놓으
니까. 이제 그걸 이제 마서. 그,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만 했어. 메밀 농사를 하면은
메밀이 잘 돼요. 그래서 메밀로 주로 겨울에는 그 쌀 해서 팔고, 용돈 쓰고.)

103002 @1 음.(음.)

103002 #1 그다음에는 모물 그르엔 뭐 허냐 허민 산뒤엔 헌 거 있어. 산뒤.(그다
음에는 메밀 그루엔 뭐 하느냐 하면 밭벼라고 하는 거 있어. 밭벼.)

103002 @1 음.(음.)

103002 #1 저, 나록 닳은 거. 그걸 허면은 그, 저, 그 나록ㄱ찌 곤, 곤졸 나옵주
게. 그 산뒤 허민.(저, 벳 닳은 거. 그걸 하면은 그, 저, 그 벳같이 흰, 흰쌀 나오지
요. 그 밭벼 하면.)

103002 @2 예, 예.(예, 예.)

103002 #1 그걸로 해서 예, 제스 때나 이, 저, 멧질 때나 걸로 이제 밥헤영 먹곡. 또 풀기도 허곡 경 헤나신디. 주로 그거 모뎀허곡 산뎀허곡, 이, 저디 주곡은 조허고.(그걸로 해서 예, 제사 때나 이, 저, 멧질 때나 그걸로 이제 밥해서 먹고. 또 팔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주로 그거 메밀하고 밭벼하고, 이, 저기 주곡은 조하
고.)

103002 @1 음.(음.)

103002 #1 조허고.(조하하고.)

103002 @2 콩도 허고 콩 허곡.(콩도 하고 콩 하하고.)

103002 #1 콩 허곡. 조 허고 콩.(콩 하하고. 조 하하고 콩.)

103002 @2 음.(음.)

103002 #1 콩은 또 손으로 전부 꺼꺼당 눌엇당, 겨울에 뉘면은, 한걸헐 때 뉘면은 이 도리께엔 현 거 있어. 도께.(콩은 또 손으로 전부 꺾어다가 쌓았다가, 겨울이 뉘면은, 한가할 때 뉘면은 이 도리께라고 하는 거 있어. 도리께.)

103002 @2 도께, 예.(도리께, 예.)

103002 #1 그것도 동네 수눌어 가지고 흔 서너 집씩 허영 양, 흔 양, 흔 쪽에 두 사람씩.(그것도 동네 품앗이해 가지고 한 서너 집씩 해서 양, 한 양, 한 쪽에 두 사람씩.)

103002 @1 음.(음.)

103002 #1 이 너이가 이제 도께질 허영 털영 불러 가지고. 그거 또 뉘장도 담곡 뉘, 두부도 허고 그렇게 해. 제스침이도 쓰고 경헐주.(이 넷이 이제 도리께질 해서 털어서 드러 가지고. 그거 또 뉘장도 담고 뉘, 두부도 하고 그렇게 해. 제삿집에도 쓰고 그렇게 했지.)

103002 @1 게난 그 모듈 그르, 조, 콩 그르에 이제 보리를 갈 거.(그러니까 그 메밀 그루, 조, 콩 그루에 이제 보리를 갈 거.)

103002 #1 보리 갈곡. 그렇지, 그렇지.(보리 갈고. 그렇지, 그렇지.)

103002 @1 파종헐 거 아니파예.(파종할 거 아닙니까.)

103002 #1 예, 예.(예, 예.)

103003 @1 보리 파종허기 전부떠, 보리 걸름 낼 때부터 흔번 곱아뵤서.(보리 파종하기 전부터, 보리 거름 내놓을 때부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03003 #1 걸름 낼 때는 그, 옛날에는 그 재래식 그, 저디, 변소, 돛통이엔 헤낫어. 돛통. 통시.(‘걸름’ 낼 때는 그, 옛날에는 그 재래식 그, 저기, 변소, 돼지우리라고 했었어. 돼지우리. 돼지우리.)

103003 @2 통시.(돼지우리.)

103003 #1 통신데 돼야지를 집집마다 질루아서마썸. 경허난 그, 쉼는, 쉼막의 걸름을 돼야지 돛통드레 다 겨울내낭 갖다 놔.(돼지우리엔 돼지를 집집마다 길렀어요. 그러니까 그, 소는, 외양간의 거름을 돼지, 돼지우리엔 다 겨우내 갖다 놔.)

103003 @1 예.(예.)

103003 #1 갖다 낫당, 그거를 으름내낭 그 통쇄에 잇다가, 겨울에 쇠 똥 싼 걸 갖다 낫다가 통, 으름내낭 그 혼 십일월달이 그냥 쌓앗당 쇠 매기 전이, 쇠는 목장에 올령 내리기 전이, 이제는 그, 도야지가, 그 돼야지도 저 오줌 싸고 똥 싸고 허명 드러 걸름이.(갖다 낫다가, 그거를 여름내내 그 돼지우리에 잇다가, 겨울에 소똥 싼 걸 갖다 낫다가 통, 여름내내 그 한 십일월에 그냥 쌓앗다가 소 매기 전에, 소는 목장에 올려서 내리기 전에, 이제는 그, 돼지가, 그 돼지도 저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면서 마구 거름이.)

103002 @1 음.(음.)

103003 #1 지대로 저, 퇴비가 웹니다게. 아주 퇴비가 좋아. 이제는 거를 골체로 십일월 중순쯤 돼면 보리 갈쟁 허면은, 이, 저, 그때 춤 메, 이, 갈중의⁵⁶⁾ 입곡 맨발에 양말도 잇이 그걸 골체로 마당더레 다 퍼내는 거라. 동시에 거를.(저절로 저, 퇴비가 됩니다. 아주 퇴비가 좋아. 이제는 그거를 삼태기로 십일월 중순쯤 돼면 보리 갈려고 하면은, 이, 저, 그때 참 메, 이, ‘갈중의’ 입고 맨발에 양말도 없이 그걸 삼태기로 마당에 다 퍼내는 거라. 돼지우리의 거를.)

103003 @1 예.(예.)

103003 #1 다 퍼내어 가지고, 그때 비료 잇은 때난양. 그 걸름을 넘작하게 퍼 놓으면은, 씨를, 혼 천 평 갈쟁 허면은 혼 댓말 그 옷트레 썰 뿌리고, 쇠 이경 텅기 명 걸 드러 불러. 서꺼지게, 씨 서꺼지게. 걸름에. 서꺼지게 해서 불러면은 이놈으게 풀 돼어 풀. 걸름이.(다 퍼내어 가지고, 그때 비료 없던 때니까요. 그 거를 넘작하게 퍼 놓으면은, 씨를, 한 천 평 갈려고 하면은 한 댓말 그 위에 썰 뿌리고, 소 이끌고 다니면서 걸 마구 밟아. 섞이게, 씨 섞이게. 거름에. 섞이게 해서 밟으면은 이놈의 것이 풀 돼어 풀. 거름이.)

103003 @1 음.(음.)

103003 #1 끈닥끈닥 헛 게 흐릿 거, 그냥 문질락힘주마.(준득준득 한 게 사뭇 거, 그냥 반드럽지요.)

103003 @1 예.(예.)

103003 #1 막. 그 만저도 아푸도 안혀고 민잘민잘해. 이제 그거를 걸름착⁵⁷⁾이라고 헛 거 잇어. 걸름착. 그 저 멩텅이.(막. 그 만저도 아프지도 앓고 ‘민잘민잘’해. 이제 그거를 ‘걸름착’이라고 헛 거 잇어. ‘걸름착’. 그 저 떡서리.)

103003 @1 예.(예.)

103003 #1 그, 저, 쇠에다가 혼 짹 혼 짹, 두, 두 착을 시경 흐루 종일 밧디레 날라 가는 거라.(그, 저, 소에다가 한 쪽 한 쪽, 두, 두 쪽을 신고 하루 종일 밧에 날라 가는 거라.)

103003 @1 예.(예.)

103003 #1 혼 천 평 돼면은 쇠 두어 개 몰앙 강 부러 똥 또 시경 강 허면은, 아

56)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중의이다. 제주에서 보통 노동복으로 입는다.

57) ‘걸름착’은 퇴비 따위의 거를을 담고서 나르는 멩동구미이다.

이 그땐 춤 거, 이, 여자덜이 그 추운 때에 그 시꺼다 놓은 거를 걸름착 요만씩 협 주. 거.(한 천 평 되면은 소 두어 개 몰고 가서 내려 두고 또 신고 가서 하면은, 아 이 그땐 참 거, 이, 여자들이 그 추울 때에 그 실어다 놓은 거를 ‘걸름착’ 요만씩 하 죠. 거.)

103003 @1 예.(예.)

103003 #1 케민 여기, 널리, 걸 쪼개멍다가 다 뿌려.(그러면 여기, 널리, 걸 쪼개 면서 다 뿌려.)

103003 @1 누게가마씀?(누가요?)

103003 #1 여자, 건 여자가.(여자, 건 여자가.)

103003 @1 여자 삼촌이 헛구나양. 아.(여자 삼촌이 헛군요. 아.)

103003 #1 예, 여자덜이 다 뿌리면은 그제는, 소로 이제는 그거를, 뿌린 거를 어 퍼지게 밧을 갈면은, 그 뿌린 대로 꼭 보리가 나와. 요만씩, 요만씩 하여. 요만씩, 요만씩 하여. 거난, 비료 엇으난 그제 영양분이라 걸름이. 퇴비.(예, 여자들이 다 뿌 리면은 그제는, 소로 이제는 그거를, 뿌린 거를 덮어지게 밧을 갈면은, 그 뿌린 대 로 꼭 보리가 나와. 요만씩, 요만씩 하여. 요만씩, 요만씩 하여. 그러니까, 비료 없 으니까 그제 영양분이라 거름이. 퇴비.)

103003 @1 예.(예.)

103003 #1 게서 보리가 잘 돼고 해서 하면은 그거를, 거 비료도 엇은 때난 기자 그때는 토지가, 아주 좋은 토지, 나쁜 토지가 완전히 달라. 좋은 토지는 농사가 잘 돼고, 나쁜 토지는 농사가 안 돼고, 그렇게 해서 춤 어렵게 그, 헌디, 그제 일 년 양 식이라 보리가. 일 년 열두 달 먹는. 그걸로.(그래서 보리가 잘 되고 해서 하면은 그거를, 거 비료도 없던 때니까 그저 그때는 토지가, 아주 좋은 토지, 나쁜 토지가 완전히 달라. 좋은 토지는 농사가 잘되고, 나쁜 토지는 농사가 안 되고, 그렇게 해 서 참 어렵게 그, 한테, 그제 일 년 양식이라 보리가. 일 년 열두 달 먹는. 그걸로.)

103003 @1 예.(예.)

103003 #1 딱 그자 항에 아니면 망텅이에다가 이, 저디 그땐에 그 저, 방으로 하나 낫다가 이제 다까 가지고 일 년 내내 보리밥을 먹어. 그걸로 양식을 해서. 게 서 이 봄 나 가면은 부잣집 가난한 집이 차이가, 이 동네도 이거 우, 우리 혼 백 호 주마는. 부잣집은 혼 열다섯 호밭기 안 돼고.(딱 그저 항에 아니면 떡서리에다가 이, 저기 그땐에 그 저, 방으로 하나 낫다가 이제 장만해 가지고 일 년 내내 보리밥 을 먹어. 그걸로 양식을 해서. 그래서 이 봄 나 가면은 부잣집 가난한 집의 차이가, 이 동네도 이거 우, 우리 한 백 호지마는. 부잣집은 한 열다섯 호밖에 안 되고.)

103003 @1 음.(음.)

103003 #1 나머진 혼 칠팔십 호는 봄에 양식이 엇어. 돈도 떨어지지, 쌀도 떨어 지지. 쟁 부잣집이 강 일해 주켄 허영 돈을, 저, 보리를 꾸어다가. 왜 그러냐면, 부 잣집이 땅은, 땅이 좋은 땅덜이고.(나머진 한 칠팔십 호는 봄에 양식이 엇어. 돈도 떨어지지, 쌀도 떨어지지.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일해 주겠다고 해서 돈을, 저, 보리

를 꾸어다가. 왜 그러냐면, 부잣집의 땅은, 땅이 좋은 땅들이고.)

103003 @1 예.(예.)

103003 #1 가난한 집 땅이, 땅이 낮은 땅들이라.(가난한 집 땅이, 땅이 나쁜 땅들이라.)

103003 @1 예.(예.)

103003 #1 이, 그렇지 안 해게?(이, 그렇지 않아?)

103003 @2 (웃음).((웃음).)

103003 #1 그, 부잣집이 땅이. 저, 땅이 저, 좋고, 계남 가난한 집은 계속 대물림 가난이라.(그, 부잣집의 땅이. 저, 땅이 저, 좋고, 그러니까 가난한 집은 계속 대물림 가난이라.)

103003 @1 음.(음.)

103003 #1 게서 춤 그때에 우리도 저, 일 하루 해 주면은 고고마도 한, 조금, 한 바구리 정도 강 빌어당 것도 식량 대행하고, 춤 우리 한, 한 이 삼십, 삼십 전에 한 이십오 세, 한 삼십 스이에 삼, 삼십 넘으니까 그 저기 국가에서 뭐, 여러 가지들 비료도 나오고.(그래서 참 그때에 우리도 저, 일 하루 해 주면은 고구마도 한, 조금, 한 바구리 정도 가서 얻어다가 그것도 식량 대행하고, 참 우리 한, 한 이 삼십, 삼십 전에 한 이십오 세, 한 삼십 사이에 삼, 삼십 넘으니까 그 저기 국가에서 뭐, 여러 가지들 비료도 나오고.)

103003 @1 음.(음.)

103003 #1 좋아졌주마는. 삼십 전에는 우리도 어렵게.(좋아졌지마는. 삼십 전에는 우리도 어렵게.)

103003 @1 음.(음.)

103003 #1 쌀 꾸다시피 헨 살아수다게. 사는디.(쌀 꾸다시피 해서 살았습니다. 사는데.)

103003 @1 계남 걸름 내명.(그러니까 거름 내면서.)

103003 #1 걸름 내명 영.(거름 내면서 이렇게.)

103003 @1 걸름 내 봄디가? 계남.(거름 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103003 #1 하이고, 내곡말곡.(아이고, 내고말고.)

103003 @2 (웃음).

103003 #1 통시에 거기, 갈중의엔 헨 거 있어.(돼지우리에 거기, 갈중의라고 하는 거 있어.)

103003 @1 거기, 그거 무시 걸로 영 거려내언에.(거기, 그거 무엇으로 이렇게 퍼내서.)

103003 #1 웨스랑게.(쇠스랑.)

103003 @1 웨스랑으로.(쇠스랑으로.)

103003 #1 이, 시 각으로 웨스랑 잊지 아녀? 갈쿠리 닳은 거. 웨가 영 오그라진 거. 웨스랑, 웨스랑.(이, 세 각으로 쇠스랑 잊지 않아? 갈퀴 같은 거. 쇠가 이렇게

오그라진 거. 쇠스랑, 쇠스랑.)

103003 @1 걸로 영.(그걸로 이렇게.)

103003 #1 갈중의에 다님 헤영 탁 청 맨발에. 그때는 다 이거, 이렇게 허는 거로구나 허난에, 발도 원 맨발이라도 아프지도 안 헤여. 시럽도 안 허고.(갈중의에 대님 해서 탁 쳐서 맨발에. 그때는 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니까, 발도 원 맨발이라도 아프지도 안 해. 시리지도 안 하고.)

103003 @1 음.(음.)

103003 #1 이거, 사람마다 다 경해 놓으니까.(이거, 사람마다 다 그렇게 놓으니까.)

103003 @1 그거 무슨 걸름이엔 험니까? 계난.(그거 무슨 거름이라고 험니까? 그러니까.)

103003 #1 돛걸름이엔 허주.(돼지거름이라고 하지.)

103003 @1 돛걸름.(돼지거름.)

103003 #1 응. 그거.(응. 그거.)

103003 @1 내영 계민.(내서 그러면.)

103003 #1 마당에.(마당에.)

103003 @1 씨 뿌린 다음에 그거 흐뎡, 흐뎡 물리우지 안 험니까?(씨 뿌린 다음에 그거 조금, 조금 말리지 않습니까?)

103003 #1 아니, 아니. 바로 시켜 가야 돼.(아니, 아니. 바로 실어 가야 돼.)

103003 @1 그자 젖인 양.(그냥 젖은 채로.)

103003 #1 들릴 때. 경 안 허민 꾸질 못해. 젖인 때 가야 돼.(말릴 때. 그렇게 않으면 반죽하질 못해. 젖을 때 가야 돼.)

103003 @1 아.(아.)

103003 #1 널 보리 갈젠 허민 아시날 그 시건.(내일 보리 갈려고 하면 전날 그 실었어.)

103003 @1 아, 젖인 때.(아, 젖은 때.)

103003 #1 들릴 때, 젖인 때라야.(말릴 때, 젖은 때라야.)

103003 @1 젖인 때, 젖인 차 그냥.(젖인 때, 젖은 채 그냥.)

103003 #1 거 뿌리기가 좋주게. 저, 여자덜이.(거 뿌리기가 좋지. 저, 여자들이.)

103003 @1 계민 툃 툃 툃.(그러면 툃 툃 툃.)

103003 #1 툃 툃 즐랑.(툃 툃 째라서.)

103003 @1 툃으멍.(뜯으면서.)

103003 #1 글체에 담아 ㄱ정 땡이멍 툃 툃 툃.(삼태기에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툃 툃 툃.)

103003 @1 아.(아.)

103003 #1 글체에 걸 담양 툃 툃 툃, 경허민, 다 허면 뒤에선 밧 갈곡.(삼태기에 그걸 담아서 툃 툃 툃, 그렇게 하면, 다 하면 뒤에선 밧 갈고.)

103003 @1 즈베기 툫아 놓듯이.(수제비 뜯어 놓듯이.)

103003 #1 아, 즈베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아, 수제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03003 @1 즈베기 툫아 놓듯이 영 툫 툫.(수제비 뜯어 놓듯이 이렇게 툫 툫.)

103003 #1 예, 즈베기. 그렇주.(예, 수제비. 그렇지.)

103003 @1 즈베기 툫아 놓듯이 영.(수제비 뜯어 놓듯이 이렇게.)

103003 #1 여편넌 툫아 놓으면은 남자는 그 툫아 놓은 디만 밧 즈근즈근 갈아 가는 거.(여편넌 뜯어 놓으면은 남자는 그 뜯어 놓은 데만 밧 자근자근 갈아 가는 거.)

103003 @1 갈아 가양. 음.(갈아 가요. 음.)

103003 #1 그래서 그때는 비료도 엇은 때고 허니까 한, 우리가 혼, 비료가 혼 서른, 스물 요다 아홉 나야 처음에 유한이엔 현 비료가 나고.(그래서 그때는 비료도 없는 때고 하니까 한, 우리가 한, 비료가 한 서른, 스물여덟 아홉 나야 처음에 유한 이라고 하는 비료가 나고.)

103003 @1 음.(음.)

103003 #1 초석이엔 현 비료가 나고 했는데, 비료 나기 시작허니까 가난헌 집 조끔 별 호가 엇었어.(초석이라고 하는 비료가 나고 했는데, 비료 나기 시작하니까 가난한 집 조금 별 호가 없었어.)

103003 @1 음.(음.)

103003 #1 이제 농사가 나쁜 밧도 잘 돼니까.(이제 농사가 나쁜 밧도 잘되니까.)

103006 @1 음. 보리 종류에는 어떤 것덜이 이수과?(음. 보리 종류에는 어떤 것 들이 있습니까?)

103006 #1 아이고, 보리 처음에 우리 저, 꺾 살 때는 맥주맥이엔 현 거 잇어. 맥주보리.(아이고, 보리 처음에 우리 저, 꺾 살 때는 맥주맥이라고 하는 거 잇어. 맥주보리.)

103006 @1 맥주보리.(맥주보리.)

103006 #1 예, 거 토종 맥주. 지금 맥주맥이 아니고 옛날 토종. 내려온, 백 년 전이부터 갈던 씨. 맥주보리.(예, 거 토종 맥주. 지금 맥주맥이 아니고 옛날 토종. 내려온, 백 년 전부터 갈던 씨. 맥주보리.)

103006 @1 아아. 예.(아아. 예.)

103006 #1 그거를, 그거는 이제 물방에 알 건가? 물방에.(그거를, 그거는 이제 연자매 알 건가? 연자매.)

103006 @1 예.(예.)

103006 @2 예.(예.)

103006 #1 물방에에다가 이제는 걸 그져당 둥그리는 거라. 쌀을, 그 겹데기를 벗기는 거지. 즉 말허면. 맥주보리 겹데기를 벗기면은 그 씨, 여인덜이 이젠 체로 겹데기를 치곡, 쫄만 나오면, 쫄 나와도 그게 제대로 벗겨져게?(연자매에다가 이제

는 그걸 가져다가 굴리는 거라. 쌀을, 그 껍데기를 벗기는 거지. 즉 말하면. 맥주보리 껍데기를 벗기면은 그 싸, 여인들이 이젠 체로 껍데기를 치고, 쌀만 나오면, 쌀 나와도 그게 제대로 벗겨져?)

103006 @1 음.(음.)

103006 #1 저, 그레엔 헨 거 있어. 그레. 또 그걸 그는 거라이. 굴면은 그게 반착으로 부서지명 또 즈쌀⁵⁸이 나오꼭 체가 나오민 또 그걸 넣어 가지고 또 걸로 세상을, 밥해연 먹언 살았주게. 케난.(저, 맷돌이라고 하는 거 있어. 맷돌. 또 그걸 가는 거라. 갈면은 그게 반쪽으로 부서지면서 또 ‘즈쌀’이 나오고 체가 나오면 또 그걸 넣어 가지고 또 그걸로 세상을, 밥해서 먹고 살았지. 그러니까.)

103006 @1 음. 즈쌀은.(음. ‘즈쌀’은.)

103006 #1 즈쌀은 그되 굴면은 훑은 거 싯곡 준 거 싯곡. 그 쫄이.(‘즈쌀’은 거기 갈면은 굵은 거 있고 잔 거 있고. 그 쌀이.)

103006 @1 훑은 건 밥 해 먹고.(굵은 건 밥 해 먹고.)

103006 #1 으, 밥해 먹고, 즈쌀은 뭐 저되 저, 무슨 죽 그든 거나 해 먹곡.(으, 밥해 먹고, ‘즈쌀’은 뭐 저기 저, 무슨 죽 같은 거나 해 먹고.)

103006 @1 해 먹고. 그다음 그 껍데기는.(해 먹고. 그다음 그 껍데기는.)

103006 #1 껍데기는 도야지 주고.(껍데기는 돼지 주고.)

103006 @1 도야지 주고. 그 맥주맥, 토종 맥주맥 말고 또.(돼지 주고. 그 맥주맥, 토종 맥주맥 말고 또.)

103006 #1 그다음에는 저 슬보리라고 헨 게 나왔는데, 에, 낭 나는 슬오리라고 해서.(그다음에는 저 쌀보리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에, 나무 나는 쌀보리라고 해서.)

103006 @1 낭 나는 슬오리.(나무 나는 쌀보리.)

103006 #1 예, 늘, 늦인 밧디도 비료 아이 쥐도 낭 난다, 낭 나야 될 거 아니여.(예, 나, 나쁜 밧에도 비료 아니 쥐도 나무 난다, 나무 나야 될 거 아닌가?)

103006 @1 아, 낭.(아, 나무.)

103006 #1 어, 낭 나는 슬오리라고 해서, 그건 가난헌 집이, 늦인 밧되 그거 허고, 좋은 밧되는 아진배기 슬오리.(어, 나무 나는 쌀보리라고 해서, 그건 가난한 집이, 나쁜 밧에 그거 하고, 좋은 밧에는 앓은뱅이 쌀보리.)

103006 @1 아진배기 슬오리.(앓은뱅이 쌀보리.)

103006 #1 그, 밥맛이 그것이 더 좋지. 수확도 더 나곡. 아진배기 슬오리, 낭 나는 슬오리.(그, 밥맛이 그것이 더 좋지. 수확도 더 나고. 앓은뱅이 쌀보리, 나무 나는 쌀보리.)

103006 @1 아진배기, 아.(앓은뱅이, 아.)

103006 #1 그게 혼변에 두 종류가 들어왔어. 어디서산디 우리, 들어왔는디. 처음에는 들어완에 헨디, 그거를 허기 시작허니까 쫄이, 식량이 해결헨 거라.(그게 한번

58) ‘즈쌀’은 잘게 간 보리쌀 따위를 말한다.

에 두 종류가 들어왔어. 어디서인지 우리,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들어와서 했는데, 그거를 하기 시작하니깐 쌀이, 식량이 해결된 거라.)

103006 @1 그다음 저 새로 맥주맥이 또 나, 또 들어온 거구나.(그다음 저 새로 맥주맥이 또 나, 또 들어온 거구나.)

103006 #1 그거는 저 국가에서 그, 저, 맥주맥을 받아냈수다게.(그거는 저 국가에서 그, 저, 맥주맥을 받았었습니다.)

103006 @1 아, 경혜연 재배허렌.(아, 그래서 재배하라고.)

103006 #1 예, 검사원이 검사허곡, 헤여 가지고.(예, 검사원이 검사하고, 해 가지고.)

103006 @1 그냥 받아 강.(그냥 받아 가고.)

103006 #1 거, 그거 나니까 경기가 싹 풀린 거라. 맥주맥 나니까.(거, 그거 나니까 경기가 싹 풀린 거라. 맥주맥 나니까.)

103006 @1 아.(아.)

103006 #1 겨난 지금 2뜨민 혼 스만 원, 혼 푸대 허면은. 그디 백 푸대 이상, 거의 백 푸대 허면은, 그 돈이 일 년 열두 달 학비 대고. 그 돈으로.(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한 사만 원, 한 포대 허면은. 거기 백 포대 이상, 거의 백 포대 허면은. 그 돈이 일 년 열두 달 학비 대고. 그 돈으로.)

103006 @1 그걸로.(그걸로.)

103006 #1 그 맥주맥을.(그 맥주맥을.)

103006 @1 그, 그 새로 나온 맥주맥도.(그, 그 새로 나온 맥주맥도.)

103006 #1 아이, 거는.(아이, 거는.)

103006 @1 두, 두 줄 보리짜?(두, 두 줄 보리입니까?)

103006 #1 두 줄 보리도 있고.(두 줄 보리도 있고.)

103006 @1 음.(음.)

103006 #1 또 녀, 저 저, 다 두 줄이지마는 것도 낭 나는 맥주보리가 있고, 두산 팔호라고 낭 아이 난, 수확 많이 나는 거.(또 녀, 저 저, 다 두 줄이지마는 그것도 나무 나는 맥주보리가 있고, ‘두산팔호’라고 나무 아니 나는, 수확 많이 나는 거.)

103006 @1 음.(음.)

103006 #1 거 어디 육지서 농협으로 들어와 가지고.(거 어디 육지에서 농협으로 들어와 가지고.)

103006 @1 들어완.(들어와서.)

103006 #1 종자 씨 배급허니까. 수확이 곱이 나는 거라. 곱이. 그 두산팔호가 농협에서 육지로 들어오니깐. 배급, 농사허는 우리 농사꾼덜한테 종잘 주니까 그걸, 수확이 백 평 당 두 포대밭기 아니 나신디, 녀 포대 나 놓으니까.(종자 씨 배급하니까. 수확이 곱이 나는 거라. 곱이. 그 두산팔호가 농협에서 육지로 들어오니깐. 배급, 농사하는 우리 농사꾼들한테 종잘 주니까 그걸, 수확이 백 평 당 두 포대밖에 아니 낫었는데, 네 포대 나 놓으니까.)

103006 @1 음.(음.)

103006 #1 경제가 싹 풀런. 계난 이 봉성은 옛날부터 이 애월읍에서는 곡창지대엔 허주. 봉성도.(경제가 싹 풀렸어. 그러니까 이 봉성은 옛날부터 이 애월읍에서는 곡창지대라고 하지. 봉성도.)

103006 @1 음.(음.)

103006 #1 그, 맥주맥은 돈 주고 잘 돼 놓으니까.(그, 맥주맥은 돈 주고 잘 돼 놓으니까.)

103006 @1 음.(음.)

103006 #1 경작지 널러 놓으난, 막 갈아 놓으니까. 삼백 가마니까지 흔 사람이 있어.(경작지 넓어 놓으니까, 막 갈아 놓으니까. 삼백 가마니까지 한 사람이 있어.)

103006 @2 으아.(으아.)

103006 @1 음.(음.)

103006 #1 그때 이백 가마니. 우리도 흔 백오십 가마까지 했는디. 켄디 아이, 그때는 아이고 우리 고생도. 이젠, 지금은 저 스십 키로 스십 키론데 처음엔 우리 저 팔십 키로씩 가마니 무건 판매 해놔어.(그때 이백 가마니. 우리도 한 백오십 가마까지 했는디. 그런데 아이, 그때는 아이고 우리 고생도. 이젠, 지금은 저 사십 킬로, 사십 킬론데 처음엔 우리 저 팔십 킬로씩 가마니 묶어서 판매 했었어.)

103006 @1 예.(예.)

103006 #1 그때 그, 구루마로 시꺼당 판매장에 강. 무꺼근에, 가마니 줄로 무꺼근에.(그때 그, 마차로 실어다가 판매장에 가서. 묶어서, 가마니 줄로 묶어서.)

103006 @1 슬오리는 그, 그게 고고리가 녀 줄이고.(쌀보리는 그, 그게 이삭이 녀 줄이고.)

103006 #1 녀 줄.(녀 줄.)

103006 @1 켄디 낫사 곶은 토종 맥주맥이엔 현 건 줄이 멧 줄이파?(그런데 아까 말한 토종 맥주맥이라고 하는 건 줄이 몇 줄입니까?)

103006 #1 에이, 맥주맥은 다 두 줄.(에이, 맥주맥은 다 두 줄.)

103006 @1 아, 두 줄.(아, 두 줄.)

103006 #1 옛날 것도 두 줄.(옛날 것도 두 줄.)

103006 @1 옛날도 두 줄짜리 보리가 있어났구나양?(옛날도 두 줄짜리 보리가 있었었군요?)

103006 #1 예, 예. 맥주맥. 옛날 그, 그, 그게 처음 보리라. 이 왜, 왜정 때부터.(예, 예. 맥주맥. 옛날 그, 그, 그게 처음 보리라. 이 왜, 일제강점기 때부터.)

103006 @1 풀기 전이. 판매 허기 전이. 아.(팔기 전에. 판매 하기 전에. 아.)

103006 #1 예, 왜정 때부터 보리는 맥주맥으로 허여 가지고, 거 주로 그걸로 저, 식사허고, 찜, 봄 나 가면은.(예, 일제강점기 때부터 보리는 맥주맥으로 해 가지고, 거 주로 그걸로 저, 식사하고, 찜, 봄 나 가면은.)

103006 @1 아아.(아아.)

103006 #1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부젓칩이 강 꾸어다 먹고.(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부젓집에 가서 꾸어다 먹고.)

103006 @1 음.(음.)

103006 #1 또 형편엇이 못살아십주. 못살아.(또 형편없이 못 살았었지요. 못살아.)

103006 @1 십일월에 그 경행 뿌리민 그거 이제 싹이 날 거 아니꽈?(십일월에 그 그렇게 해서 뿌리면 그거 이제 싹이 날 거 아닙니까?)

103006 #1 음.(음.)

103007 @1 게 이제 혼 이월쯤에 그 보리밧기도 해낫수과? 그.(그럼 이제 한 이월쯤에 그 보리밧기도 했었습니까? 그.)

103007 #1 보리밧기는 여긴 안 해.(보리밧기는 여긴 안 해.)

103007 @1 여긴 안 해여. 땅이 좋아 놓으난.(여긴 안 해. 땅이 좋아 놓으니까.)

103007 #1 여기는 땅이 좋아 놓고, 자갈밧이기 때문에.(여기는 땅이 좋아 놓고, 자갈밭이기 때문에.)

103007 @1 아.(아.)

103007 #1 왜 보리밧기를 하냐면은 저 구좌레 가면은 자갈이 엇어. 땅이 불려.(왜 보리밧기를 하느냐면은 저 구좌에 가면은 자갈이 없어. 땅이 날려.)

103007 @1 불려.(날려.)

103007 #1 때문에 보리를 밧고, 여기는 탄탄한 땅 때문에 그대로, 그게.(때문에 보리를 밧고, 여기는 탄탄한 땅 때문에 그대로, 그게.)

103007 @1 아아, 보리밧기는 안 해낫구나양?(아아, 보리밧기는 안 했었군요?)

103007 #1 응. 잘.(응. 잘.)

103008 @1 게민 검질은마쭈? 보리밧 검질은?(그러면 김은요? 보리밭 김은?)

103008 #1 검질은 여기도 메고.(김은 여기도 매고.)

103008 @1 한 두어 번 메수과?(한 두어 번 밟습니까?)

103008 #1 겨울에.(겨울에.)

103008 @1 겨울에.(겨울에.)

103008 #1 혼 번, 혼 번.(한 번, 한 번.)

103008 @1 혼 번?(한 번?)

103008 #1 응, 혼 이, 정월달 이월 입춘 때.(응, 한 이, 정월 이월 입춘 때.)

103008 @1 일월, 이월?(일월, 이월?)

103008 #1 예, 입춘쯤에.(예, 입춘쯤에.)

103009 @1 입춘쯤에 음. 그 검질, 게도 혼 번씩 멜 때 보민 검질, 어떤 검질덜 이십디가? 그 겨울에도 검질이 이십니까?(입춘쯤에 음. 그 김, 그래도 한 번씩 멜 때 보면 김, 어떤 김이 있었습니까? 그 겨울에도 김이 있습니까?)

103009 #1 겨울에 춤 신, 망지쿨이엔 허여 가지고.(겨울에 참 있는, '망지쿨'이라고 해 가지고.)

103009 @1 양?(예?)

103009 #1 망지쿨이엔 현 풀이 있어.(‘망지쿨’이라고 하는 풀이 있어.)

103009 @1 망지쿨?(‘망지쿨’?)

103009 #1 예, 보리밭디 나는 검질.(예, 보리밭에 나는 김.)

103009 @1 예.(예.)

103009 #1 계난 이 검질도 으뜸에 나는 검질 잇고, 겨울에 나는 검질 있어. 이 계.(그러니까 이 김도 여름에 나는 김 잇고, 겨울에 나는 김 있어. 이게.)

103009 @1 예.(예.)

103009 #1 겨울에 보리밭디 나는 검질은 진풀허고 망지쿨. 요거 우턴 검질이라. 이거.(겨울에 보리밭에 나는 김은 별꽃하고 ‘망지쿨’. 요거 ‘우턴’ 잡풀이라. 이거.)

103009 @1 음.(음.)

103009 #1 거, 추운 때 그거 그, 저, 뿌릴 메야 뉘 건디, 뿌릴 메쟁 허민 툃아져 불영게.(거, 추운 때 그거 그, 저, 뿌릴 메야 뉘 건데, 뿌릴 매려고 하면 뜯어져 버려서.)

103009 @1 아.(아.)

103009 #1 계민 또 나 분단 말이여.(그러면 또 나 버린단 말이야.)

103009 @1 아, (웃음).(아, (웃음).)

103009 #1 켜테 그, 이제 나도.(그런데 그, 이제 나도.)

103009 @1 진풀, 망지쿨.(별꽃, ‘망지쿨’.)

103009 #1 예, 보리밭디 나도 간 검질메낫수다. 어린 아기덜 낱곡 험 때는.(예, 보리밭에 나도 가서 김꿨었습니다. 어린 아기들 낱고 할 때는.)

103009 @1 아, 검질메러.(아, 김매러.)

103009 #1 어쩔 수가 없어. 농사지을 때는.(어쩔 수가 없어. 농사지을 때는.)

103009 @1 계, 그거 두 가지. 진풀?(그럼, 그거 두 가지. 별꽃?)

103009 #1 진풀허고 망지쿨이엔 현 거는 쫓 피는 검질 있어. 노랑계. 지금도 지금 한창 봐져. 그 망지쿨이엔 현 거.(별꽃하고 ‘망지쿨’이라고 하는 거는 쫓 피는 검질 있어. 노랑계. 지금도 지금 한창 봐져. 그 ‘망지쿨’이라고 하는 거.)

103009 @1 예, 그계 겨울에.(예, 그계 겨울에.)

103009 #1 겨울에. 으뜸에는 제와니.(겨울에. 여름에는 바랭이.)

103010 @1 계민 이제 그추록 헤근에 어, 지금도 허는 되도 이십디다마는 널모리 보리 이제 빌 거 아니꽈?(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어, 지금도 하는 데도 있습디다마는 내일모레 보리 이제 빌 거 아닙니까?)

103010 #1 아, 이, 한참 비엄주게.(아, 이, 한창 베고 있지.)

103010 @1 한참 비엄지예? 그 무시걸로.(한참 베고 있지요? 그 무엇으로.)

103010 #1 콤바인⁵⁹⁾.(콤바인.)

103010 @1 콤바인 들어오기 전인 호미로?(콤바인 들어오기 전엔 낫으로?)

59) ‘콤바인’은 곡식을 베는 일과 탈곡하는 일을 한꺼번에 하는 농업 기계이다.

103010 #1 호미, 호미로.(낫, 낫으로.)
 103010 @1 호미로 비고.(낫으로 베고.)
 103010 #1 그거 무꺼당 장만허영.(거 묶어다가 장만해서.)
 103010 @1 무시걸로 무꺼수과?(무엇으로 묶었습니까?)
 103010 #1 거 보리로.(거 보리로.)
 103010 @1 보리로 그냥 그, 보리?(보리로 그냥 그, 보리?)
 103010 #1 응, 그 보릿대로.(응, 그 보릿대로.)
 103010 @1 보리로, 고고리 이신양? 고고리 이신양?(보리로, 이삭 있는 채로요? 이삭 있는 채로요?)
 103010 #1 영 데와근에 싹 갈르면은 무꺼지주게.(이렇게 틀어서 싹 가르면은 묶어지지.)
 103010 @1 예.(예.)
 103010 #1 견디 그것도 내중에는 가마니 노가 나와 가지고 풀아낫수다.(그런데 그것도 나중에는 가마니 노가 나와 가지고 팔았었습니다.)
 103010 @1 음.(음.)
 103010 #1 보리 무끝 용으로.(보리 묶을 용으로.)
 103010 @2 음.(음.)
 103010 #1 케민 아주 편허게 허연에.(그러면 아주 편하게 해서.)
 103010 @1 경허여근에 그걸 뭇로 시켜 와마썸?(그렇게 해서 그걸 무엇으로 실어 와요?)
 103010 #1 구루마.(마차.)
 103010 @1 구루마로.(마차로.)
 103010 #1 쉐 메와 가지고.(소 메워 가지고.)
 103010 @1 경해연.(그렇게 해서.)
 103010 #1 구루마로 즈근즈근 시켜 가지고.(마차로 차근차근 실어 가지고.)
 103010 @1 구루만 엇일 땐 어떻 험니까?(마차 없을 땐 어떻게 하셨습니까?)
 103010 #1 엇인 땐 쉐로 시겻주.(없을 땐 소로 실었지.)
 103010 @1 쉐 양착으로?(소 양쪽으로?)
 103010 #1 양착으로. 쉐로만 시겻 왓주.(양쪽으로. 소로만 실어서 왔지.)
 103010 @1 경행, 땐 뭇씩.(그렇게 해서 뭇 뭇씩.)
 103010 #1 예, 저 옷, 옷 뭇씩게. 흔 짝에 세 뭇씩 크게 무경.(예, 저 엇, 여섯 뭇씩. 한 쪽에 세 뭇씩 크게 묶어서.)
 103010 @1 아, 크게 무경.(아, 크게 묶어서.)
 103010 #1 흔 짝에.(한 쪽에.)
 103010 @1 흔 짝에 세.(한 쪽에 세.)
 103010 #1 흔가운데, 앞에, 뒤에 허영, 흔 짝에 세 개. 이짝도 세 개.(한가운데, 앞에, 뒤에 해서, 한 쪽에 세 개. 이쪽도 세 개.)

103010 @1 아, 세 개, 세 개. 이제 옷 못씩.(아, 세 개, 세 개. 이제 여섯 못씩.)

103010 #1 이, 우리 혼 삼십쫼, 혼 스물, 우리 때는, 우리 때, 우리 스물다섯 난 살림 살았주마는 그때는 구루마. 그, 우리 아버지 때가 그, 췌로 시꺼 와났주.(이, 우리 한 삼십쫼, 한 스물, 우리 때는, 우리 때, 우리 스물다섯 나서 살림 살았지마는 그때는 마차. 그, 우리 아버지 때가 그, 소로 실어 왔었지.)

103010 @1 구루마엔 허기 전인 그거 무시거엔 곶아났수과?('구루마'라고 하기 전엔 그거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103010 #1 질메, 췌 질메.(길마, 소 길마.)

103010 @1 췌 질메.(소 길마.)

103010 #1 췌 질메로 시경, 저, 췌 질메 지왕.(소 길마로 실어서, 저, 소 길마 지워서.)

103010 @1 아, 계난 그거 말고 또, 구루마를 또 다른 말로 무시 거엔.(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또, 구루마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103010 #1 마차게, 마차.(마차, 마차.)

103010 @1 마차, 아. 거기엔 멧 못이나 시꺼집디가?(마차, 아. 거기엔 멧 못이나 실을 수 있었습니까?)

103010 #1 건 많이 시꺼.(그건 많이 실어.)

103010 @1 음.(음.)

103010 #1 에, 혼 천 평짜리면은 혼 너 댓, 다섯 구루마면 돼여. 시꺼 완.(에, 한 천 평짜리면은 한 너 댓, 다섯 마차면 되어. 실어 왔어.)

103010 @1 음.(음.)

103010 #1 많이 시꺼.(많이 실어.)

103010 @1 경혜 경혜다근에 이제.(그렇게 해, 그렇게 해다가 이제.)

103010 #1 마당에 놀엉.(마당에 가려서.)

103010 @1 마당에 놀어양.(마당에 가려서요.)

103010 #1 놀엇당 날 좋으면은 흘탕.(가렸다가 날 좋으면은 훑아서.)

103010 @1 놀 멧 개나 헤연에 놀어납디가? 보리 놀.(가리 멧 개나 해서 가렸었습니까? 보리 가리.)

103010 #1 놀, 보리 놀 그때에 크게 이디 두어 개 놓고, 이제 놉 빌엉, 꼭 그때 그, 오월 장마.(가리, 보리 가리 그때에 크게 여기 두어 개 가리고, 이제 놉 빌려서, 꼭 그때 그, 오월 장마.)

03010 @1 음.(음.)

103010 #1 비슷한 때가 그게 농, 보리 농.(비슷한 때가 그게 농, 보리 농.)

103010 @1 꼭 그때가.(꼭 그때가.)

103010 #1 꼭 그때 걸려.(꼭 그때 걸려.)

103010 @1 장마 때라양.(장마 때요.)

103010 #1 경 허면은 이, 이런 방 안에도 보리 흘탕.(그렇게 하면은 이, 이런 방

안에도 보리 훑아서.)

103010 @1 음.(음.)

103010 #1 고고리 뗏당 이제 날 좋으면은 밖으로 내치명 장만허연.(고고리 뗏다가 이제 날 좋으면은 밖으로 내치면서 장만했어.)

103010 @1 계, 실렁 오당, 시경 와근에 기자 바로 그자 눌엇당.(그럼, 실어서 오다가, 실어서 와서 그저 바로 그저 가렸다가.)

103010 #1 눌엇당.(가렸다가.)

103011 @1 눌엇당 날 좋으면 또 그걸, 타작을 할 거 아니짜?(가렸다가 날 좋으면 또 그걸, 타작을 할 거 아닙니까?)

103011 #1 타작.(타작.)

103011 @1 그거 허젠 허민 그 전이 저, 방에 나오기 전인 어떤 식으로 그.(그거 하려고 하면 그 전에 저, 방아 나오기 전엔 어떤 식으로 그.)

103011 #1 도끼로 두드려낫주.(도리깨로 두드렸었지.)

103011 @1 도끼로 두드려, 두드리기 전이 그거 홀타야 뵈 거 아니짜?(도리깨로 두드려, 두드리기 전에 그거 훑아야 뵈 거 아닙니까?)

103011 #1 그렇지계, 홀타 낱 두드리는 거지.(그렇지, 훑아 놓고 두드리는 거지.)

103011 @1 무시거에마썸? 무시 걸로?(무엇예요? 무엇으로?)

103011 #1 그, 저, 가레기클이엔 헛 거 있어. 홀트는 기계.(그, 저, 그네라고 하는 거 있어. 훑는 기계.)

103011 @1 무신 클?(무슨 클?)

103011 #1 가라기클, 가라기클.(‘가레기클’, ‘가레기클’.)

103011 @1 가라지클?(‘가라지클’?)

103011 #1 가레기클. 그 췌, 그, 왜정 때 그, 나왔는디, 요만이 췌, 요만이 ㄴ는 걸로 요만이 넓게 허영 이, 판대기 놓고 만들어진 클 있어.(그네. 그 쇠, 그, 일제강점기 때 그, 나왔는데, 요만이 쇠, 요만이 가는 걸로 요만이 넓게 해서 이, 널빤지 놓고 만들어진 틀 있어.)

103011 @1 예, 예.(예, 예.)

103011 #1 계난 확 좁아 탱기민 저레, 이렌 그, 저, 대가 나오고.(그러니까 확 잡아당기면 저리, 여기론 그, 저, 대가 나오고.)

103011 @1 대가 나오고 이레는.(대가 나오고 이리로는.)

103011 #1 저레 쓸, 또 고고리가 나오고.(저리로 쌀, 또 이삭이 나오고.)

103011 @1 고고리가 나오고.(이삭이 나오고.)

103011 #1 고고리만 나오민 죽을 거 아니라계.(이삭만 나오면 적을 거 아니냐.)

103011 @1 예, 예.(예, 예.)

103011 #1 그걸 따려근에 곡식을 만들곡. 이제 대는 그때는 부젓칩이, 가난한 집. 야 저 부젓칩은 보리낱 놀이 엄청났저.(그걸 타작해서 곡식을 만들고. 이제 대는 그때는 부젓칩이, 가난한 집. 야 저 부젓칩은 보릿짚 가리가 엄청났지.)

103011 @1 음.(음.)

103011 #1 허면은 부젓칩이라 건.(하면은 부젓집이라 건.)

103011 @2 음.(음.)

103011 #1 보리낭 놀이 집집마다, 게문 그 보리낭으로 그 겨울 내낭 그, 땀감을 해연 농사, 저, 밥을 해연 먹었주게.(보릿짚 가리가 집집마다, 그러면 그 보릿짚으로 그 겨울 내내 그, 땀감을 해서 농사, 저, 밥을 해서 먹었지.)

103011 @1 음.(음.)

103011 #1 게난 부젓칩은 보리낭, 놀이 큰 건 부젓칩이엔 헨. 그때.(그러니까 부젓칩은, 보릿짚 가리가 큰 건 부젓집이라고 했어. 그때.)

103011 @1 게민 고고리 나온 건 어디에?(그러면 이삭 나온 건 어디에?)

103011 #1 마당에.(마당에.)

103011 @1 푸대에 담아당, 담앗다근에.(포대에 담아다가, 담앗다가.)

103011 #1 아니, 그, 저, 처음에는 도끼로 두드렷.(아니, 그, 저, 처음에는 도리개로 두드려서.)

103011 @1 바로?(바로?)

103011 #1 바로 두드려.(바로 두드려.)

103011 @1 바로 마당에서 그자 두드렷.(바로 마당에서 그냥 두드려서.)

103011 #1 체에 칭, 걸렁은에 쓸 불려 가지고.(체에 쳐서, 걸려서 쌀 드려 가지고.)

103011 @1 예, 그 다음에 그거를.(예, 그 다음에 그거를.)

103011 #1 멩텅이에 담앗당.(망태기에 담앗다가.)

103011 @1 담앗당.(담앗다가.)

103011 #1 그 들방에 지어당.(그 연자매에 찜어다가.)

103011 @1 들방에 강.(연자매에 가서.)

103011 #1 지어당 그, 쓸 만들앗주. 그레로 굴아근에.(찜어다가 그, 쓸 만들었지. 맷돌로 갈아서.)

103011 @1 예. 들방에 가근에 그걸 이제 찜 거 아니파양?(예. 연자매에 가서 그걸 이제 찜을 거 아십니까?)

103011 #1 음.(음.)

103011 @1 게민 그거 무시 거 무시 거 나옵니까. 그되서.(그러면 그거, 무엇, 무엇 나옵니까? 거기서.)

103011 #1 겨민 이제 통채로 그 물을 좀 허경 찜는 거라.(그러면 이제 통째로 그 물을 좀 섞어서 찜는 거야.)

103011 @1 예.(예.)

103011 #1 물 좀 허꺼 가지고 찜으면은 젓인 채에 이제 채에 갓, 닛 그 저 들방에 둥그러면 쓸이 나올 거 아니라.(물 좀 섞어 가지고 찜으면은 젓은 채로 이제 채에 갓, 닛 그, 저, 연자매 둥글리면 쓸이 나올 거 아니야?)

103011 @1 예, 예.(예, 예.)

103011 #1 ㄴ찌 다 ㄴ찌 나와.(같이 다 같이 나와.)

103011 @1 ㄴ찌 다 ㄴ찌.(같이 다 같이.)

103011 #1 답아당 물리와 그걸.(답아다가 말리어 그걸.)

103011 @1 물리면.(말리면.)

103011 #1 물려야. 이제 물리와근엥에 그걸 불러 가지고 체는 체대로, 쓸은 쓸대로 영 갈르는 거주.(말려야. 이제 말려서 그걸 드려 가지고 체는 체대로, 쓸은 쓸대로 이렇게 가르는 거지.)

103011 @1 아. 체는 체대로 쓸은 쓸대로 허고.(아. 체는 체대로 쓸은 쓸대로 하고.)

103011 #1 그, 통채로, 통채로 답아당.(그, 통째로, 통째로 답아다가.)

103011 @1 계민 ㄴ시락은 언제 나오는 거봐? 그, 저.(그러면 까끄라기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 저.)

103011 #1 ㄴ시락은 저, 집에서 장만할 때.(까끄라기는 저, 집에서 장만할 때.)

103011 @1 아, 그, 저, 마당에서 장만.(아, 그, 저, 마당에서 장만.)

103011 #1 예. 마당 할 때 걸 장만헤영 ㄴ스락만 불리는 거라.(예. 마당 할 때 걸 장만해서 까끄라기만 드리는 거야.)

103011 @1 예.(예.)

103011 #1 불러 텅 저, 저, 보리만 가정 강 들방에 강 둥그리곡.(드려 두고 저, 저, 보리만 가지고 가서 연자매에 가서 굴리고.)

103011 @1 보리만 가정 들방에 강.(보리만 가지고 연자매에 가서.)

103011 #1 거, ㄴ사리가, ㄴ스라기가 막 ㄴ렵고 혼이 나. 이, 이, 저, 영.(거, 까끄라기가, 까끄라기가 막 가렵고 혼이 나. 이, 이, 저, 이렇게.)

103011 @1 맞수다.(맞습니다.)

103011 #1 ㄴ스락은 저, 굴, 굴뚝에 헤여 가지고 겨울에 난방으로.(까끄라기는 저, 굴, 굴뚝에 해 가지고 겨울에 난방으로.)

103011 @1 굴뚝 진을 거고.(‘굴뚝’ 땀 거고.)

103011 #1 굴뚝⁶⁰⁾ 진어.(굴뚝 때.)

103011 @1 진으고. 계민, 그 쓸 만들젠 허민, 경헤영 들방에 갓당 온 걸 다시 ㄴ레로.(때고. 그러면, 그 쌀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연자매에 갔다가 온 걸 다시 땀들로.)

103011 #1 거 물리왕.(거 말려서.)

103011 @1 물린 다음에.(말린 다음에.)

103011 #1 이제는 걸 물리면은 체는 체대로 갈르곡.(이제는 걸 말리면은 체는 체대로 가르고.)

103011 @1 음.(음.)

60) ‘굴뚝’은 방에 불을 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궁이, 또는 아궁이가 있는 공간을 말한다.

103011 #1 체 같은 거는 돼야지 주고.(체 가른 거는 돼지 주고.)

103011 @1 예, 주고.(예, 주고.)

103011 #1 그, 저, 쌀은 쌀대로 나오면은, 이제 그거를 통채로 나온 거를, 이제 반을 끈쟁 허민 ㄱ레로 ㄱ는 거. 골아야 그 반으로 찻라지지 아녀게.(그, 저, 쌀은 쌀대로 나오면은, 이제 그거를 통째로 나온 거를, 이제 반으로 끊으려고 하면 멧들로 가는 거. 갈아야 그 반으로 쪼개지지 않는가?)

103011 @1 예, 예, 예.(예, 예, 예.)

103011 #1 찻라지면, 아까 골았지마는 줌쌀도 나오곡 훑은 것도 나오곡 허민, 그거 줌쌀 또 쳐 가지고, 줌쌀은 줌쌀대로 또 갈라지곡, 보리밥 해 먹을 거는 보리밥 할 쌀로 갈라지고 그렇게.(쪼개지면, 아까 말했지마는 ‘ضمام’도 나오고 굵은 것도 나오고 하면, 그거 ‘ضمام’ 또 쳐 가지고, ‘ضمام’은 줌쌀대로 또 갈라지고, 보리밥 해 먹을 거는 보리밥 할 쌀로 갈라지고 그렇게.)

103011 @1 예, 경 혜영 젤 훑은 건 밥 해 먹고.(예, 그렇게 해서 제일 굵은 건 밥 해 먹고.)

103011 #1 밥 해 먹고.(밥 해 먹고.)

103011 @1 줌쌀은 떡도 해 먹곡, 뭐 다른 것도 해 먹고.(‘ضمام’은 떡도 해 먹고, 뭐 다른 것도 해 먹고.)

103011 #1 예, 예, 죽도 쑤어 먹곡.(예, 예, 죽도 쑤어 먹고.)

103011 @1 예. 그다음 나머지 ㄱ루는 도새기?(예. 그다음 나머지 가루는 돼지?)

103011 #1 도새기, 돼지.(돼지, 돼지.)

103013 @1 도새기 주고. 으, 겐디 그, 개역 해 먹젠 허민 그건.(돼지 주고. 으, 그런데 그, 미숫가루 해 먹으려고 하면 그건.)

103013 #1 아아.(아아.)

103013 @1 그건 어디 가기 전이파? 저, 들방에 가기 전이 거.(그건 어디 가기 전입니까? 저, 연자매에 가기 전에 거.)

103013 #1 아니, 아니. 아, 가기, 가기 전이.(아니, 아니. 아, 가기, 가기 전에.)

103013 @1 가기 전이 걸로.(가기 전의 걸로.)

103013 #1 으, 가기 전이 바로 체 신 냥 보까 가지고.(으, 가기 전에 바로 겨 있는 채로 볶아 가지고.)

103013 @1 체 신 냥양?(겨 있는 채로?)

103013 #1 이제 또 ㄱ레로 이제 그 복삭허게 골아.(이제 또 멧들로 이제, 그, 복삭허게 갈아.)

103013 @1 예.(예.)

103013 #1 게민 가루가 될 거 아니라? 가루가 돼면은 또 그걸 쳐 가지고, 체는 체대로 골르곡 개역은 개역대로 떨어질 거지.(그러면 가루가 될 거 아니라? 가루가 되면은 또 그걸 쳐 가지고, 겨는 겨대로 고르고 미숫가루는 미숫가루대로 떨어질 거지.)

103013 @1 음.(음.)

103013 #1 계난 그, 그, 저, 쌀 나기 전에 통채로 보까. 개역.(그러니까 그, 그, 저, 쌀 나기 전에 통채로 볶아. 미숫가루.)

103013 @1 통채로 보강예?(통채로 볶아요?)

103013 #1 예예. 계난 개역에도 조금 꺼끌꺼끌해도 좀 맛이 셔났어. 그거.(예예. 그러니까 미숫가루에도 조금 꺼끌꺼끌해도 좀 맛이 있었어. 그거.)

103013 @1 예. 계민.(예. 그러면.)

103013 #1 옛날엔 개역이 으름에 주 놓 저 식량이주. 으름에 저 저 낮이 가, 낮에 강 아무 데라도 그 물에다 확 탕 먹는 맛으로.(옛날엔 미숫가루가 여름에 주 놓, 저, 식량이지. 여름에 저, 저, 낮에 가, 낮에 가서 아무 데라도, 그 물에다 확 타서 먹는 맛으로.)

103013 @1 음. 계민 그거 데껴 불 게 하나도 엇다양?(음. 그러면 그거 던져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103013 #1 예, 하나도 엇주.(예, 하나도 없지.)

103013 @1 보리 낱은, 보리 낱은.(보릿짚은, 보릿짚은.)

103013 #1 빨감하고.(빨감하고.)

103013 @1 빨감하고.(빨감하고.)

103013 #1 돼지 주곡 채는.(돼지 주고 겨는.)

103013 @1 그다음 건 도새기 주곡. 그다음.(그다음 건 돼지 주고. 그다음.)

103013 #1 또 조도 도, 돼야지 주는 것도, 조도 이제는 고고리가 잇지 안헤여?(또 조도 도, 돼지 주는 것도, 조도 이제는 이삭이 잇지 않아?)

103013 @1 예.(예.)

103013 #1 조 코고리가. 그때는 이거를, 그대로 호미로 다 툷아 그걸. 그 흔 메칠간.(조 이삭이. 그때는 이거를, 그대로 호미로 다 뜯어 그걸. 그 한 며칠간.)

103013 @1 툷아양.(뜯어요.)

103013 #1 툷양 허민 고고리만 막 나올 거 아녀?(뜯어서 하면 이삭만 막 나올 거 아냐?)

103013 @1 예.(예.)

103013 #1 이제 그, 마당에 이제 고고리만 막 두드리는 거라.(이제 그, 마당에 이제 이삭만 막 두드리는 거야.)

103013 @1 음.(음.)

103013 #1 도, 도, 도리께로 두드리면은 게 조가 이제 북삭허면은 각마기⁶¹⁾라고 잇어. 각마기, 조각마기.(도, 도, 도리께로 두드리면은, 그럼 조가 이제 ‘북삭’하면은 ‘각마기’라고 잇어. ‘각마기’, ‘조각마기’.)

103013 @2 음.(음.)

61) ‘각마기’는 조 이삭이나 콩꼬투리에서 열매를 털어 버리고 남은 줄기나 깎지 따위이다. 달리 ‘각메기’, ‘꼭메기’, ‘꼭메기’라고도 한다.

103013 #1 그걸 쉼이 그렇게 잘 먹어.(그걸 소가 그렇게 잘 먹어.)

103013 @1 각마지마썸?('각마지'요?)

103013 #1 각마기.(‘각마기’.)

103013 @1 조각마기. 계란.(‘조각마기’. 그러니까.)

103013 #1 조를 고고리가, 조가 고고리 안에 들어 있지 아녀게?(조를 이삭이, 조가 이삭 안에 들어 있지 않아?)

103013 @1 예, 예.(예, 예.)

103013 #1 으름에, 가을에 이제 걸 비어다가 다 뜯아 고고리만. 그, 저, 대는 조집이엔 해 가지고, 눌엇당 쉼 출 주곡.(여름에, 가을에 이제 걸 베어다가 다 뜯어 이삭만. 그, 저, 대는 조짚이라고 해 가지고, 쌓았다가 소 풀 주고.)

103013 @1 예.(예.)

103013 #1 거 고고리만 이제는 그 도리께로 막 따리면은 조만 떨어지고.(거 이삭만 이제는 그 도리께로 막 두드리면은 조만 떨어지고.)

103013 @1 나머지.(나머지.)

103013 #1 나머지 꺾데기는 각마기, 조각마기엔 현 거 있어. 그건 담아당 소가, 소 주면 소가 잘 먹영 슬져.(나머지 꺾데기는 ‘각마기’, ‘조각마기’라고 하는 거 있어. 그건 담아다가 소가, 소 주면 소가 잘 먹어서 살져.)

103013 @1 아.(아.)

103013 #1 계곡 그, 또 체는 또, 체 또 ㄴ찌 떨어져 거. 봉당체엔 허여 것 ㄴ라.(그리고 그, 또 체는 또, 체 또 같이 떨어져 거. ‘봉당체’라고 해 그것을.)

103013 @1 무신 체마썸?(무슨 체요?)

103013 #1 봉당체.(‘봉당체’.)

103013 @1 봉당체.(‘봉당체’.)

103013 #1 그거는 돼야지 주곡.(그거는 돼지 주고.)

103013 @1 돼야지 주고.(돼지 주고.)

103013 #1 응, 봉당체는 돼야지 주고, 각마기는 쉼 주고. 조만 사름 이제는.(응, ‘봉당체’는 돼지 주고, ‘각마기’는 소 주고. 조만 사름 이제는.)

103013 @1 예.(예.)

103013 #1 그걸 헛당 또 조를 들방에 또 둥그렁 쓸을 내와. 쓸 내와.(그걸 했다가 또 조를 연자매에 또 둥글려서 쓸을 내여. 쓸 내어.)

103013 @1 조에 대한 건 흥끔 잇당 곱읍서. (웃음) 저 보리, 보리. 다른 말, 보리에 대해근에 영 저 무시거 생각나는 거 잇걸랑 곱아 봅서. 보리농사 해난 거.(조에 대한 건 조금 있다가 말하십시오. (웃음) 저 보리, 보리. 다른 말, 보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 뭐 생각나는 거 잇거든 말해 보십시오. 보리농사 했던 거.)

103013 #1 보리, 보리농사는 거 주로 슬오리, 슬오리라고 식량용으로 예, 거의 저 사름이, 우리 거, 뭐, 흔 삼십 년 전까지도 거 식량으로 허고.(보리, 보리농사는 거 주로 쌀보리, 쌀보리라고 식량용으로 예, 거의 저 사름이, 우리 거, 뭐, 한 삼십

년 전까지도 거 식량으로 하고.)

103013 @1 식량으로.(식량으로.)

103013 #1 그루 후에 이제 완전히 바뀐 게 이제, 이, 쌀 판매가 허면 쌀밥으로 이제 교체한 시기가 혼 삼십 년, 삼십 년쯤 쌀밥으로 예, 교체 시기가 상, 우리 아덜네 아이 때도 쌀밥 안, 못 헨 먹어났주. 애월중학교 뵈또 쌀 때.(그 후에 이제 완전히 바뀐 게 이제, 이, 쌀 판매가 하면 쌀밥으로 이제, 교체한 시기가 한 삼십 년, 삼십 년쯤 쌀밥으로 예, 교체 시기가 상, 우리 아덜네 아이 때도 쌀밥 안, 못 해 먹었었지. 애월중학교 도시락 쌀 때.)

103013 @1 음.(음.)

103013 #1 그, 저, 혼 스십 년, 혼 스십 년, 스십오 년 쯤 전에는 쌀로, 쌀보리로만 아이덜도 맥이고, 제스나 이, 저, 명절 때 외에는.(그, 저, 한 사십 년, 한 사십 년, 사십오 년쯤 전에는 쌀로, 쌀보리로만 아이들도 먹이고, 제사나 이, 저, 명절 때 외에는.)

103013 @2 예, 예.(예, 예.)

103013 #1 예, 예, 그 걸로만 주로 먹던 살고. 아이덜 학교 가쟁 허면은 쌀, 그 산디엔 헌 것 햇당 조끔 서끄면은 그 곤쫄이엿 허여 그것ㄴ라. 경 허면은 그것도 특별히 허영 그 뵈또 쌍 주곡 해나신디. 스십 년 하여튼 쌀보리만 먹, 저 저 저, 쌀로만 먹기 시작허연에 보리 아이 갈 근처 간, 떨어진 지가 혼 삼십 년, 스십 년쯤 전에는. 그루후에는 보리 아니 갈아. 쌀 나오니까.(예, 예, 그걸로만 주로 먹어서 살고. 아이들 학교 가려고 하면은 쌀, 그 밭벼라고 하는 것 했다가 조금 섞으면은 그 흰쌀이라고 해 그것을.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특별히 해서 그 도시락 싸서 주고 했었는데. 사십 년 하여튼 쌀보리만 먹, 저 저 저, 쌀로만 먹기 시작해서 보리 아니 갈 근처 간, 떨어진 지가 한 삼십 년, 사십 년쯤 전에는. 그 후에는 보리 아니 갈아. 쌀 나오니까.)

103013 @1 예.(예.)

103013 #1 쌀로 집집마다. 생활도 좋고 허니까. 수입도 좋고 허난 헛주, 그 전에는 보리로 전부 식량 대행으로.(쌀로 집집마다. 생활도 좋고 허니까. 수입도 좋고 허니까 했지, 그 전에는 보리로 전부 식량 대행으로.)

103013 @1 보리농산 잘뵈 철이파?(보리농산 잘뵈 셈입니까?)

103013 #1 잘뵈주게.(잘뵈지.)

103013 @1 아.(아.)

103013 #1 비료 나온 후제는 엄청 잘 뵈. 비료 전에는 아까도 곱앗주마는 늦인 밭은 안 뵈고, 좋은 밭은 잘뵈곡.(비료 나온 후에는 엄청 잘 뵈. 비료 전에는 아까도 말했지마는 나쁜 밭은 안 되고, 좋은 밭은 잘되고.)

103013 @1 음.(음.)

103013 #1 토지가 이 부근도 ㄴ뵈, 요 밭 싹고 요 밭 싹고 해도 다 틀려. 이 밭은 좋은 밭, 이 밭은 농사 아이 뵈는 밭. ㄴ뵈, 부뵈 밭도.(토지가 이 부근도 같은,

요 밭 있고 요 밭 있고 해도 다 달라. 이 밭은 좋은 밭, 이 밭은 농사 아니 되는 밭. 같은, 붙은 밭도.)

103013 @1 음.(음.)

103013 #1 이, 그, 토지가 경 형성되어.(이, 그, 토지가 그렇게 형성되어.)

103013 @1 계민 이제 망종 이때쯤에.(그러면 이제 망종 이때쯤에.)

103013 #1 예, 망종에 보리 빌 거.(예, 망종에 보리 벨 거.)

조농사

103016 @1 겨면 이제, 다 끝나면, 유월에 그 보리가 다 끝나면, 그다음은 그 보리그르에 조 같 거 아니파양?(그러면 이제, 다 끝나면, 유월에 그 보리가 다 끝나면, 그다음은 그 보리 그루에 조 같 거 아닙니까?)

103016 #1 조, 그렇지 주로 조.(조, 그렇지 주로 조.)

103016 @1 주로.(주로.)

103016 #1 주로 조, 콩.(주로 조, 콩.)

103016 @1 어.(어.)

103016 #1 조하고 콩을 주로 갈아낫주.(조하고 콩을 주로 갈았었지.)

103016 @1 계민, 조 갈젠 허민 어떤 준빌.(그러면, 조 갈려고 하면 어떤 준빌.)

103016 #1 아이고, 조, 그때는 비료도 웃곡 헐 때난 예, 조를 쉼로 갈면은 그때 무슨 명칭허, 그 밭을 소덜, 암소덜 저, 몰아다 가지고, 헐 댓 개 무꺼 가지고 온 밭을 다려 소로.(아이고, 조, 그때는 비료도 없고 할 때니까 예, 조를 소로 갈면은 그때 무슨 명칭하, 그 밭을 소들, 암소들 저, 몰아다 가지고, 한 댓 개 묶어 가지고 온 밭을 다려 소로.)

103016 @1 예.(예.)

103016 #1 조만, 조만. 뜯 농손 안 다리는데 조만 갈면은.(조만, 조만. 뜯 농손 안 다리는데 조만 갈면은.)

103016 @1 아, 줍씨 뿌린 다음에양?(아, 줍씨 뿌린 다음에요?)

103016 #1 줍씨 뿌린 다음에. 조, 경 안 허민 조 아이 웬덴 헤영.(줍씨 뿌린 다음에. 조, 그렇게 안 하면 조 아니 된다고 해서.)

103016 @1 계민 줍씨 뿌리기 전이는 어떻 갈아? 줍씨 뿌리기 전이 일단.(그러면 줍씨 뿌리기 전이는 어떻게 갈아? 줍씨 뿌리기 전에 일단.)

103016 #1 아이, 줍씨 뿌려 갈아 낱.(아이, 줍씨 뿌려서 갈아 놓고.)

103016 @1 보리그르를 갈 거 아니파?('보리그르'를 갈 거 아닙니까?)

103016 #1 보리그르에 줍, 줍, 보리그르가 나올 거 아니라게?('보리그르'에 줍, 줍, '보리그르'가 나올 거 아니라?)

103016 @1 예예.(예예.)

103016 #1 나오면은 그, 줍씨 그, 바로 뿌려.(나오면은 그, 줍씨 그, 바로 뿌려서.)

103016 @1 그냥 뿌려마썸?(그냥 뿌려요?)

103016 #1 예.(예.)

103016 @1 그, 갈기 전이 뿌령.(그, 갈기 전에 뿌려서.)

103016 #1 예, 그, 쉼, 그루 후에, 간 후에도 또 흔 번 뿌리고. 두 번 뿌려.(예, 그, 소, 그 후에, 간 후에도 또 한 번 뿌리고. 두 번 뿌려.)

103016 @1 예.(예.)

103016 #1 문 같아지면 그냥 내불질 안 허더라고.(모두 같아지면 그냥 내버리질 않더라고.)

103016 @2 블라.(밟아.)

103016 #1 그, 쉼 ㄴ정 막 블러. 게난 이 해변드레도 수원드레도. 이 봉성 사름덜이 밧 블리레 가났어. 물 ㄴ정. 거, 돈 받았. 그, 밧 블러 주민. 해변드레 다 블러 낫주게. 이디가, 주로 가는 디가 귀덕허고 수원은 강 이디 사름덜이 간 일 많이 해주주게. 조, 보리 갈 때는. 수원허곡 귀덕.(그, 소 가지고 막 밟아. 그러니까 이 해변으로도 수원으로도. 이 봉성 사람들이 밧 밟으러 갔었어. 말 가지고. 거, 돈 받고. 그, 밧 밟아 주면. 해변 쪽에 다 밟았었지. 이곳이, 주로 가는 곳이, 귀덕하고 수원은 가서 이곳 사람들이 가서 일 많이 해 주지. 조, 보리 갈 때는. 수원하고 귀덕.)

103017 @1 조 밧디 거, 저, 걸름 거, 따로 안 헛수과?(조 밧에 거, 저, 거름 거, 따로 안 헛었습니까?)

103017 #1 아이, 일절 안 해.(아니, 일절 안 해.)

103013 @1 아.(아.)

103017 #1 그 때문에 막 블리면은 농사가, 조가 잘뵈고, 안 블리면은 안 나와. 조 나도 안 허고.(그 때문에 막 밟으면은 농사가, 조가 잘뵈고, 안 밟으면은 안 나와. 조 나지도 않고.)

103017 @2 음.(음.)

103017 #1 조팍 블린덴 말이 잇지 안 허여게?(조 밧 밟는다는 말이 잇지 않아?)

103016 @2 예예.(예예.)

103017 @1 그게 칠월 들기 전.(그게 칠월 들기 전.)

103017 #1 아이.(아이.)

103017 @1 유월.(유월.)

103017 #1 저디, 유월절, 유월절이 하지일 거라. 저.(저기, 유월절, 유월절이 하지일 거라. 저.)

103017 @1 유월 이십.(유월 이십.)

103017 #1 아니, 칠월 흔 칠월 팔일? 칠월 팔일. 칠월 팔일날 전에.(아니, 칠월 한 칠월 팔일? 칠월 팔일. 칠월 팔일 전에.)

103017 @1 전에.(전에.)

103017 #1 예, 하지.(예, 하지.)

103017 @1 줍씨 그때 다.(줍씨 그때 다.)

103017 #1 옛날에는 유월절, 유월절 헤나신디 이거 칠월 팔일 전에.(옛날에는 유월절, 유월절 했었는데 이거 칠월 팔일 전에.)

103017 @1 전에 다 해야 될 거.(전에 다 해야 될 거.)

103017 #1 다, 농사, 콩이건 조건 다 뿌려야 돼.(다, 농사, 콩이건 조건 다 뿌려야 돼.)

103017 @1 예.(예.)

103017 #1 유월절이 넘으면은 농사가 아이, 안 돼.(유월절이 넘으면은 농사가 아니, 안 돼.)

103017 @1 안 돼고마씀.(안 되고요.)

103017 #1 안 돼고.(안 되고.)

103017 @1 음.(음.)

103017 #1 칠월, 칠월 팔일이 유월절일 거라. 매년마다 양력으로.(칠월, 칠월 팔일이 유월절일 거야. 매년마다 양력으로.)

103017 @1 음.(음.)

103017 #1 하지를.(하지를.)

103020 @1 케민 그때 그, 막, 그, 불리고 허는 거 그때 또 어떤 기구는 엇어낫 수과? 불릴 때 뭐 꼭 쉼나 들 말고.(그러면 그때 그, 막, 그, 밟고 하는 거 그때 또 어떤 기구는 없었습니까? 밟을 때 뭐 꼭 소나 말 말고.)

103020 #1 기구, 쉼 연메왕. 빨과 빨 사이 다섯 개, 다섯 개 연 메영, 뒤엔 몰고 앞엔 영 이끄곡 허민 쉼을 따리멍 몰민 영 뱅뱅 돌아가주게. 온 밧을 돌아다녀.(기구, 소 이어 매어서. 빨과 빨 사이 다섯 개, 다섯 개 이어 매어서, 뒤엔 몰고 앞엔 이렇게 이끌고 하면, 소를 때리면서 몰면, 이렇게 빙빙 돌아가지. 온 밧을 돌아다녀.)

103020 @1 예예.(예예.)

103020 #1 코너로 돌젠 허면. 게서 그, 다려 놔야 조가 돼고 경 안 허민 조가 안 돼여났어.(코너로 돌려고 하면. 거기서 그, 다려 놔야 조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가 안 되었었어.)

103017 @1 음.(음.)

103020 #1 뜬, 콩이나 그런 거는 그냥 갈양만 내 부리면 잘 나곡.(뜬, 콩이나 그런 거는 그냥 갈아서만 내 버리면 잘 나고.)

103020 @1 그, 뭐 끄슬퀴 그런 거 필.(그, 뭐 ‘끄슬퀴’ 그런 거 필.)

103020 #1 아, 그건 내중에.(아, 그건 나중에.)

103020 @1 나중에.(나중에.)

103020 #1 비료 나니까, 하이고, 비료 나니까 그런 불리단 것도 불르지 안 허고, 비료 주면 그냥 조가 엄청 잘 돼.(비료 나니까, 하이고, 비료 나니까 그런 밟던 것도 밟지 안 하고, 비료 주면 그냥 조가 엄청 잘 돼.)

103020 @1 음.(음.)

103020 #1 비료 난 후엔 거 안 불러.(비료 난 후엔 거 안 밟아.)
 103020 @1 남태엔 현 건 엇어났수과?('남태'라고 하는 건 없었습니까?)
 103020 #1 남태⁶²는 모르고.('남태'는 모르고.)
 103020 @1 아, 기냥 췌허고 툄로만.(아, 그냥 소하고 말로만.)
 103020 #1 음.(음.)
 103020 @1 예.(예.)
 103020 #1 거, 그 비료 난 후에는 췌피엔 현 거 있어. 췌피.(거, 그 비료 난 후
 에는 '췌피'라고 하는 거 있어. 췌피.)
 103020 @1 예.(예.)
 103020 @2 췌필 꺾엉.('췌피'를 꺾어서.)
 103020 #1 췌피로 꺾엉 비료 짝 뿌리면은 불리지 안 헛주게. 계난 췌피는 그,
 밧 갈면은, 췌로 갈면은 이렁이가 나와이. 이렁이 나오면은 췌피로 꺾으면은, 그걸
 미끈허면은, 비료만 뿌려 불면은 거, 불리지 안 해도 말재엔 비료 시난에 췌피로만
 꺾엉 내불어났주게.('췌피'로 꺾어서 비료 짝 뿌리면은 밟지 안 헛지. 그러니까 '췌
 피'는 그, 밧 갈면은, 소로 갈면은 이랑이 나와. 이랑이 나오면은 '췌피'로 꺾으면은,
 그걸 미끈하면은, 비료만 뿌려 버리면은 거, 밟지 안 해도 나중엔 비료 있으니까
 '췌피'로만 꺾어서 내버렸었지.)
 103020 @1 음. 계민 이제 칠월 현 들이민 조가 현 요 손가락만이 올라오고.(음.
 그러면 이제 칠월 한 달이면 조가 한 요 손가락만이 올라오고.)
 103020 #1 예예. 아이, 조.(예예. 아이, 조.)
 103021 @1 검질은 몇 번이나 뺏수과?(검은 몇 번이나 뺏습니까?)
 103021 #1 두 번, 두 번.(두 번, 두 번.)
 103021 @1 두 번.(두 번.)
 103021 #1 저, 처서까지 메야지. 처서.(저, 처서까지 메야지. 처서.)
 103021 @1 처서까지 두 번을.(처서까지 두 번을.)
 103021 #1 예, 두 번 메야지.(예, 두 번 메야지.)
 103021 @1 아.(아.)
 103021 #1 처서 넘으면은 검질이 울명 돌아간텐 허여 가지고 안 나뺏주게. 옛날
 에 말도.(처서 넘으면은 검이 울면서 돌아간다고 하여 가지고 안 뺏었지. 옛날에 말
 도.)
 103021 @1 아.(아.)
 103021 #1 처서가 검질 체시엔 해났어.(처서가 검질 차사라고 했었어.)
 103021 @1 음.(음.)
 103021 #1 처서 넘으면은 검질이 안 난다.(처서 넘으면은 검이 안 난다.)
 103021 @1 처서는 검질 체시다. (웃음)(처서는 김 차사다.(웃음))

62) '남태'는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며 수없이 박아 붙여서 만들고는 굴러서 밟을 놀
 러 다지는 농기구이다. 달리 '낭태'라고도 한다.

103021 #1 검질 चे시다. (웃음)(김 차사다.(웃음))

103021 @1 검질 चे시다. (웃음) 게 혼두 번 멧구나양?(김 차사다. (웃음) 그럼 혼두 번 뺏군요?)

103021 #1 초불검질은 혼 뺏, 조가 혼 뺏 허면은 저, 초불 메고.(초벌 김은 한 뺏, 조가 한 뺏 하면은 저, 초벌 매고.)

103021 @1 초불 메고.(초벌 매고.)

103021 #1 그다음 여, 고고리 나기 전에, 처서 전에, 처서 넘으면 고고리가 나 조가.(그다음 여기, 이삭 나기 전에, 처서 전에, 처서 넘으면 이삭이 나 조가.)

103021 @1 예, 계난 고고리 나기 전이.(예, 그러니까 이삭 나기 전에.)

103021 #1 고고리 그 전이 이제는, 매면은 다신 검질 안 나.(이삭 그 전에 이제는, 매면은 다신 김 안 나.)

103022 @1 어떤 검질덜 조 밧디.(어떤 김들 조 밧에.)

103022 #1 제와니, 제와니라.(바랭이, 바랭이야.)

103022 @1 제완지.(바랭이.)

103022 #1 응, 제와니엔 현 검질이 지금도 나. 그 검질이 지금도 영 쫓 피영. 제와니 방식에 앓았젠 현 말도 있어. 지, 으름 내낭 제와니 방식에 앓았텐.(응, 바랭이라고 하는 김이 지금도 나. 그 김이 지금도 이렇게 쫓 피어서. 바랭이 방식에 앓았다고 하는 말도 있어. 지, 여름 내내 바랭이 방식에 앓았다고.)

103022 @1 북삭하게 나는 풀.(‘북삭하게’ 나는 풀.)

103022 #1 북삭하게 나는 풀.(‘북삭하게’ 나는 풀.)

103022 @2 (웃음) 음.((웃음) 음.)

103022 #1 이제는 검질이 으라 종륵다.(이제는 김이 여러 종륵데.)

103022 @1 음.(음.)

103022 #1 이제는 그 저 여러 가지로 비료에도 오곡, 수입에도 오곡 검질이 으라 종륵다. 옛날엔 으름에는 제와니, 겨울에는 저디, 그 망지쿨허고 저, 무신 그.(이제는 그 저 여러 가지로 비료에도 오고, 수입에도 오고 김이 여러 종륵데. 옛날엔 여름에는 바랭이, 겨울에는 저기, 그 ‘망지쿨’하고 저, 무슨 그.)

103022 @1 진풀.(별꽃.)

103022 #1 진풀. 그거 윈, 꼭 그거밧디 안 나난. 거 여러 가지 비료에도 검질 씨가 막 오는 모양이라 외국서. 오곡 뭐, 하진.(별꽃. 그거 윈, 꼭 그거밧에 안 나니까. 거 여러 가지 비료에도 잡풀 씨가 막 오는 모양이야. 외국서. 오고 뭐, 여러 가지.)

103022 @2 예, 외국서 들어온 거 많수다.(예, 외국에서 들어온 거 많습니다.)

103022 #1 그, 농작물에, 씨, 종자에도 검질 씨 잇고 허난, 건디 종류가 엄청나.(그, 농작물에, 씨, 종자에도 잡풀 씨 잇고 하니까, 그런데 종류가 엄청나.)

103022 @1 안 봐난 검질덜이.(안 봤던 잡풀들이.)

103022 #1 안 봐난 검질이 엄청나.(안 봤던 잡풀들이 엄청나.)

103023 @1 게민 조는 언제 밧니까?(그러면 조는 언제 뺏니까?)

103023 #1 조는 상강일 전에게. 상강일 뒤민 상강일이 체시라. 상강, 상강.(조는 상강일 전에. 상강일 되면 상강일이 차사라. 상강, 상강.)

103023 @1 상강 전이.(상강 전에.)

103023 #1 상강 넘으면은 싹 익어. 상강일만 넘으면은.(상강 넘으면은 싹 익어. 상강일만 넘으면은.)

103023 @1 음.(음.)

103023 #1 게난 모든 하작물은 상강이, 상강일이 체시영 허주게. 고고마도 상강일이 넘으면 안 크다 헤나고.(그러니까 모든 하작물은 상강이, 상강일이 차사라고 하지. 고구마도 상강일이 넘으면 안 크다 했었고.)

103021 @1 음.(음.)

103023 #1 상강일 7장만 크다.(상강일까지만 크다.)

103023 @1 어떻 비어수과 그건? 그 무시 거 나오기 전이. 콤바인 나오기 전인.(어떻게 베었습니까 그건? 그 무슨 거 나오기 전에. 콤바인 나오기 전에는.)

103023 #1 아이, 손으로 비었지.(아이, 손으로 베었지.)

103023 @1 손으로 비고.(손으로 베고.)

103023 #1 즈곤즈곤 앓아근에, 밧디 앓앙 흔 메칠간 비엿당.(자근자근 앓아서, 밧에 앓아서 한 며칠간 베엿다가.)

103023 @1 비영.(베어서.)

103023 #1 무경 구루마로 시꺼 왕.(묶어서 마차로 실어 와서.)

103023 @1 눅져 낱, 구루마로. 묶는 건 어떻게 무껏수과?(눅혀 놓고, 마차로. 묶는 건 어떻게 묶었습니까?)

103023 #1 거, 비영. 것도 그게 조가 이만이 질잖아이?(거, 베어서. 그것도 그게, 조가 이만큼 길잖아?)

103023 @1 예예.(예예.)

103023 #1 게민 조 비어 놓으면은 흔 삼 일 물려야 뒤여 밧디서.(그러면, 조 베어 놓으면은 한 삼 일 말려야 되어 밧에서.)

103023 @1 밧디서.(밭에서.)

103023 #1 거, 늘, 위에 늘체 허젠 허면 아주 움직, 무거워가지고 움직이도 못허곡.(거, 날, 위에 날것대로 하려고 하면 아주 움직, 무거워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103023 @1 음.(음.)

103023 #1 장만도 못 허곡. 흔 삼일 간 물리왕. 또 비 오면은 또 뒤쌍 물리곡. 비 맞으면 흘 수가 엇어. 이놈이게. 물리왕. 물리면은 조가 무끄쟁 허면은, 조나 영 지럿대, 고고리가 나오면, 고고린 요만이 조나 췌어 가지고 고고릴 획 돌르, 영 허 연 영 메와 낱게.(장만도 못 하고. 한 삼일 간 말려서. 또 비 오면은 또 뒤집어서 말리고. 비 맞으면 할 수가 없었어. 이것이. 말려서. 말리면은 조가 묶으려고 하면은, 조나 이렇게 ‘지럿대’, 이삭이 나오면, 이삭은 요만큼 조나 쥐어 가지고 이삭을

훅 두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 놓고.)

103023 @1 예.(예.)

103023 #1 이디 딱 놓으면은 딱 갈라져.(여기 딱 놓으면은 딱 갈라져.)

103023 @1 예.(예.)

103023 #1 그걸로 영 무꺼서.(그걸로 이렇게 묶었어.)

103023 @1 그냥 보리, 보리 무끄는 식으로.(그냥 보리, 보리 묶는 식으로.)

103023 #1 예, 보리 무끄는 식으로.(예, 보리 묶는 식으로.)

103023 @1 보리 무끄는 식으로.(보리 묶는 식으로.)

103023 #1 영 메와 낱 보리보다는 좀 크게 무끄지. 이견 지니까.(이렇게 모아 놓고 보리보다는 좀 크게 묶지. 이견 기니까.)

103023 @1 예.(예.)

103023 #1 영 혼 못 헐 만이 메와 놓으면은, 혼 쪽 툇 끼왕, 고고리 영 데왕, 영 싹 갈르면은 이게 줄마메지는 식으로 뿔 거주.(이렇게 한 못 할 만큼 모아 놓으면은, 한 쪽 툇 끼어서, 이삭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싹 가르면은 이게 잡아매어지는 식으로 뿔 거지.)

103023 @1 예. 그냥 그걸로 무껏구나예. 무꿍, 쉼에 꼭 보리 시꿍 오듯이.(예. 그냥 그걸로 묶었군요. 묶어서, 소에 꼭 보리 실어 오듯이.)

103023 #1 응. 시꺼 와야.(응. 실어 와야.)

103023 @1 케민 흠뻐 그거 무거우쿠다? 쉼에 뻐 못이나 시꺼져?(그러면 조금 그거 무겁겠습니까? 소에 뻐 못이나 실을 수 있어?)

103023 #1 아, 그거 쉼에는, 쉼도 으섯 못.(아, 그거 소에는, 소도 여섯 못.)

103023 @1 아.(아.)

103023 #1 조도.(조도.)

103023 @1 조도 으섯 못 시껌 와났구나양? 등짐 전 오진 안 해났수과?(조도 여섯 못 싣고 왔었군요? 등짐 지고 오진 않았었습니까?)

103023 #1 아, 짐도 지언. 혼 두 못씩 지곡.(아, 짐도 지었어. 한 두 못씩 지고.)

103023 @1 두 못씩.(두 못씩.)

103023 #1 지고 시끄고 저, 지, 쉼에도 시끄곡 헐 와났주.(지고 싣고 저, 지, 소에도 싣고 해서 왔었지.)

103024 @1 예. 지기도 허곡, 쉼에 시꿍 오기도 허곡. 쟁헐 가정 오민 그다음은?(예. 지기도 하고, 소에 실어서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그다음은?)

103024 #1 그때 그, 조 툷아게.(그때 그, 조 뜯어.)

103024 @1 툷아?(뜯어?)

103024 #1 툷아야 뿔 거 아니라게? 이만이 날체 그져 오면.(뜯어야 뿔 거 아니라?. 이만큼 날것대로 가져 오면.)

103024 @1 예.(예.)

103024 #1 조도 저되 놀었다 가지고 저, 혼 못씩 날 좋은 날 마당에.(조도 저기 쌓아 가지고 저, 한 못씩 날 좋은 날 마당에.)

103024 @1 혼 못씩.(한 못씩.)

103024 #1 호미 허영 턱 허게 이되 바뵤 낱 혼 줌 고고리 툫앙 이레 데끼고, 툫앙 이레 데끼고.(낫 해서 턱 하게 여기 받쳐 놓고 한 줌 이삭 뜯어서 이리 던지고, 뜯어서 이리 던지고.)

103024 @1 아, 호미 영.(아, 낫 이렇게.)

103024 #1 호미 영 발 가리치면 놀이 나올 거 아니라?(낫 이렇게 발 뒤집으면 놀이 나올 거 아니라?)

103024 @1 놀 세와나근에?(날 세워서?)

103024 #1 계민 혼 줌 영 영 허영 고고리만 툫앙 저레.(그러면 한 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삭만 뜯어서 저리.)

103024 @1 고고리만 툫앙.(이삭만 뜯어서.)

103024 #1 대는 대대로 따로 영 무끄고. 조집이라고 해서 따로 무끄고.(대는 대대로 따로 이렇게 묶고. 조짚이라고 해서 따로 묶고.)

103025 @1 계민 그것도 그, 마찬가지로 마당에서.(그러면 그것도 그, 마찬가지로 마당에서.)

103025 #1 마당에서.(마당에서.)

103025 @1 장만을 헛구나양?(장만을 했었군요?)

103025 #1 장만, 도리께로 딱령 해낫주. 처음에는.(장만, 도리께로 두드려서 했었지. 처음에는.)

103025 @1 도께로 딱려근에.(도리께로 두드려서.)

103025 #1 경 행 말째에는 그, 저, 저, 조 장만허는 탈곡기가 나온 거라.(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저, 저, 조 장만하는 탈곡기가 나온 거라.)

103025 @1 예.(예.)

103025 #1 경 고고리만 다 툫앙 주면은 장만을 해 줘.(그렇게 이삭만 다 뜯어서 주면은 장만을 해 줘.)

103025 @1 음.(음.)

103025 #1 계면 조만 조대로 나곡 허영 그, 저, 샅이 받아가곡 허는, 거, 그, 업자들이 줌 있어. 마을마다 그, 탈곡기 허는 사름덜.(그러면 조만 조대로 나고 해서 그, 저, 샅을 받아가고 하는, 거, 그, 업자들이 줌 있어. 마을마다 그, 탈곡기 하는 사람들.)

103025 @1 거 나오기 전인 도께로만 헛수과? 아님 또 다른 방법은 엇어낫수과?(거 나오기 전엔 도리께로만 했습니까? 아님 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103025 #1 그, 우리 할 때는 엇어난. 다 도께로만.(그, 우리 할 때는 없었어. 다 도리께로만.)

103025 @1 마께로, 덩드렁마께론 안 헛수과?(방망이로, ‘덩드렁마께’론 안 했습

니까?)

103025 #1 아니, 아니, 덩드렁마께⁶³)는 저, 멩텅이 저, 저디, 저디, 즐 때에 나룩
짹 해 가지고 그거 못앙.(아니, 아니, ‘덩드렁마께’는 저, 망태기 저, 저기, 저기, 곁
을 때에 벗짚 해 가지고 그거 마서.)

103025 @1 그거 두드렁 허고.(그거 두드려서 하고.)

103025 #1 거 못앙 그, 저 저, 그, 농촌에 그 농스 지젠 허면은 그, 하건 필요한
기구덜 허젠 허면은 그 걸름착도 준곡.(거 마서 그, 저 저, 그, 농촌에 그 농사지으
려고 하면은 그, 여러 가지 필요한 기구들 하려고 하면은 그, ‘걸름착’도 곁고.)

103025 @1 음.(음.)

103025 #1 맥, 곡식덜 농쟁 멩텅이엿 맥도 준곡. 나도 저 맥 즐아낫어. 이, 겨울
에 놀 때는. 저 명월 강.(떡서리, 곡식들 농으려고 망태기라고 떡서리도 곁고. 나도
저 떡서리 곁었었어. 이, 겨울에 놀 때는. 저 ‘명월’ 가서.)

103025 @2 음.(음.)

103025 #1 나룩짹 사다근에.(벗짚 사다가.)

103025 @1 아. 나룩짹 사다근에.(아. 벗짚 사다가.)

103025 #1 저, 명월⁶⁴) 가야 나룩짹 잇어.(저, ‘명월’ 가야 벗짚 잇어.)

103025 @1 게, 맥.(그럼, 떡서리.)

103025 #1 맥 준곡.(떡서리 곁고.)

103025 @1 예.(예.)

103025 #1 게, 맥에 그 곡식덜 담양 보관허고.(그럼, 떡서리에 그 곡식들 담아서
보관하고.)

103025 @1 계민 그 도께로 현 곁 이제는 낫사 곁아낫주마는 마찬가지로 그 어디
뿔방에 가져갈 거 아니파양?(그러면 그 도리께로 한 곁, 이제는 아까 말했었지마는,
마찬가지 그, 어디 연자매에 가져갈 거 아닙니까?)

103025 #1 뿔방에 강 또 둥그려.(연자매에 가서 또 둥글려.)

103025 @1 조도 마찬가지로 둥그려근에.(조도 마찬가지로 둥글려서.)

103025 #1 조도 둥그렁 쌀 내곡.(조도 둥글려서 쌀 내고.)

103025 @1 물 치대기명 헛수과?(물 끼었으면서 했습니까?)

103025 #1 조는 그, 물 안 치대겨, 보리만 물 치대기고.(조는 그, 물 안 끼었어,
보리만 물 끼었고.)

103025 @1 아.(아.)

103025 #1 조는 그냥 둥그렁 허면 까정 나와. 쌀은 쌀대로.(조는 그냥 둥글려서
하면 까져서 나와. 쌀은 쌀대로.)

103025 @1 아.(아.)

103025 #1 조, 저.(조, 저.)

63) ‘덩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로 ‘던드렁마께’라고도 한다.

64) ‘명월’은 제주시 한림읍의 마을 이름이다.

103025 @1 물방에.(연자매.)

103025 @2 조 껍질이 별로라.(조 껍질이 별로야.)

103025 @1 물방에 가진 안 혜영 기냥 ㄹ레에.(연자매에 가진 았고 그냥 맏돌에.)

103025 #1 ㄹ레에.(맏돌에.)

103025 @1 해도 뽕직헌디양?(해도 될 것 같은데요?)

103025 #1 음.(음.)

103025 @1 그, 무신 거 닭지 안허여근에. 요거는.(그, 무슨 거 닭지 았아서. 요거는.)

103025 #1 게 물방에가 좀 많이 혜지주게. 물방에 도로기가, 큰 도로기 아니라? 그걸로 영 빙빙 두르민 혼 번에 까져.(그럼, 연자매가 좀 많이 혜지. 연자매 바퀴가, 큰 바퀴 아니라? 그걸로 이렇게 빙빙 돌리면 한 번에 까져.)

103025 @1 음. 경 혜영 이제 줍쌀, 줍쌀 나오곡, 줍쌀 말앙 그다음 무신 거.(음. 그렇게 해서 이제 줍쌀, 줍쌀 나오고, 줍쌀 말고 그다음 무슨 거.)

103025 #1 조체⁶⁵, 조체.(‘조체’, ‘조체’.)

103025 @1 조체?(‘조체’?)

103025 #1 음. 거 돼야지 주곡.(음. 거 돼지 주고.)

103025 @1 아, 조체는 도야지 주는 거. 케민 줍쌀 나온 걸로.(아, 조체는 돼지 주는 거. 그러면 줍쌀 나온 걸로.)

103025 #1 밥 허영 먹곡.(밥 해서 먹고.)

103025 @1 조팍.(조팍.)

103025 #1 예.(예.)

103025 @1 혜 먹고. 다음에.(혜 먹고. 다음에.)

103025 #1 그 조, 조도 두 가지라. 두 가지.(그 조, 조도 두 가지라. 두 가지.)

103025 @1 예.(예.)

103025 #1 개발시리엔 현 건 부젓집이고, 강돌좌리엔 현 거는 가난현, 저, 늦인 땅에 웨는 건데, 이 쌀 자체가 틀려. 그 강, 강돌좌리는 노란 쌀이고 개발시린 검은 쌀인데 지금 말 허면 차, 차조가 잇곡.(‘개발시리’라고 하는 건 부젓집이고, ‘강돌좌리’라고 하는 거는 가난한, 저, 나쁜 땅에 웨는 건데, 이 쌀 자체가 달라. 그 강, ‘강돌좌리’는 노란 쌀이고 ‘개발시린’ 검은 쌀인데 지금 말 허면 차, 차조가 잇고.)

103025 @1 예.(예.)

103025 #1 모원조가 잇고. 차, 개발시리는.(메조가 잇고. 차, ‘개발시리’는.)

103025 @1 차조.(차조.)

103025 #1 차조, 딱딱 풀이 부떠이.(차조, 딱딱 풀이 붙어.)

103025 @1 예.(예.)

103025 #1 그, 노랑 조, 강돌좌리는 부뜨질 안 혜, 헤싸져 밥이.(그, 노랑 조, ‘강

65) ‘조체’는 조에서 벗기어 낸 겉껍질을 말한다.

돌짜리'는 붙질 않아, 헤벌어져 밥이.)

103025 @1 다락다락.(‘다락다락’.)

103025 #1 예, 다락다락 헤싸지면은 차조는 밥 허곡 막걸리 ㄴ쁜 거 담양 떡곡. 그 노랑 조는 이놈으 거는 콩죽이엔 현 거 잇어 콩죽. 옛날 저울 올 때. 콩죽만 그걸로 썩 먹어.(예, ‘다락다락’ 헤벌어지면은 차조는 밥하고 막걸리 같은 거 담가서 먹고. 그 노랑 조는, 이것은, 콩죽이라고 하는 거 있어. 콩죽. 옛날 저울 올 때. 콩죽만 그걸로 썩어서 먹어.)

103025 @1 예.(예.)

103025 #1 차조는 콩죽이 안 돼어.(차조는 콩죽이 안 되어.)

103025 @1 음.(음.)

103025 #1 노랑 조는 콩죽이 잘돼곡. 게난 그, 말제엔 영 보니까, 노랑 조가 병원에 이, 환자덜토 떡곡 허더라고. 노랑 조만.(노랑 조는 콩죽이 잘되고. 그러니까 그, 나중엔 이렇게 보니까, 노랑 조가 병원에 이, 환자들도 먹고 하더라고. 노랑 조만.)

103025 @1 미음, 미음양?(미음, 미음요?)

103025 #1 미음, 노랑 조로.(미음, 노랑 조로.)

103025 @1 예 예.(예 예.)

103025 #1 찰조는 이거 저, 막걸리, 막걸리 용.(차조는 이거 저, 막걸리, 막걸리 용.)

103025 @1 예.(예.)

103025 #1 거 기름이 터. 이 찰조는.(거 기름이 떠. 이 차조는.)

103025 @1 예 예. 떡도 해 먹고예.(예 예. 떡도 해 먹고요.)

103025 #1 떡도 해 먹고. 찰조는 떡 허고.(떡도 해 먹고. 차조는 떡 하고.)

103025 @1 그계.(그계.)

103025 #1 제펜⁶⁶도 허고.(‘제펜’도 하고.)

103025 @1 그계 개발시리양?(그계 ‘개발시리’요?)

103025 #1 개발시리허고 강돌짜리.(‘개발시리’하고 ‘강돌짜리’.)

103025 @1 게난 개발시리, 그거로는.(그러니까 ‘개발시리’, 그걸로는.)

103025 #1 건 차조.(건 차조.)

103025 @1 예.(예.)

103025 #1 강돌짜리는 노랑 조.(‘강돌짜리’는 노랑 조.)

103026 @1 음. 그걸로 술 해 먹어나지 안 헛수과양?(음. 그걸로 술 해 먹지 않았습니까?)

103026 #1 아이고, 전문으로 저, 집집마다 막걸리.(아이고, 전문으로 저, 집집마다 막걸리.)

103026 @1 예.(예.)

66) ‘제펜’은 쌀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얹혀 찐 시루떡이다. 달리 ‘지펜’이라고 한다.

103026 #1 거 허여야 저되, 정월명절에는 그, 과세덜 영 다 이제는 잊어졌주마는, 사름덜이 영 오면은 그, 그, 청주라고 해서.(거 하여야 저기, 정월명절에는 그, 과세들 이렇게, 다 이제는 없어졌지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 그, 청주라고 해서.)

103026 @2 예.(예.)

103026 #1 청주를 다, 다 주어놔주게.(청주를 다, 다 주었었지.)

103026 @1 그 순서를 곁아 봅서. 어떻.(그 순서를 말해 보십시오. 어떻게.)

103026 #1 그거, 청주 허쟁 허면 좁쌀로.(그거, 청주 하려고 하면 좁쌀로.)

103026 @1 예.(예.)

103026 #1 개발시리 저, 쌀로.(‘개발시리’ 저, 쌀로.)

103026 @1 예.(예.)

103026 #1 그, 저, 거멍헌 좁쌀로 있어. 풀풀헌 거.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맥주보리로 허영 맥주보리 쌀로 허영 누룩을 만드는 거라이. 누룩.(그, 저, 검은 좁쌀로 있어. 풀풀헌 거.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맥주보리로 해서, 맥주보리 쌀로 해서 누룩을 만드는 거라. 누룩.)

103026 @1 예.(예.)

103026 #1 누룩이 잊어야 술이 돼거든. 누룩을 여인네덜이, 이제는 누룩을 차롱착만씩 헌 걸로 담양은애에, 그게 거, 거, 그거가 곰팡이라 누룩. 딱딱하게 이, 된장 만들듯이. 누룩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 조를 곁아다가, 좁쌀을 곁아다가 이제는 거, 오마기떡⁶⁷⁾을 허더라고. 좁쌀로.(누룩이 잊어야 술이 되거든. 누룩을 여인네들이, 이제는 누룩을 차롱만씩 한 걸로 담아서, 그게 거, 거, 그거가 곰팡이라 누룩. 딱딱하게 이, 된장 만들듯이. 누룩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 조를 곁아다가, 좁쌀을 곁아다가 이제는 거, ‘오메기떡’을 하더라고. 좁쌀로.)

103026 @1 오메기떡을.(오메기떡을.)

103026 #1 음.(음.)

103026 @1 오, 오메기떡, 오마기떡?(오, 오메기떡, 오메기떡?)

103026 #1 거, 좁쌀 곤 거를.(거, 좁쌀 간 거를.)

103026 @1 예.(예.)

103026 #1 오마기, 오마기떡이엔 헌 게 있어.(오메기, 오메기떡이라고 하는 게 있어.)

103026 @1 예예.(예예.)

103026 #1 고망 딸라지고.(구멍 뚫어지고.)

103026 @1 딸라지고.(뚫어지고.)

103026 #1 요만씩 헌 거 허여 가지고.(요만씩 한 거 해 가지고.)

103026 @1 예.(예.)

67) ‘오마기떡’은 차좁쌀 가루에 더운물을 넣어서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이다. 술감으로 쓰이기도 한다. 달리 ‘오메기’, ‘오메기떡’이라고 한다.

103026 #1 헌 걸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삶양.(한 걸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삶아서.)

103026 @1 예.(예.)

103026 #1 그, 그 오마기떡허고 그, 누룩. 누룩을 그레에 뺏으면 그루가 만들어져.(그, 그 오메기떡허고 그, 누룩. 누룩을 멧돌에 뺏으면 가루가 만들어져.)

103026 @1 예.(예.)

103026 #1 가루가 만들어지면.(가루가 만들어지면.)

103026 @1 예.(예.)

103026 #1 거 막 서꺼 가지고 찌는 거라. 막 찌. 오마기떡허고 누룩을. 누룩은 저, 보리로 만든 거난. 누룩은 또 맥주보리라야 돼. 뜯 보리는 안 돼어.(거 막 섞어 가지고 찌는 거라. 막 찌. 오메기떡허고 누룩을. 누룩은 저, 보리로 만든 거니까. 누룩은 또 맥주보리라야 돼. 뜯 보리는 안 되어.)

103026 @1 예.(예.)

103026 #1 슬오리로 누룩 못 만들어, 맥주보리로 만들어. 막 서끄면은 그, 그걸 멧 차례 헤 놔야지. 그 향, 큰 향으로 하나 만들쟁 허면. 멧 차례 허여 놓으면은, 그 거 초불 거 뭐 혼 들포 시면 글로 계름이 바각바각 그, 그 거품이 나와. 시작하면은 또 혼 두불을 또 허여 놔야 돼 그레. 또 누룩 놓고 걸 또, 또 허여 놔야. 거 건 조고만이.(쌀보리로 누룩 못 만들어, 맥주보리로 만들어. 막 섞으면은 그, 그걸 멧 차례 헤 놔야지. 그 향, 큰 향으로 하나 만들려고 하면. 멧 차례 하여 놓으면은, 그거 초벌 거, 뭐, 한 달포 있으면 거기로 거품이 '바각바각' 그, 그 거품이 나와. 시작하면은 또 한 두벌을 또 하여 놔야 돼 거기에. 또 누룩 놓고, 걸 또, 또 하여 놔야. 거, 건 조금.)

103026 @1 음.(음.)

103026 #1 허여 낱, 그게 혼 음력 정월 때에, 혼 두어 석 달 돼면은, 청주만 버멍헌 지름이 둥글둥글, 청주만 올라오면은.(하여 놓고, 그게 한 음력 정월 때에, 한 두어 석 달 되면은, 청주만 '버멍헌' 기름이 둥글둥글, 청주만 올라오면은.)

103026 @1 음.(음.)

103026 #1 거, 청주를 그, 저, 향, 향아리에 이젠 또 담양, 막 밑에 거는 막걸리가 되는 거라. 밑에 거는.(거, 청주를 그, 저, 향, 향아리에 이젠 또 담아서, 막 밑에 거는 막걸리가 되는 거라. 밑에 거는.)

103026 @1 예.(예.)

103026 #1 우에 거는 청주가 돼고.(위에 거는 청주가 되고.)

103026 @1 예. 청주가 돼고.(예. 청주가 되고.)

103026 #1 막걸리는 그 옛날에, 막걸리라고 해서 조막걸리엔 허면은 사발로 쥐 낫주. 게민 먹영 또 막 취해 것도. 사름덜이. 막 취해. 건디 그게 술이, 집집마다 술이 잘 되는 그, 여인네 손, 손맛으로 허는 거난. 손맛이 좋은 여인네는 그 집이 술 허고 장이 잘 된다 허고. 또 손맛이 엇인 되는 그 술 담아 주는 손재주 좋은 여인

을 빌어당 우리, 우리 술 왕 담아줍생 허영. 경 허영 강, 그건 아무나 못 헤여 건.
(막걸리는 그 옛날에, 막걸리라고 해서 조막걸리라고 하면은 사발로 줬었지. 그러면
먹고 또 막 취해 그것도. 사람들이. 막 취해. 그런데 그게, 술이, 집집마다 술이 잘
되는 그, 여인네 손, 손맛으로 하는 거니까. 손맛이 좋은 여인네는 그 집이 술하고
장이 잘된다 하고. 또 손맛이 없는 데는 그, 술 담가 주는 손재주 좋은 여인을 빌려
다가 우리, 우리 술 와서 담가 주십사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가서, 그건 아무나 못
해 건.)

103026 @1 아, 놉 빌어당 담고 (웃음).(아, 놉 빌려다가 담그고 (웃음).)

103026 #1 놉 빌영. 제 소문나. 술 잘 만드는 아주망이다 허면은.(놉 빌려서. 그
게 소문나. 술 잘 만드는 아주머니다 하면.)

103026 @1 예.(예.)

103026 #1 술 만들젠 거, 집집마다 술을 만들어야 게, 겨울에 대, 저, 그, 그.(술
만들려고 거, 집집마다 술을 만들어야 게, 겨울에 대, 저, 그, 그.)

103026 @1 멍질도 허고.(멍질도 하고.)

103026 #1 멍질 때에 과세 온 사름덜 대접허쟁 허면.(멍질 때에 과세 온 사람들
대접하려고 하면.)

103026 @1 예.(예.)

103026 #1 그걸로, 청주로 대접해서. 겐디 집집마다 강 술덜 먹어 놓으면, 취해
가지고 사름덜 허여낫주. 청주로. 청주가 순순한 좁쌀 술이라 놓으니까 아주, 취허
면 그, 깨도 안 허여. 흔 메칠간.(그걸로, 청주로 대접했어. 그런데 집집마다 가서
술들 먹어 놓으면, 취해 가지고 사람들 했었지. 청주로. 청주가 순수한 좁쌀 술이라
놓으니까 아주, 취하면 그, 깨지도 았아. 한 며칠간.)

103026 @2 (웃음)((웃음))

103026 @1 음.(음.)

103026 #1 그렇게 조로 청주 해낫주.(그렇게 조로 청주 했었지.)

103027 @1 조짚은 또.(조짚은 또.)

103027 #1 거 췌, 췌.(거 소, 소.)

103027 @1 췌.(소.)

103027 #1 거 췌, 집 전부 췌. 췌가 흔 서너 개씩 키우면 오죽 많이 먹어게?(거
소, 짚 전부 소. 소가 한 서너 개씩 키우면 오죽 많이 먹어?)

103027 @1 예.(예.)

103027 #1 출도 해당 늘어도 다 맥이고, 콩꼬질도 다 맥이고, 조집도 다 맥이
고.(꿀도 해당가 쌓아도 다 먹이고, 콩깍지도 다 먹이고, 조짚도 다 먹이고.)

103027 @1 콩꼬질, 조짚.(콩깍지, 조짚.)

103027 #1 겨울에 이젠, 겨울 내내 작도로 썰영, 췌 서너 개 허민, 엄청나게 먹
어 췌가.(겨울에 이젠, 겨울 내내 작도로 썰어서, 소 서너 개 하면, 엄청나게 먹어
소가.)

103027 @1 작도로 썰어근에마썸?(작도로 썰어서요?)

103027 #1 베설창아리가 오죽 커게? 그거 다 작도로 썰엉 다 주쟁 허민.(배알이 오죽 커? 그거 다 작도로 썰어서 다 주려고 하면.)

103028 @1 음. 조 농사에 대해근에 뭐, 특별히 뭐, 생각나는 거 잇걸랑 한번 글 아 봅서.(음. 조 농사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생각나는 거 잇거든 한번 말해 보십시오.)

103028 #1 조 농사는.(조 농사는.)

103028 @1 하영 해납디가?(많이 해 보셨습니까?)

103028 #1 아, 조, 조 전문으로 조, 조도 하여났고 헛주마는.(아, 조, 조 전문으로 조, 조도 했었고 했지마는.)

103028 @1 푸는 거 아니난에 경 하영 허진 안헤실 거 아니파?(파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103028 #1 아이, 품도 헤났어.(아이, 팔기도 했었어.)

103028 @1 아, 조도?(아, 조도?)

103028 #1 예, 줍쌀.(예, 줍쌀.)

103028 @1 줍쌀 헤연에 폴아수과?(줍쌀 해서 팔았습니까?)

103028 #1 어려우면 폴아서. 거. 게 조 대부분 많이 팔았었주. 저 한림장에 지어가 가지고 아지망덜.(어려우면 팔았어. 거. 그거 조, 대부분 많이 팔았었지. 저 ‘한림장’에 지어 가 가지고 아주머니들.)

103028 @1 아.(아.)

103028 #1 엇을, 엇을 거난게 전부. 그때 돈 날 데 엇은 때는, 맥주보리 판매 아녀고 유채 아년 때는, 줍쌀도 풀곡 보리도 풀곡 허연에 살았주. 콩도 풀곡. 모물쌀도 만들앙 풀곡. 게난 이 조가 허민 내불 게 없어. 돼야지 쥐야지.(없을, 없을 거니까 전부. 그때 돈 날 데 없던 때는, 맥주보리 판매 아니 하고 유채 아니 한 때는, 줍쌀도 팔고 보리도 팔고 해서 살았지. 콩도 팔고. 메밀쌀도 만들어서 팔고. 그러니까 이, 조가 하면 내버릴 게 없어. 돼지 쥐야지.)

103028 @1 예.(예.)

103028 #1 췌 쥐야지, 사름 먹지. 여, 그, 이, 춤 옛날 체 밥 먹는 시절인엔도 헛주마는 줍쌀도 고급 쫄이랏주게.(소 쥐야지, 사름 먹지. 여, 그, 이, 참 옛날 체 밥 먹는 시절이라고도 했지마는 줍쌀도 고급 쌀이었었지.)

103028 @1 맞수다.(맞습니다.)

103028 #1 옛날 체 밥도 먹언 살아났어. 저 스삼사건 전에는.(옛날 체 밥도 먹고 살았었어. 저 사삼사건 전에는.)

103028 @1 맞수다.(맞습니다.)

103028 #1 예, 게난 하여튼 조가 잘, 게난 내중에 비료가 나기 시작허니까, 안 좋은 밧도 늦인 밧, 강돌파리만 갈단 밧도, 비료 나난, 비료 주면은 그, 개발시리가 잘 돼여 가지고.(예, 그러니까 하여튼 조가 잘, 그러니까 나중에 비료가 나기 시작

하니까, 안 좋은 밭도 나쁜 밭, ‘강돌뢰리’만 같던 밭도, 비료 나니까, 비료 주면은 그, ‘개발시리’가 잘 되어 가지고.)

103028 @1 음.(음.)

103028 #1 그, 아주 잘 살았주게.(그, 아주 잘 살았지.)

103028 @1 음.(음.)

103028 #1 개발, 그 비료 나니까.(개발, 그 비료 나니까.)

콩농사

103029 @1 예. 콩도 하영 해납디가?(예. 콩도 많이 했었습니까?)

103029 #1 콩도 전문으로 많이 해놔주게.(콩도 전문으로 많이 했었지.)

103029 @1 음.(음.)

103029 #1 여긴 혼, 혼 이천 평씩은 콩도 갈아놔어.(여긴 한, 한 이천 평씩은 콩도 갈았었어.)

103029 @1 그건.(그건.)

103029 #1 그거 손으로 다 꺼쥬.(그거 손으로 다 꺾어서.)

103030 @1 조, 조 허기 전에.(조, 조 하기 전에.)

103030 #1 아니, 조 허기, ㄴ쥬, ㄴ쥬.(아니, 조 하기, 같이, 같이.)

103030 @1 ㄴ쥬.(같이.)

103030 #1 ㄴ쥬 시기에.(같은 시기에.)

103030 @1 ㄴ쥬 시기에.(같은 시기에.)

103030 #1 하여튼 유월절 전에.(하여튼 유월절 전에.)

103030 @1 보리 끝나근에 보리그르에 기자.(보리 끝나서 ‘보리그르’에 그냥.)

103030 #1 예, 바로 기자 콩도 같고 조도 같고.(예, 바로 그냥 콩도 같고 조도 같고.)

103030 @1 조도 허곡, 콩도 같고.(조도 하고 콩도 같고.)

103030 #1 조가 조뽀 말째에 같고.(조가 조금 나중에 같고.)

103030 @1 예.(예.)

103030 #1 콩이 조뽀 문여 갈곡.(콩이 조금 먼저 같고.)

103030 @1 예.(예.)

103030 #1 하이, 조는 예, 유월절 넘어도 그 마같이⁶⁸⁾ 조라고 해 가지고, 유월절 허민 장마가 갈아이.(하이, 조는 예, 유월절 넘어도 그 ‘마같이 조’라고 해 가지고, 유월절 하면 장마가 건너.)

103030 @1 예.(예.)

103030 #1 ㄴ사 조는 커, 장마를 안 맞아야 조가 잘 돼여. 조 갈아 낱 장말 맞으면 조가 잘 안 돼어놔주. 것 ㄴ라 마같이조엔 허는 거주게.(아까 조는 커, 장마를 안 맞아야 조가 잘 되어. 조 갈아 놓고 장말 맞으면 조가 잘 안 되었었지. 그것을

68) ‘마같이’는 장마 시기가 지난 뒤에 파종하는 조 농사 따위를 말한다. 달리 ‘마같이’라고도 한다.

‘마같이조’라고 하는 거지.)

103030 @1 막?(막?)

103030 #1 마가 같은, 조 간 후에 마가 같았다 해 가지고 마같이.(마가 같은, 조 간 후에 마가 걸었다 해 가지고 ‘마같이’.)

103030 @1 마같이.(‘마같이’.)

103030 #1 장마, 오월 장마. 같으면은 조가 같면은 거, 마가, 비가 아니 와야 그렇게 농사, 검질도 아니 나고 좋고.(장마, 오월 장마. 걸으면은 조가 같면 거, 마가, 비가 아니 와야 그렇게 농사, 잡풀도 아니 나고 좋고.)

103030 @1 그래서 마같이조.(그래서 ‘마같이조’.)

103030 #1 마같이조. 응.(‘마같이조’. 응.)

103030 @1 마같이조. 으음.(‘마같이조’. 으음.)

103030 #1 계난 저, 부젓칩덜은 마같이조 허고, 가난헌 집은 마같이조가 안 허민 조가 안 웨여.(그러니까 저, 부젓집들은 ‘마같이조’ 하고, 가난한 집은 ‘마같이조’가 안 하면 조가 안 웨여.)

103030 @1 예.(예.)

103030 #1 자라질 안 헤여.(자라질 안 해.)

103031 @1 음. 콩은 뭐, 걸름 필요 엇지양?(음. 콩은 뭐, 거름 필요 없지요?)

103031 #1 콩은 필요 엇고.(콩은 필요 없고.)

103031 @1 필요 엇고양?(필요 없고요?)

103031 #1 콩은 그 씨 뿌령 갈만 허민.(콩은 그 씨 뿌려서 갈기만 하면.)

103032 @1 어떻, 씨는 기냥 뿌리, 빠지예?(어떻게, 씨는 그냥 뿌리, 뿌리지요?)

103032 #1 빠지, 빠지. 손으로.(뿌리지, 뿌리지. 손으로.)

103032 @1 손으로 기냥 작작?(손으로 그냥 작작?)

103032 #1 망태기 돌렁 다니면서 작작.(망태기 둘러메고 다니면서 작작.)

103032 @1 예. 요, 요 어깨에 메는.(예. 요, 요 어깨에 메는.)

103032 #1 어깨에 메는 거.(어깨에 메는 거.)

103032 @1 메는 거, 거 망태기마씀? 망.(메는 거, 거 망태기요? 망.)

103032 #1 예, 그걸로. 망태기로.(예, 그걸로. 망태기로.)

103032 @1 예.(예.)

103032 #1 이, 씨 뿌리는 망태기라고 요만이 헌 거 즐앗어.(이, 씨 뿌리는 망태기라고 요만큼 한 거 걸었어.)

103032 @1 예.(예.)

103032 #1 째므로. 즐면은 그걸로 영 텡기명, 뚜러메영 텡기명 콩 씨나 팏 씨나 뿌려낫주게.(째므로. 걸면은 그걸로 이렇게 다니면서, 둘러메고 다니면서 콩 씨나 팏 씨나 뿌렸었지.)

103032 @1 뿌린 다음에 뭐, 거, 콩은 기자 무시 거.(뿌린 다음에 뭐, 거, 콩은 그저 무슨 거.)

103032 #1 저딴 저, 줍.(저기 저, 줍.)
 103032 @1 뭐 안 해도.(뭐 안 해도.)
 103032 #1 줍씨는 막 줍팍⁶⁹⁾이엔 헌 거 있어. 줍팍. 줍씨는 조가 잘잖아이?(줍씨는 막 ‘줍팍’이라고 하는 거 있어. ‘줍팍’. 줍씨는 조가 잘잖아?)
 103032 @2 예.(예.)
 103032 @1 예.(예.)
 103032 #1 거, 깨히고 줍씨는 거 줍팍으로 뿌리고.(거, 깨하고 줍씨는 거, ‘줍팍’으로 뿌리고.)
 103032 @1 줍팍.(‘줍팍’.)
 103032 #1 콩이나 뜯 것덜은, 이견 망텅이에 담양 훑으니까 콩은.(콩이나 뜯 것덜은, 이견 망태기에 담아서 훑으니까 콩은.)
 103032 @1 예.(예.)
 103032 #1 그냥 작작 뿌려.(그냥 작작 뿌려.)
 103033 @1 예. 콩밭도 검질메낫수가?(예. 콩밭도 김매었었습니까?)
 103033 #1 아이, 콩밭도 콩, 저, 흔 번.(아이, 콩밭도 콩, 저, 한 번.)
 103033 @1 흔 번?(한 번?)
 103033 #1 아, 거, 조는 두 번, 콩은 흔 번.(아, 거, 조는 두 번, 콩은 한 번.)
 103033 @1 언제쯤 됩니까? 콩.(언제쯤 됩니까? 콩.)
 103033 #1 아이 거, 콩은 하여튼 예, 처서 전에 다 검질메는 거 끝나야.(아이 거, 콩은 하여튼 예, 처서 전에 다 김매는 거 끝나야.)
 103034 @1 검질메고양? 음. 검질, 콩밭 검질은 또 뜯난 것덜 잊지 안허우짜?(김매고요? 음. 잡풀, 콩밭 잡풀은 또 다른 것들 있지 않습니까?)
 103034 #1 아이, 여름엔 다 제와니만.(아이, 여름엔 다 바랭이만.)
 103034 @1 다 비슷비슷헌 제와지?(다 비슷비슷한 바랭이?)
 103034 #1 그때는 으름에는 제와니, 겨울에는 진풀. 것밭기 엇어낫주게.(그때는 여름에는 바랭이, 겨울에는 별꽃. 그것밖에 없었었지.)
 103034 @1 음.(음.)
 103034 #1 검질이.(잡풀이.)
 103034 @1 옛날엔 검질도 하진 안 해낫수다양?(옛날엔 잡풀도 많진 않았었네요?)
 103034 #1 종자가 엇어낫어. 여름에.(종자가 없었어. 여름에.)
 103034 @1 예.(예.)
 103034 #1 제와니밭기는.(바랭이밖에는.)
 103035 @1 예. 콩도 게민 조 이제, 빌 때쯤에 콩도 수확해야 돼겠다양?(예. 콩도 그러면 조 이제, 벨 때쯤에 콩도 수확해야 되겠네요?)

69) ‘줍팍’은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작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이다. 지역에 따라 ‘솔박’, ‘속박’, ‘줍팍세기’라고 한다.

103035 #1 예, 조끔 콩이 말째에.(예, 조금 콩이 나중에.)
103035 @1 흐끔 말째.(조금 말째에.)
103035 #1 조가, 조가 먼저.(조가, 조가 먼저.)
103035 @1 조가 먼저.(조가 먼저.)
103035 #1 응, 이십일쯤 먼저. 꼭 ㄴ짜 뿌려도.(응, 이십 일쯤 먼저. 꼭 같이 뿌려도.)
103035 @1 예.(예.)
103035 #1 조는 빨리 허곡 콩은 나중에.(조는 빨리 하고 콩은 나중에.)
103035 @1 나중에.(나중에.)
103035 #1 흔 이십 일 나중에.(한 이십 일 나중에.)
103035 @1 어떤 식, 어떤 식으로 그거.(어떤 식, 어떤 식으로 그거.)
103035 #1 콩을 꺾, 이놈으 거는 꺼꺼야 웨이. 콩 영 허면. 꺼깁.(콩을 꺾, 이것은 꺾어야 돼. 콩 이렇게 하면. 꺾어서.)
103035 @1 뭐, 뭘로마썸?(뭐, 뭘로요?)
103035 #1 호미로.(낫으로.)
103035 @1 호미로.(낫으로.)
103035 #1 손으로.(손으로.)
103035 @1 험나험나, 험나험나.(하나하나, 하나하나.)
103035 #1 험나험나. 흔 천 평이면은 흔 네 사름 네, 하루종일 들이 이틀은 해야 돼.(하나하나. 한 천 평이면은 한 네 사람 네, 하루종일 들이 이틀은 해야 돼.)
103035 @1 예.(예.)
103035 #1 콩 꺼깁. 놓으면은 거 무꺼야 돼. 콩도 무꺼당.(콩 꺾어서. 놓으면 거 묶어야 돼. 콩도 묶어다가.)
103035 @1 뭘로 무꺼수과 건?(뭘로 묶었습니까? 건.)
103035 #1 건 새 비어당.(건 띠 베어다가.)
103035 @1 새 비어당?(띠 베어다가?)
103035 #1 예, 콩은 저 무끌 수가 없으니까.(예, 콩은 저 묶을 수가 없으니까.)
103035 @1 맞수다, 맞수다.(맞습니다, 맞습니다.)
103035 #1 놈이 밧되 강 새 도둑질 해당, (웃음) 이제는 걸, 콩을 무깁.(남의 밭에 가서 띠 도둑질 해다가, (웃음) 이제는 걸, 콩을 묶어서.)
103035 @2 (웃음).((웃음).)
103035 @1 (웃음).((웃음).)
103035 #1 거, 쉼에 시켜 오나, 구루마에 시켜 오나 눌엇당.(거, 소에 실어 오나, 마차에 실어 오나 썻았다가.)
103035 @1 시켜 왕.(실어 와서.)
103035 #1 거, 보리 끝난, 한걸헌 후에는 수늘어 가지고, 다 저 도끼로 허영 거, 저, 알맹이 꺼내.(거, 보리 끝난, 한가한 후에는 품앗이해 가지고, 다 저 도리개로

해서 거, 저, 알맹이 꺼내.)

103035 @1 마당에 기자.(마당에 그냥.)

103035 #1 마당에. 그 도끼로.(마당에. 그 도리끼로.)

103035 @1 그냥.(그냥.)

103035 #1 예.(예.)

103035 @1 헤 놔근에. 도끼로 두드려양?(헤 놓고서. 도리끼로 두드려요?)

103035 #1 예, 장남덜 서너너이 영 혼 쪽에 들씩 허영. 즈미나.(예, 장정들 서너너이 이렇게 한 쪽에 들씩 해서. 재미나.)

103035 @2 (웃음).(웃음.)

103035 @1 예, 거 뭐, 탁 탁 두드려 가민 어디 놀아가 불지 안 헛수과?(예, 거 뭐, 탁탁 두드려 가면 어디 날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103035 #1 온 마당에 콩 천지주게.(온 마당이 콩 천지지.)

103035 @1 음.(음.)

103035 #1 그때는 이런 콩그리도 엇고 흑이라이. 전부.(그때는 이런 콘크리트도 없고 흑이라. 전부.)

103035 @1 예 예.(예 예.)

103035 #1 그, 흑. 마당에서 흑. 그냥 콩을 두드려. 경 헤영 말째에 다 담양 거 불려. 불리민 깨끗해. 먼지는 먼지로 나가곡 콩은 콩대로.(그, 흑. 마당에서 흑. 그냥 콩을 두드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담아서 거 드려. 드리면 깨끗해. 먼지는 먼지로 나가고 콩은 콩대로.)

103035 @1 음. 도끼로 두드려양?(음. 도리끼로 두드려서요?)

103035 #1 음.(음.)

103035 @1 그, 콩으로는 계민, 것도, 콩도 불리민 저편이 무시거, 콩.(그, 콩으로는 그러면, 그것도, 콩도 드리면 저편에 뭐, 콩.)

103035 #1 깍마기⁷⁰게.(‘깍마기’.)

103035 @1 콩 깍?(콩 깍?)

103035 #1 콩 깍마기. 깍마기.(콩 ‘깍마기’. ‘깍마기’.)

103035 @1 콩 깍마기?(콩 ‘깍마기’?)

103035 #1 예, 깍마기. 거 췌 주는 거.(예, ‘깍마기’. 거 소 주는 거.)

103035 @1 것도 췌.(그것도 소.)

103035 #1 아, 췌 슬져 그거.(아, 소 살찌 그거.)

103035 @1 아.(아.)

103035 #1 콩은, 콩낭도 췌가 슬지고.(콩은, 콩 나무도 소가 살찌고.)

103035 @1 아, 콩낭도 췌 주고.(아, 콩 나무도 소 주고.)

103035 #1 예, 콩낭도 췌 다 먹곡.(예, 콩 나무도 소 다 먹고.)

70) ‘깍마기’는 조 이삭이나 콩꼬투리에서 열매를 털어 버리고 남은 줄기나 깍지 따위다. 달리 ‘각마기’, ‘각메기’, ‘곡메기’, ‘꼭메기’라고 한다.

103035 @1 예.(예.)

103035 #1 겨울에. 그 콩 깍마기는 제라허게 췌가 슬져.(겨울에. 그 콩 ‘깍마기’는 온전히 소가 살찌.)

103035 @1 아, 콩 깍마기를 좋아하는구나양.(아, 콩 ‘깍마기’를 좋아하는군요.)

103035 #1 워낙 췌가 좋아라 허주. 콩 깍마기.(워낙 소가 좋아하지. 콩 ‘깍마기’.)

103035 @1 예. 케난 콩도 이젠 데껴볼 게 엇구나양?(예. 그러니까 콩도 이젠 던져 버릴 게 없군요?)

103035 #1 엇엇주. 엇어.(없었지. 없어.)

103036 @1 콩은 무시 거 해 먹어수과. 콩.(콩은 무엇 해 먹었습니까? 콩.)

103036 #1 콩은 주로 저딴, 죽 췌 먹엇주. 강, 거 곶아당.(콩은 주로 저기, 죽 췌 먹었지. 가서, 거 갈아다가.)

103036 @1 콩 곶아다근에 죽 췌 먹고.(콩 갈아다가 죽 췌 먹고.)

103036 #1 응. ㄴ데에 곶양.(응. 맷돌에 갈아서.)

103036 @1 예예.(예예.)

103036 #1 걸로 죽, 콩죽 췌 먹고 허면 허곡. 둠부, 둠부. 두부, 두부도.(걸로 죽, 콩죽 췌 먹고 하면 하고. 두부, 두부. 두부, 두부도.)

103036 @1 두부도 만들어 먹고.(두부도 만들어 먹고.)

103036 #1 예, 만들어 먹고.(예, 만들어 먹고.)

103036 @1 그다음 또.(그다음 또.)

103036 #1 장에 강 품도 허고.(시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103036 @1 예. 게 메주 해영.(예. 그럼 메주 해서.)

103036 #1 메주 해영 장도 담가 먹곡.(메주 해서 장도 담가 먹고.)

103036 @1 장도 담가 먹고.(장도 담가 먹고.)

103036 #1 거, 콩으로빳긴 장으로 못 됴으니까. 전부 콩으로만 장 됴앗주게. 집 집마다.(거, 콩으로밖엔 장으로 못 담그니까. 전부 콩으로만 장 담갔지. 집집마다.)

103036 @1 그, 콩으로 콩노물도.(그, 콩으로 콩나물도.)

103036 #1 콩노물도 집이서. 콩노물은 음, 다 집이서도 다 콩노물 해서.(콩나물도 집에서. 콩나물은 음, 다 집에서도 다 콩나물 했어.)

103036 @1 콩노물이엔 험니까? 콩지름이엔 험니까?(콩나물이라고 험니까? ‘콩지름’이라고 험니까?)

103036 #1 콩지름이엔 험주. 옛날.(‘콩지름’이라고 했지. 옛날.)

103036 @1 콩지름이엔예. 요새 콩노물이엔 허고.(‘콩지름’이라고요. 요새 콩나물이라고 하고.)

103036 #1 요새 콩노물이엔 허고. 옛날 현 때는 콩지름, 콩지름 해낫주.(요새 콩나물이라고 하고. 옛날 할 때는 ‘콩지름’, ‘콩지름’ 했었지.)

103036 @1 콩지름.(콩기름.)

103036 #1 ***.(***.)

103036 @1 예. 그 콩으로양? 그 장콩으로.(예. 그 콩으로요? 그 ‘장콩’으로.)

103036 #1 장도 돕고 콩지름도 허고.(장도 담그고 콩나물도 하고.)

103036 @1 음.(음.)

103036 #1 그, 토종 콩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콩광도 좀 틀려서. 방울도 좀 즐고 콩지름도 잘 나고.(그, 토종 콩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콩과도 좀 달랐어. 방울도 좀 잘고 콩나물도 잘 나고.)

103037 @1 음. 콩, 그, 찹이엔 험니까? 콩 무시거엔 낫사.(음. 콩, 그, 짚이라고 험니까? 콩 뭐라고 아까.)

103037 #1 콩꼬질.(콩각지.)

103037 @1 콩꼬질?(콩각지?)

103037 #1 음.(음.)

103037 @1 콩꼬질 쉼도.(콩각지 소도.)

103037 #1 잘 먹주.(잘 먹지.)

103037 @1 주고. 불도 습지 안혜수가?(주고. 불도 때지 않았습니까?)

103037 #1 불도 습아. 불도 습아. 불도 잘 부떠.(불도 때어. 불도 때어. 불도 잘 붙어.)

103037 @1 불도 잘 부떠양. 오래 가고.(불도 잘 붙어요. 오래 가고.)

103037 #1 예, 쉼도 하여튼 콩꼬질은 쉼 주기가 아깝고 주로 불습앗주. 불습아. 보리낭허고 콩꼬질. 보리낭 흔 못으로 밥 허쟁 허민 콩꼬질은 반 못이민 웨니까.(예, 소도 하여튼 콩각지는 소 주기가 아깝고 주로 불 때었지. 불 때. 보릿짚하고 콩각지. 보릿짚 한 못으로 밥 하려고 하면 콩각지는 반 못이면 되니까.)

103037 @2 아.(아.)

103037 @1 음.(음.)

103037 #1 이견, 콩꼬질, 콩 낭이 오죽 슬져게.(이견, 콩각지, 콩 나무가 오죽 살져.)

103037 @2 음.(음.)

103037 #1 불도, 화력도 세고.(불도, 화력도 세고.)

103037 @1 예.(예.)

103037 #1 보리낭은 흘레 부떠 불영 당하질 못허곡.(보릿짚은 순식간에 붙어 버려서 당하질 못하고.)

103037 @1 아.(아.)

103037 #1 콩꼬질엔 천천히 부뜨고 화력이 세 가지고, 주로 콩꼬질은 집이 저더, 화덕 저, 불 습는 걸로 췌주.(콩각지엔 천천히 불고 화력이 세 가지고, 주로 콩각지는 집에 저기, 화덕 저, 불 때는 걸로 췌지.)

103037 @1 음.(음.)

103037 #1 각마기는 쉼만 주고.(‘각마기’는 소만 주고.)

103037 @1 아, 이제 뭐에서 저 음. 꿩꼬질도 불습는 된.(아, 이제 뭐에서 저 음. '꿩꼬질'도 불 때는 덴.)

103037 #1 아, 옛날에는 꿩 아이 같아난. 건 말째야.(아, 옛날에는 참깨 아니 같았었어. 건 말째야.)

103037 @1 아.(아.)

103037 #1 옛날에는 꿩엔 흰 거, 농사 안 헤난디. 이, 저, 흰, 꿩 전문적으로 농사 시작허건 디가 흰 사십년.(옛날에는 참깨라고 하는 거, 농사 안 했었는데. 이, 저, 흰, 참깨 전문적으로 농사 시작한 지가 한 사십 년.)

103037 @1 아.(아.)

103037 #1 그리고, 그전에는 꿩는, 그, 저디 산디왔디 하나씩 뿌렁.(그리고, 그전에는 참깨는, 그, 저기 밭벼밭에 하나씩 뿌려서.)

103037 @1 아.(아.)

103037 #1 흰, 기름 할 거 두 밧 정도. 그루 후에 흰 전문으로 꿩 갈기 시작한 지 삼십 년 뒤편 한다. 아이고, 꿩도 이, 봉성 엄청 같아났어. 흰 사름이 천 평, 이천 평씩.(한, 기름 할 거 두 밧 정도. 그 후에 한, 전문으로 참깨 갈기 시작한 지 삼십 년 되었고 한테. 아이고, 참깨도 이, 봉성 엄청 같았었어. 한 사름이 천 평, 이천 평씩.)

103037 @1 케민 갈치 구워 먹거나 저, 자리 구워 먹젠 허민.(그러면 갈치 구워 먹거나 저, 자리 구워 먹으려고 하면.)

103037 #1 콩꼬질로.(콩각지로.)

103037 @1 콩꼬질로?(콩각지로?)

103037 #1 아, 콩꼬질 최고.(아, 콩각지 최고.)

103037 @1 예.(예.)

103037 #1 자리나 갈치나 구우는 건.(자리나 갈치나 굽는 건.)

103037 @1 구워, 굽는 디양?(구워, 굽는 데요?)

103037 #1 굽는 거는 콩꼬질이 따라갈 게 엇어.(굽는 거는 콩각지를 따라갈 게 엇어.)

103038 @1 아. 콩 농사에 대해근에 무시거 또 특별히 뭐 생각나는 건 엇수과?(아. 콩 농사에 대해서 뭐, 또 특별히 뭐 생각나는 건 없습니까?)

103038 #1 에이고, 콩 허면은 저거 저, 눌엇당 제일 내중에, 동지 뒤편 강, 일덜 막, 조도 허곡 허다 보면은, 동지 가까우민 보리 갈곡.(에이고, 콩 허면은 저거 저, 쌓았다가 제일 나중에, 동지 되어 가서, 일들 막, 조도 하고 하다 보면, 동지 가까우면 보리 같고.)

103038 @1 예.(예.)

103038 #1 다 흰 후에 콩을 이제는, 거 썩지 안허는 거난에.(다 흰 후에 콩을 이제는, 거 썩지 않는 거니까.)

103038 @1 아아.(아아.)

103038 #1 거, 각마기 안에 콩이, 콩덜 안에 고만히 잇은 거난. 보리 갈앙. 동지
깎정 보리 갈아낫주게. 동지 보리 간 후에는 그놈으 건 놀영 놔두면은 콩은 지대로
몰라. 늘 쏘곱에서. 뜯 것들은 썩는다. 콩은 놀영 놔도 지대로 와상이.(거, ‘각마기’
안에 콩이, 콩들 안에 가만히 잇는 거니까. 보리 갈아서. 동지까지 보리 갈았었지.
동지, 보리 간 후에는 그것은, 쌓아서 놔 두면은 콩은 자기대로 말라. 가리 속에서.
뜯 것들은 썩는데. 콩은 쌓아서 놔도 자기대로 ‘와상이’.)

103038 @1 음.(음.)

103038 #1 겨을, 동지가 뉘면은, 이때는, 그때 수눌어다 가지고, 콩을 거, 혼 집
이, 요 집이 거 해 주면 또 요집이 거.(겨을, 동지가 뉘면은, 이때는, 그때 품앗이해
가지고, 콩을 거, 한 집이, 요 집의 거 해 주면 또 요 집의 거.)

103038 @1 음.(음.)

103038 #1 그, 저, 도리께로 따리는 거. 그, 소리 부르멍, 노래 부르멍덜 막 따려
낫주. 마당질. 것ㄴ라 마, 콩 마당질이엔 허여.(그, 저, 도리께로 두드리는 거. 그,
소리 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들 막 두드렸었지. 마당질. 그것을 마, 콩 마당질이라
고 해.)

103038 @1 콩 마당질. (웃음) 콩 마당질.(콩 마당질. (웃음) 콩 마당질.)

103038 @2 (웃음).((웃음).)

103038 #1 마당질.(마당질.)

103038 @1 즈미가 잇엇어양.(재미가 있었어요.)

103038 #1 아이, 거, 마당질, 옛날에는 그, 우리 할아버지 때는 그, 보리도 홀타
냥 쉼로 막 불러낫어. 쉼로. 계면은 여자들은 좁팍 ㄴ젓당 보리 불리는 쉼가 똥을
쌀 거 아니라게? 똥 싸 가민 그걸 담야. 담곡.(아이, 거, 마당질, 옛날에는 그, 우리
할아버지 때는 그, 보리도 훑아 놓고 소로 막 밟았었어. 소로. 그러면은 여자들은
좁팍 가졌다가 보리 밟는 소가 똥을 쌀 거 아니라? 똥 싸 가면 그걸 담야. 담고.)

103038 @1 아.(아.)

103038 #1 쉼로 막 보리도 불러낫어, 부자, 부жат침이덜은.(소로 막 보리도 밟았
었어, 부자, 부жат집들은.)

103038 @2 음.(음.)

103038 @1 마당도 넓고양?(마당도 넓고요?)

103038 #1 넓고.(넓고.)

103038 @1 마당도 넓고.(마당도 넓고.)

103038 #1 아이고, 그뎌. 콩은 저, 도끼로만.(아이고, 그뎌. 콩은 저, 도끼로
만.)

103038 @1 도끼로.(도끼로.)

103038 #1 **깎장만 장만허고.**(**까지만 장만하고.)

103038 @1 도끼로만.(도끼로만.)

103038 #1 모들도 도끼로만. 콩도 도끼로.(메밀도 도끼로만. 콩도 도끼로.)

103038 @1 남자 둘이 영 마주해근에.(남자 둘이 이렇게 마주해서.)
 103038 #1 예. 둘이 서면, 이디 딱려나민 교대로 딱리민, 영 들렛당 또 딱리고.
 (예. 둘이 서면, 여기 두드려나면 교대로 두드리면, 이렇게 들었다가 또 두드리고.)
 103038 @1 어, 그다음. 여자덜은.(어, 그다음. 여자들은.)
 103038 #1 여자덜은 옆에서 메와 주곡.(여자들은 옆에서 모아 주고.)
 103038 @1 메와주곡.(모아 주고.)
 103038 #1 음, 그렇게.(음, 그렇게.)

밭벼농사

103039 @1 음, 산디도 갈아납디가?(음, 밭벼도 갈았었습니까?)
 103039 #1 예, 산디도 좀 갈아낫주. 저, 산디도 전문으로 많인 아이, 혼 천 평씩
 은 갈아낫어.(예, 밭벼도 좀 갈았었지. 저, 밭벼도 전문으로 많이는 아니, 한 천 평
 썩은 갈았었어.)
 103039 @1 아. 천.(아. 천.)
 103039 #1 게, 산디도 것도, 건, 건 훑타야 돼.(거, 밭벼도 그것도, 건, 건 훑아야
 돼.)
 103040 @1 그, 산된 어땡 그, 저, 언제.(그, 밭벼도 어떻게 그, 저, 언제.)
 103040 #1 것도 불러야 돼. 불러야.(그것도 밟아야 돼. 밟아야.)
 103040 @1 아니, 게난 언제 그거 파종을 헛수과?(아니, 그러니까 언제 그거 파
 종을 했습니까?)
 103040 #1 하이튼 산되는 예, 혼 오월 초. 하이튼.(하이튼 밭벼는 예, 한 오월
 초. 하이튼.)
 103040 @1 요새 갈아살 거 아니라예?(요새 갈아야 할 거 아닙니까?)
 103040 #1 요새, 요새 전이.(요새, 요새 전에.)
 103040 @1 요새 전이.(요새 전에.)
 103040 #1 전이. 요새 혼, 좀 늦으, 혼 오월 초순에. 산디를 갈았주.(전에. 요새
 한, 좀 늦으, 한 오월 초순에. 밭벼를 갈았지.)
 103040 @1 갈았수가? 어떤 식으로 갈아수가?(갈았습니까? 어떤 식으로 갈았습
 니까?)
 103040 #1 아, 밧 영 갈아 가지고 거, 산디도 조그짜 쉼로 불러낫어. 불러. 다려
 밧을, 산디 갈면은.(아, 밧 이렇게 갈아 가지고 거, 밭벼도 조같이 소로 밟았었어.
 밟아. 다려 밧을, 밭벼 갈면.)
 103040 @1 조, 조 갈 때추룩.(조, 조 갈 때처럼.)
 103040 #1 조 갈 때추룩. 쉼로 불러 밧을.(조 갈 때처럼 소로 밟아 밧을.)
 103040 @1 게메, 경 헤납디가?(글쎄, 그렇게 했었습니까?)
 103040 #1 게메, 경 헤야 산디가 잘 나. 경 안 허민, 불리지 안허민 안 나난. 말
 째에는 비료 난 때는 산디도 싹 끄영, 섬피로 싹 끄서 불민 잘 뻗는다.(글쎄, 그렇

게 해야 발벼가 잘 나. 그렇게 안 하면, 밟지 않으면 안 나니까. 나중에는 비료 난 때는 발벼도 싹 끌어서, ‘섬피’로 싹 끌어 버리면 잘 됐는데.)

103040 @1 음.(음.)

103040 #1 처음에는 산디도 불러놔. 비료 아니 난 때는.(처음에는 발벼도 밟았어. 비료 아니 난 때는.)

103040 @1 거, 특별히 저, 무신 돛걸름 그런 거 필요 엇어.(거, 특별히 저, 무슨 돼지걸름 그런 거 필요 없어.)

103040 #1 아아, 엇어, 엇어.(아아, 없어, 없어.)

103040 @1 기냥 씨만 밟드레.(그냥 씨만 밟에.)

103040 #1 예. 허면은 것도 상강일 돼면은 익곡.(예. 허면은 그것도 상강일 되면은 익고.)

103040 @1 아.(아.)

103040 #1 게, 상강일이 ㄱ을 농스는 체시엿 허여. 상강일이 체시, 상강일 전에 다 익어.(거, 상강일이 가을 농사는 차사라고 해. 상강일이 차사, 상강일 전에 다 익어.)

103040 @1 음.(음.)

103040 #1 단지 콩만 상강일 넘어 끊어.(단지 콩만 상강일 넘어서 끊어.)

103040 @1 산디는 무슨 그루에.(발벼는 무슨 그루에.)

103040 #1 산디는 그, 겨울에 놀렛당개.(발벼는 그, 겨울에 휴경했다가.)

103040 @1 놀렛당.(휴경했다가.)

103040 #1 콩 갈아난 거 놀렛당.(콩 갈았던 거 휴경했다가.)

103040 @1 놀렛당.(휴경했다가.)

103040 #1 빈 밭, 보리 아니 갈앗당. 경허난 일찍 갈쟁 허민 경 허야 돼고. 보리 갈아난 허민 산디가 늦어.(빈 밭, 보리 아니 갈앗다가. 그러니까 일찍 갈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보리 갈앗다가 하면 발벼가 늦어.)

103040 @1 아, 아, 아.(아, 아, 아.)

103040 #1 그, 옛날 저디, 놀리는 밭이 태반이랏주게. 거, 놀렛당 저, 산디 갈곡.(그, 옛날 저기, 휴경하는 밭이 태반이었지. 거, 휴경했다가 저, 발벼 같고.)

103040 @1 음. 놀렛당.(음. 휴경했다가.)

103040 #1 음.(음.)

103040 @1 경 해야 오월, 오월에 밭 갈 거구나양?(그렇게 해야 오월, 오월에 밭 갈 거군요?)

103040 #1 예예, 오월에. 놀렛당.(예예, 오월에. 휴경했다가.)

103040 @1 게, 이제 보리 아직 끝나지 안헤영.(그럼, 이제 보리 아직 끝나지 않아서.)

103040 #1 예예, 보리 허기 전에.(예예, 보리 하기 전에.)

103040 @1 신 디 못 갈 거난양.(있는 데 못 갈 거니까요.)

103040 #1 산티 파종을 다 하여야 돼.(밭벼 파종을 다 하여야 돼.)

103040 @1 음, 그 산티도 검질메납디가?(음, 그 밭벼도 김맷었습니까?)

103040 #1 하이고, 메곡말곡. 산티도 검질.(하이고, 매고말고. 밭벼도 김.)

103040 @1 것도 그자 조팍디 검질만이.(그것도 그저 조밭에 김만큼.)

103040 #1 예, 것도 메야 돼.(예, 그것도 매야 돼.)

103040 @1 비슷한 거네양?(비슷한 거네요?)

103040 #1 예 예.(예 예.)

103040 @1 아.(아.)

103040 #1 그, 인척 가난에 산티가 예, 저, 검질도 두 불 메고, 산티 검질도 꼭 조 메, 검질 메듯이 메야 돼.(그, 일찍 가니까 밭벼가 예, 저, 김도 두벌 매고, 밭벼 김도 꼭 조 메, 김 메듯이 매야 돼.)

103040 @1 두불 메고양?(두벌 매고요?)

103040 #1 음.(음.)

103040 @1 음.(음.)

103040 #1 콩만 한 번 메고. 뜯 거는 두 번.(콩만 한 번 매고. 뜯 거는 두 번.)

103040 @1 음. 계민 검질도 기자 채완지?(음. 그러면 김도 그저 바랭이?)

103045 #1 채와니.(바랭이.)

103045 @1 채와니. 음. 요건 언제 그, 비어수과? 이제.(바랭이. 음. 요건 언제 그, 베었습니까? 이제.)

103045 #1 산티, 산티?(밭벼? 밭벼?)

103045 @1 가을 나근에?(가을 나서.)

103045 #1 건 조 빌 때 ㄴ찌 들어.(건 조 벨 때 같이 들어.)

103045 @1 아.(아.)

103045 #1 이, 이, 익는 기간이 오래주게 산티.(이, 이, 익는 기간이 오래지. 밭벼.)

103045 @1 아, 씨 뿌린 거 먼저 뿌려도.(아, 씨 뿌린 거 먼저 뿌려도.)

103045 #1 먼저 뿌려도 조 빌 때 ㄴ찌 들어.(먼저 뿌려도 조 벨 때 같이 들어.)

103045 @1 빌 때는.(벨 때는.)

103045 #1 응, 산티나 조나 상강일 전이 다 비어.(응, 밭벼나 조나 상강일 전에 다 베어.)

103045 @1 아, 조 빌 때 ㄴ치 빈다.(아, 조 벨 때 같이 벤다.)

103045 #1 콩만 내중에 비고.(콩만 나중에 베고.)

103045 @1 음.(음.)

103045 #1 나머지는 조 빌 때 다 ㄴ찌 들어.(나머지는 조 벨 때 다 같이 들어.)

103045 @1 계민 이제 조허고 이제.(그러면 이제 조하고 이제.)

103045 #1 조, 산티.(조, 밭벼.)

103045 @1 계난 산티도 계민, 비영 오는 거나 이런 것덜은, 다 다른 거, 보리나

마찬가지다양?(그러니까 밭벼도 그러면, 벼어 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거, 보리나 마찬가지로네요?)

103045 #1 마찬가지로 것도 무경.(마찬가지로 그것도 묶어서.)

103045 @1 비영, 무경.(벼어서, 묶어서.)

103045 #1 들리왕.(말려서.)

103045 @1 그걸로 무릅니까? 산디로 무꺼?(그걸로 묶습니까? 밭벼로 묶어?)

103045 #1 예, 산디쪽으로 조금 무꺼근에.(예, 밭벼로 조금 묶어서.)

103045 @1 무경.(묶어서.)

103045 #1 건 경 많지 안허난, 혼 밭쯤 허주게 산디는.(그건 그렇게 많지 않으니 까, 한 밭쯤 하지. 밭벼는.)

103045 @1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3045 #1 게멘 놀엇당 그것도 홀탕에, 그, 그걸로게 제스 다 헛지. 멩질이영.(그러면 쌓앗다가 그것도 훑아서, 그, 그걸로 제사 다 헛지. 멩절과.)

103045 @1 그거 홀트는 건 다른 거.(그거 훑는 건 다른 거.)

103045 #1 아니게, 그거, 그, 보리 홀트는 그걸로.(아니, 그거, 그, 보리 훑는 그 걸로.)

103045 @1 보리 홀트는 거로?(보리 훑는 거로?)

103045 #1 꼭 같은 거.(꼭 같은 거.)

103045 @1 똑ㄱ찌?(똑같이?)

103045 #1 예.(예.)

103045 @1 경 헤영 뭐.(그렇게 해서 뭐.)

103045 #1 산디도.(밭벼도.)

103045 @1 장만하는 게 기자.(장만하는 게 그저.)

103045 #1 도께로 두드령. 게민 나록 나오난에.(도리께로 두드려서. 그러면 벼 나오니까.)

103045 @1 도께로 두르려마썸?(도리께로 두르려요?)

103045 #1 경 헨. 그때는. 저, 이, 정미소엔 헨 거 잇어. 정미소.(그렇게 했어. 그 때는. 저, 이, 정미소라고 하는 거 잇어. 정미소.)

103045 @1 예.(예.)

103045 #1 정미소 가민 영 산디 가까 오주게.(정미소 가면 이렇게 밭벼 깎아 오 지.)

103045 @1 정미소 가기 전이.(정미소 가기 전에.)

103045 #1 정미소 아니 난 때?(정미소 아니 난 때?)

103045 @1 안 날 땐 그자.(안 날 땐 그냥.)

103045 #1 아이, 방에에 둥그려.(아이, 연자매에 둥글려.)

103045 @1 들방에 기자 둥그리고.(연자매 그냥 둥글리고.)

103045 #1 예예. 내중에 정미소 나니까 정미소에서도 다 보리 다끄는 거, 조 다

끄는 거, 산디 다끄는 거, 다 정미소에서 헛주. 정미소 아니 난 때는 그자 물방에로
허고.(예예. 나중에 정미소 나니까 정미소에서도 다 보리 깎는 거, 조 깎는 거, 발벼
깎는 거, 다 정미소에서 헛지. 정미소 아니 난 때는 그저 연자매로 하고.)

103045 @1 산디 다끝 땀 케민 물 뿌렸수과, 안 뿌렸수과?(발벼 깎을 땀 그러면
물 뿌렸습니까? 안 뿌렸습니까?)

103045 #1 산디 다끝 땀, 물, 그때 물 아니 뿌런 다깎주. 산디는.(발벼 깎을 땀,
물, 그때 물 아니 뿌려서 깎았지. 발벼는.)

103045 @1 음, 조, 조 헛 때추룩?(음, 조, 조 할 때처럼?)

103045 #1 보리만 물 뿌리고.(보리만 물 뿌리고.)

103045 @1 보리만.(보리만.)

103045 #1 응. 산디는.(응. 발벼는.)

103045 @1 보리만 특별히 그건.(보리만 특별히 그건.)

103045 #1 물방에.(연자매.)

103045 @1 ㄴ시락이 썩어 부난 건가? 약간.(까끄라기가 썩어 버리니까 건가?
약간.)

103045 #1 아, 거 다까지질 안허여. 보리는.(아, 거 깎아지질 았아. 보리는.)

103045 @1 보리는.(보리는.)

103045 #1 물 아니 뿌리민.(물 아니 뿌리면.)

103045 @1 예.(예.)

103045 #1 까지질 안허여. 이 조허고 산디는 막 알룬 거난 잘 까지는데.(까지질
았아. 이 조하고 발벼는 막 았은 거니까 잘 까지는데.)

103045 @2 음 음, 음, 예, 맞수다.(음 음, 음, 예, 맞습니다.)

103045 @1 아. 꺾질이. 그래서.(아. 꺾질이. 그래서.)

103045 #1 꺾질이 잘 까지는데, 보리는 안 까지지. 쟁헛 물 뿌리멍 더 오래 막
둥그러야. 이게 이제, 물채 그냥 완전히 보리 꺾테기, 이, 저, ㄴ찌 서경 담아당, 멩
석에 멩석, 멩석에 물리왕 그걸 이제 불리면은, 체는 체대로 나가곡 보리는, 찰은
찰대로 떨어지곡.(꺾질이 잘 까지는데, 보리는 안 까지지. 그래서 물 뿌리면서 더
오래 막 둥글러야. 이게 이제, 물채 그냥 완전히 보리 꺾테기, 이, 저, 같이 섞어서
담아다가, 멩석에 멩석, 멩석에 말려서 그걸 이제 드리면은, 체는 체대로 나가고 보
리는, 찰은 찰대로 떨어지고.)

103045 @1 음.(음.)

103045 #1 게, 찰도 그것도 ㄴ찌 못 먹어. 거 흔 번에.(그게, 찰도 그것도 같이
못 먹어. 거 한 번에.)

103045 @1 음.(음.)

103045 #1 이, ㄴ레에 곶아야. 그걸.(이, 멩돌에 곶아야. 그걸.)

103045 @1 게난 산디는 보리보다 쉬운 거로구나양? 그.(그러니까 발벼는 보리
보다 쉬운 거로군요? 그.)

103045 #1 보리보단 아주 쉽주. 까는 게.(보리보단 아주 쉽지. 까는 게.)
103045 @1 음.(음.)
103045 #1 아주 쉬와. 조, 조, 저 비슷허여.(아주 쉬워. 조, 조, 저 비슷해.)
103046 @1 게, 산디 특별히 그건 뭐.(그럼, 밭벼 특별히 그건 뭐.)
103046 #1 제스 때.(제사 때.)
103046 @1 멩질 때, 제사 때.(명절 때, 제사 때.)
103046 #1 예, 쓰고.(예, 쓰고.)
103046 @1 곤밥 허젠.(흰밥 하려고.)
103046 #1 곤밥 해 주고, 아이들 뉘 헐 때 주고.(흰밥 해 주고, 아이들 뉘 할 때 주고.)
103046 @1 뉘, 생일 때?(뉘, 생일 때?)
103046 #1 응, 생일 때.(응, 생일 때.)
103046 @1 밥 해 주고.(밥 해 주고.)
103046 #1 밥 해 주고.(밥 해 주고.)
103046 @1 어디, 소풍 갈 때.(어디, 소풍 갈 때.)
103046 #1 소풍 갈 때 주고. 벤또 쌀 때도 흐뎡 서경 주고.(소풍 갈 때 주고. 도시락 쌀 때도 조금 섞어서 주고.)
103046 @1 서경 주고양. 음. 평소에 이제 떡도.(섞어서 주고요. 음. 평소에 이제 떡도.)
103046 #1 곤떡 그걸로. 제스 때.(흰떡 그걸로. 제사 때.)
103046 @1 제사 때 곤떡?(제사 때 흰떡?)
103046 #1 예. 그, 그, 그 (웃음) 산디로 제스 때 꼭 곤떡을 허여.(예. 그, 그, 그 (웃음) 밭벼로 제사 때 꼭 흰떡을 해.)
103046 @1 음.(음.)
103046 #1 밥도 곤밥 허고. 제스 올리젠 허민.(밥도 흰밥 하고. 제사 올리려고 하면.)
103046 @1 음.(음.)
103046 #1 게난 산디도 꼭 같아야 돼어. 그 쓰쟁 허민.(그러니까 밭벼도 꼭 같아야 돼어. 그 쓰려고 하면.)
103047 @1 음. 산디찜도 쉼 먹읍니까?(음. 밭벼찜도 소 먹읍니까?)
103047 #1 쉼 먹어. 잘 먹어.(소 먹어. 잘 먹어.)
103047 @1 산디찜도?(밭벼찜도?)
103047 #1 예. 거 산디찜도 쉼 더 잘 먹주. 달아. 이놈으 거 산디찜은.(예. 거 밭벼찜도 소 더 잘 먹지. 달아. 이거 밭벼찜은.)
103047 @1 아.(아.)
103047 #1 달아. 쉼이 더 잘 먹어 산디찜은. 나록찜은 쉼 안 먹고, 산디찜은 쉼 먹고.(달아. 소가 더 잘 먹어 밭벼찜은. 찜은 소 안 먹고, 밭벼찜은 소 먹고.)

103047 @1 아, 그게 다릅니까?(아, 그게 다릅니까?)

103047 #1 음. 나룩은 눈에 허는 거 아니라게?(음. 벼는 눈에 하는 거 아니라?)

103047 @2 응, 눈에 하는 거고.(응, 눈에 하는 거고.)

103047 #1 나룩은 췌가 일절 아니 먹어. 나룩찹은. 산디찹은 먹고.(벼는 소가 일절 아니 먹어. 벼찹은. 밭벼찹은 먹고.)

103047 @1 아, 그걸 구별해마씀?(아, 그걸 구별해요?)

103047 #1 예 예, 산디찹은 췌가 잘 먹고.(예 예, 밭벼찹은 소가 잘 먹고.)

103047 @1 아, 거 나룩찹은 안 먹고 산디찹은 먹고양?(아, 거 벼찹은 안 먹고 밭벼찹은 먹고요?)

103047 #1 응, 잘 먹어.(응, 잘 먹어.)

103047 @1 어어, 어, 그추룩도 다른가?(웃음)(어어, 어, 그렇게도 다른가? (웃음))

103047 #1 이, 원래 대가 틀려 대. 나룩허고 산디가.(이, 원래 대가 달라 대. 벼하고 밭벼가.)

103047 @1 음음, 대가.(음음, 대가.)

103047 #1 대가 틀려. 나룩은 눈에 나는 거고, 산디는 밭벼라고 해 가지고.(대가 달라. 벼는 눈에 나는 거고, 산디는 밭벼라고 해 가지고.)

103047 @1 예 예, 밭디 나는 거양.(예 예, 밭에 나는 거.)

103047 #1 밭디 그냥 가는 거니까 대 자체가 틀려.(밭에 그냥 가는 거니까 대 자체가 달라.)

103047 @1 케민 그걸로, 산디찹으론 뭐, 가마니 ㄴ든 거.(그러면 그걸로, 밭벼찹으론 뭐, 가마니 같은 거.)

103047 #1 아, 췌 다 맥이고, 나룩찹 사당.(아, 소 다 먹이고, 벼찹 사다가.)

103047 @1 아, 가마니 짜는 건.(아, 가마니 짜는 건.)

103047 #1 가마니는 안 짜고. 멩탕이.(가마니는 안 짜고. 망태기.)

103047 @1 멩탕이 짜는 건.(망태기 짜는 건.)

103047 #1 건, 저, 명월 강 나룩.(건, 저, 명월 가서 벼.)

103047 @1 나룩찹 사당.(벼찹 사다가.)

103047 #1 췌 몰양 강 혼.(소 몰고 가서 한.)

103047 @1 아, 특별히 사당 허고.(아, 특별히 사다가 하고.)

103047 #1 혼 바리 사당은앵에 저, 멩탕이 즐곡.(한 바리 사다가 저, 망태기 즐고.)

103047 @1 즐곡. 산디찹은 췌 맥이고.(결고. 밭벼찹은 소 먹이고.)

103047 #1 췌 맥이고.(소 먹이고.)

103047 @1 아.(아.)

103047 #1 산디찹으로는 즐랑 멩탕이 즐질 못허여.(밭벼찹으로는 짧아서 망태기 즐질 못해.)

103047 @1 아, 기파?(아, 그렇습니까?)

103047 #1 멍텅이 준쟁 허면은 나록짐을 사다가. 명월 가민 폴아낫주게.(망태기 걸으려고 허면은 벗짚을 사다가. 명월 가면 팔았었지.)

103047 @1 음.(음.)

103047 #1 명월 논 시난. 그거를 겁테기를 손으로 다 훑텅, 텅드렁이엔 헌 거 잇어.(명월 논 있으니까. 그거를 겁테기를 손으로 다 훑어서, ‘텅드렁’이라고 하는 거 잇어.)

103047 @1 텅드렁.(‘텅드렁’.)

103047 # 텅드렁마계로 그걸 막 두드려야 나록짐이 벨랑멜랑허영 문짝허여.(‘텅드렁마계’로 그걸 막 두드려야 벗짚이 말랑말랑해서 반드러워.)

103047 @1 음.(음.)

103047 #1 그걸로 허영 그 메, 맥을 주는 거라. 망텅이를.(그걸로 해서 그 맥, 맥서리를 걷는 거라. 망태기를.)

103047 @1 음.(음.)

103047 #1 막, 텅드렁마계엔 헌 거 잇잖아. 텅드렁마계, 둘 이만이 헌 거 낡은 에.(막, ‘텅드렁마계’라고 하는 거 잇잖아. ‘텅드렁마계’, 둘 이만큼 한 거 놓아서.)

103047 @1 음.(음.)

103047 #1 막 두드려야 이, 나록짐을.(막 두드려야 이, 벗짚을.)

103047 @1 노 꼬와근에.(노 꼬아서.)

103047 #1 노 꼬와근에.(노 꼬아서.)

103047 @1 노 꼬양.(노 꼬아서.)

103047 #1 멍텅이는 걷는 거라.(망태기는 걷는 거야.)

고구마농사

103049 @1 예, 감저 농사도 헤낫지양? 그.(예, 고구마 농사도 했었지요? 그.)

103049 #1 감저, 중간에 이, 전분 공장 생기면서 전업으로 감절 헤낫주. 경제, 경제.(고구마, 중간에 이, 전분 공장 생기면서 전업으로 고구마를 했었지. 경제, 경제.)

103049 @1 현금으로 받고.(현금으로 받고.)

103049 #1 현금 받곡.(현금 받고.)

103049 @1 음.(음.)

103049 #1 그, 감저가 예, 나도 혼 천 오백 평, 천 평 이상은 갈면은 삼천 관, 천 평에 삼천 관 나주게. 계면 우리는 저 무릉리⁷¹⁾도 간 풀아나고. 그 감저, 생감저 받으레 온 사름이, 중간 상인이 굉장허여. 중간상이 거 감저. 전분 공장에서.(그, 고구마가 예, 나도 한 천 오백 평, 천 평 이상은 갈면은 삼천 관, 천 평에 삼천 관 나지. 그러면 우리는 저 ‘무릉리’에도 가서 팔았었고. 그 고구마, 생고구마 받으레 온

71) ‘무릉리’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이다.

사람이, 중간 상인이 굉장해. 중간상이 거 고구마. 전분 공장에서.)

103049 @1 아.(아.)

103049 #1 이, 중간 상인덜 받아 드라 허면은.(이, 중간 상인들 받아 달라 하면은.)

103049 @1 예 예.(예 예.)

103049 #1 어디 저, 하귀, 하귀도 저, 전분 공장 잇어났어. 하귀서도 허곡, 무릉, 대정. 또 저 광지.(어디 저, 하귀, 하귀도 저, 전분 공장 있었어. 하귀서도 하고, 무릉, 대정. 또 저, 광지.)

103049 @1 음.(음.)

103049 #1 게면 그 상인덜이 굉장허주게. 우리안티 감저 폴아 드라 허민.(그러면 그 상인들이 굉장하지. 우리에게 고구마 팔아 달라 하면.)

103049 @1 음.(음.)

103049 #1 천 평에 삼천 관 나.(천 평에 삼천 관 나.)

103049 @1 음.(음.)

103049 #1 삼천 관 나면은 요즘 돈으로 혼 삼백만 원 정도 돼져시카.(삼천 관 나면은 요즘 돈으로 한 삼백만 원 정도 되었을까.)

103049 @1 음.(음.)

103049 #1 그걸로.(그걸로.)

103049 @1 예.(예.)

103049 #1 거, 거 걸로 흑비 다 허이거든.(거, 거 걸로 학비 다 했거든.)

103049 @1 음.(음.)

103049 #1 그 감저로. 그거 질, 허단 내중에 유채 나니까.(그 고구마로. 그거 제일, 하다가 나중에 유채 나니까.)

103049 @1 음.(음.)

103049 #1 좀 경제력이 완화됐주.(좀 경제력이 완화됐지.)

103050 @1 언제 그걸 갈았수과? 이, 저 감저.(언제 그걸 갖고 있습니까? 이, 저 고구마.)

103050 #1 감저?(고구마?)

103050 @1 음.(음.)

103050 #1 감저는 저, 요런 밧디 중저 메종 낫다가.(고구마는 저, 요런 밧에 중자, 모종 낫다가.)

103050 @1 메종을.(모종을.)

103050 #1 메종을 놓으면은.(모종을 놓으면은.)

103050 @1 언제, 언제 메종을.(언제, 언제 모종을.)

103050 #1 예, 춘분에. 혼 삼월. 음력 삼월달. 저 메종 놀 거 아니어. 음력 삼월달 돼면.(예, 춘분에. 한 삼월. 음력 삼월. 저 모종 놓을 거 아냐. 음력 삼월 되면.)

103050 @1 예.(예.)

103050 #1 밭에다가 거 고구마를, 다 모종을 심경 놔두면 줄이 나올 거 아니라
 게.(밭에다가 거, 고구마를, 다 모종을 심어서 놔두면 덩굴이 나올 거 아니라?)

103050 @1 예. 요새 줄 나와수다. 요새.(예. 요새 줄 나왔습니다. 요새.)

103050 #1 요새 줄. 유월절 전이 싱거야 돼 것도.(요새 덩굴. 유월절 전에 심어
 야 돼. 그것도.)

103050 @1 것도 유월절 전이.(그것도 유월절 전에.)

103050 #1 예, 아니, 건 빨리 싱글수록, 망종 넘으면은 빠르게 싱글수록 잘 크니
 까.(예, 아니, 건 빨리 심을수록, 망종 넘으면은 빠르게 심을수록 잘 크니까.)

103050 @1 보리그르에 해야 될 거 아니파양?('보리그르'에 해야 될 거 아닙니
 까?)

103050 #1 보리그르에게. 보리그르에.(‘보리그르’에. ‘보리그르’에.)

103050 @1 보리그르에 요거를.(‘보리그르’에 요거를.)

103050 #1 케민 밧 갈아 가지고, 게 사름덜 놓 빌영 강, 저, 저, 줄 헤영.(그러면
 밧 갈아 가지고, 거, 사람들, 놓 빌려서 가서, 저, 저, 덩굴 해서.)

103050 @1 케민 사월에.(그러면 사월에.)

103050 #1 예, 하여튼.(예, 하여튼.)

103050 @1 삼월에 험니까? 사월에?(삼월에 험니까? 사월에?)

103050 #1 메종은 음력 삼월에. 양력으로 사월에.(모종은 음력 삼월에. 양력으로
 사월에.)

103050 @1 사월에?(사월에?)

103050 #1 예, 메종 농곡, 저 혼 오월 말 돼 가면은 걸 갈아야. 저 심어야지. 밧
 디.(예, 모종 놓고, 저 한 오월 말 돼 가면은 걸 갈아야. 저 심어야지. 밭에.)

103050 @1 예.(예.)

103050 #1 거, 그때 보통 천 평, 보통 천 평 이상은 다 심언, 걸로 전분 공장에
 다 들어가났어.(거, 그때 보통 천 평, 보통 천 평 이상은 다 심었어, 걸로 전분 공장
 에 다 들어갔었어.)

103050 @1 음.(음.)

103050 #1 괄지가 잇고, 무릉리가 잇고, 우리 픈는 디. 저 하귀도 간 풀아나고.
 (괄지가 잇고, 무릉리가 잇고, 우리 파는 데. 저 하귀도 가서 팔았었고.)

103050 @1 감저는.(고구마는.)

103050 #1 그러면은.(그러면은.)

103051 @1 걸름도 뭐 필요험니까? 감저 밧.(거름도 뭐 필요험니까? 고구마 밭.)

103051 #1 비료, 비료.(비료, 비료.)

103051 @1 비료?(비료?)

103051 #1 예.(예.)

103051 @1 어, 그 전인.(어, 그 전엔.)

103051 #1 비료 **.(비료 **.)

103051 @1 비료 뭐, 따로 뭐 저.(비료 뭐, 따로 뭐 저.)

103051 #1 비료 나기 시작한 후에 감저가, 그처럼 전분 공장이 생긴 거라.(비료 나기 시작한 후에 고구마가, 것처럼 전분 공장이 생긴 거라.)

103051 @1 음.(음.)

103051 #1 저, 옹포⁷²⁾엔 현 되도 있어. 한림. 그되도 전분 공장 있어나고.(저, 옹포라고 하는 데도 있어. 한림. 거기도 전분 공장 있었고.)

103051 @2 예 예.(예 예.)

103051 @1 음.(음.)

103051 #1 게난 전분 공장이 주로 짓을 때는 비료 난 후에.(그러니까 전분 공장이 주로 지을 때는 비료 난 후에.)

103052 @1 음, 게민 그, 감저 그, 묘종에서 이제 싹이 나오면.(음, 그러면 그, 고구마 그, 묘종에서 이제 싹이 나오면.)

103052 #1 아이, 이게 요만씩 허게.(아이, 이게 요만씩 하게.)

103052 @1 예. 게민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젠 밧디.(예.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젠 밧에.)

103052 #1 아, 고랑. 쉼로 밧을 갈면.(아, 고랑. 소로 밧을 갈면.)

103052 @1 보리그르를.(‘보리그르’를.)

103052 #1 갈, 보리그르를 쉼로 갈면, 밧을.(갈, ‘보리그르’를 소로 갈면, 밧을.)

103052 @1 예 예.(예 예.)

103052 #1 그 이랑에다가.(그 이랑에다가.)

103052 @1 예.(예.)

103052 #1 영 손으로 파명 뭐, 줄을 놔 낱, 그거 흑으로 묻어놔주게.(이렇게 손으로 파면서 뭐, 덩굴을 놔 놓고, 그거 흑으로 묻었었지.)

103052 @1 예 예.(예 예.)

103052 #1 그거 물어. 게난 음, 흔 천 평 정도 싱그젠 허민 흔 다섯 사람 들어야주.(그거 물어. 그러니까 음, 한 천 평 정도 심으려고 하면 한 다섯 사람 들어야지.)

103052 @1 음. 그거 기냥 영, 흔 이십 센치 이시민 요거를.(음. 그거 그냥 이렇게, 한 이십 센티 있으면 요거를.)

103052 #1 흔 삼십 센치쯤 허여.(한 삼십 센티쯤 해.)

103052 @1 삼십 센치쯤 해근에 양쪽으로 나오게 됩니까? 아니면 흔 짝으로만 나오게.(삼십 센티쯤 해서 양쪽으로 나오게 됩니까? 아니면 한 쪽으로만 나오게.)

103052 #1 흔 짝으로만.(한 쪽으로만.)

103052 @1 흔 쪽으로만 나오게.(한 쪽으로만 나오게.)

103052 #1 예, 덩체긴 묻고 순 쪽은 살리고.(예, 등치는 묻고 순 쪽은 살리고.)

103052 @1 순 잇는 쪽은.(순 잇는 쪽은.)

72) ‘옹포’는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이다.

103052 #1 요, 요만이 나오게.(요, 요만이 나오게.)
103052 @1 어, 살리고.(어, 살리고.)
103052 #1 꼭, 꼭 그 식으로.(꼭, 꼭 그 식으로.)
103052 @1 이렇게, 영.(이렇게, 이렇게.)
103052 #1 예 예.(예 예.)
103052 @1 이, 물어 배동 요것만 남기게.(이, 물어 버려두고 요것만 남기게.)
103052 #1 요거, 순만 나오게. 그 짜른, 호미로 끈은 데는 물어 불곡.(요거, 순만 나오게. 그 짜른, 낫으로 끊은 데는 물어 버리고.)
103052 @1 예.(예.)
103052 #1 순은 나오민 질어 가주게.(순은 나오면 길어 가지.)
103053 @1 음. 그, 감저 밧도 검질 메낫지양?(음. 그, 고구마 밧도 김 땡었지요?)
103053 #1 감저는 검질 안 메어.(고구마는 김 안 매어.)
103053 @1 안 매어마썸?(안 매어요?)
103053 #1 줄 탁 더꺼정 검질이 안 나. 고고마 밧엔 검질이 엇어.(덩굴 탁 덮어져서 잡풀이 안 나. 고구마 밧엔 잡풀이 없어.)
103053 @1 아.(아.)
103053 #1 줄 나근엔에 이런 순 나오는 것이, 온 밧 흔 헤에 탁 더꺼져 불어. 밧이 전부. 전 밧디 줄 이만이 나곡.(덩굴 나서 이런 순 나오는 것이, 온 밧 한 헤에 탁 덮어져 버려. 밧이 전부. 전 밧에 덩굴이 이만이 나고.)
103053 @1 아.(아.)
103053 #1 검질이 엇어. 고고마밧은. 검질 아니 메.(잡풀이 없어. 고구마 밧은. 김 아니 매어.)
103053 @1 줄, 줄기가 다 더퍼 부니까.(덩굴, 덩굴이 다 덮어 버리니까.)
103053 #1 더퍼부니까. 밧 완전히 더퍼. 이만이 노프게.(덮어 버리니까. 밧 완전히 덮어. 이만이 높게.)
103053 @1 음.(음.)
103053 #1 감젓줄로.(고구마 덩굴로.)
103053 @1 경헤도 보민 삐쭉 삐쭉 영 나온 거.(그래도 보면 삐쭉 삐쭉 이렇게 나온 거.)
103053 #1 아이, 그런 건 싯긴 셔도 손으로 텡이당 뽑아 불민 뉘는 거고. 그냥 앓양은.(아이, 그런 건 싯긴 있어도 손으로 다니다가 뽑아 버리면 되는 거고. 그냥 앓아서는.)
103053 @1 일부러 앓양 검질메진 안 허고, 영.(일부러 앓아서 김매진 앓고, 이렇게.)
103053 #1 감저*(고구마*.)
103053 @1 걸어 가다근에 영 뽑아 부는 정도로양?(걸어 가다가 이렇게 뽑아 버

리는 정도로요?)

103053 #1 응. 계곡 저딤, 저딤, 요만인 혜영, 저기, 감젓줄 더퍼지기 전이, 검질 나카 부덴 쉼로 고풍을 갈아 붙어.(응. 그리고 저기, 저기, 요만인 해서, 저기, 고구마 덩굴 덮어지기 전에, 잡풀이 날까 봐서 소로 고풍을 갈아 버려.)

103053 @1 혼 번 더 갈아 불민.(한 번 더 갈아 버리면.)

103053 #1 다 갈아 불민 검질이 안 나.(다 갈아 버리면 잡풀이 안 나.)

103053 @1 아.(아.)

103053 #1 소로 고풍을.(소로 고풍을.)

103053 @1 고풍을 갈아 붙어예.(고랑을 갈아 버려요.)

103053 #1 응, 고풍을 갈아 붙면 검질이 안 나.(응, 고풍을 갈아 버리면 잡풀이 안 나.)

103053 @1 음, 흠뻐 자라기 전이.(음, 조금 자라기 전에.)

103053 #1 자라기, 더프기 전이. 쉼로 우리도 쪽장 혜났어. 거 검질 안 나게.(자라기, 덮기 전에. 소로 우리도 줄곧 했었어. 거 잡풀 안 나게.)

103055 @1 음. 게민 고구마는 언제 이제, 팝니까?(음. 그러면 고구마는 언제 이제, 캡니까?)

103055 #1 상강일깎장 크는 거니까.(상강일까지 크는 거니까.)

103055 @1 예.(예.)

103055 #1 상강일이 한 통이주게.(상강일이 한 통이지.)

103055 @1 어떤 식으로마썰? 게민.(어떤 식으로요? 그러면.)

103055 #1 손으로 파지. 사름, 놉 빌어당.(손으로 캐지. 사름, 놉 빌려다가.)

103055 @1 파기 전이 뭐 그.(파기 전에 뭐 그.)

103055 #1 줄 비어.(덩굴 베어.)

103055 @1 줄 비어?(덩굴 베어?)

103055 #1 줄 비영. 줄.(덩굴 베어서. 덩굴.)

103055 @1 줄 빈덴 험니까? 아니민.(덩굴 벤다고 합니까? 아니면.)

103055 #1 감젓줄 비어야주게.(덩굴 베어야지.)

103055 @1 감젓줄 비어양.(덩굴 베어요.)

103055 #1 으, 비어. 아이고 그거, 사름 그거 상당히 힘들어. 줄 딱 부튼 거 비쟁 허면은.(으, 베어. 아이고 그거, 사름 그거 상당히 힘들어. 줄 딱 붙은 거 베려고 하면은.)

103055 @1 음.(음.)

103055 #1 비영 영 몽크려, 몽크려질 거 아니라?(베어서 이렇게 몽쳐, 몽쳐질 거 아니라?)

103055 @1 예 예, 뱅뱅 뱅뱅.(예 예, 뱅뱅 뱅뱅.)

103055 #1 그거 흠뻐 툴려야 이게 그, 거동허기 좋기 때문에, 사름 빌영 감절 파면은, 이, 망사를 그, 감저 상인한티 혼 백 망사나 삼백 망사나 주문허면은.(그거

조금 말려야 이게 그, 거동허기 좋기 때문에, 사람 빌려서 고구마를 캐면은, 이, 망사를 그, 고구마 상인한테 한 백 망사나 삼백 망사나 주문하면은.)

103055 @1 음.(음.)

103055 #1 그, 그저당 파명 망사를 장남, 남자덜은 담양 무끄고, 여자덜은 파곡 해서.(그, 가져다가 캐면서 망사를 장정, 남자들은 담아서 묶고, 여자들은 캐고 했어.)

103055 @1 음.(음.)

103055 #1 혼 천 평에 혼 차쯤 돼여. 트럭으로 하나. 게면 삼천 관, 삼천 관, 천 평에. 삼 관 나는 거난.(한 천 평에 한 차쯤 되어. 트럭으로 하나. 그러면 삼천 관, 삼천 관, 천 평에. 삼 관 나는 거니까.)

103055 @1 쉼 잠대로 허영 파나진 안헛수과?(소 쟁기로 해서 쟁었지 않았습니까?)

103055 #1 아니.(아니.)

103055 @1 아.(아.)

103055 #1 옛날 쉼 잠대로 파나주마는 말재에는 주로.(옛날 소 쟁기로 쟁었지만 나중에는 주로.)

103055 @1 손으로?(손으로?)

103055 #1 손으로. 쉼, 쉼로도 갈아났어. 감저. 갈면 뒤에서 주워야 돼. 이, 나온 건.(손으로. 소, 소로도 갈았었어. 고구마. 갈면 뒤에서 주워야 돼. 이, 나온 건.)

103055 @1 음.(음.)

103055 #1 쉼가 간 다음에. 게 내중에 전문으로 할 때는 다, 손으로 다 판.(소가 간 다음에. 게, 나중에 전문으로 할 때는 다, 손으로 다 쟁어.)

103055 @1 음.(음.)

103055 #1 손으로 다 팡 메와 놓으면 담곡.(손으로 다 캐어서 모아 놓으면 담고.)

103055 @1 음. 여기 감전 어디 놓어났수가? 어디 밧디, 우영팻디 어디.(음. 여기 고구마는 어디 쟁았었습니까? 어디 밧에? 텃밭에 어디.)

103055 #1 종자?(종자?)

103055 @1 예.(예.)

103055 #1 종자는 우영팻 구석에. 저 땅 파 가지고.(종자는 텃밭 구석에. 저, 땅 파 가지고.)

103055 @1 예.(예.)

103055 #1 요만인 헤영 땅 기쁘게 파근영에, 저 조집, 조 장만헤난 조집 놓양, 그레 보관헤영, 저을에 중, 저 싱글 때까지. 보관헛당.(요만큼 해서 땅 깊게 파서, 저 조집, 조 장만헛던 조집 놓아서, 거기에 보관해서, 겨울에 중, 저, 심을 때까지. 보관헛다가.)

103055 @1 종자로만 헛수과? 아니민 먹을 것도?(종자로만 헛습니까? 아니면 먹

을 것도?)

103055 #1 먹을 것도 좀 허고.(먹을 것도 좀 하고.)

103055 @1 예.(예.)

103055 #1 먹을 것도 허곡, 겨울에도 칭 먹고.(먹을 것도 하고, 겨울에도 찌서 먹고.)

103055 @1 예.(예.)

103055 #1 거 묻엇당은에. 먹을 것도 묻고 종자도 묻고. 종자는 건들이지 말아야 돼여. 먹을 거 따로.(거 묻엇다가. 먹을 것도 묻고 종자도 묻고. 종자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어. 먹을 거 따로.)

103055 @1 먹을 거 따로?(먹을 거 따로?)

103055 #1 종자는 영 그, 딱 메와 땡, 건들이민 겨울에 썩어 붙어. 추웁. 브름 들엉.(종자는 이렇게 그, 딱 모아 두고, 건드리면 겨울에 썩어 버려. 추워서. 바람 들어서.)

103055 @1 아, 케난 그건 ㄹ딱, 고만히.(아, 그러니까 그건 까딱, 가만히.)

103055 #1 ㄹ딱, 고만히 주제기⁷³⁾ 느람지⁷⁴⁾ 더경, 주쟁기 탁 세왕. 주장이엔 헛 게 있어. 주제기.(까딱, 가만히 주저리 이영 덮어서, 주저리 탁 세우고. 주저리라고 하는 게 있어. 주저리.)

103055 @1 예, 주쟁이. 느람지 우이.(예, 주저리. 이영 위에.)

103055 #1 새, 우이 더끄민.(띠, 위에 덮으면.)

103055 @1 우이 더끄민 끝.(위에 덮으면 끝.)

103055 #1 더끄민 종자 이, 고만이. 먹을 건 따로 이거는.(덮으면 종자 이, 가만히. 먹을 건 따로 이거는.)

103055 @1 아.(아.)

103055 #1 항상 겨울에 꺼내당 먹곡.(항상 겨울에 꺼내다가 먹고.)

103055 @1 따로 또 놀을 감저눌.(따로 또 가리를 고구마 가리.)

103055 #1 둘, 먹을 거허곡 종자허곡.(둘, 먹을 거하고 종자하고.)

103055 @1 으, 따로 해 놔근에 허고, 그때 조짚으로 이젠.(으, 따로 해 놔서 하고, 그때 조짚으로 이젠.)

103055 #1 응, 영 세와 낱 흑 더끄멍 종자를. 종자 많이 해놔주 많이. 그거 해 연.(응, 이렇게 세워 놓고 흑 덮으면서 종자를. 종자 많이 했었지 많이. 그거 했어.)

103055 @1 음.(음.)

103055 #1 흔 오십 평 정도씩 종자 만들안.(한 오십 평 정도씩 종자 만들었어.)

103055 @1 그때는 무시 거 그자, 감저 무슨 종류 뭐, 이런 거 따지지 아니헛 헛 지양?(그때는 무슨 거 그저, 고구마 무슨 종류 뭐, 이런 거 따지지 았고 했지요?)

73) '주제기'는 주저리이다. 떠나 짚으로 둥글게 엮어 가리 꼭지 따위에 덧덮는 물건으로 '주쟁이'라고도 한다.

74) '느람지'는 이영과 비슷한 것으로, 낱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달리 '느래미', '느라미', '느람쥐'라고 한다.

103055 #1 아이, 종류가 셔났어. 종류가.(아이, 종류가 있었어. 종류가.)
 103055 @1 아.(아.)
 103055 #1 훑는 종류가 완. 들어완. 육지서.(굽은 종류가 왔어. 들어왔어. 육지에 서.)
 103055 @1 음.(음.)
 103055 #1 좀 크는 종류가. 이, 거 허양허게 크는 종류가.(좀 크는 종류가. 이, 거 하얗게 크는 종류가.)
 103055 @1 음.(음.)
 103055 #1 벌건 것도 싯고.(벌건 것도 있고.)
 103055 @1 음.(음.)
 103055 #1 육지서 들어완. 종, 종자가 좋아났어.(육지에서 들어왔어. 종자가 좋았었어.)
 103055 @1 음.(음.)
 103055 #1 옛날 토종 감저 줄은 줄 자체가 허양허고.(옛날 토종 고구마 덩굴은 줄기 자체가 하얗고.)
 103055 @1 예.(예.)
 103055 #1 새, 큰 감저 줄은 줄이 벌경헤여.(새, 큰 고구마 덩굴은 줄기가 벌개.)
 103055 @1 예.(예.)
 103055 #1 줄 자체가.(덩굴 자체가.)
 103055 @1 그거 게난 감저 공장에 가는 거 말고 또 따로. 게난 감저 공장에 가는 건 기자 밧디서 그냥 그걸로 가는 거고.(그거 그러니까 고구마 공장에 가는 거 말고 또 따로. 그러니까 고구마 공장에 가는 건 그저 밧에서 그냥 그걸로 가는 거고.)
 103055 #1 밧디 와. 자동차로 왕 트럭 차에 시깁.(밭에 와. 자동차로 와서 트럭에 실어서.)
 103055 @1 그거 또.(그거 또.)
 103055 #1 종자 헐 거는 그.(종자 할 거는 그.)
 103055 @1 허고.(하고.)
 103055 #1 밧 구석에도 종자 헐 건.(밭 구석에도 종자 할 건.)
 103055 @1 해 두고.(해 두고.)
 103055 #1 묻영 놔두고.(묻어서 놔두고.)
 103055 @1 감저뻗데기는.(절간고구마는.)
 103055 #1 아, 건, 그 저, 전분 공장 전에.(아, 건, 그 저, 전분 공장 전에.)
 103055 @1 전에.(전에.)
 103055 #1 전분 공장 나온 후에는 처음에, 처음에는 감저뻗데기를, 그걸 그 밧아 가났어. 이. 저디.(전분 공장 나온 후에는 처음에, 처음에는 절간고구마를, 그걸 그 밧아 갔었어. 이. 저기.)

103055 @1 예.(예.)

103055 #1 정부에서.(정부에서.)

103055 @1 음.(음.)

103055 #1 혼 가마니. 이, 저딴 지금 이, 우리 할 때에, 이 동네도 아니고 저 납
음 강도 풀고, 애월 강도 풀고. 애월 강 주로 풀안. 애월 시켜 오렌.(한 가마니. 이,
저기 지금 이, 우리 할 때에, 이 동네도 아니고 저 납음 가서도 팔고, 애월 가서도
팔고. 애월 가서 주로 팔았어. 애월 실어 오라고.)

103055 @1 예.(예.)

103055 #1 애월에 시켜 오렌. 아이고, 그거는 그, 절간감저엔 해 가지고.(애월에
실어 오라고. 아이고, 그거는 그, 절간고구마라고 해 가지고.)

103055 @1 예.(예.)

103055 #1 그, 감저 써는 기계가 있어.(그, 고구마 써는 기계가 있어.)

103055 @1 예.(예.)

103055 #1 걸로 썰어 가지고 저, 감저 파난 그 그르에.(걸로 썰어 가지고 저, 고
구마 썰던 그 그루에.)

103055 @1 예.(예.)

103055 #1 걸 허대겨⁷⁵⁾ 놔두면 아, 그 고생을. 그놈의 감저 혼 열흘 이상, 십일
이상 돼야 거 틀르는데.(걸 ‘허대겨’ 놔두면 아, 그 고생을. 그놈의 고구마 한 열흘
이상, 십일 이상 돼야 거 마르는데.)

103055 @1 예.(예.)

103055 #1 비가 온단 말이지. 비 오면은.(비가 온단 말이지. 비 오면은.)

103055 @2 (웃음).((웃음).)

103055 #1 막 썩엉, 시커멍 현 것도 등외로 받아가긴 해여.(막 썩어서, 시커멍
것도 등외로 받아가긴 해.)

103055 @1 예.(예.)

103055 #1 이거 거, 저디 그, 주로 우린 애월 구루마로 시켜 강 풀곡. 말째엔 납
음더레도 시끄고 해연. 절간감저.(이거 거, 저기 그, 주로 우린 애월 마차로 실어 가
서 팔고. 나중엔 납음으로도 싣고 했어. 절간고구마.)

103055 @1 예.(예.)

103055 #1 그루 후에 전분 공장 나니까 그게 잊어져 불었주. 감저뺏데기가.(그
후에 전분 공장 나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지. 절간고구마가.)

103057 @1 절간감저도 어디 놔 뒀단에 집어서 먹지 안 헛수과?(절간고구마도
어디 놔 뒀다가 집에서 먹지 않았습니까?)

103057 #1 예, 그건 아니 먹어 봤.(예, 그건 아니 먹어 봤어.)

103057 @1 아니 먹어 봤수과?(아니 먹어 봤습니까?)

103057 #1 그, 절간감전. 허고 먹을 수가 없어. 저, 저, 다 시커멍해 불어. 비 맞

75) ‘허대기다’는 한곳에 모여 있던 것을 흐트리다.

안.(그, 절간고구만. 하고 먹을 수가 없어. 저, 저, 다 시켜매 버려. 비 맞아서.)

103057 @1 아.(아.)

103057 #1 흑밭되 그자 널영 내 불면.(흙밭에 그냥 널어서 내 버리면.)

103057 @1 음.(음.)

103057 #1 비 맞아도. 거 받안 가. 그게 술 연료일 거야. 아마도.(비 맞아도. 거 받아는 가. 그게 술 연료일 거야. 아마도.)

103057 @1 케민 감저떡 허젠 허면은.(그러면 고구마떡 하려고 하면은.)

103057 #1 감저떡은 여기선 안 해났어.(고구마떡은 여기선 안 했었어.)

103057 @1 안 해났수과?(안 했었습니까?)

103057 #1 고구마떡이라고 옛날, 옛날 아주 옛날에 허연. 거 고구마떡.(‘고구마떡’이라고 옛날, 옛날 아주 옛날에 했어. 거 고구마떡.)

103057 @1 음.(음.)

103057 #1 고구마 갈앙 물리와근에 이거 떡 허면은 침떡 허면은 들아났어. 들아.(고구마 갈아서 말려서 이거, 떡 하면은 시루떡 하면은 달았었어. 달아.)

103057 @1 예예.(예예.)

103057 #1 거, 옛날엔 해나고 현디, 우리 세대는 거 감저떡은 엇어난.(거, 옛날엔 했었고 한테, 우리 세대는 거, 고구마떡은 없었어.)

103057 @1 아. 계난 절간고구만 그자 풀기만 허여났구나양?(아. 그러니까 절간고구만 그저 팔기만 했었군요?)

103057 #1 절간감저는 품만.(절간고구마는 팔기만.)

103057 @1 계난 절간고구만 저, 이 전분 공장 나오기 전이.(그러니까 절간고구만 저, 이 전분 공장 나오기 전에.)

103057 #1 전에. 전분 공장 나완 생고구마 받기 시작허난 그, 싹 엇어져 불어서.(전에. 전분 공장 나와서 생고구마 받기 시작하니까 그, 싹 없어져 버렸어.)

103057 @1 음.(음.)

103057 #1 계난 계, 농민이 얼마나 편안할 거라. 절간 물리왕 거 좇어당 허느니 바로 밭되서 망사에 담아 놓으민 시꺼 가 부니까.(그러니까 거, 농민이 얼마나 편안할 거라. 절간 말려서 거 주워다가 하느니 바로 밭에서 망사에 담아 놓으면 실어가 버리니까.)

103057 @1 음, 케민 그.(음, 그러면 그.)

103057 #1 계난.(그러니까.)

103058 @1 감젓줄 걷어 놓은 건 뭘로?(고구마 덩굴 걷어 놓은 건 뭘로?)

103058 #1 건 췌 맥이고.(건 소 먹이고.)

103058 @1 아, 짓도 췌 맥이고?(아, 짓도 소 먹이고?)

103058 #1 아이, 췌가 질 잘 먹는 게 감젓줄이라. 물리왕.(아이, 소가 제일 잘 먹는 게 고구마 덩굴이라. 말려서.)

103058 @1 아.(아.)

103058 #1 엄청나게 잘 먹어.(엄청나게 잘 먹어.)

103058 @1 쉼 못 먹는 게 엇구나.(소 못 먹는 게 없구나.)

103058 #1 예.(예.)

103058 @2 음. (웃음)(음. (웃음))

103058 #1 감젓줄이 질 잘 먹어.(고구마 덩굴이 제일 잘 먹어.)

103058 @1 음. (웃음)(음. (웃음))

103058 #1 게, 존 감저는, 감저가 또 존 것덜 나올 거 아니라. 존존헌 거.(거, 잔 고구마는, 고구마가 또 잔 것들 나올 거 아니라? 자잘한 거.)

103057 @1 예.(예.)

103058 #1 건 담아다 가지고 돼야지 주민 돼야지가 엄청 슬져.(건 담아다 가지고 돼지 주면 돼지가 엄청 살찌.)

103058 @1 아. 게민 감저꿀도 어디 놀 놀어야 될 거 아니꽈? 어디 어떻 행 놔 뒤수가?(아. 그러면 고구마 덩굴도 어디 가리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어떻게 해서 놔뒀습니까?)

103058 #1 거, 밧디도 놓고. 씨 혈 건 밧디 놓고.(거, 밧에도 쌓고. 씨 할 건 밧에 쌓고.)

103058 @1 감저꿀, 꿀.(고구마 덩굴, 덩굴.)

103058 #1 꿀.(덩굴.)

103058 @1 그, 저 즐기, 즐기.(그, 저 즐기, 즐기.)

103058 #1 아, 즐기는 물리왕 집이 시꺼당 놀어 놔두면은, 느람지로 더경 낱 겨울에 쉼 다 주고.(아, 즐기는 말려서 집에 실어다가 쌓아 놔 두면은, 이영으로 덮어 놓고 겨울에 소 다 주고.)

103058 @1 쉼 다 주는 거양?(소 다 주는 거요?)

103058 #1 다 시건. 그렇게 귀해났어. 지금도 이 축사 허는 사름덜 감저, 감저 안 헛주마는, 문딱 ㄹ져가났어.(실어서. 그렇게 귀했었어. 지금도 이 축사 하는 사람들 고구마, 고구마 안 헛지마는, 모두 가져갔었어.)

103059 @1 그, 감저 뭐, 전분 공장에 그, 풀곡 허멍 잇어난 뭐, 어떤 이야기, 그런 건.(그, 고구마 뭐, 전분 공장에 그, 팔고 하면서 잇었던 뭐, 어떤 이야기, 그런 건.)

103059 #1 켌, 공장에 켌, 우리가, 생산자가 따라 갈 거 아니라이?(그래서, 공장에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가 따라 갈 거 아니라이?)

103059 @1 예.(예.)

103059 #1 전분공장에, 나 저, 무릉리, 무릉리 전분 공장 사름이 이, 저 동네 사름이 그 전분 공장 사장허고 사돈을 헛더라고. 사돈헨에 봉성리 감절 좀 받아 드라헨에. 흥○○엔 현 사름인디.(전분공장에, 나 저, 무릉리, 무릉리 전분 공장 사름이 이, 저 동네 사름이 그 전분 공장 사장허고 사돈을 헛더라고. 사돈해서 봉성리 고구말 좀 받아 달라 해서. 흥○○라고 하는 사름인테.)

103059 @1 예.(예.)

103059 #1 아, 이디 완 하도 사정허연. 게, 짓도 중간 중간 그런 사름이 막 하. 무릉리서 공장 맡은 사름. 저 하귀에도 혼 사름. 또 괄지 혼 사름. 막 짓도 경쟁이라. 하 이젠, 무릉리 혼 사름이, 하 이젠 막 스정헨에, 게민 경 허기로 허연. 그 생산자가 가야 돼여이. 이 저, 차에 탕 ㄱ짜.(아, 여기 와서 하도 사정해서. 게, 그것도 중간 중간 그런 사람이 막 많아. 무릉리서 공장 맡은 사람. 저 하귀에도 한 사람. 또 괄지 한 사람. 막 그것도 경쟁이라. 하 이젠, 무릉리 한 사람이, 하 이젠 막 사정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 생산자가 가야 되어. 이 저, 차에 타서 같이.)

103059 @1 예예.(예예.)

103059 #1 트럭에 시경. 가야 몇 키로 허는 걸 알 거 아니라게? 저울이. 차체 저울이라. 차체. 경헌디. 하이고, 강 보거들랑 차덜이 저쪽에. 나 흐룻밤 잔.(트럭에 싣고. 가야 몇 킬로 하는 걸 알 거 아니라? 저울이. 차체 저울이라. 차체. 그런데. 하이고, 가서 보니 차들이 저쪽에. 나 하룻밤 잤어.)

103059 @2 (웃음)((웃음))

103059 @1 (웃음)((웃음))

103059 #1 그디 공장에서. 그거 저울에 재난. 기다려 뒷날사 재난.(거기 공장에서. 그거 저울에 쯤었어. 기다려 뒷날에야 쯤었어.)

103059 @1 아.(아.)

103059 #1 막 바빴.(막 바빴어.)

103059 @1 아.(아.)

103059 #1 경 헨에 그디서 잔에. 그 사돈이, 그 사장이 사돈이난 게도 방도 빌려 주고 밥해영 잘 해 주데. 그 사돈이영 ㄱ짜.(그렇게 해서 거기서 잤어. 그 사돈이, 그 사장이 사돈이니까 그래도 방도 빌려 주고 밥해서 잘 해 주데. 그 사돈과 같이.)

103059 @1 음.(음.)

103059 #1 행, 그런 바도 있고. 이 괄지는, 저 하귀는, 저 귀덕 아인데, 그 저디, 우리 중학교 동창이 그걸 소개해 가지고, 그, 으라 번 하귀 가났주. 하귀 저, 저 동귀레 가민 길 아래, 굴형에, 옆이 감저 공장이, 그디도 강 보면은 대길 해야 돼. 대기름.(해서, 그런 바도 있고. 이 괄지는, 저 하귀는, 저 귀덕 아인데, 그 저기, 우리 중학교 동창이 그걸 소개해 가지고, 그, 여러 번 하귀 갔었지. 하귀 저, 저 동귀에 가면 길 아래, 구렁에, 옆에 고구마 공장이, 거기도 가서 보면은 대길 해야 돼. 대기름.)

103059 @1 음. 게민 그디 감저를 풀민, 감저 주시 주지 안 험디가?(음. 그러면 거기 고구마 팔면, 고구마 찌꺼기 주지 않았나요?)

103059 #1 아니, 아니. 안 줘.(아니, 아니. 안 줘.)

103059 @1 안 줘마썸?(안 줘요?)

103059 #1 안 줘. 감저 주시 안 주고. 감저 주시는 내중에는, 저디 저, 웨야지

홀 때야 허지. 내중엔 필요도 엇고.(안 쥐. 고구마 찌꺼기 안 주고. 고구마 찌꺼기는 나중에는, 저기 저, 돼지 할 때야 하지. 나중엔 필요도 없고.)

103059 @1 예.(예.)

103059 #1 돼야지 이, 양식으로, 옛날엔 뭐 저되, 체도 엇고, 뭐 엇으난, 주로 감저 주시를, 전분 주시를 사단 돼야지를 질루아낫주게. 헐디.(돼지 이, 양식으로, 옛날엔 뭐 저기, 체도 없고, 뭐 없으니까, 주로 고구마 찌꺼기를, 고구마 찌꺼기를 사다가 돼지를 길렀었지. 한테.)

103059 @1 예.(예.)

103059 #1 내중에는 돼야지 먹을 것도 많이 나오곡.(나중에는 돼지 먹을 것도 많이 나오고.)

103059 @1 아.(아.)

103059 #1 해 가난에 것도 이 뭐, 우리 저, 스삼스건 때 거 양식으로 먹어낫어. 사름덜.(해 가니까 그것도 이 뭐, 우리 저, 사삼사건 때 거 양식으로 먹었었어. 사름들.)

103059 @1 예예.(예예.)

103059 #1 감저 주시를.(고구마 찌꺼기를)

103059 @1 예.(예.)

103059 #1 이, 가난헌 사름덜. 거 사다가 막 그 저, 물리와 가지고.(이, 가난한 사름들. 거 사다가 막 그 저, 말려 가지고.)

103059 @1 아, 것도 사단예?(아, 그것도 사다가요?)

103059 #1 예. 아이고, 사단. 우리 돼야지 질룰 때 전부 돈 쥘 사왔지. 흔 구루마. 간, 전분공장에 간. 전분 공장에 감저 주시가 엄청 나잖아.(예. 아이고, 사다가. 우리 돼지 기를 때 전부 돈 주고 사왔지. 한 마차. 가서, 전분공장에 가서. 전분 공장에 고구마 찌꺼기가 엄청 나잖아.)

103059 @1 예.(예.)

103059 #1 그걸 중매 허는 사람이 있어. 장사로.(그걸 중매 하는 사람이 있어. 장사로.)

103059 @1 아.(아.)

103059 #1 걸 말아당 또 폴앙. 감저 주시 사례 저, 구루마로 열 지언 셔낫어. 감저 주시 사례. 저 옹포나.(걸 말아다가 또 팔아서. 고구마 찌꺼기 사러 저, 마차로 열 지어서 섰었어. 고구마 찌꺼기 사러. 저 옹포나.)

103059 @1 아, 사례 가납디가?(아, 사러 갔었나요?)

103059 #1 아이, 가곡말곡. 쉼 주젠. 저 돼야지 주젠. 중산간에서 구루마 끄언.(아이, 가고말고. 소 주려고. 저 돼지 주려고. '중산간'에서 마차 끌고.)

103059 @1 아.(아.)

103059 @2 (웃음)((웃음))

103059 #1 흥번, 흥번 한림 옹포 간에 감저 주시를 구루마로 이 우녕집⁷⁶)이 할

망허고 간에 반씩 혜영 나누기로 혜연, 구루마로 시건 오는디, 구루마, 이제 쉼이 뜨지 안혜여게? 저, 할망은 조름에 싯고. 난 하 저, 대림 오니까니 술 취헌 놈이 구루마를 딱 막아 사는 거라.(한번, 한번 한림 옹포 가서 고구마 찌꺼기를 마차로 이 ‘우녃집’의 할머니하고 가서, 반씩 해서 나누기로 해서, 마차로 싯고 오는데, 마차, 이제 소가 느리지 않아? 저, 할머니는 뒤에 있고. 난 하 저, 대림 오니까 술 취헌 놈이 마차를 딱 막아서는 거라.)

103059 @1 아.(아.)

103059 #1 흐뭇 날 뜨리젠 허고. 하 이거, 쉼 이끄곡 이거 혜 볼 수가 있어야지. 도망치지도 못허고. 할망그라, 뒤에 할망을, 이 쉼 빨리, 날랑 저레 도망, 뒤트레 가크메, 쉼 뒤트레 가민 이놈이 날 뜨랑 올 거니까 할망이랑 쉼 몰랑 저레 웃터레만 가릅센. 빨리 못 볼 디레만 가 립센. 계난 대림으로 이젠 몰왔디 거저 간 거 같아? 할망이?(사뭇 날 때리려고 하고. 하 이거, 소 이끌고 이거 혜 볼 수가 있어야지. 도망치지도 못하고. 할머니더러, 뒤에 할머니를, 이 소 빨리, 날랑 저기로 도망, 뒤쪽으로 가겠으니, 소 뒤쪽으로 가면 이놈이 날 따라 올 거니까 할머니랑 소 몰고 저기로 위쪽으로만 가 버리십사고. 빨리 못 볼 데로만 가 버리십사고. 그러니까 대림으로 이젠 ‘몰왔’에 거저 간 거 같아? 할머니가?)

103059 @1 예.(예.)

103059 #1 그때 난 그, 아래로만 그 저, 한림 쪽으로만 간 거라. 이놈 유인허젠. 하, 이놈의 새끼가 보니 술이 잔뜩 취헌 놈이라. 젊은, 신체는 좋고, 나도 좀 힘 이실 땀디. 그때는 할망이 쉼을 많이, 멀리 가실 것이다 혜 가지고 이놈을 심언, 술 취헌 거게.(그때 난 그, 아래로만 그 저, 한림 쪽으로만 간 거라. 이놈 유인하려고. 하, 이놈의 새끼가 보니 술이 잔뜩 취헌 놈이라. 젊은, 신체는 좋고, 나도 좀 힘 있을 때인데. 그때는 할머니가 소를 많이, 멀리 갔을 것이다, 혜 가지고 이놈을 잡아서, 술 취한 거.)

103059 @2 (웃음).((웃음).)

103059 #1 내 두드러, 발로 야가기 불란 막 발로 차 된, 이제는 막 이제 제, 도망, 도망갔지. 도망간에 허난, 할망이 몰왔 오니까 할망을 만나전. 구루마. 막 아, 이놈이 그까지 도망, 뜨라완게 또. 하, 이게 돌맹이로 들어 날 맞히명 뜨라 완.(내 두드러서, 발로 모가지 밟고 막 발로 차 두고, 이제는 막 이제 제, 도망, 도망갔지. 도망가서 하니까, 할머니가 ‘몰왔’ 오니까 할머니를 만나졌어. 마차. 막 아, 이놈이 거기까지 도망, 따라왔어 또. 하, 이게 돌맹이로 들이 날 맞히면서 따라왔어.)

103059 @1 (웃음).((웃음).)

103059 #1 아, 이젠 몰왔디 오니까 사름덜이 하영 질레 놀암데게. 아는 사름도 있고. 아, 이놈의 깡패, 이거 좀 심어 달라고 이거. 쉼 구루마 가는디 못 가게 험젠 허난. 계난 사름덜이, 아는 사름덜이고 허난, 마, 말라, 말라 허명 막안. 나 그런 일이, 혼나났어. 그놈한티.(아, 이젠 ‘몰왔’에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길에서 놀고 있데.

76) ‘우녃집’은 한 집의 위쪽 울타리 밖에 있는 집이다.

아는 사람도 있고. 아, 이놈의 깡패, 이거 좀 잡아 달라고 이거. 소 마차 가는데 못
가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마, 말라,
말라 하면서 막았어. 나 그런 일이, 혼났었어. 그놈한테.)

103059 @1 (웃음).((웃음).)

103059 #1 그때는 먹을마다 깡패가 싹더고 윈 영. 불량헌 자들이.(그때는 마을마
다 깡패가 있더라고 윈 이렇게. 불량한 자들이.)

103059 @1 예예. 다.(예예. 다.)

103059 #1 그, 즈유당 때.(그, 자유당 때.)

103059 @1 술푸대덜.(술고래들.)

103059 #1 술푸대. 술만 막 먹영 텅겨.(술고래. 술만 막 먹고 다녀.)

103059 @2 (웃음).((웃음).)

기타 농사

103060 @1 수박도 해납디가?(수박도 했었나요?)

103060 #1 수박은, 그런 건 안 해나고.(수박은, 그런 건 안 했었고.)

103060 @1 응.(응.)

103060 #1 수박 허는 사름이 이 동네도 많이 있어. 지금도.(수박 하는 사름이 이
동네도 많이 있어. 지금도.)

103060 @1 음.(음.)

103060 #1 또, 이 동네 수박 장시, 수박 허영, 사름 하나, 혼 하르방이 수박 꼭
농사 허영 웨. 춤웨.(또, 이 동네 수박 장수, 수박 해서, 사름 하나, 한 할아버지가
수박 꼭 농사 해서 오이. 참외.)

103060 @1 예. 춤웨.(예. 참외.)

103060 @2 음.(음.)

103060 #1 밧디 허영 막 짓어. 잣 우이 짓영. 그 누게 타 가카 부텐 그디서 즘
자곡, 풀곡.(밭에 해서 농막 지어. 잣 위에 지어서. 그 누가 타 갈까 봐서 거기서 잠
자고, 팔고.)

103060 @1 예.(예.)

103060 #1 건 사름 혼 사름 셔났어. 이 동네.(그런 사름 한 사름 있었어. 이 동
네.)

103060 @1 예. 저디도양.(예. 저기도요.)

103060 #1 건 부업으로. 예.(건 부업으로. 예.)

103062 @1 고추 농산?(고추 농산?)

103062 #1 고춘 우린 일절 안 허고.(고춘 우린 일절 안 하고.)

103062 @1 안 허곡?(안 하고?)

103062 #1 여기는 고치 안 해.(여기는 고추 안 해.)

103062 @1 먹을 것만?(먹을 것만?)

103062 #1 예, 먹을 거. 헛는 사름 엇고 이 동네.(예, 먹을 거. 하는 사람 없고 이 동네.)

103062 @1 음.(음.)

103062 #1 주로 아까 식으로 보리, 유채, 고구마 그거. 그거 주로.(주로 아까 식으로 보리, 유채, 고구마 그거. 그거 주로.)

103063 @1 게민 배추 농사도 따로 안 혀고?(그러면 배추 농사도 따로 안 하고?)

103063 #1 아이, 안 혀고.(아이, 안 하고.)

103063 @1 양배추는마썸?(양배추는요?)

103063 #1 양배추는 이제야 나기 시작허니까 최고. 최고로 많이 혀는 디가 여기, 봉성.(양배추는 이제야 나기 시작하니까 최고. 최고로 많이 하는 데가 여기, 봉성.)

103063 @1 갱 험 흡디가? 농사?(그렇게 해서 했나요? 농사?)

103063 #1 양배추게, 슴, 삼천 평, 이천 평씩은 해년마다. 지금도.(양배추, 삼, 삼천 평, 이천 평씩은 해마다. 지금도.)

103063 @1 아.(아.)

103063 #1 올리도 삼천 평 흘 거 계약 재배 혀연.(올해도 삼천 평 할 거 계약 재배 혀어.)

103063 @1 어.(어.)

103063 #1 양배추는 저 모중한티. 양배추 모중 판데기로 뽑양 심는 거난, 모중 키우는 그 저, 회사가 있어.(양배추는 저 모중한테. 양배추 모중 ‘판데기’로 뽑아서 심는 거니까, 모중 키우는 그 저, 회사가 있어.)

103063 @1 따로 잇구나.(따로 잇구나.)

103063 #1 따로.(따로.)

103063 @1 예.(예.)

103063 #1 그디 강 흘 이천 본 혀 드라 혀민.(거기 가서 한 이천 본 혀 달라 하면.)

103063 @2 음.(음.)

103063 #1 이천 본 혀영 밧더레 시꺼다 줘. 게, 돈 받는 거난. 흘 판에 예, 칠천 원인가, 칠백 원인가?(이천 본 혀서 밧으로 실어다 줘. 게, 돈 받는 거니까. 한 판에 예, 칠천 원인가, 칠백 원인가?)

103063 @1 음.(음.)

103063 #1 흘 판에 칠백 원, 칠백 원, 열 판.(한 판에 칠백 원, 칠백 원, 열 판.)

103063 @1 어, 언제마썸? 그 모중 사례 언제 가근에.(어, 언제요? 그 모중 사례 언제 가서.)

103063 #1 나 벌써 간 말겼는데. 회사에 이것. 중, 종묘사에.(나 벌써 가서 말겼는데. 회사에 이것. 중, 종묘사에.)

103063 @1 갱. 케민.(그렇게. 그러면.)

103063 #1 종료 허는 디.(종료 하는 데.)

103063 @1 케난, 그, 주문을 헛 겨우파? 종료사예?(그러니까, 그, 주문을 한 겁니까? 종료사예?)

103063 #1 예. 주문을. 계약을 헛 거지.(예. 주문을. 계약을 한 거지.)

103063 @1 계약을. 케민.(계약을. 그러면.)

103063 #1 이백, 이백칠십 판.(이백, 이백칠십 판.)

103063 @1 응. 허면.(응. 하면.)

103063 #1 이백칠십 판이민 이천칠백 평 싱그주게.(이백칠십 판이면 이천칠백 평 십지.)

103063 @1 음.(음.)

103063 #1 케민, 그 사람이 팔월 이십일 경에 싱글 거 아니라게? 양배추는.(그러면, 그 사람이 팔월 이십일 경에 십을 거 아니라? 양배추는.)

103063 @1 팔월 이십일 경에마쭈?(팔월 이십일 경에요?)

103063 #1 예 예. 처음에 제일 빠른 게 팔월 십오일부터 팔월 말, 구월 오일까지 싱어.(예 예. 처음에 제일 빠른 게 팔월 십오일부터 팔월 말, 구월 오일까지 싱어.)

103063 @1 으음.(으음.)

103063 #1 케민 헛 팔월 이십오 일 경에 싱것다고 강 흥영 놔두면은, 이놈의 종잘 만들앙.(그러면 한 팔월 이십오 일 경에 싱었다고 가서 해서 놔 두면은, 이 종잘 만들어서.)

103063 @1 예.(예.)

103063 #1 이백칠십 판이다 흥면은 이백칠십 판을 밧드레 시켜 와.(이백칠십 판이다 하면은 이백칠십 판을 밧으로 실어 와.)

103063 @1 아.(아.)

103063 #1 돈, 돈 주곡 허민.(돈, 돈 주고 하면.)

103063 @1 예, 예 예.(예, 예 예.)

103063 #1 예, 그게 이백칠십 판에. 예, 얼마냐 허면은, 칠, 이 칠이, 백, 백스십. 백 흥 육십 만원쯤 웨크라.(예, 그게 이백칠십 판에. 예, 얼마냐 하면은, 칠, 이 칠이, 백, 백사십. 백 한 육십만 원쯤 되겠어.)

103063 @1 아.(아.)

103063 #1 그 종자 대가.(그 종자 대가.)

103063 @1 아.(아.)

103063 @2 음.(음.)

103063 #1 경 주영 허면은, 예, 양배추도 수입이 벨로. 저게 싱그곡, 저 천 평당 이십오만 원 들어. 싱그는 것만. 삼천 평. 응.(그렇게 주어서 하면은, 예, 양배추도 수입이 벨로. 저게 싱고, 저 천 평당 이십오만 원 들어. 싱는 것만. 삼천 평. 응.)

103063 @1 아.(아.)

103063 #1 삼천 평 싱그젠 허면 한, 팔십만 원 영 들주게. 싱그는 공력.(삼천 평 심으려고 하면 한, 팔십만 원 이렇게 들지. 심는 공력.)

103063 @1 그 저, 누게, 사름 빌영.(그 저, 누구, 사름 빌려서.)

103063 #1 사름 빌영. 이제 그, 저디, 중국 사름밧기 엇어. 이제. 놉 빌리지 못해.(사름 빌려서. 이제 그, 저기, 중국 사람밖에 없어. 이제. 놉 빌리지 못해.)

103063 @1 아.(아.)

103063 #1 게, 중국 사름으로만 다 빌영 싱거.(게, 중국 사람으로만 다 빌려서 심어.)

103063 @1 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싱거야 돼?(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심어야 돼?)

103063 #1 예, 하나하나. 혼.(예, 하나하나. 한.)

103063 @1 음.(음.)

103063 #1 계난에 천 평에 이십오만 원이주게. 싱그는 데.(그러니까 천 평에 이십오만 원이지. 심는 데.)

103063 @1 음.(음.)

103063 #1 그, 싱그는 것만. 거, 건디 혼, 삼천 평 싱그렌 허면 혼 이, 으더 아홉 명이 왕, 열시 전에 다 싱경 가 붙어. 팔십만 원 받앙.(그, 심는 것만. 거, 그런데 한, 삼천 평 심으라고 하면 한 이, 여더 아홉 명이 와서, 열시 전에 다 심고 가 버려. 팔십만 원 받고.)

103063 @1 아.(아.)

103063 #1 혼 열두 시 전에 혼 놉이 십만 원씩 벌언. 게, 중국 사름덜 오죽 지꺼점서게. 이제 돈을 경, 혼 낮전 혜영 십만원씩.(한 열두 시 전에 한 사람이 십만 원씩 벌어서. 게, 중국 사람들 오죽 기꺼하고 있어. 이제 돈을 그렇게, 한 낮전 해서 십만 원씩.)

103063 @1 으음.(으음.)

103063 @2 으음.(으음.)

103063 #1 다 벌영 가니까.(다 벌어서 가니까.)

103063 @1 아.(아.)

103063 #1 그 저, 그런 그 장서허는, 놉 장서허는 사름이 있어. 중국 사름덜 다 차덜 열 명 데려당, 질루명 그, 청탁 들어오면.(그 저, 그런 그 장사하는, 놉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 중국 사람들 다 차들 열 명 데려다가, 기르면서 그, 청탁 들어오면.)

103063 @1 음.(음.)

103063 #1 강 일 혜칭 돈 받앙, 돈 이녁 갈랑 먹곡, 인부들도 주고.(가서 일 해 주고 돈 받아서, 돈 이녁 갈라서 먹고, 인부들도 주고.)

103063 @1 오.(오.)

103063 @2 인력 중국 업체가 있구나, 예.(인력 중국 업체가 있구나, 예.)

103063 #1 업체가. 장서하는 사람이 있어.(업체가.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

103063 @1 겨허젠 허민 밧 갈양.(그렇게 하려고 하면 밧 갈아서.)

103063 #1 밧 트랙타로 갈지.(밭 트랙터로 갈지.)

103063 @1 바, 밧, 트랙타로 갈아근에. 기냥, 기냥 밧밧밧 갑니까? 아니면.(바, 밧, 트랙터로 갈아서. 그냥, 그냥 밧밧밧 갑니까? 아니면.)

103063 #1 아니. 고량, 고량을 내야지.(아니. 고량, 고량을 내야지.)

103063 @1 고량을 내영.(고량을 내어서.)

103063 #1 꼭 쉼로 갈주게. 그 자리 그만이. 쉼로 갈주게.(꼭 소로 갈지. 그 자리 그만이. 소로 갈지.)

103063 @1 어.(어.)

103063 #1 그, 비료, 비료 값이[갑시]. 천 평 갈쟁 허면은 스 칠이 이십팔만. 비료 값이 혼 오십만 원 들어가. 비료 값.(그, 비료, 비료 값이. 천 평 갈려고 허면은 사 칠이 이십팔 만. 비료 값이 한 오십만 원 들어가. 비료 값.)

103063 @1 예.(예.)

103063 #1 비료를 엄청 많이 줘야 돼, 양배추는.(비료를 엄청 많이 줘야 돼, 양배추는.)

103063 @1 미리 뿌립니까? 미리?(미리 뿌립니까? 미리?)

103063 #1 게, 미리게. 거게, 저, 비료도 두 번 뿌려야. 저디, 화학비료 뿌리고.(거, 미리. 거, 저, 비료도 두 번 뿌려야. 저기, 화학비료 뿌리고.)

103063 @1 그, 그 그, 싱그기 전. 싱그기 전이마쭈?(그, 그 그, 심기 전. 심기 전에요?)

103063 #1 싱그기 전이. 처음에는 유기질 비료라고 혼 포에 칠백, 칠천 원짜리.(심기 전에. 처음에는 유기질 비료라고 한 포에 칠백, 칠천 원짜리.)

103063 @1 예.(예.)

103063 #1 그거 천 평이면은 스십 포.(그거 천 평이면은 사십 포.)

103063 @1 음.(음.)

103063 #1 거 뿌리곡. 혼 열흘 잇당, 거 뿌렁 로타리 청, 로타리 청 놔두민 납작 할 거 아니라? 그루 후에 또 복합비료, 이런 화학비료. 예, 천 평, 예 혼 평 두 포씩 혼영 스무 포만 해영 뿌리면은, 그 트랙터로 왕 그, 쟁기로 쉼 갈, 고량 내왕 짝 갈아 놔두면, 그, 꼭 그, 이랑에만 그거 싱거 갈 거주.(거 뿌리고. 한 열흘 있다가, 거 뿌려서 '로타리 쳐서', 로타리 쳐서 놔두면 납작할 거 아니라? 그 후에 또 복합비료, 이런 화학비료. 예, 천 평, 예 한 평 두 포씩 해서 스무 포만 해서 뿌리면은, 그 트랙터로 와서 그, 쟁기로 소 갈, 고량 내어서 짝 갈아 놔두면, 그, 꼭 그, 이랑에만 그거 심어 갈 거지.)

103063 @1 아.(아.)

103063 #1 견디 이제는 그 중국 사름덜은, 그 양배추 싱그는, 그 농기가 있어.

(그런데 이제는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양배추 심는, 그 농기가 있어.)

103063 @1 음.(음.)

103063 #1 영 특 찍으면, 들이치면 싱거지곡, 싱거지곡. 그자 손으로 안 혀고.
(이렇게 특 찍으면, 들이치면 심어지고, 심어지고. 그냥 손으로 안 하고.)

103063 @1 음.(음.)

103063 @2 아.(아.)

103063 #1 영 지, 혼 놈 특 찍으면, 여 뚜러멘 혼 놈은 그리 들이치명 싱거지곡,
싱거지고.(이렇게 지, 한 놈 특 찍으면, 여 들러멘 한 놈은 그리 들이치면서 심어지
고, 심어지고.)

103063 @1 아.(아.)

103063 #1 그, 그 기로 행 혼 엇이 싱거, 것덜. 중국 사름덜.(그, 그 기로 해서
한없이 심어, 그것들. 중국 사름들.)

103063 @1 아.(아.)

103063 #1 이 동네 이, 농촌에는 다 할망덜이난.(이 동네 이, 농촌에는 다 할머
니들이니까.)

103063 @2 (웃음).((웃음).)

103063 #1 비료 할 수가, 노이 없어.(비료 할 수가, 노이 없어.)

103063 @1 음.(음.)

103063 #1 중국사름 아니민 농사 못 하게 뵈주게 이제.(중국사름 아니면 농사
못 하게 뵈지 이제.)

103063 @1 그 외에 양, 양파.(그 외에 양, 양파.)

103063 #1 양파는 자갈왓이라 부난 안 웨어.(양파는 자갈밭이라 버리니까 안 되
어.)

103063 @1 안 웨어마썸?(안 되어요?)

103063 #1 안 웨. 건 즈본이 많이 들고 잘 안 웨. 양파는 안 웨고. 주로 여기는
오십 프로가 브로콜리.(안 웨. 건 자본이 많이 들고 잘 안 웨. 양파는 안 되고. 주로
여기는 오십 프로가 브로콜리.)

103063 @1 음.(음.)

103063 #1 오십 프로가 양배추.(오십 프로가 양배추.)

103063 @1 계난 올힌 양배추만 험수과?(그러니까 올힌 양배추만 하고 있습니
까?)

103063 #1 난, 나이 많은 사름은 양배추만 혀고.(난, 나이 많은 사름은 양배추만
하고.)

103063 @1 예.(예.)

103063 #1 젊은 사름은 브로콜리만 혀곡.(젊은 사름은 브로콜리만 하고.)

103063 @1 예.(예.)

103063 #1 그게 나이 많은 사름은 양, 브로콜리는 툃고 하꼬에 담양, 그, 판매

못 허주게. 그냥. 밭떼기로, 양배추는 신경 혼 이십 일이면 밭떼기깎장 다 풀아 붙
니다.(그게 나이 많은 사람은 양, 브로콜리는 뜯고 상자에 담아서, 그, 판매 못 하
지. 그냥. 밭떼기로, 양배추는 심어서 한 이십 일이면 밭떼기까지 다 팔아 버립니
다.)

103067 @1 옛날엔 식물 농사도 해납디가? 식물.(옛날엔 메밀 농사도 했었나요?
메밀.)

103067 #1 아이고, 허곡말곡. 새밭 갈안.(아이고, 하고말고. 띠밭 갈아서.)

103067 @1 새밭?(띠밭?)

103067 #1 새밭디도 해나고 그냥 일반 밭 농사.(띠밭에도 했었고 그냥 일반 밭
농사.)

103067 @1 새밭 이겨근에.(띠밭 일구어서.)

103067 #1 예 예. 모멸 농사. 그거 우경 산디 허곡.(예 예. 메밀 농사. 그거 일구
어서 밭벼 하고.)

103067 @1 아.(아.)

103067 #1 모멸, 모멸은 혼 동짓, 그제 돼 가야 저, 익어이. 저을 막 짚어야. 모
멸이.(메밀, 메밀은 한 동짓, 그제 돼 가야 저, 익어. 겨울 막 짚어야. 메밀이.)

103067 @1 동지 돼 가야예.(동지 돼 가야.)

103067 #1 예. 익으면은.(예. 익으면은.)

103067 @1 음.(음.)

103067 #1 그거 비영, 모멸 그루에는 의무적으로 꼭 산디라고 나록.(그거 베어
서, 메밀 그루에는 의무적으로 꼭 밭벼라고 벼.)

103067 @1 음.(음.)

103067 #1 그 밭벼. 거 꼭 모멸 그루엔 산디. 최고 좋아.(그 밭벼. 거 꼭 메밀
그루엔 밭벼. 최고 좋아.)

103067 @1 아, 그 모멸 그루를.(아, 그 메밀 그루를.)

103067 #1 산디만.(밭벼만.)

103067 @1 줌 저.(줌 저.)

103067 #1 낫당.(났다가.)

103067 @1 놀렛당.(휴경했다가.)

103067 #1 예. 걸 산, 의무적으로 산디. 모멸 그루에 산디가 질 잘 웨어.(예. 걸
산, 의무적으로 밭벼. 메밀 그루에 밭벼가 제일 잘 되어.)

103067 @1 아.(아.)

103067 #1 산디엔 현 거는 모멸 그루허고 고구마 그루[꼬루]밭권 산디가 안 웨
어낫주.(밭벼라고 하는 거는 메밀 그루하고 고구마 그루밖에 밭벼가 안 되었었지.)

103067 @1 예예. 게, 모멸도 하영 해낫구나양?(예예. 그럼, 메밀도 많이 했었군
요?)

103067 #1 혼, 혼 오, 칠백 평 천 평씩은 모멸도 갈아낫주.(한, 한 오, 칠백 평

천 평씩은 메밀도 갈았었지.)

103067 @1 모물은 어떻 그거 비어당은에 어떻.(메밀은 어떻게 그거 베어다가 어떻게.)

103067 #1 것도 도끼로 두드려.(그것도 도리끼로 두드려서.)

103067 @1 도.(도.)

103067 #1 들류왕, 들류왕.(말려서. 말려서.)

103067 @1 들리왕.(말려서.)

103067 #1 밧디서, 비가 오건 뭐 헛건 혼 이십일 간 달라. 이놈으게.(밭에서, 비가 오건 뭐 헛건 한 이십 일 간 달라. 이것이.)

103067 @1 그자.(그저.)

103067 #1 눈 올 때.(눈 올 때.)

103067 @1 그자 영.(그저 이렇게.)

103067 #1 예, 동지ㄱ장이면 문.(예, 동지까지면 모두.)

103067 @1 비어 낱양.(베어 놓고요.)

103067 #1 비어 낱 내 불면.(베어 놓고 내 버리면.)

103067 @1 내 불민.(내 버리면.)

103067 #1 비 오면은 뉘쌍 들리곡.(비 오면은 뒤집어서 말리고.)

103067 @1 예.(예.)

103067 #1 겐에 들리면 그냥 날 좋은 기간. 혼, 일주일 날 좋으면은. 와삭 들리면은 도끼로 상당히 잘, 가볍게 털어져. 마르민.(그렇게 해서 말리면 그냥 날 좋은 기간. 한, 일주일 날 좋으면은. 와삭 말리면은 도리끼로 상당히 잘, 가볍게 떨어져. 마르면.)

103067 @1 음. 것도 이제 마당에 놔근에 기자.(음. 그것도 이제 마당에 놔서 그냥.)

103067 #1 아, 건 밧디서. 모밀은 밧디서만 장만헐. 명석 깎양.(아, 건 밧에서. 메밀은 밧에서만 장만했어. 명석 깎아서.)

103067 @1 밧디는 그디, 명석 깎아 놔근에.(밭에는 거기, 명석 깎아 놓고서.)

103067 #1 예 예. 모밀은 밧디서만.(예 예. 메밀은 밧에서만.)

103067 @1 아.(아.)

103067 #1 집이서 안 해영. 밧 명석 깎아 낱. 그거를 모밀 체가 엄청 날리주게. 모밀이. 계난 밧디서 아니민 그 체를 불릴 수가 없어. 브름에. 불려야 이제 모밀만 따로 ㄱ져.(집에서 안 하고. 밧 명석 깎아 놓고. 그거를, 메밀 체가 엄청 날리지. 메밀이. 그러니까 밧에서 아니면 그 체를 드릴 수가 없어. 바람에. 드려야 이제 메밀만 따로 가져.)

103067 @1 예.(예.)

103067 #1 모밀은, 이상헌 거라. 체도, 모밀 체도 요, 돛도, 뉘지도 잘 아이 먹고. 모밀낱은 쉼도 아이 먹곡 그냥 내불어. 불살라 불어.(메밀은, 이상한 거라. 겨도,

메밀 겨도 요, 돼지도, 돼지도 잘 아니 먹고. 메밀짚은 소도 아니 먹고 그냥 내버려. 불살라 버려.)

103067 @1 아.(아.)

103067 #1 쉼도 안 먹어 모멸. 채도.(소도 안 먹어 메밀. 겨도.)

103067 @1 아. (웃음). 경 허난 밧디서 흐는 거구나양.(아. (웃음). 그러니까 밧에서 하는 거군요.)

103067 #1 밧디서. 응.(밧에서. 응.)

103067 @1 아깝지 않으난.(아깝지 않으니까.)

103067 #1 아깝지 않아.(아깝지 않아.)

103067 @1 예. 게 그것도 가정 오민 마레에.(예. 그럼 그것도 가져 오면 맷돌에.)

103067 #1 아이고, 마레. 마레에 두불 시불 곶아 가면, 아, 건 여인들이 마는다. 아지망덜이 마는다.(아이고, 맷돌. 맷돌에 두벌 세벌 곶아 가면, 아, 건 여인들이 가는데. 아주머니들이 가는데.)

103067 @1 예.(예.)

103067 #1 아내들이 마는다. 그냥 겨울 내냥 그 마레만 곶아. 그 모물 헤영.(아내들이 가는데. 그냥 겨울 내내 그 맷돌만 곶아. 그 메밀 해서.)

103067 @1 모물.(메밀.)

103067 #1 쌀 만들엉 강 풀아. 건 먹진 안 허곡 장에 강 푸는 거라.(쌀 만들어서 가서 팔아. 건 먹진 안 하고 장에 가서 파는 거야.)

103067 @1 푸는 걸로양.(파는 걸로요.)

103067 #1 으, 오일장에 강. 지영 강.(으, 오일장에 가서. 지고 가서.)

103067 @1 아.(아.)

103067 #1 겨울 내냥 그 모멸. 망텡이로 혼 열 석씩 하여 온 걸, 그걸 겨울 내냥 곶아. 강 풀지.(겨울 내내 그 메밀. 망태기로 한 열 석씩 하여 온 걸, 그걸 겨울 내내 곶아. 가서 팔지.)

103067 @1 게민.(그러면.)

103067 #1 건, 그눔으게 곶앗당 아래 나오민 또 일엇당 또 올려 거 마루 나오민. 그 쌀 멘들젠 허면. 또 치곡 치곡.(건, 그눔이 곶았다가 아래 나오면 또 일었다가 또 올려 거, 가루 나오면. 그, 쌀 만들려고 하면. 또 치고, 치고.)

103067 @1 음.(음.)

103067 #1 멧 불 해야 모멸쌀이 나.(멧 벌 해야 메밀쌀이 나.)

103067 @1 모멸로 무시거 해 먹어났수과?(메밀로 뭐 해 먹었었습니까?)

103067 #1 모멸로. 이 빙떡게. 마를 헤영.(메밀로. 이 '빙떡'. 가루 해서.)

103067 @1 예, 빙떡.(예, '빙떡'.)

103067 #1 빙떡. 묵.(‘빙떡’. 묵.)

103067 @1 묵. 묵.(묵. 묵.)

103067 #1 허곡 모밀죽은 환자덜이나 먹지.(하고 메밀죽은 환자들이나 먹지.)
103067 @1 아.(아.)
103067 #1 잘 안 먹곡.(잘 안 먹고.)
103067 @1 모밀죽은.(메밀죽은.)
103067 #1 그건 주로 빙떡 허고, 제사 때 빙떡 허고.(건 주로 ‘빙떡’ 하고, 제사 때 빙떡 하고.)
103067 @1 음.(음.)
103067 #1 찌시 모밀궤로 범벅 허영 먹고.(다시 메밀가루로 범벅 해서 먹고.)
103067 @1 예, 범벅.(예, 범벅.)
103067 #1 범벅 해영 먹곡.(범벅 해서 먹고.)
103067 @1 감저 농곡 헤근에.(고구마 넣고 해서.)
103067 #1 감저 농곡 모밀퐁벅.(고구마 넣고 메밀퐁벅.)
103067 @1 예 예.(예 예.)
103067 #1 그 모밀퐁벅이엔 흔 거 있어. 옛날부터.(그 메밀퐁벅이라고 하는 거 있어. 옛날부터.)
103067 @1 예 예.(예 예.)
103067 #1 그, 가난헌 사름덜.(그, 가난한 사람들.)
103067 @1 맞수다.(맞습니다.)
103067 #1 거, 범벅 해영 먹곡 빙떡 해영 먹곡.(거, 범벅 해서 먹고 빙떡 해서 먹고.)
103068 @1 담배농사도 헤납디가?(담배 농사도 했었나요?)
103068 #1 아이, 그런 건 안 허고.(아이, 그런 건 안 하고.)
103068 @1 안 허고양. 응. 아이고, 이 농사. 다 헛는데. (웃음).(안 하고요. 응. 아이고, 이 농사. 다 헛는데. (웃음).)
103068 @2 (웃음).((웃음).)
103068 @1 다른 농사는 무신 거 헤납디가? 이, 그런 거 말양. 배추 농사도 헤납 디가?(다른 농사는 무슨 거 했었나요? 이, 그런 거 말고. 배추 농사도 했었나요?)
103068 #1 배추도 안 헤나고. 난 저.(배추도 안 했었고. 난 저.)
103068 @1 무 농사, 늣삐도 안 헤나고마썸?(무 농사, 무도 안 했었고요?)
103068 #1 늣삐는 계약재배.(무는 계약재배.)
103068 @1 헤납디가?(했었습니까?)
103068 #1 헤낫어.(했었어.)
103068 @ 아.(아.)
103068 #1 흔 이천 평. 그 계약재배 허는 사름이 쭉 있었어. 늣삐.(한 이천 평. 그 계약재배 하는 사름이 쭉 있었어. 무.)
103068 @1 아.(아.)
103068 #1 그 저디, 것 저, 씨 뿌령 놔 두면은, 그 나면은 늣삐가 이만이 클 거

아니라? 한 이천 평 허면은. 이 늪밭 공장이 있어. 저기.(그 저기, 것 저, 씨 뿌려서
놔 두면은, 그 나면은 무가 이만이 클 거 아니라? 한 이천 평 허면은. 이 무 공장이
있어. 저기.)

103068 @1 예.(예.)

103068 #1 늪밭 그, 세척, 그 상인덜이 그, 저 저, 상인, 늪밭 공장 사장, 전주
아지망이라고 해서, 그 열리왔디 큰 사장이 있는데. 거기서 계약재배 허면은 지대
로, 우린 돈만 나오민, 인부덜 뽑아다 가지고 세척행 육지로 보내어. 늪밭 공장.(무
그, 세척, 그 상인들이 그, 저 저, 상인, 무 공장 사장, 전주 아주머니라고 해서, 그
'열리왔'에 큰 사장이 있는데. 거기서 계약재배 하면은 지대로, 우린 돈만 나오면,
인부들 뽑아 가지고 세척해서 육지로 보내어. 무 공장.)

103068 @1 아.(아.)

103068 #1 지금도 저디, 작년7장은 늪밭 계약재배 저, 지금 농협, 농협조합장
허더라고마는. 올힌 조합장 뉘 부난 안 허는 모양이라.(지금도 저기, 작년까지는 무
계약재배 저, 지금 농협, 농협조합장 하고 있지마는. 올힌 조합장 뉘 버리니까 안
하는 모양이라.)

103068 @1 으음.(으음.)

103068 #1 늪밭 공장.(무 공장.)

103068 @1 건 이제 씨 뿌려는데 헤납디가?(건 이제 씨 뿌려서 했었습니까?)

103068 #1 늪밭 씨도, 것도 저 가을에 뿌려야지.(무 씨도, 그것도 저 가을에 뿌
려야지.)

103068 @1 그냥?(그냥?)

103068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68 @1 무시걸로마씀? 그냥?(무엇으로요? 그냥?)

103068 #1 것도 이랑에만 영 줄. 바우로.(그것도 이랑에만 이렇게 줄. 옆으로.)

103068 @1 바, 밭 갈양은에.(바, 밭 갈아서.)

103068 #1 예. 밭 갈양 이렇더레만.(예. 밭 갈아서 이랑에만.)

103068 @1 이랑에만.(이랑에만.)

103068 #1 예.(예.)

103068 @1 툭툭 툭툭.(툭툭 툭툭.)

103068 #1 툭툭. 게면은.(툭툭. 그러면은.)

103068 @1 아.(아.)

103068 #1 이제 늪밭 씨 뿌리는 기계가 나왔어. 저디 저디, 요 기계.(이제 무 씨
뿌리는 기계가 나왔어. 저기 저기, 요 기계.)

103068 @1 음.(음.)

103068 #1 요만이 현 기계로 씨 낵, 영 영 경운기 식으로 밀려가면 다 씨 뿌려
지고.(요만이 한 기계로 씨 놓고, 이렇게, 이렇게 경운기 식으로 밀려가면 다 씨 뿌
려지고.)

103068 @1 으음.(으음.)

103068 #1 아, 이 동네 작년 7장은 늪배 계약재배 많이 했어.(아, 이 동네 작년까지는 무 계약재배 많이 했어.)

103068 @1 음.(음.)

103068 #1 흔 사름이 흔 이천 평, 천 평씩.(한 사람이 한 이천 평, 천 평씩.)

103068 @1 음. 갱 혜영 내 불민 그자 그, 그디서 왕 그자 다.(음. 그렇게 해서 내 버리면 그저 그, 거기서 와서 그저 다.)

103068 #1 예. 이 겨울에 그냥 그 뭐.(예. 이 겨울에 그냥 그 뭐.)

103068 @1 특별히 헐 일은 엇구나?(특별히 헐 일은 없구나?)

103068 #1 빨리 커, 커가 부난 검질도 아니 허고. 그자, 비료만 많이 줘 놔 두면은 이만이 자라주게.(빨리 커, 커 가 버리니까 김도 아니 하고. 그저, 비료만 많이 줘서 놔 두면은 이만이 자라지.)

103068 @1 예, 예.(예, 예.)

103068 #1 케민 흔 겨울에 그놈으 것, 그 상인이, 무 공장 상인이. 놉덜 그 인분이만이 헐 때도.(그러면 한 겨울에 그것, 그, 상인이, 무 공장 상인이. 놉들 그, 인분이만이 할 때도.)

103068 @1 음.(음.)

103068 #1 흔 열명씩 드려당 뽕앙, 차로 시건 강 해서 걸 육지로 다 보낸. 지, 우 사장이엔 헐 사름이 잇는다.(한 열명씩 데려다가 뽕아서, 차로 실어 가서 해서 걸 육지로 다 보냈어. 지, 우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잇는데.)

103068 @1 하이고, 고맙수다. 이 저, 농사 애긴 오늘 요걸로 흐고양. 다음엔 쉼질루와난 얘기허고, 툐 질루와난 얘기 흐끔 영.(하이고, 고맙습니다. 이 저, 농사 애긴 오늘 요걸로 하고요. 다음엔 소 길렀던 얘기하고, 말 길렀던 얘기 조금 이렇게.)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1 오늘은 그, 쉼 질루아난 얘기부떠.(오늘은 그, 소 길렀던 얘기부떠.)

104001 #1 예, 예.(예, 예.)

104001 @1 허쿠다. 예, 어떤, 멧 머리나 질루아낫수과?(하겠습니까. 예, 어떤, 멧 마리나 길렀었습니까?)

104001 #1 그, 처음에 여기는 그, 밧 가는 소 엇영은 살 수 엇어마썸. 농사지을 수가 없어서.(그, 처음에 여기는 그, 밧가는 소 없어서는 살 수 없어요. 농사지을 수가 없어서.)

104001 @1 예.(예.)

104001 #1 예, 궂 결혼혜 가지고 허면은 이제, 쉼영 저런 저, 잠대영 준비를 혜

야 뵈 건디. 예, 부모네가 송아지를, 어린 송아지를 두 마릿 물려주어서.(예, 갓 결혼 해 가지고 하면은 이제, 소와 저런 저, 쟁기를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예, 부모네가 송아지를, 어린 송아지를 두 마릿 물려주었어.)

104001 @2 음.(음.)

104001 #1 갓 결혼하니까. 아, 이젠, 어린, 두 슬짜리 송아지로, 두 마리로 밧을 갈 수가 었어. 네 설 돼야 그때 밧을 가니까. 아, 이제 그걸 한 스물다섯 쯤에, 만 원씩인가 하나에. 풀안. 저, 이 동네 농사짓던 사람이 그때에 제주시에 문막, 쉼영 다 3정 간. 이제 시에, 시에, 이주 간. 이 동네 사람이 이주 간에, 그 밧 가는 소도 3치 3정 가 붙어 가지고. 이제는 그걸 풀젠. 아, 이젠 잘돼었다고. 송아지 두 개 풀고. 그걸 이만 오천 원인가. 그때 그 큰 쉼에, 밧가는 쉼을 사 가지고. 시에서 몰안 왔지.(갓 결혼하니까. 아, 이젠, 어린, 두 살짜리 송아지로, 두 마리로 밧을 갈 수가 없어. 네 살 돼야 그때 밧을 가니까. 아, 이제 그걸 한 스물다섯쯤에, 만 원씩인가 하나에. 팔았어. 저, 이 동네 농사짓던 사람이 그때에 제주시에 모두, 소와 다 가지고 갔어. 이제 시에, 시에, 이주 갔어. 이 동네 사람이 이주 가서, 그 밧가는 소도 같이 가져 가 버려 가지고. 이제는 그걸 팔겠다고. 아, 이젠 잘되었다고. 송아지 두 개 팔고. 그걸 이만 오천 원인가. 그때 그 큰 소에, 밧가는 소를 사 가지고. 시에서 몰고 왔지.)

104001 @1 음.(음.)

104001 #1 그때 보난 도남이라, 도남. 그 사람이, 지금 도남이 엄청 발전 됐는데, 한 천 평짜리 땅을 이 디 땅 값으로 사십디다게. 평 당 오천 원에 쯤. 산에 이제, 그디 간 이제 쉼을 몰안 완, 이젠 걸로 농사를 짓다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소밭기는 돈 날 게 었어났어, 소밭기는. 예, 한 세 슬짜리 농사, 저, 밧 아이 가는 송아지를 사다가. 이젠, 밧가는 소는 큰 소 아니우짜. 두, 두 마리를 질좌. 해년마다. 아, 그래, 상당히 얼먹었습니다. 그 때문에. 겨울 돼면은 그 마장동에 쉼, 이 그, 제주도 쉼들이 다.(그때 보니까 도남이라, 도남. 그 사람이, 지금 도남이 엄청 발전 됐는데, 한 천 평짜리 땅을 여기 땅 값으로 샀더라고요. 평 당 오천 원에 주고. 사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소를 몰고 와서, 이젠 걸로 농사를 짓다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소밖에는 돈 날 게 없었어, 소밖에는. 예, 한 세 살짜리 농사, 저, 밧 아니 가는 송아지를 사다가. 이젠, 밧가는 소는 큰 소 아닙니까? 두, 두 마리를 질러. 해년마다. 아, 그래, 상당히 얼먹었습니다. 그 때문에. 겨울 되면은 그 마장동에 소, 이 그, 제주도 소들이 다.)

104001 @1 올라강.(올라가서.)

104001 #1 다 슬췌들 강 풀아서. 이 동네선. 전부, 마장동 올라가는 소 장서도, 이 동네도 여러가 있어. 한 댓 머리, 여남은 머리 시경 올라강, 슬췌 소덜이 영. 경 폭는다. 그거 겨울 들어[뜰어]야 그걸, 한 보리 간 후에야, 걸 막 죽 췌, 콩죽 췌명 햅영 그, 큰 췌를 막 슬지왕 햅면은, 이 삼월 돼면은 그걸 푹주게. 돈 많이 받았, 풀면은. 나머지는 세 설짜리 췌가 있어. 이놈으 거를 또, 밧 가는 걸 3르쳐야 돼. 구

루마질 허고. 하이고, 이디 가민 저디 바리메⁷⁷⁾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새 췌 ㄹ르 치젠 허면은, 진 낭 혜영 그, 저, 꾀엥 와.(다 비육우들 가서 팔았어. 이 동네선. 전부, ‘마장동’ 올라가는 소 장수도, 이 동네도 여럿이 있어. 한 댓 마리, 여남은 마리 싣고 올라가서, 살진 소들이 이렇게. 그렇게 파는데. 그거 겨울 들어서야 그걸, 한 보리 간 후에야, 걸 막 죽 쭈어서, 콩죽 쭈면서 해서 그, 큰 소를 막 살찌워서 하면은, 이삼 월 되면은 그걸 팔지요. 돈 많이 받고서, 팔면은. 나머지는 세 살짜리 소가 있어. 이놈의 거를 또, 밧가는 걸 가르쳐야 돼. 마차 끄는 일 하고. 하이고, 여기 가면 저기 ‘바리메’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새 소 가르치려고 하면은, 긴 나무 해서 그, 저, 끌고 와.)

104001 @2 음.(음.)

104001 #1 그, 큰 낭 혜영 췌 따리멍 그 새 췌. 경혜야 그 췌가 멩에가 특이 나 가지고. 꾀엥 왕 허면은. 저기 노는 밧덜 이시민. 그때는 집집마다 새 췌 ㄹ리치는 거라. 밧에덜 강.(그, 큰 나무 해서 소 때리면서 그 새 소. 그렇게 해야 그 소가 멩에가 특이 나 가지고. 끌고 와서 하면은. 저기 노는 밧들 있으면. 그때는 집집마다 새 소 가르치는 거라. 밧해서들 가서.)

104001 @2 음.(음.)

104001 #1 페라운⁷⁸⁾ 거 싣고, 막 쉬운 거 있어, 막 새 췌들이. 그걸 허영 ㄹ르 청. 또 일 년간 농사 지으면은 또 클 거 아니파게, 그 췌가. 크면은 또, 그 저 여름 나면은 또, 또 세 살 짜리 또 사. 그건 노내기로 혜영 질루당. 그걸 교체허는 거라. 항상.(‘페라운’ 거 있고, 막 쉬운 거 있어, 막 새 소들이. 그걸 해서 가르쳐서. 또 일 년간 농사 지으면은 또 클 거 아닙니까, 그 소가. 크면은 또, 그 저, 여름 나면은 또, 또 세 살짜리 또 사. 그건 ‘노내기’로 해서 기르다가. 그걸 교체하는 거라. 항상.)

104001 @1 음.(음.)

104001 #1 그 흐젠 허면은, 얼마나 얼먹어. 새 췌 ㄹ르치느라고. 어떤 거는 밧갈 레 가당 그, 우리 집사름은 아기 업고 흐영 그 췌를 이꺼야 돼. 그 새 췌, 이끄당. 이놈의 췌들이 싣 기가 있어 가지고 도, 들어가는 도는 멜라져 있어, 밧디. 그디만 가민 막 들러왕 도망치젠 흐면은, 그 코 꿩영 좁아지면 카, 그, 그거, 그, 저, 곱딱 일어나지 안허민. 흐고, 옛날에는 그 새 췌 ㄹ르치젠 허면은, 그런 그 아주 힘든 췌는 불로 지정ㄹ장 힘 주영 일어나질 안혀. ㄹ딱.(그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얼먹어. 새 소 가르치느라고. 어떤 거는 밧 갈러 가다가 그, 우리 집사람은 아기 업고 해서 그 소를 이끌어야 돼. 그 새 소, 이끌다가. 이놈의 소들이 싣 기가 있어 가지고 ‘도’, 들어가는 ‘도’는 허물어져 있어, 밧에. 거기만 가면 막 달려와서 도망치려고 하면은, 그 코 꿩어서 잡아지면 카, 그, 그거, 그, 저, 까딱 일어나지 않으면. 하고, 옛날에는 그 새 소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런 그, 아주 힘든 소는 불로 지지면서까지.

77) ‘바리메’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평화로변에 있는 오름이다. 바리매를 얹어 놓은 형태임.

78) ‘페랄다’는 성질이 신경질적이고 사납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힘주어서 일어나질 않아. 까딱.)

104001 @1 으음.(으음.)

104001 #1 경혜연 이제, 그렇게 살다가. 그 한 이십 년은 그렇게 살았던 거 같아. 경혜연 이젠, 경운기가 나니까, 밭 가는 소가 필요가 없어.(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그 한 이십 년은 그렇게 살았던 거 같아. 그렇게 해서 이젠, 경운기가 나니까, 밭가는 소가 필요가 없어.)

104001 @1 음.(음.)

104001 #1 이젠 암쇠가 돈이, 사끼 나민 돈 벌 거. 전부 밭가는 소는 팔아 두고 암쇠를 질루기 시작한 거라. 암쇠 질루왕 일 년에 새끼 하나 나면, 그때 한 백만원, 오십만원.(이젠 암소가 돈이, 새끼 나면 돈 벌 거. 전부 밭 가는 소는 팔아 두고 암소를 기르기 시작한 거라. 암소 길러서 일 년에 새끼 하나 나면, 그때 한 백만원, 오십만원.)

104001 @1 음.(음.)

104001 #1 이렇게 받으면은 큰 돈을 벌었지. 견디, 쇠가 영 허면, 암송아지 나면은 또 질루왕, 또 그것도 새끼 나꼭 허면은, 한 서너 네 개, 댓 개 되면은. 이걸 어떻게 암쇠를 질루느냐면은 그, 여름에는 농사철이 저, 유월절이 들면은 더워 가지고 아래, 쇠를, 그때는 못 질롭디다. 프리 허고 더워 가지고. 못 질루는디. 저 목장에, 저 육소장 흘축밭이엔 한 목장에 가 가지고, 해 가지고 쇠 보는 사람이 있어. 암쇠만. 한 사백 두 받아 가지고. 이제 값을 주고 혜영 허면은. 그디 강, 송아지, 금송 송아지는 돈 아이 받고, 두 살짜리부터 큰 쇠,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거기 강 부찌면은, 참 즈미나게, 즈미나십주. 쇠 한 삼 사백 두면은, 그 흘축밭이엔 한 디가 막 너르니까. 그 목감이엔 한 거 있지 안허우짜, 그, 돈 받았 쇠보는 사람이.(이렇게 받으면은 큰 돈을 벌었지. 그런데, 소가 이렇게 하면, 암송아지 나면은 또 길러서, 또 그것도 새끼 나고 하면은, 한 서너 네 개, 댓 개 되면은. 이걸 어떻게 암소를 기르느냐면은 그, 여름에는 농사철이 저, 유월절이 들면은 더워 가지고 아래, 소를, 그때는 못 기롭디다. 파리 하고 더워 가지고. 못 기르는데. 저 목장에, 저 육소장 ‘흘축밭’이라고 하는 목장에 가 가지고, 해 가지고 소 보는 사람이 있어. 암소만. 한 사백 두 받아 가지고. 이제 값을 주고 해서 하면은. 거기 가서, 송아지, 하룻 송아지는 돈 아니 받고, 두 살짜리부터 큰 소,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거기 가서 붙이면은, 참 재미나게, 재미났지요. 소 한 삼 사백 두면은, 그 ‘흘축밭’이라고 하는 데가 막 너르니까. 그 목감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돈 받아서 소 보는 사람이.)

104001 @1 음, 음.(음, 음.)

104001 #1 그, 쇠를 막 많이 모집을 해. 이 부근 쇠가 모자르면, 주로 모슬포, 대정 쇠들을 많이 그레 모집 해 가지고 허면은. 그때에 꼭 진드기가.(그, 소를 막 많이 모집을 해. 이 부근 소가 모자라면, 주로 모슬포, 대정 소들을 많이 거기로 모집 해 가지고 하면은. 그때에 꼭 진드기가.)

104001 @1 예.(예.)

104001 #1 엄청나. 여름에. 그 십오 일에 혼 번 썩 진드기 약을 해야 돼. 이 저, 진드기 약 흐젠 하면은 사람이 혼 십 오명이 들어가야 돼.(엄청나. 여름에. 그 십오 일에 한 번씩 진드기 약을 해야 돼. 이 저, 진드기 약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한 십 오명이 들어가야 돼.)

104001 @1 예.(예.)

104001 #1 혼 이십 명이. 경 혜영 진드기장이엔 현 것도 그거 목장 임대같이. 우리 저, 삼 리 공동목장이니까. 봉성, 광지, 금성 공동 목장. 엄청난 목장이난. 진드기장도 다 지어졌주게, 수도도 있고. 계면은 그 자왈 소굽에 그 꿩밀오름 그, 꽃자왈⁷⁹⁾ 소굽에 들어간 쉼들을 전부 내쳐야 돼. 진드기장더래 모아 놓젠 허민 혼 이십명이 강, 그 즈미나게 혜영 쉼덜을 몰아 왕, 진드기장에 다 갠형.(한 이십 명이. 그렇게 해서 ‘진드기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 목장 임대같이. 우리 저, 삼 리 공동 목장이니까. 봉성, 광지, 금성 공동 목장. 엄청난 목장이니까. 진드기장도 다 지어졌지, 수도도 있고. 그러면은 그 ‘자왈’ 속에 그 ‘꿩밀오름’ 그, ‘꽃자왈’ 속에 들어간 소들을 전부 내쳐야 돼. 진드기장으로 모아 놓으려고 하면 한 이십 명이 가서, 그 재미나게 해서 소들을 몰아 와서, 진드기장에 다 가두어.)

104001 @2 음.(음.)

104001 #1 영 혜영 진드기 약 허는데, 경운기로 강 약을 다 흡주게.(이렇게 해서 진드기 약 허는데, 경운기로 가서 약을 다 하지요.)

104001 @1 으음.(으음.)

104001 #1 경운기로 강 약을 허는디. 그 날은 그 목감이, 그거 돈 버는 사람이 난. 끈밥 막 혜영 그 각시덜이 올라 가곡, 득 멧 머리 잡양 숲양 올라강 그 사람덜을 다 대접을 헤여.(경운기로 가서 약을 허는데. 그 날은 그 목감이, 그거 돈 버는 사람이니까. 흰밥 막 해서 그 각시들이 올라가고, 닭 몇 마리 잡아서, 삶아서,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다 대접을 해.)

104001 @2 음.(음.)

104001 #1 경 안 허민, 돈 아이 반양 허는 거니까게. 허고 쉼 임제덜이니까.(그러지 않으면 돈 아니 받고 하는 거니까. 하고 소 임자들이니까.)

104001 @1 아이고.(아이고.)

104001 #1 이녀 쉼가 진드기 약 허는디 돈은 아이 반곡 그냥 그 동네 사람덜 **허쟁 허는디. 그때 그런 세월이 예, 오래 헛주. 그게 암쉼 혜영 세월이 오래 흥단 예. 아, 이놈의 게, 이제는, 갑자기 쉼가 이, 트랙타 나고 흥는 브름에, 쉼가 질루단 다 설러 불언.(이녀 소가 진드기 약 허는데 돈은 아니 받고 그냥 그 동네 사람들 ** 하려고 허는데. 그때 그런 세월이 예, 오래 헛지. 그게 암소 해서 세월이 오래 하다가. 아, 이놈의 게, 이제는, 갑자기 소가 이, 트랙터 나고 하는 바람에, 소가, 기르다가 다 그만두어 버렸어.)

104001 @1 (웃음). 예.((웃음). 예.)

79) ‘꽃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이다.

104001 #1 암쉐덜도. 질루단.(암소들도. 기르다가.)

104001 @2 음.(음.)

104001 #1 또, 저, 그 축산업, 축산업이 대대로 대로 허곡. 이제 쉼 보는 사람도 엇곡 허난. 이거, 비육, 그 사업이 나니까. 이 마을에도. 이거 스백 호주마는 흐지만 흐 두 사람쭈 쉼 질러.(또, 저, 그 축산업, 축산업이 대대로, 대대적으로 하고. 이제 소 보는 사람도 없고 하니. 이거, 비육, 그 사업이 나니까. 이 마을에도. 이거 사백 호주마는 하지만 한 두 사람쭈 소 질러.)

104001 @2 으음.(으음.)

104001 #1 그 사람덜은 대대적으로 흐 이삼 백 머리씩 축사 지어 가지고.(그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한 이삼 백 마리씩 축사 지어 가지고.)

104001 @1 음.(음.)

104001 #1 지금도 축사 지언 햄수다마는. 경흐난 쉼들이 필요 없으니까. 다 헤 단에 이제는, 기계화로 이제는 농서만 짓는 게.(지금도 축사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러니까 소들이 필요 없으니까. 다 하다가 이제는, 기계화로 이제는 농사만 짓는 게.)

104001 @1 음.(음.)

104001 #1 유채, 맥주보리만 심고, 쉼은 필요 엇고. 그런 쉼 질루는 사람은 지금 까지도 저, 아이들 질루와, 흐 멧 사람 이 동네.(유채, 맥주보리만 심고, 소는 필요 없고. 그런, 소 기르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저, 아이들 질러, 한 멧 사람, 이 동네.)

104001 @1 멧 사람.(멧 사람.)

104001 #1 요 집이 사람도. 뭐. 백 머리 질루암수다마는. 바로 요딧 사람.(요 집 의 사람도. 뭐. 백 마리 기르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요기 사람.)

104001 @1 백 머리?(백 머리?)

104001 #1 백 머리 질루암서.(백 머리 기르고 있어.)

104001 @1 아.(아.)

104001 #1 겐디 그렇게 이제 예, 흐 암쉐 질루문, 질루면서 돈 받았 쓰는 건. 기 자, 흐 이십 년간 그렇게 질러수다게.(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 한 암소 기르면, 기르 면서 돈 받아서 쓰는 건. 그저, 한 이십 년간 그렇게 길렀습니다.)

104001 @1 음.(음.)

104001 #1 밧갈쉼⁸⁰만 허단 흐 이십년. 경운기 나니까 이제 암쉐만.(‘밧갈쉼’만 하다가 한 이십 년. 경운기 나니까 이제 암소만.)

104001 @1 음.(음.)

104001 #1 흐 이십 년 허영, 송아지, 부룽이 나민 풀곡, 암송아지 나민 질르고 흐면. 흐 멧 마리도 뉘곡, 요즘엔 목장에 올령. 즈미지게 헤나신디.(한 이십 년 헤 서, 송아지, 부룽소 나면 팔고, 암송아지 나면 기르고 하면. 한 멧 마리도 되고, 여 름엔 목장에 올려서. 재미지게 했었는데.)

80) ‘밧갈쉼’는 밭을 가는 데 부리는 소이다.

104001 @1 저기 쉼막이라났수과?(저기 외양간이었습니까?)

104001 #1 예, 저거 쉼막이라났지.(예. 저거 외양간이었었지.)

104001 @1 예.(예.)

104001 #1 저거. 저거.(저거. 저거.)

104001 @1 꺾사 잠대 잇어난 디?(아까 쟁기 있었던 데?)

104001 #1 예, 예. 그디. 쉼막이.(예, 예. 거기. 외양간이.)

104002 @1 쉼은 털 색깔이나, 빨 모양 가정은에 그 쉼 종류가 다르지 안허우
파? 무시거 무신 쉼, 무신 쉼 흥영.(소는 털 색깔이나, 빨 모양 가져서 그, 소 종류
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 무슨 소, 무슨 소 해서.)

104002 #1 그때는 저, 그 암쉼 질를 때는 그, 토종은 별로 웃고, 브라마라고.(그
때는 저, 그 암소 기를 때는 그, 토종은 별로 없고, '브라마'라고.)

104002 @1 으음.(으음.)

104002 #1 그, 어디 호주선가 미국선가 들어온 쉼. 그거 커마썸.(그, 어디 호주
선가 미국선가 들어온 소. 그거 커요.)

104002 @1 으음.(으음.)

104002 #1 크곡, 그게 새끼도 막 크게 낳곡, 또 출도 잘 먹곡 흥연.(크고, 그게
새끼도 막 크게 낳고, 또 풀도 잘 먹고 했어.)

104001 @1 음.(음.)

104002 #1 그거 브라마라고 혼디, 빨도 이만이 크고. 그게 거친 거썸은 사름도
위험흥여.(그거 브라마라고 하는데, 빨도 이만이 크고. 그게 거친 거썸은 사름도 위
험해.)

104002 @1 으음.(으음.)

104002 @2 맞수다.(맞습니다.)

104002 #1 근디 우리도 그 브라마 놈안티, 쉼 장시허는 사름안티 속아 가지고
암쉼을 샅다가. 더큰 얼먹어나십주.(그런데 우리도 그 브라마 놈한테, 소 장사 하는
사람한테 속아 가지고 암소를 샅다가. 되게 얼먹었었지요.)

104001 @1 음.(음.)

104002 #1 그, 브라마.(그, '브라마'.)

104002 @1 그거 나오기 전엔, 어떤 종류들 이수가? 쉼 종류?(그거 나오기 전엔,
어떤 종류들 있습니까? 소 종류?)

104002 #1 저디, 쉼타엔 흰 거. 빨경헌 거. 그게 최고. 빨도 엇은 거. 빨경헌 쉼
계.(저기, '쉼타'라고 하는 거. 빨간 거. 그게 최고. 빨도 없는 거. 빨건 소.)

104002 @1 으음.(으음.)

104002 #1 그거는 고깃소로 엄청 좋아났수다.(거는 고깃소로 엄청 좋았었습니
다.)

104002 @1 그 빨경헌 거?(그 빨건 거?)

104002 #1 빨경헌 거.(빨건 거.)

104002 @1 그다음?(그다음?)
 104002 #1 그다음은, 주로 센타, 브라마. 센타. 브라마가 주로 했주. 브라마가.
 (그다음은, 주로 센타, 브라마. 센타. 브라마가 주로 했지. 브라마가.)
 104002 @1 토종, 우리 토종 췌?(토종, 우리 토종 소?)
 104002 #1 토종은 별로 없고.(토종은 별로 없고.)
 104002 @1 토종 췌 종류마씀, 어떤 췌?(토종 소 종류요, 어떤 소?)
 104002 #1 토종은 게, 저, 흑췌가, 거명한 췌가 있고.(토종은 게, 저, ‘검은췌’가,
 거명한 소가 있고.)
 104002 @1 흑췌?(검은췌?)
 104002 #1 응. 거명한 췌. 검은췌.(응. 거명한 소. 검은췌.)
 104002 @1 거명한 췌, 으음?(검은 소, 으음?)
 104002 #1 딱시, 저, 노랑췌. 황 밧갈췌엔 하지.(또, 저, ‘노랑췌’. 황 ‘밧갈췌’라
 고 하지.)
 104002 @1 황 밧갈췌?(황 밧갈췌?)
 104002 #1 노란 췌. 또 숙췌⁸¹⁾라고 있어. 토종.(노란 소. 또 ‘숙췌’라고 있어. 토
 종.)
 104002 @1 숙췌?(숙췌?)
 104002 #1 범췌라고. 얼룩덜룩한 거.(‘범췌’라고. 얼룩덜룩한 거.)
 104002 @1 아, 얼룩 얼룩한 거 숙췌.(아, 얼룩 얼룩한 거 ‘숙췌’.)
 104002 @2 아. 숙췌.(아. ‘숙췌’.)
 104002 #1 숙췌. 겐디, 게, 일도 잘하고, 썸도 기자 숙췌디.(‘숙췌’. 그런데, 게,
 일도 잘하고, 썸도 그저 ‘숙췌’데.)
 104002 @1 아.(아.)
 104002 #1 페라와. 숙췌. 옛날부터 숙췌씨, 송게 씨 하지 말렌 해났어. 숙췌 씨
 송게 씨가 페랍넨.(‘페라와’. ‘숙췌’. 옛날부터 ‘숙췌’ 씨, 송가 씨 하지 말라고 했었
 어. ‘숙췌’ 씨 송씨가 ‘페랍’다고.)
 104002 @2 송게 씨?(송가 씨?)
 104002 #1 송 씨. 송 씨보고 페랍넨 해났어. 옛날 조상들이.(송씨. 송씨 보고 ‘페
 랍’다고 했었어. 옛날 조상들이.)
 104002 @1 아.(아.)
 104002 #1 송게 씨, 숙췌 씨. 송게 씨영은 사돈도 하지 말렌.(송씨, ‘숙췌’ 씨. 송
 씨와는 사돈도 하지 말라고.)
 104002 @1 하하.(하하.)
 104002 #1 페랍넨.(‘페랍’다고.)
 104002 @1 페랍넨.(‘페랍’다고.)
 104002 #1 게난, 그 숙췌가 페랍기는 하는데 일은 엄청 잘 해. 지치지도 안하고.

81) ‘숙췌’는 털빛이 흑황색으로 얼룩덜룩한 소이다. 달리 ‘숙췌’, ‘식췌’라고 한다.

슬집도 허고.(그러니까, 그 ‘숙쉐’가 ‘폐랍’기는 한데 일은 엄청 잘해. 지치지도 않고. 살찌기도 하고.)

104002 @1 빨 모양에 따라서도 무시거?(빨 모양에 따라서도 뭐?)

104002 #1 아이고. 그 빨이 뒤터레 자빠진 건 작바기.(아이고. 그 빨이 뒤로 자빠진 건 ‘작바기’.)

104002 @1 작?(작?)

104002 #1 작, 작, 빨작바기.(작, 작, ‘빨작바기’.)

104002 @1 빨작바기.(빨작바기.)

104002 #1 예, 그 빨이. 뒤터레.(예, 그 빨이. 뒤로.)

104002 @2 뒤로, 뒤로, 예.(뒤로, 뒤로, 예.)

104002 #1 자, 그 영, 영 현 거 있어. 그 빨작바기쉐.(자, 그 이렇게, 이렇게 한 거 있어. 그 ‘빨작바기쉐’.)

104002 @1 오.(오.)

104002 #1 그 앞더레 흔 거는, 그, 그냥 보통 쉼덜은 전부 앞더레 휘어지는데.(그 앞으로 한 거는, 그, 그냥 보통 소들은 전부 앞으로 휘어지는데.)

104002 @1 어.(어.)

104002 #1 작바기, 작바기는 음, 저디. 쉼기가 있어 가지고 빨 큰 쉼허고 싸움을 허젠 허면은 저디, 도망치당 또 돌아왕 큰 쉼를 조름으로 왕. 빨작바기 막 그 저 틀.(‘작바기’, ‘작바기’는 음, 저기. ‘쉼기’가 있어 가지고 빨 큰 소하고 싸움을 하려고 하면은 저기, 도망치다가 또 돌아와서 큰 소를 뒤로 와서. ‘빨작바기’ 막 그 저, 틀.)

104002 @1 어.(어.)

104002 #1 빨 대가리로 받아 불면은 작바기가 이기고 흥여났어. 작바기 세 가지고.(빨 머리로 받아 버리면은 ‘작바기’가 이기고 했었어. ‘작바기’ 세 가지고.)

104001 @1 어영.(어영.)

104001 @2 음.(음.)

104001 #1 겐, 그 빨 종류는 과썩헌 것도 있고.(그리고, 그 빨 종류는 곧은 것도 있고.)

104002 @1 빨 하늘러레 영?(빨 하늘로 이렇게?)

104002 #1 예, 그 저 영 우로 것도 있고. 영.(예, 그 저, 이렇게 우로 것도 있고. 이렇게.)

104002 @1 거 이름은 따로 무시거엔 부르진 안헛수과?(거 이름은 따로 뭐라고 부르진 않았습니까?)

104002 #1 천상빨이엔 해 가지고.(‘천상빨’이라고 해 가지고.)

104002 @1 아, 천상빨?(아, ‘천상빨’?)

104002 #1 과썩 우트레 오른 것도 있고. 맨맨, 과썩한 것도 있고, 뒤터레 제껴진 것도 있고.(곧게 위로 오른 것도 있고. 맨맨, 곧은 것도 있고, 뒤로 젖혀진 것도 있

고.)

104002 @1 음.(음.)

104002 #1 겐디 보통으로는.(그런데 보통으로는.)

104002 @1 앞더레 영 곱게 돌아간 것. 그것?(앞으로 이렇게 곱게 돌아간 것. 그것?)

104002 #1 예, 곱게 돌아간 것.(예, 곱게 돌아간 것.)

104002 @1 음. 그건.(음. 그건.)

104002 #1 빨이 그런 게 돈도 더 줘. 빨이 고와 가지고.(빨이 그런 게 돈도 더 줘. 빨이 고와 가지고.)

104002 @1 음. 빨이 고우니까예.(음. 빨이 고우니까요.)

104002 #1 빨이 고와 가지고. 어질고. 빨.(빨이 고와 가지고. 어질고. 빨.)

104002 @1 크흠.(크흠.)

104002 #1 췌도, 그 사름 검사 다 허곡. 눈이, 그 저 고와야 돼. 췌도.(소도, 그 사람 검사 다 하고. 눈이, 그 저, 고와야 돼. 소도.)

104002 @1 예.(예.)

104002 #1 눈이 영 늦인 거는 사름 찢르고. 막, 눈이 곱닥헌 거는 어질고. 사름 영 문직아도 고만 허고. 페라운 거는 발로 차곡. 경 해.(눈이 이렇게 낮은 거는 사람 찢르고. 막, 눈이 고운 거는 어질고. 사람 이렇게 만져도 가만 하고. ‘페라운’ 거는 발로 차고. 그렇게 해.)

104003 @1 계난, 그 부렁이 질룰 땐, 그 밧 가는, 밧갈 때 쓰고 또 마차.(그러니까, 그 부룩소 기를 땐, 그 밧가는, 밧갈 때 쓰고, 또 마차.)

104003 #1 마차 쓰고. 예. 밧갈 때, 마차.(마차 쓰고. 예. 밧갈 때, 마차.)

104003 @1 예, 꺾엉 오고. 또 무시겨 뭐, 췌 밧 툄릴 때나 무시겨 툄릴 때?(예, 끌어 오고. 또 무엇 뭐, 소 밧 밟을 때나 뭐 밟을 때?)

104003 #1 밧 툄리는 거는 암췌로.(밧 밟는 거는 암소로.)

104003 @1 암췌로?(암소로?)

104003 #1 예. 밧갈췌는 저, 밧만 갈아도. 요즘에 이디는 무슨 자갈밧이난예, 밧 아팡 질어. 밧갈췌는.(예. ‘밧갈췌’는 저, 밧만 갈아도. 요즘에 여기는 무슨 자갈밧이니까, 밧 아파서 질어. ‘밧갈췌’는.)

104003 @1 아.(아.)

104003 #1 절면은. 이디 저 부중을 그, 혼 스무 날 농사짓는데, 밧을. 혼 이십일 간 가는데, 혼 유월절 돼기까지. 예, 혼 유월, 만 혼 유월 십 일부터 혼 칠 월 팔 일 까지 밧을 가는데. 이 뭐, 그, 자갈밧이난 췌 밧이 말째인. 췌가 걸질 안헤여. 지청, 밧 아팡.(절면은. 여기 저 ‘부중’을 그, 한 스무 날 농사짓는데, 밧을. 한 이십일 간 가는데, 한 유월절 되기까지. 예, 한 유월, 만 한 유월 십일부터 한 칠월 팔일까지 밧을 가는데. 이 뭐, 그, 자갈밧이니까 소 밧이 말째는. 소가 걸질 았아. 지쳐서, 밧 아파서.)

104003 @1 아.(아.)

104003 #1 경흐면은 쉼 침 주는 사람이 있어. 이디 이 동넨, 그땐 믫을마다.(그러면은 소 침 주는 사람이 있어. 여기 이 동넨, 그땐 마을마다.)

104003 @1 아.(아.)

104003 #1 게난 쉼 자리에 눕져근엿 밧만 같아나면은 침을 주면은 거명흔 피가 나곡. 온 그, 저디, 그, 지레침이라고 주면은 배때기로 주면은, 그, 침을 주어 놔야 목장에 올려. 저쪽쉐라고. 저 술도, 화전도 올리고.(그러니까 소 자리에 눕혀서 발만 같아나면은 침을 주면은 거면 피가 나고. 온 그, 저기, 그, '지레침'이라고 주면은 배로 주면은, 그, 침을 주어 놔야 목장에 올려. '저쪽쉐'라고. 저 술도, 화전도 올리고.)

104003 @1 예.(예.)

104003 #1 중간 목장에도 올리곡. 술도 올리는 사람도 많았지. 술도는.(중간 목장에도 올리고. '술도' 올리는 사람도 많았지. '술도'는.)

104003 @1 음.(음.)

104003 #1 쉼만 뺑 사는 사람덜이난, 여름에.(소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름에.)

104003 @1 음.(음.)

104003 #1 게난 그, 침을 맞형 간 쉼은 출도 잘 먹고. 침을 아니 맞형 간 쉼은 지쳐, 지쳐. 출도 못 먹고.(그러니까 그, 침을 맞혀서 간 소는 풀도 잘 먹고. 침을 아니 맞혀서 간 소는 지쳐, 지쳐. 풀도 못 먹고.)

104004 @1 게난, 그런 용도로만 허고. 소. 게난 궂사, 큰 낭 헤근에 처음에 질 들일 때.(그러니까, 그런 용도로만 하고. 소. 그러니까 아까, 큰 나무 해서 처음에 질들일 때.)

104004 #1 그거 질, 그거 쉼 마르, 새 쉼 마르친다.(그거 제일, 그거 소 가르, 새 소 가르친다.)

104004 @1 마르치.(가르치.)

104004 #1 새 쉼 마르치는 건디. 예. 니 술 돼야, 니 술.(새 소 가르치는 건디. 예. 네 살 돼야, 네 살.)

104004 @1 네 술?(네 살?)

104004 #1 니 술 돼야 새 쉼 마르쳐.(네 살 돼야 새 술 가르쳐.)

104004 @1 음. 니 술.(음. 네 살.)

104004 #1 네 술 돼면은. 다섯 술 돼면은 사실상 팔아 불주게.(네 살 되면은. 다섯 살 되면은 사실상 팔아 버리지.)

104004 @ 예.(예.)

104004 #1 니 술 돼는 봄에, 새 쉼 마르치젠 허면은, 이, 저, 거의 이 동네 거의 다 새 쉼 마르치젠 허면은. 쉼들 톨앙 벵에 혼 요남은이 낭 끄으레 가는 거라.(네 살 되는 봄에, 새 소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 저, 거의 이 동네 거의 다 새 소 가르

치려고 하면은. 소들 몰고 벗에 한 여남은이 나무 끌러 가는 거라.)

104004 @1 예.(예.)

104004 #1 저, 솔도 우에. 그 바리메 옆에. 그 열리렌 헌 디.(저, '솔도' 위에. 그 '바리메' 옆에. 그 '열리'라고 하는 데.)

104004 @2 예, 예.(예, 예.)

104004 #1 열리, 열리렌 흐는 디가 잇는다. 그디 가면은 그, 큰 낭덜, 긴 낭덜 이십주게. 끈어 ㄱ정 그자 저, 아까 멩에. 멩에 잇어, 멩에에 메왕.(‘열리’, ‘열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큰 나무들, 긴 나무들 잇지요. 끊어 가지고 그저 저, 아까 멩에. 멩에 잇어, 멩에에 매어서.)

104004 @1 음.(음.)

104004 #1 그제 뒤에 즐마메면은 그, 꼭 메면은 밧가는 식으로 꺾엉 내려 올 겁주게.(그제 뒤에 잘라메면은 그, 꼭 메면은 밧가는 식으로 끌고 내려오는 거지요.)

104004 @1 음.(음.)

104004 #1 그, 저, 낭을. 그 새 췌 ㄱ르치쟁 허면은. 우선, 멩에 턱을 췌 이, 저, 모가지로 밧을 갈기 때문에. 그 멩에에 그 턱을 들여야 돼. 경 아니 허면은 아과 가지고.(그, 저, 나무를. 그 새 소 가르치려고 하면은. 우선, 멩에 턱을 소 이, 저, 모가지로 밧을 갈기 때문에. 그 멩에에 그 턱을 들여야 돼. 그렇게 아니 하면은 아과 가지고.)

104004 @1 으음.(으음.)

104004 #1 췌가 들러경 못 견더. 막 멩들주게.(소가 날뛰어서 못 견더. 막 멩들지.)

104004 @1 음.(음.)

104004 #1 그 디서 흐, 십오 키로, 십육 키로, 흐 십오 키론 돼여. 그 디서 꺾엉 오젠 허민.(거기서 한, 십오 킬로, 십육 킬로, 한 십오 킬론 되어. 거기서 끌고 오려고 하면.)

104004 @1 아.(아.)

104004 #1 그 디서 그걸 꺾엉, 흐 열흘을 강 꺾엉 와. 매날. 그거, 그, 경해야 멩에 턱이 납주게. 게야 새 췌 저, 노는, 그뎨 농서도 아일 때, 노는 밧 시면은 그 췌덜이, 이 동네 벗에 다 췌들 몰아 강, 잠대, 강 어떤 췌는 도망치곡, 어떤 건 쉽게 흐곡.(거기서 그걸 끌고, 한 열흘을 가서 끌고 와. 매일. 그거, 그, 그렇게 해야 멩에 턱이 나지요. 그래야 새 소 저, 노는, 그뎨 농사도 아니 할 때, 노는 밧 있으면은 그 소들이, 이 동네 벗에 다 소들 몰고 가서, 췌기, 가서 어떤 소는 도망치고, 어떤 건 쉽게 하고.)

104004 @1 음.(음.)

104004 #1 췌가 다 성질머리가 틀려. 막 어진 거는 그대로 밧을 ㄱ르치고. 페라운 거는 흐 열흘 따리멍 해도 잘 안 돼언.(소가 다 성질머리가 달라. 막 어진 거는 그대로 밧을 가르치고. 페라운 거는 한 열흘 때리면서 해도 잘 안 되었어.)

104004 @1 음. 경 혜영 밧갈 때, 그, 제대로 밧 갑니까, 아니면?(음. 그렇게 해서 밧갈 때, 그, 제대로 밧 갑니까, 아니면?)

104004 #1 제대로 갈아야지. 보, 부록소 이젠 완전히 익숙케 멘들엉.(제대로 갈아야지. 보, 부록소 이젠 완전히 익숙케 만들어서.)

104004 @1 연습으로 밧갈진 안헤마씀?(연습으로 밧 갈진 않아요?)

104004 #1 연습으로. 연습으로 밧을 혼 덜, 혼 스무날은 갈아야 돼. 늬이 밧. 혼 여섯 시쯤에 올라가면, 일곱 시 정도까지.(연습으로. 연습으로 밧을 한 달, 한 스무날은 갈아야 돼. 남의 밧. 한 여섯 시쯤에 올라가면, 일곱 시 정도까지.)

104004 @1 으음.(으음.)

104004 #1 어두울 때까지 강. 왜 그러냐면은 이놈의 췌들이 어두울 때까정 그 길을 아니 내 놓으면은 즈물야 가민 도망치젠 흡주게. 췌가.(어두울 때까지 가서. 왜 그러냐면은 이놈의 소들이 어두울 때까지 그 길을 아니 내 놓으면은 저물어 가면 도망치려고 하지요. 소가.)

104004 @1 으음.(으음.)

104004 #1 게난 어두운 때까지, 즈물야 강 어두, 어두운 때까장 가르쳐야, 아, 이거 내가 어두울 때까장 갈아야 웰로구나 혼는 믱음이 들게끔.(그러니까 어두운 때까지, 저물어 가서 어두, 어두운 때까지 가르쳐야, 아, 이거 내가 어두울 때까지 갈아야 될 거로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끔.)

104005 @1 음. 췌도 나이에 따라 이름 부치지 안헉니까? 췌 나이를.(음. 소도 나이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소 나이를.)

104005 #1 케메게.(글쎄.)

104005 @1 혼 슬, 두 설 혼지 아니 헤근에 무시거엔 흡니까?(한 살, 두 살 하지 아니 해서 뭐라고 합니까?)

104005 #1 금승게. 혼 설에.(하릅. 한 살에.)

104005 @1 금승.(하릅.)

104005 #1 두 슬은 다간⁸².(두 살은 두습.)

104005 @1 다간.(두습.)

104005 #1 사릅⁸³.(사릅.)

104005 @1 사릅.(사릅.)

104005 #1 나릅⁸⁴.(나릅.)

104005 @1 나릅.(나릅.)

104005 #1 그다음은 다습⁸⁵, 으습⁸⁶.(그다음은 다습, 여습.)

104005 @1 다습, 으습. 예.(다습, 여습. 예.)

82) '다간'은 소의 나이 두 살을 말한다.

83) '사릅'은 소의 나이 세 살을 말하며, '사릅'이라고도 한다.

84) '나릅'은 소의 나이 네 살이다. 달리 '나릅'이라고도 한다.

85) '다습'은 소의 나이 다섯 살이며, '다습'이라고도 한다.

86) '으습'은 소의 나이 여섯 살이다.

104005 #1 다습, 으습. 두 슬까진 다간. 그다음 사릅. 세 슬이면 사릅.(다습, 여습. 두 살까진 두습. 그다음 사릅. 세 살이면 사릅.)

104005 @1 예. 그 저, 멈췄당양, 저 쟁기 보멍.(예. 그 저, 멈췄다가요, 저 쟁기 보면서.)

104006 #1 이, 췌 야가기에 이 쪽으로 행 즐마멤주기게.(이, 소 목에 이 쪽으로 해서 잘라매지요.)

104006 @1 조.(조.)

104006 #1 이디 영, 하나가 더 있어야 돼.(여기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야 돼.)

104006 @1 아, 요디허고, 요디 헤영. ㄱ치?(아, 요기하고, 요기 해서. 같이?)

104006 #1 야가기레 헤영.(목으로 해서.)

104006 @1 아.(아.)

104006 #1 영 즐마메영.(이렇게 잘라매어서.)

104006 @1 요레 야게기가 영 들어갈 거구나양.(요기로 목이 이렇게 들어갈 거군요.)

104006 #1 야가기가.(목이.)

104006 @1 영, 영 들어갈 거구나양.(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거군요.)

104006 #1 예, 예.(예, 예.)

104006 @1 영 들어갈 거구나양.(이렇게 들어갈 거군요.)

104006 #1 예예. 튜영 즐마메민.(예예. 틀어서 잘라매면.)

104006 @1 아.(아.)

104006 #1 즐마메면 요, 요거를 클러 가지고. 잠대 저, 저, 주둥아리 잇지양.(잘라매면 요, 요거를 끌러 가지고. 쟁기 저, 저, 주둥아리 잇지요.)

104006 @1 예. 요레?(예. 요기로?)

104006 #1 예, 예. 그레 즐마메여. 이거, 이거를.(예, 예. 거기에 잘라매어. 이거, 이거를.)

104006 @1 으음.(으음.)

104006 #1 이거를 그레 즐마메면은, 이제 영 흐영.(이거를 거기에 잘라매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104006 @1 이레 갈 거로구나양.(여기로 갈 거로군요.)

104006 #1 예, 이레. 췌가 이레 이만쯤은 췌가 실 겁주게.(예, 여기로. 소가 여기 이만쯤은 소가 있을 거지요.)

104006 @1 으음.(으음.)

104006 #1 이거는 솜비줄이엔 흐여 가지고. 이거.(이거는 붓줄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

104006 @1 솜비줄?(붓줄?)

104006 #1 예. 솜비줄. 끄는 거주기게. 끄는 거. 솜비줄. 이거 췌[췌] 거로 해야. 췌 아니 흐면.(예. 붓줄. 끄는 거지. 끄는 거. 붓줄. 이거 췌 거로 해야. 그렇게 아니

하면.)

104006 @1 예, 예. 숨비줄.(예, 예. 붓줄.)

104006 #1 최고 센 줄로 해야 돼어. 이거, 숨비줄.(최고 센 줄로 해야 돼어. 이거, 붓줄.)

104006 @1 으음.(으음.)

104006 #1 옛날 이거 숨비줄 스틸 줄도 몰랑. 이것도, 스리는 것도 배워났어.(옛날 이거 붓줄 사릴 줄도 몰라서. 이것도, 사리는 것도 배웠었어.)

104006 @1 으음.(으음.)

104006 #1 이걸, 쇠가 야가기에 저거 줄마메면.(이걸, 소가 목에 저거 잘라매면.)

104006 @1 예.(예.)

104006 #1 요레 완 이걸, 이거 햏여 가지고, 요렇게 햏 가지고 이걸 무끄는 거야. 이거.(요기로 와서 이걸, 이거 햏여 가지고, 요렇게 햏 가지고 이걸 묶는 거야. 이거.)

104006 @1 예, 예.(예, 예.)

104006 #1 무끄면은 췌는 절로.(묶으면은 소는 절로.)

104006 @1 음.(음.)

104006 #1 저, 이제, 또, 배가 요, 요레 걸려. 이레, 이레. 배.(저, 이제, 또, 바가 요, 요기로 걸려. 이리로, 이리로. 바.)

104006 @1 배?(바?)

104006 #1 배. 이게 배를 이제, 걸려 가지고. 코 꿰어근앵에. 코, 코를, 췌 코를 췌. 저디 부리 대가리 덕이라고 허면은 꼭 코 꿰면은. 저디서 이레, 저, 저디서 이레 저, 배가 이렇게 두 개가 여기 실 거 아니라. 코 꿰영.(바. 이게 바를 이제, 걸려 가지고. 코 꿰어서. 코, 코를, 소 코를 췌. 저기 부리, 대가리, 덕이라고 하면은 꼭 코 꿰면은. 저기서 이리로, 저, 저기서 이리로 저, 바가 이렇게 두 개가 여기 있을 거 아니라. 코 꿰어서.)

104006 @1 예. 예, 예.(예. 예, 예.)

104006 #1 영 허면은, 췌가 저레, 이레 가젠 허면은 저, 코 췌 줄이 일로 좁아뎡 이면 췌가 이레 가고.(이렇게 하면은, 소가 저기로, 여기로 가려고 하면은 저, 코 췌 줄이 여기로 잡아당기면 소가 이리로 가고.)

104006 @1 예.(예.)

104006 #1 이썩, 이레 좁아뎡이면 췌가 이레 가고.(이썩, 이리 잡아당기면 소가 이리 가고.)

104006 @1 예.(예.)

104006 #1 이제, 두 개 다 햏젠 허면 밖으로 햏고.(이제, 두 개 다 햏려고 하면 밖으로 햏고.)

104006 @1 예.(예.)

104006 #1 이제 햏 고지 갈아 가면은 감장돌 때는 이썩.(이제 햏 이랑 갈아 가

면은 맴들 때는 이쪽.)
 104006 @1 음.(음.)
 104006 #1 이쪽으로 돌젠 허면 이레 줍아탱이곡.(이쪽으로 돌려고 하면 이리 잡
 아당기고.)
 104006 @1 음.(음.)
 104006 #1 영 이거 잡대 돌아올 겁주. 췌 조름으로.(이렇게 이거 쟁기 돌아올 거
 지요. 소 꿈무니로.)
 104006 @1 음.(음.)
 104006 #1 췌는 앞서서 끌고.(소는 앞에서 끌고.)
 104006 @1 이제랑 요 일름을, 혼번 즈근즈근 글로부터 곶아 볍서.(이제는 요 이
 림을, 한번 자근자근 거기로부터 말해 보십시오.)
 104006 #1 으음.(으음.)
 104006 @1 저, 절로부터. 예.(저, 저기로부터. 예.)
 104006 #1 이거는.(이거는.)
 104006 @1 양주머리?(양지머리?)
 104006 #1 양주머리. 이거는 성에, 무클.(‘양지머리’. 이거는 성에, 쟁깃술.)
 104006 @1 이게 무클?(이게 쟁깃술?)
 104006 #1 예. 잡대, 성에.(예. 쟁기, 성에.)
 104006 @1 잡대, 성에.(쟁기, 성에.)
 104006 #1 요거는 벳바드랭이⁸⁷.(요거는 ‘벳바드랭이’.)
 104006 @1 이게 벳바드랭이?(이게 ‘벳바드랭이’?)
 104006 #1 예예, 저, 벳바드랭이. 이건 벳늘⁸⁸. 요거, 벳늘 요거.(예예, 저, ‘벳바
 드랭이’. 이건 ‘벳늘’. 요거, ‘벳늘’ 요거.)
 104006 @1 이게 벳늘이파?(이게 ‘벳늘’입니까?)
 104006 #1 예, 예.(예, 예.)
 104006 @1 벳늘.(‘벳늘’.)
 104006 #1 벳늘. 벳바드랭이. 벳늘.(‘벳늘’. ‘벳바드랭이’. ‘벳늘’.)
 104006 @1 벳바드랭이, 벳늘. 그다음.(‘벳바드랭이’, ‘벳늘’. 그다음.)
 104006 #1 요, 요거, 요거는 벳, 벳틀레⁸⁹.(요, 요거, 요거는 벳, ‘벳틀레’.)
 104006 @1 벳틀레, 요거?(‘벳틀레’, 요거?)
 104006 #1 예예.(예예.)
 104006 @1 요거? 낭으로 된 게 벳틀레파?(요거? 나무로 된 게 ‘벳틀레’입니까?)
 104006 #1 예예, 낭으로 된 거. 이레 나와수게.(예예, 나무로 된 거. 이리 나왔어
 요.)

87) ‘벳바드랭이’는 보습 위에 댄 벳을 받치는, 한 마루에 꿰어진 나무깁이다. 달리 ‘벳공쟁이’, ‘벳밭이’
 라고도 한다.

88) ‘벳늘’은 쟁기의 벳에 묻은 흙을 긁어 내리우는 나뭇조각이다. 달리 ‘벳칼’이다.

89) ‘벳틀레’는 쟁기에 벳을 단단히 틀어 주는 나무 막대이다.

104006 @1 예.(예.)
104006 #1 이거, 오그라진 거 나와서 그래.(이거, 오그라진 거 나와서 그리.)
104006 @1 아, 이거, 이거.(아, 이거, 이거.)
104006 #1 아니, 저 아래 거.(아니, 저 아래 거.)
104006 @1 으음.(으음.)
104006 #1 요, 요거.(요, 요거.)
104006 @1 요거, 요거. 아.(요거, 요거. 아.)
104006 #1 요거 시민 그래 막아전. 벧 바닥이.(요거 있으면 그리 막아져서. 벧 바닥이.)
104006 @1 아.(아.)
104006 #1 벧틀.(‘벧틀’.)
104006 @1 벧틀레. 게민 요것이?(‘벧틀레’. 그러면 요것이?)
104006 #1 그 벧, 벧.(그 벧, 벧.)
104006 @1 벧. 아, 게난 이것이 벧틀레고. 이건 벧이고.(벧. 아, 그러니까 이것이 ‘벧틀레’고. 이건 벧이고.)
104006 #1 건 보섭.(건 보습.)
104006 @1 보섭이고. 요건 뭐짜?(보습이고. 요건 뭐니까?)
104006 #1 무클, 무클.(쟁깃술, 쟁깃술.)
104006 @1 아, 아까.(아, 아까.)
104006 #1 잠대, 무클. 잠대, 성에, 성에.(쟁기, 쟁깃술. 쟁기, 성에, 성에.)
104006 @1 ㄱ사 요건 무시거짜?(아까 요건 무엇입니까?)
104006 #1 요건, 이거는, 벧바데, 벧바데.(요건, 이거는, ‘벧바데’, ‘벧바데’.)
104006 @1 벧바데?(‘벧바데’?)
104006 #1 예, 이거는.(예, 이거는.)
104006 @1 아.(아.)
104006 #1 영 흥영. 이거추록.(이렇게 해서. 이것처럼.)
104006 @1 이건 벧틀레, 이건 벧바데?(이건 ‘벧틀레’, 이건 ‘벧바데’?)
104006 #1 예예. 이건 벧늘.(예예. 이건 ‘벧늘’.)
104006 @1 벧늘.(‘벧늘’.)
104006 #1 영 흥영.(이렇게 해서.)
104006 @1 요딘 무시거엔, 요거?(요긴 뭐라고, 요거?)
104006 #1 아, 저, 저저, 들벥이불리⁹⁰.(아, 저, 저저, 까막머리.)
104006 @1 이거, 이거. 들벥이불리?(이거, 이거. 까막머리?)
104006 #1 예, 예. 그거.(예, 예. 그거.)
104006 @1 들베뿌리?(까막머리?)
104006 #1 들벥이빨이엔 흥주.(까막머리라고 하지.)

90) ‘들벥이뿌리’는 까막머리이며, 붓줄을 매기 위하여 성에 끝에 박은 비녀 모양의 나무이다.

104006 @1 아, 들벵이빨리, 들베빨리.(아, 까막머리, 까막머리.)

104006 #1 응. 요거는 저 저 저, 그냥 요거.(응. 요거는 저 저 저, 그냥 요거.)

104006 @1 으음.(으음.)

104006 #1 뭐 헛연에 떨어지지 말렌 헨 잠근 거.(뭐 해서 떨어지지 말라고 해서 잠근 거.)

104006 @1 으음.(으음.)

104006 #1 케난에, 이거 헨 이유는, 저, 밧 갈 때 자갈 엇은 밧은 이디, 이디 고 데 놔놔어. 즈밭.(그러니까, 이거 한 이유는, 저, 밧갈 때 자갈 엇은 밧은 여기, 여기 고데 놔놔어. ‘즈밭’.)

104006 @1 으음.(으음.)

104006 #1 이거 자갈 신 밧, 어신 밧은 이걸 클르고.(거 자갈 있는 밧. 엇은 밧은 이걸 클르고.)

104006 @1 예.(예.)

104006 #1 자갈 어신 밧은 잠대가 잘 들어가난, 이, 그냥, 이디 이 저, 뜸을 놔 놔주게.(자갈 엇은 밧은 쟁기가 잘 들어가니까, 이, 그냥, 여기 이 저, 뜸을 놔놔지.)

104006 @1 예, 예.(예, 예.)

104006 #1 자갈, 자갈 신 밧은 이추룩 그냥 가고.(자갈, 자갈 있는 밧은 이렇게 그냥 가고.)

104006 @1 예예. 눅져 동양. 그 다음 요거 무시거봐? 요 낭?(예예. 눅혀 두고요. 그다음 요거 무엇입니까? 요 나무?)

104006 #1 예, 요 낭. (웃음). 무슨, 저건 멩에고, 줍궤⁹¹고.(예, 요 나무. (웃음). 무슨, 저건 멩에고, ‘줍궤’고.)

104006 @1 요건 여, 엉덩이 뒤쪽에 이실 거 아니우파양?(요건 이렇게, 엉덩이 뒤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104006 #1 예. 엉덩이게. 쉼 등 조름에 이거 꺾어당.(예. 엉덩이. 소 등 뒤에 이거 꺾어다가.)

104006 @1 조름에양.(뒤에요.)

104006 #1 예. 저, 저거는 줍궤.(예. 저, 저거는 ‘줍궤’.)

104006 @1 이게 줍궤.(이게 ‘줍궤’.)

104006 #1 예, 예.(예, 예.)

104006 @1 즈, 줍궤양? 줍아 주는 거.(즈, ‘줍궤’요? 집어 주는 거.)

104006 #1 예예. 목에 영.(예예. 목에 이렇게.)

104006 @1 이, 목에 영 줍아 주는 거양?(이, 목에 이렇게 집어 주는 거요?)

104006 #1 이거, 이거는.(이거, 이거는.)

104006 @1 이게 멩에고.(이게 멩에고.)

91) ‘줍궤’는 멩에 양편에 각각 꺾어서 목 아래로 휘어다가 매게 된 나뭇가지다. 지역에 따라 ‘줍궤’, ‘적궤’, ‘적궤’, ‘접궤’, ‘직궤’, ‘집궤’, ‘집궤’, ‘족궤’, ‘줍작궤’라고도 한다.

104006 #1 이건 솜비줄.(이건 붓줄.)

104006 @1 솜비줄, 솜비줄이고. 그다음 요것도 줄. 요건 배러레 영 내려가는 거 우짜? 등더레?(붓줄, 붓줄이고. 그다음 요것도 줄. 요건 배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까? 등으,로?)

104006 #2 등더레, 배더레 영, 배 알로 영.(등으로, 배로 이렇게, 배 아래로 이렇게.)

104006 @2 배 알로 영?(배 아래로 이렇게?)

104006 #1 등드레 영. 요, 요 요것더레 즐마메영.(등에 이렇게. 요, 요 요것에 잘라매어서.)

104006 @1 아. 요것더레. 아, 올레.(아. 요것에. 아, 요기로.)

104006 #1 이, 그디 그, 코거리 셔낫주게.(이, 거기 그, 올가미 있었지.)

104006 @1 아, 영 똬는 거로구나양.(아, 이렇게 되는 거로군요.)

104006 #1 예, 즐마멩. 쉼 등에.(예, 잘라매어서. 소 등에.)

104006 @1 요건 이땅 들어 봐사켜.(요건 이따가 들어 봐야겠다.)

104006 #1 예.(예.)

104006 @1 그다음 아까 그, 코 꿰어근에 영 줄, 아까.(그다음 아까 그, 코 꿰어서 이렇게 줄, 아까.)

104006 #1 솜비줄, 솜비줄.(붓줄, 붓줄.)

104006 @1 이 줄 말아.(이 줄 말고.)

104006 #1 이 줄 말아, 질게 영, 쉼⁹²⁾ 모냥 긴 줄이. 저 코 꿰영, 그 줄이 일로 흐영.(이 줄 말고, 길게 이렇게, ‘쉐앗배’처럼 긴 줄이. 저 코 꿰어서, 그 줄이 이리로 해서.)

104006 @1 예.(예.)

104006 #1 이 소굽으로 들어강.(이 속으로 들어가서.)

104006 @1 예.(예.)

104006 #1 저 잠대⁷장 와야 해.(저 쟁기까지 와야 해.)

104006 @1 잠대⁷장 온 게.(쟁기까지 온 게.)

104006 #1 온 거, 밧 갈멍.(온 거, 밧 갈면서.)

104006 @1 예.(예.)

104006 #1 항상 그, 그 코, 줄 그, 양 쪽에 이제 손으로 심영 갈아야 돼.(항상 그, 그 코, 줄 그, 양 쪽에 이제 손으로 잡고 갈아야 돼.)

104006 @1 음.(음.)

104006 #1 저, 줄에 하믄, 쉼⁹²⁾가 저레 가가믄 이레 줍아텡이고. 이레 가가믄 이쪽으로 줍아텡이고.(저, 줄에 하면, 소가 저리 가 가면 이리 잡아당기고. 이리 가 가면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92) ‘쉐앗배’는 소의 등에 짐을 실을 때 동여 묶는, 조금 굽직하고 기다란 밧줄이다. 달리 ‘셋배’라고 한다.

104006 @1 으음, 뻗수다. 저. (웃음).(으음, 뻗습니다. 저. (웃음).)

104006 #1 그것이, 어.(그것이, 어.)

104006 @1 속았수다. 저걸 들어보젠 작정해연 와신디, 아이고, 그거 잘. 꺾사 그 그, 일름이 뭐였지? 엉덩이 쪽에 잇어난 낭.(수고했습니다. 저걸 들어보려고 작정해서 왔는데, 아이고, 그거 잘. 아까 그 그, 이름이 뭐였지? 엉덩이 쪽에 잇었던 나무.)

104006 #1 솜비줄?(붓줄?)

104006 @1 낭.(나무.)

104006 #1 아, 그거 그 저, 그것이 뭐. 저거 저, 저, 낭이 저거 저, 잇어야 저 저, 멩에가 완전히 저, 뉘는 거.(아, 그거 그 저, 그것이 뭐. 저거 저, 저, 나무가 저 거 저, 잇어야 저 저, 멩에가 완전히 저, 되는 거.)

104006 @1 예, 예.(예, 예.)

104006 #1 걸 뵈이엔.(걸 뵈라고.)

104006 @1 꺾사 게난, 쟁기.(아까 그러니까, 쟁기.)

104007 @2 질메.(길마.)

104007 #1 질메는 저, 소에 질메 지왕 저, 뉘 시꺼 오는 거. 등허리로.(길마는 저, 소에 길마 지우고 저, 뉘 실어 오는 거. 등허리로.)

104007 @1 게난, 꺾사 질메도 이수가? 저 창고에 질메는 엇인 철이주양?(그러니까, 아까 길마도 잇습니까? 저 창고에 길마는 없던 거지요?)

104007 #1 질메는 엇고. 저되 저, 구루마에 끄는 것벱기.(길마는 없고. 저기 저, 마차에 끄는 것밖예.)

104007 @1 아, 구루마 끄는 것만.(아, 마차 끄는 것만.)

104007 #1 예예.(예예.)

104007 @1 음, 질멘 엇곡. 질메에도 이름이 잇지 않으팡? 질메.(음, 길만 없고. 길마에도 이름이 잇지 않습니까? 길마.)

104007 #1 게, 앞. 뉘꼬분가지가 잇고. 뉘에. 앞꼬분가지. 앞. 지 저, 영 오그라진 게 두 개주게.(게, 앞. ‘뉘꼬분가지’가 잇고. 뉘에. ‘앞꼬분가지’. 앞. 지 저, 이렇게 오그라진 게 두 개지.)

104007 @1 예.(예.)

104007 #1 앞은 노프고.(앞은 높고.)

104007 @1 예.(예.)

104007 #1 뉘에는 야프고.(뉘에는 낮고.)

104007 @1 아.(아.)

104007 #1 견디 질메가 앞은 노프게 현 것이 거는 낭으로 허여 가지고 **** 낭 두 개 헤영, 영 허영, 영 세윙 , 그, 앞엔 노프게 허고.(그런데 길마가 앞은 높게 한 것이 거는 나무로 해 가지고 **** 나무 두 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서, 그, 앞엔 높게 하고.)

- 104007 @1 예.(예.)
 104007 #1 뒤에는 그냥, 저 고지 강 오그라진 낭 허영 낭 원형대로 허영, 영 허
 게 가장.(뒤에는 그냥, 저 산에 가서 오그라진 나무 해서 나무 원형대로 해서, 이렇
 게 깎아서.)
 104007 @1 예.(예.)
 104007 #1 뒤편, 뒤편 저.(‘뒤편’, ‘뒤편’ 저.)
 104007 @1 으음.(으음.)
 104007 #1 그, 앞, 앞.(그, 앞, 앞.)
 104007 @1 앞 꼬부라진 가지. 뒤 꼬부라진 가지.(앞 꼬부라진 가지. 뒤 꼬부라
 진 가지.)
 104007 #1 예. 뒤편, 저저 저디.(예. ‘뒤편’, 저저 저기.)
 104007 @1 흐흠.(흐흠.)
 104007 #1 가장 그걸 헤영, 저 질메, 것도 질메도 저디, 저 저, 목, 목수가 경 만
 들아 줘. 막 성. 아무나 못 만들어.(깎아서 그걸 해서, 저 길마, 것도, 길마도 저기,
 저 저, 목, 목수가 그렇게 만들어 줘. 막 성. 아무나 못 만들어.)
 104007 @1 예 ,예.(예, 예.)
 104007 #1 경 아니민 쉼 등어리 벗어져 불주게.(그렇게 아니 하면 소 등 벗어져
 버리지.)
 104007 @1 흐음.(흐음.)
 104007 #1 잘못하면.(잘못하면.)
 104008 @1 꺾사 그, 명에. 명에도 부분, 부분 명칭이 이선게?(아까 그, 명에. 명
 에도 부분, 부분 명칭이 있던데?)
 104008 #1 음.(음.)
 104008 @1 명에, 꺾사 무신 거. 목더레 영 현 거는?(명에, 아까 무슨 거. 목으로
 이렇게 한 거는?)
 104008 #1 좁게.(‘좁게’.)
 104008 @1 좁게. 그다음에 그, 거기 무꺼진.(좁게. 그다음에 그, 거기 묶어진.)
 104008 #1 숨비줄.(봇줄.)
 104008 @1 숨비줄.(봇줄.)
 104008 #1 예, 그, 그 나머지 현 건, 것ㄴ라 부림패⁹³, 가린석⁹⁴이런 허여.(예,
 그, 그 나머지 한 건, 그것을 ‘부림패’, ‘가린석’이라고 해.)
 104008 @1 부림패?(‘부림패’?)
 104008 #1 예, 부림패, 가린석.(예, ‘부림패’, ‘가린석’.)
 104008 @1 부림패 가지, 가린석.(‘부림패’ 가지, ‘가린석’.)
 104008 #1 가린석 그.(‘가린석’ 그.)

93) ‘부림패’는 밭을 갈 적에 오른쪽으로 쇠머리에 씌워진 긴 고삐이다. 달리 ‘굴배’라고 한다.

94) ‘가린석’은 밭을 갈 적에 왼쪽으로 쇠머리에 씌워진 긴 고삐이다.

104008 @1 가린석.(‘가린석’.)
104008 #1 쉐 이레, 저디 저래.(소 이리, 저기 저리.)
104008 @1 부림패, 가린석.(‘부림패’, ‘가린석’.)
104008 #1 그, 코 꿰면은, 그, 부림패, 가린석을 코로 허영 멀 대가리로 허영 코로 연결행, 저 뒤까지 가났지. 경 안 허민 쉐는 코 엇으믄, 코 아니 꿰영은 깃딧을 못허는 거라.(그, 코 꿰면은, 그, ‘부림패’, ‘가린석’을 코로 해서 뭇 머리로 해서 코로 연결해서, 저 뒤까지 갔었지. 그렇게 앞으믄 소는 코 없으믄, 코 아니 꿰어서는 까딧을 못하는 거야.)
104008 @1 예.(예.)
104008 #1 코 호안.(코 ‘호안’.)
104008 @1 부림패, 가린석.(‘부림패’, ‘가린석’.)
104009 @2 음. 목장, 여기 봉성 목장이, 세 마을 그, 공동 목장이라났수과?(음. 목장, 여기 봉성 목장이, 세 마을 그, 공동 목장이었습니까?)
104009 #1 예.(예.)
104009 @1 괄지.(괄지.)
104009 #1 지금도.(지금도.)
104009 @1 지금도?(지금도?)
104009 #1 공동 목장 허영.(공동 목장 해서.)
104009 #2 이거 무사 딱시 창지 ㄴ져당 세왔수가?(이거 왜 다시 창자 가져다가 세웠습니까?)
104009 #1 뭐?(뭐?)
104009 @1 ㄴ사 거, 사진 찍젠 헨에 또 내났수다.(아까 거, 사진 찍으려고 해서 또 내났습니다.)
104009 #2 (웃음).(웃음.)
104009 #1 그 저, 저것ㄴ라 저 사름 알아져? 나 잊어 불언. 저, 멩에 뒤에. 그 저 낭, 낭.(그 저, 저것보고 저 사름 알아? 나 잊어 버렸어. 저, 멩에 뒤에. 그 저, 나무, 나무.)
104009 @1 저, 낭마썸. 저.(저, 나무요. 저.)
104009 #1 멩에 뒤에.(멩에 뒤에.)
104009 #2 아, 멩에 뒤에 요거?(아, 멩에 뒤에 요거?)
104009 #1 음.(음.)
104009 @1 쫄락락한 낭.(작은 나무.)
104009 #2 그, 저, 들벵이뿔이엔 허주게.(그, 저, ‘들벵이뿔’이라고 하지.)
104009 #1 들벵이뿔리는 그, 아이. 그 긴 거지. 그게 들벵이뿔리고.(‘들벵이뿔리’는 그, 아이. 그 긴 거지. 그게 ‘들벵이뿔리’고.)
104009 @1 저, 줄에 매어진 거마썸.(저, 줄에 매어진 거요.)
104009 #1 줄에 매어진 거.(줄에 매어진 거.)

104009 @1 줄에 매어진 거 무시거렌 험니까?(줄에 매어진 거 뭐라고 합니까?)

104009 #2 아, 이거.(아, 이거.)

104009 @1 예.(예.)

104009 #2 이것ㄴ란 뭐시엔 허는고. 몰라, 흠.(이것을 뭇이라고 하는고. 몰라, 참.)

104009 #1 들벙이뿔리는 저, 잠대에 돌아진 게 들벙이.(‘들벙이뿔리’는 저, 쟁기에 달린 게 ‘들벙이’.)

104009 #2 이거ㄴ란 들벙이뿔리.(이것은 ‘들벙이뿔리’.)

104009 @1 예.(예.)

104009 #1 거ㄴ란 뭇이엔 헤낫주마는. 흠.(그거는 뭇이라고 했었지마는. 참.)

104009 #2 **잇어 붙어, 알아지크라? 오래 부난.**(**잇어 버려서, 알 수 있겠어? 오래 버리니까.)

104009 @1 예.(예.)

104009 #2 이건 멩에고, 이건 솜비고. 오래 부난 저거 알아지크라?(이건 멩에고, 이건 붓줄이고. 오래 버리니까 저거 알 수 있겠어?)

104009 @1 아, 그냥 솜비엔만도 허는구나.(아, 그냥 ‘솜비’라고만도 하는구나.)

104009 #1 어, 솜비줄.(어, 붓줄.)

104009 @1 줄, 줄 안 부청양.(줄, 줄 안 붙여서요.)

104009 #1 그 저, 부림패, 가린석만.(그 저, ‘부림패’, ‘가린석’만.)

104009 #2 ****솜비엔 흠니다 이거. 이 줄은 솜비.(****솜비라고 합니다 이거. 이 줄은 ‘솜비’.)

104009 @1 솜비. 음.(‘솜비’. 음.)

104009 #2 이거는 이거. 저, 쉼 앞가슴에 영 헤영 줄마메는 거.(이거는 이거. 저, 소 앞가슴에 이렇게 해서 잘라매는 거.)

104009 @1 예.(예.)

104009 #1 줍게, 줍게.(‘줍게’, ‘줍게’.)

104009 #2 양주머리, 뱃, 보섭.(양지머리, 뱃, 보습.)

104009 #1 저 뒤에 거 양주머리. 잠대.(저 뒤에 거 양지머리. 쟁기.)

104009 #2 저, 영 손잡이 허여근에.(저, 이렇게 손잡이 해서.)

104009 #1 저 뒤에 거 양주머리.(저 뒤에 거 양지머리.)

104009 #2 양주머리.(양지머리.)

104009 @1 예.(예.)

104009 #2 저 이제, 보섭. 뱃. 뱃은, 저 납작한 거ㄴ란 뱃이엔 허고. 요디 끼와진 거는 보섭.(저 이제, 보습. 뱃. 뱃은, 저 납작한 거는 뱃이라고 하고. 요기 끼워진 거는 보섭.)

104009 @1 예, 예, 예.(예, 예, 예.)

104009 #1 아 참, 저, 양주머리로구나. 양주머리.(아 참, 저, 양지머리로구나. 양

지머리.)

104009 #2 (웃음).((웃음).)

104009 #1 강, 양주머리 강 심어 봐.(가서, 양지머리 가서 잡아 봐.)

104009 @1 (웃음).((웃음).)

104009 #1 저거 양주머리.(저거 양지머리.)

104009 #2 이거 양주머리주게.(이거 양지머리지.)

104009 #1 맞아, 저거 양주머리.(맞아, 저거 양지머리.)

104009 #2 이것가 양주머리. 이거.(이것이 양지머리. 이거.)

104009 #1 저거 양주머리.(저거 양지머리.)

104009 @1 음.(음.)

104009 #1 저 양주머리, 잠대무클. 저디, 옛날 말로 아명, 저디, 몽니 곳인 놈도 잠대무클만이 폐와지질 아니 헌덴. 아명 저, **도, 잠대무클처럼 그 신디, 아명 감옥에 갇혀도 잠대무클만이맞기 아니 헌덴.(저 양지머리, 쟁깃술. 저기, 옛날 말로 아무리, 저기, 몽니 곳은 놈도 쟁깃술만큼 퍼지질 아니 한다고. 아무리 저, **도, 쟁깃술처럼 그 신디, 아무리 감옥에 갇혀도 쟁깃술만큼밖에 아니 한다고.)

104009 @1 예, 예.(예, 예.)

104009 #1 원래 생김이 경 생긴 거난.(원래 생김이 그렇게 생긴 거니까.)

104009 @2 (웃음).((웃음).)

104009 #1 오그라졌주게. 잠대무클.(오그라졌지. 쟁깃술.)

104009 @1 예, 예. 잠대무클.(예, 예. 쟁깃술.)

104009 @2 뒤로 잘 앉아 봅서. 저리 잘 앉읍서.(뒤로 잘 앉아 버리십시오. 저리 잘 앉으십시오.)

104010 @1 췌, 저, 저디, 잠깐. 췌 질르멍 무시거 재미 이섯던 일이나 어려웠던 일이나?(소, 저, 저기, 잠깐. 소 기르면서 뭐 재미있었던 일이나 어려웠던 일이나?)

104010 #1 그, 췌는 내, 그 암췌를 아주, 아주 좋은 암췌를 영 사니까. 목장에 오니까, 그냥 그, 보통 췌들은 이제, 저거 흔 팔월 추석 돼면은, 집에 몰아올 거 아 아닙니까. 몰아오면은 그 췌를, 췌 임체가 목장에 강 걸려 가지고 이경 오는디. 흔 팔십프로는 그렇게 잘 들어마췌.(그, 소는 내, 그 암소를 아주, 아주 좋은 암소를 이렇게 사니까. 목장에 오니까, 그냥 그, 보통 소들은 이제, 저거 한 팔월 추석 되면은, 집에 몰아 올 거 아닙니까? 몰아 오면은 그 소를, 소 임자가 목장에 가서 걸려 가지고 이끌고 오는데. 한 팔십 프로는 그렇게 잘 들어요.)

104010 @1 음.(음.)

104010 #1 하, 날은 재수 엇어 가지고, 목장에서 끄영, 세상 나고, 이놈으 걸 심질 못 허연.(하, 날은 재수 없어 가지고, 목장에서 끌고, 세상 나고, 이놈의 걸 잡질 못 했어.)

104010 @1 (웃음).((웃음).)

104010 #1 저ㄱ장 이젠 몰안 온다, 몰앙 오단 또, 올라가 불민, 또 목장더레 도

망쳐.(저기까지 이젠 몰아서 온다, 몰아서 오다가 또, 올라가 버리면, 또 목장으로 도망쳐.)

104010 @1 아.(아.)

104010 #1 세 번을 경 해연. 갠디 저, 암쉐 질룰 땀 경 해낫수다게. 예, 팔월 추석까지는 일단, 쉼 보는 목감한테 멜겨. 돈 갖다 주꼭 허민. 팔월 추석 넘으면은 이제 쉼 집이 몰아와 가지고, 그거 그, 거 관리허기가 좀 낫이니까. 혼 이십 명, 삼십 명 삼십 명이서 패를 짜 가지고. 또 파분, 파분, 파분 후에 저 또 저, 어디 솔도 저, 목감에. 그때는 목감한테 멜기지 아니하고. 번을 짱 두 사람씩 올라강.(세 번을 그렇게 했어. 그런데 저, 암소 기를 땀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팔월 추석까지는 일단, 소 보는 목감한테 맡겨. 돈 갖다 주고 하면. 팔월 추석 넘으면은 이제 소 집에 몰아와 가지고, 그거 그, 거 관리허기가 좀 낫으니까. 한 이십 명, 삼십 명, 삼십 명이서 패를 짜 가지고. 또 계약 취소, 계약 취소, 계약 취소 후에 저, 또 저, 어디 솔도 저, 목감에. 그때는 목감한테 맡기지 아니하고. 번을 짜서 두 사람씩 올라가서.)

104010 @1 예.(예.)

104010 #1 혼 십오일에 혼 번씩 쉼을 보러 가는다. 이, 그, 저, 잠자는 되는 그냥, 그 원래 솔도 학교가 있어났어. 학교.(한 십오일에 한 번씩 소를 보러 가는데. 이, 그, 저, 잠자는 데는 그냥, 그 원래 솔도 학교가 있었어. 학교.)

104010 @1 예.(예.)

104010 #1 분교. 그디 저 교직원 하나 허민, 그디 강 그찌 자고 해서. 밥해 먹꼭.(분교. 거기 저 교직원 하나 하면, 거기 가서 같이 자고 했어. 밥해 먹고.)

104010 @1 아.(아.)

104010 #1 혼 이틀 간씩 허영 내려왕.(한 이틀 간씩 해서 내려와서.)

104010 @1 예.(예.)

104010 #1 경허당 눈이 왕, 동짓달 돼야, 눈 와가민 전부 내려옵주게. 내려오면. 하, 그 놈의 우리 쉼을 걸리지 못해 가지고, 또 오면 또 도망가 불꼭. 도망가 불고. 애를 먹언. 참.(그러다가 눈이 와서, 동짓달 돼야, 눈 와 가면 전부 내려오지요. 내려오면. 하, 그 놈의 우리 소를 걸리지 못해 가지고, 또 오면 또 도망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애를 먹었어. 참.)

104010 @1 으음.(으음.)

104010 #1 그런 일도 있고. 그, 암쉐덜도 보통 말째이는 그렇게 이제 번 보멍 허멍 걸 질루와십주게. 그디 강.(그런 일도 있고. 그, 암소들도 보통 말째는 그렇게, 이제 번 보면서, 하면서 걸 길렀지요. 거기 가서.)

104010 @1 예.(예.)

104010 #1 원래 돈 쟁 할 때는 팔월 추석 넘으면은 파분시켜 불어. 돈 반양.(원래 돈 주고 할 때는 팔월 추석 넘으면은 계약 취소시켜 버려. 돈 받아서.)

104010 @1 예.(예.)

104010 #1 그루 후에는 저, 아까 식으로 꽤 짜 가지고. 번 보는 거라.(그 후에는 저, 아까 식으로 꽤 짜 가지고. 번 보는 거야.)

104010 @1 으음.(으음.)

104010 #1 쉼덜. 번 보명 암췌 질루와나신디. 췌도 고정헌 췌가 짓고. 어떤 췌는 꽃자왈 소굽에 들어가 불민 좇질 못허여. 승게 신 거는. 나오질 아니허여. 경허당 막 물 그려야 나와.(소들. 번 보면서 암소 길렀었는데. 소도 고정헌 소가 있고. 어떤 소는 ‘꽃자왈’ 속에 들어가 버리면 좇질 못해. 흥게 있는 거는. 나오질 않아. 그러다가 막 물 그리워야 나와.)

104010 @1 예.(예.)

104010 #1 물 그림지 아니 허면 꽃자왈 소굽 어디레 들어강 나오질 아니 허여. 일허 불어. 좇질 못해. 경헌디 스뭇 눈 와야 또 나오고.(물 그림지 아니하면 ‘꽃자왈’ 속 어디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잃어 버려. 좇질 못해. 그런데 사뭇 눈 와야 또 나오고.)

104010 @1 음.(음.)

104010 #1 그런 췌들도 잇어났어. 암췌덜이, 췌덜토 으라 가지라. 성질 좋은 췌 짓고. 요 암췌덜도 또 밧 같아났수다.(그런 소들도 있었어. 암소들이, 소들도 여러 가지라. 성질 좋은 소 있고. 요 암소들도 또 밧 같았었습니다.)

104010 @1 예.(예.)

104010 #1 저, 실헌 암췌는.(저, 실한 암소는.)

104010 @1 예.(예.)

104010 # 암췌로도 갈안.(암소로도 갈았어.)

104010 @1 계난, 췌 하영 질룰 땐 뻐트 머리나 질러났수가?(그러니까, 제일 많이 기를 땐 뻐트 머리나 길렀었습니까?)

104010 #1 난 경 하영 안 질러나고. 흥 뻐트 머리까정.(난 그렇게 많이 안 길렀었고. 한 뻐트 마리까지.)

104010 @2 뻐트 머리?(뻐트 마리?)

말 기르기

104011 @1 음. 뭇도 질루와납디가?(음. 말도 길렀었나요?)

104011 #1 뭇은 아이 질루고.(말은 아니 기르고.)

104011 @1 안 질루고?(안 기르고?)

104011 #1 뭇은 저 우리 집이 할망, 결혼하기 전에 뭇 많이 질루완.(말은 저 우리 집의 ‘할망’, 결혼하기 전에 말 많이 길렀어.)

104011 @1 아.(아.)

104011 #1 처녀 때.(처녀 때.)

104011 @1 아, 예.(아, 예.)

104011 #1 본가에서. 본가에서. 뭇만.(본가에서. 본가에서. 말만.)

104011 @1 그, 물 질룬, 뭐, 이걸 우리 여자 삼촌한테 물어 봐사쿠다.(그, 말 기른, 뭐, 이걸 우리 여자 삼촌한테 물어 봐야겠습니다.)

104011 #1 음.(음.)

104011 @1 양? 물 질루와난 이야기.(예? 말 길렀던 이야기.)

104011 #1 ○○이 어멍.(○○이 어머니.)

104011 #2 양?(예?)

104011 #1 이레 와 봐. 물 질루와난 이야기.(이리 와 봐. 말 길렀던 이야기.)

104011 @1 물 질러난 말 알아봅서. 물.(말 길렀던 얘기 말해 보십시오. 말.)

104011 #2 아이고, 물은 우리 저, 하영 안 질루와났수다게. 저, 그 옛날에 무신 건가, 우리 그, 사삼사건에 소개헨 내려완 흥난에 그때엔 원, 쉼도 어떻게 허여나사 신디. 어릴 때라 부난. 쉼도 원 그, 저 폭도덜 오란, 왕 몰아가 불곡 흥난에. 말째 이. 저 무시건가, 우리 큰 오라방, 큰 오빠가 그, 토벌 간 옛날엔 물을 막, 토벌 간 막, 그 고지 신 물덜을 문 몰아 완에, 문 저 그, 토벌 가 온 사름덜이, 어느 물 차지 허라, 어느 물 차지허라, 헨에, 그 토벌 간 몰아 온 사름 직 헤연, 물 흥나씩 주난 에.(아이고, 말은 우리 저, 많이 안 길렀었습니다. 저, 그 옛날에 무엇인가, 우리 그, 사삼사건에 소개해서 내려와서 하니까 그때엔 원, 소도 어떻게야 했었는지. 어릴 때라 버리니까. 소도 원 그, 저 폭도들 와서, 와서 몰아가 버리고 하니까. 나중에. 저 무엇인가, 우리 큰 오라버니, 큰 오빠가 그, 토벌 가서 옛날엔 말을 막, 토벌 가서 막, 그 산에 있는 말들을 모두 몰아 와서, 모주 저 그, 토벌 가 온 사람들이, 어느 말 차지하라, 어느 말 차지하라, 해서, 그 토벌 가서 몰아 온 사람 차지해서, 말 하나씩 주니까.)

104011 @1 으음.(으음.)

104011 #2 그때에 그저 완에 질루멍 헤나신디. 그때에는 물이, 이디 하영 안 질루와났수다. 막 잘허민, 흥 머리, 두 머리.(그때에 가져와서 기르면서 했었는데. 그때에는 말이, 여기 많이 안 길렀었습니다. 막 잘하면, 한 마리, 두 마리.)

104012 @1 물, 그 털 색깔에 따라근에 무시거엔 물 이름이 있지 안허우파?(말, 그 털 색깔에 따라서 뭐라고, 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104012 #1 예, 건.(예, 건.)

104012 #2 가레물 헨 거는.(가라말 한 거는.)

104012 #1 검은 물.(검은 말.)

104012 검은 거고랑 가레물.(검은 것을 가라말.)

104012 @1 가레물.(가라말.)

104012 #2 그, 또.(그, 또.)

104012 #1 적대물은 붉은 거.(적다마는 붉은 거.)

104012 #2 붉은 거는 적대물.(붉은 거는 적다마.)

104012 @1 예.(예.)

104012 #1 유마물.(유마.)

104012 #2 유마물은 그 코에 간쟁이 신 거라 유마물이렌 허는가?(유마는 그 코에 ‘간쟁이’ 있는 것을 유마라고 하는가?)

104012 #1 으, 어.(으, 어.)

104012 #2 간쟁이물이엔 허고.(간자말이라고 하고.)

104012 #1 벳네.(‘벳네’.)

104012 #2 계난, 그 가레물, 그 적대물. 경허는 거.(그러니까, 그 가라말, 그, 적다마. 그러는 거.)

104012 #1 계난 난, 물은 아니 질루왔주마는 그때 곤는 게 일 가레 이 청충 삼 적대엔 곤주게.(그러니까 난, 말은 아니 길렀지마는, 그때 말하는 게 일 가라, 이 청충, 삼 적다라고 말하지.)

104012 @1 예.(예.)

104012 #1 비싼 게. 검은 물이 제일 비싸고.(비싼 게. 검은 말이 제일 비싸고.)

104012 @1 예.(예.)

104012 #1 일 가레, 이 청충이라고 얼룩얼룩헌 물덜이 잇어.(일 가라, 이 ‘청충이’라고 얼룩얼룩한 말들이 잇어.)

104012 #2 예, 그, 청충이렌 헌 건 또 서로 ***헌 말이 잇어.(예, 그, 청충마라고 하는 건 또 서로 ***한 말이 잇어.)

104012 @1 예.(예.)

104012 #1 일 가레, 이 청충, 삼 적대.(일 가라, 이 청충, 삼 적다.)

104012 @1 삼 적대.(삼 적다.)

104012 #1 적대는 별경헌 거.(적다는 별경헌 거.)

104012 @1 예.(예.)

104012 #1 보기에는 별경헌 물이 제일 좋아 보여도. 그때는 치기를 일 가레, 이 청충, 삼 적대.(보기에는 별건 말이 제일 좋아 보여도. 그때는 치기를 일 가라, 이 청충, 삼 적다.)

104012 @1 검은 물을 제일?(검은 말을 제일?)

104012 #1 제일 우선으로.(제일 우선으로.)

104012 @1 첫구나예.(첫군요.)

104012 #1 가레물허고.(가라말하고.)

104012 @1 예, 예. 얼룩얼룩헌 물은 무슨?(예, 예. 얼룩얼룩한 말은 무슨?)

104012 #1 건, 저, 것라.(건, 저, 그것을.)

104012 #2 청충이.(청충마.)

104012 @1 청충이?(청충마?)

104012 #1 청충이. 청충이도 맞아. 아, 청충이 아니고.(청충이. 청충이도 맞아. 아, 청충이 아니고.)

104012 #2 청충이. 청충이. 그 휘뜩휘뜩헌 물은 청충이엔 허고. 별경헌 물을 가레물이엔 허고.(‘청충이’. ‘청충이’. 그 휘뜩휘뜩 한 말은 ‘청충이’라고 하고. 별건 말

을 가라말이라고 하고.)

104012 #1 벌건 건 적대물이주.(벌건 건 적다마이지.)

104012 #2 춤. 적대물이엔 허고. 가레물이엔 현 건 검은 물고라 경 혜영.(참. 적다마라고 하고. 가라말이라고 하는 건 검은 말을 그렇게 해서.)

104012 #1 검은 물.(검은 말.)

104012 #2 춤. 적대물이엔 허고. 벌건 거.(참. 적다마라고 하고. 벌건 거.)

104012 @1 으음. 코 위 희뚜룩 현 거 영 박아진 건?(으음. 코 위 희뚜룩 한 거 이렇게 박아진 건?)

104012 #1 그건 유마물.(그건 유마.)

104012 @1 유마물. 코간쟁이?(유마. 코간자말?)

104012 #2 예, 코간쟁이. 그건.(예, 코간자말. 그건.)

104012 @1 으음. 유마물. 다리나 발에 혜영현 거 박아진 건 무신 거엔 안 곱습니까?(으음. 유마. 다리나 발에 하얀 거 박힌 건 무슨 거라고 안 말합니까?)

104012 #2 난 그런 건 무신거엔 허는지 몰라.(난 그런 건 뭐라고 하는지 몰라.)

104012 @1 따로 아는 거 없고.(따로 아는 거 없고.)

104012 #1 그런 거 뭐시엔 곤데. 다리 꼭 요디만 혜영현 거.(그런 거 뭐라고 말 하데. 다리 꼭 요기만 하얀 거.)

104012 @1 예, 예. 요디만.(예, 예. 요기만.)

104012 #2 발통에 휘뜨룩하게 딸라진 물이 십니다.(발통에 휘뜨룩하게 박힌 말이 있습니다.)

104012 @1 음.(음.)

104012 #2 그것ㄴ라 뿃이엔사 허는지는 모르쿠다.(그것을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 겠습니다.)

104013 @1 물로도 밧 갈아낫수가? 그, 친정에서?(말로도 밧 갈았었습니까? 그, 친정에서?)

104013 #1 아니.(아니.)

104013 #2 아니, 저. 우리 옛날에는 그런 물로 밧 가는.(아니, 저. 우리 옛날에는 그런 말로 밧 가는.)

104013 #1 이 봉성은 물로 밧 가는 사름 하나도 엇어.(이 봉성은 말로 밧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104013 @1 예.(예.)

104013 #2 자갈뵤이난.(자갈밭이니까.)

104013 #1 자갈이 ㄴ득헨.(자갈이 가득했어.)

104013 @1 자갈뵤이라 부난.(자갈밭이라 버리니까.)

104013 #2 저, 동쪽으로 가민 경 물로 밧 간덴 험디다마는.(저, 동쪽으로 가면 그렇게 말로 밧 간다고 험디다마는.)

104013 @1 게민 물 혜영 무시거. 물?(그러면 말 해서 무엇. 말?)

104013 #2 물 헤여근에 짐 시켜 오고.(말 해서 짐 실어 오고.)

104013 @1 짐 시켜 오고.(짐 실어 오고.)

104013 #2 예. 밧 불리곡.(예. 밧 밟고.)

104013 @1 밧 불리곡.(밧 밟고.)

104013 #2 예.(예.)

104013 @1 으음.(으음.)

104013 #1 물도 이디 하영덜 질루와났주. 멤몰⁹⁵). 이 괏지, 귀덕 사름덜이 물 상 주면은 이 동네 사름덜이 물 그, 관리해 가지고 새끼 낳으면은 반착씩, 반착씩 갈르고.(말도 여기 많이들 길렀었지. ‘멤몰’. 이 괏지, 귀덕 사람들이 말 사서 주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말 그, 관리해 가지고 새끼 낳으면은 반씩, 반씩 가르고.)

104013 @1 아.(아.)

104013 #1 많이 경 헤났어. 이 동네. 계난 괏금성 사름덜이 조금 부제니까 물 사근엿에. 쉼나 물이나 상, 멤췌⁹⁶) 주고 멤몰 주고.(많이 그렇게 했었어. 이 동네. 그러니까 괏지, 금성 사람들이 조금 부자니까 말 사서. 소나 말이나 사서, ‘멤췌’ 주고, ‘멤췌’ 주고.)

104013 @1 으음.(으음.)

104013 #1 경 허면은 여기서는 그걸 질루멍, 맥이멍, 새끼 나면 반 갈라. 물 임대허고.(그렇게 허면은 여기서는 그걸 기르면서, 먹이면서, 새끼 나면 반 갈라. 말 임대허고.)

104013 @1 아.(아.)

104013 #1 원래 췌나 물은, 그, 그 사름 해변 사름 거주마는, 단지 우리는 그 관리허곡, 밧 불리곡 허영. 새끼 낳 반 갈르는 거.(원래 소나 말은, 그, 그 사람 해변 사람 거주마는, 단지 우리는 그 관리하고, 밧 밟고 해서. 새끼 나서 반 나누는 거.)

104013 @1 음. 그, 여기 저 마당에 타작할 때 물로 영 뭇 안 헤났수가?(음. 그, 여기 저 마당에 타작할 때 말로 이렇게 뭇 안 했었습니까?)

104013 #1 안 헤났어.(안 했었어.)

104013 @1 안 헤나고. 음.(안 했었고. 음.)

104013 #1 음.(음.)

104014 @1 물도 나이에 따라 말이 잊지 안허우파, 물? 혼 설은 무시거엔 험니까, 물?(말도 나이에 따라서 말이 잊지 않습니까?, 말. 한 살은 뭐라고 합니까?, 말.)

104014 #2 그건 몰라.(그건 몰라.)

104014 #1 금승망아지.(하름망아지.)

104014 #2 처음 난덴 허영 금수매엿 허고. 이수매, 저 곳 난 뎨 이수매. 그다음, 저, 두 슬 나민 이수매.(처음 난다고 해서 ‘금수매’라고 하고. ‘이수매’, 저 갓 난 뎨

95) ‘멤몰’은 배넛말, 주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기르는 말이다.

96) ‘멤췌’는 배넛소, 주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기르는 소이다.

‘일수매’. 그다음, 저, 두 살 나면 ‘이수매’.)

104014 @1 일수매.(‘일수매’.)

104014 #1 아니, 처음엔 금승몽생이.(아니, 처음엔 하룻망아지.)

104014 #2 세 살 나면 삼수매.(세 살 나면 ‘삼수매’.)

104014 @1 금승몽생이.(하룻망아지.)

104014 #1 금승몽생이 조적배기 문 거 답다 해 가지고. 어린 아이 담배 피와 가면 경 큰주게.(하룻망아지 조짚 문 거 답다 해 가지고. 어린 아이 담배 피워 가면 그렇게 말하지.)

104014 @1 금승몽생이 그다음에 무시겨 현 거 답다마씀?(하룻망아지 그다음에 뭐 한 거 같도고요?)

104014 #1 조적배기 문 거 답다.(조짚 문 거 답다.)

104014 @1 조적배기?(조짚?)

104014 #1 조, 조, 조. 조집.(조, 조, 조. 조짚.)

104014 @1 조집.(조짚.)

104014 #1 조집. 조집이라고. 저 냥. 놀영 데메지는 조, 조집. 고고리 잘라 불민 조집만 놀영 놔두주게.(조짚. 조짚이라고. 저 나무. 쌓아지는 조, 조짚. 이삭 잘라 버리면 조짚만 쌓아 놔두지.)

104014 @1 예, 예.(예, 예.)

104014 #1 게민 몽생이가 왕 막 빠 먹어. 물영.(그러면 망아지가 와서 막 빠 먹어. 물어서.)

104014 @1 아.(아.)

104014 #1 거, 왕, 몽생이덜은 막 바깥디 오랑 돌아댱기주게.(거, 와서, 망아지들은 막 바깥에 와서 돌아다니지.)

104014 @1 예, 예.(예, 예.)

104014 #1 큰 물만 안네 매 가지고. 게난, 그 누게 어디, 젊은 아이덜 담배 피와 가면은 금승몽생이, 너 조적배기 문 것처럼 담배 피웁젠. 경 골아난.(큰 말만 안네 매 가지고. 그러니까, 그 누구 어디, 젊은 아이들 담배 피워 가면은 하룻망아지, 너 조짚 문 것처럼 담배 피우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었어.)

104014 #2 (웃음).((웃음).)

104014 @2 (웃음).((웃음).)

104014 @1 (웃음). 조집빼기?((웃음). 조짚?)

104014 #1 조집빼기, 조집빼기.(조짚, 조짚.)

104014 @1 조집빼기. 음. 금승 몽생이.(조짚. 음. 하룻 망아지.)

104014 #1 조집빼기 문 것 답다.(조짚 문 것 답다.)

104014 #2 조집빼기. (웃음).(조짚. (웃음).)

104015 @1 음. 들은 질루와 보지 안해서양.(음. 말은 길러 보지 않았어요.)

104015 #1 들은, 이 동네 들 질루는 사름은 엇어났어.(말은, 이 동네 말 기르는

사람은 없었어.)

떡이

104016 @1 췌, 무시겨, 무시겨 맥여납디가?(소, 무엇, 무엇 먹였었습니까?)

104016 #1 췌게. 으름엔 목장에 강 저, 줄, 줄 박양 젓소 저기, 저 췌 받아 보는 사람한테 멧기면은 보리, 보리 저디 웃 말인가 일곱 말인가 쥐났어.(소. 으름엔 목장에 가서 저, 줄, 줄 박아서 젓소 저기, 저 소 받아 보는 사람한테 말기면 보리, 보리 저기 여섯 말인가 일곱 말인가 줬었어.)

104016 @1 예, 예.(예, 예.)

104016 #1 흔 두 척더레. 경 말기면은. 그루후에는 이제, 출 흥여당. 출.(한 두 척으로. 그렇게 말기면은. 그 후에는 이제, 풀 해다가. 풀.)

104016 @1 집이서?(집에서?)

104016 #1 전부 출밭덜이주게. 출밭덜.(전부 풀밭들이지. 풀밭들.)

104016 @1 예, 예.(예, 예.)

104016 #1 손으로 비곡. 비어당, 출 무꺼당, 집이 놀영, 출 놀엇당 출 맥이고.(손으로 베고. 베어다가, 풀 묶어다가, 집에 쌓아서, 풀 쌓았다가 풀 먹이고.)

104016 @1 예, 예.(예, 예.)

104016 #1 ㄱ슬 들어 가면은 하건, 콩꼬질도 맥이고.(가을 들어 가면은 여러 가지, 콩깍지도 먹이고.)

104016 @1 콩꼬질.(콩깍지.)

104016 #1 저디, 조집도 맥이고.(저기, 조짚도 먹이고.)

104016 @1 조집.(조짚.)

104016 #1 산딧집도 맥이고.(밭벧짚도 먹이고.)

104016 @1 아.(아.)

104016 #1 그, 잡풀이 많았주게. 농사지으난.(그, 잡풀이 많았지. 농사지으니까.)

104016 @1 산딧집도 먹는구나예.(밭벧짚도 먹는군요.)

104016 #1 예, 산딧집도 잘 먹어마썸.(예, 밧벧짚도 잘 먹어요.)

104016 @1 음.(음.)

104016 #1 그렇게 겨을을.(그렇게 겨을을.)

104016 @1 특별히 무시겨, 그런 거 말양 또 무시겨, ㄱ루 헤여근에 영, 뭐 솥양 주거나 허진 안헛수가?(특별히 뭐, 그런 거 말고 또 뭐, 가루 해서 이렇게, 뭐 삶아서 주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104016 #1 아니, 솥양은 안 주고.(아니, 삶아서는 안 주고.)

104016 @1 예.(예.)

104016 #1 그 저, 누깍 ㄱ루라고 헤 가지고 보리 가끄면은 나오는 ㄱ루 이수다.(그 저, ‘누깍 가루’라고 헤 가지고 보리 깍으면은 나오는 가루 있습니다.)

104016 @1 예, 예.(예, 예.)

104016 #1 누깅.(등겨.)

104016 @1 예.(예.)

104016 #1 출 썰으면. 그거는, 저 슬쉐. 슬지왕 풀 쉐덜만.(꿀 썰면. 그거는, 저 비육우. 살찌워서 팔 소들만.)

104016 @1 아.(아.)

104016 #1 썰어 가지고 그, 물 막 우려 가지고. 슬지렌 거 주고.(썰어 가지고 그, 물 막 우려 가지고. 살찌라고 거 주고.)

104016 @1 아, 슬지렌.(아, 살찌라고.)

104016 #1 예, 딱시 매날 죽 썰 줘야. 쉐가. 콩죽 썰 줘야.(예, 다시 매일 죽 썬서 줘야. 소가. 콩죽 썬서 줘야.)

104016 @1 콩죽도 썬 줘구나양.(콩죽도 썬 줘군요.)

104016 #1 게, 어떤 사람은 독도 잡양 주고.(그럼, 어떤 사람은 닭도 잡아서 주고.)

104016 @2 (웃음).((웃음).)

104016 @1 오.(오.)

104016 #1 독도 잡양 소레기로, 야가기로 막 질고. 춤지름에.(닭도 잡아서 ‘소레기’로, 목으로 막 붓고. 참기름에.)

104016 @1 아.(아.)

104016 #1 경허고 딱시, 예, 막걸리. 그게 제라하게 슬져마썸.(그리고 또, 예, 막걸리. 그게 굉장히 살찌요.)

104016 @1 예.(예.)

104016 #1 그 칭주, 그 남은 그, 주시레기를.(그 칭주, 그 남은 그, 찌꺼기를.)

104016 @1 예.(예.)

104016 #1 쉐가 거 잘 먹읍니다.(소가 거 잘 먹읍니다.)

104016 @1 음.(음.)

104016 #1 겐 그, 쉐가 또 취허여. 또, 드러누웁.(그래서 그, 소가 또 취해. 또, 드러누워.)

104016 @1 음.(음.)

104016 #1 그, 술 먹엉.(그, 술 먹고서.)

104016 @1 음.(음.)

104016 #1 그것도 맥이고. 이 저, 이 동네 허면은, 그때 마장동 갈 그 슬쉐가 소문, 누구네 쉐가 일등 잘 맥이는 집.(그것도 먹이고. 이 저, 이 동네 허면은, 그때 마장동 갈 그 비육우가 소문, 누구네 소가 일등 잘 맥이는 집.)

104016 @1 예.(예.)

104016 #1 요 집은 잘 맥이는 집, 쉐 잘 맥이는 집. 다 걸, 이런 말덜. 요디 우리 동네에서 일등 쉐 잘 맥이는 집은, 독도 잡양 맥이고. 그 부제 하르방인디. 쉐를 그렇게 잘 맥여났어. 소문난, 소문난.(요 집은 잘 맥이는 집, 소 잘 맥이는 집. 다

걸, 이런 말들. 요기 우리 동네에서 일등 소 잘 먹이는 집은, 닭도 잡아서 먹이고. 그 부자 할아버진데. 소를 그렇게 잘 먹였었어. 소문난, 소문난.)

104017 @1 출 몇 평이나 헤낫수가? 삼촌넨.(꿀 몇 평이나 했었습니까? 삼촌넨.)

104017 #1 출 비는 게, 우리는 혼 삼천 평 정도?(꿀 베는 게, 우리는 한 삼천 평 정도?)

104017 @1 삼천 평?(삼천 평?)

104017 #1 출왓. 말재에는 출왓을 다 풀아 불었주게. 육짓 놈들 와난.(꿀밭. 나중에는 꿀밭을 다 팔아 버렸지. 육지 놈들 오니까.)

104018 @1 예, 출 비레 가젠 허면은 뭐, 멧 사름이나?(예, 꿀 베러 가려고 하면은 뭐, 멧 사름이나?)

104018 #1 처음에는 수눌영 비어낫수게. 수눌영.(처음에는 품앗이해서 베었었지요. 품앗이해서.)

104018 @1 수눌영.(품앗이해서.)

104018 #1 여남은 이.(여남은 이.)

104018 @1 음.(음.)

104018 #1 수눌영 비단 말재이는 놉 빌, 이녀냥으로도 비고. 놉도 빌영 비고, 혼 두 사름 빌영도 비고.(품앗이해서 베다가 나중에는 놉 빌, 이녀대로도 베고. 놉도 빌려서 베고, 한두 사름 빌려서도 베고.)

104018 @1 출?(꿀?)

104018 #1 출 혼 들 험니께. 혼 들.(꿀 한 달 합니다. 한 달.)

104018 @1 혼 들?(한 달?)

104018 #1 예, 혼 달이 출. 매날 강. 출밭디 강 비곡.(예, 한 달이 꿀. 매일 가서. 꿀밭에 가서 베고.)

104019 @1 게민 출 비영 그디서 널어마썸?(그러면 꿀 베어서 거기서 널어요?)

104019 #1 예. 손으로 비영, 널영 물려야 무꿀 거 아니짱?(예. 손으로 베어서, 널어서 말려야 뭍을 거 아닙니까?)

104019 @1 아, 물린 다음에 무끄는구나양.(아, 말린 다음에 뭍는군요.)

104019 #1 예, 물려야. 완전히 물려야. 게난에 그 비 맞아. 비 맞으면은.(예, 말려야. 완전히 말려야. 그러니까 그 비 맞아. 비 맞으면은.)

104019 @1 뒤싸근에?(뒤집어서?)

104019 #1 음, 뒤쌏당 또 어쨌든 물리왕 무꺼야주.(음, 뒤집었다가 또 어쨌든 말려서 뭍어야지.)

104019 @1 게민 무껍 그디 늘어수가?(그러면 뭍어서 거기 쌓았습니까?)

104019 #1 아니, 집이. 그디 늘엇당. 밧디 다 늘엇당. 또, 다.(아니, 집에. 거기 쌓았다가. 밧에 다 쌓았다가. 또, 다.)

104019 @1 끝나민?(끝나면?)

104019 #1 끝나면은 혼, 경운기로 강 혼 번씩 강 시꺼 오는 거라.(끝나면은 한,

경운기로 가서 한 번씩 가서 실어 오는 거라.)

104019 @1 시경 왕 이디 출도 눌엇구나양?(실어 와서 여기 꼴도 쌓았군요?)

104019 #1 예, 처음에는 구루마로 시경 오당 말재인 경운기에.(예, 처음에는 마차로 실어 오다가 나중엔 경운기에.)

104019 @1 처음에는 몇 눌이나, 혼 눌?(처음에는 몇 가리나, 한 가리?)

104019 #1 혼 눌은 저 앞에.(한 가리는 저 앞에.)

104019 @1 큰 눌이라낫수다양.(큰 가리였군요.)

104019 #1 크게 눌언.(크게 쌓았어.)

104019 @1 음.(음.)

104019 #1 말재이는 저디 출 시꺼 오는 차가 이섯어. 혼 차에 하영 시킵주게.(말재에는 저기 꼴 실어 오는 차가 있었어. 한 차에 많이 신지요.)

104019 @1 음.(음.)

104019 #1 거면은 혼 서른 바리. 마흔 바리. 이렇게 시경.(그러면은 한 서른 바리. 마흔 바리. 이렇게 실어서.)

104019 @1 출눌 눌어근에 느람지도 더껏수가?(꼴가리 쌓아서 이영도 텃었습니까?)

104020 #1 아이, 느람지는 아니고. 저, 어욱이엔 혼 게 잇어. 어욱.(아이, ‘느람지’는 아니고. 저, 역새라고 하는 게 잇어. 역새.)

104020 @1 어욱, 예.(역새. 예.)

104020 #1 어욱 비어당 혼 구르마, 혼 경운기 많이 비어당, 저 초집 일 듯.(역새 베어다가 한 마차, 한 경운기 많이 베어다가, 저 초가 이듯.)

104020 @1 예.(예.)

104020 #1 일어야지, 일어야.(일어야지, 일어야.)

104020 @1 아.(아.)

104020 #1 조근조근 일영은앵에, 또 저 초집에 줄 놓듯 줄 놓은 걸로, 길게 허영 담들로 돌아메어.(자근자근 일어서, 또 저 초가에 줄 놓듯 줄 놓은 걸로, 길게 해서 돌로 달아메어.)

104020 @1 예, 예.(예, 예.)

104020 #1 양쪽에 영 오그령. 담 돌로 돌아메어야 불리지 안힐 거 아니우파게?(양쪽에 이렇게 오그려서. 돌로 달아메어야 불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104020 @1 예.(예.)

104020 #1 딱 눌영.(딱 쌓아서.)

104020 @1 예, 예.(예, 예.)

104020 #1 진 줄 혼 니 개 허민, 즈른 줄 혼 다섯 개 정도로 허영. 즈른 줄은 그로, 진 줄은 세로 길게. 게영 거 조근조근 이제 혼 쪽으로 빠명다가 맥, 메, 저, 쉼을 백입주게.(긴 줄 한 네 개 하면, 짧은 줄 한 다섯 개 정도로 해서. 짧은 줄은 가로로, 긴 줄은 세로로 길게. 그렇게 해서 거 자근자근 이제 한 쪽으로 빠면서 먹,

며, 저, 소를 먹이지.)

104020 @1 음.(음.)

104020 #1 흔 쪽으로만 빠멍. 즈근즈근. 영 질게 누르면.(한 쪽으로만 빼면서. 자근자근. 이렇게 길게 쌓으면.)

104020 @1 아. 질게.(아. 길게.)

104020 #1 질게 허면은.(길게 하면은.)

104020 @1 동글랑 허게가 아니라, 질게.(동그랑게가 아니라, 길게.)

104020 #1 아니. 질게, 질게. 질게 늘면 흔 쪽으로 경 빠멍 맥이는다. 저디 저, 어욱은 그냥 내청 저, 그 불 습고. 조근조근조근 헤영. 봄 나도록 맥영은에, 요름 나도록 맥영.(아니. 길게, 길게. 길게 쌓으면 한쪽으로 그렇게 빼면서 먹이는데. 저기 저, 역새는 그냥 내쳐서 저, 그 불 때고. 자근자근자근 해서. 봄 나도록 먹여서, 여름 나도록 먹여서.)

104020 @1 게 저, 보리 늘처럼 동그랑허게 안 해근에?(그게 저, 보리 가리처럼 동그랑게 안 해서?)

104020 #1 아니, 아니. 출놀은 다 질게.(아니, 아니. 풀가리는 다 길게.)

104020 @1 출놀은 질게 허는구나양.(풀가리는 길게 하는군요.)

104020 #1 밧디서, 임시 저장허는 건 동글랑허게.(밭에서, 임시 저장하는 건 동그랑게.)

104020 @1 으음.(으음.)

104020 #1 밧디 동그랑허게 늘엇당 출놀 꾸, 헌 저, 본 놀 허젠 허든 질게 해야 조근조근 빠 맥일 거 아니우파게?(밭에 동그랑게 쌓았다가 풀가리 꾸, 한 저, 본 가리 하려고 하면 길게 해야 자근자근 빠 먹일 거 아닙니까?)

104021 @1 흐음. 출왓은 막 멀어실 건디 매날 아침이 그냥 걸어수가?(흐음. 풀밭은 막 멀었을 건데 매일 아침에 그냥 걸었습니까?)

104021 #1 처음에는 걸영 텅길 댄디, 밧디서, 밧디서 막 짓영 자야 댄.(처음에는 걸어서 다닐 댄데, 밧에서, 밧에서 막 짓고 자야 댄.)

104021 @1 아.(아.)

104021 #1 쓸 ㄱ져강 정 밥 헤 먹으멍. 처음에는.(쌀 가져가서 그렇게 밥 헤 먹으면서. 처음에는.)

104021 @1 아.(아.)

104021 #1 출 빌 때.(풀 벨 때)

104021 @1 예.(예.)

104021 #1 처음에는. 경운기도 엇고 아무것도 엇일 때는. 쉼 몰양 강 그디 쉼 질르곡 자멍 그, 그때는 거의, 거의 사름덜 다 출 막 짓영 자.(처음에는. 경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소 몰고 가서 거기 소 기르고 자면서 그, 그때는 거의, 거의 사람들 다 풀 막 지어서 자.)

104021 @1 아.(아.)

104021 #1 귀덕 사름이건, 이 동네 사름이건 다.(귀덕 사름이건, 이 동네 사름이건 다.)

104021 @1 아.(아.)

104021 #1 출 빌 때는.(꿀 벨 때는.)

104021 @1 출 빌 때양.(꿀 벨 때요.)

104021 #1 막 짓엉 자멍, 혼 열흘씩 장 내려왔당. 혼 보름씩은 자서. 밧디서. 출 왔. 출. 경해야게 아침에 일어난 비곡, 저녁깁장, 어둑움깁장 출 비곡.(막 지어서 자면서, 한 열흘씩 자고 내려왔다가. 한 보름씩은 잤어. 밧에서. 꿀밭. 꿀, 그렇게 해야 아침에 일어나서 베고, 저녁까지, 어두울 때까지 꿀 베고.)

104021 @1 출 비레 강 혼 열흘씩 자고.(꿀 베러 가서 한 열흘씩 자고.)

104021 #1 예.(예.)

104021 @1 또 번 돌아오민 또.(또 ‘번’ 돌아오면 또.)

104021 #1 췌 번 볼 때는.(소 번 볼 때는.)

104021 @1 췌 번 볼 때도 혼 보름씩 강?(소 번 볼 때도 한 보름씩 가서?)

104021 #1 예, 보름씩 강. 건 두 사름이 벃헝 강.(예, 보름씩 가서. 건 두 사름이 벃하고 가서.)

104021 @1 두 사름이 벃헝 강양?(두 사름이 벃하고 가서요?)

104021 #1 예. 밥 저디, 동고량에 밥헝 강 허면, 양 두 땀 먹읍주게.(예. 밥 저기, ‘동고량’에 밥하고 가서 하면, 양 두 땀 먹지요.)

104021 @1 예.(예.)

104021 #1 먹으면은 뒷날 사름, 또 번 보레 교대로 오는 사름한테 또, 집이 예펜이 밥헝 곳다 쥐.(먹으면은 뒷날 사람, 또 번 보러 교대로 오는 사람한테 또, 집의 여편이 밥해서 갖다 쥐.)

104021 @1 예, 예.(예, 예.)

104021 #1 쟁 그거 또 곳다 주민 거 먹고.(그렇게 해서 그거 또 갖다 주면 거 먹고.)

땀감

104022 @1 여기는 뭐 진을커 뭐, 무시거 무시걸로, 영 진을커 혜수가?(여기는 뭐 땀감 뭐, 무엇, 무엇으로, 이렇게 땀감 했습니까?)

104022 #1 아, 진을컷이. 그게 막 어려와났주게.(아, 땀감이. 그게 막 어려웠었지.)

104022 @1 흐음.(흐음.)

104022 #1 저, 보통 술섭. 술섭, 소나무.(저, 보통 술잎. 술잎, 소나무.)

104022 @1 아. 예, 예.(아. 예, 예.)

104022 #1 소나무 가지 거시려당⁹⁷.(소나무 가지 ‘거시려당’.)

97) ‘거시리다’는 나뭇가지를 숨거나 쳐내어 다듬는 것을 말한다.

104022 @1 예, 예.(예, 예.)

104022 #1 허곡. 저디 그, 저, 주로 허젠 허민 콩꼬질.(하고. 저기 그, 저, 주로 하려고 하면 콩깍지.)

104022 @1 콩꼬질.(콩깍지.)

104022 #1 콩꼬질허곡 소나무 가지가 그때 보통으로. 소나무 가지를 ㄱ을 들엉. 그, 일 다 끝나면은. 소나무 신 사름신디 강, 가지 빌영 거시려 와.(콩깍지하고 소나무 가지가 그때 보통으로. 소나무 가지를 가을 들어서. 그, 일 다 끝나면은. 소나무 있는 사람한테 가서, 가지 빌려서 ‘거시려’ 와.)

104022 @1 예.(예.)

104022 #1 경헛당 그걸. 그게 또, 경찰이, 고소하면은 경찰덜이 왕, 소나무 가지 ㄱ져 왓젠 허영.(그렇게 했다가 그걸. 그게 또, 경찰이, 고소하면은 경찰들이 와서, 소나무 가지 가져 왔다고 해서.)

104022 @1 아.(아.)

104022 #1 벌금도, 심어당 벌금도 내곡 헤나신디.(벌금도, 잡아다가 벌금도 내고 했었는데.)

104022 @1 아, 가지 거스리는 것도 경 헤낫수가, 소나무?(아, 가지 ‘거스리는’ 것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소나무?)

104022 #1 예, 예. 가지 거슬러당 놀영 놔두면 경찰 왕 거 잡아가. 거 고발해 불면.(예, 예. 가지 ‘거슬러당’ 쌓아서 놔두면 경찰 와서 거 잡아가. 거 고발해 버리면.)

104022 @1 아.(아.)

104022 #1 그, 가지 거슬러 온 것도.(그, 가지 ‘거슬러’ 온 것도.)

104022 @1 으음.(으음.)

104022 #1 소나무, 계난 경찰들은 소나무 가지 하나도 못 건드리게 만들주게. 법으로. 계도 알아도 모른 책. 고발하면 심어당.(소나무, 그러니까 경찰들은 소나무 가지 하나도 못 건드리게 만들지. 법으로. 그래도 알아도 모른 책. 고발하면 잡아다가.)

104022 @1 고발하면양. 아, 소나무 거, 통째로 끊는 것도 아니고, 가지 거스령 온 건디?(고발하면요. 아, 소나무 거, 통째로 끊는 것도 아니고, 가지 ‘거스령’ 온 건데?)

104022 #1 또 것도 경찰이 왕 벌금 내사. 거 심어당.(또 것도 경찰이 와서 벌금 내야. 거 잡아다가.)

104022 @1 경허고 밥헛 때 진을커는 뭐 보리낭, 주로?(그리고 밥할 때 땀감은 뭐 보릿짚, 주로?)

104022 #1 보리낭허고, 게 솔, 솔입.(보릿짚하고, 게 솔, 솔입.)

104022 @1 솔입?(솔잎?)

104022 #1 솔입.(솔잎.)

104022 @1 솔입허고. 솔입 걷으레도 가낫수가?(솔잎하고. 솔잎 걷으러도 갔었습니까?)

104022 #1 아이고. 그, 솔입 걷으레도 많이 다니고. 이 저, 보통 이녁 밧디 진을 커용으로, 어떤 저 낫인 밧 소나무를 싱겨, 몇 십 개씩.(아이고. 그, 솔잎 걷으러도 많이 다니고. 이 저, 보통 이녁 밧에 뿔감용으로, 어떤 저 나쁜 밧 소나무를 심어, 몇 십 개씩.)

104022 @1 예, 예.(예, 예.)

104022 #1 일 년에 혼 꼭지 끈어당. 소나무는 가지는 놀곡, 장작으로 헤영은영에 헛당 걸 물리면은, 제사 때나 그럴 때나 장작으로 다 쓰고.(일 년에 한 꼭지 끊어다가. 소나무는 가지는 쌓고, 장작으로 해서 했다가 걸 말리면은, 제사 때나 그럴 때나 장작으로 다 쓰고.)

104022 @1 으음.(으음.)

104022 #1 그, 그거, 그거 일이랏주. 그거.(그, 그거, 그거 일어었지. 그거.)

104022 @1 으음.(으음.)

104022 #1 그, 진을커 허젠. 진을커 소나무가 그렇게 어려완, 그뎐.(그, 뿔감 하려고. 뿔감 소나무가 그렇게 어려웠어, 그뎐.)

104024 @1 흐음. 그건 무신거로 걷언 와수가? 걷은텐 험니까, 솔입?(흐음. 그건 무엇으로 걸어서 왔습니까? 걷은다고 합니까, 솔잎?)

104024 #1 근는텐 해, 근는텐.(‘근는다’고 해, ‘근는다’고.)

104024 @1 근는텐.(‘근는다’고.)

104024 #1 그 솔입 굶으레 가자 허여.(그 솔잎 굶으러 가자 해.)

104024 @1 솔입 굶으레 가자.(솔잎 굶으러 가자.)

104024 #1 글쟁이로게. 글쟁이로.(갈퀴로. 갈퀴로.)

104024 @1 글쟁이로. 근은텐.(갈퀴로. 굶는다고.)

104024 #1 솔입 근으레 가자 허여. 근은텐.(그 솔잎 굶으러 가자 해. 굶는다고.)

104024 @1 솔입 굶으레 가자.(솔잎 굶으러 가자.)

104024 #1 건 여인들이 강, 근영 짐정 오곡.(건 여인들이 가서, 굶어서 짐지고 오고.)

104024 @1 음, 음. 글쟁이로 허니까. 근은텐 말이구나.(음, 음. 갈퀴로 하니까. 굶는다는 말이구나.)

104024 #1 솔입 근으레 가자, 글쟁이로.(솔잎 굶으러 가자. 갈퀴로.)

104024 @1 건 어떻 정 와마쭈?(건 어떻게 지고 와요?)

104024 #1 딱딱 무꺼 가지고. 배로. 영영 조근조근 영 그, 딱 췌이는 거라.(딱딱 묶어 가지고. 배로. 이렇게, 이렇게 자근자근 이렇게 그, 딱 조이는 거라.)

104024 @1 예.(예.)

104024 #1 배로. 영 췌이민. 그게 훌어지지 않게 딱 무꺼져 이놈으 게, 옛날에. 영 조근조근 놓아 가지고.(배로. 이렇게 조이면. 그게 훌어지지 않게 딱 묶어져 이

놈의 게, 옛날에. 이렇게 자근자근 놓아 가지고.)

104024 @1 예.(예.)

104024 #1 경 지영 오주게. 경 지영, 등허리로 정.(그렇게 저서 오지. 그렇게 저서, 등허리로 저서.)

104024 @1 등허리로 지영 와예.(등허리로 지어서 와요.)

104024 #1 허고 또 저디 그, 굴묵 여 겨울에 나젠 허면.(하고 또 저기 그, 굴묵 이렇게 겨울에 나려고 하면.)

104024 @1 음.(음.)

104024 #1 저 뭇똥, 쉼똥 저 목장에 강 좇어당 계속 제경 놔두고.(저 말똥, 소똥 저 목장에 가서 주워다가 계속 쌓아서 놔두고.)

104024 @1 아.(아.)

104024 #1 굴묵 진영 그, 따뜻해.(‘굴묵’ 때서 그, 따뜻해.)

104024 @1 아. 쉼똥, 뭇똥.(아. 소똥, 말똥.)

104024 #1 예, 쉼똥, 뭇똥.(예. 소똥, 말똥.)

104024 @1 예.(예.)

104024 #1 그리고 그건 쉼 몰양 강 시경 와야 돼. 그것도.(그리고 그건 소 몰아서 가서 실어 와야 돼. 그것도.)

104024 @1 뭇똥, 뭇똥?(말려서, 말려서?)

104024 #1 뭇똥 걸.(마른 걸.)

104024 @1 뭇똥 거?(마른 거?)

104024 #1 예, 뭇똥 걸 좇어당.(예, 마른 걸 주워다가.)

104024 @1 좇어당.(주워다가.)

104024 #1 저, 목장에 쉼 질루는 디.(저, 목장에 소 기르는 데.)

104025 @1 음. 나무는 계난 그, 경찰 때문에.(음. 나무는 그러니까 그, 경찰 때문에.)

104025 #1 그, 경찰이 그냥 그 저, 타칠 안 해마썸. 타칠 안 허는디, 어떤, 이 마을에 뭐, 어떤 분, 사고가 났다. 무슨 사건이 났다 허면은.(그, 경찰이 그냥 그 저, 관여를 안 해요. 관여를 안 하는데, 어떤, 이 마을에 뭐, 어떤 분, 사고가 났다. 무슨 사건이 났다 하면은.)

104025 @1 그.(그.)

104025 #1 경찰이 왕 이 마을을 못을 파 불켄 허여.(경찰이 와서 이 마을을 못을 파 버리겠다고 해.)

104025 @1 예.(예.)

104025 #1 솔입랭이 하나 못 건드리게 허켄.(솔잎 하나 못 건드리게 하겠다고.)

104025 @1 예.(예.)

104025 #1 일부러 낄양 가. 경 행 허면은 그, 그 그, 막 이장이영 스정흠주게.(일부러 말하고 가.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그 그, 막 이장과 사정하지요.)

104025 @1 예.(예.)

104025 #1 저 경찰을. 술 맥이곡, 막 좋은 음식 해연 대접하고 해연.(저 경찰을. 술 먹이고, 막 좋은 음식 해서 대접하고 했어.)

104025 @1 음.(음.)

104025 #1 막 달래면은. 건 봐도 그냥, 그냥 갈 철이 아니우파, 경찰이.(막 달래면은. 건 봐도 그냥, 그냥 갈 거 아녘니까, 경찰이.)

104025 @1 음.(음.)

104025 #1 혼번은 요디 살인사건이 낫어마썸. 요 앞서서.(한번은 요기 살인사건이 낫어요. 요 앞에서.)

104025 @1 음.(음.)

104025 #1 살인사건이 나난. 경찰들이게, 범인을, 범인도 잡지 못하고 허연. 뭐 자살도 아니고, 저디 당구장에서 밤 열두시에, 비 오는 날 당구 치단에, 집이 갖다 허는다. 바로 집 앞이 고랑창이 박안 죽어 부난에.(살인사건이 나니까. 경찰들이, 범인을, 범인도 잡지 못하고 해서. 뭐 자살도 아니고, 저기 당구장에서 밤 열두시에, 비 오는 날 당구 치다가, 집에 갔다 하는데. 바로 집 앞의 고랑창에 박아서 죽어 버리니까.)

104025 @1 음.(음.)

104025 #1 거 부모, 부모네가 거 경찰에 곧 신고할 거 아니우파게?(거 부모, 부모네가 거 경찰에 곧 신고할 거 아녘니까?)

104025 @1 음.(음.)

104025 #1 계난게, 동네 청년은 다 심어, 심어 갈 판이라.(그러니까, 동네 청년은 다 잡아, 잡아 갈 판이라.)

104025 @1 예, 예.(예, 예.)

104025 #1 계도게 이거는 뭐 어떤 타살도 아니곡, 그때 허연 그, 경찰들이 이놈 새끼들 바른 말 안 허민 이 봉성을 못을 파 불켄.(그래도 이거는 뭐 어떤 타살도 아니고, 그때 해서 그, 경찰들이 이놈의 새끼들 바른 말 안 하면 이 봉성을 못을 파 버리겠다고.)

104025 @1 (웃음).((웃음).)

104025 #1 경헤연, 그때는 술입켄이 하나 시켜 오지 못허게 멘들켄 막 허영. 그때 법에 걸언, 막 그런 예가 잇어난.(그렇게 해서, 그때는 술입 하나 실어 오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막 해서. 그때 법에 걸어져서, 막 그런 예가 있었어.)

104025 @1 음.(음.)

104025 #1 계난 경 안 허면은 경찰도 다 사름이난게. 진을커 허영 ㄱ정 온는다. 특별히 나도 참 스정해낫주.(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경찰도 다 사름이니까. 떨감 해서 가져 오는데. 특별히 나도 참 사정했었지.)

104025 @1 특별히 나무허레 영 어디 고지에 가진?(특별히 나무하러 이렇게 어디 산에 가진?)

104025 #1 아이고, 가.(아이고, 가.)

104025 @1 음.(음.)

104025 #1 가냘주게, 다.(갔었지, 다.)

104025 @1 무슨 용도로마씀?(무슨 용도로요?)

104025 #1 진을커용으로.(뽕감용으로.)

104025 @1 진을커용으로?(뽕감용으로?)

104025 #1 예. 쉼로 시경 왕 깨어 가지고, 강 구루마로 시켜 가고.(예. 소로 실어 와서 깨어 가지고, 가서 마차로 실어 가고.)

104025 @1 장작 팬에?(장작 패어서?)

104025 #1 그때는, 이 겨울 때는 이, 진을거가 제일 허고. 이 저, 결혼식 때 같은 때도.(그때는, 이 겨울 때는 이, 뽕감이 제일 허고. 이 저, 결혼식 때 같은 때도.)

104025 @1 예.(예.)

104025 #1 나무를 많이 해 놔둬야. 뉘야지도 나무로 숲곡.(나무를 많이 해 놔둬야. 돼지도 나무로 삼고.)

104025 @1 음.(음.)

104025 #1 이 뭐, 전지⁹⁸도 집이서만 다 헐 때난. 나무가 아주 귀해나십주게. 그때는.(이 뭐, ‘전지’도 집에서만 다 헐 때니까. 나무가 아주 귀했었지요. 그때는.)

104025 @1 음, 장작?(음, 장작?)

104025 #1 음.(음.)

104025 @1 허젠 허민예.(하려고 하면요.)

104025 @2 음.(음.)

104025 #1 저디 겨울 들면 이 동네 사름 솥 구워당 풀젠, 솥구우레 고지 강 살명.(저기 겨울 들면 이 동네 사람 솥 구워다가 팔려고, 솥 구우러 산에 가서 살면서.)

104025 @1 아.(아.)

104025 #1 멧 달씩 눈 위에 고지 살명, 솥 구워당 살명. 솥 알아지느냐, 솥?(멧 달씩 눈 위에 산에 살면서, 솥 구워다가 살면서. 솥 알아지는가? 솥)

104025 @1 계난 삼춘은 솥 구워납디가?(그러니까 삼춘은 솥 구웠었습니까?)

104025 #1 나도 구워났주.(나도 구웠었지.)

104025 @1 아이고?(아이고?)

104025 #1 구우민은 산감한티 걸 걸[꼴]리주게. 산감한티 걸[꼴]릴 거 아니. 그 솥 구운 걸.(구우면은 ‘산감’한테 걸 걸리지. 산감한테 걸릴 거 아니. 그 솥 구운 걸.)

104025 @1 예예.(예예.)

104025 #1 영 보면은, 산감 왁져 허면은, 막 도망쳐야. 도망쳐.(이렇게 보면은, 산감 온다 하면은, 막 도망쳐야. 도망쳐.)

98) ‘전지’는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변철에서 동그랗고 자그맣게 지진 전이다.

104025 @1 음.(음.)

104025 #1 겐디 저, 그 고지서. 그레, 솟 구는 거는 겨울에 눈 올 때 구는 거니 까.(그런데 저, 그 산에서. 그리, 솟 굽는 거는 겨울에 눈 올 때 굽는 거니까.)

104025 @1 음.(음.)

104025 #1 산감이 경 오질 안허여.(산감이 그렇게 오질 않아.)

104025 @1 음.(음.)

104025 #1 저, 내 혼 스무 남은에 개발 땅이라고 혼 디, 나무만 끈영 제기면은 그디 그, 저 모슬포 군인 상사가 와 가지고 상, 그 개발 땅이렝 허영 상.(저, 내 한 스무 남은에 개발 땅이라고 하는 데, 나무만 끊어서 쌓으면은 거기 그, 저 모슬포 군인 상사가 와 가지고 사서, 그 개발 땅이라고 해서 사서.)

104025 @1 예.(예.)

104025 #1 허면은 그때 공개적으로.(하면은 그때 공개적으로.)

104025 @1 예예.(예예.)

104025 #1 군인덜이 왕 트랙터에 실렁 가는다.(군인들이 와서 트랙터에 싣고 가 는데.)

104025 @1 예.(예.)

104025 #1 그디도 간에 흐뎡 살아나고. 개발 남 끊으레.(거기도 가서 조금 살았 었고. 개발 나무 끊으러.)

104025 @1 음. 쟁 헨 거.(음. 그렇게 해서 거.)

104025 #1 눈, 눈 올 때.(눈, 눈 올 때.)

104025 @1 눈 올 때?(눈 올 때?)

104025 #1 하이고, 눈에 밭, 밭 눈에 빠지면 그때는 그, 고무신 신영 가니까 해 원, 눈 우이.(하이고, 눈에 밭, 밭 눈에 빠지면 그때는 그, 고무신 싣고 가니까 해원, 눈 위에.)

104026 @1 음. 계난 그 솟 구워난 이야기 혼번 곱아 봅서.

104026 #1 솟 구워난 거는, 저, 처음 나 혼 두어 번 간 구워나신디. 이 동네 사 립이 글렌 헤연. 나 혼 스무 남은에 간 솟 구우는다 혼 십일월 달에 막 딱신 날 잇 지 안으파. 지금도.(솟 구웠던 거는, 저, 처음 나 한 두어 번 가서 구웠었는데. 이 동네 사람이 가자고 해서. 나 한 스무 남은에 가서 솟 굽는데 한 십일월 달에 막 따뜻한 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104026 @1 음.(음.)

104026 #1 막 딱신 날인디. 아마 혼 십일월 달 말쭙 될 거라. 올라간에.(막 따뜻 한 날인테. 아마 한 십일월 말쭙 될 거라. 올라가서.)

104026 @1 음.(음.)

104026 #1 아, 이젠 낭을 다 쫓어 가지고. 솟을 구어야 될 거 아니파게. 다 끈어 동 즐랑 이제 이, 혼 이틀, 혼 삼일은 막 뜻안에. 이제는, 막도 아이 짓고 저, 가빠 ㄱ경 간 낭 위에 걸천에 이제는 그냥 잠을 잔. 젊을 때난 추워 뷔도 아녀고.(아, 이

젠 나무를 다 끊어 가지고. 솥을 구워야 될 거 아녘니까. 다 끊어 두고 잘라서 이제 이, 한 이틀, 한 삼일은 막 따뜻해서. 이제는, 막도 아니 짓고 저, ‘가빠’ 가지고 가서 나무 위에 걸쳐서 이제는 그냥 잠을 잤어. 젊을 때니까 추워 보이지도 않고.)

104026 @1 아.(아.)

104026 #1 아, 이제는 완전히 저, 솥 구웬 허면은 막 제게 흑으로 지쳐. 게, 불부찌면 이놈 것이 흑 속에서 타는 거라. 솥 뒤편 허민. 타는디 하, 그거 하, 마지막 삼일째는 그렇게 덥던 날이 비가 오는데, 막 비가 와. 천막. 가빠로 천막 치킨 쳤는데 아, 문, 이젠 게도 침 무진, 불안 보니까 그, 비 오다가 이젠 눈으로 변헌 거라. (아, 이제는 완전히 저, 솥 구우려고 하면은 막 빨리 흑으로 지쳐. 게, 불붙이면 이놈의 것이 흑 속에서 타는 거라. 솥 되려고 하면. 타는데 하, 그거 하, 마지막 삼 일째는 그렇게 덥던 날이 비가 오는데, 막 비가 와. 천막. ‘가빠’로 천막 치킨 쳤는데 아, 모두, 이젠 그래도 참 무진, 밝아서 보니까 그, 비 오다가 이젠 눈으로 변한 거라.)

104026 @1 아.(아.)

104026 #1 이, 몸이 눈이 묻어 있어. 깨난 보난. 게 이젠 둘이 갓는데, 이제 밥을 흰 술 해연 가 둘이 다 먹고 헐에, 내려왔주. 내려왔단 이제 솥을 파래 갈 거 아니라게 이제.(이, 몸에 눈이 묻어 있어. 깨나서 보니까. 게 이젠 둘이 갓는데, 이제 밥을 한 술 해서 가 둘이 다 먹고 해서, 내려왔지. 내려왔다가 이제 솥을 파래 갈 거 아니라. 이제.)

104026 @1 예.(예.)

104026 #1 파래 간 보니까 문막 재가 뒤편 붙어서. 문막 불부천.(파래 가서 보니까 모두 재가 돼 버렸어. 모두 불붙어서.)

104025 @1 (웃음).((웃음).)

104027 #1 헛치기헐 와나고. 헐번은 우리 헐 스무 남은, 스물댓 될 땐디, 서이가 저, 술도 아래 폭낭오름⁹⁹)이엔 헐 디 강, 이젠 서이가 솥을 굽는다. 카, 호루라기 소리가 알로 나. 아이고, 산감 왔젠 다 도망을. 서이가 각자 도망천. 아 그놈, 아, 그 사람은 산감 위탁을 받긴 받은 사람인디, 구멸동¹⁰⁰) 저, 그 당시에 흥 썬디. 그 이 저, 초기왔디, 초기왔디 공장장 허는 놈이라. 초기왔, *** 출기왔디. 그놈이 올라가단에 호루라기 불어 불언. 연기 나니까.(헛노릇해서 왔었고. 한번은 우리 한 스무 남은, 스물 댓 될 땐데, 서이가 저, 술도 아래 ‘폭낭오름’이라고 하는 데 가서, 이젠 서이가 솥을 굽는데. 카, 호루라기 소리가 아래서 나. 아이고, 산감 왔다고 다 도망을. 서이가 각자 도망쳤어. 아 그놈, 아, 그 사람은 산감 위탁을 받긴 받은 사람인데, 구멸동 저, 그 당시에 흥썬데. 그 이 저, 초기 밭에, 초기 밭에 공장장 하는 놈이라. 초기 밭, *** 초기 밭에. 그놈이 올라가다가 호루라기 불어 버렸어. 연기 나니까.)

99) ‘폭낭오름’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화전동 북서쪽에 있는 오름이다.

100) ‘구멸동’은 제주시 애월읍 어도리에 있는 자연부락 이름이다.

104027 @2 (웃음).((웃음).)

104027 #1 아이고, 도망천 나도 그 저. 그 말째에덜은 웃으멍 헛주마는. 그때는
숫구젠 허민 그, 산감 때문에 즈들아전.(아이고, 도망쳐서 나도 그 저. 그 말째에들
은 웃으면서 헛지마는. 그때는 숫 구우려고 하면 그, 산감 때문에 걱정되어서.)

104027 @1 음.(음.)

104027 #1 산감 왕, 그 썰리면은 저, 거는 벌금 내곡, 심허면 갓히고 헤낫주게.
(산감 와서, 그 썰리면은 저, 거는 벌금 내고, 심하면 갓히고 헛었지.)

104027 @1 음. 게난 두, 두어 번 기자 뜨라간.(음. 그러니까 두, 두어 번 그저
따라가서.)

104027 #1 예 예, 뜨라간.(예 예, 따라가서.)

104027 @1 그, 숫 구고.(그, 숫 굽고.)

104027 #1 경혜연 나 그것에, 전문적으로 숫 쾅 돈 버는 사람이 셔낫수다게.(그
렇게 해서 나 그것에, 전문적으로 숫 구워서 돈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4027 @1 예, 게민 숫을 전문적으로 굽는 사람안티 산에 이제 썬수다양.(예,
그러면 숫을 전문적으로 굽는 사람한테 사서 이제 썬네요.)

104027 #1 아니, 아니. 우린 숫, 숫은 이녁냥으로 그, 구워단 썬주.(아니, 아니.
우린 숫, 숫은 이녁대로 그, 구워다가 썬지.)

104027 @1 아.(아.)

104027 #1 겨울에 숫불 때는 건. 그, 조그만씩. 이 아래서도 굽곡.(겨울에 숫불
때는 건. 그, 조금씩. 이 아래서도 굽고.)

104027 @1 아래서?(아래서?)

104027 #1 음. 그 하천 부지 같은 디 멘딱 낭이라.(음. 그 하천 부지 같은 데 모
두 나무라.)

104027 @1 음.(음.)

104027 @2 음.(음.)

104027 #1 하천에, 그때 옛날에는.(하천에, 그때 옛날에는.)

104027 @1 아래서 굽는 건 누게 뭐렌 안 헛수과?(아래서 굽는 건 누가 뭐라고
안 헛습니까?)

104027 #1 아니, 안 헤. 거기서 헤영.(아니, 안 헤. 거기서 해서.)

104027 @1 음.(음.)

104027 #1 혼 구루마 썬어당 이거 굽곡. 겨난 숫 굽는 게 쾅장히 그 어렵주. 늘,
늘남을 불을 부치기 때문에, 불이 잘 아이 부떠. 이놈으 게.(한 마차 썬어다가 이거
굽고. 그러니까 숫 굽는 게 쾅장히 그 어렵지. 날, 날나무를 불을 붙이기 때문에, 불
이 잘 아니 붙어. 이놈의 게.)

104027 @1 음.(음.)

104027 #1 게영 그 불이 거제 다 부뗨다 허면은, 그 고망을 탁 막아 부는 거라.
(그렇게 해서 그 불이 거의 다 붙었다 하면은, 그 구멍을 탁 막아 버리는 거라.)

104027 @1 예.(예.)

104027 #1 그, 거기서 지대로 끄게. 케면 그, 지대로 꺼정, 그냥 숯이 뉘꼭 냉바리가 뉘꼭. 아이 칸 거는 냉바리가 뉘꼭.(그, 거기서 지대로 끄게. 그러면 그, 지대로 꺼지고, 그냥 숯이 되고 냉과리가 되고. 아니 칸 거는 냉과리가 되고.)

104027 @1 음. 아.(음. 아.)

104027 #1 아이 칸 거는 냉바리 뉘꼭. 거는 저 연기 낭 거, 불 질는 게 냉바리 처록 불 잘 부뜨는 거는 엇고.(아니 탄 거는 냉과리 되고. 거는 저 연기 나서 거, 불 질는 게 냉과리처럼 불 잘 붙는 거는 없고.)

104027 @1 아.(아.)

104027 #1 건 숯 구당 막 들른 거난.(건 숯 굽다가 막 마른 거니까.)

104027 @1 아. 숯.(아. 숯.)

104027 #1 숯이 아이 뉘 거.(숯이 아니 뉘 거.)

104027 @1 숯 안 뉘 거.(숯이 안 뉘 거.)

104027 #1 반짝, 반만 뉘 거.(반쪽, 반만 뉘 거.)

104027 @1 아, 숯 안 뉘 거.(아, 숯 안 뉘 거.)

104027 #1 것ㄴ라 냉바리렌 해.(그것을 냉과리라고 해.)

104027 @1 냉바리엔 햐구나양.(냉과리라고 하고 있군요.)

104027 #1 그거 그, 냉바리를, 잔치 때 우선 냉바리를 이제, 그걸 햐야 전기 지곡, 그걸로만 다 햐주. 그렇게 불 잘 부뜨.(그거 그, 냉과리를, 잔치 때 우선 냉과리를 이제, 그걸 햐야 ‘전기’ 지지고, 그걸로만 다 햐지. 그렇게 불 잘 붙어.)

사냥

104029 @1 으음. 여기 무신, 꿩코¹⁰¹도 놓으레 댕겨 볍디가?(으음. 여기 무슨, ‘꿩코’도 놓으리 다녀 보셨습니까?)

104029 #1 꿩코 노래 댕겨봣주. 혼 스물 전이. 스무 남은 전이.(꿩코 놓으리 다녀 봤지. 한 스물 전에. 스무 남은 전에.)

104029 @1 전이?(전에?)

104029 #1 예. 스무 남은 전이. 꿩코.(예. 스무 남은 전에. ‘꿩코’.)

104029 @1 아, 그 장개가기 전이?(아, 그 장가가기 전에?)

104029 #1 예게. 그때는 꿩코 아이 논 사름도 웃고. 꿩코 그때는 사름마다 꿩코 놓디다.(예. 그때는 ‘꿩코’ 아니 놓은 사름도 없고. ‘꿩코’ 그때는 사름마다 ‘꿩코’ 놓디다.)

104029 @1 음.(음.)

104029 #1 사름마다. 겨울에. 게 그걸 풀아. 꿩 잡아당. 족제비햐고.(사름마다. 겨울에. 게 그걸 팔아. 꿩 잡아다가. 족제비햐고.)

104032 @1 예. 족제비도.(예. 족제비도.)

101) ‘꿩코’는 꿩을 잡기 위한 울가미다.

104032 #1 팔아. 족제비 비싸.(팔아. 족제비 비싸.)
 104032 @1 족제비도 코 놔근에.(족제비도 올라미 놓아서.)
 104032 #1 아이, 건 덧. 족제비.(아니, 건 덧. 족제비.)
 104032 @1 덧 헤어근에?(덧 해서?)
 104032 #1 저 족[쪽]덧 헤어근에.(저 ‘족덧’ 해서.)
 104032 @1 족덧?(‘족덧’?)
 104032 #1 족덧.(‘족덧’.)
 104032 @1 족덧도 놔납디가?(‘족덧’도 놔었습니까?)
 104032 #1 아, 나 그런 건 안 해 봤주마는.(아, 나 그런 건 안 해 봤지마는.)
 104029 @1 그런 거 안 하고. 꿩코만 놔놔구나양?(그런 거 안 하고. ‘꿩코’만 놔
 었근요?)
 104029 #1 꿩코도 흥끔. 우린 그런 건 흘 일도 었고.(‘꿩코’도 조금. 우린 그런
 건 할 일도 없고.)
 104029 @1 음.(음.)
 104029 #1 늪이 조름에 딸라탱이멍, 딸라.(남의 꿈무니에 따라다니면서, 따라.)
 104029 @2 (웃음).((웃음).)
 104029 @1 딸라. (웃음).(따라. (웃음).)
 104029 #1 딸르는.(따르는.)
 104029 @1 꿩코 노래.(‘꿩코’ 놓으러.)
 104029 #1 음.(음.)
 104029 @1 꿩코 돌아보러 가면.(‘꿩코’ 돌아보러 가면.)
 104029 #1 돌아보러 가면.(돌아보러 가면.)
 104029 @1 예.(예.)
 104029 #1 거, 우린 재수 굿영 꿩도 잡지 못하고. 꿩 잘 잡는 사람도 있어난. 꿩
 코.(거, 우린 재수 굿어서 꿩도 잡지 못하고. 꿩 잘 잡는 사람도 있었어. ‘꿩코’.)
 104029 @1 음.(음.)
 104032 #1 견디 족제비는 그, 그 꼬리가 그, 붓 멘든다고 그때 비싸놔수다게.(그
 런데 족제비는 그, 그 꼬리가 그, 붓 만든다고 그때 비쌌었습니다.)
 104032 @1 예.(예.)
 104032 #1 족제비 꼬리. 족제비는 그 잡으, 잡으면은 가죽을 벗겨.(족제비 꼬리.
 족제비는 그 잡으, 잡으면은 가죽을 벗겨.)
 104032 @1 음.(음.)
 104032 #1 그 가죽만 풀앙. 근디 족제비로 밧 산 사람도 있어. 족덧 행.(그 가죽
 만 팔아서. 그런데 족제비로 밧 산 사람도 있어. ‘족덧’ 해서.)
 104032 @1 아이고. 이 동네에마씀?(아이고. 이 동네에요?)
 104032 #1 아니, 요 우쪽에. 족, 족덧으로. 밧 산 사람도 잇곡.(아니, 요 위쪽에.
 족, ‘족덧’으로. 밧 산 사람도 있고.)

104032 @1 웃동네에마썸?(웃동네에요?)

104032 #1 예.(예.)

104032 @1 아, 족뎃 낱은에 족제비 잡앙.(아, ‘족뎃’ 놔서 족제비 잡아서.)

104032 #1 그때에, 족, 족제비 잡앙.(그때에, 족, 족제비 잡아서.)

104032 @1 그게 비쌉구나양?(그게 비쌌군요?)

104032 #1 예. 족제비. 저건. 꿩은, 경 비싸진 안해도, 꿩도 꽤 사례도 오기도 허데.(예. 족제비. 저건. 꿩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도, 꿩도 꽤 사례도 오기도 하데.)

104032 @1 음.(음.)

104032 #1 족제비는 상인이 와. 족제비, 족제비 플렌.(족제비는 상인이 와. 족제비, 족제비 팔라고.)

104032 @1 풀, 그, 어, 사례 왕?(팔, 그, 어, 사례 와서?)

104032 #1 음. 겨난에 대로 허영 여까근앵에 그, 너겍은 쥐, 쥐 잡앙.(음. 그러니까 대로 해서 쥘어서 그, 미끼는 쥐, 쥐 잡아서.)

104032 @1 아.(아.)

104032 #1 쥐가 뭐, 집이 한 때난에.(쥐가 뭐, 집에 많은 때니까.)

104032 @1 예.(예.)

104032 #1 쥐 잡앙은앵에 그걸로 영, 영 허영 바투왕 놔두면은, 족제비가 쥐 먹 쟈 잡아앵이민 달락 털어정, 그 돌 지지른 겨난 납작행 죽어 불주게.(쥐 잡아서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받쳐서 놔 두면은, 족제비가 쥐 먹으려고 잡아당기면 달락 떨어져서, 그 돌 지지른 겨니까 납작해서 죽어 버리지.)

104032 @1 예.(예.)

104032 #1 족뎃, 족뎃 우티.(‘족뎃’, ‘족뎃’ 위에.)

104031 @1 으음. 지달이는 어떻 잡습니까?(으음. 오소리는 어떻게 잡습니까?)

104031 #1 지달인 개로.(오소리인 개로.)

104031 @1 개로?(개로?)

104031 #1 예, 개로. 전문으로 지달이 잡는 사람 있어. 이 동네도.(예, 개로. 전문으로 오소리 잡는 사람 있어. 이 동네도.)

104031 @1 으음. 동네마썸?(으음. 동네요?)

104031 #1 음. 난 그런 거 잡아나지 안안.(음. 난 그런 거 잡지 않았어.)

104031 @1 개 들앙 강은에.(개 데리고 가서.)

104031 #1 개로. 개로밧기는 지달인 잡을 수가 없어. 빨라 가지고.(개로. 개로밖에는 오소리 잡을 수가 없어. 빨라 가지고.)

104031 @1 아.(아.)

104031 #1 경 아니면은 지달이 덧이엔 현 것도 있어. 지달이는 저디 콧, 영덕 알 7쁜 디, 땅 팡 들어강 살주게.(그러지 않으면은 오소리 덧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오소리는 저기 콧, 바위 밑 같은 데, 땅 파서 들어가서 살지.)

104031 @1 예.(예.)

104031 #1 게, 덧을 해영 놔두면은 나오당 발에 걸리면은. 건 덧은 그 저, 다, 다리 끈어정 도망가 불어. 잘못 허민.(거, 덧을 해서 놔 두면은 나오다가 발에 걸리면은. 건 덧은 그 저, 다, 다리 끊어져서 도망가 버려. 잘못 하면.)

104031 @1 아.(아.)

104031 #1 다리 끈어정 돌아. 다리만 셔.(다리 끊어져서 달려. 다리만 있어.)

104031 @1 어.(어.)

104031 #1 요 혼 해, 요디 옛날에, 그 저, 솔도 사름. 덕○엔 혼 사름. 그때는 산화, 산불, 그 저, 읍사무소에서 산불 직허는 사름으로 정허연.(요 한 해, 요기 옛날에, 그 저, '솔도' 사람. 덕○라고 하는 사람. 그때는 산화, 산불, 그 저, 읍사무소에서 산불 지키는 사람으로 정해서.)

104031 @1 예.(예.)

104031 #1 나도 정허연 그때 강 월급 받으멍. 건디 솔도 사름이 그 저디, 봄 나면은 그 막 짓엉 사는디, 그, 그걸 전문으로 하는. 지, 지달이 저, 덧을.(나도 정해서 그때 가서 월급 받으면서. 그런데 솔도 사람이 그 저기, 봄 나면은 그 막 짓고 사는데, 그, 그걸 전문으로 하는. 지, 오소리 저, 덧을.)

104031 @1 아.(아.)

104031 #1 혼 번[뺨]에, 둘리 강 보난 혼 번에 두, 두 마리가 들엇더구만.(한 번에, 둘이 가서 보니까 한 번에 두, 두 마리가 들엇더구먼.)

104031 @1 아.(아.)

104031 #1 근디 두 마리, 겐디. 봄 지달이는 맛이 엇언. 버려 불언.(그런데 두 마리, 그런데. 봄 오소리는 맛이 없어서. 버려 버렸어.)

104031 @1 음.(음.)

104031 #1 그 저디, 그 내창에 간 잡안 간, 간만 좋덴 헨 간만 먹고. 고기는, 냄새 난 못 먹언. 그때 보난.(그 저기, 그 내창에 가서 잡아서 간, 간만 좋다고 해서 간만 먹고. 고기는, 냄새 나서 못 먹었어. 그때 보니까.)

104030 @1 예. 노루는 어떻 잡아납디가? 노루 잡아납디가?(예. 노루는 어떻게 잡았었습니까? 노루 잡았었습니까?)

104030 #1 노루는 아이 잡안. 노루, 노루는 아이 잡앗고. 노루는 코로. 코, 코 걸영 놔 두면은, 저 어음에 노루 전문으로, 코 걸영 전문으로 잡는 사름이 잇엇어.(노루는 아니 잡았어. 노루, 노루는 아니 잡앗고. 노루는 올가미로. 올가미, 올가미 걸어서 놔 두면은, 저 어음에 노루 전문으로, 올가미 걸어서 전문으로 잡는 사람이 잇엇어.)

104030 @1 어느 동네?(어느 동네?)

104030 #1 저 어음에.(저 어음에.)

104030 @1 어음에.(어음에.)

104030 #1 예. 그 양○○이라고 헨 사름, 그때 죽어 불엇주마는. 그 개로도 노루 잡고.(예. 그 양○○이라고 하는 사람, 그때 죽어 버렸지마는. 그 개로도 노루 잡

고.)

104030 @1 예.(예.)

104030 #1 또 코로도 잡고. 코 췌 철, 철, 철망 헤영.(또, 또 올라미로도 잡고. 올라미 쇠 철, 철, 철망 해서.)

104030 @1 음.(음.)

104030 #1 췌줄 헤영 영 무경 놔두민 노루 코가 경. 내 한번은, 내 중학교 삼학년 때 어떤 디, 내 참, 그때처럼 겁나난 바가 웃주.(쇠줄 해서 이렇게 묶어서 놔두면 노루 올라미가 그렇게. 내 한번은, 내 중학교 삼학년 때 어떤 데, 내 참, 그때처럼 겁났던 바가 없지.)

104030 @1 (웃음).((웃음).)

104030 #1 그 저, 이 동네 개를, 아주 부량헌 학생이 이신디, 아, 이놈이 토요일 날이난게 학교 간 오단에, 널랑 우리 개, 노리 무는 개 신디, 저디 나영 벗 헤영 노리 잡으레 가자고. 호기심에 서너, 중학교 서너 놈이 이자, 올라갔다. 저 꿰밀오름, 술도 아래 있는, 그 개 들고 간. 노리랑 말양 아무것도 못 봤. 아, 집이 글라, 집이 글라 해도 윈. 아, 이놈이 윈 집이 올 생각을 안 해.(그 저, 이 동네 개를, 아주 부량헌 학생이 있는데, 아, 이놈이 토요일 날이니까 학교 갔다 오다가, 내일은 우리 개, 노루 무는 개 있는데, 저기 나하고 벗 해서 노루 잡으러 가자고. 호기심에 서너, 중학교 서너 놈이 이제, 올라갔다. 저 ‘꿰밀오름’, 술도 아래 있는, 그 개 데리고 갔어. 노루랑 말고 아무것도 못 봤어. 아, 집에 가자, 집에 가자 해도 윈. 아, 이놈이 윈 집에 올 생각을 안 해.)

104030 @1 (웃음).((웃음).)

104030 #1 아, 어두와 가는디 저 바리메, 이제 저 바리메. 저 바리메 올라가 보민 노리 코에 들어실 거라고 이젠. 이젠 개 들고 헤연에 카, 그 찜, 그놈 속임에 들언 바리메 흥곡. 막 중턱으로, 어 헨 저 가는디 올라갔다. 올라간 보니까 노리 코는 막 놓은 거라.(아, 어두워 가는데 저 ‘바리메’, 이제 저 ‘바리메’. 저 ‘바리메’ 올라가 보면 노루 올라미에 들었을 거라고 이젠. 이젠 개 데리고 해서 카, 그 참, 그놈 속임에 들어서 ‘바리메’ 하고. 막 중턱으로, 어, 해는 저 가는데 올라갔다. 올라가서 보니까 노루 올라미는 막 놓은 거야.)

104030 @1 아.(아.)

104030 #1 아, 이놈 새끼가 이걸 떼영 가켄 허멍 췌줄 논 걸. 아, 떼엄시니까니, 호루라기 소리가 사방 난덴 말이여. 그때, 우리 중학교 삼학년 때. 중학교 이학년 댜가 잡아나난. 이젠 듣나고 헨, 막 듣단 보니 우티는 탄 오름, 바리메오름 꼭대기로 올라가진 거라게.(아, 이놈 새끼가 이걸 떼어서 가겠다고 하면서 쇠줄 놓은 걸. 아, 떼고 있으니까, 호각 소리가 사방 난단 말이라. 그때, 우리 중학교 삼학년 때. 중학교 이학년 댜가 잡았었으니까. 이젠 달린다고 해서, 막 달리다 보니 위에는 탄 오름, 바리메오름 꼭대기로 올라간 거야.)

104030 @2 (웃음).((웃음).)

104030 #1 올라가단 보니 굴이 있어. 그 일본 놈들 판 굴이.(올라가다가 보니 굴이 있어. 그 일본 놈들 판 굴이.)

104030 @2 음.(음.)

104030 @1 음.(음.)

104030 #1 이 쏘굽에 곱자고 헨. 아, 이제 그, 혼 놈은 어디 이녁만 도망가 불고, 개 든 놈허고 나만 그 굴소굽에 시니, 개도 그찌 들어가니 이놈의 개가 썩썩 허멍.(이 속에 숨자고 해서. 아, 이제 그, 한 놈은 어디 이녁만 도망가 버리고, 개 데련 놈하고 나만 그 굴속에 있으니, 개도 같이 들어가니 이놈의 개가 썩썩 하면서.)

104030 @2 (웃음).((웃음).)

104030 #1 하, 이젠 이거 큰일 났거든.(하, 이젠 이거 큰일 났거든.)

104030 @1 (웃음).((웃음).)

104030 #1 좀 시니까 이, 굴 대가리 완.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어떤 놈이. 야 이거, 우린 다 죽었다고 해연 이젠. 켜 그 므사완, 이젠 그러니까 나갔지. 나간 보니 맨 독지에 거, 군복 입고, 피 천지곡, 칼 차고 헌 놈이라. 하, 이놈이 새끼덜, 너네 덜 왜 노리 코 떼고 이 노리 이, 저 흥였냐고, 이레 오렌 해연. 그, 그놈 칼 찬 놈 즘름에 아이 갈 수가 셔?(좀 있으니까 이, 굴 머리에 왔어.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어떤 놈이. 야 이거, 우린 다 죽었다고 해서 이젠. 그래서 그 무서워서, 이젠 그러니까 나갔지. 나가서 보니 맨 어깨에 거, 군복 입고, 피 천지고, 칼 차고 한 놈이야. 하,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왜 노루 올라미 떼고 이 노루 이 저, 하였느냐고, 이리 오라고 해서. 그, 그놈 칼 찬 놈 꿈무니에 아니 갈 수가 있어?)

104030 @1 음.(음.)

104030 #1 아, 이놈이 이, 알러레 내려감시민 좋을 건디 저, 목장 한라산 쪽으로 우릴 데령 가는 거라. 어두와 가는다.(아, 이놈이 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면 좋을 건디 저, 목장 한라산 쪽으로 우릴 데리고 가는 거라. 어두워 가는데.)

104030 @1 음.(음.)

104030 #1 아, 데련 가 보니까 엇, 저, 그 바리메 뒤에 간. 아이고 춤. 사름 댓 사름이 앓았데. 나이 많은 사름덜 앓안. 무사 자네덜 돌아 완디, 경허난. 하, 이놈덜 이 노리코를 떼. 어두와 가는다 제발 보내 불라게. 자이들 길 잃우게.(아, 데리고 가 보니까 엇, 저, 그 ‘바리메’ 뒤에 갔어. 아이고 참. 사람 댓 사람이 앓았데. 나이 많은 사람들 앓았어. 왜 재들 데려 왔느냐, 그러니까. 하, 이놈들이 노루 올라미를 떼. 어두워 가는데 제발 보내 버려라. 재들 길 잃을까.)

104030 @1 (웃음).((웃음).)

104030 #1 게 아이고, 터전 들안¹⁰²⁾. 한번에 집까지 어른, 저디, 어른비 오난 들, 들 훤히게 턴.(거 아이고, ‘터전 들안’. 한번에 집까지 어음, 저기, 어음이리 오니까 달, 달 훤히게 떴어.)

104030 @1 (웃음).((웃음).)

102) ‘터져 들안’은 온 힘을 다해서 달아났어라는 뜻이다.

104030 #1 그렇게 헨. 나 처음, 그렇게 겁나 본 디는. 야, 이거 그때 폭도카 부덴 거.(그렇게 했어. 나 처음, 그렇게 겁나 본 거는. 야, 이거 그때 폭도일까 봐서 거.)

104030 #2 (웃음).((웃음).)

104030 @2 (웃음).((웃음).)

104030 #1 칼 차곡 등대에 피가 벌경허니까 야, 사름 우리 죽여 불젠 험젠 헨. (칼 차고 등에 피가 벌거니까 야, 사람 우리 죽여 버리려 하고 있다고 해서.)

104030 @1 (웃음).((웃음).)

104030 #1 거, 노리 잡안 뚜레멩 텡이는 놈덜. 노리.(거, 노루 잡아서 둘러메고 다니는 놈들. 노루.)

104030 @1 으음.(으음.)

104030 #1 게, 말째 해 보니까 상, 상간가 어디 놈덜.(그래, 말째에 해 보니까 상, 상간가 어디 놈들.)

104030 @1 으음. 피 벌경헌 건 노리 잡안.(으음. 피 벌건 건 노루 잡아서.)

104030 #1 노리 잡안 뚜레멩 텡이난.(노루 잡아서 둘러메고 다니니까.)

104030 @1 뚜레멩 텡기단 보난.(둘러메고 다니다 보니.)

104030 #1 피 벌경허고 칼 차곡 헛덴.(피 벌경고 칼 차고 했다고.)

104030 @1 (웃음).((웃음).)

104030 #1 건 스삼스건 끝난 건, 이건 폭도카 부덴, 우리 산 뒤터레 돌아가 가난.(건 사삼사건 끝난 건, 이건 폭도일까 봐서, 우리 산 뒤로 데려가 가니까.)

104030 @1 (웃음).((웃음).)

104030 #1 야, 이거 우리 죽여 불젠 험젠 허멍. 도망갈 수도 엇고 어떻게 할 말이라.(야, 이거 우리 죽여 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말이라.)

104030 @2 (웃음).((웃음).)

104031 @1 아이고, 다음엔 바당 일을 들어 봐야 될 건디 바당 엇어 부난.(아이고, 다음엔 바다 일을 물어 봐야 될 건데 바다 없어 버리니까.)

104031 #1 바당 엇어.(바다 없어.)

104031 @1 엇어 부난, 영 들어보질 못허쿠다양.(없어 버리니까, 이렇게 물어 보질 못하겠습니다.)

104031 #1 음.(음.)

106000 @1 이 저, 다음엔 왕 여자삼춘안티 옷 만들아난.(저, 다음엔 와서 여자삼춘한테 옷 만들었던.)

106000 #2 아이고, 옷 헌 말 듣지 맙서.(아이고, 옷 한 말 듣지 마십시오.)

106000 @1 무사마썸?(왜요?)

106000 #2 우리 옥은 후제는 옷 허는 거, 그거 몰라마썸.(우리 성장한 후에는 옷 하는 거, 그거 몰라요.)

106000 @1 역은 후제 무사 옷 집이서 해 입어나지 안 해수가?(성장한 후에 왜 옷 집에서 해 입었었지 않았습니까?)

106000 #2 옥은 후제는 옷을 산 입어 부난 몰라마씀.(성장한 후에는 옷을 사서 입어 버리니까 몰라요.)

106000 @1 아, 산 입어났수가?(아, 사서 입었었습니까?)

106000 @2 게민 알아지는 것만 어떻. 허허.(그러면 아는 것만 어떻게. 허허.)

5. 식생활

107001 @1 그 저, 옷 해난 얘기허고 저.(그 저, 옷 했던 얘기하고 저.)

107001 #2 하이고.(하이고.)

107001 @1 그.(그.)

107001 #2 그거 전이 옛날에 옷도 입영 춤 무슨 것가, 거시기 해난 거 흔 것도 었고, 어이고 춤 날라 그런 말 곶으렝 흐민 곶아집니깁? 뭐.(그거 전에 옛날에 옷도 입어서 참 무엇인가, 어떤 것 했던 거 한 것도 없고, 어이고 참 나한테 그런 말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 있습니까? 뭐.)

107001 @2 뭐.(뭐.)

107001 #2 배운 것이 잇어사 허주.(배운 것이 있어야 하지.)

떡류

107064 @1 떡은?(떡은?)

107064 #2 요 방석 곶앙 앓읍서.(요 방석 곶아서 앓으십시오.)

107064 @2 예.(예.)

107064 #2 그딤 썬헐 디 앓지 말앙.(거기 차가운 데 앓지 말고.)

107064 @1 떡은 해 먹어나지 안 해시쿠과양? 떡.(떡은 해 먹었었지 않았겠습니까? 떡.)

107064 #2 우리 클 때에 떡 허는 건 그때는 정미소도 웃고 방애 공장도 었으난 양 저 남방애¹⁰³⁾엔 현 거 알아집니깁?(우리 자랄 때에 떡 허는 건 그때는 정미소도 없고 방애 공장도 없으니까요 저 ‘남방애’라는 거 알겠습니까?)

107064 @2 예.(예.)

107064 @1 예.(예.)

107064 @2 예. 남방애 낭, 그 낭 큰 낭 해 가지고 영.(예. ‘남방애’ 나무, 그 나무 큰 나무 해 가지고 이렇게.)

107064 #2 그 돌혹¹⁰⁴⁾ 쏘곱에 허여 놔근에.(그 ‘돌혹’ 속에 해서 놓아서.)

103) ‘남방애’는 큰 통나무를 파서 만든 절구이다. ‘남방이’라고도 한다.

104) ‘돌혹’은 돌확이다. 큰 통나무를 파서 만든 절구 가운데에 박아 놓은 돌로 된 확이다.

107064 @2 예.(예.)

107064 #2 저 무슨건가 그것ㄴ라 방엿귀엿 합니다. 방엿귀.(저 무엇인가 그것을 절긱공이라고 합니다. 절긱공이.)

107064 @2 방엿귀.(절긱공이.)

107064 #2 예.(예.)

107064 @2 그걸 ㅼ아근에 밑으로 내려 나오게.(그걸 ㅼ아서 밑으로 내려 나오게.)

107064 #2 예. 그런 거.(예. 그런 거.)

107064 @2 예.(예.)

107064 #2 그런 거만 해낫수다게.(그런 거만 했었습니다.)

107064 @2 계난. 그런 거로 헨 뭐 멘들어나실 거 아니꽈?(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뭐 만들었을 거 아납니까?)

107064 #2 예. 그런 걸로 혜영 식게 멩질 떡 허는 거.(예. 그런 것으로 해서 제사 멩질 떡 하는 거.)

107064 @2 예. 그런 거 식게 멩질 떡 할 때. 거 뭐. 허허.(예. 그런 거 제사 멩질 떡 할 때. 거 뭐. 허허.)

107064 @1 계난 떡은, 식게 멩질 헨 때 무신 떡, 무신 떡 해 먹어납디가?(그러니까 떡은, 제사 멩질 할 때 무슨 떡, 무슨 떡 해 먹었었습니다?)

107064 #2 아이고, 옛날에사 모듈 ㄹ아근에 모듈떡 허고 목 쭈고 그 그런 거 해 낫수다게게. 메밀묵.(아이고, 옛날에야 메밀 갈아서 메밀떡 하고 목 쭈고 그 그런 거 했었습니다. 메밀묵.)

107064 @1 예 예. 목 쭈고.(예 예. 목 쭈고.)

107064 #2 예. 목 쭈고 그런 걸로 떡 허고.(예. 목 쭈고 그런 걸로 떡 하고.)

107064 @1 그다음 저 상에, ㅼ상에 올리젠 허민 무신.(그 다음 저 상에, ㅼ상에 올리려고 하면 무슨.)

107064 #2 ㅼ상에 올리젠 허민, 그 남방에에 ㅼ아근에, 무신건가 떡을, 그 곤썰도 허곡 이제 무슨 것가, ㅼ썰도 허곡 옛날엔 떡 해낫수다게.(ㅼ상에 올리려고 하면, 그 ‘남방에’에 ㅼ아서, 무엇인가 떡을, 그 흰쌀도 하고 이제 무엇인가, ㅼ쌀도 하고 옛날엔 떡 했었습니다.)

107064 @1 경혜영 그 떡, 올리는 떡 종류는마썸?(그래서 그 떡, 올리는 떡 종류는요?)

107064 #2 종류는 저 뭐 침떡이엿 허영 요새에 저 무슨 거가, 무슨 떡ㄴ라, 그것ㄴ라 ㅼ이엔 허민 ㅼ을 철인고. 옛날엔 침떡 침떡 해나신디.(종류는 저 뭐 시루떡이라고 해서 요새 저 무슨 거가, 무슨 떡을, 그것을 ㅼ라고 하면 ㅼ을 것인고. 옛날엔 ‘침떡’ ‘침떡’ 했었는데.)

107064 @1 침떡. 시루떡?(‘침떡’. 시루떡?)

107064 #2 예. 시리떡이.(예. 시루떡이.)

107064 @1 시리떡.(시루떡.)
 107064 #2 침떡이엥 헤낫수다게.(‘침떡’이라고 했었습니다.)
 107064 @1 시리떡허고 그 다음엔?(시루떡허고 그 다음엔?)
 107064 @2 침떡도 허고, 제펜?(‘침떡’도 하고, ‘제펜’?)
 107064 #2 제펜도 제펜은 건 곤살만 낱 현 것이 제펜이고.(‘제펜’도 ‘제펜’은 건 흰쌀만 낱서 한 것이 ‘제펜’이고.)
 107064 @2 예.(예.)
 107064 #2 좁쌀 낱 현 거는 저 무슨 거.(좁쌀 낱서 한 거는 저 무슨 거.)
 107064 @2 침떡.(‘침떡’.)
 107064 #2 침떡이엥 허고.(‘침떡’이라고 하고.)
 107064 @2 응.(응.)
 107064 #2 경험니다. 겨난 은절미, 송편, 절편 허는 거는 그 동글락 떡도 짓고 영 들골이.(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절미, 송편, 절편 하는 거는 그 동그란 떡도 있고 이렇게 달같이.)
 107064 @2 예.(예.)
 107064 #2 소름현 떡도 십니께.(가름한 떡도 있지요.)
 107064 @2 예.(예.)
 107064 #2 그런 떡 그런 것⁷랑 절편¹⁰⁵, 솔벤¹⁰⁶.(그런 떡 그런 것을 ‘절편’, ‘솔벤’.)
 107064 @1 음.(음.)
 107064 #2 저 은절미¹⁰⁷엔 현 거는 네귀반듯허영 또 저 네귀반듯현 것⁷라 절편이엔 저 저 절편이엔 허고.(저 ‘은절미’라고 하는 것은 네모반듯해서 또 저 네모반듯한 것을 ‘절편’이라고 저 저 ‘절편’이라고 하고.)
 107064 @1 음.(음.)
 107064 @2 그 네귀반듯현 거는 저.(그 네모반듯한 거는 저.)
 107064 #2 은절미 떡이엔 험니다. 그런 것⁷란.(인절미 떡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107064 @2 게난 것도 쌀로?(그러니까 그것도 쌀로?)
 107064 #2 예, 것도 모밀쌀로도 허고 쌀로도 허긴 합니다마는, 옛날에는 모밀쌀 허곡 좁쌀허곡 그것만 헤여근에 무슨건가, 모밀쌀은 묵 쭈곡 떡 허곡, 경허난 경허곡.(예, 것도 메밀쌀로도 하고 쌀로도 하긴 합니다마는, 옛날에는 메밀쌀하고 좁쌀하고 그것만 해서 무엇인가, 메밀쌀은 묵 쭈고 떡 하고, 그러니 그렇고.)
 107064 @1 음.(음.)
 107064 #2 이제 또 떡도 허곡 좁쌀로, 이제 곤살로도 떡 허곡 경허는 겨난에.(이

105) ‘절벤’은 절편이다. 둥근 꽃판으로 눌러 만든 흰떡이다.

106) ‘솔벤’은 반월형의 떡살로 눌러서 만들어 낸 흰떡이다. 달리 ‘솔변, 솔편, 수랑곤떡’이라고도 한다.

107) ‘은절미’는 메밀이나 쌀가루 따위로 네모지고 넓적하게 만든 후 삶거나 찌낸 떡으로 ‘인절미’라고도 한다.

제 또 떡도 하고 좁쌀로, 이제 흰쌀로도 떡 하고 그러는 거니까.)

107064 @1 계민 그 칩떡 헐 때, 시리떡 헐 땀 그 방에 강 곶아당.(그러면 그 ‘칩떡’ 할 때, 시루떡 할 땀 그 방아에 가서 갈아다가.)

107064 #2 아이고, 방에 강 그때에는 방에가 저 무슨건가 공장이 었인 때난.(아이고, 방아에 가서 그때에는 방아가 저 무엇인가 공장이 없을 때이니까.)

107064 @1 었인 때난.(없을 때이니까.)

107064 #2 었인 때난.(없을 때이니까.)

107064 @1 집이서?(집에서?)

107064 #2 우린 그때는 그자 그 큰일 때영 허젠 허민 그 이제 돌방에 씻지 않우파? 인제 요 신제주 그 저 로타리 강 보민 낭으로 영 동굴락허게 멘든 돌방에 씻지 않우파게?(우린 그때는 그저 그 큰일 때도 하려고 하면 그 이제 ‘돌방에’ 있지 않습니까? 인제 요 신제주 그 저, 로타리 가서 보면 나무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돌방에’ 있지 않습니까?)

107064 @1 예. 예.(예. 예.)

107064 @2 들방에.(연자매.)

107064 #2 들방에.(연자매.)

107064 @2 예. 들방에.(예. 연자매.)

107064 #2 그것에 옛날은 저, 큰일 허쟁 허민 무슨 저, 소상이나 대상이나 허쟁 허민, 쓸 하영 뿔으민, 그런 방에에 허곡. 식게 멩질이나 허쟁 헐 때에는 그 방엿귀로 돌 저, 무슨 거는 남방에서만.(그것에 옛날은 저, 큰일 하려고 하면 무슨 저, 소상이나 대상이나 하려고 하면, 쌀을 많이 뿔으면, 그런 방아에 하고. 제사 멩질이나 하려고 할 때에는 그 방앗공이로 돌 저, 무슨 거는 ‘남방에’서만.)

107064 @2 예. 남방에.(예. ‘남방에’.)

107064 #2 작은 건 허젠 허민, 작은 것에서만 허젠 허민, 그걸로 험디다게. 남방에서만.(작은 건 하려고 하면, 작은 것에서만 하려고 하면, 그걸로 험디다. ‘남방에’서만.)

107064 @1 남방에 헤영. 저.(남방에 해서. 저.)

107064 #2 예. 계난 우린 그 방엿귀를 시쿨방에, 서이 상 지민은 시쿨방에. 둘이 지민 둘이 저, 춤, 둘이 허는 거는 기영 허는 겁니다게.(예. 그러니까 우린 그 방앗공이를 ‘시쿨방에’, 세 명이 서서 찢으면 ‘시쿨방에’. 둘이 찢으면 둘이 저, 참, 둘이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107064 @1 음. 경혜영.(음. 그렇게 해서.)

107064 #2 그걸로 헤영 쓸 뿔앙 떡 허곡, 은절미 허곡, 제펜 허곡, 경허여근에 그땀 제스 하는 건 기자 무슨건가 과일 올리곡, 적갈¹⁰⁸⁾ 헝 올리곡, 고기 구웁 헝 올리고. 경 이제 허는 거난 마찬가지로 뉘 고사리 탕쉬 허지 안헝니까게?(그걸로 해서 쌀 뿔아서 떡 하고, 인절미 하고, ‘제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땀 제사 하는 건

108) ‘적갈’은 적 따위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그저 무엇인가 과일 올리고, ‘적갈’ 해서 올리고, 고기 구워서 올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뭐 고사리 ‘탕쉬’ 하지 않습니까?)

107064 @1 예. 예.(예. 예.)

107064 #2 식게 멩질 때에. 그거 마찬가지로 저 옛날은 해낫수다게. 겨난. 그 무신 건가 남방에 찌어근에 춤 큰일이나 하영 허젠 허민 돌방에 뿔아근에 막 동네 사람덜 모여근에 사름으로 막 그 돌을 둥그리멍.(제사 명절 때에. 그거 마찬가지로 저 옛날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건가 ‘남방에’에 찢어서, 참 큰일이나 많이 하려고 하면 연자매에 뿔아서, 막 동네 사람들 모여서 사름으로 막 그 돌을 굴리면 서.)

107064 @1 음.(음.)

107064 #2 ㄹ을 치멍 허여근에 허곡, 경 아녕 이녁 칩이 식게 멩질 때에는 남방에 정 그자 그 떡을 주로 험니다게.(가루를 치면서 하여서 하고, 그러지 않고 이녁 집의 제사 명절 때에는 ‘남방에’에 찢어서 그저 그 떡을 주로 합니다.)

107064 @1 음.(음.)

107064 #2 모몰 곶앙 또 모몰 허여근에 그걸로 묵 쭈곡 떡 허곡 경허영 허난.(메밀 갈아서 또 메밀 하여서 그걸로 묵 쭈고 떡 하고 그렇게 하니까.)

107065 @1 게민 칩떡 허젠 허민 ㄹ루 곶아 와근에. ㄹ루 곶아.(그러면 ‘칩떡’ 하려고 하면 가루 갈아 와서. 가루 갈아.)

107065 #2 아니 곶을 아이고 남방에 뿔앙만 험디다게. 옛날에.(아니 가루 아니고 ‘남방에’ 뿔아서만 험디다. 옛날에.)

107065 @1 곶앙. 그다음은 시리도 잇어낫수과?(갈아서. 그다음은 시루도 있었습니까?)

107065 #2 시리도 잇곡말고마썸.(시루도 잇고말고요.)

107065 @1 게민 시리에.(그러면 시루에.)

107065 #2 떡을 쳐마썸.(떡을 찌요.)

107065 @1 떡을 어떻. 저.(떡을 어떻게. 저.)

107065 #2 아이고, 그때 난 고구마도 넣곡 허여근에 저 떡을 허민, 그, ㄹ루에 밀어근에 저, 시리에 낱 흥 징 두 징 그때에 놓디다. 흥 징 두 징 놔근에 떡을 허민 그거 그 빗¹⁰⁹⁾으로 비영 칼로 영 쫄라근에 상에도 올리곡.(아이고, 그때 난 고구마도 넣고 해서 저 떡을 하면, 그, 가루에 밀어서 저, 시루에 넣어서 한 켜 두 켜 그 때에 넣습디다. 한 켜 두 켜 놓아서 떡을 하면 그거 그 ‘빗’으로 베어서 칼로 이렇게 잘라서 상에도 올리고.)

107065 @1 음.(음.)

107065 #2 먹음도 허곡.(떡기도 하고.)

107065 @1 게민 그 시리떡은, 칩떡은 층층이 영.(그러면 그 시루떡은, ‘칩떡’은 층층이 이렇게.)

109) ‘빗’은 칼로 베어 낸 시루떡의 날개, 또는 그를 세는 말이다.

107065 #2 예 예.(예 예.)
107065 @1 깔앙 허지 안헙니까?(깔아서 하지 않습니까?)
107065 #2 예. 층층이 놔근에 처야 허여마썸.(예. 층층이 놔서 썸야 해요.)
107065 @1 케민 마루허고 올려놔 그다음 그 우이 풋.(그러면 가루하고 올려놓고 그다음 그 위에 팔.)
107065 #2 풋도 흐뎡 놓고. 예.(팔도 조금 놓고. 예.)
107065 @1 놓곡.(놓고.)
107065 #2 예.(예.)
107065 @1 그다음 또 마루 올려놔.(그다음 또 가루 올려놓고.)
107065 #2 예.(예.)
107065 @1 또.(또.)
107065 #2 마루 올려놔 허여근에 층층이.(가루 올려놓고 해서 층층이.)
107065 @1 층층이.(층층이.)
107065 #2 허여근에 헙니다게.(하여서 합니다.)
107065 @1 예. 경혜영, 썸양. 그 저, 시리에 놔근에.(예. 그렇게 해서, 썸요. 그 저, 시루에 놔서.)
107065 #2 예 예.(예 예.)
107065 @1 시리 아래 물 놓지 안헙니까양?(시루 아래 물 놓지 않습니까?)
107065 #2 솟디 물 놔근에.(솔에 물 놔서.)
107065 @1 솟디 물 놔.(솔에 물 놔서.)
107065 #2 솟 웃터레 그걸 시릴 놔마썸.(솔 위에다 그걸 시루를 놔요.)
107065 @1 솟디 물 놓앙 그 웃터레.(솔에 물 놓고 그 위에다.)
107065 #2 예.(예.)
107065 @1 시리 올려 놔.(시루 올려 놓고.)
107065 #2 솟. 그 시리에 맞은 솟을 허여마썸.(솔. 그 시루에 맞는 솟을 해요.)
107065 @1 음.(음.)
107065 #2 경허민 솟에 물 놔근에 그 시리 맞은 솟에 놔 허영, 그 옆으로 저 짐냥은에 허민 그게 떡이 잘 안 익으카부텐, 옆으로 이 떡 썸 고망 다 막아근에, 우이 저 소두쟁이 더끄고 행 떡을 칩데다게.(그러면 솔에 물 넣고 그 시루 맞는 솟에 놓고 해서, 그 옆으로 저 짐 나서 하면 그게 떡이 잘 안 익을까 봐, 옆으로 이 떡 썸서 구멍 다 막아서, 위에 저 솔두쟁 더고 해서 떡을 썸디다.)
107065 @1 음. 고망 다 막아근에.(음. 구멍 다 막아서.)
107065 #2 예 예.(예 예.)
107066 @1 음. 시리떡. 송편도 해놔수가?(음. 시루떡. 송편도 했었습니까?)
107066 #2 아 그때 송편도 헙니다. 이제 마, 이제나 마찬가지로 송편은 똑같아 마썸.(아 그때 송편도 합니다. 이제 마, 이제나 마찬가지로 송편은 똑같아요.)
107066 @1 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107066 #2 예 예.(예 예.)

107066 @1 곤썰 갈아근에.(흰쌀 갈아서.)

107066 #2 예, 곤썰 뿔아근에 그 송편에 넣는 건 풋 쏘곱에 담고 허여근에 송편 허는 건 이제나 그제나 꼭 같아마썸.(예, 흰쌀 빵아서 그 송편에 넣는 건 팔 속에 담고 하여서 송편 하는 건 이제나 그제나 꼭 같아요.)

107066 @1 음. 쏘곱에.(음. 속에.)

107066 #2 음 예.(음 예.)

107066 @1 풋 담고양.(팔 담고요.)

107066 #2 겨난 이제는 떡을 집어서 안 허여근에 방에 춤 저 방앗간에 강 맞춰 다근에 떡을 행 먹으난 지금은 물론디양. 우리 클 때엔 기자 우선 집에서만 험디다 게.(그러니 이제는 떡을 집에서 안 해서 방아 참, 저 방앗간에 가서 맞춰다가 떡을 해서 먹으니 지금은 모르는데요. 우리 자라날 때엔 그저 우선 집에서만 험디다.)

107066 @1 음.(음.)

107066 #2 그 저 공장이 엇곡 어디 무슨 거 허난 집에서만 험디다 집에서만.(그 저, 공장이 없고 어디 무엇 하니까 집에서만 험디다. 집에서만.)

107066 @1 송편, 케민 그 다 만들어 뇌근에 그 다음 그것도 솟디 뇌근에 찢 거 아니파?(송편, 그러면 그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 그것도 솔에 넣어서 찢 거 아닙니까?)

107066 #2 아이 저 무슨 건가 송편도 다 멘들아 낱 치나 물에 낱 삶으나 경 험 디다.(아니 저 무언가 송편도 다 만들어 놓고 찢나 물에 넣고 삶으나 그렇게 험 디다.)

107066 @1 음. 솟디 물 낱.(음. 솔에 물 넣고.)

107066 #2 예.(예.)

107066 @1 그 옷터레 무시거 따로 뉘 넣는 거.(그 위에다 뉘 따로 뉘 넣는 거.)

107066 #2 아이, 아이.(아니, 아니.)

107066 @1 엇어마썸?(없어요?)

107066 #2 그 옛날은 경, 경 혈 때도 쉽디다. 솔잎 잇지 앓으파양?(그 옛날은 그렇게,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솔잎 잇지 앓습니까?)

107066 @1 예 예.(예 예.)

107066 #2 솔잎 허여근에 혼 징 갈아낱, 그 옷터레 또 송편 뇌 낱, 또 혼 징 또 솔잎 뇌 뇌근에.(솔잎 해서 한 켜 깔아 놓고, 그 위에다 또 송편 뇌 놓고, 또 한 켜 또 솔잎 뇌 놓아서.)

107066 #2 이제 떡.(이제 떡.)

107066 @1 아.(아.)

107066 #2 멘들 저 떡 칩데다게.(만들 저 떡 찢디다.)

107066 @1 음. 솔잎.(음. 솔잎.)

107066 #2 솔잎 뇌 낱.(솔잎 뇌 놓고.)

107066 @1 갈아 낱 윗트레 떡 낱.(갈아 놓고 위에다 떡 놓고.)
 107066 #2 예. 또.(예. 또.)
 107066 @1 솔잎 갈아 놓고.(솔잎 갈아 놓고.)
 107066 #2 또 솔잎 놔 낱.(또 솔잎 놔 놓고.)
 107066 @1 윗트레 떡 낱 솔잎 갈아 놓고.(위에다 떡 놓고 솔잎 갈아 놓고.)
 107066 #2 또, 또 솔잎 놔 낱, 또 윗트레 낱 솔잎 농곡 경협디다.(또, 또 솔잎 놔 놓고, 또 위에다 놓고, 솔잎 놓고 그렇게 합디다.)
 107067 @1 음. 그 요즘 어디 저 시장에 가민 푸는 빙떡이엔 현 건 여기서 무슨 떡이엔 해낫수과? 빙떡.(음. 그 요즘 어디 저 시장에 가면 파는 ‘빙떡’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무슨 떡이라고 했었습니까? 빙떡.)
 107067 #2 이제도 빙떡¹¹⁰⁾이엔 험니다.(이제도 빙떡이라고 합니다.)
 107067 @1 빙떡?(빙떡?)
 107067 #2 예. 빙떡.(예. 빙떡.)
 107067 @1 빙떡도 만들어 먹어낫수과?(빙떡도 만들어 먹었었습니까?)
 107067 #2 예. 빙떡.(예. 빙떡.)
 107067 @1 무신 거 ** 걸로.(무슨 거 ** 걸로.)
 107067 #2 주로 빙떡을 잘 먹엉.(주로 빙떡을 잘 먹어서.)
 107067 @1 예.(예.)
 107067 #2 뭐 허영 먹어낫수다게. 이 메밀로.(뭐 해서 먹었었습니까. 이 메밀로.)
 107067 @1 음.(음.)
 107067 #2 메밀가루로.(메밀가루로.)
 107067 @1 모밀가루로 헤여근에 그 쏘곱에 무시 거 답아?(메밀가루로 해서 그 속에 무엇 답아?)
 107067 #2 아 무도 넣곡, 그 무.(아 무도 넣고, 그 무.)
 107067 @1 무.(무.)
 107067 #2 무가 주로 놔집니다게.(무가 주로 넣어집니다.)
 107067 @1 보통 무 놔근에양?(보통 무 넣어서요?)
 107067 #2 예 예.(예 예.)
 107067 @1 무 놔근에. 음.(무 넣어서. 음.)
 107067 #2 겨난 모밀은 그때엔 모밀은 이건 필수품으로, 완전 모밀은 그자 대중 그거 질로. 모밀허곡 조허곡 그자 보리허곡 그때엔.(그러니까 메밀은 그때엔 메밀은 이건 필수품으로, 완전 메밀은 그자 대중 그거 제일로. 메밀하고 조하고 그자 보리하고 그때엔.)
 107067 @1 음.(음.)
 107067 #2 가는 때난에. 모밀로 그자 목 쑈곡 떡 허곡 경허난 그거 이제도 메밀

110) ‘빙떡’은 메밀가루 따위로 반죽하여 번철에서 전을 넓적하게 지지고는 팔이나 무채 따위의 소를 넣고서 길쭉하게 둘둘 말아 만든 떡이다. 지역에 따라 ‘전기, 정기, 정기떡’이라고 한다.

로 저 빙떡은 멘듭니께.(가는 때이니까. 메밀로 그저 묵 쭈고 떡 하고 그러니까 그 거 이제도 메밀로 저 빙떡은 만들지요.)

107067 @1 음. 그 무 말아 무시 거 다른 거 놓지 안헙니까?(음. 그 무 말고 무엇 다른 거 넣지 않습니까?)

107067 #2 에이 다른 건 벨로 놓는 거 엇우다.(에이 다른 건 벨로 넣는 거 없습니다.)

107067 @1 패마농? 패마농?(쪽파? 쪽파?)

107067 #2 경허난 다른 거는 뭐 쫓이나 그런 건 놔도 좋질 안헤마썸.(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쫓이나 그런 건 넣어도 좋질 않습니다.)

107067 @1 좋질 안 허여.(좋질 않아.)

107067 #2 잘 흘령.(잘 흘려서.)

107067 @1 예.(예.)

107067 #2 건디 무 놓는 게 질 좋아마썸.(그런데 무 넣는 게 제일 좋아요.)

107067 @1 무 넣는 게 제일.(무 넣는 게 제일.)

107067 #2 예. 무 놓는 게 쥬, 빙떡 허는 건 질 좋은 거우다.(예. 무 넣는 게 제일, 빙떡 하는 건 제일 좋은 겁니다.)

107067 @1 음.(음.)

107067 @2 거기 들어가는 건, 빛이 들어갑니까? 거 무허고 뭐 깨영 뭐 파영.(거기 들어가는 건, 빛이 들어갑니까? 거 무하고 뭐 깨와 뭐 파와.)

107067 #2 아 게, 메밀가루허곡 무허곡 허영 그냥 그 옛날은 이제 후라이팬이영 허주만은 그때는 소두쟁이 영 그자 가르쳐 놔근에 그 솥두쟁이에 빙떡을 지집디다 게.(아 그, 메밀가루하고 무하고 해서 그냥 그, 옛날은 이제 프라이팬이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솥뚜껑을 이렇게 그저 뒤집어 놓아서 그 솥뚜껑에 빙떡을 지집디다.)

107067 @1 아, 빙떡을 지정.(아, 빙떡을 지져서.)

107067 #2 예. 이제 지지는 거나 그제나 저 빙떡 지지는 건 마찬가지로.(예. 이제 지지는 거나 그제나 저 빙떡 지지는 건 마찬가지로.)

107067 @1 지지곡, 빙떡 지지곡.(지지고, 빙떡 지지고.)

107067 @2 돛지름에.(돼지기름에.)

107067 @1 그 다음은.(그 다음은.)

107067 #2 말곡. 말아근에 먹는 거.(말고. 말아서 먹는 거.)

107067 @1 그 물기 전이 그 무에는, 무도 무시거에 무쳐야 될 거 아니파?(그 말기 전이 그 무에는, 무도 무엇에 무쳐야 될 거 아닙니까?)

107067 #2 무는 그거는.(무는 그거는.)

107067 @1 솥양.(삶아서.)

107067 #2 파를 놓던지 뭐 깨꺾루를 놓던지 뭐 그, 소금 놓곡 그거 그것뿐이우 다게.(파를 넣든지 뭐 깻가루를 넣든지 뭐 그, 소금 넣고 그거 그것뿐입니다.)

107067 @1 경헤영 저 무 삶아야 될 거 아니파?(그렇게 해서 저 무 삶아야 될

거 아십니까?)

107067 #2 무 썰영 삶아야 먹으주게.(무 썰어서 삶아야 먹지.)

107067 @1 으, 썰어근에.(으, 썰어서.)

107067 #2 그냥 생채사 해집니까게. (웃음).(그냥 생으로야 할 수 있습니까. (웃음).)

107067 @2 (웃음).((웃음).)

107067 @1 썰어근에 삶양, 경혜영 꽤ㄱ를도 더 흐뭇 허곡.(썰어서 삶아서, 그래서 깻가루도 더 조금 하고.)

107067 #2 파도 놓곡.(파도 넣고.)

107067 @2 으음.(으음.)

107067 #2 맛 좋게 허쟁 허민 파도 놓곡.(맛 좋게 하려고 하면 파도 넣고.)

107067 @1 파도 놓곡.(파도 넣고.)

107067 #2 깨ㄱ루도 놓곡. 경혜영 허난 요즘은 뭐 깨ㄱ루도 놓곡, 파도 놓곡 뭐, 춤지름도 놓곡 행 맛있게 먹쟁은 허민, 요새도 잔치침이나 무슨 경혈 때엔 경 놓양 합니다마는, 옛날은 경 뭐 춤지름이야 흔하지 안헤나난.(깻가루도 넣고. 그렇게 하니 요즘은 뭐 깻가루도 넣고, 파도 넣고 뭐, 참기름도 넣고 해서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요새도 잔치집이나 무슨 그렇게 할 때엔 그렇게 넣어서 합니다마는, 옛날은 그렇게 뭐 참기름이야 흔하지 않았으니까.)

107067 @2 음, 음.(음, 음.)

107067 #2 그런 건 우리 클 때는 안 헤 보고. 그자 무 썰어근에 그자 무슨 저 파나 놓곡 깨ㄱ루나 낱 빙떡 지정.(그런 건 우리 클 때는 안 헤 보고. 그저 무 썰어서 그저 무슨 저 파나 놓고 깻가루나 넣어서 빙떡 지져서.)

107067 @2 음.(음.)

107067 #2 그거 허여낫수다게.(그거 하엿엇습니다.)

107067 @1 음.(음.)

107067 @2 게 그거 돛지름에 헛수과?(그럼 그거 돼지기름에 헛습니까?)

107067 #2 돛지름에 그때는 헛디다게.(돼지기름에 그때는 합디다.)

107067 @2 음.(음.)

107067 #2 지름이 엿으난.(기름이 없으니까.)

107067 @1 음.(음.)

107067 #2 잔치 때도양 그 둥비 허여근에 허면은 그, 돼지 잡아난 기름으로 허영 그 다시 둥비도 지지곡.(잔치 때도요 그 두부 하여서 허면은 그, 돼지 잡앗던 기름으로 해서 그, 다시 두부도 지지고.)

107067 @2 음, 음. 둥비도 지지고예. 게난 돛지름은 그냥 어떤 식으로 돛지름만 빼는 거라마썸?(음, 음. 두부도 지지고요. 그러니까 돼지기름은 그냥 어떤 식으로 돼지기름만 빼는 건가요?)

107067 #2 아이, 돛은, 돼지 잡양 허민 따시 지름이 이만큼, 그 저 슬진 돛은 지

름이 막 하곡, 준 뜻은 지름이 그때도 벨로 엇입디다게.(아이, 돼지는, 돼지 잡아서 하면 다시 기름이 이만큼, 그 저, 살진 돼지는 기름이 아주 많고, 야윈 돼지는 기름이 그때도 별로 없습디다.)

107067 @2 예.(예.)

107067 #2 겨난 잔치 시고, 이 소상 대상 때고 돼지 잡아난 지름으로만 그 잔치 때에도 전 지지는 것도 지저마썸.(그러니까 잔치 있고, 이 소상 대상 때고 돼지 잡았던 기름으로만 그 잔치 때에도 전 지지는 것도 지저요.)

107067 @2 예.(예.)

107067 #2 이제는 뭐 식용유니 무슨 하근 뭐 하근 거 허영 지저도, 이제 그때는 순 돼지 지름으로만 잔치 때에도 썸데다게.(이제는 뭐 식용유니 무슨 이런저런 뭐 이런저런 거 해서 지저도, 이제 그때는 순 돼지기름으로만 잔치 때에도 썸디다.)

107067 @2 음.(음.)

107067 #2 둠비 헐 때도 돼지 지름 허여근에 솟데 영 블라근에 둠비 허민 들곡, 경허난 그때는 돼지 지름만 하영 험디다게.(두부 할 때도 돼지기름 해서 술에 이렇게 발라서 두부 하면 들고, 그러니 그때는 돼지기름만 많이 합디다.)

107067 @1 음.(음.)

107067 #2 판 지름은 엇고.(판 기름은 없고.)

107067 @2 거 기름은 어떻 돼지 지름, 돛지름은 어떻 멘듭니까? 돛지름 것도 만들어야 할 거 아니?(거 기름은 어떻게 돼지기름, 돼지기름은 어떻게 만듭니까? 돼지기름, 것도 만들어야 할 거 아니?)

107067 #2 돛지름 멘들질 안허고, 그때에는 돼지 잡으면.(돼지기름 만들질 안고, 그때에는 돼지 잡으면.)

107067 @2 예.(예.)

107067 #2 생 지름으로만 험디다게.(생 기름으로만 합디다.)

107067 @2 아, 생 지름으로.(아, 생 기름으로.)

107067 #2 예. 생 지름으로만. 경허난 그 지름이 쓰당 남으면은 그 솟데 놔서 쫄랑 허민 지름이 그냥 나와마썸.(예. 생 기름으로만. 그러니까 그 기름이 쓰다가 남으면은 그, 술에 놔서 조려서 하면 기름이 그냥 나와요.)

107067 @2 나와.(나와.)

107067 #2 그거 영 그 뭇에 거렁 놔똥 물루민 하영게 똤여.(그거 이렇게 그 뭇에 떠서 놔 두고 마르면 하양게 되여.)

107067 @2 예 예. 그거 하양게 똤영.(예 예. 그거 하양게 되어서.)

107067 #2 예. 그거 헤여근에 이제 저 무에 블랑.(예. 그거 해서 이제 저 무에 발라서.)

107067 @2 음.(음.)

107067 #2 영 베경은에 경 허곡 현디. 이 대서 때에 돼지 잡는 거는 생 지름으로만.(영 묻혀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 대서 때에 돼지 잡는 거는 생 기름으로만.)

107067 @2 생 기름으로.(생 기름으로)
 107067 #2 그때 헤집디다. 생 기름으로만.(그때 했습디다. 생 기름으로만.)
 107068 @1 상웨떡도 헤납디가? 상웨떡?(‘상웨떡’도 했었나요? ‘상웨떡’?)
 107068 #2 양?(예?)
 107068 @1 상웨떡.(‘상웨떡’.)
 107068 #2 삼메떡¹¹¹?(‘삼메떡’?)
 107068 @1 상웨떡, 상웨떡.(‘상웨떡’, ‘상웨떡’.)
 107068 #2 삼메떡이엔 험니다. 보리삼메떡, 밀삼메떡.(‘삼메떡’이라고 합니다. ‘보리삼메떡’, ‘밀삼메떡’.)
 107068 @2 삼메떡.(‘삼메떡’.)
 107068 #2 옛날은 저 그 누룩 허영 놔뒀다근에 기주, 기주엔 허영 요새에 막걸리 닳은 식이라마썸. 그때에는.(옛날은 저 그 누룩 해서 놔뒀다가 ‘기주’, ‘기주’라고 해서 요새에 막걸리 닳은 식이에요. 그때에는.)
 107068 @2 음.(음.)
 107068 @1 예, 예.(예, 예.)
 107068 #2 삼메떡이엔 험 건. 경허난 그 보리 곶아다근에 이제 그 기주 헤영 놔뒀당 그것에 허영 떡 썬근에 놔두민 그 춤 무신 이제.(‘삼메떡’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 보리 곶아다가 ,이제 그 ‘기주’ 해서 놔뒀다가, 그것에 해서 떡 썬서 놔두면 그 참 무슨 이제.)
 107068 @2 음.(음.)
 107068 #2 요새에 그 저, 빵 모양으로 뒹디다게.(요새에 그 저, 빵 모양으로 뒹디다.)
 107068 @2 예.(예.)
 107068 @1 아, 곶 삼메떡이엔.(아, 곶 ‘삼메떡’이라고.)
 107068 #2 예. 삼메떡이엔 헤낫수다. 삼메떡.(예. ‘삼메떡’이라고 했었습니다. ‘삼메떡’.)
 107068 @1 삼메떡, 음.(‘삼메떡’, 음.)
 107068 #2 요새에 저 찢빵, 찢빵 허는 게 그 삼메떡이라마썸.(요새에 저 찢빵, 찢빵 하는 게 그 ‘삼메떡’이지요.)
 107068 @1 예 예.(예 예.)
 107068 #2 요새에 삼메떡, 삼메떡 험 그때엔 찢, 이 요새에 찢방이엔 허주마는 그때엔 보리 곶앙만, 그 밀이엔 험 말은 엇어낫수다게.(요새에 ‘삼메떡’, ‘삼메떡’ 하는 그때엔 찢, 이 요새에 찢빵이라고 하지만 그때엔 보리 곶아서만, 그 밀이라고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107068 @1 음.(음.)

111) ‘삼메떡’은 밀가루 따위에 더운물과 기주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하고서, 만두 모양으로 만들고는,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찢 떡이다. ‘상웨떡’이라고도 한다.

107068 #2 우리 클 때에 허난.(우리 클 때에 하니까.)

107068 @2 음.(음.)

107068 #2 그, 밧디 밀을 어떤 사름덜은 그, 갑디다. 갈아근에 허영.(그, 밧에 밀을 어떤 사름들은 그, 갑디다. 갈아서 해서.)

107068 @1 음.(음.)

107068 #2 밀로도 허여낫수다마는 그 대중으로 우리 그때는 보리 허영, 그자 그 보리빵 허영, 그자 그 저, 무슨 건가 누룩 행 놔 뒷당, 요새에 저 막걸리 멘들 듯이 멘들아근에, 그저 짱 쩡 놔두민.(밀로도 하였었습니다마는 그 보통 우리 그때는 보리 해서, 그저 그 보리빵 해서, 그저 그 저, 무슨 건가 누룩 해서 놔뒀다가, 요새에 저 막걸리 만들 듯이 만들어서, 그저 짜서 쩡 놔두면.)

107068 @1 음.(음.)

107068 #2 그자 막 부각이 레민, 그저 춤 멘들아근에, 그저 솟대 낱 쳐근에 칭 낱 치면 떡, 삼메떡이 웨어마썸.(그저 막 ‘부각’이 괴면, 그저 참 만들어서, 그저 술에 넣고 쩡서 경그레 놓고 쩡면 떡, ‘삼메떡’이 되어요.)

107068 @1 음.(음.)

107068 #2 요새에 보리떡, 보리떡 허는 게 그 식이우다게.(요새에 보리떡, 보리떡 하는 게 그 식이어요.)

107068 @1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7068 #2 예. 꼭 그 식이우다. 그 식이라.(예. 꼭 그 식입니다. 그 식이야.)

107068 @1 음, 보리떡.(음, 보리떡.)

107068 #2 그때에는 이 저, 무슨 저 뭐, 이 설탕도 엇고, 무슨 거 허난, 든 것도 놓지 안 허꼭 그자 그 춤.(그때에는 이 저, 무슨 저 뭐, 이 설탕도 없고, 무슨 거 하니까, 단 것도 넣지 않고 그저 그 참.)

107068 @1 음.(음.)

107068 #2 막걸리 닳은 순다리¹¹²⁾엔 현 걸로 ㄹ루 쩡근에 놔뒀당, 그자 레민 그 걸로 떡을 멘들양 허민, 삼메떡, 삼메떡 해낫수다게.(막걸리 닳은 ‘순다리’라고 하는 걸로 가루 쩡서 놔뒀다가, 그저 괴면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하면, ‘삼메떡’, ‘삼메떡’ 했었습니다.)

107068 @1 게민 흥뽀 들코롬헤여양.(그러면 조금 달콤하죠.)

107068 #2 예, 겨난 요새에 그 빵집이서 보리ㄹ를, 보리만 놔근에 현 건 떡이 브롱허고 감시근허지 안헉니깁? 붓고.(예, 그러니까 요새에 그 빵집에서 보릿가루, 보리만 놔서 한 건 떡이 ‘브롱’하고 감시근하지 않습니까? 붓고.)

107068 @1 예.(예.)

107068 #2 겨난 그대에 허여난 떡이 꼭 이제 우리 클 때에 허여난 떡이라마썸. 보리떡이엔 현 거.(그러니까 그대에 했었던 떡이 꼭 이제 우리 클 때에 했었던 떡이예요. 보리떡이라고 하는 거.)

112) ‘순다리’는 쉼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이다. 달리 ‘쉼다리’라고 한다.

107069 @1 그것도 무시거 췌상에 올려놔수과?(그것도 뭐 췌상에 올렸었습니까?)

107069 #2 아이고, 그거 주로 그거만 올려마썸.(아이고, 그거 주로 그거만 올려요.)

107069 @1 그거 올리고 또 다른 거 올리는 거 뭐파? 제삿상에 올리는 거.(그거 올리고 또 다른 거 올리는 거 뭐니까? 제삿상에 올리는 거.)

107069 #2 아이, 제삿상에 올리는 건 으름에는 그 보리떡 허여근에 그 빵으로 멘들양 올리곡 또 제펜이엔 헌 건 그 저 곤솔로 허여근에 시리에 낱 청근에 그걸로.(아이, 제삿상에 올리는 건 여름에는 그 보리떡 해서 그 빵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또 '제펜'이라고 한 건 그 저, 흰쌀로 해서 시루에 넣고 찌서 그걸로.)

107069 @1 음.(음.)

107069 #2 이제 상에 제삿상으로 올리곡 경허는 거마썸.(이제 상에 제삿상으로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7069 @1 음. 올리고. 또 또 다른 건 무시 거.(음. 올리고. 또, 또 다른 건 뭐.)

107069 #2 다른 건.(다른 건.)

107069 @1 송편, 송편은 안 올려수과?(송편, 송편은 안 올렸습니까?)

107069 #2 예?(예?)

107069 @1 송편은 췌상에 안 올려수과?(송편은 췌상에 안 올렸습니까?)

107069 #2 아이고 무사, 송, 송편은 그건 원 필수품으로.(아이고 왜, 송, 송편은 그건 원 필수품으로.)

107069 @1 필수로.(필수로.)

107069 #2 그자 그거는 딱라근에 송편도 헤낫수다게.(그저 그거는 따라서 송편도 했었습니다.)

107069 @1 예, 겨고 그거 무시거 췌상에 동골랑헌 거 영 무시거 뭇로 이렇게 찍어근에 허는 거 잊지 않으파? 두 개 두 개.(예, 그리고 그거 뭐 췌상에 동그란 거, 이렇게 뭐, 뭇로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거 잊지 않습니까? 두 개 두 개.)

107069 #2 아이, 그거는 그 저, 지름떡이엔 허여근에.(아이, 그거는 그 저, 기름떡이라고 해서.)

107069 @2 음.(음.)

107069 #2 이제도 그런 거 흐는 단 합니다마는. 그, 그 저, 동골락동골락 허영 가릿가릿 득고달 모양으로 가릿가릿허게 찍엉 허는 거, 그것ᄇ라 지름떡이엔 헤낫수다게.(이제도 그런 거 하는 데는 합니다마는. 그, 그 저, 동글동글 해서 '가릿가릿' 닭의 뺨 모양으로 '가릿가릿'하게 찍어서 하는 거, 그것을 기름떡이라고 했었습니다.)

107069 @1 지름떡이고.(기름떡이고.)

107069 @2 음.(음.)

107069 #2 예.(예.)

107069 @1 그 음 두 개 영, 손바닥 두 개 영 합쳐근에, 꼭 허게 눌렁 허는 건 뭐우파?(그다음 두 개 이렇게, 손바닥 두 개 이렇게 합쳐서, 꼭 하게 눌러서 하는 건 무엇입니까?)

107069 #2 그거는 저 새미떡¹¹³⁾이엔 험니다. 사미떡. 그 쏘곶에 저 뭐 풋이나 이제 무나 놔근에 믱물로 멘드는 건, 건 새미떡.(그거는 저 ‘새미떡’이라고 합니다. ‘사미떡’. 그 속에 저 뭐 팔이나, 이제 무나 넣어서 메밀로 만드는데, 건 ‘새미떡’.)

107069 @1 새미떡.(새미떡.)

107069 @2 음.(음.)

107069 #2 새미떡.(새미떡.)

107069 @1 음. 새미떡도 젓상에 올려수과?(음. ‘새미떡’도 젓상에 올렸습니까?)

107069 #2 예 예. 새미떡도 젓상에 올려마썸. 이제 육안 보낸 이 강침이는 그 새미엔 하르방 일름이 이시난에 새민 안 허고.(예 예. ‘새미떡’도 젓상에 올려요. 이제 자라서 보니 이 강씨 덕에는 그 ‘새미’라는 할아버지 이름이 있어서 ‘새미’는 안 하고.)

107069 @1 예.(예.)

107069 #2 새민 아니 올린텐마썸.(‘새미’는 아니 올린다고요.)

107069 @1 아, 하르방 일름이 잇어부난에. (웃음)(아, 할아버지 이름이 잇어 버리니까. (웃음))

107069 #2 예, 새미엔 일름 잇어 부난.(예, ‘새미’라는 이름 잇어 버리니까.)

107069 @1 아.(아.)

107069 #2 새미떡, 새미떡 허는 건 그 하르방 일름 잇어 부난 그 아니 올린텐마썸.(‘새미떡’, ‘새미떡’ 하는 건 그 할아버지 이름 잇어 버리니까 그 아니 올린다고요.)

107069 @1 아.(아.)

107069 #2 (웃음) 우린 어린 때는 우린 그런 말 들어보지 아년난 몰른디.((웃음) 우린 어린 때는 우린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107069 @1 예.(예.)

107069 #2 그 가문가례로 다 집안마다 틀려근에.(그 가문가례로 다 집안마다 달라서.)

107069 @1 맞수다.(맞습니다.)

107069 #2 새미떡 올리고 경흐는 집안이 잇넨마썸. 경허난 탄 집안에선 새미떡도 올리곡, 그 은절미 저 무슨 거 새 춤 절편, 솔벤 그런 것도 올리곡 경헨 제삿상에 올려나신디. 이.(‘새미떡’ 올리고 그렇게 하는 집안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탄 집안에선 ‘새미떡’도 올리고, 그 인절미 저 무슨 거 새 참 절편, ‘솔벤’ 그런 것도 올리고 그래서 제삿상에 올렸었는데. 이.)

113) ‘새미떡’은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팔소 등을 넣어 접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이다. 달리 ‘새미, 세미, 세미떡’이라고 한다.

107069 @1 강칩이.(강씨 댁에.)

107069 #2 봉성 강칩이는 새미떡 하르방이 아메도 일름이 써나난 그건 안 헌텐 마썸. (웃음) 아이고 나 이제사 들언. 그런 말.(봉성 강씨 댁에는 '새미떡'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이름이 있었기 때문 그건 안 한다고요. (웃음) 아이고 나 이제야 들었어. 그런 말.)

107069 @2 (웃음)(웃음)

107070 @1 그 소장, 대상 이런 것도 해낫수과? 이 집이서.(그 소장, 대상 이런 것도 했었습니까? 이 집에서.)

107070 #2 아이고 소장, 대상 겨난 우리 어린 때에는 친정에서는 한식명절이 스 멧질 해마썸.(아이고 소장, 대상 그러니까 우리 어린 때에는 친정에서는 한식명절이, 사 명절 했어요.)

107070 @2 음.(음.)

107070 #2 한식명절허고, 오월단오허곡, 팔월추석허곡, 정월명절.(한식명절하고, 오월단오하고, 팔월추석하고, 정월명절.)

107070 @1 음.(음.)

107070 #2 경허난 흐 일 년에 스 멧질 해마썸.(그러니까 하 일 년에 사 명절 해요.)

107070 @1 음.(음.)

107070 #2 스 멧질을 꼭 주욱 허게 허곡 이제 또 경허난 우리는, 저 우리 친정에는 무슨 건가 종손칩이난 식게도 열 번 허곡, 멧질 너 번 부찌민 열네 번을 해마썸. 일 년에.(사 명절을 꼭 주욱 하게 하고 이제 또 그러니까 우리는, 저 우리 친정에는 무슨 건가 종손집이라서 제사도 열 번 하고, 명절 네 번 더하면 열네 번을 해요. 일 년에.)

107070 @1 음.(음.)

107070 #2 제사 열 번 허고 경허난. 아이고, 겨난 이건 흐 들에 제스 두 번 돌아오는 날, 춤 들도 싯곡, 흐 번 돌아오는 들도 싯곡 허난, 멧질도 부찌곡 허민 흐 들에 제스가 시 번, 두 번은 그자 보통적으로 해낫수다게.(제사 열 번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건 한 달에 제사 두 번 돌아오는 날, 참 달도 있고, 한 번 돌아오는 달도 있고 하니, 명절도 더하고 하면 한 달에 제사가 세 번, 두 번은 그저 보통으로 했었습니다.)

107070 @1 음. 그때에 대상 소장 혈 때에는 올리는 게 더 하지 안헛니까? 무시거 상 위에.(음. 그때에 대상 소장 할 때에는 올리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뭐 상 위에.)

107070 #2 아이, 저 무슨 건가 돛머리도 그때엔 대상 소장 혈 때에는 돛머릴 우선 건으로 그 허영 올리곡.(아이, 저 무엇인가 돼지머리도 그때엔 대상 소장 할 때에는 돼지머릴 우선 건으로 그 해서 올리고.)

107070 @1 올리곡.(올리고.)

107070 @2 음.(음.)

107070 #2 경허난 그때에 허는 것도 게 다 이제 ㄴ찌 과일 올리곡, 떡 올리곡, 술 올리곡 게 다 헛주게.(그러니까 그때에 하는 것도 게 다 이제같이 과일 올리고, 떡 올리고, 술 올리고 게 다 했지.)

107070 @1 그, 떡 종류가 흥뽀 더 하지 않으우파?(그, 떡 종류가 조금 더 많지 않습니까?)

107070 #2 아니, 아니. 그 마찬가지로.(아니, 아니. 그 마찬가지.)

107070 @1 그자 제사할 때허고.(그저 제사할 때하고.)

107070 #2 예, 마찬가지 그거.(예, 마찬가지 그거.)

107070 @1 특별히 더 올리는 게 엇어수과?(특별히 더 올리는 게 없었습니까?)

107070 #2 예. 떡 만드는 그 옛날에, 만드는 그 므몰떡이여, 무슨 저 절벤 술벤 이여, 무슨 그런 것만 요즘은 안 함 뿐이지, 떡 올리는 건 꼭 마찬가지마썸.(예. 떡 만드는 그 옛날에, 만드는 그 메밀떡이다, 무슨 저 절편 ‘술벤’이다, 무슨 그런 것만 요즘은 안 함 뿐이지, 떡 올리는 건 꼭 마찬가지예요.)

107070 @1 마찬가지.(마찬가지.)

107070 #2 제사에 올리는 건.(제사에 올리는 건.)

107070 @1 음.(음.)

107070 #2 대상 소상에도 올리는 건게 요즘 다 그거 아이짱. 수박도 올리구쟁 허민 수박도 올리곡, 수박도 올리곡.(대상 소상에도 올리는 건 요즘 다 그거 아닙니까. 수박도 올리고 싶으면 수박도 올리고, 수박도 올리고.)

107070 @2 예.(예.)

107070 #2 이제 또 춤 무슨 거 또 올리지. 바나나도 올리지.(이제 또 참 무슨 거 또 올리지. 바나나도 올리지.)

107070 @2 바나나.(바나나.)

107070 #2 다 경허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과일 ㄴ튼 것도 올리곡 떡 종류도 마찬가지마썸.(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과일 같은 것도 올리고 떡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107071 @1 예. 설기떡이엔 현 것도 이수과?(예. ‘설기떡’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107071 #2 설기떡이엔 현 게 이거 침떡이엔 현 떡이라마썸게.(‘설기떡’이라고 하는 게 이거 ‘침떡’이라고 하는 떡이에요.)

107071 @1 아, 그게 그거파?(아, 그게 그겁니까?)

107071 #2 예게.(예.)

107071 @1 아, 설기떡.(아, ‘설기떡’.)

107071 #2 요새에 설기떡, 설기떡 허는 것이 침떡이라마썸. (웃음)(요새에 ‘설기떡’, ‘설기’떡 하는 것이 ‘침떡’이에요. (웃음))

107071 @1 아, 그걸 몰란. (웃음)(아, 그걸 몰라서. (웃음))

107071 #2 설기떡이엔 현 건 그 침떡이라 설기떡이엔 허는 겨우다게.(‘설기떡’이라고 하는 건 그 ‘침떡’을 ‘설기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107071 @1 음.(음.)

107071 #2 저 이제 방에 춤 공장에덜 강 다 허여 오는 것이 설기떡이라마씨.(저 이제 방아 참 공장에들 가서 다 하여 오는 것이 ‘설기떡’이에요.)

107072 @1 인절미는 어떻 만듭니까?(인절미는 어떻게 만듭니까?)

107072 #2 은절미는 저 네기반듯허게 멘드는 겨우다게.(인절미는 저 네귀반듯하게 만드는 겁니다.)

107072 @1 거 네기반듯허게 어떻 만듭니까?(거 네귀반듯하게 어떻게 만듭니까?)

107072 #2 아, 그거는 이 저 밀어근에.(아 그거는 이 저 밀어서.)

107072 @1 밀영 그 다음은.(밀어서 그 다음은.)

107072 #2 그 다음은 그 밀어근에, 그 저 설기떡이엔 현 건 그 저 무신 걸로.(그 다음은 그 밀어서, 그 저 ‘설기떡’이라고 하는 건 그 저 무슨 걸로.)

107072 @1 아니, 인절미.(아니, 인절미.)

107072 #2 칼로라도 네기반듯허게 썰영 놔도.(칼로라도 네귀반듯하게 썰어서 놔도.)

107072 @2 인절미.(인절미.)

107072 #2 경 아니민 뿐으로 뜨는 걸로 뜨던지 경 흡니다게.(그렇지 않으면 본으로 뜨는 걸로 뜨든지 그렇게 합니다.)

107072 @2 음.(음.)

107072 @1 아 뿐도 잇어낫수과? 인절미.(아 본도 있었습니까? 인절미.)

107072 #2 예, 뿐 잇어낫수다게.(예, 본도 있었습니다.)

107072 @1 인절미 뿐도 잇어낫수과?(인절미 본도 있었습니까?)

107072 #2 예.(예.)

107072 @1 아아.(아아.)

107072 #2 아, 나가 우리집이 놔 둔 거 ㄹ리쳐사키여. (웃음)(아, 내가 우리집에 놔 둔 거 가리켜야겠어. (웃음))

107073 @2 잘, 잘 놔 뒤수다예. (웃음)(잘, 잘 놔뒀습니다. (웃음))

107073 #2 저 무신 거가, 메뉴리나안티 식게 멩질 멩긴 디 이거 혼 삼 년밖기 안 돼수다게.(저 무슨 거가, 며느리한테 제사 명절 말긴 지 이거 한 삼 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107073 @2 음.(음.)

107073 #2 하도 헉켄 헨에.(하도 하겠다고 해서.)

107073 @2 음.(음.)

107073 #2 아이고, 야, 아이들이여 흑교 텅기곡 허쟁 허민 저, 허지 못한다.(아이고, 야, 아이들이랑 학교 다니고 하려고 하면 저, 하지 못한다.)

107073 @2 음.(음.)

107073 #2 아버지도 살곡, 어머니도 싯곡 허난에.(아버지도 살고, 어머니도 있고 하나까.)

107073 @2 음.(음.)

107073 @1 아.(아.)

107073 #2 이, 이거는 동골락헌 곤떡이라마썸.(이, 이거는 동그란 흰떡이에요.)

107073 @2 어.(어.)

107073 #2 이거는 달 모양으로 반착 허는 거마썸.(이거는 달 모양으로 반쪽 하는 거예요.)

107073 @1 이견 솔벤 헐 때.(이건 ‘솔벤’ 할 때.)

107073 #2 예, 이것ㄴ라 이견 솔벤, 절벤.(예, 이것을 이견 ‘솔벤’, 절편.)

107073 @1 솔벤이고. 이거는 절벤.(‘솔벤’이고. 이거는 절편.)

107073 #2 이거는 그, 은절미.(이거는 그, 인절미.)

107073 @1 인절미.(인절미.)

107073 @2 인절미.(인절미.)

107073 #2 이거는 동골락 떡 저 허여근에 지 지름떡이엔 허는 거 허고.(이거는 ‘동골락떡’ 저 해서 지 ‘지름떡’이라고 하는 거 하고.)

107073 @2 으 으, 기름떡.(으 으, 기름떡.)

107073 @1 음.(음.)

107073 @2 그건 이제 설탕 막 묻힌 거.(그건 이제 설탕 막 묻힌 거.)

107073 #2 예.(예.)

107073 @1 아아.(아아.)

107073 #2 겨난 이거 무슨 걸로 그 흥짓대 닳은 걸로.(그러니까 이거 무슨 걸로 그 흥두께 닳은 걸로.)

107073 @2 아.(아.)

107073 #2 저 무슨 거, 안반에 낵 밀문 허민.(저 무슨 거, 안반에 놓고 밀만 하면.)

107073 @2 음.(음.)

107073 #2 이걸로 영 행 뿐떠마썸.(이걸로 이렇게 해서 본떠요.)

107073 @1 예, 밀 인절미.(예, 밀 인절미.)

107073 #2 은절미. 겨난 새미 허는 거는 그자 아무 걸로라도 톱, 멘 영 줍앙 멘 들민 뉘는 거라마썸.(인절미. 그러니까 새미 하는 거는 그냥 아무 걸로라도 톱 멘 이렇게 집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107073 @1 음.(음.)

107073 #2 이견 경허난 이거 동골락 떡은 그냥 행 영 뿐 뜨민 뿐이 나와마썸.(이건 그러니까 이거 ‘동골락떡’은 그냥 해서 이렇게 본 뜨면 본이 나와요.)

107073 @1 음.(음.)

107073 #2 이거, 이거 아주 옛날 헤난 식이우다게. 이거.(이거, 이거 아주 옛날 했던 식입니다. 이거.)

107073 @1 이거 막 오래텐 거 닻다.(이거 막 오래된 거 닻다.)

107073 #2 예, 이거 오래텐 겨우다게.(예, 이거 오래된 겁니다.)

107073 @2 아, 그것도 영 밀어놔. 밀영, 민 다음에 그걸.(아, 그것도 이렇게 밀어놔. 밀어서, 민 다음에 그걸.)

107073 #2 예, 이것도 밀어 놔근에 이제 뿐 떠근에 이걸 또 동골랑헌 뿐 떠져마썸. 말로 곶은 건 몰라. 이거 배와야크라. (웃음)(예, 이것도 밀어 놓고 이제 본 떠서 이걸 또 동그란 본 떠져요. 말로 하는 건 몰라. 이거 배워야겠어. (웃음))

107073 @1 맞수다.(웃음)(맞습니다.(웃음))

107073 @2 아이고, 그거 잘 보관해수다예.(아이고, 그거 잘 보관했습니다.)

107073 #2 예, 이거 말로 곶은 건 몰라.(예, 이거 말로 하는 건 몰라.)

107073 @2 몰라.(몰라.)

107073 @1 음.(음.)

107073 @2 우리도 옛날에게.(우리도 옛날에게.)

107073 #2 이거 계난 들, 들 반착 헌 떡이 이거라.(이거 그러니까 달, 달 반쪽한 떡이 이거라.)

107073 @2 계난 우리.(그러니까 우리.)

107073 @1 계민, 계민 요게 절편이파? 요.(그러면, 그러면 요게 절편입니까?)

107073 #2 이거는 동골락헌 건 절벤.(이거는 동그란 건 절편.)

107073 @1 절벤. 아, 이게 절벤.(절편. 아, 이게 절편.)

107073 #2 솔벤, 절벤이엔 헌 말은 이걸로, 이걸로 멘드는 거.(‘솔벤’, 절편이라고 하는 말은 이걸로, 이걸로 만드는 거.)

107073 @2 음.(음.)

107073 @1 솔, 예 예. 솔벤.(솔, 예 예. ‘솔벤’.)

107073 #2 절벤.(절편.)

107073 @1 절벤.(절편.)

107073 @2 하여간 곤떡이엔덜 헤수다게. 곤떡.(하여간 흰떡이라고들 했습니다. 흰떡.)

107073 #2 예. 이거 곤떡 멘드는 거.(예. 이거 흰떡 만드는 거.)

107073 @2 곤떡.(흰떡.)

107073 @2 겨난 요걸로는 믰물떡, 은절미 멘드는 거.(그러니까 요걸로는 메밀떡, 인절미 만드는 거.)

107073 @2 아. 그건 믰물떡.(아. 그건 메밀떡.)

107073 #2 응.(응.)

107073 @2 예.(예.)

107073 #2 이건 믰물떡, 은절미 멘드는 거.(이건 메밀떡, 인절미 만드는 거.)

107073 @2 음.(음.)

107073 #2 견디 요즘은 이걸로 다 그자, 저 무신, 곤떡 허여근에 띠근에 흡니다 계.(그런데 요즘은 이걸로 다 그냥, 저 무슨, 흰떡 해서 띠서 합니다.)

107073 @2 ㅁ물떡, 인절미는 두께가 어느 정도 험니까?(메밀떡, 인절미는 두께가 어느 정도 험니까?)

107073 #2 아이, 두께는 뭐 그건 얇게 허쟁 허는 거민 얇게 허는 거고.(아이, 두께는 뭐 그건 얇게 하려고 하는 거면 얇게 하는 거고.)

107073 @2 음.(음.)

107073 #2 두께게 허젠 허민 두께게 허는 거.(두께게 하려고 하면 두께게 하는 거.)

107073 @2 관계 엇고.(관계없고.)

107073 #2 그건 꼭 같이 관계 엇고.(그건 꼭 같이 관계없고.)

107073 @1 음.(음.)

107073 #2 겨난 이건 우리 어머닐로부터 이건 멘들안 이추룩 놔뵤수다게. 나. (웃음)(그러니까 이건 우리 어머니로부터 이건 만들어서 이렇게 놔뵤습니다. 나. (웃음))

107073 @2 음.(음.)

107073 @1 아이고, 기짜?(아이고, 그렇습니까?)

107073 #2 예.(예.)

107073 @2 음. 아이고, 그거 보난 그냥 확실히 알아점수다. (웃음)(음. 아이고, 그거 보니까 그냥 확실히 알겠습니다. (웃음))

107073 #2 예. (웃음) 경허난 이거.(예. (웃음) 그러니까 이거.)

107073 @1 음.(음.)

107073 #2 잘 놔뵤사마씨. (웃음)(잘 놔뵤야 돼요. (웃음))

107073 @2 집에 영 놔뵤당은에.(집에 이렇게 놔뵤다가.)

107073 #2 예.(예.)

107073 @1 게난 만드는 건 ㅁ뜰 겨난.(그러니까 만드는 건 같을 겨니까.)

107073 #2 예. ㅁ따마썸.(예. 같아요.)

107073 @1 게난.(그러니까.)

107073 #2 아까 나 곶은 대로 술벤, 줄벤 허는 절벤 허는 그거라마씨.(아까 나 말한 대로 ‘술벤’, 절편 하는 절편 하는 그거예요.)

107073 @2 음.(음.)

107073 @1 모양만 다른 거로구나예.(모양만 다른 거로군요.)

107073 #2 예 예. 모양만 다른 거.(예 예. 모양만 다른 거.)

107073 @1 술벤 헐 땐 술잎.(‘술벤’ 할 땐 술잎.)

107073 #2 예.(예.)

107073 @1 허난에 술벤?(하니까 ‘술벤’?)

107073 #2 예.(예.)

107073 @1 아, 그것만 햅폼 다르고.(아, 그것만 조금 다르고.)

107073 #2 예.(예.)

107073 @1 나머지 만드는 방법은.(나머지 만드는 방법은.)

107073 #2 예, 방법은 마찬가지로.(예, 방법은 마찬가지로.)

107073 @1 예 예.(예 예.)

107073 #2 겨난.(그러니까.)

107073 @2 솔벤.(‘솔벤’.)

107073 #2 요새에 떡공장에 가도 저처럼 동글락하게 멘들아 드렌 허민 동글락하게 멘들어 준, 저 찍는 거만 아이 찍은 뿐 험니다게.(요새에 떡공장에 가도 저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동그랗게 만들어 준, 저 찍는 거만 아니 찍은 뿐 합니다.)

107073 @1 음.(음.)

107073 @2 게 솔벤은 밑에 솔잎 놓으난 솔벤이파?(게 ‘솔벤’은 밑에 솔잎 놓으니까 솔벤입니까?)

107073 #2 예 예.(예 예.)

107073 @2 솔잎.(솔잎.)

107073 #2 예.(예.)

107073 @1 게난 향도.(그러니까 향도.)

107073 #2 예. 솔, 솔잎 내 나주.(예. 솔, 솔잎 내 나지.)

107073 @1 솔잎 내.(솔잎 내.)

107073 #2 예. 납니다게.(예. 납니다.)

107075 @1 냄새가 나주. 웃기떡이엔 현 말도 이수과? 웃기떡.(냄새가 나지. ‘웃기떡’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까? 웃기떡.)

107075 #2 양?(예?)

107075 @1 웃기떡?(‘웃기떡’?)

107075 #2 웃찍이엔 현 거는, 그 웃기떡이엔 현 거는 그 침떡에 옛날은 그 곤살이 어려운 때난에 저 그 무신 거 줍쌀떡 웃터레.(‘우찍’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웃기떡’이라고 하는 거는 그 ‘침떡’에 옛날은 그 흰쌀이 어려운 때이니까 저 그, 무슨 거 줍쌀떡 위에다가.)

107075 @1 음.(음.)

107075 #2 흰ㄱ를 햅폼.(흰가루 조금.)

107075 @1 음.(음.)

107075 #2 흰 ㄱ를 놓으민 우지, 우찍이엔 험니다게.(흰가루 넣으면 우지, ‘우찍’라고 합니다.)

107075 @2 음.(음.)

107075 @1 우찍.(‘우찍’.)

107075 @2 그거는 또 떡이라마썸? 그것도?(그거는 또 떡이에요? 그것도?)

107075 #2 그것도 떡계. 그 저 침떡에 멘드는 떡.(그것도 떡. 그 저, ‘침떡’에 만드는 떡.)

107075 @2 음. 침떡 우에?(음. ‘침떡’ 위에?)

107075 #2 예.(예.)

107075 @1 지름떡 굵사 그 벨 모양으로 현.(기름떡 아까 그 벨 모양으로 한.)

107075 #2 예.(예.)

107075 @1 지름떡 만드는 건 어떻게 합니까?(기름떡 만드는 건 어떻게 합니까?)

107075 #2 아까 그 동골락현, 죽은 거 씻지 않으봐?(아까 그 동그란,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107075 @1 그걸로 찍엉. 예예.(그걸로 찍어서. 예예.)

107075 @2 음.(음.)

107075 #2 그것에서 가릿가릿현 것이.(그것에서 ‘가릿가릿한’ 것이.)

107075 @1 가릿가릿한 것이.(‘가릿가릿’한 것이.)

107075 #2 그것이 우찍이라마썸.(그것이 ‘우찍’이에요.)

107075 @2 음.(음.)

107075 @1 경허여근에 꼭 찍엉.(그렇게 해서 꼭 찍어서.)

107075 #2 예, 눌르민.(예, 누르면.)

107075 @2 음.(음.)

107075 @1 그 다음에 걸 썬근에.(그 다음에 걸 썬서.)

107075 #2 예.(예.)

107075 @1 삶양, 그 다음에 그 우이 지름을 기자 비와 볶니까? 아니민.(삶아서,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그냥 부어 버립니까? 아니면.)

107075 #2 아, 비우질 아녀고 쪼끔씩 영 불릅니다게. 불라.(아, 붓질 얇고 조금씩 이렇게 바릅니다. 발라.)

107075 @1 흐끔씩 불라.(조금씩 발라.)

107075 #2 예 예.(예 예.)

107075 @1 음.(음.)

107075 #2 겨난 곤떡이난에 그 부뜨지 말렌 지름을 불르는 생이랍디다.(그러니까 흰떡이니까 그 불지 말라고 기름을 바르는 모양이랍디다.)

107075 @1 아아, 부뜨지 말렌.(아아 불지 말라고.)

107075 #2 겨난 요즘이 떡 공장에 가도 지름, 식용유로 불라줍니다게.(그러니까 요즘에 떡 공장에 가도 기름, 식용유로 발라줍니다.)

107075 @2 음.(음.)

107075 @1 음.(음.)

107075 #2 경 우리가 맛 좋게 먹쟁 허민 집이 오랑, 그 떡 공장에서 떡 현 거 왕춤지름 불르명 먹음. 저 춤지름 불르명 먹읍니다게.(그렇게 우리가 맛 좋게 먹으려고

하면 집에 와서, 그 떡 공장에서 떡 한 거 와서 참기름 바르면서 먹음. 저 참기름 바르면서 먹습니다.)

107075 @1 계난 지난 번 저 멧질 때 집이서 저거 다 헷디가? 아니민.(그러니까 지난번 저 멧질 때 집에서 저거 다 했나요? 아니면.)

107075 #2 아이고, 저걸로 다 허연마씨.(아이고, 저걸로 다 했어요.)

107075 @2 음.(음.)

107075 @1 저걸로 다 헤연.(저걸로 다 해서.)

107075 #2 예.(예.)

107075 @2 음 음.(음 음.)

107075 #2 겨난 나 헐 때는 저걸로 다 헤신디. 이젠 메누리안테레 이거 주건 디가 헐 삼 년, 삼 년 웨신가 말아신가 헐디. 메누리가 다 저.(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저걸로 다 했는데. 이젠 며느리한테 이거 준 지가 한 삼 년, 삼 년 됐는가 말았는가 한테. 며느리가 다 저.)

107075 @2 불리당.(불리다가.)

107075 #2 떡칩이 가근에 떡 허여당 송편허곡.(떡집에 가서 떡 해다가 송편하고.)

107075 @2 음.(음.)

107075 #2 저기 뭐 빵이라도.(저기 뭐 빵이라도.)

107075 @2 음.(음.)

107075 #2 그런 거 허고 그자.(그런 거 하고 그저.)

107075 @2 시리떡허곡예.(시루떡하고요.)

107075 #2 시리, 시리떡 허곡.(시루, 시루떡 하고.)

107075 @2 음.(음.)

107075 #2 경 허영 험수다게.(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107075 @1 음.(음.)

107075 #2 나 헐 때는 저걸로 다 허고.(내가 할 때는 저걸로 다 하고.)

107075 @2 음.(음.)

107075 #2 경허난 나도 이디 저 무슨 건가 모든 멧질을 헐 십오 년을 헤서마썸. 경헌디 십오 년 동안 허는 건, 저걸로만 난 다 헤수다.(그러니까 나도 여기 저 무엇인가 모든 멧질을 한 십오 년을 했어요. 그런데 십오 년 동안 한 건, 저걸로만 난 다 했습니다.)

107075 @1 음.(음.)

107075 #2 준떡¹¹⁴⁾이라고 거 해서. 그 무슨건가 춤, 무신 거엿 허느니, 그것이라. 이 제삿상에 무슨거, 춤 제펜이엿 허는가? 뭇시엿 허는가?(‘준떡’이라고 거 해서. 그 무엇인가 참, 무엇이라고 하니, 그것을. 이 제삿상에 무슨 거, 참 ‘제펜’이라고 하는가? 뭇이라고 하는가?)

114) ‘준떡’은 시루떡보다 작은 송편 따위의 자잘한 떡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107075 @2 제펜?(제펜?)

107075 #2 뭐 그런 걸 다 허쟁 허민, 저런 존떡을 허영 웃트리레, 그 침떡 웃트리레 다 더꺼마씨.(뭐 그런 걸 다 하려고 하면, 저런 ‘존떡’을 해서 위에다, 그 ‘침떡’ 위에다 다 덮어요.)

107075 @1 음.(음.)

107075 #2 은절미, 그 은절미 놔 놔, 저 소랑헌 떡 농곡, 동골락헌 떡 농곡 허여근에 그 또시 들궤 동골락, 동골락헌 거, 그거 또 웃트리레 농곡. 경헨 해낫수다게. (인절미, 그 인절미 놔 놓고, 저 가름한 떡 놓고, 동그란 떡 놓고 하여서 그 다시 달같이 동그란, 동그란 거, 그거 또 위에다 놓고.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107075 @2 맞수다게. 제일 밑에는.(맞습니다. 제일 밑에는.)

107075 #2 예 예.(예 예.)

107075 @2 그 저, 시리떡 넣고.(그 저, 시루떡 넣고.)

107075 #2 예 예.(예 예.)

107075 @2 침떡, 침떡.(‘침떡’, ‘침떡’.)

107075 #2 시리떡 농곡, 은절미엔 헌 건.(시루떡 놓고, 인절미라고 하는 건.)

107075 @2 예.(예.)

107075 #2 그 네귀반듯헌 떡 웃트리레 농곡.(그 네귀반듯한 떡 위에다 놓고.)

107075 @2 웃트리레 농고.(위에다 농고.)

107075 #2 경헨 해낫수다게.(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107075 @2 예, 경헨 솔벤 절벤 농곡.(예, 그렇게 해서 ‘솔벤’ 절편 농고.)

107075 #2 예.(예.)

107075 @2 헤근에, 영 층을 쌓는 거.(해서, 이렇게 층을 쌓는 거.)

107075 #2 예, 경허난 또 송펜은 뜬 사라에 따로 올리곡.(예, 그러니까 또 송편은 뜬 접시에 따로 올리고.)

107075 @2 따로.(따로.)

107075 #2 적갈허곡 이제 둠비허곡.(‘적갈’하고 이제 두부하고.)

107075 @2 음.(음.)

107075 #2 그런 것도 따로.(그런 것도 따로.)

107075 @2 따로 올리고.(따로 올리고.)

107075 #2 그 따로 올리곡 경허난, 따로따로 올립니다게. 다 그거.(그 따로 올리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올립니다. 다 그거.)

107075 @2 음. 맞수다게.(음. 맞습니다.)

107075 #2 아, 이 아저씨네. (웃음)(아, 이 아저씨네. (웃음))

107075 @2 잘 놔 뒤수다게.(잘 놔뒀습니다.)

107074 #2 게메, 경허난 이제 저 절벤, 솔벤 그거 이 어른넨 만날 설명헤 봐도. (글쎄, 그러니까 이제 저 절편, 솔벤 그거 이 어른들은 만날 설명헤 봐도.)

107074 @2 음.(음.)

107074 #2 무슨 떡인 철 몰라. ***(무슨 떡인 줄 몰라. ***)

107074 #1 제스, 제스힐 때.(제사, 제사할 때.)

107074 @2 제스힐 때. 멩질날.(제사할 때. 명절날.)

107074 @1 말로만 골으난 몰란에 저걸 봐사. (웃음)(말로만 말하니까 몰라서 저걸 봐야. (웃음))

107074 #2 아명 골아 봐도 떡이 무슨 떡인 철 모르난.(아무리 말해 봐도 떡이 무슨 떡인 줄 모르니까.)

107074 @1 절편, 절편이엔 헌 게 어느 걸로 만든 건지 저걸로 보난에 알아점수다.(절편, 절편이라고 하는 게 어느 걸로 만든 건지 저걸로 보니까 알겠습니다.)

107074 #2 이것가 절편.(이것이 절편.)

107074 @2 절벤.(절편.)

107074 #2 이거 솔벤. 소랑헌 거난 솔벤.(이거 ‘솔벤’. 가름한 거니까 ‘솔벤’.)

107074 @2 솔벤.(‘솔벤’.)

107074 #1 저, 저거 낙인 찍어져 저 곤떡에. 동골락헌 거. 저 저거.(저, 저거 낙인 찍어져 저 흰떡에. 동그란 거. 저 저거.)

107074 @1 예, 예.(예, 예.)

107074 @2 경험주게.(그러지요.)

107074 #2 이거 뭐 그 뒤에 딱 찍으면 그릇이 нама썸.(이거 뭐 그 뒤에 딱 찍으면 금이 나오.)

107074 @2 게난 똑같아마썸. 한림도 우리집도 똑같이 저렇게 혜수다. 똑같이.(그러니 똑같아요. 한림도 우리집도 똑같이 저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107074 #2 게메 경허난 똑같은 거 옛날에는. 버려 불지 안 허연 딱 놔뒀주게. 영 썬에.(글쎄 그러니 똑같은 거 옛날에는. 버려 버리지 않고 딱 놔뒀지. 이렇게 싸서.)

107074 @2 우리도 옛날에 *** 엇어예? 맞아. *** 저 저 절편 찍는 거는 다 어느 집마다 다 있어났어. 나무로 만든 거.(우리도 옛날에 *** 없어요? 맞아. *** 저 저 절편 찍는 거는 다 어느 집마다 다 있었어. 나무로 만든 거.)

107074 #2 예, 다 이십니다게.(예, 다 있습니다.)

107074 @2 나무로 만든 거.(나무로 만든 거.)

107074 #2 나무로 멘든 것도 싯곡.(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107076 @1 식게 멩질 뎀 요걸로 허고. 게민 어디 저 당에도 가납디가? 당에.(제사 명절 뎀 요걸로 하고. 그러면 어디 저 당에도 갔었나요? 당에.)

107076 #2 당에 가는 건 당다데¹¹⁵⁾엔 헌 건, 영 허는 딘, 그거는 동골락 떡 기자 멘들앙, 영, 영 동골락허게 멘들앙 그자, 그 뭐, 당도 다 므을마다 틀립데다.(당에 가는 건, ‘당다데’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뎀, 그거는 동그란 떡 그저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저, 그 뭐, 당도 다 마을마다 다릅디다.)

115) ‘당다데’는 당에 갈 때 제물로 바치는 동글납작한 떡이다. 달리 ‘다데, 다데떡’이라고 한다.

107076 @1 예.(예.)

107076 #2 겨난 우리 땡기는 디는 생선 흐나 구워 놓곡, 떡 허영 혼 땡 개 놓곡, 그자 밥 두 사발 거리곡 허영 가난, 당에 땡기는 사름도 막 으랏 질입테다. 그때 다 저 말근는 거 보난.(그러니 우리 다니는 데는 생선 하나 구워 놓고, 떡 해서 한 땡 개 놓고, 그저 밥 두 사발 뜨고 해서 가니까, 당에 다니는 사람도 막 여러 갈래입디다. 그때 다 저 말하는 거 보니까.)

107076 @1 당다테. 당다테.(‘당다테’. ‘당다테’.)

107076 #2 예, 당다테, 당다테.(예, ‘당다테’, ‘당다테’.)

107076 @1 그 저, 동골락허게 기자.(그 저, 동그랗게 그저.)

107076 #2 예, 동골락허게 멘들앙.(예, 동그랗게 만들어서.)

107076 @1 예. 그 바위에도 그냥 동골랑하게 민짜헌 거양?(예. 그 가에도 그냥 동그랗게 미끈한 거요?)

107076 #2 예, 예. 동골락허게 멘들앙, 멘들락하게 멘들앙.(예, 예. 동그랗게 만들어서, 미끈하게 만들어서.)

107076 @1 예.(예.)

107076 #2 경헨 기것 하간 술과 과일덜게, 뭘 사과나.(그래서 그것 여러 가지 술과 과일들, 뭘 사과나.)

107076 @1 예.(예.)

107076 #2 이제 배나 그런 거, 삼 과일 올린텐 허여근에, 삼 과일로 험니께게. 배, 사과 무슨 거 미짱이나 그런 것덜 허영.(이제 배나 그런 거, 삼 과일 올린다고 해서, 삼 과일로 합니다. 배, 사과 무슨 거 곱이나 그런 것들 해서.)

107076 @1 그딤 이, ㄹ저가는 것도 이제 곤썰로.(거기 이, 가져가는 것도 이제 흰쌀로.)

107076 #2 예 예.(예 예.)

107076 @1 당다테.(‘당다테’.)

107076 #2 곤썰로 그건 저 무신 건가, 옛날은 종제기 헤끔 험 것에 뵙 땡집디다 마는. 이젠 뭘 사발로 흐나씩도 ㄹ정 땡기고 흐단, 난 이젠, 우린 팔십이 넘으난에. 그런 되도 아이 땡겸수다.(흰쌀로 그건 저 무엇인가, 옛날은 종지 조그만 한 것에 넣어 다넉디다마는. 이젠 뭘 사발로 하나씩도 가지고 다니고 하다가, 난 이젠, 우린 팔십이 넘으니까. 그런 데도 아니 다니고 있습니다.)

107076 @1 여기 어디 당이 있어났수과?(여기 어디에 당이 있었습니까?)

107076 #2 이되는 저.(여기는 저.)

107076 #1 어음 이리.(‘어음 이리’.)

107076 #2 우리는 어린비 살아나난.(우리는 ‘어린비’ 살았었으니까.)

107076 @1 어음 이리.(어음 이리.)

107076 #2 어린비 땡기고.(‘어린비’ 다니고.)

107076 #1 그 당이 오꽃 그 혼 육백 년 뵙 폭낭인디 꺼꺼전 죽어 불언게.(그 당

이 그만 그, 한 육백 년 된 팽나무인데 꺾어져서 죽어 버렸어.)

107076 @1 아아.(아아.)

107076 @2 아아.(아아.)

107076 #1 태풍에.(태풍에.)

107076 @2 태풍에, 바람에 쓸어져 불언.(태풍에, 바람에 쓸어져 버렸어.)

107076 #2 그 폭낭이.(그 팽나무가.)

107076 @1 예.(예.)

107076 @2 바람에 꺾어져 불언예.(바람에 꺾어져 버렸어요.)

107076 #2 늪으민.(늪으면.)

107076 @2 예.(예.)

107076 #2 늪으면은 그 한 쪽으로 썩습디다게.(늪으면은 그 한 쪽으로 썩습디다.)

107076 #1 썩영.(썩어서.)

107076 @2 음.(음.)

107076 #1 꿩정 들어가 가지고.(구멍 나서 들어가 가지고.)

107076 @1 아아.(아아.)

107076 #2 경허난 그제 썩으난에.(그러니까 그제 썩으니까.)

107076 #1 그거 최고, 그 어름비 당 폭낭, 꼭 지금 리사무실 뒤에 잇잖아. 어음 리사무실 뒤에.(그거 최고, 그 ‘어름비’ 당 팽나무, 꼭 지금 리사무실 뒤에 잇잖아. 어음 리사무실 뒤에.)

107076 @1 예.(예.)

107076 #1 엄청난, 오랜 낭인디. 그 육백 년인가 칠백 년인가 똥젠 현 낭인디.(엄청난, 오랜 나무인데. 그 육백 년인가 칠백 년인가 똥다고 하는 나무인데.)

107076 #2 태풍에 꺾어져 불언.(태풍에 꺾어져 버렸어.)

107076 #1 그 이 저, 이 신명동 사름은 거의 그디.(그 이 저, 이 ‘신명동’ 사름은 거의 거기에.)

107076 @1 아아.(아아.)

107076 #1 그, 그 당, 어음당을.(그, 그 당, ‘어음당’을.)

107076 #2 이 저, 봉성 사름은 이 저.(이 저, ‘봉성’ 사름은 이 저.)

107076 #1 구머릿당에 강.(‘구머릿당’에 가서.)

107076 #2 구머릿당이엔 현 디 이수다. 저 내창에.(‘구머릿당’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저 내에.)

107076 #1 신명동 사름만 어름비당에 그.(신명동 사름만 어름비당에 그.)

107076 @1 아아.(아아.)

107076 #2 겨난 이녜 므을마다 틀려마썸. 거.(그러니까 이녜 마을마다 달라요. 거.)

107076 @1 겐디 그 폭낭 엷어져 부난 당도 엷어져 비언마썸?(그런데 그 팽나무

없어져 버리니까 당도 없어져 버렸나요?)

107076 #2 아니.(아니.)

107076 @1 당은 그냥 이수과?(당은 그냥 있습니까?)

107076 #2 당은 그냥 씻수다.(당은 그냥 있습니다.)

107076 #1 그냥, 그냥 그 제 허는 건 그냥 헤어.(그냥, 그냥 그 제 하는 건 그냥 해.)

107076 @1 예.(예.)

107076 #1 폭낭 벗어나져도. 그디.(팽나무 벗어나져도. 거기.)

107077 @1 음. 곳도 해납디가? 곳?(음. 곳도 했었습니까? 곳?)

107077 #2 에이, 우린 그건 안 해 봐수다.(에이, 우린 그건 안 해 봤습니다.)

107077 @1 곳은 안 해 봐수과?(곳은 안 해 봤습니까?)

107077 #2 예. 곳 허는 집이 셔마썸. 이 저.(예. 곳 하는 집이 있어요. 이 저.)

107077 #1 칠성콧.(‘칠성콧’.)

107077 #2 칠성콧이엿 허여근에 일 년에 혼 번을 허나 이 년에 혼 번을 허나 허영 그거 허는 집이 잇어마썸. 그 우린 그런 거 안 해 봐수다.(‘칠성콧’이라고 해서 일 년에 한 번을 허나 이 년에 한 번을 허나 해서 그거 하는 집이 있어요. 그 우린 그런 거 안 해 봤습니다.)

107077 @1 음. 그, 계도 곳 보렌 가나지 안헛수과? 곳 보레.(음. 그, 그래도 곳 보러 갔었지 않습니까? 곳 보러.)

107077 #2 아, 곳 보레도 뭐 우린 그, 어린 때난 텡겨 보지 아녀고. 우린 기자 그런 거 혼다 허는 거 기자 허는 집이는, 일 년에 혼 번이나 이 년에 혼 번이나. (아, 곳 보러도 뭐 우린 그, 어린 때니까 다녀 보지 않고. 우린 그저 그런 거 혼다 하는 거 그저 하는 집에는, 일 년에 한 번이나 이 년에 한 번이나.)

107077 #1 요 집이 옛날 저.(요 집에 옛날 저.)

107077 #2 에이, 시끄럽수다게. 그런 말 그거 그 집이도 이젠 어멍 아방네 죽어 부난 일절 안 험수게게. 겨난.(에이, 시끄럽습니다. 그런 말 그거 그 집에도 이젠 어머니 아버지네 죽어 버리니까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7077 @1 아.(아.)

107077 #1 엄청난, 일뤼씩 허여난.(엄청난, 이레씩 했었어.)

107077 @2 음.(음.)

107077 @1 일뤼?(이레?)

107077 #1 일뤼.(이레.)

107077 #2 두 일레 열나홀 헌덴 말은 허영. 그자 일레 간.(두 이레 열나홀 한다는 말은 해서. 그저 이레 간.)

107077 #1 아이 무당을 계약 허영 일뤼씩. 이 년에 혼 번씩.(아이 무당을 계약해서 이레씩. 이 년에 한 번씩.)

107077 @2 아.(아.)

107077 #1 그 저, 하귀 강심방이라고 엄청난 심방이 있어났수다게. 이젠 죽어 불었주마는.(그 저, 하귀 강무당이라고 엄청난 무당이 있었습니다. 이젠 죽어 버렸지마는.)

107077 @1 음.(음.)

107077 #1 하귀.(하귀.)

107077 @2 음.(음.)

107077 @1 그 심방을.(그 무당을.)

107077 #1 빌어당.(빌려다가.)

107077 @1 빌어다근에.(빌려다가.)

107077 #1 게 심방이 그거 빌면은 혼 댓 사름이 ㄴ찌 와. 북 두드리는 사름, 무슨 거 허는 사름.(게 무당이 그거 빌리면은 한 댓 사람이 같이 와. 북 두드리는 사람, 무슨 거 하는 사람.)

107077 #2 아, 겨난 그 집은 저 아기덜을, 옛날에, 요즘은 병원 시난에 살았주마는. 아기덜이 나민 죽어 불곡 죽어 불곡 허난, 기자 이거 뵈을 허민 좋을 견고 허연에.(아, 그러니까 그 집은 저 아기들을, 옛날에, 요즘은 병원 있으니까 살았지마는. 아기들이 나면 죽어 버리고 죽어 버리고 하니, 그저 이거 뵈을 하면 좋을 견고 해서.)

107077 @1 음.(음.)

107077 #2 그거는 그 신, 춤, 무당덜 빌어단에 허연 허난 이제, 스대 독제산디 오대 독제산디 잇수다게. 경허난 경 저, 아기덜이 잘 질루질 못허난 옛날은.(그거는 그 신, 참, 무당들 빌려다가 해서 하니까 이제, 사대 독자인지 오대 독자인지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저, 아기들이 잘 기르질 못하니까 옛날은.)

107077 #1 아 게.(아 게.)

107077 #2 병원도 엇곡 허난에게.(병원도 없고 하니까.)

107077 @1 음.(음.)

107077 #2 살았수게게. 겨난 요즘에사 그런 거 허는 사름 잇수광? 문딱 병원에만 강 살아근에.(살았습니다. 그러니 요즘에야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습니까? 모두 병원에만 가서 살아서.)

107077 @1 그되 굿할 때 무신 떡 헉디가? 굿떡?(거기 굿할 때 무슨 떡 헉디가? ‘굿떡’?)

107077 #2 몰르쿠다. 난 그 집은 봐 보지 안헤수다.(모르겠습니다. 난 그 집은 봐 보지 않았습니다.)

107077 @1 안 봐 봄디가? 예.(안 봐 봤습니까? 예.)

107077 #2 견디 주로 굿허는 집인 보민 그, ㄴ사 모양으로 절, 절, 아, 슬변, 절 변 허는 것도 안 헉곡. 굿떡이 ㄴ로 셔마썸. 저 똥골락 똥골락 허게 똑 허게 영 손가락으로 찌곡, 또 침떡이엔 현 침떡도 삼귀나게 기차근에 그 놈이 집이 혼 때 보난에. 경허민 그 굿떡은 아주 틀려마썸. 식게 멩질 허는 떡보다는.(그런데 주로 굿

하는 집에는 보면 그, 아까 모양으로 절, 절, 아, 술변, 절편 하는 것도 안 하고. ‘굿떡’이 따로 있어요. 저 동글동글하게 딱 하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찌고, 또 ‘침떡’이라고 하는 ‘침떡’도 삼 귀 나게 끊어서 그 남의 집에 할 때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 ‘굿떡’은 아주 달라요. 제사 명절 하는 떡보다는.)

107077 @1 예.(예.)

107077 @2 침떡도 삼 귀로예. 삼각형, 삼 귀로.(‘침떡’도 세 귀로요. 삼각형, 네 귀로.)

107077 @1 음.(음.)

107077 @2 거 무사 삼 귀로 험신고? 사 귀도 아니고.(거 왜 세 귀로 하는고? 네 귀도 아니고.)

107077 #2 몰르쿠다. 거 어떤 뭐, 어떤 의미로사 허여신디 그건 모르코.(모르겠습습니다. 거 어떤 뭐, 어떤 의미로야 했는지 그건 모르코.)

107077 @1 아, 예. 삼각형으로.(아, 예. 삼각형으로.)

107077 @2 응, 삼 귀 나게.(응, 세 귀 나게.)

밥과 국

107001 @1 밥은 무신 밥, 무신 밥 해 먹어났수과?(밥은 무슨 밥, 무슨 밥 해 먹었었습니까?)

107001 #2 밥은 주로 보리밥만 행 먹어십주게.(밥은 주로 보리밥만 해서 먹었습지요.)

107001 @2 허허.(허허.)

107001 #2 보리쌀에 옛날은 콩, 찰, 팥 서끄곡 이제 좁쌀 서끄곡 허영, 보리밥만 행 그뎨 먹으난. 이제 ㄴ찌 쌀밥만 행 먹엄시민 허주만, 그뎨 보리밥을 헤영.(보리쌀에 옛날은 콩, 찰, 팥 섞고 이제 좁쌀 섞고 해서, 보리밥만 해서 그뎨 먹었으니. 이제같이 쌀밥만 해서 먹고 있으면 하지만, 그뎨 보리밥을 해서.)

107001 @1 보리밥.(보리밥.)

107001 #2 주로 팥 숲곡, 그자 좁쌀 농곡 헤영 먹어나난 그, 밥은 뭐 벨로 틀리게 헤영 먹어 보진 안헛수다게.(주로 팥 삶고, 그자 좁쌀 넣고 해서 먹었었으니까 그, 밥은 뭐 별로 다르게 해서 먹어 보진 않았습습니다.)

107001 @1 보리허고 좁, 보리쌀, 좁쌀 서꺼근에.(보리하고 좁, 보리쌀, 좁쌀 섞어서.)

107001 #2 예. 아, 계난 보리밥 허다근에 또 보리쌀이 거저 삶아져 가민 이제 좁쌀을 놓는 거라마썸.(예. 아, 그러니까 보리밥 하다가 또 보리쌀이 거의 삶아져 가면 이제 좁쌀을 놓는 거예요.)

107001 @1 예.(예.)

107001 #2 좁쌀 놔근에 밥 행 먹으민, 그때에는 화덕에 저 밥을 허난, 이 저, 이 제ㄴ찌 뭐 가스에도 밥 안 허곡. 그뎨 화덕에도 허곡, 그냥 빈 디도 덕 앓져근에 그

자 불 습어나난.(좁쌀 놔서 밥 해서 먹으면, 그때에는 화덕에 저 밥을 하니까, 이 저, 이제같이 뭐 가스에도 밥 안 하고. 그땐 화덕에도 하고, 그냥 빈 데도 붓들 세워서 그저 불 때었으니까.)

107001 @2 음.(음.)

107001 #2 무슨 벨 게 씻수과?(무슨 별다른 게 있습니까?)

107001 @1 음. 보리밥.(음. 보리밥.)

107001 #2 보리밥.(보리밥.)

107001 @1 그거에 감저도 썰어 놓곡 허지 안했수과?(그거에 고구마도 썰어 넣고 하지 않았습니까?)

107001 #2 아이, 고구마도 썰어 낱 할 때도 십니다게. 고구마 썰어 낱은에 허영도 먹어나고. 좁쌀에 그냥 고구마 썰어 낱도 헤영 먹고, 거 거, 이녁 먹고픈 냥으로 행, 허연 먹는 거난 경 꼭.(아이, 고구마도 썰어 넣고 할 때도 있습니다. 고구마 썰어 놔서 해서도 먹었었고. 좁쌀에 그냥 고구마 썰어 넣고도 해서 먹고, 거 거, 이녁 먹고픈 대로 해서, 해서 먹는 거니까 그렇게 꼭.)

107001 #1 그 어려우면은 식량을 불리우젠. 식구나 하곡 허면은, 쌀은 죽으면은 고구마도 썰영 낱 허면은 허곡. 이 저, 뭐 또 있나. 믰물범벅이라고. ‘논쟁이범벅¹¹⁶⁾’에.(그 어려우면은 식량을 불리려고. 식구나 많고 하면은, 쌀은 적으면은 고구마도 썰어 넣어서 하면은 하고. 이 저, 뭐 또 있나. 메밀범벅이라고. ‘논쟁이범벅’에.)

107001 @1 예.(예.)

107001 #1 논쟁이가 나와. 논쟁이 ㄹ르.(나깨가 나와. 나깨 가루.)

107001 #2 아이, 옛날엔 그 저.(아이, 옛날엔 그 저.)

107001 #1 그건 맛있어.(그건 맛있어.)

107001 #2 메밀, 메밀 ㄹ르.(메밀, 메밀가루.)

107001 #1 메밀, 그 나쁜 ㄹ를인디.(메밀, 그 나쁜 가루인데.)

107001 @2 음.(음.)

107001 #1 메밀 ㄹ르는 맛있어.(메밀가루는 맛있어.)

107001 @1 음.(음.)

107001 #1 그거에 고구마 썰영 허민 논쟁이범벅이라고 해서.(그거에 고구마 썰어서 하면 나깨범벅이라고 해서.)

107001 @1 예.(예.)

107001 #1 참 맛있어마썸.(참 맛있어요.)

107001 @1 논쟁이범벅.(나깨범벅.)

107001 #2 겨난 그 ㄹ레에 저, 무슨 거, 멧돌에 믰물을 값을 허민, 쌀 따로 ㄹ르 따로가 나와마썸. 그 나쁜 ㄹ를.(그러니까 그 멧돌에 저, 무슨 거, 멧돌에 메밀을 값을 하면, 쌀 따로 가루 따로 나와요. 그 나쁜 가루.)

107001 @1 예, 예.(예, 예.)

116) ‘논쟁이범벅’은 나깨로 만든 범벅이다. 달리 ‘논쟁이범벅’이라고 한다.

107001 #2 경허민 그 쌀은 곶양 이제 춤 식게 멩질 때 떡 행 먹을 걸로 허곡, 그 논쟁이 ㄹ들이엔 현 ㄹ르는, 그자 우리 먹영 헐 거는, 고구마 썰어 놓곡 춤 수제 빌 행 먹던가, 범벅을 행 먹던가, 경 헤낫수다게.(그러면 그 쌀은 같아서 이제 참 제사 멩질 때 떡 해서 먹을 걸로 하고, 그 나께 가루라고 하는 가루는, 그저 우리 먹고 할 거는, 고구마 썰어 놓고 참 수제빌 해서 먹든가, 범벅을 해서 먹든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107002 @1 음. 좁쌀은 이제 그 흐린좁쌀마씀?(음. 좁쌀은 이제 그 차좁쌀요?)

107002 #2 흐린 거, 그 흐린 것도 셔나고, 모윈 것도 셔낫수다게.(차진 거, 그 차진 것도 있었고, 메진 것도 있었습니다.)

107002 @1 밥해 먹을 때에.(밥해 먹을 때에.)

107002 #2 예.(예.)

107002 @1 두 개 다 놔낫수과?(두 개 다 넣었었습니까?)

107002 #2 예.(예.)

107002 @1 음.(음.)

107002 #2 모윈좁쌀이엔 현 건 노랑 좁쌀이고, 흐린좁쌀이엔 현 건 까만 좁쌀이고. 그겁주.(메진 좁쌀이라고 하는 건 노랑 좁쌀이고, 차진 좁쌀이라고 하는 건 까만 좁쌀이고. 그거지요.)

107002 @1 음.(음.)

107002 #2 그땐 경 헤낫수다.(그땐 그렇게 했었습니다.)

107002 @1 곧밥은 기자 식게 멩질 헐 때에만.(흰밥은 그저 제사 멩질 할 때에만.)

107002 #2 예. 돈 식게 멩질 헐 때나 허영 먹어근에 이제ㄹ찌 그땐 쌀이 흔허지 안 헤영 그 저 밧디 산뒤엔 현 거 갈양은에 허민, 매 사름이 산뒤도 아니 웨고마씀 게.(예. 모두 제사 멩질 할 때나 해서 먹고 이제같이 그땐 쌀이 흔하지 않아서 그 저 밧에 밧벼라고 하는 거 같아서 하면, 매 사름이 밧벼도 아니 되고요.)

107002 @1 음.(음.)

107002 #2 경허난 기자 주로 보리허곡, 그자 콩허곡, 팻허곡, 녹디도 갈곡, 그자 그 잡공서 오곡석이엔 현 게 그게.(그러니 그저 주로 보리하고, 그저 콩하고, 팔하고, 녹두도 같고, 그저 그 ‘잡공서 오곡석’이라고 하는 게 그게.)

107002 #1 이 사름 친정에 중손인다.(이 사름 친정에 중손인데.)

107002 #2 에에, 중손이팡?(에에, 중손입니까?)

107002 #1 제스를 열 번 이상 헤낫어.(제사를 열 번 이상 했었어.)

107002 #2 게, 나 그 말 곶아수다.(게, 나 그 말 했습니다.)

107002 #1 제스를.(제사를.)

107002 @2 (웃음) 제서를.((웃음) 제사를.)

107002 #1 엄청나게 스뭏.(엄청나게 사뭏.)

107002 @2 겨난.(그러니.)

107002 #2 아이고, 경허난 이제보단 다른 거는, 옛날에 보리밥 행 떡곡 그자 그 메밀 굴곡, 그자 그런 거지, 이제 떡 허는 거고 뭇이고, 아까 그거 나 그리친 거, 그런 걸로만 떡 허곡 허난 이제보단 다른 건 벨로 엇어마썸.(아이고, 그러니 이제보단 다른 거는, 옛날에 보리밥 해서 먹고 그저 그 메밀 같고, 그저 그런 거지, 이제 떡 하는 거고 뭇이고, 아까 그거 내가 가리킨 거, 그런 걸로만 떡 하고 하니까 이제보단 다른 건 별로 없어요.)

107002 #1 아이 제펜은 그 치는 거 잇잖아게. 시리.(아이 '제펜'은 그 찌는 거 잇잖아. 시루.)

107002 #2 시리, 그거 나 꼴앗수다. 아까.(시루, 그거 내가 말했습니다. 아까.)

107002 @1 음.(음.)

107002 #2 떡 허는 거.(떡 하는 거.)

107002 @2 꺼멍헌 그 저, 향아리 닭은 거예.(까만 그 저, 향아리 닭은 거요.)

107002 #2 예.(예.)

107002 #1 향아리 닭은 거.(향아리 닭은 거.)

107002 @2 밑에 고망 딸라정 영 헌 거.(밑에 구멍 뚫어져서 이렇게 한 거.)

107002 @1 보리쌀은 슬오리마썸? 슬오리?(보리쌀은 쌀보리요? 쌀보리?)

107002 #2 슬오리. 이 저, 맥주 보리도 갈아낫주마는 낸중에는 다 슬오리만 갑디다.(쌀보리. 이 저, 맥주보리도 갈았었지마는 나중에는 다 쌀보리만 갑디다.)

107002 @1 슬오리.(쌀보리.)

107002 #2 우리 옥은 후제는.(우리가 성장한 후에는.)

107003 @1 슬오리 일단 혼 번 솥양 놔똥당, 보리밥 허젠 허민.(쌀보리 일단 한 번 삶아서 놔똥다가, 보리밥 하려고 하면.)

107003 #2 아이, 솥양 놔똥당 안 헤영, 막바로 솥아근에 밥을 헤마썸.(아니, 삶아서 놔똥다가 앓고, 막바로 삶아서 밥을 해요.)

107003 @1 음.(음.)

107003 #2 뭐 솥양 놔똥당 허질 안허고.(뭐 삶아서 놔똥다가 하질 앓고.)

107003 @1 놔똥당 안 헤여마썸?(놔똥다가 안 해요?)

107003 #2 예, 안 헤여.(예, 안 해.)

107003 @1 바로 슬, 쌀 놔근에 물 낵 허민.(바로 쌀, 쌀 넣어서 물 넣어서 하면.)

107003 #2 예.(예.)

107003 @1 혼 번 끌러근에. 음.(한 번 끓여서. 음.)

107003 @2 좁쌀 낵 먹을 때는 언제 놓니까? 좁쌀은.(좁쌀 넣어서 먹을 때는 언제 놓니까? 좁쌀은.)

107003 #2 아이고, 요즘은 보리쌀이 이 저 고급으로 먹엄수게.(아이고, 요즘은 보리쌀이 이 저 고급으로 먹고 있습니다.)

107003 @1 음.(음.)

107003 #2 옛날은 거 보리밥을 그자 주로.(옛날은 거 보리밥을 그저 주로.)

107003 #1 그 보리밥 허여 가민 거 기준이 알아지주게. 보리쌀이 어느 정도 익어야. 좁쌀은 존존헌 거난.(그 보리밥 해 가면 거 기준을 알 수 있지. 보리쌀이 어느 정도 익어야. 좁쌀은 자잘한 거니까.)

107003 @2 예 예.(예 예.)

107003 #1 빨리 익고 허난, 그 위에 놓양 서경.(빨리 익고 하니까, 그 위에 놓고 섞어서.)

107003 @2 예 예.(예 예.)

107003 @1 음.(음.)

107003 @2 거의 다 익어 가민.(거의 다 익어 가면.)

107003 #1 다 보리쌀이 익어 가민.(다 보리쌀이 익어 가면.)

107003 #2 우린 보리쌀이 거저 익어근에 허민 좁쌀을 넣는 거.(우린 보리쌀이 거의 익어서 하면 좁쌀을 넣는 거.)

107004 @1 반지기밥은 잔치 때 해 먹어수과?('반지기밥'은 잔치 때 해 먹었습니까?)

107004 #2 반지기밥¹¹⁷⁾이엔 현 거는 그 잔치 때에는, 풋에 보리쌀에 서꺼근에 허영, 그건 반지기밥 허쟁 허민 곤쌀 씻어 낱 반 놓은 것이 반지기밥.('반지기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잔치 때에는, 팔에 보리쌀에 섞어서 해서, 그건 '반지기밥' 하려고 하면 흰쌀 씻어 놓고 반 놓은 것이 '반지기밥'.)

107004 #1 곤쌀 반.(흰쌀 반.)

107004 @1 보리쌀 반, 곤쌀 반.(보리쌀 반, 흰쌀 반.)

107004 #2 예.(예.)

107004 @1 경허여근에 풋.(그렇게 해서 팔.)

107004 #1 풋.(팔.)

107004 #2 풋도 농곡 허영.(팔도 넣고 해서.)

107004 @1 풋도 농곡 헤여근에.(팔도 넣고 해서.)

107004 #2 예. 옛날 잔치 때에도 보리쌀 반, 곤쌀 반 헤여근에 그냥 밥 허영 허민, 이거 그때, 이젠 사발을 계속 씻언에 식기를 씻엇주마는, 그때엔 어떻게 연산디 물이 었언 경 안 씻던가? 원래 원 그 밥을.(예. 옛날 잔치 때에도 보리쌀 반, 흰쌀 반 해서 그냥 밥 해서 하면, 이거 그때, 이젠 사발을 계속 씻어서 식기를 씻엇지마는, 그때엔 어떻게 했는지 물이 없어서 그렇게 안 씻던가? 원래 원 그 밥을.)

107004 #1 아이.(아이.)

107004 #2 그 사발 안 씻영. (웃음)(그 사발 안 씻고. (웃음))

107004 @2 음.(음.)

107004 #1 놈 먹어나민 또 거 그냥 거령 주곡.(남 먹고 나면 또 거 그냥 떠서 주고.)

117) '반지기밥'은 보리쌀과 쌀을 반씩 섞어서 지은 밥이다.

107004 @1 아, 그 우이.(아, 그 위에.)

107004 @2 그 밥은 어떤 식으로 밥을 지어수과?(그 밥은 어떤 식으로 밥을 지었습니까?)

107004 #2 밥은, 그건 저 널 잔치민 이제냐 밥부터 밥을 헤여근에.(밥은, 그건 저 내일 잔치면 이 저녁 밥부터 밥을 해서.)

107004 #1 멩텅이에 답아.(망태기에 답아.)

107004 #2 멩텅이나 그냥 항에나.(망태기나 그냥 항에나.)

107004 #1 이만이 큰 멩텅이에 밥을 퍼.(이만큼 큰 망태기에 밥을 퍼.)

107004 @1 음.(음.)

107004 #2 밥을 평 놔뒀당, 그 당일에 계속 밥을 허멍은 손님 오민 줍주기게.(밥을 퍼서 놔뒀다가, 그 당일에 계속 밥을 하면서 손님 오면 주지요.)

107004 @2 음.(음.)

107004 #2 이제 보리밥 틸 재와사 먹곡 허난.(이제 보리밥 틸 들여야 먹고 하니까.)

107004 @1 음.(음.)

107004 @2 게난 그 쓸 놓는 순서가 어떻 돼, ***(그러니까 그 쌀 넣는 순서가 어떻게 돼, ***)

107004 #2 쓸 삶는 순서는 아까 근듯이 보리쌀부터 몬여 삶다근에.(쌀 삶는 순서는 아까 말했듯이 보리쌀부터 먼저 삶다가.)

107004 @2 삶당.(삶다가.)

107004 #2 이젠 말찌에 보리쌀이 거저 익어감다 허면은 곤쌀 낱 밥을 허는 거라.(이젠 말찌에 보리쌀이 거의 익어간다 허면은 흰쌀 넣고 밥을 하는 거라.)

107004 @2 음.(음.)

107004 #2 경헤여근에 이제 그 밥을 틸재왕 놔당.(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밥을 틸 들여 놔다가.)

107004 @1 쫓은 언제, 언제 놓고.(팔은 언제, 언제 넣고.)

107004 #2 쫓은 보리쌀에 혼디 놓곡게.(팔은 보리쌀에 함께 넣고.)

107004 @1 혼디.(함께)

107004 #2 예, 보리쌀이영 혼디 놔.(예, 보리쌀과 함께 놔.)

107004 @2 경헝 틸 재와당 그걸.(그래서 틸 들였다가 그걸.)

107004 #2 밥을 경허난.(밥을 그렇게 하니까.)

107004 @2 평.(퍼서)

107004 #2 밤새나 허영 평 놔뒀당.(밤새나 해서 퍼서 놔뒀다가.)

107004 @2 음.(음.)

107004 #2 뒫날은 헤원 그 밥을 거리멍 그 손님을 험디다게.(뒫날은 '헤원' 그 밥을 뜨면서 그 손님을 합디다.)

107004 @2 손님 접대를예.(손님 접대를요.)

107004 #2 예. 아이고, 옛날은 돼지 혼 머리 잡앙 잔치 혼 번, 잔치 혼 번 허곡 허난 소상, 대상도 다 또 돼지 혼 머리 잡앙은에 허곡 허난 무슨.(예. 아이고, 옛날은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 한 번, 잔치 한 번 하고 하니까 소상, 대상도 다 또 돼지 한 마리 잡아서 하고 하니까 무슨.)

107004 #1 막 어려왔주. 고기가.(막 어려웠지. 고기가.)

107004 #2 고기 석 점 주민 뉘. (웃음)(고기 석 점 주민 뉘. (웃음))

107004 #1 그렇게 고기 맛있어. (웃음)(그렇게 고기 맛있어. (웃음))

107004 #2 고기 남기는 사람도 엇곡.(고기 남기는 사람도 없고.)

107004 #1 돼지 돛통에 질루와났주게. 질루와나. 그 돈으로. 그 돈으로.(돼지 돼지우리에서 길렀었지. 길렀었어. 그 돈으로. 그 돈으로.)

107004 @2 그 혼 칭짜리 허면, 게 그.(그 백 근짜리 하면, 거 그.)

107004 #1 으, 최고로 좋은 그, 뜻이지. 혼 칭짜리.(으, 최고로 좋은 그, 돼지이지. 백 근짜리.)

107004 #2 거난 혼 칭짜리 돛 질루는 사람이 벨로 엇어났수다게. (웃음)(그러니까 백 근짜리 돼지 기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웃음))

107005 @1 흰밥은, 흰밥이 곧밥이지양? 그, 특별히 그자 그, 제사.(흰밥은, 흰밥이 ‘곧밥’이지요? 그, 특별히 그저 그, 제사.)

107005 #2 예 예.(예 예.)

107005 @1 명절, 뭐 어, 또 다른 때 특별히.(명절, 뭐 어, 또 다른 때 특별히.)

107005 #2 아이, 다른 때 특별한 것도 엇곡. 겨난 그자, 주로 그자 보리밥 헤영 먹곡.(아이, 다른 때 특별한 것도 없고. 그러니 그저, 주로 그저 보리밥 해서 먹고.)

107005 @1 음.(음.)

107005 #2 곧밥 허는 건, 그거 식게 멧질 때나 옛날은 행 먹어나난.(흰밥 하는 건, 그거 제사 명절 때나 옛날은 해서 먹었었으니.)

107005 @1 음.(음.)

107005 #2 특별헌 건 엇어마썸.(특별한 건 없어요.)

107005 @1 음.(음.)

107005 @2 게 명절은 너 번.(그럼, 명절은 네 번.)

107005 #2 우리 멧질은 너 번 해났수다.(우리 명절은 네 번 했었습니다.)

107005 @2 예.(예.)

107005 #2 우리 친정에선. 한식허곡 오월 단오허곡.(우리 친정에선. 한식하고 오월단오하고.)

107005 @2 오월 단오허곡.(오월 단오하고.)

107005 #2 팔월 추석허곡 춤, 정월 멧질.(팔월 추석하고 참, 정월 명절.)

107005 @2 팔월 멧질허고.(팔월 명절하고.)

107005 #1 한식은.(한식은.)

107005 #2 단오 멧질허곡.(단오 명절하고.)

107005 #1 그건 허는 디가.(그건 하는 데가.)

107005 #2 춤, 한식 멩질.(춤, 한식 명절.)

107005 #1 드물곡.(드물고.)

107005 @2 드물고.(드물고.)

107005 #1 특별한 집이나 한식 허주.(특별한 집이나 한식 하지.)

107005 @1 예.(예.)

107005 #1 경 안 허민 단오허곡 세 번 멩질허고. 정월 멩질허곡 세 번. 한식 허는 디는 드물어났어.(그러지 않으면 단오하고 세 번 명절하고. 정월 명절하고 세 번. 한식 하는 데는 드물었어.)

107006 @1 조밥은 따로 해 먹어 봅디가?(조밥은 따로 해 먹어 보셨습니까?)

107006 #2 예계.(예.)

107006 @1 보리쌀 안 놔근에.(보리쌀 안 넣고.)

107006 #2 경허난 무슨건가 옛날은 어떻헨산디 우리 친정에서는 한식 똑 허곡, 오월 단오도, 오월 단오 이, 우리 이, 시집완에 현 후제도 오월 단오 설르건 디가 오십이 년이우다 딱. 양, 우리 ○○ 난 때가 오월 단오 현 번 혜수계.(그러니까 무엇인가 옛날은 어떻게 했던지 우리 친정에서는 한식 꼭 하고, 오월 단오도, 오월 단오 이, 우리 이, 시집와서 한 후에도 오월 단오 그만둔 지가 오십이 년입니다 딱. 예, 우리 ○○ 난 때가 오월 단오 한 번 했습니다.)

107006 #1 오월 단오가.(오월 단오가.)

107006 #2 그때에 난 딱 설럿주계. 경허난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쉰들이난. 딱 오십이 년 돼수다. 단오 혜나간 디가.(그때에 난 딱 그만두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쉰들이니까. 딱 오십이 년 되었습니다. 단오 했었던 지가.)

107006 @1 아, 그때에 혜났구나양?(아, 그때에 했었군요?)

107006 #2 예.(예.)

107006 @2 그 후로는 안 허고?(그 후로는 안 하고?)

107006 #2 그 후에는 안 허고.(그 후에는 안 하고.)

107006 @2 아.(아.)

107006 #2 경허난 팔월 추석허고 정월 멩질만 해.(그러니까 팔월 추석하고 정월 명절만 해.)

107006 #1 그, 동네가 딱 자연적으로 현 번에 딱 끝냈주계. 단오는.(그, 동네가 딱 자연적으로 한 번에 딱 끝냈지. 단오는.)

107006 @2 아, 우리도 옛날에 어틸 때만 혜났수다.(아, 우리도 옛날에 어틸 때만 했었습니다.)

107006 #1 단오 허는 집은, 현 이 동네 현 두어 집 셔났어. 이디 ○○ 하르방네 단오 혜나고. 어름비 ○○○네가.(단오 하는 집은, 한 이 동네 한 두어 집 있었어. 여기 ○○ 할아버지네 단오 했었고. ‘어름비’ ○○○네가.)

107006 @2 음.(음.)

107006 #1 단오 말짜엿ㄱ장 해나고.(단오 말짜까지 했었고.)
107006 @1 음.(음.)
107006 #1 거의 끊언. 끊자 허난 딱 끊언.(거의 끊었어. 끊자 하니까 딱 끊었어.)
107006 @1 음.(음.)
107006 #2 건디 이제도 무신건가 이디 양력 멩질 허단 이제도록 음력 멩질로 돌리건디 멩 년인가 웬.(그런데 이제도 무엇인가 여기 양력 멩절 하다가 이제도록 음력 멩절로 돌린 지 멩 년인가 됐어.)
107006 #1 아, 그건 전두환 대통령 때 돌렸덴.(아, 그건 전두환 대통령 때 돌렸다고.)
107006 @2 그게예.(그게요.)
107006 #1 천, 팔십 년도에.(천, 팔십 년도에.)
107006 @2 구십 년 초반에.(구십 년 초반에.)
107006 #1 예, 전두환 대통령 헌 때에 그 저 돌립디다게.(예, 전두환 대통령 한 때에 그 저 돌립디다.)
107006 @2 음. 게, 팔십 멩 년.(음. 게, 팔십 멩 년.)
107006 #1 그 나 *** 근무 해낫주게. 음력은.(그 나 *** 근무 했었지. 음력은.)
107006 @2 아, 예예.(아, 예예.)
107006 #1 근무허난 전두환 대통령이 나니까 걸 음력으로 돌리테.(근무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나니까 걸 음력으로 돌리테.)
107006 @2 음.(음.)
107006 #2 그때 돌려져신가?(그때 돌려졌는가?)
107006 #1 그때, 그때.(그때, 그때.)
107006 @2 게난 돌리렌 허지 안해도 분위기 상으로 이제 음력으로 허자.(그러니까 돌리라고 하지 않아도 분위기 상으로 이제 음력으로 하자.)
107006 #1 아니, 음력으로 옛날엔 음력으로 허단 왜정 때.(아니, 음력으로 옛날엔 음력으로 하다가 일제강점기 때.)
107006 @2 음.(음.)
107006 #1 일본놈덜이 그 음력을 막아 불엇주게. 양력으로만 다 쓰렌.(일본놈들이 그 음력을 막아 버렸지. 양력으로만 다 쓰라고.)
107006 @1 음.(음.)
107006 #1 게도 왜정 때도 음력으로 허는 집 가끔 셔났어. 그, 막아도. 어름비 ○○○네가 음력으로 해낫덴 말이 셔.(그래도 일제강점기 때도 음력으로 하는 집 가끔 있었어. 그, 막아도. ‘어름비’ ○○○네가 음력으로 했었다는 말이 있어.)
107007 @1 팥밥이엔 헌 거 따로 해 먹어납디가?(팥밥이라고 하는 거 따로 해 먹었었습니까?)
107007 #2 팥밥은 따로 안 허곡게.(팥밥은 따로 안 하고.)
107007 #1 팥죽은 먹어.(팥죽은 먹어.)

107007 #2 풋.(팔.)
107007 @1 풋죽은 헤먹어도 풋밥은.(팔죽은 해 먹어도 팔밥은.)
107007 #2 풋죽은, 풋밥은 안 혀곡.(팔죽은, 팔밥은 안 하고.)
107007 @1 안 혀고.(안 하고.)
107007 #2 보리쌀에 풋 서경 혀는 거는 해도 풋밥만은 안 합니다.(보리쌀에 팔 섞어서 하는 거는 해도 팔밥만은 안 합니다.)
107008 @1 피밥 해 먹어 봐수과? 피밥?(피밥 해 먹어 봤습니까? 피밥?)
107008 #2 피밥도 우린 안 해 먹어 보고. 그런 것도 모릅니다.(피밥도 우린 안 해 먹어 보고. 그런 것도 모릅니다.)
107008 #1 피는 갈아 보질 안헐.(피는 갈아 보질 않았어.)
107008 @1 갈아 보질 안헐마썸?(갈아 보질 않았어요?)
107008 #2 예. 그런 거 해 보지 안헐수다.(예. 그런 거 해 보지 않았습디다.)
107009 @1 감저밥은 낫사 그 저.(고구마밥은 아까 그 저.)
107009 #2 예 예.(예 예.)
107009 #1 건 헤영 먹언.(그건 헤서 먹었어.)
107009 @1 보리쌀에.(보리쌀에.)
107009 #1 어릴 때.(어릴 때.)
107009 @1 서꺼근에양.(섞어서요.)
107009 #1 죽장 건, 어릴 때는, 쌀 엇일 때는 많이 먹었지. 주식으로.(줄곧 건, 어릴 때는, 쌀 없을 때는 많이 먹었지. 주식으로.)
107009 @1 음.(음.)
107009 #1 고구마. 주식으로 고구마를, 주식으로 먹언. 그 어려운 사름덜은 놈 고구마 파 간 후제도 그 밧디 강 이석 좃느라고, 또 막 파명 이석 좃어났어.(고구마. 주식으로 고구마를, 주식으로 먹었어. 그 어려운 사름들은 남 고구마 캐 간 후에도 그 밧에 가서 이삭 좃느라고, 또 막 파면서 이삭 주웠었어.)
107009 @2 음.(음.)
107009 #1 어려운 사름은. 놈 갈아 분 후에. 고구마 그르에.(어려운 사름은. 남 갈아 버린 후에. 고구마 그루에.)
107010 @1 밥에 늠뻘도 놈 봐수과? 늠뻘.(밥에 무도 넣어 봤습니까? 무.)
107010 #2 아니, 늠뻘, 우린 그런 거 놈 보지 안 헐수다.(아니, 무, 우린 그런 거 넣어 보지 않았습디다.)
107010 #1 아니.(아니.)
107010 #2 이제도 이, 자연에 사는 사름은 늠뻘 난, 썰어 썰어 난 밥도 혀곡 또 하간 거 험디다마는, 그 우린 그런 건 안 해 봐수다.(이제도 이, 자연에 사는 사름은 무 넣고, 썰어, 썰어 넣고 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거 험디다마는, 그 우린 그런 건 안 해 봤습디다.)
107010 @1 텔레비전에마썸?(텔레비전에요?)

107010 @2 (웃음).((웃음).)

107010 @1 자연, 자연인이다. (웃음) 아, 그디.(자연, 자연인이다. (웃음) 아, 거기.)

107010 #2 자연이다 허는 사름네 보민 무밥도 허곡, 이제 곤드레밥도 허곡.(자연이다 하는 사름네 보민 무밥도 하고, 이제 ‘곤드레밥’도 하고.)

107010 @2 곤드레밥도.(‘곤드레밥’도.)

107010 #2 이제 시래기밥도 허곡.(이제 ‘시래기밥’도 하고.)

107010 @1 허허.(허허.)

107010 #2 시래기밥도 허는, 저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난 험디다마는 원.(‘시래기밥’도 하는,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험디다마는 원.)

107011 @1 그 막 어려울 때 전에 보민 툇밥이엔 현 것도.(그 막 어려울 때 전에 보면 ‘툇밥’이라고 하는 것도.)

107011 #2 툇밥은 그 저 무슨 거, 툇 농곡 혜영 툇밥 허는 거.(‘툇밥’은 그 저 무슨 거, 툇 놓고 해서 ‘툇밥’ 하는 거.)

107011 @1 예. 해 먹어납디가?(예. 해 먹었었습니까?)

107011 #2 아니 그런 거.(아니 그런 거.)

107011 @2 음.(음.)

107011 #2 우린 저 바닷가 아니난, 우린 그런 거 안 험.(우린 저 바닷가 아니라서, 우린 그런 거 안 했어.)

107011 @1 친정에?(친정에?)

107011 #2 친정에도 안 해여. 친정이가 어림비라 노난. 더 안 쪽. (웃음)(친정에도 안 했어. 친정이가 ‘어림비’라 놓으니. 더 안 쪽. (웃음))

107011 #1 (웃음)(웃음)

107011 @2 더, 더 우쪽이, 더 웃터렌디.(더, 더 위쪽에, 더 위쪽인데.)

107011 #2 해변가에 허는 사람들이 허주.(해변가에 하는 사람들이 하지.)

107011 @2 허허.(허허.)

107011 #2 우린 어림비¹¹⁸⁾라 노난 더 안 험주. 툇밥 요새사 스뭇 무신건가, 쥬뭇 현 거를 툇밥이엔 험수게.(우린 ‘어림비’라 놓으니 더 안 했지. ‘툇밥’ 요새야 사뭇 무엇인가, 제일 뭇 한 거를 ‘툇밥’이라고 하고 있지요.)

107012 @1 게민 패밥도 안 해 먹어실 거고.(그러면 ‘패밥’도 안 해 먹었을 거고.)

107012 #2 예. 그것도 안 해.(예. 그것도 안 해.)

107012 @1 툇이나 패나 다 그.(툇이나 패나 다 그.)

107012 #2 아이고. 그런 것도 안 허곡.(아이고. 그런 것도 안 하고.)

107012 @1 다 바당에서 나는 거난.(다 바다에서 나는 거니까.)

107012 @2 바당에서 나는 거난.(바다에서 나는 거니까.)

118) ‘어림비’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이리의 옛이름이다.

107012 #2 주로 그자 이 보리쌀에 좁쌀 허는 밥만 행 먹고, 그자 이 춤, 쌀밥 먹음 시작허난 쌀밥만 먹으난 원, 그런 밥 저런 밥 안 해 먹어 봐수다.(주로 그자 이 보리쌀에 좁쌀 하는 밥만 해서 먹고, 그자 이 참, 쌀밥 먹음 시작하니 쌀밥만 먹으니 원, 그런 밥 저런 밥 안 해 먹어 봤습니다.)

107013 @1 국 해 먹어난 거 혼번 곁아 볍서, 국 어떤 국, 어떤 국 이수과?(국 해 먹었던 거 한번 말해 보십시오, 국 어떤 국, 어떤 국 있습니까?)

107013 #2 아, 국 허영 먹는 건, 기자 무 썰어 낱 국 행 먹는 것도 싯곡, 그자.(아, 국 해서 먹는 건, 그냥 무 썰어 놓고 국 해서 먹는 것도 있고, 그자.)

107013 #1 콩국.(콩국.)

107013 #2 콩국덜 끌렁 먹곡.(콩국들 끌려 먹고.)

107013 @1 콩국.(콩국.)

107013 #1 뭍국¹¹⁹.(모자반국.)

107013 @1 뭍국.(모자반국.)

107013 #1 메역국.(미역국.)

107013 @1 메역국.(미역국.)

107013 #1 콩나물국도 싯고.(콩나물국도 있고.)

107013 @1 어, 콩나물국.(어, 콩나물국.)

107013 #2 아이, 요새사 다 메역국, 콩나물국 다 먹, 먹으난. 성계국.(아이, 요새야 다 미역국, 콩나물국 다 먹, 먹으니까. 성계국.)

107013 #1 나는 저 콩국을 제일 많이 먹었주게. 저 사름덜 일 빌영 헐 때에는.(나는 저 콩국을 제일 많이 먹었지. 저 사람들 일 빌려 할 때에는.)

107013 @1 예.(예.)

107013 #1 콩국.(콩국.)

107013 @1 호박잎 낱도 먹읍디가?(호박잎 낱고도 먹었습니까?)

107013 #1 아이, 건 맛있고.(아이, 건 맛있고.)

107013 #2 예, 호박잎은 맛 싯 겨우께.(예, 호박잎은 맛있는 겁니다.)

107018 @1 호박잎국 헐 땐 무싯 거, 무싯 거 봐수과?(호박잎국 할 땐 무슨 거 무슨 거 넣었습니까?)

107018 #2 아이고, 그 호박잎국엔 뭐 이 저, 밀²를 놓으나 경 안 허민 메밀²를 놓으나 해도 호박잎국은 맛 줍니다게.(아이고, 그 호박잎국엔 뭐 이 저, 밀가루를 놓으나 그러지 않으면 메밀가루를 놓으나 해도 호박잎국은 맛 좋습니다.)

107019 @1 음. 도새기국도.(음. 돼지국도.)

107019 #2 도새기 국이엔 헐, 건 돼지 삶아난 국이 도새기 국. 돼지 삶아난.(돼지 국'이라 하는 건, 돼지 삶았던 국이 돼지 국. 돼지 삶았던.)

107019 @1 도새기 삶아난 디 무시 거, 무시 거 봐근에.(돼지 삶았던 데 무엇, 무엇 넣어서.)

119) '뭍국'은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넣어 끓인 국이다. 달리 '뭍국'이라고 한다.

107019 #2 그것에는 몸을 빨아 놓으나 경 안 허민 저 뭐, 무나 경 안 허민 저 뭐, 배추나 그런 거 놓읍시다게.(그것에는 모자반을 빨아서 넣으나 그러지 않으면 저 뭐, 무나 그러지 않으면 저 뭐, 배추나 그런 거 넣습니다.)

107019 #1 몸 빨아 넣어. 몸.(모자반 빨아서 넣어. 모자반.)

107019 #2 몸, 몸이엔 현 거는.(모자반, 모자반이라고 하는 거는.)

107019 #1 도새기 삶아난 거에는 몸허고 궁합이 맞아 가지고 맛있어. 몸국이라고. 거 돼지 삶아난 물엔 꼭 그걸 넣어.(돼지 삶았던 거에는 모자반하고 궁합이 맞아서 맛있어. ‘몸국’이라고. 거 돼지 삶았던 물엔 꼭 그걸 넣어.)

107019 @1 예.(예.)

107019 #1 대스 때.(대사 때.)

107019 @1 거기 저 배추 퍼데기.(거기 저 배추 ‘퍼데기’.)

107019 #2 예 예, 배추.(예 예, 배추.)

107019 #1 것도 넣고.(것도 넣고.)

107019 @1 넣고양.(넣고요.)

107019 #2 예.(예.)

107019 @1 배추 퍼데기 해근에 그된 된장 뇌근에 국 끌렁 먹읍디가? 아니민 간장 낱?(배추 퍼데기 해서 거기엔 된장 넣어서 국 끓여 먹었습니까? 아니면 간장 넣어서?)

107019 #2 아이, 저 배추 퍼데기¹²⁰, 배춧국은 그자 된장도 낱 끌렁 떡국, 아무 거라도 그거 낱 궁합 맞는 거.(아이, 저 배추 ‘퍼데기’, 배춧국은 그저 된장도 넣어서 끓여 먹고 아무 거라도 그거 넣어서 궁합 맞는 거.)

107022 @1 그거 삶아근에 여름에 시원하게 무시겨 냉국 해 먹어 보디가?(그거 삶아서 여름에 시원하게 뭐 냉국 해 먹어 보셨습니까?)

107022 #2 아이, 요새엔 냉국 행 먹는 건게 오이도 나곡계, 하근 거 요즘사 무사 오죽 하영 남수과계. 겐디 옛날은 경 뭐 냉국 허영 먹는 거는 저, 참, 갯사 말적 아니라도 툄이나 어디 참, 시장이나 가지민 사당 냉국 헤영 먹어근에.(아이, 요새엔 냉국 해서 먹는 건 오이도 나고, 여러 가지 요즘에야 왜 오죽 많이 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은 그렇게 뭐 냉국 해서 먹는 거는 저, 참, 아까 말따나 툄이나 어디 참, 시장에나 가지면 사다가 냉국 해서 먹고.)

107022 @1 아, 툄냉국은.(아, 툄냉국은.)

107022 #2 예, 툄냉국이 좋읍니다게. 으름에.(예, 툄냉국이 좋습니다. 여름에.)

107022 @1 그때 된장, 된장 풀어 놓곡.(그때 된장, 된장 풀어 넣고.)

107022 #2 예. 으름엔 툄냉국이 최고. 이 촌에서도 옛날에 이 저 뭐, 웨엔 현 거, 그 저 물웨, 참웨 경허듯이.(예. 여름엔 툄냉국이 최고. 이 시골에서도 옛날에 이 저 뭐, 외라고 하는 거, 그 저 물외, 참외 그렇게 하듯이.)

107022 @1 음.(음.)

120) ‘퍼데기’는 속이 없는 배추이다.

107022 #2 이 그때엔 웨 싱거근에 으름에 참 잘도 웬장국, 기냥 그 냉국 허연 먹읍디다게.(이 그때엔 오이 심어서 여름에 참 잘도 된장국, 그냥 그 냉국 해서 먹읍디다.)

107022 @1 음.(음.)

107022 #1 이, 우리 집인 막걸리, 청주 돕는 거.(이, 우리 집엔 막걸리, 청주 담그는 거.)

107022 @1 하.(하.)

107022 #1 만드는 거는 일등.(만드는 거는 일등.)

107022 #2 예, 그거 무슨.(예, 그거 무슨.)

107022 @2 (웃음).((웃음).)

107022 #1 최고 좋덴 해. 우리집 막걸리가.(최고 좋다고 해. 우리 집 막걸리가.)

107015 @1 낫사 삼춘 콩나물국 끓안게 콩나물국은 언제 영.(아까 삼춘 콩나물국 말하던데 콩나물국은 언제 이렇게.)

107015 #2 콩나물국이사게 아무 때나 끌렁 먹어도, 콩나물국이사 그거 웬장 농곡 끌렁 먹으나 간장을 낱 끌렁 먹으나 마찬가지로.(콩나물국이야 아무 때나 끓여 먹어도, 콩나물국이야 그거 된장 넣고 끓여 먹으나 간장을 넣어 끓여 먹으나 마찬가지.)

107015 #1 집이서.(집에서.)

107015 #2 옛날엔 집이서만 다 그 콩나물 낱 해 먹어났수다.(옛날엔 집에서만 다 그 콩나물 놓아서 해 먹었었습니다.)

107015 @1 예. 콩나물 냉국도 해 먹어 보고마씀?(예. 콩나물 냉국도 해 먹어 보고요?)

107015 #2 콩나물 냉국을 행 먹던지 윈 아무 걸 허던지 옛날엔 그자 그 참 무, 웨여, 오이여 그런 것이 저, 집이 심어근에 으름에 냉국 헨 먹어났수다.(콩나물 냉국을 해서 먹던지 윈 아무 걸 허던지 옛날엔 그자 그 참 무, 오이다, 오이다 그런 것이 저, 집에 심어서 여름에 냉국 해서 먹었습니다.)

107016 @1 늣삐 썰어 낱 헨 땀 무시거 또 그찌 낱 해 먹었수가?(무 썰어 낱 할 땀 무엇 또 같이 넣어서 해 먹었습니까?)

107016 #2 늣삐 썰어 놓은 건 게, 다 아무 제라도 그자 그 뭉 그냥 무쳐 먹으나 윈, 국을 끌려 먹으나 뭉 늣삐, 무는 마찬가지. 옛날이나 이제나.(무 썰어 놓은 건 게, 다 아무 때라도 그자 그 뭉, 그냥 무쳐 먹으나 윈, 국을 끓여 먹으나 뭉 무, 무는 마찬가지. 옛날이나 이제나.)

107020 @1 그 솔레기¹²¹⁾, 솔라니 저 생선.(그 ‘솔레기’, ‘솔라니’ 저 옥돔.)

107020 #2 예.(예.)

107020 @1 해 낱 끌릴 땀 주로 무시거 그디 옆이 놔근에.(해 넣고 끓일 땀 주로 무엇 거기 옆에 넣어서.)

121) ‘솔레기’는 옥돔을 말하면, 달리 ‘오토미. 솔라니, 솔내기, 생선’이라고 한다.

107020 #2 아이, 저 이 생선국 끌리는 건, 무 넣 끌리는 게 질 그것에 궁합이우
다게.(아이, 저 이 옥돔국 끓이는 건, 무 넣어서 끓이는 게 제일 그것에 궁합입니
다.)

107020 @1 무.(무.)

107020 #2 예. 무나 경 안 허민 미역이나.(예. 무나 그러지 않으면 미역이나.)

107020 @2 음.(음.)

107020 @1 미역이나예.(미역이나요.)

107020 #2 예. 미역이나 거 무나 그거 이, 생선, 바닷고기 국 끌리는 건 그것이
제라허게 궁합이라마썸. 딴 건.(예. 미역이나 거 무나 그거 이, 생선, 바닷고기 국
끓이는 건 그것이 딱 궁합입니다. 딴 건.)

107020 @1 요새 갈치 하영 남신디. 갈치 혈 때는.(요새 갈치 많이 나고 있는데.
갈치 할 때는.)

107020 #2 갈치도게 마찬가지로 무, 이제 조리엔 현, 그 갈치는 국 끌리는 때에
는 저, 이제나 저제나 호박 넣 끌리민 으름에는 좋은 거마썸.(갈치도 마찬가지로
무, 이제 조리엔 한, 그 갈치는 국 끓이는 때에는 저, 이제나 저제나 호박 넣고 끓
이면 으름에는 좋은 거예요.)

107020 @1 호박.(호박.)

107020 #2 호박, 호박 신 때에.(호박, 호박 있을 때에.)

107020 @1 아아.(아아.)

107020 #2 호박 넣 끌리민 그것이 갈치국에 쥘, 제라허게, 질 맛있곡.(호박 넣고
끓이면 그것이 갈치국에 제일, 맞게, 제일 맛있고.)

107020 @1 음.(음.)

107020 #2 그냥 생선이나 그냥 성, 요즘은 아무거라도 싱싱헌 건 생성이엿 허지
안헙니까?(그냥 생선이나 그냥 성, 요즘은 아무거라도 싱싱한 건 ‘생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7020 @2 음.(음.)

107020 @1 맞수다.(맞습니다.)

107020 @2 생선국은 계난 어느 때나 생선국을 먹어수과?(옥돔국은 그러니까 어
느 때나 옥돔국을 먹었습니까?)

107020 #2 아, 생선국은 식게 멩질 때나 옛날은 생선국 먹어났주.(아, 생선국은
제사 멩절 때나 옛날은 옥돔국 먹었었지.)

107020 @2 거 누구 생일 때도.(거 누구 생일 때도.)

107020 #2 생일 때도 국, 그런 거 허연 먹어나고. 견디 옛날은, 우리 어릴 때에
는 생일이 뒗산디 것도 모르고.(생일 때도 국, 그런 거 해서 먹었었고. 그런데 옛날
은, 우리 어릴 때에는 생일이 무엇인지 것도 모르고.)

107020 @1 식게 멩질 때 생선국 보통 헛지양?(제사 멩절 생선국 보통 헛지요?)

107020 #2 예예. 옛날은 생선국.(예예. 옛날은 생선국.)

107020 #1 생선국.(생선국.)
107020 @1 거기에 눅빼 낱앙.(거기에 무 넣고요.)
107020 #2 예 예. 눅빼 썰어 낱.(예 예. 무 썰어 넣고.)
107020 @1 음.(음.)
107020 #2 경 한 허민 눅빼 엇인 때는 미역 농곡.(그러지 않으면 무 없을 때는 미역 넣고.)
107017 @1 미역 농곡. 콩국은 어떤 식으로 끌렁 먹읍디가?(미역 넣고. 콩국은 어떤 식으로 끓여 먹었나요?)
107017 #2 콩국은 뭐 가를 놔근에, 저 그냥 물 끓으건 낱은에, 저 뭐 배추 농곡 콩가를 넣곡 허영 끌리면은, 소금 농곡 행 끌리면은 뉘는 거고 그건.(콩국은 뭐 가루 넣어서, 저 그냥 물 끓으면 넣어서, 저 뭐 배추 넣고 콩가루 넣고 해서 끓이면은, 소금 넣고 해서 끓이면은 되는 거고 그건.)
107017 @1 음. 막 오래.(음. 막 오래.)
107017 #2 아이, 오래말명 그거 그자 입에 맞게 적당히 익으면 먹는 거우다 게.(아니, 오래말명 그거 그자 입에 맞게 적당히 익으면 먹는 겁니다.)
107017 @1 음.(음.)
107017 #1 거 콩국은 부끄는 때문에 솟뚜껑이 올라야.(거 콩국은 끓어 넘치는 때문에 솟뚜껑 열어야.)
107017 #2 흥.(웃음)(흥.(웃음))
107017 #1 콩가루가 부껴 불어.(콩가루가 끓어 넘쳐 버려.)
107017 @1 부껴 불영양.(끓어 넘쳐 버려요.)
107017 #1 더끄민.(덜으면.)
107017 @1 음. 자꾸 열앙.(음. 자꾸 열어서.)
107017 #1 열앙.(열어서.)
107017 @1 젓어 주곡. 아래 눌러붙지 안합니까?(저어 주고. 아래 눌러붙지 않습니까?)
107017 #2 예.(예.)
107017 #1 옛날에 저 이거 다 초집이라났주게.(옛날에 저 이거 다 초가집이었었지.)
107017 @1 예.(예.)
107017 #1 경행 집집마다 수눌어 가지고 일 년에 한 번씩 집을 일어. 혼 열 명, 열댓 명이 와 혼 집이.(그래서 집집마다 수눌어 가지고 일 년에 한 번씩 집을 이어. 한 열 명, 열댓 명이 와 한 집에.)
107017 @1 예.(예.)
107017 #1 케민 주로 먹는 게 그 콩국을 끌렁 쥐. 그때 손님덜신디.(그러면 주로 먹는 게 그 콩국을 끓여서 쥐. 그때 손님들한테.)
107017 @1 집 이는 날?(지붕 이는 날?)

107017 #1 예, 집 이는 날.(예, 지붕 이는 날.)
 107017 #2 줄 놓곡.(줄 놓고.)
 107017 #1 저.(저.)
 107017 #2 이제 집 일곡 허민.(이제 지붕 이고 하면.)
 107017 #1 저 반지기밥 허곡.(저 ‘반지기밥’ 하고.)
 107017 @1 예.(예.)
 107017 #1 꼭 그처럼 허영 담배 혼 갑씩 테우곡.(꼭 것처럼 해서 담배 한 갑씩 테우고.)
 107017 @1 그때 콩국을 해 먹고.(그때 콩국을 해 먹고.)
 107017 #1 콩국을 그때 꼭 허고.(콩국을 그때 꼭 하고.)
 107019 @1 몬국은 이제 저.(모자반국은 이제 저.)
 107019 #2 돼지 잡은 때나 몬국 끝립니다.(돼지 잡은 때나 모자반국 끝입니다.)
 107019 @1 돼지 잡을 때.(돼지 잡을 때.)
 107019 #1 돼지 잡은 때는 꼭 몬국을. 몬허고 돼지 그 국물허고 궁합이 맞는 모양이라.(돼지 잡은 때는 꼭 ‘몬국’을. 모자반하고 돼지 그 국물하고 궁합이 맞는 모양이라.)
 107019 @1 맞아양. 음. 몬만 놔수과? 무시 거 또 ㄴ짜.(맞아요. 음. 모자반만 넣었습니까? 무엇 또 같이.)
 107019 #2 아이. 몬을 놓으나 배추도 놓으나 거 거 혼디 ㄴ물도 놔마썸. 배추도.(아이. 모자반을 놓으나 배추도 놓으나 거, 거 함께 나물도 넣어요. 배추도.)
 107019 @1 배추도 ㅎ끔씩 놓지양?(배추도 조금씩 놓지요?)
 107019 #2 예.(예.)
 107021 @1 메역국도 생선이나, 생선 말고 메역국 헐 때 무시거 다른 건.(미역국도 생선이나, 생선 말고 미역국 할 때 뭐 다른 건.)
 107021 #2 아이, 아이.(아니, 아니.)
 107021 @1 다른 건.(다른 건.)
 107021 #2 다른 건 아니. 그 저 무슨 갈치조림 헐 때나 갈치 끌릴 때는 그자 저, 호박 놓곡, 호박국 끌리곡, 경허곡, 그제 질 좋은 겨우다.(다른 건 아니. 그 저 무슨 갈치조림 할 때나 갈치 끌릴 때는 그저 저, 호박 넣고, 호박국 끓이고, 그렇게 하고, 그제 제일 좋은 겁니다.)
 107021 @1 음.(음.)
 107021 @2 메역국은 메역만 낱 끌려수과?(미역국은 미역만 넣고 끓였습니까?)
 107021 #2 아니, 메역국은 아무거라도 뭐 바닷고기 낱 끌리나 뭐 헤여야주.(아니, 미역국은 아무거라도 뭐 바닷고기 넣어서 끓이나 뭐 해야지.)
 107021 @1 음.(음.)
 107021 #2 요새엔 뭐 메르치 다시다 잇곡 뭐 소고기 다시다도 잇고 허난, 그냥 고기 안 놔도 그자 미역국 끌릴 때엔 그, 다시다 낱 끌려도 좋아마썸. 저 웬장이나

경 안 허민 그냥 간장이나 낱 끌리는 것도.(요새엔 뭐 멸치 다시다 있고 뭐 소고기 다시다도 있고 하니까, 그냥 고기 안 넣어도 그저 미역국 끓일 때엔 그, 다시다 넣어서 끓여도 좋아요. 저 된장이나 그러지 않으면 그냥 간장이나 넣어서 끓이는 것도.)

107022 @1 냉국, 낫사 무신 냉국 무신 냉국 해 먹읍디가?(냉국, 아까 무슨 냉국, 무슨 냉국 해 먹었습니까?)

107022 #2 아이, 그 아까 춤 무슨건가, 툇국도 냉국은.(아이, 그 아까 참 무엇인가, 툇국도 냉국은.)

107022 @1 냉국.(냉국.)

107022 #2 그것도 으름에 좋곡.(그것도 여름에 좋고.)

107022 @1 음.(음.)

107022 #2 이 저, 무슨건가.(이 저, 무엇인가.)

107022 @1 물웨.(물외.)

107022 #2 미역 춤 저 뭐엿 허느니? 전이 옛날에는 웨, 웨 해낫수다마는.(미역, 참 저 뭐라고 하는가? 전에 옛날에는 외, 외 했었습니다마는.)

107022 #1 물웨. 물웨.(물외. 물외.)

107022 #2 요새 다 오이.(요새 다 오이.)

107022 @1 물웨.(물외.)

107022 #2 예, 물웨.(예, 물외.)

107022 @1 물웨 해여근에 허고. 그 다음에.(물외 해서 하고. 그 다음에.)

107022 #2 그, 으름에 냉국은 그거, 그거 주로 거, 그거벧기 안 험니다게. 뭐 할 게 엿어마썸.(그, 여름에 냉국은 그거, 그거 주로 거, 그거밖에 안 합니다. 뭐 할 게 없어요.)

107022 #1 오이는 이제사 나고. 옛날엔 웨만 나났어. 웨만. 웨라고 물웨라고, 춤 웨 말고.(오이는 이제야 나고. 옛날엔 외만 났었어. 외만. 외라고 물외라고, 참외 말고.)

107023 @1 음. 계난 이젠 여기도 웃드르엔 해도 무신 다 해변이나 마찬가지난 시장에만 가민 사올 거난에. 성계국도 해 먹엄실 거고.(음. 그러니까 이젠 여기도 ‘웃드르’라고 해도 무슨 다 해변이나 마찬가지니까 시장에만 가면 사 올 거니까. ‘성계국’도 해 먹고 있을 거고.)

107023 #2 예. 성계국도 행 먹어수다.(예. 성계국도 해서 먹었습니다.)

107023 @1 끌려 먹어봄디가?(끓여 먹어보셨습니까?)

107023 #2 성계, 성계국은 원, 그거 미역 낱 끌려사 더 맛이 좋아마썸.(성계, 성계국은 원, 그거 미역 넣어서 끓여야 더 맛이 좋아요.)

107023 @1 메역 낱 끌리고. 보말국은?(미역 넣어서 끓이고. ‘보말국’은?)

107023 #2 보말국도 이턴 이제, 옛날은 보말도 이 바다에 잡으레 텅겨낫수다마는 이젠 바다 딱 금지허난, 이 요 우영 웃드르 사름덜은 그런 거 안 해마썸.(보말국

도 여긴 이제, 옛날은 ‘보말’도 이 바다에 잡으러 다녀있었습니다마는 이젠 바다 딱 금지하니까, 이 요 위 ‘웃드르’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107023 @1 아.(아.)

107023 #2 바닷가 사는 사람이나 아니민.(바닷가에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107023 @1 물회 먹구쟁 허민 어떻 해납디가? 물회.(물회 먹고 싶으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물회.)

107023 #2 물, 물웨마씨?(물, 물외요?)

107023 @1 물회, 회.(물회, 회.)

107023 #2 물회. 그냥 저 자리회 ㄱ든 거 허는 거는, 그 무슨건가 오이 썰어 농곡 게 찰, 허영, 웬장 농곡 허영, 저 식초 농곡 허영 물회 허영 먹는 거난.(물회. 그냥 저 자리회 같은 거 하는 거는, 그 무엇인가 오이 썰어 넣고 거 찰, 해서, 된장 넣고 해서, 저 식초 넣고 해서 물회 해서 먹는 거니까.)

107023 @1 경 해연에 우리 삼촌 물회 집어서 먹어 봅디가?(그렇게 해서 우리 삼촌 물회 집에서 먹어 보셨습니까?)

107023 #1 나 자주. 자리회 좋주.(나 자주. 자리회 좋지.)

107023 @1 자리물회.(자리물회.)

107023 #1 예, 자리물회.(예, 자리물회.)

107023 @1 자리물회양. 다른 건.(자리물회요. 다른 건.)

107023 #1 저 오이 물웨, 물웨.(저 오이 물외, 물외.)

107023 @1 예.(예.)

107023 #1 물웨 썰어 낱.(물외 썰어 넣고.)

107023 @1 물웨 썰어 농곡.(물외 썰어 넣고.)

107023 #1 으름에 주로 그거 목장에 갈 때도, 소 보러 갈 때도 또 웨 놓양 ㄱ정 강은에게. 이제 웨 싱거 거기.(으름에 주로 그거 목장에 갈 때도, 소 보러 갈 때도 또 외 넣어서 가지고 가서. 이제 외 심어 거기.)

107023 @2 음.(음.)

107023 #1 잘 올라. 이거 물웨가.(잘 열어. 이거 물외가.)

107023 @1 예.(예.)

107023 #1 지금도 물웨가 맛.(지금도 물외가 맛.)

107023 @1 예 예.(예 예.)

107023 #1 거 오이 중륵디 오이보단 더 좋아 맛이.(거 오이 중륵데 오이보다 더 좋아 맛이.)

107023 @1 음.(음.)

107023 @2 아, 물웨.(아, 물외.)

107023 #1 응, 물웨엔 현 거 잇어. 찰웨 물웨 그.(응, 물외라고 하는 거 잇어. 찰외 물외 그.)

107023 @2 계난 그.(그러니까 그.)

107023 #1 오이는 이제사 나고.(오이는 이제야 나고.)

107023 @2 물회엔 물웨만 놓는 게 아니고 자리도, 자리도 놓고마쌈?(물회엔 물웨만 놓는 게 아니고 자리도, 자리도 넣고요?)

107023 #1 자리도 놀 때 잇곡, 물웨 막 거 오이만, 물웨만 낡도 냉국 허영 먹곡.(자리도 넣을 때 잇고, 물외 막 거 오이만, 물외만 넣어서도 냉국 해서 먹고.)

107023 @2 음.(음.)

107023 @1 웨, 오이냉국.(외, 오이냉국.)

107023 @2 음.(음.)

107023 #2 예, 오이냉국.(예, 오이냉국.)

107023 @1 게 물회는 자리물회?(그럼 물회는 자리물회?)

107023 #1 자리물회.(자리물회.)

107023 @1 무시거 한치물회 이런 건 안 해 먹읍디가?(뭐 한치물회 이런 건 안 해 먹었습니까?)

107023 #1 한치물회 잇고. 저 옛날에는 저, 객주리엔 현 게 잇어. 객주리.(한치물회 없고. 저 옛날에는 저, 쥐치라고 하는 게 잇어. 쥐치.)

107023 @1 객주리.(쥐치.)

107023 @2 예, 예. 객주리.(예, 예. 쥐치.)

107023 #1 막 흔해낫어. 객주리.(막 흔했었어. 쥐치.)

107023 @2 음.(음.)

107023 #1 이제는 어려웁주마는.(이제는 어렵지마는.)

107023 @1 객주리.(쥐치.)

107023 #1 막 팔레 와 이 바다에서. 팔레 오민, 그거 가죽 잘 벗겨져.(막 팔러 와 이 바다에서. 팔러 오면, 그거 가죽 잘 벗겨져.)

107023 @1 예.(예.)

107023 #1 그거 참 맛있어. 물회 그거 흔 낭푼이 해 낡 거.(그거 참 맛있어. 물회 그거 한 양푼 해 놓고 거.)

107023 @1 아, 경혜근에 물회 해.(아, 그렇게 해서 물회 해.)

107023 #1 술안주로 그자 들영. 객주리.(술안주로 그자 들어. 쥐치.)

107023 @1 예 예.(예 예.)

107023 #2 겨난 이젠 저, 아멩해도 이턴 옷드리난, 한치회 ㄴ쁜 것사 아멩해도 저, 바닷가에 가사.(그러니까 이젠 저, 아무래도 여긴 ‘옷드르’니까, 한치회 같은 거야 아무래도 저, 바닷가에 가야.)

107023 @1 음.(음.)

107023 #1 오징어 그런 거는 당취.(오징어 그런 거는 당취.)

죽류

107024 @1 죽은, 무신 죽, 무신 죽 끌령 먹어 볍디가? ㄴ사 콩죽허고?(죽은, 무

순 죽, 무슨 죽 끓여 먹어 보셨습니까? 아까 콩죽하고?)

107024 #2 콩죽하고 팥죽.(콩죽하고 팥죽.)

107024 @1 팥죽.(팥죽.)

107024 #2 팥죽은 동짓날 팥죽 행 먹읍니까.(팥죽은 동짓날 팥죽 해서 먹습니다.)

107024 @1 동짓날 팥죽.(동짓날 팥죽.)

107024 #2 예.(예.)

107024 @1 그다음 콩죽.(그다음 콩죽.)

107024 #2 콩죽은 그자 아무 때나 우리 허영, 먹지기 좋은 때 허영 먹는 거.(콩죽은 그자 아무 때나 우리 해서, 먹기 좋은 때 해서 먹는 거.)

107024 @1 예.(예.)

107024 #2 콩 이 저, 가을 들어사 이, 콩은 새 콩 납니까. 경허난 가을 들영 허민, 저을에 그자 이 주로 콩 골아당 콩국 끌령 떡국, 콩죽 행 먹지기 댜면, 콩죽 행 떡국 경허지. 으름에는 더우니까 그런 콩죽은 안 합니다.(콩 이 저, 가을 들어야 이, 콩은 새 콩 납니다. 그러니까 가을 들어서 하면, 겨울에 그자 이 주로 콩 갈아다가 콩국 끓여서 먹고, 콩죽 해서 먹게 되면, 콩죽 해서 먹고 그렇게 하지. 여름에는 더우니까 그런 콩죽은 안 합니다.)

107024 @1 음. 불 때젠 허민 더웁.(음. 불 때려고 하면 더워서.)

107024 #2 예, 저을 때에 그자 콩국 끌령 떡국, 콩죽 기리우민 콩죽 썬영 떡국.(예, 겨울 때에 그자 콩국 끓여 먹고, 콩죽 그리우면 콩죽 썬어 먹고.)

107024 #1 저.(저.)

107024 #2 또 팥 삶양 팥죽도 행 떡국 그런 거지.(또 팥 삶아서 팥죽도 해 먹고 그런 거지.)

107024 #1 특별히 그때 유 갈아난. 유들을 많이 재배해서. 유, 유죽.(특별히 그때 들깨 갈았어. 들깨들을 많이 재배했어. 들깨, 들깨죽.)

107024 @1 유죽?(들깨죽?)

107024 #1 응, 유라고 거 요즘 뭐, 뭐라고 허냐면은.(응, 들깨라고 거 요즘 뭐, 뭐라고 하느냐면은.)

107024 #2 들깨, 들깨.(들깨, 들깨.)

107024 @1 들깨.(들깨.)

107024 #1 들깨, 들깨. 그걸, 기름이 막 많은 거여. 그 뺏으민.(들깨, 들깨. 그걸, 기름이 막 많은 거야. 그 뺏으면.)

107024 @1 예.(예.)

107024 #1 기름이 둥둥.(기름이 둥둥.)

107024 @2 음.(음.)

107024 #1 그거는 저디, 약헌 사름덜.(그거는 저기, 약한 사람들.)

107024 @1 게민 유죽.(그러면 들깨죽.)

107024 #2 아이 요즘도 이 저 마트에 그 저, 무슨 거, 들깨 가루.(아이 요즘도 이 저, 마트에 그 저, 무슨 거, 들깨 가루.)

107024 @1 예.(예.)

107024 #2 나오난, 그거 돈 주면 얼마든지 사당 먹으크랍디다게.(나오니까, 그거 돈 주면 얼마든지 사다가 먹을 수 있겠습디다.)

107024 @2 음.(음.)

107024 @1 케민 들깨ㄱ를 놓곡 그딤 또 무시걸 놓니까? 다른 거.(그러면 들깨 가루 넣고 거기 또 무엇을 넣습니까? 다른 거.)

107024 #1 쌀, 쌀.(쌀, 쌀.)

107024 @1 쌀.(쌀.)

107024 #2 쌀 놓지.(쌀 놓지.)

107024 @1 아, 쌀ㄱ루.(아, 쌀가루.)

107024 #2 쌀 놔근에.(쌀 넣어서.)

107024 #1 쌀 서끄면은 유죽이라고. 굉장히 맛있어.(쌀 섞으면 들깨죽이라고. 굉장히 맛있어.)

107024 @1 아, 쌀 서깁양.(아, 쌀 섞어서요.)

107024 #2 예. 쌀 서깁.(예, 쌀 섞어서.)

107024 @1 쌀 서깁, 유죽.(쌀 섞어서, 들깨죽.)

107024 #1 예. 그 ㄱ를 헤영.(예. 그 가루 해서.)

107025 @1 음. 기냥 곤죽은.(음. 그냥 흰죽은.)

107025 #2 기냥 곤쌀만 낱 죽 허는 것ㄱ라 곤죽이엔 험니다.(그냥 흰쌀만 넣고 죽 하는 것을 흰죽이라고 합니다.)

107025 @1 그, 그건 어, 어떤 때에.(그, 그건 어, 어떤 때에.)

107025 #2 흰죽이런 건 이녁 먹고픈 사름 먹을 거.(흰죽이라는 건 이녁 먹고픈 사람 먹을 거.)

107025 #1 줌 몸이 약헌 사름.(줌 몸이 약한 사람.)

107025 #2 아이, 아무 사름이라도.(아이, 아무 사람이라도.)

107025 #1 몸이 약헌 사름.(몸이 약한 사람.)

107025 @1 음.(음.)

107025 #1 환자.(환자.)

107025 @2 환자. (웃음)(환자. (웃음))

107025 @1 예, 그런 때에.(예, 그런 때에.)

107025 #1 그럴 때 흰죽.(그럴 때 흰죽.)

107025 #2 예, 그런 때에 흰죽.(예, 그런 때에 흰죽.)

107025 @2 입맛 엇어근에예.(입맛 없어서요.)

107025 #1 예.(예.)

107025 #2 곤쌀만 놔근에 죽 쑤영근에.(흰쌀만 넣어서 죽 쑤어서.)

107025 #1 저 뭐.(저 뭐.)

107025 #2 찹 먹 먹지 못하는 사름.(참 먹, 먹지 못하는 사람.)

107025 #1 흰죽.(흰죽.)

107025 #2 그럴 때 흰죽. 그런 것이 흰죽 헤어근에 험니다게.(그럴 때 흰죽. 그런 것이 흰죽 해서 합니다.)

107025 #1 게고, 게난 그거 흰죽허고 이 저, 생선고기 낳도 죽 허믄 맛있어.(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흰죽하고 이 저, 생선고기 넣어서도 죽 하면 맛있어.)

107025 @1 예, 예. 맞아.(예, 예. 맞아.)

107025 @2 곤죽에예. 곤죽에. 맞수다.(흰죽에요. 흰죽에. 맞습니다.)

107025 #1 생선고기죽도. 또 소고기죽도 있고.(생선고기죽도. 또 소고기죽도 있고.)

107025 @2 전복도 농곡예.(전복도 넣고요.)

107025 #2 전복죽도 해 먹고. 거 무슨 건, 허는, 저 이녁 먹고픈 때에, 그건 아무 제라도 먹는 거난.(전복죽도 해 먹고. 거 무슨 건, 하는, 저 이녁 먹고픈 때에, 그건 아무 때라도 먹는 거니까.)

107025 #1 지금 저 생선 고기, 이 생선 꿩기도 이 한림 쪽에 거라야 돼. 한림. 최고 한림.(지금 저 생선 고기, 이 생선 고기도 이 ‘한림’ 쪽에 거라야 돼. 한림. 최고 한림.)

107025 @2 예, 한림.(예, 한림.)

107025 #1 비양도¹²²⁾ 앞에.(‘비양도’ 앞에.)

107025 @2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7025 #1 맛있주게. 그되 거 사당, 한림 생선꿩기엿 허민 알아주주게. 죽 헤어 먹기.(맛있지. 거기 거 사다가, 한림 생선 고기라고 하면 유명하지. 죽 해서 먹기.)

107025 @1 특별히 그 저 물고기 바닷 꿩기 중에 요 죽 쓸 때 좋은 거, 뭐 뭐 이수과? 생선.(특별히 그 저 물고기 바닷고기 중에 요 죽 쓸 때 좋은 거, 뭐 뭐 있습니까? 생선.)

107025 #2 거는 생선.(거는 옥돔.)

107025 @1 생선?(옥돔?)

107025 #2 예.(예.)

107025 #1 생선이 일등.(옥돔이 일등.)

107025 #2 옥돔이엔 혼 것그라 생선이엔 험니께양?(옥돔이라고 하는 것을 생선이라고 하죠?)

107025 @1 생선.(생선.)

107025 #2 옥돔.(옥돔.)

107025 #1 그 저 생선 꿩기도 한림 비양도 앞바다의 거라야.(그 저 생선 고기도 한림 비양도 앞바다의 거라야.)

122) ‘비양도’는 제주시 한림읍 앞바다에 있는 섬이다.

107025 @1 음.(음.)

107025 #1 그 맛이 틀려.(그 맛이 달라.)

107025 @1 예.(예.)

107025 #1 귀덕까지. 그 귀덕 바다까지.(‘귀덕’까지. 그 ‘귀덕’ 바다까지.)

107026 @1 좁쌀로도 죽 해 먹어 보지 안했수과?(좁쌀로도 죽 해 먹어 보지 않았습니까?)

107026 #2 아, 그건 노란 좁쌀이엔 현 거, 그건 요 저 콩죽을, 옛날은 그 죽을 잘 쭈어 먹읍디다게.(아, 그건 노란 좁쌀이라고 하는 거, 그건 요 저 콩죽을, 옛날은 그 죽을 잘 쭈어 먹읍디다.)

107026 #1 주로 그거 먹었주. 콩죽. 좁쌀 농곡.(주로 그거 먹었지. 콩죽. 좁쌀 넣고.)

107026 @1 아.(아.)

107026 #1 주식을, 그자 저녁엔 콩죽, 콩죽. 아침엔 밥 먹곡.(주식을, 그자 저녁엔 콩죽, 콩죽. 아침엔 밥 먹고.)

107026 @1 좁쌀 놓아근에.(좁쌀 넣어서.)

107026 #1 콩ㄱ르 서깁.(콩가루 섞어서.)

107026 @1 콩ㄱ르 서깁.(콩가루 섞어서.)

107026 #1 죽 죽 끌렁.(죽 끓여서.)

107026 @1 아.(아.)

107026 #1 아이, 거 주식. 옛날엔 집집마다 거 저녁에 그거 먹어. 어려우니까. 아침은 밥 먹곡.(아이, 거 주식. 옛날엔 집집마다 거 저녁에 그거 먹어. 어려우니까. 아침은 밥 먹고.)

107026 #2 계난 콩죽에는.(그러니까 콩죽에는.)

107026 #1 저녁에는 콩죽 먹곡.(저녁에는 콩죽 먹고.)

107026 #2 늬뻬를 썰어 놓으나 경 안 허민 배추를 놓으나 경허민 좋읍디다.(무를 썰어 놓으나 그러지 않으면 배추를 놓으나 그러면 좋습디다.)

107026 @1 예.(예.)

107026 #2 무 썰어 낱 콩죽을 쭈던가, 또 배추 낱은에 죽을 쭈던가, 경 현게 맛이 있어마썸.(무 썰어 넣고 콩죽을 쭈든가, 또 배추 넣어서 죽을 쭈든가, 그렇게 한게 맛이 있어요.)

107027 @1 팯죽은, 동지 팯죽 쭈곡 헛덴 글안게 어떻 쭈니까? 팯죽은.(팥죽은, 동지 팥죽 쭈고 했다고 말하던데 어떻게 쭈니까? 팥죽은.)

107027 #2 팯 삶양은에.(팥 삶아서.)

107027 @1 팯.(팥.)

107027 #2 팯 삶양, 팯 막 익어사 저 무신건가, 이 쌀 씻어 낱, 곤쌀 씻어 낱 죽 쭈니다게.(팥 삶아서, 팥 막 익어야 저 무엇인가, 이 쌀 씻어 넣고, 흰쌀 씻어 넣고 죽 쭈니다.)

107027 #1 막 오래여 풋 삶는 기가.(막 오래 팔 삶는 것이.)
 107027 @1 풋 삶아 낱.(팔 삶아 놓고.)
 107027 #2 예.(예.)
 107027 @1 그 다음 곤살.(그 다음 흰쌀.)
 107027 #2 풋 익으면 곤살을 씻어 낱은에 죽 쑤는 거마씀.(팔 익으면 흰쌀을 씻어 넣고 죽 쑤는 거예요.)
 107027 @1 음.(음.)
 107027 #2 겨난 그것도, 죽 쑤는 것도 이 저 뭐, 사찰에 ㄱ쁜 되는 뭐 그 죽살로 무슨, 것ㄱ라 무슨 거?(그러니까 그것도, 죽 쑤는 것도 이 저 뭐, 사찰에 같은 데는 뭐 그 찹쌀로 무슨, 그것을 무슨 거?)
 107027 #1 동골락 떡.(동그란 떡.)
 107027 #2 그 새, 새알.(그 새, 새알심.)
 107027 @1 새알.(새알심.)
 107027 #2 새알, 새알이엔 허연 그거 저 뭐, 법당 ㄱ쁜 되 그런 거 동짓날에 허연 해도 이, 그냥 우리 가정집이선 쌀 씻어 낱 그자.(새알, 새알이라고 해서 그거 저 뭐, 법당 같은 데 그런 거 동짓날에 해서 해도 이, 그냥 우리 가정집에선 쌀 씻어 넣고 그냥.)
 107028 @2 음.(음.)
 107028 #2 풋 삶아 죽 쑤는 거우다게.(팔 삶아서 죽 쑤는 겁니다.)
 107028 @1 음. ㄱ사 콩죽엔.(음. 아까 콩죽엔.)
 107028 #2 무나 경 안 허민 배추나.(무나 그러지 않으면 배추나.)
 107028 @1 거기에 노랑 좁쌀 서끄고.(거기에 노랑 좁쌀 섞고.)
 107028 #1 예. 콩죽엔 꼭 노랑 좁쌀.(예. 콩죽엔 꼭 노랑 좁쌀.)
 107028 @1 노랑.(노랑.)
 107028 #1 검은 좁쌀은 죽 안 돼어.(검은 좁쌀은 죽 안 되어.)
 107028 @1 예.(예.)
 107028 #2 거는 흐려 부난에.(거는 차져 버려서.)
 107028 #1 죽이, 죽이 돼질 안헤여.(죽이, 죽이 되질 않아.)
 107028 #2 이 죽이, 죽이 돼지 안헤영 사락사락 허여근에 풀풀을 안 헤마씀.(이 죽이, 죽이 되지 않아서 사락사락 해서 풀풀을 않아요.)
 107028 @1 음.(음.)
 107028 #2 겨난 노랑 좁쌀 낱은에 허민은 죽이 점점 풀풀허곡.(그러니까 노랑 좁쌀 넣어서 하면은 죽이 점점 풀풀하고.)
 107028 @1 음.(음.)
 107028 #2 흐린 좁쌀 놓으면 죽이 사르륵 헤여근에.(차좁쌀 넣으면 죽이 사르륵 해서.)
 107028 @1 음.(음.)

107028 #2 꿩질 안헤마썸.(되질 않아요.)
107028 #1 맛이 엇어. 맛.(맛이 없어. 맛.)
107028 @1 거꾸로다양. 그계.(거꾸로네요. 그계.)
107028 #2 거꾸로마썸.(거꾸로예요.)
107028 #1 밥은 저 검은 좁쌀이 더 맛있고.(밥은 저 검은 좁쌀이 더 맛있고.)
107028 @2 예.(예.)
107028 @1 검은 좁쌀이라야 돼고.(검은 좁쌀이라야 되고.)
107028 #2 예.(예.)
107028 #1 죽은 노란 좁쌀.(죽은 노란 좁쌀.)
107028 @2 예.(예.)
107029 @1 노랑 좁쌀이라야 돼고. 예. 믰물죽도 쭈어 먹어 볍디가? 믰물죽.(노랑 좁쌀이라야 되고. 예. 메밀죽도 쭈어 먹어 보셨습니까? 메밀죽.)
107029 #2 아이, 믰물죽, 그 쌀로 허연 죽을 거 쭈와마썸.(아이, 메밀죽, 그 쌀로 해서 죽을 거 쭈어요.)
107029 #1 그거 환자덜, 환자.(그거 환자들, 환자.)
107029 @1 모물쌀로?(메밀쌀로?)
107029 #2 예.(예.)
107029 @1 ㄱ률이 아니고양.(가루가 아니고요.)
107029 #1 쌀로.(쌀로.)
107029 #2 예. 믰물쌀로. 그거는.(예. 메밀쌀로. 그거는.)
107029 @1 믰물쌀로.(메밀쌀로.)
107029 #1 풀풀허여.(풀풀해.)
107029 #2 저 이 저, 환자덜 그런 거 먹는 건 좋고.(저 이 저, 환자들 그런 거 먹는 건 좋고.)
107029 @1 그뎨 무시 거 놓니까? 믰물쌀만?(그뎨 뭐 넣습니까? 메밀쌀만?)
107029 #2 아무것도 아니 낱, 그것만 놓니다.(아무것도 아니 넣고, 그것만 넣습니다.)
107029 @1 아.(아.)
107029 #2 곤쌀 낱 곤쌀, 흰죽도 그거 이 환자.(흰쌀 넣어서 흰쌀, 흰죽도 그거 이 환자.)
107029 @1 곤쌀만.(흰쌀만.)
107029 #2 환자덜 허는 건 그걸로만, 저 곤쌀만 낱 흰죽이엔 허곡. 믰물쌀로 낱 죽 허는 것도 환자덜 먹는 거마썸.(환자들 하는 건 그걸로만, 저 흰쌀만 넣어서 흰죽이라고 하고. 메밀쌀로 넣어서 죽 하는 것도 환자들 먹는 거예요.)
107029 @2 음.(음.)
107029 #2 기냥 사름은 벨로 좋아라 안헤마썸.(보통 사람은 벨로 좋아하지 않아요.)

107029 @1 아, 그냥 물만 놔마썸?(아, 그냥 물만 넣어요?)

107029 #2 예.(예.)

107029 @2 케난 므물 그물로 허는 게 아니고 므물살로?(그러니까 메밀 가루로 하는 게 아니고 메밀살로?)

107029 #2 예. 므물살로.(예. 메밀살로.)

107030 @1 녹두죽은?(녹두죽은?)

107030 #2 녹두죽도 그건 녹두 삶양 된 익어근에 찰을 놔야 저 녹두죽이 돼야 마썸. 그 찰 씻어 낱.(녹두죽도 그건 녹두 삶아서 아주 익으면 찰을 넣어야 저 녹두죽이 돼요. 그 찰 씻어 넣어서.)

107030 @1 팏죽허고 비슷허다양.(팏죽하고 비슷하네요.)

107030 #2 예. 팏, 팏따마썸. 팏죽허고 그 녹두죽이 똑같아.(예. 팏, 똑같아요. 팏죽하고 그 녹두죽이 똑같아.)

107030 @1 그 녹두 삶양 다 삶아져 가민.(그 녹두 삶아서 다 삶아져 가면.)

107030 #2 찰 씻어 낱.(찰 씻어 넣고.)

107030 @1 찰 씻어 낱.(찰 씻어 넣고.)

107030 #2 예. 팏죽허고 팏 같아마썸.(예. 팏죽하고 팏 같아요.)

107030 @1 음. 그건 어떤 때에 영, 끌려 먹읍니까?(음. 그건 어떤 때에 이렇게, 끓여 먹읍니까?)

107030 #2 아이, 그건 또 먹고픈 때 아무 거라도 먹었주. 경 꼭 특별한 날로 허는 거 아니 건.(아이, 그건 또 먹고픈 때 아무 거라도 먹었지. 그렇게 꼭 특별한 날로 하는 거 아니 건.)

107030 @1 음. 게, 우리 삼촌이 막 먹구정 허텐 허민.(음. 그럼, 우리 삼촌이 막 먹고 싶다고 하면.)

107030 #1 예.(예.)

107030 @1 그냥 끌려 줍디가?(그냥 끓여 주셨습니까?)

107030 #2 예.(예.)

107030 #1 아, 녹두죽이 맛 십니다. 들코롬허영.(아, 녹두죽이 맛있습니다. 달콤해서.)

107030 @1 음.(음.)

107030 #2 먹구정 현 때 먹어야 거. 아무 때나 행 먹는 거.(먹고 싶을 때 먹어야 거. 아무 때나 해서 먹는 거.)

107031 @1 요새 흥뽀 이시민 득죽 썬어 먹어야 텔 거 아니파?(요새 조금 있으면 닭죽 썬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7031 #1 음.(음.)

107031 #2 (웃음) 득죽도 요새엔 뭐 득 흔허여 노난, 먹고픈 때 아무 때라도 득 사당 먹, 먹엄주게.(웃음) 닭죽도 요새엔 뭐 닭 흔해 놓으니까, 먹고픈 때 아무 때라도 닭 사다가 먹, 먹고 있지.)

107031 @1 음. 그거 이제, 득 어떻게, 끌리당 쓸 놔수과? 아니민.(음. 그거 이제, 닭 어떻게, 꿩이다가 쌀 넣었습니까? 아니면.)

107031 #2 아이 참, 득도 솥다근에 저 무신건가, 득고기가 다 익을 만허민 쓸 낱은에, 죽, 죽 쓸 때에는, 득죽으로 먹는 거는 그처럼 허곡, 또 이제 닭만 삶양 먹는 거는 뭐 저 마늘도 까 놓곡 허여근에, 거 삶양 먹고 경험니다게.(아이 참, 닭도 삶다가 저 무엇인가, 닭고기가 다 익을 만하면 쌀 넣어서, 죽, 죽 쓸 때에는, 닭죽으로 먹는 거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닭만 삶아서 먹는 거는 뭐 저 마늘도 까 넣고 해서, 거 삶아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107031 @1 음.(음.)

107031 #2 건 옛날이나 이제나 득죽 쑤는 건.(건 옛날이나 이제나 닭죽 쑤는 건.)

107031 #1 옛날엔 가정마다 득을 키와놔수게.(옛날엔 가정마다 닭을 키웠었습니다.)

107031 @1 예.(예.)

107031 @2 음.(음.)

107031 #1 초집 때에. 이제 새끼 깨왕, 그걸로 이제 득새기 낱 강 풀곡. 켜디 그걸 유월 스무날이 돼가면 득, 그다음 키우당 득 잡아먹어 집이 걸.(초가집 때에. 이제 새끼 낳게 해서, 그걸로 이제 달걀 낳아서 가서 팔고. 그런데 그걸 유월 스무날이 돼 가면 닭, 그다음 키우다가 닭 잡아먹어 집의 걸.)

107031 @1 음.(음.)

107031 #1 심어당.(붙잡아다가)

107031 @1 예.(예.)

107031 #1 그 저, 이런 초집 밤에 다 올르곡.(그 저, 이런 초가집 밤에 다 오르고.)

107031 @1 음.(음.)

107031 #1 달걀, 닭집 이렇게 하고.(달걀, 닭집 이렇게 하고.)

107031 @2 음.(음.)

107031 #1 비애기 깨우곡.(병아리 깨우고.)

107031 @1 음.(음.)

107031 #1 계란 그 집이 득, 그거 잡아먹어수게게.(그러니까 그 집의 닭, 그거 잡아먹었습니다.)

107031 @2 득 잡아먹는 날.(닭 잡아먹는 날.)

107031 #1 그 저 유, 유월 스무날이엔 득 잡아먹는 날.(그 저 유, 유월 스무날이라고 닭 잡아먹는 날.)

107031 #2 아, 옛날은 다 집집마다 닭 길러 그자 계란 내왕 먹곡.(아, 옛날은 다 집집마다 닭 길러서 그저 달걀 낳게 해서 먹고.)

107031 @2 음.(음.)

107031 #2 닭 잡앙 먹고 허난 이젠 사당 먹으면, 주민 먹어나난 득 안 질루난 에. (웃음)(닭 잡아 먹고 하니까 이젠 사다가 먹으면, 주민 먹었었기 때문에 닭 안 기르니까. (웃음))

107033 @1 그 외에 무신 죽, 다른 죽 해 먹어 보진 안해 봅디가?(그 외에 무슨 죽, 다른 죽 해 먹어 보진 안 해보셨습니까?)

107033 #2 아이고, 우린 그런 죽, 저런 죽 허여 먹어 보지 안 했수다.(아이고, 우린 그런 죽, 저런 죽 해 먹어 보지 않았습디다.)

107033 @1 특별히.(특별히.)

107033 #2 그자 밥허곡, 그자 그리운 때에 죽 썩 먹곡 그거뿐이주. 다른 건 안 해 먹읍니다.(그저 밥하고, 그저 그리운 때에 죽 썩 먹고 그거뿐이지. 다른 건 안 해 먹읍니다.)

범벅과 수제비

107034 @1 범벅은 무슨 범벅, 무슨 범벅.(범벅은 무슨 범벅, 무슨 범벅.)

107034 #2 믰물, 아까 곤듯이 게, 믰물범벅 그거.(메밀, 아까 말했듯이 거, 메밀 범벅 그거.)

107034 #1 범벅은 는쟁이범벅 그거.(범벅은 나깨 범벅 그거.)

107034 @1 는쟁이범벅.(‘는쟁이범벅’.)

107034 #1 예. 믰물.(예. 메밀.)

107034 @1 믰물 는쟁이범벅.(메밀 ‘는쟁이범벅’.)

107034 #1 저디 조금 저 낮은 가루.(저기 조금 저 낮은 가루.)

107034 @1 예.(예.)

107034 #1 춤 가루가 아니고. 는쟁이 더꺼진 거. 꺾테기 더꺼진 거.(참 가루가 아니고. 나깨 덜어진 거. 꺾테기 덜어진 거.)

107034 @1 예.(예.)

107034 #1 믰물 꺾테기 조금 더꺼진 거.(메밀 꺾테기 조금 덜어진 거.)

107034 @1 예.(예.)

107034 #1 그게 참 맛 셔. 그 가을에.(그게 참 맛있어. 그 가을에.)

107034 @1 거기 이제 감저 썰어 놓곡.(거기 이제 고구마 썰어 넣고.)

107034 #1 예, 고구마 썰어 놓곡.(예. 고구마 썰어 넣고.)

107034 @1 가끔 무도 썰어 놔수과?(가끔 무도 썰어 넣었습니까?)

107034 #1 예, 무도 썰어 놓곡 범벅에는. 범벅은 는쟁이범벅이 최고 맛있는 거. (예, 무도 썰어 넣고 범벅에는. 범벅은 ‘는쟁이범벅’이 최고 맛있는 거.)

107035 @1 예. 즈베기는.(예. 수제비는.)

107035 #1 즈베기도 그거 믰물 믰로게.(수제비도 그거 메밀가루로.)

107035 @1 믰물즈베기?(메밀수제비?)

107035 #1 는쟁이 믰로 즈베기 헨 먹어놔주게.(나깨가루로 수제비 해서 먹었었

지.)

107035 @1 예.(예.)

107035 #2 건디 는쟁이ㄴ르는 그거 힘 웃은 거난산디, 줌 저 수제비 허민 문 헤 싸져 불어근에 줌ㄴ를만이 못 험디다. 그건.(그런데 나께가루는 그거 힘없는 거니까 인지, 줌 저 수제비 하면 모두 헤벌어져 버려서 참가루만 못 합디다. 그건.)

107035 @1 음. 예. 아, 게난 ㄴ물범벅 험, 아, ㄴ물즈베기 험 때는 는쟁이 말양 다른 걸로?(음. 예. 아, 그러니까 메밀범벅 할, 아, 메밀수제비 할 때는 ‘느께’ 말고 다른 걸로?)

107035 #2 예, 예. ㄴ물쫄 가를로.(예, 예. 메밀쌀 가루로.)

107035 @1 음.(음.)

107035 #2 그거, 그건 허민은 수제비도 험 먹영 좋곡, 칼국수도 헤도 좋곡 경험 디다.(그거, 그건 하면은 수제비도 해서 먹어서 좋고, 칼국수도 헤도 좋고 그렇게 합디다.)

107036 @1 칼국수도 헤 먹어납디가?(칼국수도 헤 먹었었습니까?)

107036 #2 예게. 그건 저 ㄴ물, ㄴ물가를로 허여근에게 밀어근에, 그냥 칼, 저 무신 걸로 밀어근에 허민, 그게 칼국수 허영 먹어 먹어집네다게.(예. 그건 저 메밀, 메밀가루로 해서 밀어서, 그냥 칼, 저 무슨 걸로 밀어서 하면, 그게 칼국수 해서 먹어 먹을 수 있습니다.)

107036 @1 그거 그냥.(그거 그냥.)

107036 #2 ㄴ물ㄴ를이 더 좋아마씨.(메밀가루가 더 좋아요.)

김치

107037 @1 음. 김친 직접 둘강 먹엇지양?(음. 김친 직접 답가서 먹엇지요?)

107037 #2 예, 그 옛날은 이제ㄴ찌 호배추여 무슨건가, 옛날은 ㅼ다ㅼ다헌 저 들머귀 님은 거 집에 그자 갈앗다근에, 그거 집이 고춧ㄴ를 놓곡 영, 마농도 집이 거 허여 놓곡 허민, 이제, 지금도 촛엔 마찬가지우다.(예, 그 옛날은 이제같이 호배 추다 무엇인가, 옛날은 ‘ㅼ다ㅼ다’한 저 ‘들머귀’ 님은 거 집에 그저 갈앗다가, 그거 집의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마늘도 집의 거 해서 넣고 하면, 이제, 지금도 시골엔 마찬가지입니다.)

107037 @1 음.(음.)

107037 #2 저 양배추 싱것당 양배추 싱근 예엠데레 그자 돌아가멍 저 무슨건가, 배추 혼 판 싱경 놘두면은, 혼 백 포기 넘어 험 거난, 더러 그냥 어린 때도 헤당 먹 곡 허엿다근에, 그걸로 짐치 헤영 먹어근에, 경 우린 사당 먹진 안헤마썸. 이 저, 촛 에난.(저 양배추 심엇다가 양배추 심은 옆에 그저 돌아가면서 저 무엇인가, 배추 한 판 심어서 놘 두면은, 한 백 포기 넘어 하는 거니까, 더러 그냥 어린 때도 헤다가 먹고 하였다가, 그걸로 김치 해서 먹어서, 그렇게 우린 사다가 먹진 않아요. 이 저, 시골이니까.)

107037 @1 김장 담글 땐 뭣 포기나 해 먹읍디가?(김장 담글 땐 뭣 포기나 해서 먹었습니까?)

107037 #2 흔 삼십 푸기 정도 허영 먹곡, 하영 허는 집인 흔 오십 푸기 허곡.(한 삼십 푸기 정도 해서 먹고, 많이 하는 집엔 한 오십 푸기 하고.)

107037 @1 음.(음.)

107037 #2 건 식구에 따라랑 협주게. 아이덜이영 하영 주쟁 허나 허민 하영 헐 거. 쪽영 허쟁 허민 쪽영 헐 거.(건 식구에 따라서 하지요. 아이들이랑 많이 주려고 하나 하면 많이 할 거. 적게 하려고 하면 적게 할 거.)

107037 @1 배추김치 말양 또 다른 건 뭐.(배추김치 말고 또 다른 건 뭐.)

107037 #2 아이 다른 건 이녁 먹고픈 양 저 뭐, 무김치를 허영 먹던가 깍두기 김칠 허던가, 아무거라도 뭐 경 저, 무시거 특별허게 허진 안험니다. 주로 그자 저 올에 그 김장 김치, 그자 그거 허여근에 먹곡.(아니 다른 건 이녁 먹고픈 양 저 뭐, 무김치를 해서 먹던가 깍두기 김칠 하든가, 아무 거라도 뭐 그렇게 저, 뭐 특별허게 하진 않습니다. 주로 그저 겨울에 그 김장 김치, 그저 그거 해서 먹고.)

107037 @1 평상시에 뭐 다른 김치 뭐, 파김치여.(평상시에 뭐 다른 김치 뭐, 파김치다.)

107037 #2 평상시에 파김치영 무슨 그.(평상시에 파김치와 무슨 그.)

107037 @1 파.(파.)

107037 #2 파사 이녁 집이서 심은 거난.(파야 이녁 집에서 심은 거니까.)

107037 @1 음.(음.)

107037 #2 파김치도 행 먹곡 다 허는 겁주게.(파김치도 해서 먹고 다 하는 거지요.)

107037 @1 갓김치.(갓김치.)

107037 #2 예.(예.)

107038 @1 배추김치 헐 때는 식구들 막 으라이 헐.(배추김치 할 때는 식구들 막 여럿이 했어.)

107038 #2 아이, 으라이, 식게 한 집이나 으라이 허주, 우린 그자 아들네나 허 여근에 짐치 요남은 포기씩 허여당 주민 으져가근에 먹어근에. 우린 또 우리 먹을 만이 허영 놔 두곡 허주. 어디 경 하영 허지 안험니다.(아이, 여럿이, 식구 많은 집이나 여럿이 하지, 우린 그저 아들네나 해서 김치 여남은 포기씩 해다가 주면 가져 가서 먹어서. 우린 또 우리 먹을 만큼 해서 놔 두고 하지. 어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107038 @1 음.(음.)

107038 #2 육지ㄴ찌 경 막 흐뭇 하영 허지 안헤마썸. 삼 무슨.(육지같이 그렇게 막 사뭇 많이 하지 않아요. 삼 무슨.)

107038 @1 음.(음.)

107038 #2 마흔 푸기 허고라, 쉰 푸기 허고라, 뭐 백 포기 허고라 허지 안헐, 그

자 우린 먹을 만이 조금, 혼 삼십 포기나 스십 포기 그 정도 허영 놔 뒷당, 그자 아이들 으져가렌 허민 으져가고.(마흔 포기 했노라, 쉰 포기 했노라, 뭐 백 포기 했노라 하지 않고, 그저 우린 먹을 만큼 조금, 한 삼십 포기나 사십 포기 그 정도 해서 놔뒀다가, 그저 아이들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고.)

107038 @1 요새도 짐치 담가 볶디가?(요새도 김치 담가 보셨습니까?)

107038 #2 예, 요새 저 묵은해도 다 짐치 혼 삼십 포기 해수다.(예, 요새 저 묵은해도 다 김치 한 삼십 포기 했습니다.)

107039 @1 음. 열무김치도 해 볶디가?(음. 열무김치도 해 보셨습니까?)

107039 #2 아, 열무김치도 꼭 이 저 무슨건가, 김장김치 허듯이게 고춧ㄱ를, 마늘, 뭐 생강, 무슨 저 새우 ㄱ쁜 거, 뭐 그런 거 놔근에 다 양념허영 헉니께.(아, 열무김치도 꼭 이 저 무엇인가, 김장김치 하듯이 고춧가루, 마늘, 뭐 생강, 무슨 저 새우 같은 거, 뭐 그런 거 넣어서 다 양념해서 합니다.)

107039 @1 음.(음.)

107039 #2 짐치도 다 그 양념.(김치도 다 그 양념.)

107039 @1 예, ㄱ쁜 양념.(예, 같은 양념.)

107039 #2 예, ㄱ쁜 양념. 특별허게 더 허는 거 엇어마썸. 이제 파김치도 무시건가 그 멸, 멸치 액젓이나 기냥 까나리 액젓이나 그런 거 놔근에, 파김치도 고춧ㄱ를에 마농 그런 거 낱 허곡 허난.(예, 같은 양념. 특별허게 더 하는 거 없어요. 이제 파김치도 무엇인가 그 멸, 멸치 액젓이나 그냥 까나리 액젓이나 그런 거 넣어서, 파김치도 고춧가루에 마늘 그런 거 넣어서 하고 하니까.)

107039 @1 음.(음.)

107039 #2 벨로 딱난 거 안 해마썸.(벨로 다른 거 안 해요.)

107040 @1 물김치는?(물김치는?)

107040 #2 물김치도 그자 그, 물김치는 저 뭐 마늘 농곡 그자 그런 거, 물김치 허여근에 먹는 거고. 거 육지서ㄱ찌 뭐 갓김치여 무슨 거여 허지 안해마썸.(물김치도 그저 그, 물김치는 저 뭐 마늘 넣고 그저 그런 거, 물김치 해서 먹는 거고. 거 육지같이 뭐 갓김치다 무슨 거다 하지 않아요.)

107040 @1 음.(음.)

107040 #2 여긴 그자 주로 배추김치 허곡 무김치나 그런 깍두기 김치나 그자 그런 거 허고. 먹고픈 거 행 먹지.(여긴 그저 주로 배추김치 하고 무김치나 그런 깍두기 김치나 그저 그런 거 하고. 먹고픈 거 해서 먹지.)

107040 @1 음.(음.)

107040 #2 하근 거 이것저것 허지 안헉니다. 겨곡 우리 이젠 늙은난 짐치도 벨로 먹어지지 안헉고.(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젠 늙은니까 김치도 벨로 먹어지지 않고.)

107040 @1 음. 젊은 때 막 하영 해 먹어나지 안헉수과?(음. 젊은 때 막 많이 해 먹었지 않습니까?)

107040 #2 전이 옛날은, 젊은 때나 아이덜 잇꼭 허민 짐치를 주로 먹어났주마는 이젠 경 먹질 안해마썸.(전에 옛날은, 젊은 때나 아이들 잇고 하면 김치를 주로 먹었었지마는 이젠 그렇게 먹질 않아요.)

107040 @1 그 겨울에 그, 김장김치 허당 흐뎡 영 모자라민 봄에 또 무시 거 짐치 따로 안 해 먹어 봅디가? 봄 나근에.(그 겨울에 그, 김장김치 하다가 조금 이렇게 모자라면 봄에 또 뭐 김치 따로 안 해 먹어 보셨습니까? 봄 나서.)

107040 @2 동지김치.(동지김치.)

107040 #2 에이, 봄 나른 그자 그 저을 짐치 행 먹곡, 저 봄 나가민 파김치도 행 먹고, 그자 그것저것 행 먹어난 경 먹어지지 안허여.(에이, 봄 나면 그저 그 겨울 김치 해서 먹고, 저 봄 나 가면 파김치도 해서 먹고, 그저 그것저것 해서 먹으니까 그렇게 먹어지지 않아.)

107041 @2 동지김치는 안 해났수과?(동지김치는 안 했었습니까?)

107041 #2 양?(예?)

107041 @2 동지, 동지김치, 동지.(동지, 동지김치, 동지.)

107041 #2 동지김치사 동지 꺼꺼근에 짐치 흔 것ㄴ라 동지김치주게.(동지김치야 동지 꺾어서 김치 한 것을 동지김치지.)

107041 @2 계난마썸. 그.(그러니까요. 그.)

107041 #2 그런 것도.(그런 것도.)

107041 @2 예.(예.)

107041 #2 마찬가지로. 거 저 김장김치 허는 양념 남아시민 나 허여근에 낫당 먹곡.(마찬가지. 거 저 김장김치 하는 양념 남았으면 나 해서 놓았다가 먹고.)

107041 @2 음.(음.)

107041 @1 그 배추 가운데, 흐뎡 영 대 위에 올라온 거 꺼꺼당마썸?(그 배추 가운데, 조금 이렇게 대 위에 올라온 거 꺾어다가요?)

107041 #2 예.(예.)

107041 @1 음.(음.)

107041 #2 것도 맛있어마썸. 익으면.(그것도 맛있어요. 익으면.)

107042 @1 늑빠론 어떻, 늑빠 통채로 낫 헛수과? 아니민 썰언 놔났수과?(무론 어떻게, 무 통째로 넣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썰어서 넣었었습니까?)

107042 #2 아이, 저 무신건가 우린 경 무슨 저, 통채로 허는 것ㄴ라 거 뵈이엔 허나. 저 짐치ㄴ라. 그런 것도 안 해영 먹어 봐수다.(아이, 저 무엇인가 우린 그렇게 무슨 저, 통째로 하는 것을 거 뭐라고 하나. 저 김치를. 그런 것도 안 해서 먹어 봤습니다.)

107042 @1 그냥 썰어근에.(그냥 썰어서.)

107042 #2 예.(예.)

107042 @1 저, 음.(저, 음.)

107042 #2 깍두기로 아이덜 먹으켄 허민 깍두기 짐치 허연, 그자 그것도 양념은

기자 김장김치 허듯이 허영 먹으면 되고.(깍두기로 아이들 먹겠다고 하면 깍두기 김치 해서, 그저 그것도 양념은 그냥 김장김치 하듯이 해서 먹으면 되고.)

107042 @1 미릿 즐겨 즐겨 다 썰어양?(미리 잘게 잘게 다 썰어서요?)

107042 #2 예.(예.)

107042 @1 깍두기로?(깍두기로?)

107042 #2 예.(예.)

107042 @1 음. 그 늬빠 영 시들시들하게 지붕에 영 돌아 났다근에 그걸로 어디 영 해나진 안햇수과?(음. 그 무 이렇게 시들시들하게 지붕에 이렇게 달아 놓았다가 그걸로 어디 이렇게 했었지 않았습니까?)

107042 #2 아이, 것도 안 해 봐수다.(아니, 그것도 안 해 봤습니다.)

107044 @1 음. 어디 저 꿩마농 해단에 그걸론 김치 안 해 볶디가?(음. 어디 저 달래 해다가 그걸론 김치 안 해 보셨습니까?)

107044 #2 에이, 이제 꿩마농도 이젠 엇입니다. 옛날은 저 보리도 갈곡 콩도 갈양 허민은, 저을에 좋지 아년 밧은 보리 아이 갈아근에 허민, 콩만 갈아 낱 내불민 허민, 봄 나민 막 마농도 꿩마농이엔 현 마농, 그 저 좋읍디다마는 이젠 하도 농약 쳐 불곡 허난 마농 씨가 끊어져 불언.(에이, 이제 달래도 이젠 없읍니다. 옛날은 저 보리도 갈고 콩도 갈아서 하면은, 겨울에 좋지 않은 밧은 보리 아니 갈아서 하면, 콩만 갈아 놓고 내버리면 하면, 봄 나면 막 마늘도 달래라고 하는 마늘, 그 저 좋읍디다는 이젠 하도 농약 쳐 버리고 하니까 마늘 씨가 끊어져 버렸어.)

107044 @2 허허.(허허.)

107044 #2 이젠 엇어마씨.(이젠 없어요.)

젓갈

107048 @1 음. 자리젓도 헨 먹어수과?(음. 자리젓도 해서 먹었습니까?)

107048 #2 예, 자리젓 옛날은 해 봐수다마는. 이젠 사당 먹고, 허지 안헙니다.(예, 자리젓 옛날은 해 봤습디다마는. 이젠 사다가 먹고, 하지 않읍니다.)

107048 @1 사당. 멜젓도?(사다가. 멸치젓도?)

107048 #2 멜젓도 안 혀고.(멸치젓도 안 하고)

107048 @1 멜젓도 어디 저 김치 헐 때만.(멸치젓도 어디 저 김치 할 때만.)

107048 #2 예. 그것도 기자 시장 가근에 그자 새우젓이영 멜젓이영 뭐 그런 거 사당 허영 먹영. 집에서 허지 안헙니다.(예. 그것도 그저 시장 가서 그저 새우젓이랑 멸치젓이랑 뭐 그런 거 사다가 해서 먹고. 집에서 하지 않읍니다.)

107048 @1 거 이, 덩가 놓은 거 엇구나양?(거 이, 담가 놓은 거 없군요?)

107048 #2 예.(예.)

107048 @1 음.(음.)

107048 #2 먹을 사람이 엇이난 그런 거 덩그쟁을 허질 안헙니다게.(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 담그려고 하질 않읍니다.)

107048 @1 음.(음.)

107048 #2 자리젓갈도 막 하영이나 듭그민 맛있어도, 죽영 현 건 맛이 엇습디다. 이제.(자리젓갈도 막 많이나 담그면 맛있어도, 적게 한 건 맛이 없습디다. 이제.)

107048 @1 음.(음.)

107048 #2 옛날 식귀들 한 때, 흘 때에는, 자리젓도 하영 현 때에는 맛 이선게마는 죽영 현 건 맛엇언.(옛날 식구들 많은 때, 할 때에는, 자리젓도 많이 한 때에는 맛있던데마는 적게 한 건 맛없엇어.)

107048 @1 하영 해납디가? 게난.(많이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107048 #2 아, 식귀 한 때는 하영 해나십주게게.(아, 식구 많은 때는 많이 했었지요.)

107048 @1 아.(아.)

107048 #2 경허난 콩, 콩도 옛날은 흘 사름이 콩 흘 말 먹넨 허영 다섯 식귀 시민은 콩 닷 말을 삶아야 허고.(그러니까 콩, 콩도 옛날은 한 사람이 콩 한 말 먹는다고 해서 다섯 식구 있으면은 콩 닷 말을 삶아야 하고.)

107048 @1 음.(음.)

107048 #2 요섯 식귀 일곱 식귀 잇어 허민, 콩 옷 말 일곱 말은 삶아야 이제 그 간장도 먹고 웬장도 먹곡, 그 저 옛날은 집이서만 다 담은 장으로 먹어나난, 그때는 콩을 집이서만 주로 삶앙.(여섯 식구 일곱 식구 잇어 하면, 콩 여섯 말 일곱 말은 삶아야 이제 그 간장도 먹고 된장도 먹고, 그 저 옛날은 집에서만 다 담근 장으로 먹엇었으니까, 그때는 콩을 집에서만 주로 삶아서.)

107048 @1 음.(음.)

107048 #2 메주 쭈어근에 이제 그거 다 췌여근에 막 영 돌아뻗단에 흐단지, 경안 허민 집에 기냥 저디 뒹 갈아근에 낫당, 몰르면은 그거 다 허여근에, 장도 이제 주도는 선들 그물어 가민 장을 다 담습디다.(메주 쭈어서 이제 그거 다 주물러서 막 이렇게 달아뻗다가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집에 그냥 저기 뒹 깔아서 놓았다가, 마르면은 그거 다 해서, 장도 이제 주도는 선달 그물어 가면 장을 다 담습디다.)

107048 @1 음.(음.)

107048 #2 겐디 육지는 정월 나사만 장을 담아마썸. 건디 여기 이 제주도는 보통 선들 그물어 가민 장을 다 담아마썸.(그런데 육지는 정월 나야만 장을 담가요. 그런데 여기 이 제주도는 보통 선달 그물어 가면 장을 다 담가요.)

107048 @1 예.(예.)

107048 #2 겨민 가을 들영 콩 장만 해 오민 기자 으레껏 그냥 메주 쭈근에 메주 삶아사. 건디 이제 장도 사당 먹곡 허난. 벨로 콩 허여근에 장 담은 사름도 벨로 엇어마썸.(그러면 가을 들어서 콩 장만 해 오면 그저 으레 그냥 메주 쭈서 메주 삶아야. 그런데 이제 장도 사다가 먹고 하니까. 벨로 콩 해서 장 담그는 사람도 벨로 없어요.)

107048 #1 이젠 먹을 콩을 갈질 안협니께.(이젠 먹을 콩을 갈질 않습니다.)
 107048 @1 음.(음.)
 107048 #1 그냥 저 농협에서 받아가는 콩만 나난.(그냥 저 농협에서 받아가는 콩만 나니까.)
 107048 #2 그 준자리콩이엔 현 거.(그 ‘준자리콩’이라고 하는 거.)
 107048 #1 저 *판대서.(저 *판대서.)
 107048 #2 콩나물콩으로만 이젠 주로 갈앙. 콩나물콩으로만 이젠 갑디다게.(콩나물콩으로만 이젠 주로 갈아서. 콩나물콩으로만 이젠 갑디다.)
 107048 #1 먹을 콩은 안 갈아.(먹을 콩은 안 갈아.)
 107048 @1 옛날엔 요즘이 보리 철 아니파양?(옛날엔 요즘이 보리 철 아닙니까?)
 107048 #2 예.(예.)
 107048 #1 딱 보리 철.(딱 보리 철.)
 107048 @1 보리 빌 때.(보리 벨 때.)
 107048 #1 예.(예.)
 107048 @1 요때 썸에 자리 폴레 오지 안헤낫수과?(요때 썸에 자리 팔러 오지 않았었습니까?)
 107048 #2 아이, 요즘도 맨날 자리 폴렌 읍니다. (웃음)(아이, 요즘도 만날 자리 팔러는 읍니다. (웃음))
 107048 @1 자리 폴레 오민, 그 자리 하영 사근에 허던지.(자리 팔러 오면, 그 자리 많이 사서 하든지.)
 107048 #1 아니, 옛날에는 자리가 귀해 가지고, 보리 지영 저 지금 괍지, 저기 귀덕. 여긴 주로 귀덕 그레 많이 갖지.(아니, 옛날에는 자리가 귀해 가지고, 보리 지고서 저 지금 ‘괍지’, 저기 ‘귀덕’. 여긴 주로 ‘귀덕’ 거기로 많이 갖지.)
 107048 #2 귀덕이나 진질이나.(‘귀덕’이나 ‘진질’이나.)
 107048 #1 진질에 가근에.(‘진질’에 가서.)
 107048 #2 가근에 옛날 우리.(가서 옛날 우리.)
 107048 #1 교환헤여. 보리 주어 가지고.(교환해. 보리 주어 가지고.)
 107048 @1 보리허고.(보리하고.)
 107048 #1 보리허고.(보리하고.)
 107048 @1 자리허고.(자리하고.)
 107048 #1 자리허고 교환헤영 와낫주게.(자리하고 교환해서 왔었지.)
 107048 @1 교환헤영 와.(교환해서 와.)
 107048 #2 돈이 엇은 때난에 이제 보리 정 가근에, 쌀보리 정 강, 그때는 자리 춤, 보리 혼 말 주면 자리 혼 말 주곡 경허명.(돈이 없던 때니까 이제 보리 지고 가서, 쌀보리 지고 가서, 그때는 자리 참, 보리 한 말 주면 자리 한 말 주고 그렇게 하면서.)

107048 @1 아.(아.)

107048 #2 허여나신디. 아이고, 그때는 막덜 이 저 무슨 거, 자리 거털 철에는 막 가민 이제, 흐뭇 물에 빠지멍 나가 문여 사저, 나가 문여 사저 허민.(했었는데. 아이고, 그때는 막들 이 저 무슨 거, 자리 ‘거털’ 철에는 막 가면 이제, 사뭇 물에 빠지면서 내가 먼저 사겠다, 내가 먼저 사겠다 하면.)

107048 @1 아.(아.)

107048 #2 이제 (웃음). 말째에라 가난 돈 받아근에 헤영, 보린 아니 바꾸켄 험 디다게.(이제 (웃음). 말째에 되어 가니까 돈 받아서 해서, 보린 아니 바꾸겠다고 합 디다.)

107048 @1 아.(아.)

107048 #2 경허멍 험 우리 그냥 보리도 전 와났수다. 겨난 이젠 뭐 차로 메날 왕 자리 삼서 자리 삼서 허는디 이젠 뭐 자리 사질 안허난 뭐. (웃음)(그러면서 해서 우리 그냥 보리도 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뭐 차로 만날 와서 자리 사 세요, 자리 사세요, 하는데 이젠 뭐 자리 사질 앓으니까 뭐. (웃음))

107048 @1 아.(아.)

107048 #2 아이고, 전이 옛날은 저 귀덕이나 진질이나 그딤 강, 이딤서 그딤 느 려가근에 걸영 강 자리 사 와났수다게. 경헌디.(아이고, 전에 옛날은 저 ‘귀덕’이나 ‘진질’이나 거기 가서, 여기서 거기 내려가서 걸어서 가서 자리 사 왔었습니다. 그런 데.)

107048 @1 허허.(허허.)

107048 #2 이젠 뭐 자릴 사질 안해. (웃음)(이젠 뭐 자릴 사질 앓아. (웃음))

107048 @1 (웃음) 보리 혼 말 정 강.((웃음) 보리 한 말 지고 가서.)

107048 #1 교환, 교환.(교환, 교환.)

107048 #2 예.(예.)

107048 @1 그걸로 자리 혼 말 바짱.(그걸로 자리 한 말 바꿔서.)

107048 #2 예.(예.)

107048 @1 그거 허연 완에 자리젓 담고 헤납디가?(그거 하고 와서 자리젓 담고 했었습니다?)

107048 #2 예. 겨난 식귀 한 사름은 보리 두 말 서 말 정 가근에 흐뭇 그거 간, 바가쭈에 으정 가근에 문 자리 저 와났수다게. 견디 이젠 그런, 자리젓 허는 사름이 엇어마썸.(예. 그러니까 식구 많은 사름은 보리 두 말, 서 말 지고 가서 사뭇 그거 가서, 양동이에 가지고 가서 모두 자리 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자리젓 하는 사름이 없어요.)

107048 @1 음.(음.)

107048 #2 (웃음) 이제 완전 시대가, 그 시대 바뀌어 불언.((웃음) 이제 완전 시대가, 그 시대 바뀌어 버렸어.)

107054 @1 그런, 자리젓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출레엔 돌아났수과?(그런, 자리젓

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출레’라고 불렀었습니까?)

107054 #2 예. 출레엔 헤마썸. 저 젓갈이엔 안 헤영. 출레.(예. ‘출레’라고 해요. 저 젓갈이라고 앓고. ‘출레’.)

107054 @1 젓갈이엔 안 헤영, 출레양.(젓갈이라고 앓고. ‘출레’.)

107054 #2 예, 자리젓갈.(예, 자리젓갈.)

장아찌와 회

107055 @1 장아찌도 담안 먹어났수과? 장아찌.(장아찌도 담가서 먹었었습니까? 장아찌.)

107055 #2 장아찌엔 현 건, 그 저 뭐.(장아찌라고 하는 건, 그 저 뭐.)

107055 @1 지시, 지시.(지, 지.)

107055 #2 무슨 거, 장아찌는.(무슨 거, 장아찌는.)

107055 @2 마농지 허는 거. 마농, 마농지.(‘마농지’ 하는 거. 마늘, ‘마농지’.)

107055 #2 마농지 하는 것ㄴ라 장아찌엔 헉니께.(‘마농지’ 하는 것을 장아찌라고 합니다.)

107055 @2 예.(예.)

107055 @1 음.(음.)

107055 #2 마농지 허는 거 장아찌[치].(‘마농지’ 하는 거 장아찌.)

107055 @1 지금도 해 먹엄수과?(지금도 해 먹고 있습니까?)

107055 #2 예. 그거는 해 먹엄수다.(예. 그거는 해 먹고 있습니다.)

107055 @1 마농지?(‘마농지’?)

107055 #2 예.(예.)

107055 @1 마농지 말아 다른 지 뭐.(‘마농지’ 말고 다른 지 뭐.)

107055 #2 아이 콤대사니김치, 이제 그냥 파김치 그것만 허여근에 다른 건 흘 게 엇어마썸.(아이 마늘김치, 이제 그냥 파김치 그것만 해서 다른 건 할 게 없어요.)

107055 @1 음. 그 저 무시거, 유썸?(음. 그 저 뭐, 깻잎?)

107055 #2 아이고, 그런 거 저 무슨 임시, 임시 간장에 듬갓당 그 저 무슨건가, 그런 걸 행 먹어도.(아이고, 그런 거 저 무슨 임시, 임시 간장에 담갔다가 그 저 무 엇인가, 그런 걸 해서 먹어도.)

107055 @1 음.(음.)

107055 #2 이젠 저 장시질 허는 사름덜이나 순 그거 허영 툷아근에 장아찌로 허여근에, 그 들개썸 허영 다 허곡 뭐 다 허여도, 요즘은 사당들 먹영.(이젠 저 장 사 하는 사람들이나 순 그거 해서 뜯어서 장아찌로 해서, 그 들깻잎 해서 다 하고 뭐 다 해도, 요즘은 사다가들 먹어서.)

107055 @1 음.(음.)

107055 #2 그런 거 허지 안헉니께.(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107055 @1 음. 양에도 지 담아 먹엇수가?(음. 양하도 지 담가 먹었습니까?)

107055 #2 예, 그거는 허연 먹어놨수다.(예, 그거는 해서 먹었었습니다.)
 107055 @1 양엿근.(‘양엿근’.)
 107055 #2 예. 양에, 양에 그.(예. 양하, 양하 그.)
 107055 #1 간, 간, 양에간¹²³.(간, 간, ‘양에간’.)
 107055 #2 양에간, 양에간.(‘양에간’, ‘양에간’.)
 107055 @1 양에간. 양에간.(‘양에간’, ‘양에간’.)
 107055 #1 음.(음.)
 107055 #2 그거 꽃 피고 이제 그게 팔월 낭 그게 나오는가?(그거 꽃 피고 이제 그게 팔월 나서 그게 나오는가?)
 107055 #1 아, 칠월. 그게 제라허게 완전 맛있어. 양엿간이.(아, 칠월. 그게 온전히 정말 맛있어. ‘양엿간’이.)
 107055 @1 아, 그걸로. 양에간으로.(아, 그걸로. ‘양에간’으로.)
 107055 #1 해독 뒹고.(해독 되고.)
 107055 @1 지 햇구나양. 음.(지 했군요. 음.)
 107055 #2 그걸로.(그걸로.)
 107055 @1 케민 그 마농 그, 대 영 흐뎀 나오지 안합니까? 그 마농.(그러면 그 마늘 그, 대 이렇게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늘.)
 107055 #2 예.(예.)
 107055 @1 그거 끊어근에 그거 뭤헐 허더라. 마농.(그거 끊어서 그거 뭤라고 하더라. 마농.)
 107055 #2 마농쥬.(마늘쥬.)
 107055 @1 쥬.(쥬.)
 107055 #2 마농쥬.(마늘쥬.)
 107055 @1 그걸로도.(그걸로도.)
 107055 #2 예. 마농쥬으로도 저 무슨 거 장아찌 담습니께.(예. 마늘쥬으로도 저 무슨 거 장아찌 담습니다.)
 107055 @1 예.(예.)
 107055 #2 마농쥬으로 허여근에 장아찌 담습니다. 아이고, 그 육지서는 그것이 대중으로덜 험니께. 켄디 여기는 그런 것도 안 험니다.(마늘쥬으로 해서 장아찌 담습니다. 아이고, 그 육지서는 그것이 보통으로들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도 안 합니다.)
 107055 @1 케난 마농진 요 얼마전이 이거 마농 허기 전이 흐뎀.(그러니까 마늘 장아찌 요 얼마전에 이거 마늘 하기 전에 조금.)
 107055 #2 예, 예. 마농 허기 전이.(예, 예. 마늘 하기 전에.)
 107055 @1 저 부드러운 때에 즐라당, 그 대.(저 부드러운 때에 즐라다가, 그 대.)

123) ‘양엿간’은 양하의 땅속 줄기에서 솟아나는, 죽순 비슷한 꽃이삭을 말한다.

107055 #2 부드러운 때에, 그거 쫓 아니 나온 때에.(부드러운 때에, 그거 좋 아
니 나온 때에.)

107055 @1 안 나온 때에.(안 나온 때에.)

107055 #2 예, 그거 그 안 나온 때에 허여야.(예, 그거 그 안 나온 때에 하여야.)

107055 @1 그것도 쫓라근에.(그것도 잘라서.)

107055 #2 아니 나온 때 허여야 부드럽고 경 안 허민 질깁니께.(아니 나온 때
하여야 부드럽고 그러지 않으면 질깁니다.)

107055 @1 게민 지금 이제 마농 과지 안헛수과양?(그러면 지금 이제 마늘 과지
않았습니까?)

107055 #2 예, 마농 판.(예, 마늘 봤어.)

107055 @1 게민 그 알맹이만?(그러면 그 알맹이만?)

107055 #2 예, 알맹이만.(예, 알맹이만.)

107055 @1 알맹이만 또 딱로 안 헛니까?(알맹이만 또 따로 안 합니까?)

107055 #2 것도 저 뭐, 무슨 거 장아찌 헛니께. 알맹이만.(그것도 저 뭐, 무슨
거 장아찌 합니다. 알맹이만.)

107055 @1 알맹이만양?(알맹이만요?)

107055 #2 예.(예.)

107055 @1 예.(예.)

107055 #1 그것도 좋아마썸. 거기 식당에도 나오곡. 마늘장아찌.(그것도 좋아요.
거기 식당에도 나오고. 마늘장아찌.)

장 담그기

107059 @1 장은 언제 담가수가?(장은 언제 담갔습니까?)

107059 #2 양? 게메.(예? 글썸.)

107059 @1 그.(그.)

107059 #2 그 저 음력 선달 그믐에, 쫓더래 가민 그거는 다 장 담읍니다게.(그
저 음력 선달 그믐에, 끝에 가면 그거는 다 장 담읍니다.)

107062 @1 경허젠 허민 메주는 언제 쏘니까?(그렇게 하려고 하면 메주는 언제
쏘니까?)

107062 #2 메주는 콩 다 장만헤영 콩 장만허면은 메주 썬마썸.(메주는 콩 다 장
만해서 콩 장만하면은 메주 썬요.)

107062 @1 게민 양력으로 혼 십이월?(그러면 양력으로 한 십이월?)

107062 #2 양력으로 혼 십이월 들 뵈 거우다.(양력으로 한 십이월 될 겁니다.)

107062 @1 예, 그때썬에 메주.(예, 그때썬에 메주.)

107062 #2 예, 예. 메주 썬어근에.(예, 예. 메주 썬어서.)

107062 @1 썬어근에.(썬어서.)

107062 #2 그때에 혼 들 동안은 그거 퇴와야 헤마썸.(그때에 한 달 동안은 그거

틱워야 해요.)

107062 @1 음.(음.)

107062 #2 메주 썬근에 영 췌여근에 동골동골 달아메나 기냥을 어디 놔두나 허 영. 흐 들 동안은 그것이 떠근에.(메주 썬서 이렇게 주물러서 동골동골 달아메나 그 냥을 어디 놔두나 해서. 한 달 동안은 그것이 떠서.)

107062 @1 음.(음.)

107062 #2 허여사 그루제민.(하여야 그 후면.)

107062 #1 곰팡이.(곰팡이.)

107062 #2 다 장 담는 거.(다 장 담그는 거.)

107062 @1 음.(음.)

107062 #1 곰팡이 피어야 돼.(곰팡이 피어야 돼.)

107062 @1 그 전이 메주허고 흐디 헐 거 또, 또 무시거 미릿.(그 전에 메주하고 함께 할 거 또, 또 뭐 미리.)

107062 #2 아, 그런 거.(아, 그런 거.)

107062 @1 아니, 뭐 미리 만들어야 췌 거 아니짜? 저 뭐.(아니, 뭐 미리 만들어 야 될 거 아납니까? 저 뭐.)

107062 #2 만, 만들 거 엇어마썸. 건 소금, 그 간수 허여근에 곶앙 낫당은에 물 곶라앗앙, 그자 그 메주 그 췌어 낱은에 장 담으민 그것이 끝.(만, 만들 거 없어요. 건 소금, 그 간수 해서 갈아 놓았다가 물 가라앉아서, 그저 그 메주 그 췌어 넣어서 장 담그면 그것이 끝.)

107062 @1 메주 말앙 무시거 그딤 뭐더라 누룩?(메주 말고 뭐 거기에 뭐더라 누룩?)

107062 #2 아니, 아니, 그런 거 안 합니다.(아니, 아니, 그런 거 안 합니다.)

107062 #1 누룩은 술, 술.(누룩은 술, 술.)

107062 @1 양?(예?)

107062 #1 누룩은 술. 막걸리.(누룩은 술. 막걸리.)

107062 @2 술. (웃음)(술. (웃음))

107062 @1 아, 술 헐 때 누룩 놓읍니까?(아, 술 할 때 누룩 넣습니까?)

107062 #2 예, 술 헐 때. 그건 술.(예, 술 할 때. 그건 술.)

107062 @1 메주 헐 땐 그자 소금만?(메주 할 땐 그저 소금만?)

107062 @2 예. 소금만.(예. 소금만.)

107062 #1 예, 소금만.(예. 소금만.)

107062 #2 예, 그것만 곶아 놓는 거마썸.(예, 그것만 갈아 넣는 거예요.)

107062 @1 아, 메주, 메주엔.(아, 메주, 메주엔.)

107062 #2 메주에는 그 저 소금만.(메주에는 그 저 소금만.)

107062 @1 소금만.(소금만.)

107062 #2 갈아 놓곡 물 곶아 놓고 허민.(갈아 놓고 물 갈아 놓고 하면.)

107062 @1 설달에.(설달에.)

107062 #2 술 헐 때사 누룩 넣는 거. (웃음)(술 할 때야 누룩 넣는 거. (웃음))

107062 @1 경 혜영 그딴서 이제 웬장도 만들어 내곡.(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된장도 만들어 내고.)

107062 #2 간장도.(간장도.)

107062 @1 간장도 만들어 내곡.(간장도 만들어 내고.)

107062 #2 예, 예.(예, 예.)

107061 @1 고추장 따로 만.(고추장 따로 만.)

107061 #2 아, 고추장 따로 허는 건 건 따로 허여마썸.(아, 고추장 따로 하는 건, 건 따로 해요.)

107061 @2 음.(음.)

107061 @1 따로?(따로?)

107061 #2 예. 고추장 허는 거는, 그거 다 그딴 재료가 다 있어마썸. 고춧가루도 고추장 담젠 허민 막 가늘게 곱곡, 이제 그딴 물엿도 넣곡, 하간 거, 거기 들어가는 게 또 하마썸. 누룩가루도 허곡, 이제 또 저 곱가루이엔 현 거.(예. 고추장 하는 거는, 그거 다 거기 재료가 다 있어요. 고춧가루도 고추장 담그려고 하면 막 가늘게 갈고, 이제 거기 물엿도 넣고, 여러 가지 거, 거기 들어가는 게 또 많아요. 누룩 가루도 하고, 이제 또 저 곱 가루라고 하는 거.)

107061 @1 곱가루?(곱 가루?)

107061 #2 곱가루이엔 현 그것도 싯곡.(곱 가루라고 하는 그것도 있고.)

107061 @1 음.(음.)

107061 #2 경혜사 허는 거난. 그거는 틀려마썸. 장 담는 것광.(그래야 하는 거니까. 그거는 달라요. 장 담그는 것과.)

107061 @1 거 곤잘 마루 해근에 놓지 안헛수과?(거 흰쌀 가루 해서 넣지 않았습니까?)

107061 #2 아니, 찹쌀가루 죽 허 썬영 놓은덴 헛디다. 우린 고치장.(아니, 찹쌀가루 죽 해서 썬어서 넣는다고 함디다. 우린. 고추장.)

107061 @1 찹쌀가루 죽 썬근에?(찹쌀가루 죽 썬어서?)

107061 #2 예, 저 죽, 그런, 고치장은 담가 보지 안허난 모르쿠다. 사당만 먹언.(예, 저 죽, 그런, 고추장은 담가 보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사다가만 먹어서.)

107061 @1 오오.(오오.)

107061 #2 고추지 또 해 춤 저딴 육지 사름덜은 고치장허고 이제 무신 춤 그런 거 아니 담양은 흘 게 엇인 상이랍디다.(고추지 또 해, 참 저기 육지 사름들은 고추장하고 이제 무슨 참, 그런 거 아니 담가서는 할 게 없는 모양입디다.)

107061 @1 음.(음.)

107061 #2 원, 그 고치장을 우선 담아근에.(원, 그 고추장을 우선 담가서.)

107061 #1 여기는 웬장.(여기는 된장.)

107061 #2 (웃음)((웃음))

107061 #1 일년 열두 달 뽕장만 먹어. 뽕장만.(일 년 열두 달 뽕장만 먹어. 뽕장만.)

107063 @1 장 돕글 때 무시겨 이거 이거 허지 말라.(장 돕글 때 뭐 이것 이것 하지 말라.)

107063 #2 아.(아.)

107063 @1 날 봐근에 헛디가?(날 봐서 하셨습니까?)

107063 #2 날 뽕 해마썸. 이녁 그 이, 집안에 그, 헤치 엇은 날에 허는 거.(날 봐서 해요. 이녁 그 이, 집안에 그, 띠 없는 날에 하는 거.)

107063 @1 헤치 엇인 날에?(띠 없는 날에?)

107063 #2 예.(예.)

107063 @2 음.(음.)

107063 #1 띠, 띠.(띠, 띠.)

107063 @2 띠양.(띠요.)

107063 #1 가족들 중에.(가족들 중에.)

107063 #2 견디 그 장 담양, 무사 헤치 엇인 날 험신곤 허난, 그 장 먹도록 그 사람이, 그 아멩헤도 그 장이 짜난에.(그런데 그 장 담가서, 왜 띠 없는 날 하고 있는고 하니, 그 장 먹도록 그 사람이, 그 아무래도 그 장이 짜니까.)

107063 @1 음.(음.)

107063 @2 음.(음.)

107063 #2 좋질 안허난에 그것 헤치 엇은 날 허는 생이랍디다.(좋질 았으니까 그것 띠 없는 날 하는 모양입디다.)

107063 @2 게난 집안에 개헤치 뭐 득헤치가 이시믄 그뻐, 그뻐 안 허고.(그러니까 집안에 개띠, 뽕 닭띠가 있으면 그뻐, 그뻐 안 하고.)

107063 #2 예.(예.)

107063 @1 음.(음.)

107063 #2 돛띠나 쉼띠나 이제 쥐띠나 신 사람은, 그런 날은 안 허고.(돼지띠나 소띠나 이제 쥐띠나 있는 사람은, 그런 날은 안 하고.)

107063 @1 음.(음.)

107063 #2 이제 장 담는 날은, 제일 그 무슨건가 허는 날은, 이 저 므날이엔 현 날 허곡, 뭐 이 토끼날허곡 그런 날도 허고, 이 저 다 이녁 집이 헤치 엇인 날은. (이제 장 담그는 날은, 제일 그 무엇인가 하는 날은, 이 저 말날이라고 하는 날하고, 뭐 이 토끼날하고 그런 날도 하고, 이 저 다 이녁 집에 띠 없는 날은.)

107063 #1 므날은.(말날은.)

107063 #2 장 담는 거.(장 담그는 거.)

107063 #1 툄 마 해연 오일이고.(말 마 해서 오일이고.)

107063 @2 예.(예.)

107063 #1 저, 저.(저, 저.)

107063 @2 말 오 자예.(말 오 자요.)

107063 #1 술일. 개띠. 개, 개날 거 좋은 날.(술일. 개띠. 개, 개날 거 좋은 날.)

107063 @1 아, 그런 날은 담갓어마씀?(아, 그런 날은 담갓어요?)

107063 #1 예.(예.)

107063 @1 아.(아.)

107063 #1 토끼날. 묘일.(토끼날. 묘일.)

107063 @1 ㅁ날이나 토끼날은.(말날이나 토끼날은.)

107063 #1 거 좋은 날.(거 좋은 날.)

107063 @1 예.(예.)

107063 #2 아이, 옛날엔 이 쥐날허곡 뱀날은 장 담으민 그런 것이 장에.(아이, 옛날엔 이 쥐날하고 뱀날은 장 담그면 그런 것이 장에.)

107063 #1 건.(건.)

107063 #2 발생헌텐 그걸 아이 담아낫텐 험디다.(발생한다고 그걸 아니 담갓었다고 함디다.)

107063 @1 아.(아.)

107063 #1 인일, 인일.(인일, 인일.)

107063 @1 쥐, 뱀.(쥐, 뱀.)

107063 #2 예.(예.)

107063 @1 쥐날, 뱀날은 안 담갓구나양.(쥐날, 뱀날은 안 담갓군요.)

107063 #2 예.(예.)

107063 @1 음. ㅁ날은 돔그곡.(음. 말날은 담그고.)

107063 #2 예.(예.)

107063 @1 득날은?(닭날은?)

107063 #2 득 날도 그런 헤치 엇은 사름은 돔고. 겨난 이 저 장을 옛날엔 하영 담으난, 그런 쥐 ㅁ쁜 건 아멩헤도 그런 거, 쥐가 놀아 뎅기는 겨난, 그거 빠지카부텐 경 장 그런 건 안 헌텐마씨.(닭날도 그런 띠 없는 사름은 담그고. 그러니까 이 저 장을 옛날엔 많이 담그니까, 그런 쥐 같은 건 아무래도 그런 거, 쥐가 날아다니는 거니까, 그거 빠질까 봐 그렇게 장 그런 건 안 한다고요.)

107063 @2 (웃음).((웃음).)

107063 @1 음. 득날은 그딴 베랭이 일민 그거 좇어 먹어 불 겨난에.(음. 닭날은 거기 벌레 생기면 그거 주워 먹어 버릴 거니까.)

107063 #2 경허, 경허난에.(그러, 그러니까.)

107063 @1 경허난 안 헤신가.(그래서 안 했는가.)

107063 #2 그거 이치로 경헌 생이라.(그거 이치로 그런 모양이야.)

107082 @1 (웃음) 순대, 순대, 큰일 할 때 순대 담양 먹엇지양?((웃음) 순대, 순대, 큰일 할 때 순대 담아서 먹엇지요?)

107082 #2 순대 담는 거는, 그거는 그 모, 메밀ㄱ를이나 이제 저 무신건가, 밀가
를이나 그거.(순대 담는 거는, 그거는 그 모, 메밀가루나 이제 저 무엇인가, 밀가루
나 그거.)

107082 #1 아이 순대는 논쟁이ㄱ를이 들어가주.(아이 순대는 나깨가루가 들어가
지.)

107082 #2 옛날이사 그거 헛주마는 이제는 그거 안 해여.(옛날에야 그거 했지마
는 이제는 그거 안 해.)

107082 #1 논쟁이ㄱ를, 순대에는.(나깨가루, 순대에는.)

107082 @1 음.(음.)

107082 #2 겨난 그 요즘은 저 찹쌀밥 허여 농곡, 이제 그 뭐 찹쌀가를 농곡 경
행 맛좋게 요새엔 험니께. 건디 옛날엔 찹, 거 논쟁이ㄱ를이나 농곡.(그러니까 그
요즘은 저 찹쌀밥 해서 넣고, 이제 그 뭐 찹쌀가루 넣고 그렇게 해서 맛좋게 요새
엔 합니다. 그런데 옛날엔 참, 거 나깨가루나 넣고.)

107082 #1 그 돼야지 잡은 피가 잇잖아. 피.(그 돼지 잡은 피가 잇잖아. 피.)

107082 @1 예, 예, 피.(예, 예, 피.)

107082 #1 피를 꼭 받아.(피를 꼭 받아.)

107082 @1 예.(예.)

107082 #1 거 순대에 쓸라고.(거 순대에 쓰려고.)

107082 @2 음.(음.)

107082 #1 피를 배설에.(피를 창자에.)

107082 @2 맞수다.(맞습니다.)

107082 @1 그 잔치 전전날.(그 잔치 전전날.)

107082 #1 예. 꼭 피를 받았당. 그 순대에는 피가 들어가야 돼.(예. 꼭 피를 받
았다가. 그 순대에는 피가 들어가야 돼.)

107082 #2 요즘도 순대엔 다 피 남수게.(요즘도 순대엔 다 피 넣습니다.)

107082 @1 경허영 거기에.(그렇게 해서 거기에.)

107082 #1 순대 돕는 기술자가 있어.(순대 담는 기술자가 있어.)

107082 @1 피허고 그 다음 그, 논쟁이ㄱ를 모물허고.(피허고 그 다음 그, 나깨
가루 메밀허고.)

107082 #1 ㄱ를 농곡.(가루 넣고.)

107082 #2 경허민 그디 양념이엔 현 건 파허곡.(그러면 거기 양념이라는 건 파
허고.)

107082 @1 파허고.(파허고.)

107082 #2 그 하근 거 그자. 막 양념은 그 그런 거, 파 ㄱ쁜 거, 그자 그런 거
주로 놓읍디다게.(그 여러 가지 그저. 막 양념은 그 그런 거, 파 같은 거, 그저 그런
거 주로 놓읍디다.)

107082 @1 음. 경허영 잔치, 가문잔치 험 때 그거 쓰고양.(음. 그렇게 해서 잔

치, ‘가문잔치’ 할 때 그거 쓰고요.)

107082 #2 가문잔치¹²⁴고 원 그냥 원 잔치고 간에 순대는 그건.(‘가문잔치’고 원, 그냥 원 잔치고 간에 순대는 그건.)

107082 @1 들어가고.(들어가고.)

107082 #2 다 들어가는 거.(다 들어가는 거.)

107083 @1 두부도 만들어마쭈?(두부도 만들어요?)

107083 #2 아이고, 두부도 멘들꼭말고. 옛날엔 잔치 현 때엔 그 저 무슨건가 요새엔 방엿간에 강 곶아 와근에 허여도, 그때는 장남들 허여근에 막 ㄱ레에 밤이덜 헤영, 낮인 일허레 강 오꼭 밤이덜은. 거난 옛날은 그 ㄱ를이 ㄱ레 곶민 하지 안헤 부난 콩을 저 무신 건가 하영 허는 집인 콩 열 말이엔 허민 요새엔 혼 가마니 웹실 거라.(아이고, 두부도 만들고말고. 옛날엔 잔치 할 때엔 그 저 무엇인가, 요새엔 방앗간에 가서 갈아 와서 하여도, 그때는 장정들 해서 막 멧돌에 밤에들 해서, 낮엔 일하러 가서 오고 밤에들은. 그러니까 옛날은 그 가루가 멧돌에 갈면 많지 않아 버리니까, 콩을, 저 무엇인가 많이 하는 집엔 콩 열 말이라고 하면 요새엔 한 가마니 되고 있을 거야.)

107083 @1 음.(음.)

107083 #2 그거 ㄱ레에 다 곶아근에 이젠 그 주머니로 허영 문딱 짜근에.(그거 멧돌에 다 갈아서 이젠 그 주머니로 해서 모두 짜서.)

107083 @2 음.(음.)

107083 #2 또시 이젠 솥에 삶양.(다시 이젠 솥에 삶아서.)

107083 @2 음.(음.)

107083 #2 이제 그 두부가 트랑트랑허게 돼민 이제 또 그 하꼬쪽에 바근에 이제 짜근에 허민 두부가 되는 거 아니짜. 경허난.(이제 그 두부가 ‘트랑트랑하게’ 되면 이제 또 그 상자에 넣어서 이제 짜서, 하면 두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7083 @1 음.(음.)

107083 #2 그때엔 그 두부가 큰일 때에는 두부허고 돼지케기가 질 그건 필수품.(그때엔 그 두부가, 큰일 때에는 두부허고 돼지고기가 제일 그건 필수품.)

107083 @1 으음. 아, 계난 생, 생, 그 콩을 그 물.(으음. 아, 그러니까 생, 생, 그 콩을 그 물.)

107083 #1 방에에 곶양.(멧돌에 갈아서.)

107083 @1 방에에 곶양 그 물을 짱.(멧돌에 갈아서 그 물을 짜서.)

107083 #2 예.(예.)

107083 @1 그걸 삶아수과?(그걸 삶았습니까?)

107083 #2 예, 그걸 삶아.(예, 그걸 삶아.)

107083 @1 콩을, 콩을 삶은 게 아니고.(콩을, 콩을 삶은 게 아니고.)

124) ‘가문잔치’는 혼례를 치르는 전날에 가까운 친척들끼리 잔칫집에 모여 치르는 간편한 잔치이다.

107083 #2 콩 삶은 게 아니고, 콩가루 허영 그걸 이제 주머니 담은 것에 이제 막 짭니다.(콩 삶은 게 아니고, 콩가루 해서 그걸 이제 주머니 담은 것에 이제 막 짭니다.)

107083 @1 짱.(짜서.)

107083 #2 짱, 사람들 막 모여 와근에.(짜서, 사람들 막 모여 와서.)

107083 @1 예.(예.)

107083 #2 그걸 짜근에 이젠 삶양, 이젠 그걸 이제.(걸 짜서 이젠 삶아서, 이젠 그걸 이제.)

107083 @1 짜근에 나온 물을.(짜서 나온 물을.)

107083 #2 예.(예.)

107083 @1 물을 삶양?(물을 삶아서?)

107083 #2 물을 삶양 이젠 그걸로 두부가 뉘면은, 이젠 또 저, 하꼬쪽에 놔근에 막 저, ㄹ레착 지들르멍 그걸 두부 멘들아마썸.(물을 삶아서 이젠 그걸로 두부가 뉘면은, 이젠 또 저, 상자에 넣어서 막 저, 멧돌 지지르면서 그걸 두부 만들어요.)

107083 @1 음.(음.)

107083 #1 그 찌꺼기는 저디.(그 찌꺼기는 저기.)

107083 #2 요새엔 비지.(요새엔 비지.)

107083 #1 비제기, 비제기.(비지, 비지.)

107083 #2 비지엔 허주마는 옛날은 비제긴디. 그것도 집집마다 다 혼 박세기씩 돌려마썸. 경허난 그것도 아이 쥐렌 막 승허고 해낫수다. (웃음)(비지라고 하지마는 옛날은 비제긴디. 그것도 집집마다 다 한 바가지씩 돌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 주더라고 막 홍보고 했었습니다. (웃음))

107083 #1 아이고, 참 먹도 아녀.(아이고, 참 먹지도 않아.)

107083 #2 아이고, 어려움도, 어려움도. (웃음)(아이고, 어려움도, 어려움도. (웃음))

107083 #1 지금 쉼, 쉼 이 두부 공장에선 비제기 해당 다 쉼덜 다 쥐.(지금 소, 소 이 두부 공장에선 비지 해다가 다 소들 다 쥐.)

107083 @1 예.(예.)

107083 #1 그거 그것도 어려울 때.(그거 그것도 어려울 때.)

107083 #2 계난 그때에는 그 공장이 었으난 다 ㄹ레에만 주로 곶안에 콩을 곶양, 그걸 이제 주머니에 짱, 그 물을 삶양 그 두부를 멘들아마썸.(그러니까 그때에는 그 공장이 없으니까 다 멧돌에만 주로 갈아서 콩을 갈아서, 그걸 이제 주머니에 짜서, 그 물을 삶아서 그 두부를 만들어요.)

107083 @1 비제긴 어느 걸 비제기엔 허는 거파?(비지는, 어느 걸 비지라고 하는 겁니까?)

107083 #2 아, 그거 그, 저.(아, 그거 그, 저.)

107083 #1 짱 찌꺼기, 찌꺼기.(짱 찌꺼기, 찌꺼기.)

107083 #2 그거 무슨 거 짜난.(그거 무슨 거 찢던.)
 107083 @1 짤 그 저.(짤 그 저.)
 107083 #2 응, 짤 찢끼기.(응, 짤 찢끼기.)
 107083 @1 그 저, 험벽 쏘굽에 이신 거예.(그 저, 형겔 속에 있는 거요.)
 107083 #1 이신 거.(있는 거.)
 107083 #2 예. 그거를, 그거를.(예. 그거를, 그거를.)
 107083 #1 비제기.(비지.)
 107083 #2 비제기엔 허고 그 짤 물은 이제 또 삶으면 비, 둬부가 돼곡.(비제기라고 하고, 그 짤 물은 이제 또 삶으면 비, 두부가 되고.)
 107083 #1 삶양 둬부가 되는 거지.(삶아서 두부가 되는 거지.)
 107084 @1 음. 모뎀목을 만드느.(음. 메밀목을 만드느.)
 107084 #2 모뎀목은 가를로 그 마레에 곶양 가를로 멘든 곶로 그곶 목으로 썩니다게. 물 놓곡 허여근에 적당히 물 낱 썩영 허면은 그 목이 돼마썩.(메밀목은 가루로 그 멧돌에 갈아서 가루로 만든 곶로 그곶 목으로 썩니다. 물 넣고 해서 적당히 물 넣어서 썩어서 하면은 그 목이 돼요.)
 107084 @2 음, 그건 마레에 곶아 가지고예?(음, 그건 멧돌에 갈아 가지고요?)
 107084 @1 마레에 곶은 그, 그 마루를.(멧돌에 간 그, 그 가루를.)
 107084 #2 예. 그 마를로.(예. 그 가루로.)
 107084 #1 그 제스 때 쓰지, 잔치 뎀 아니 쓰고. 제스 때만 모뎀목은.(그 제사 때 쓰지, 잔치 뎀 아니 쓰고. 제사 때만 메밀목은.)
 107084 @1 모뎀목은.(메밀목은.)
 107084 #1 잔치 때는 두부, 두부허고.(잔치 때는 두부, 두부하고.)
 107084 @1 두부. 제스 때는.(두부. 제사 때는.)
 107084 #1 모뎀목.(메밀목.)
 107085 @1 모뎀목. 음. 특별히 청목은 또.(메밀목. 음. 특별히 ‘청목’은 또.)
 107085 #2 청목¹²⁵⁾은 썩로만 이제 물 찢다근에 주머니에 낱 짜근에 현 거는 청목이우다게.(‘청목’은 쌀로만 이제 물 찢다가, 주머니에 넣고 짜서 한 거는 ‘청목’입니다.)
 107085 @1 두부 만들듯이 청목.(두부 만들듯이 청목.)
 107085 #2 예.(예.)
 107085 @1 청목도 만드느 거구나양?(‘청목’도 만드느 거군요?)
 107085 #2 예, 예.(예, 예.)
 107085 @2 거 썩로?(거 쌀로?)
 107085 #2 예. 썩 물, 저 모뎀썩 물로 찢당 짜근에 그 물로 이제 목을 썩면은 청목.(예. 쌀 물, 저 메밀쌀 물로 찢다가 짜서 그 물로 이제 목을 썩면은 ‘청목’.)
 107085 @1 아아.(아아.)

125) ‘청목’은 ‘메밀쌀을 불린 후 눌러서 생긴 앙금으로 썩 목’이다.

107085 #2 가를묵으로 썬면 가를묵.(가루묵으로 썬면 가루묵.)
 107085 @1 으음.(으음.)
 107085 #2 청묵은 쌀로 물을 찻당 즈질앙 썬 게 청묵.(‘청묵’은 쌀로 물을 찻다가 ‘즈질아서’ 썬 게 청묵.)
 107085 @1 음.(음.)
 107085 #2 ㄱ를로 썬 거는 그냥 가를묵.(가루로 썬 거는 그냥 가루묵.)
 107085 @2 그냥 묵. 메밀묵 그냥.(그냥 묵. 메밀묵 그냥.)
 107085 #2 메밀묵. 기냥 메밀묵. 경허난 주머니로 찻 거는 청묵이고.(메밀묵. 그냥 메밀묵. 그러니까 주머니로 찻 거는 ‘청묵’이고.)
 107085 @1 음.(음.)
 107085 #2 가를로 멘든 거는 메밀묵이고.(가루로 만든 거는 메밀묵이고.)
 107085 @1 예.(예.)
 107085 #2 그거 경허는 겨우다.(그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107086 @1 요새 보리 영 어, 헤 오민 개역 헤 먹지 안헛수과?(요새 보리 영 어, 헤 오면 미숫가루 헤 먹지 않았습니까?)
 107086 #2 예. 그건 미숫가루이엔 허영양 개역 행 먹는 건디, 옛날은 그 오월 장마가 이젠 잘 오월 장마가 잘 엇어마썸. 그때는 오월 장마 지민 그자 그 솟데 놔근에 그 보릴 보까마썸.(예. 그건 미숫가루라고 해서 미숫가루 해서 먹는 건데, 옛날은 그 오월 장마가 이젠 잘 오월 장마가 잘 없어요. 그때는 오월 장마 지면 그저 그 솟에 넣고 그 보릴 볶아요.)
 107086 @2 보까.(볶아.)
 107086 @1 보리를.(보리를.)
 107086 #2 예, 보릴 보깡 막 저 무슨 거세기 막탱이로, 베수기로 허영 막 젓으민 허얏게 피어낭 허민.(예, 보릴 볶아서 막 저 무슨 뒤 막대로, 죽젓개로 해서 막 저으면 하얏게 피어나서 하면.)
 107086 @2 음.(음.)
 107086 #2 그거를 이젠 그 갈아. ㄱ레에 그때는 방에 공장이 웃으난 ㄱ레에 곶아근에, 그자 소곰 농곡 곶앙 그걸 미숫가루로 먹어낫수다게.(그거를 이젠 그 갈아. 맷돌에 그때는 정미소가 없으니까, 맷돌에 갈아서 그저 소곰 넣고 갈아서, 그걸 미숫가루로 먹었었습니다.)
 107086 @1 음.(음.)
 107086 #2 하이고, 요즘이사 콩 보까 농곡, 이제 또 뭐 께도 농곡 하근 거 허여근에 맛있게 허영 미숫가루 먹엄주마는, 옛날엔 그 보리 보까근에 그자 ㄱ레에 곶앙 소곰 농곡.(하이고, 요즘에야 콩 볶아 넣고, 이제 또 뭐 께도 넣고 여러 가지 해서 맛있게 해서 미숫가루 먹고 있지마는, 옛날엔 그 보리 볶아서 그저 맷돌에 갈아서 소곰 넣고.)
 107086 #1 그걸 개역이라 해서 그것도 어려와낫어.(그걸 미숫가루라 해서 그것

도 어려웠었어.)

107086 #2 (웃음)((웃음))

107086 #1 아주 저디 이, 소덜 개인이 질화 가지고 저 목장에 올리면 일허 버려.(아주 저기 이, 소들 개인이 길러 가지고 저 목장에 올리면 잃어 버려.)

107086 @1 예.(예.)

107086 #1 소덜 도망가민. 거 좇이레 가젠 허면, 저 며칠 간 그 전대에 개역을 낱 텡이명 물 칸 먹어.(소들 도망가면. 거 좇으러 가려고 하면, 저 며칠 간 그 전대에 미숫가루를 넣고 다니면서 물 타서 먹어.)

107086 @1 예.(예.)

107086 #1 거 어디 저 하천 ㄴ쁜 디 물 시민 그 디서.(거 어디 저 하천 같은 데 물 있으면 거기서.)

107086 @1 예, 예. 음. 그런 용으로예.(예, 예. 음, 그런 용으로요.)

107086 #1 쉼 좇이레 텡길 때에 꼭 개역을 둘러메영 가.(소 좇으러 다닐 때에 꼭 미숫가루를 둘러메고 가.)

107086 @1 음.(음.)

107086 #2 겨난 그 개역이엔 그 미숫가루 먹으면은 으름에는 그 더우난 더월 견단텐, 춤 이 옛날 어른덜 잘 곱아났어.(그러니까 그 ‘개역’이라고 그 미숫가루 먹으면은 여름에는 그 더우니까 더월 견단다고, 참 이 옛날 어른들 잘 말했었어.)

107086 @1 음. 경 어디 저 장마 허거나 영 비 하영 와 가민.(음. 그렇게 어디 저 장마 하거나 이렇게 비 많이 와 가면.)

107086 #1 아이, 오월 장마에 개역은.(아이, 오월 장마에 미숫가루는.)

107086 @1 개역.(미숫가루.)

107086 #1 집집마다 허고 어디덜 아이 강 놀 때는.(집집마다 하고 어디들 아니 가서 놀 때는.)

107087 @1 개역만 안 헤영, 또 무시 거 지정 먹기도 허지 안헛수과? 지짐이 ㄴ쁜 거 장마에.(미숫가루만 안 하고, 또 뭐 지져서 먹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짐이 같은 거 장마에.)

107087 #2 에이, 그런 것도 안 허고.(에이, 그런 것도 안 하고.)

107087 @1 안 허여.(안 해.)

107087 #2 밧디 그자 밧디 강 검질 메곡 그자 그런 거나 허연. 거는. 요즘이사 뭐 미숫ㄴ를도 그자 정미소에 가민 다 사오는 겨난. 에이, 이제.(밭에 그저 밧에 가서 김 매고 그저 그런 거나 했어. 거는. 요즘이야 뭐 미숫가루도 그저 정미소에 가면 다 사오는 거니까. 에이, 이제.)

107088 @1 이제랑 그 저, 제일 잘 아는 거, 오메기술¹²⁶⁾ 영 곱아 봅서. 오메기술 어떻 만드.(이제는 그 저, 제일 잘 아는 거, ‘오메기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

126) ‘오메기술’은 차좁쌀 가루를 익반죽해 만든 오메기떡에 누룩을 섞어 반죽한 후 적당량의 물을 넣어 발효시킨, 제주 전통 민속주이다.

메기술 어떻게 만드.)

107088 #2 오메기술은 그거 무시건가 그건 누룩부떠 먼저 해 놔사마썸.(오메기 술은 그거 무엇인가 그건 누룩부떠 먼저 해 놓아야 해요.)

107088 @1 누룩은.(누룩은.)

107088 #2 누룩은 저 맥주보리 까까근에.(누룩은 저 맥주보리 깎아서.)

107088 @2 음.(음.)

107088 #2 이제 방앗간에 강 가깡 이제 그 쉼 문딱 가까 됨 쓸만 내영 곱아근 에, 그걸 저 무시건가 물 농곡 허여근에, 이제 그 무시건가 쉼여근에, 영 영 헤영 놔 뒷당에 허면은, 혼 들 동안 터도 그게 잘 마르질 안해마썸.(이제 방앗간에 가서 깎아서 이제 그 쉼 모두 깎아 두고 쌀만 내어서 갈아서, 그걸 저 무엇인가 물 넣고 해서, 이제 그 무엇인가 주물러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놔 뒷다가 하면은, 한 달 동안 터도 그게 잘 마르질 안해요.)

107088 @2 음.(음.)

107088 #2 잘 몰라야 이제 또 그 또시 뺏으면 그름이 잘 나오지. 경 안 허민 끈 적끈적 해근에 잘 나오지 안 해마썸. 겨난 그 누룩 허영 놔 뒷다근에 이젠 다 잘 터근에 허면은, 누룩이 잘 터사 오메기 찰 술 허면 맛이 좋아마썸. 트지 안허민 이 술이 잘 안 돼어마썸.(잘 말라야 이제 또 그 다시 뺏으면 가루가 잘 나오지. 그러지 않으면 끈적끈적해서 잘 나오지 안해요. 그러니까 그 누룩 해서 놔뒷다가 이젠 다 잘 터서 하면은, 누룩이 잘 터야 오메기 찰 술 하면 맛이 좋아요. 트지 않으면 이 술이 잘 안 돼요.)

107088 @1 음.(음.)

107088 #2 쉼지도 잘 안 허곡 저 무신 거 허는디, 그거 누룩을 찻짜 잘 허여야. (괴지도 잘 안 하고 저 뭐 하는데, 그거 누룩을 찻짜 잘해야.)

107088 @1 음.(음.)

107088 #2 술이 잘 돼마썸. 경허난 누룩 잘 허영 농곡, 저 누룩 허영 이제 그거 뺏아근에 허민, 이제 또 개발시리 쓸이엔 현 건 흐린쉴 해근에, 그 우리 험 때는 그 찰 술을, 나 험 때는 방앗간이 시난 강 그 좁쌀을 물로 찌지 안허영, 그냥 마른 차 곱아다근에 집이 왕 물 놔근에 저 물을 막 끓여근에 허민.(술이 잘돼요. 그러니까 누룩 잘 해서 놓고, 저 누룩 해서 이제 그거 뺏아서 하면, 이제 또 ‘개발시리’ 쌀이 라고 한 건 차좁쌀 해서, 그 우리 할 때는 그 찰 술을, 나 할 때는 방앗간이 있으니까 가서 그 좁쌀을 물로 찌지 않고, 그냥 마른 채 갈아다가 집에 와서 물 넣어서 저 물을 막 끓여서 하면.)

107088 @1 음.(음.)

107088 #2 그 마른 그르레 허민, 무, 떡이 아멩해도 그 그름이 익으면 끈닥끈닥 허영, 오메기로 그 고망 툐라근에, 영, 영 쉼영 동골락허게 영 한 가운데로 고망 툐 라근에, 이젠 그걸 솟디 놔근에 솟아근에, 떡을 잘 익어근에 허여야, 오메기 떡도 허민 그게 잘 익곡 허영.(그 마른 가루에 하면, 무, 떡이 아무래도 그 가루가 익으

면 끈닥끈닥해서, 오메기로 그 구멍 뚫어서, 이렇게, 이렇게 쥐어서 둥그랗게 이렇게 한 가운데로 구멍 뚫어서, 이젠 그걸 술에 넣어서 삶아서, 떡을 잘 익어서 해야, ‘오메기떡’도 하면 그게 잘 익고 해서.)

107088 @1 음.(음.)

107088 #2 그 누룩광 이제 찰이 거의 거의 ㄱ짜. 누룩 흔 말이면 찰도 흔 말에 치 허여근에 이젠 술을 허영 허민, 초벌 허영 놔뒀당 흔 들쭈은 돼민 다시 이젠 두 불 해 놓젠 허민, 또 누룩에 또 좁쌀 해다근에 이젠, 또 오메기떡 허영 찌근에 이젠 또 술을 허여 놔마썸.(그 누룩과 이제 찰이 거의 거의 같이. 누룩 한 말이면 찰도 한 말어치 해서 이젠 술을 해서 하면, 초벌 해서 놔뒀다가 한 달쭈은 되면 다시 이젠 두벌 해 놓으려고 하면, 또 누룩에 또 좁쌀 해다가 이젠, 또 오메기떡 해서 찌서 이젠 또 술을 해 놓아요.)

107088 @1 음.(음.)

107088 #2 술을 해놔. 시번을 초불 두불 시불을 해 놓으면 술이 말깡헌 게 저 기름이 동골 동골 동골 터마썸 노랑게. 겨민 술이 구수하고 먹으면은 막 술도 취하고.(술을 해 놓아. 세 번을 초벌, 두벌, 세벌을 해 놓으면 술이 말간 게 저 기름이 동동동 떠요 노랑게. 그러면 술이 구수하고 먹으면은 막 술도 취하고.)

107088 @2 음.(음.)

107088 #2 건디 또 그 청주엔 현 거 덜어 불튼은 또 이제 쏘곱에 밀에 거는 막 걸리가 돼마썸. 그거 막걸리도 먹고 청주도 우리 그 저 무시거가 모진 멧질을 흔 십이 년산디 십오 년산디 말아 놓으난 너량 그 오메기 멘들양 술, 청주를 허연.(그런데 또 그 청주라고 하는 거 덜어 버리면은, 또 이제 속에 밀에 거는 막걸리가 돼요. 그거 막걸리도 먹고, 청주도 우리 그 저 뭔가 ‘모진 멧질’을 한 십이 년인지 십오 년인지 말아 놓으니까, 늘 그 오메기 만들어서 술, 청주를 했어.)

107088 @1 예.(예.)

107088 #2 너량 해낫수다게.(늘 했었습니다.)

107088 @1 음.(음.)

107088 #2 경허난 췌짜 이 누룩을 잘 띄와야 술이 잘뻥디다게.(그러니까 췌짜 이 누룩을 잘 띄워야 술이 잘뻥디다.)

107088 @1 맥주, 아 저 메주 띄, 띄우듯이 누룩을.(맥주, 아 저 메주 띄, 띄우듯이 누룩을.)

107088 #2 예. 메주 띄우듯이 띄와도.(예. 메주 띄우듯이 띄워도.)

107088 @1 누룩을 띄우고.(누룩을 띄우고.)

107088 #2 경 행 잘 트면은 그 쏘곱에 꽃이 발강게 터마썸.(그렇게 해서 잘 트면은 그 속에 꽃이 발강게 터요.)

107088 @1 음.(음.)

107088 #2 경허난 경 잘 터야 술이 좋고, 경 메주가 잘 안 춤 저.(그러니까 그렇게 잘 터야 술이 좋고, 그렇게 메주가 잘 안 춤 저.)

107088 @1 음.(음.)

107088 #1 빨강허여 영 벌르면은 메주. 누룩이.(빨개. 이렇게 쪼개면은 메주. 누룩이.)

107088 @1 아, 누룩이.(아, 누룩이.)

107088 #2 저 무신 건가 누룩이 잘.(저 무엇인가 누룩이 잘.)

107088 #1 들랑 술 허젠 딱 끓으민 빨강허여. 경허여.(말라서 술 하려고 딱 끓으면 빨개. 그래.)

107088 @2 게난 오메기떡은 술을 안 만든 게 오메기떡? 술로 만들, 술로, 술 향아리에 들어가 불른 건 떡이 아니고? 그 전이 게 오메기떡?(그러니까 ‘오메기떡’은 술을 안 만든 게 ‘오메기떡’? 술로 만들, 술로, 술 향아리에 들어가 버리면 건 떡이 아니고? 그 전의 게 ‘오메기떡’?)

107088 #2 그거. 그것이 오마기떡¹²⁷.(그거. 그것이 ‘오마기떡’.)

107088 @2 그거 전이 게?(그거 전의 게?)

107088 #2 누룩에 서꺼져근에 허는 게, 그게 오마기떡으로 그 누룩을 서끄는 거.(누룩에 섞어져서 하는 게, 그게 ‘오마기떡’으로 그 누룩을 섞는 거.)

107088 @2 음.(음.)

107088 @1 오메기떡 허고 누룩 서끄고 그 다음 또 들어가는 게 아까 무신 밥? 쌀밥마썸?(‘오메기떡’ 하고 누룩 섞고 그다음 또 들어가는 게 아까 무슨 밥? 쌀밥이예요?)

107088 #2 아이, 아이. 쌀밥이 아니고.(아이, 아이. 쌀밥이 아니고.)

107088 @1 끝? 이걸로 끝?(끝? 이걸로 끝?)

107088 #2 이걸로 끝. 오메기떡 행 농곡 누룩에 서경 놓으민 그것이 끝.(이걸로 끝. 오메기떡 해서 넣고 누룩에 섞어서 넣으면 그것이 끝.)

107088 @1 경 헤영 물 놓으민.(그렇게 해서 물 넣으면.)

107088 #2 예.(예.)

107088 @1 아.(아.)

107088 #2 겨난 물도 그자 적당히 낱, 많이도 놓으면은 맛이 엇곡.(그러니까 물도 그저 적당히 넣어서, 많이도 넣으면은 맛이 없고.)

107088 @2 응.(응.)

107088 #2 그 쌀광 누룩광 그 물이 거의 거의 ㄹ뜨게 허민 그 쌀, 찰 오메기가 다 썩으면은 술이 뽕주기게.(그 쌀과 누룩과 그 물이 거의 거의 같게 하면 그 쌀, 찰 ‘오메기’가 다 썩으면은 술이 되지요.)

107088 @1 아.(아.)

107088 #2 겨민 구수허곡 또 술이, 술에 어떻게산디 기름이 터마썸.(그러면 구수하고 또 술이, 술에 어떻게 해서인지 기름이 떠요.)

127) ‘오마기떡’은 제주에서 차좁쌀을 익반죽해서 둥글게 만든 것이다. 고물을 묻혀 떡으로 먹기도 하고, 고물을 묻히지 않고 술을 빚기도 한다. 제보자는 ‘오마기떡’이라고 발음했다.

107088 @2 음.(음.)

107088 #2 동골동골, 동골허게 노리롱허게.(‘동골동골’ 동골 하게 노르스름하게.)

107088 @2 잘 발효가 돼 가지고.(잘 발효가 돼 가지고.)

107088 #2 예. 발효가 됐니까.(예. 발효가 되니까.)

107088 #1 저 그 좁쌀에 기름이 있어. 좁쌀에.(저 그 좁쌀에 기름이 있어. 좁쌀에.)

107088 @2 음.(음.)

107088 #1 검은 좁쌀에 기름이 있어.(검은 좁쌀에 기름이 있어.)

107088 @1 개발시리.(‘개발시리’.)

107088 #1 예, 거 기름이 있어.(예, 거 기름이 있어.)

107088 #2 예, 그것에 지름인가 해나마썸. 경허난 술이 별경허여마썸. 경허난 그
게 잘 익은 술이 됐든 구수허여마썸.(예, 그것의 기름인가 해요. 그러니까 술이 별
개요. 그러니까 그게 잘 익은 술이 되면 구수해요.)

107090 @1 케민 그거 꺾사 누룩 만들젠 허민 어떻마썸? 누룩.(그러면 그거 아
까 누룩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요? 누룩.)

107090 #2 누룩 만들쟁 허민.(누룩 만들려고 하면.)

107090 @1 무신.(무슨.)

107090 #2 그 맥, 맥주보리를.(그 맥, 맥주보리를.)

107090 @1 맥주보리.(맥주보리.)

107090 #2 그 방앗간에 강은에 그 저 체를 다 까까.(그 방앗간에 가서 그 저 체
를 다 깎아.)

107090 @1 예.(예.)

107090 #2 까강에 이제 또 그걸 곱아 와마썸.(깎아서 이제 또 그걸 갈아 와요.)

107090 @1 곱앙.(갈아서.)

107090 #2 곱앙, 이제 또 집이 왕 또 물 놓곡 허영 누룩을 만들라마썸. 메주 멘
들듯이 만들야.(갈아서, 이제 또 집에 와서 또 물 넣고 해서 누룩을 만들어요. 메주
만들듯이 만들어.)

107090 @1 만들앙.(만들어서.)

107090 #2 예.(예.)

107090 @1 그다음은.(그다음은.)

107090 #2 그다음은 놔뒀당 띄와마썸. 그걸 터.(그다음은 놔뒀다가 띄워요. 그걸
띄워.)

107090 @1 아 띄와?(아 띄워?)

107090 #2 예, 띄와. 메주 띄우듯이 띄와.(예, 띄워. 메주 띄우듯이 띄워.)

107090 @1 케난 익히는 건 아니로구나양?(그러니까 익히는 건 아니로군요?)

107090 #2 익히는 건 아니.(익히는 건 아니.)

107090 @1 아니, 그냥 아.(아니, 그냥 아.)

107090 #2 그거는 뜨게만 만드는 거.(그거는 뜨게만 만드는 거.)

107090 @1 생, 생ㄱ를.(생, 생가루를.)

107090 #2 예, 생ㄱ를로.(예, 생가루로.)

107090 @1 생ㄱ를로 누룩 만드는 거구나.(생가루로 누룩 만드는 거구나.)

107090 #2 계란 요즘에 막걸리 멘들듯이 멘드는 거마썸.(그러니까 요즘에 막걸리 만들듯이 만드는 거예요.)

107090 @1 으음.(으음.)

107090 #2 경허영 그 누룩이 다 들랑 이제 또 깨지면은 가를이 뉘연. 그것에 오마기 멘들양 그 누룩가를허곡 ㄱ찌.(그렇게 해서 그 누룩이 다 말라서 이제 또 깨지면은 가루가 되어. 그것에 ‘오메기’ 만들어서 그 누룩가루하고 같이.)

107090 @1 음.(음.)

107090 #2 찌근에 또 향아리레 들이첫당 그 술을 만드는 거라마썸.(찌서 또 향아리에 들이뜨렸다가 그 술을 만드는 거예요.)

107091 @1 음. 옛은 만들젠 허민 어떻 험니까? 옛.(음. 옛은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옛.)

107091 #2 옛은 만들젠 허민, 그 옛날은 검은 좁쌀 헤여근에 그걸로 허영 이제 또 무시것고.(옛은 만들려고 하면, 그 옛날은 검은 좁쌀 해서 그걸로 해서 이제 또 무엇인가.)

107091 #1 골 잇어낫주, 골.(옛기름 있었지, 옛기름.)

107091 #2 골, 골가를이엔 현 거, 그 저 옛기름이엔 현 것에 ㄱ찌 서경 허영 낫당은에, 겨민 그걸 영, 손으로 영 췌부라 보면은, 쌀이 다 이제 그 허물어저근에 술 모양으로 됩니다게. 경허민 그거 다 췌질아 뒤근에 물만 낱 쫄이면은 옛이 되는 거.(골, ‘골가루’라고 하는 거 그 저, 옛기름이라고 하는 것에 같이 섞어서 해서 놓았다가, 그러면 그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췌질아’ 보면은 쌀이 다 이제 그 부서져서 술 모양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거 다 ‘췌질아’ 두고 물만 넣고 쫄이면은 옛이 되는 거.)

107091 @1 계란 골, 골은 또 무시 걸로 만드는 거우파? 골은.(그러니까 옛기름, 옛기름은 또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옛기름은.)

107091 #2 골은 것도 보리로 만드는 거.(옛기름은 그것도 보리로 만드는 거.)

107091 @1 맥주보리?(맥주보리?)

107091 #2 맥주보리로 만든 것이 더 좋아마썸.(맥주보리로 만든 것이 더 좋아요.)

107091 @1 예.(예.)

107091 #2 그거는 골을 만들젠 허면은, 이제 또 보리를 물로 찌근에 낫당, 그거를 자꼬 이 저 무시것가 그것ㄱ라 무슨 거엔 허느니. 콩나물콩 넣듯이 자꼬 물 주멍.(그거는 옛기름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또 보리를 물로 찌서 놓았다가, 그거를 자꾸 이 저 뒷인가 그것을 뒷라고 하나. 콩나물콩 넣듯이 자꾸 물 주면서.)

107091 @1 예, 예.(예, 예.)

107091 #1 보리, 싹이 터, 싹이.(보리, 싹이 터, 싹이.)

107091 #2 보리, 보리 싹이 나와.(보리, 보리 싹이 나와.)

107091 @1 예, 예.(예, 예.)

107091 #2 보리 싹이 나와 요만큼씩 나오면은 그걸 이젠 또 말려마썸.(보리 싹이 나와서 요만큼씩 나오면은 그걸 이젠 또 말려요.)

107091 @1 물리와.(말려.)

107091 #2 물리와근에 이젠 그걸 또 굴양, 이젠 또 그물로 굴아근에, 이젠 그 좁쌀에 밥 허영 그것에 낱근에, 놔뒀당은에 그 짜근에 허면은 그것이 옛이 되는 거.(말려서 이젠 그걸 또 갈아서, 이젠 또 가루로 갈아서, 이젠 그 좁쌀에 밥 해서 그것에 넣어서, 놔뒀다가 그 짜서 하면은 그것이 옛이 되는 거.)

107091 @1 음.(음.)

107091 #2 것도 복잡헌 거우다게.(그것도 복잡한 겁니다.)

107091 @1 아, 경험 그 옛은 무신 옛, 무신 옛 만들어 먹어수가?(아, 그렇게 해서 그 옛은 무슨 옛, 무슨 옛 만들어 먹었습니까?)

107091 #2 아무 옛이라도 그거 놓으면은 뭐 득 잡아 놔도 옛 돼고.(아무 옛이라도 그거 놓으면은 뭐 닭 잡아 놔도 옛 되고.)

107091 @1 득옛 돼고.(닭옛 되고.)

107091 #2 아무 것도.(아무 것도.)

107091 @1 꿩 잡양 놓으면 꿩옛 돼고.(꿩 잡아서 놓으면 꿩옛 되고.)

107091 #2 예. 저 뭐 돼지래기 그.(예. 저 뭐 돼지고기 그.)

107091 @1 아.(아.)

107091 #2 지름기 옛는 거 놔도 옛이 돼고.(기름기 없는 거 넣어도 옛이 되고.)

107091 @1 돼지고기로도 옛 돼는구나양.(돼지고기로도 옛 되는군요.)

107091 #2 예, 쫄깃쫄깃 해 더 좋아마썸.(예, 쫄깃쫄깃 해 더 좋아요.)

107091 @1 아. 또 다른 거 또 무시거 뭐.(아. 또 다른 거 또 무슨 거 뭐.)

107091 #2 아아, 예, 그거.(아아, 예, 그거.)

107091 @1 마농.(마늘.)

107091 #2 마농도 놔도 돼곡.(마늘도 넣어도 되고.)

107091 @1 음.(음.)

107091 #2 마농 놓으면 더 좋주 뭐.(마늘 넣으면 더 좋지 뭐.)

107091 @1 아, 마농도 해연 먹어 보고.(아, 마늘도 해서 먹어 보고.)

107091 #2 예.(예.)

107091 @1 호박도 놔 봅디가?(호박도 넣어 보셨습니까?)

107091 #2 예, 호박도 놓고 아무 거 놔도 돼마썸.(예, 호박도 넣고 아무 거 넣어도 돼요.)

107091 @1 음, 게민 그자 다른 거 무시 거 놓느냐에 따라.(음, 그러면 그자 다

른 거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107091 #2 예, 예, 옛, 옛, 옛지름이엔 현 건 그 보리 놔근에, 콩나물 농듯이 그 주름 나곡 밭 나곡 다 허영, 그거를 다시 이젠 물리양, 또 가를로 갈양은에 허민 그 좁쌀 허영.(예, 예, 옛, 옛, 옛기름이라고 하는 건 그 보리 놓아서, 콩나물 농듯이 그 '주름' 나고 밭 나고 다 해서, 그거를 다시 이젠 말려서, 또 가루로 갈아서 하면 그 좁쌀 해서.)

107091 @1 음.(음.)

107091 #2 ㄱ를 농곡 헤영 침, 밥을 허영 그걸 옛ㄱ를 놔근에 허면은 건 옛이 되는 거.(가루 넣고 해서 찜, 밥을 해서 그걸 옛기름가루 넣어서 하면은 그건 옛이 되는 거.)

107091 @1 음.(음.)

107091 #1 감주허고, 옛허고.(감주하고, 옛하고.)

107089 @1 음, ㄱ사 그 누룩으로 이제 쉰다리도 허지 안협니까?(음, 아까 그 누룩으로 이제 '쉰다리'도 하지 않습니까?)

107089 #2 예, 예, 거 누룩으로 쉰다리도 멘들아마썸.(예, 예, 거 누룩으로 '쉰다리'도 만들어요.)

107089 @1 케민 ㄱ사 만들듯이.(그러면 아까 만들듯이.)

107089 #2 예.(예.)

107089 @1 누룩은 똑같은 거고.(누룩은 똑같은 거고.)

107089 #2 예, 예. 그것들은 밥 허여 놔근에 그 무신건가 누룩 놔근에 놔두민, 흔 이틀 놔두민 그것이 쉰다리 웹주게.(예, 예. 그것들은 밥 해서 넣어서 그 무엇인가 누룩 넣어서 놔두면, 한 이틀 놔두면 그것이 '쉰다리' 되지요.)

107089 @1 예.(예.)

107089 #2 그걸로 옛날은 저 무슨건가 보리떡도 멘들아낫수게게. 빵이엔 현 거. (그걸로 옛날은 저 무엇인가 보리떡도 만들었었습니다. 빵이라고 하는 거.)

107089 @1 쉰다리로?('쉰다리'로?)

107089 #2 예, 그걸로 멘드는 거마썸.(예,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107089 @1 밥. 밥허고.(밥. 밥하고.)

107089 #1 쉰, 옛날에는.(쉰, 옛날에는.)

107089 @1 저, 저 누룩허고.(저, 저 누룩하고.)

107089 #2 예.(예.)

107089 @1 물허고 영 헤영.(물하고 이렇게 해서.)

107089 #2 예.(예.)

107089 @1 일주일 동안 놔두민.(일주일 동안 놔두면.)

107089 #2 일주일 동안 아니고 흔 삼일만 놔두민 막 웹니다게. 경허난.(일주일 동안 아니고 한 삼일만 놔두면 막 웹니다. 그러니까.)

107089 #1 그 쉰다리엔 현 게 그 말이 옛날엔 냉장고도 엇고 아무 것도 엇으난

밥을 좀 많이 허면은 밥이 저 썬 쉬어, 쉬어.(그 ‘썬다리’라고 하는 게 그 말이 옛날엔 냉장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밥을 좀 많이 허면은 밥이 저 썬, 쉬어, 쉬어.)

107089 @2 쉬어, 쉬어. 예.(쉬어, 쉬어. 예.)

107089 #1 이제 그, 그, 썬밥으로 썬다리를 허는 거주기게. 이게 썬다리주기게.(이제 그, 그, 썬밥으로 ‘썬다리’를 하는 거지. 이게 썬다리지.)

107089 #2 아이, 그때는 밥이 쉬난 그거 험 먹었주마는 그냥 맛 좋게 허영 먹어도. 밥, 그냥 그.(아이, 그때는 밥이 쉬니까 그거 해서 먹었지마는 그냥 맛 좋게 해서 먹어도. 밥, 그냥 그.)

107089 @1 안 쉬어도?(안 쉬어도?)

107089 #2 예. 안 쉬어도 썬다리 멘들아 먹는 거.(예. 안 쉬어도 ‘썬다리’ 만들어 먹는 거.)

107089 @1 예 예. 안 쉬어도. 쉬난, 음.(예 예. 안 쉬어도. 쉬니까, 음.)

107089 #2 썬다리엔 허는 거. (웃음)(‘썬다리’라고 하는 거. (웃음))

107089 #1 썬밥으로 험낫주기게. 어려완. 그거 썬밥 데껴 불린. 썬다리 험영 먹언.(썬밥으로 했었지. 어려워서. 그거 썬밥 던져 버리겠냐고. ‘썬다리’ 해서 먹었어.)

107089 @1 아이고, 이거 고맙수다. 저, 저 우리 여자 삼춘.(아이고, 이거 고맙습니다. 저, 저 우리 여자 삼춘.)

107089 #2 아이고, 그만.(아이고, 그만.)

6. 주생활

구조

108001 @1 오늘은 그, 집 짓어난 얘기 흐끔 영 들어 보쿠다.(오늘은 그, 집 지었던 얘기 조금 이렇게 여쭙 보겠습니다.)

108001 #1 음.(음.)

108001 @1 그, 옛날 집은 다 초가집일 거고.(그, 옛날 집은 다 초가집일 거고.)

108001 #1 예게.(예.)

108001 @1 짓어뵈디가?(지어 보셨습니까?)

108001 #1 저 스십팔 년, 이, 저, 이 동네는, 그, 저 스십팔년도에 소개현, 소개령을 받안 완 새로 지은 동넵주기게.(저 사십팔 년, 이, 저, 이 동네는, 그, 저 사십팔년도에 소개현, ‘소개령’을 받아서 와서 새로 지은 동네입니다.)

108001 @1 사삼사건 때?(사삼사건 때?)

108001 #1 예예. 스삼스건 때이.(예예. 사삼사건 때.)

108001 @1 예예.(예예.)

108001 #1 게난 스삼스건이 전에는 왜정 때나 행정 구역이, 애월면 어도 일구.

또, 어도 이구는 으섯 개 마을이, 자연 마을.(그러니까 사삼사건이 전에는 일제강점기 때나 행정 구역이, 애월면 어도 일구. 또, 어도 이구는 여섯 개 마을이, 자연 마을.)

108001 @1 음.(음.)

108001 #1 막 떨어전 혼 두 참씩 떨어전, 곳곳에 사는 으섯 개 마을이 어도 이군디. 스삼스건이, 그 발생허니까, 어도 일구는 소개령을 안 허고, 이구는 으섯 개 마을이 전부 소개령을 해 가지고.(막 떨어져서 한 두 참씩 떨어져서, 곳곳에 사는 여섯 개 마을이 어도 이군데. 사삼사건이, 그 발생하니까, 어도 일구는 소개령을 안 하고, 이구는 여섯 개 마을이 전부 소개령을 해 가지고.)

108001 @1 음.(음.)

108001 #1 전부 일구를 내려온 거라마썸. 이, 저, 집 빌언. 그 이웃들 ㄴ쁜 아는 사람덜 집 빌런 완. 예, 스삼스건이 음력으로 시월 혼 십오일 경에 발생허난, 바로 겨울이 든 겹주.(전부 일구로 내려온 거예요. 이, 저, 집 빌려서. 그 이웃들 같은 아는 사람들 집 빌려서 왔어. 예, 사삼사건이 음력으로 시월 혼 십오일 경에 발생하니까, 바로 겨울이 든 거지요.)

108001 @1 예.(예.)

108001 #1 내려 완. 예, 방 혼 두, 두 방쯤 혼 모커리 ㄴ뻐 디 협소허게덜 늬이 집 빌언 완 사는디. 예, 식구는 그때 많았어. 혼 집이 혼 여남은 식구덜씩도 허고. 게영 헌디. 어디 춤 살 수가 엇잖우파게.(내려 와서. 예, 방 한 두, 두 방쯤 한 결채 같은 데 협소하게들 남의 집 빌려서 와서 사는데. 예, 식구는 그때 많았어. 한 집에 한 여남은 식구들씩도 하고. 그렇게 한데. 어디 참 살 수가 없잖습니까.)

108001 @1 음.(음.)

108001 #1 식구덜은 하고, 먹을 것도 엇고 허난. 저, 삼월달, 그때에도 그 일구 이구가 합병을 아니 해 가지고 행정이 그때도 이구가 잇고, 늬이 집 빌어도, 이구가 잇고 일구가 잇고. 헛는데 이구 사람덜이 다 소개민덜이 그중에 좀 똑똑헌 분이 혼 멧 사람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구장 헤낫수다, 이구 구장.(식구들은 많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저, 삼월, 그때에도 그 일구 이구가 합병을 아니 해 가지고 행정이 그때도 이구가 있고, 남의 집 빌려도, 이구가 있고, 일구가 있고. 했는데 이구 사람들이 다 소개민들이 그 중에 좀 똑똑한 분이 한 멧 사람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구장 했었습니다, 이구 구장.)

108001 @2 예에.(예에.)

108001 #1 구장이난에. 예, 구장신디 와서 의논을 헌 거라. 우리, 하루도 늬이 집 못 살겠다. 이것이 이거 저, 아주 부잣집 강○○라는 땅이, 이 산 위에 삼십칠 번지 삼천 평이 있는데. 첨, 봉성에, 어도에서는 제일 부잡주게. 땅이, 워낙.(구장이니까. 예, 구장한테 와서 의논을 한 거라. 우리, 하루도 남의 집 못 살겠다. 이것이 이거 저, 아주 부잣집 강○○라는 땅이, 이 산 위에 삼십칠 번지 삼천 평이 있는데. 첨 봉성에, 어도에서는 제일 부자이지요. 땅이, 워낙.)

108001 @1 음.(음.)

108001 #1 조상 대대로 종손이고 현디. 우리 권당이라마씀, ㄴ쁜 권당인디. 가서 이 땅을 왜상으로, 돈 주지 말고, 저, 얻어다가 집을 짓자 헐. 현디 그디 그 유명한 분이. 그때 그 경찰 이디 주둔해서. 경찰. 경찰 그 주둔한 경찰소장을, ㄴ찌 들안 갔어. 그 엄포주젠, 밧 임제. 안 내 놓으민 조금 욱을 해근에. 추구런 경찰 ㄴ란 간에, 이 밧을 왜상으로 내놓으라, 우리 돈도 엇고, 이루제 돈 벌영 주겠다. 그때 자유당 때 아니우파계.(조상 대대로 종손이고 한테. 우리 권당이에요, 같은 권당인데. 가서 이 땅을 왜상으로, 돈 주지 말고, 저, 얻어다가 집을 짓자 해서. 했는데 거기 그 유명한 분이. 그때 그 경찰 여기 주둔해서. 경찰. 경찰, 그 주둔한 경찰소장을 같이 데리고 갔어. 그 엄포주려고, 밧 임자. 안 내 놓으면 조금 욱을 해서. 추겨서 경찰 데리고 가서, 이 밧을 왜상으로 내놓으라, 우리 돈도 없고, 이후에 돈 벌어서 갚겠다. 그때 자유당 때 아닙니까.)

108001 @1 음.(음.)

108001 #1 허난. 아 이젠 그 사람이 이제, 아이구, 경 허렌. 돈 한 폰 아니 받고 이거를. 그냥 주다시피 한 삼천 평 땅을 허난. 그때에 한, 다 갈라서마씀. 한 사람이 한 구십 평 백 평 미만.(하니까. 아 이젠 그 사람이 이제, 아이구, 그렇게 하라고. 돈 한 폰 아니 받고 이거를. 그냥 주다시피 한 삼천 평 땅을 하니까. 그때에 한, 다 나뉘어. 한 사람이 한 구십 평, 백 평 미만.)

108001 @1 음.(음.)

108001 #1 같르고 또, 그 어떤 사람은, 그 부모네 ㄴ찌 사는 사람. 뭐, 특찍을 타. 부모네 찍히고 그거 이녀 찍히고, 두 찍 다 허면은 한 백오십 평, 이백 평씩 타고. 경허곡 해서, 이건 우리 집은 한 백칠십 평 이거 땅인디. 이거 일번. 구장. 구장.(나누고 또, 그 어떤 사람은, 그 부모네 같이 사는 사람. 뭐, 특별한 몫 받아. 부모네 몫하고 그거 이녀 몫하고, 두 몫 다 하면은 한 백오십 평, 이백 평씩 받고. 그렇게 하고 해서, 이건 우리 집은 한 백칠십 평 이거 땅인데. 이거 일번. 구장. 구장.)

108001 @2 음. 구장 집.(음. 구장 집.)

108001 #1 예. 구장집. 그때 그, 요 이 길로 이 서쪽만 문딱 그, 그, 받아 와십주게. 동쪽은 너네덜 알양.(예. 구장 집. 그때 그, 요 이 길로 이 서쪽만 모두 그, 그, 받아 왔지요. 동쪽은 너희들 알아서.)

108001 @1 음.(음.)

108001 #1 집 짓으라 해연에, 구획하고. 그 이 서쪽만, 그 강○○이네 밧을 다 공짜로 빌어단 우리가 일번. 그때 재무 보던 사람이 이번. 그때 옛날 그 원로 한 사람이 삼번 영 해 가지고, 일, 이, 삼 영 헐 쪽 허게, 조금 유지덜만 이 이디 다.(집 짓으라 해서, 구획하고. 그 이 서쪽만, 그 강○○이네 밧을 다 공짜로 빌려다가 우리가 일 번. 그때 재무 보던 사람이 이 번. 그때 옛날 그 원로 한 사람이 삼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일, 이, 삼 이렇게 해서 쪽 하게, 조금 유지들만 이 여기 다.)

108001 @1 음.(음.)

108001 #1 빌언 허고. 조끔 뭇헌 사름덜은 각처에 그자 개인적으로 땅덜 구입헤 단애. 집을 짓는다. 그때에, 그 소개령 내려 가지고 허난, 집을 다 튕영 나가라 허니까. 흥 일주일여간 경 안 혀든 불 부쨌 불쨌다 허난. 사름이 그땐 뭇 기계가 잇어수과, 뭇 차가 이수과. 흥, 가족, 흥단 경 헤 노니까.(빌려서 하고. 조끔 뭇헌 사름들은 각처에 그저 개인적으로 땅들 구입해다가. 집을 짓는데. 그때에, 그 ‘소개령’ 내려 가지고 하니까, 집을 다 뜯어서 나가라 하니까. 한 일주일여 간 그렇게 안 하면 불 붙여 버리쨌다 하니까. 사름이 그땐 뭇 기계가 있었습니까, 뭇 차가 있습니까. 한, 가족, 하다가 그렇게 해 놓으니까.)

108001 @1 음.(음.)

108001 #1 이녀 집만 튕는다게, 오죽합니까게. 초가집이 저기 저 가족만 튕언. 딱 지어 와서, 지어 내려 완. 세 거리 보통 집이, 예, 보통 촌에는, 쉼, 안팎거리허곡 쉼막허고 세 거린다. 안거리만 튕언 오고, 밧거리허고 쉼막은 내 부난 다 불질러 불어서마썸, 건디. 게난 안거리만, 다 지은 겹주. 이미 들어간 이 동네가 다 짓언. 예, 흥 삼스 월 뉼난애, 다 완료헨덜, 그자 대충 지언덜 다, 참 늙이 집은 뉼 명이영 사는다. 그때도 스삼스건이 한창일 때난, 우리 집은 한림, 우리 친족이 완 짓단, 목수가 우리, 예, 팔촌 뉼는 사름이 완 지어집주.(이녀 집만 튕는데, 오죽합니까. 초가집이 저기 저 가족만 뜯어서. 딱 지어 와서, 지어 내려 와서. 세 채, 보통 집에, 예, 보통 촌에는, 소, 안팎채하고 외양간하고 세 채인데. 안채만 뜯어서 오고, 바깥채하고 외양간은 내 버리니까 다 불 질러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안채만, 다 지은 거지요. 이미 들어가서 이 동네가 다 지어서. 예, 한 삼사 월 되니까, 다 완료해서 들, 그저 대충 지어서들 다, 참 남의 집은 뉼 명과 사는데. 그때도 사삼사건이 한창일 때이니까, 우리 집은, 한림 우리 친족이 와서 짓다가, 목수가 우리, 예, 팔촌 뉼는 사름이 와서 지었지요.)

108001 @1 음.(음.)

108001 #1 한림 사름이 완 이거 집을 짓는다. 집을 짓단, 이야, 거를 그땐 차가 이수가, 한림서 걸영 왕 목수질 허당 어두우민 집이, 한림 가곡 영 허는다. 아, 걸영 가단계 그 집 짓단 우리 팔촌 형님이 아무 쉼도 엇인디 우리 집을 짓단, 그날만 피헤시민 살 건디, 걸언 가는다, 예비검속, 딱 걸려 가지고 질레서 만난 경찰관이영. (한림 사름이 와서 이거 집을 짓는데. 집을 짓다가, 이야, 거를 그땐 차가 있습니까, 한림에서 걸어서 와서 목수질 하다가 어두우면 집에, 한림 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 걸어서 가다가 그 집 짓던 우리 팔촌 형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 집을 짓다가, 그날만 피했으면 살 건데, 걸어서 가는데, 예비검속 딱 걸려 가지고 길에서 만난 경찰관과.)

108001 @1 음.(음.)

108001 #1 무조건 심는 거라, 경찰관, 예비검속 때난. 심어단, 그, 저, 지금도 그디 우리 가 완. 백조일손이라고 헤서, 저 안덕¹²⁸)에 가면은.(무조건 붙잡는 거라, 경

찰관, 예비검속 때니까. 붙잡아다가, 그, 저, 지금도 거기 우리 가 왔어. ‘백조일손’ 이라고 해서, 저 ‘안덕’에 가면은.)

108001 @2 백조일손. 예, 예.(‘백조일손’. 예, 예.)

108001 #1 궤에 이제, 갇혀 가지고, 혼 백 명. 그 우리 팔촌도 그덜 심어단 혼 번에 총살해 부난.(굴에 이제, 갇혀 가지고, 한 백 명. 그 우리 팔촌도 거길 붙잡아 다가 한 번에 총살해 버리니까.)

108001 @1 음.(음.)

108001 #1 그냥 혼 멧, 일 년 내 부니까, 구분을 못 허는 거라. 그, 겨난에, 시체 덜이 여러 명이난 무사, 구분을 못 허난 그 백조일손으로 혼번에 그 우리 팔촌도 이제 지금도 그디 들어가 이십주. 백조일손 예비검속으로. 게난, 예, 그로 후에 이제 이녁냥으로 다 허다시피 흑 브르명 행 거여 헨 살고. 저 쉼막은 소낭땀디 간 소낭 끈어당 쉼막, 쉼, 쉼 웃영은 못 사니까. 쉼막 짓으고 헛는다.(그냥 한 멧, 일 년 내 버리니까, 구분을 못 하는 거라. 그, 그러니까, 시체들이 여러 명이니까 왜, 구분을 못 하니까 그 ‘백조일손’으로 한번에, 그 우리 팔촌도 이제 지금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백조일손. 예비검속으로. 그러니까, 예, 그 후에 이제 이녁대로 다 하다시피 흑 바르면서 해서 거의 해서 살고. 저 외양간은 소나무 밭에 가서 소나무 끊어다가 외양간, 소, 소 없어서는 못 사니까. 외양간 짓고 헛는데.)

108001 @1 음.(음.)

108001 #1 혼 일이 년은 이 동네가, 그때 백호랏는디 백, 백명, 백명 백호간? 짓 었는다. 개인적으로 땅도 구입허곡 그렌들. 그자 이 동네 짓언에 이 완료뉼난, 스십 구 년도에 완료 뉼난에, 그때 일구에서 제안 오기를, 일구 구장이, 이 너네덜은, 예, 이디 완, 이제 일구에 ㄱ찌 완 사니까, 이구를 폐쇄허고, 일구레 다 들어오라. 경허 니까 이제, 그 그러쨌다고 해 가지고 이 백호가 일구레 다 들어가도, 천대를 굉장히 받아십주. 그때 말이 이 일구 사름덜은 저 재건지 것들이영 허여. 재건, 재건해연 온 것덜.(한 일이 년은 이 동네가, 그때 백호였는데 백, 백 명, 백 명 백호 간? 지었 는데. 개인적으로 땅도 구입하고 그래서들. 그저 이 동네에 지어서 이 완료되니까, 사십구 년도에 완료되니까, 그때 일구에서 제안 오기를, 일구 구장이, 이 너희들은, 예, 여기 와서, 이제 일구에 같이 와서 사니까, 이구를 폐쇄하고, 일구로 다 들어오 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그러쨌다고 해 가지고 이 백 호가 일구로 다 들어가도, 천대를 굉장히 받았어요. 그때 말이 이 일구 사람들은 저 ‘재건지 것들’이라고 해. 재건, 재건해서 온 것들.)

108001 @1 음.(음.)

108001 #1 재건지 것덜, 재건지 것덜 허명, 막 비판 받곡 춤 못 살곡 해연 허는 디. 그, 예, 보니까, 그때 참 어려운 때 이 식량이나 막 어려운 땀디, 우리 집 짓을 때도, 그때에 그 저 이구에서 구서기, 구서기가 셔나고, 그때에 그 심부름허는 소서 가 셔낫수다. 소서라고 해서. 동네에 요즘 ㄱ뜨민 그 뭐 급서 이런 식으로 혼연. 행

128) ‘안덕’은 서귀포시 안덕면을 말한다.

소서, 소서 허면은, 저디 조끔 계급이 얇은 사름. 결혼할 때 ㄱ틀 때면, 이제, 신부나 영 들러 텡기곡 허는 소서 집안이 셔마썸.(재건지 것들, 재건지 것들 하면서, 막 비판 받고 참 못 살고 해서 하는데. 그, 예, 보니까, 그때 참 어려운 때 이 식량이나 막 어려운 때인데, 우리 집 지을 때도, 그때에 그 저 이구에서 구서기, 구서기가 있었고, 그때에 그 심부름하는 소사가 있었습니다. 소사라고 해서. 동네에 요즘 같은 면 그 뭐 급사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서 소사, 소사 하면은, 저기 조금 계급이 얇은 사름. 결혼할 때 같은 때면, 이제, 신부나 이렇게 들어서 다니고 하는 소사 집안이 있어요.)

108001 @1 음.(음.)

108001 #1 웨 일가들이 경허냐민 저디, 대서 때는 왕 듯 잡으렌 허민 듯 잡곡. 그런 건디, 아침이 오면은 그, 지정된 소서허고 구서기가 집이 왕 밥을 먹어. 구장칩이 강 아침을. 밥을 먹영. 아이고, 그때 이녁 식구도 한한허고 헌디, 집도 문 ㄱ치기 전이덜 오란. 그 다 오란게 밥, 구장칩이 이거 옛날 어려운 때이고 허난, 그자, 구장칩이 살다시피 헛주게. 그 이사무실이 엇고 아무것도 엇으난, 구장칩이 이사무실이라. 책상 하나 낱 구서기 통혜영 *. 경헌, 이 동네 집을, 한 백 호가 혜연 그때에 스십구 년도에, 예, 완료혜수다, 완료.(왜 일가들이 그렇게 하느냐면 저기, 대서 때는 와서 돼지 잡으라고 하면 돼지 잡고. 그런 건데, 아침에 오면은 그, 지정된 소사하고 구서기가 집에 와서 밥을 먹어. 구장 집에 가서 아침을. 밥을 먹어. 아이고, 그때 이녁 식구도 많고 한데, 집도 모두 마치고 전에들 왔어. 그 다 와서 밥, 구장 집에 이거 옛날 어려운 때이고 하니까, 그저, 구장 집에 살다시피 헛지. 그 이사무실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구장 집이 이사무실이라. 책상 하나 놓고 구서기 통해서 *. 그렇게 했어, 이 동네 집을, 한 백 호가 해서 그때에 사십구 년도에, 예, 완료했습니다, 완료.)

108001 @1 음.(음.)

108001 #1 집을 다 짓는데. 그.(집을 다 짓는데. 그.)

108001 @1 돌 깨연에 혜수가? 아니민.(돌 깨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108001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8001 @1 아니고?(아니고?)

108001 #1 아이. 거. 돌.(아이. 거. 돌.)

108001 @1 돌로 허곡?(돌로 하고?)

108001 #1 돌이 웃으니까.(돌이 없으니까.)

108001 @1 예.(예.)

108001 #1 저, 자갈.(저, 자갈.)

108001 @1 음.(음.)

108001 #1 그, 맞축이라고 해 가지고. 돌이 어디 셔마썸게, 이 자갈칩을 다 짓젠 허난. 또, 밧담 돌은 문딱 성담[성땀] 들르명 다 ㄱ져가 불고 허난.(그, '맞축'이라고 해 가지고. 돌이 어디 있나요, 이 자갈 집을 다 지으려고 하니까. 또, 밧담 돌은 모

두 ‘성담’[성팜] 두르면서 다 가져가 버리고 하니까.)

108001 @1 아.(아.)

108001 #1 돌이 엇으난, 으만씩 현 이 자갈덜, 이, 그자 식구덜이 다, 멩텅이에
담아 오면은. 우리 할아버지도 서, 그찌 살으낫는디, 할으브지도 저 목수고 현디.
게, 우리 그, 할아버지네 아버지네, 그니까 허곡, 그 한림, 우리 한림 우리 목수고
영 허면은. 그, 잣담이라고 해 가지고. 요, 요런 거 놓아 낱 흐, 흑 뇌낭, 또 놓고
또 놓곡. 영.(돌이 없으니까, 요만씩 한 이 자갈들, 이, 그저 식구들이 다, 망태기에
담아 오면은. 우리 할아버지도 있어, 같이 살았었는데, 할아버지도 저 목수고 한테.
게, 우리 그, 할아버지네 아버지네, 그러니까 하고, 그 한림, 우리 한림 우리 목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잣담’이라고 해 가지고. 요, 요런 거 놓아 놓고 흐, 흑 놓고 나
서, 또 놓고 또 놓고. 이렇게.)

108001 @1 음.(음.)

108001 #1 마주친 담, 그 좃담.(마주친 담, 그 잣담.)

108001 @1 예.(예.)

108001 #1 저, 저, 작지로. 그엔 다 좃담이주, 좃담. 그.(저, 저, 자갈로. 그뎨 다
‘잣담’이지, ‘잣담’. 그.)

108001 @1 음.(음.)

108001 #1 흙은 돌로 지은 디는 별로 엇어낫수다.(굵은 돌로 지은 데는 별로 없
었습니다.)

108001 @1 음.(음.)

108001 #1 다 좃담. 다 무너져 가지고. 다 자갈로 주어다가. 담을 쌓앙.(다 ‘잣
담’. 다 무너져 가지고. 다 자갈로 주워다가. 담을 쌓았어.)

108001 @1 그때 짓은 집이 이거짜? 아니면? 이 자리에 다른.(그때 지은 집이
이겁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다른.)

108001 #1 이 자리. 이 자리.(이 자리. 이 자리.)

108001 @1 이 자리?(이 자리?)

108001 #1 예. 아니, 그.(예. 아니, 그.)

108001 @1 새로 지은 건, 짓은 거짜?(새로 지은 건, 지은 겁니까?)

108001 #1 이건 새로, 그 완전히 으시테겨둔 저, 초가집 뜯어 된.(이건 새로, 그
완전히 없애버리고 저, 초가집 뜯어 두고.)

108001 @1 뜯어 된에.(뜯어 두고.)

108001 #1 예, 뜯언에, 완전히 저기, 나무 다 불, 살, 저 진을커 해 불고.(예, 뜯
어서, 완전히 저기, 나무 다 불, 살, 저 빨감 해 버리고.)

108001 @1 해 불고.(해 버리고.)

108001 #1 그순새¹²⁹⁾도 진을커 다 해 불고. 새로, 이거 저, 목수 빌언 계약행
지은 디. 이거.(목은 떠도 빨감 다 해 버리고. 새로, 이거 저, 목수 빌려서 계약해서

129) ‘그순새’는 초가지붕을 덮었던 ‘목은 떠’를 말한다.

지은 데. 이거.)

108001 @1 이것도 초가집으로 짓은 거짜? 이 집.(이것도 초가집으로 지은 겁니까? 이 집.)

108001 #1 초가집 때에.(초가집 때에.)

108001 @1 음.(음.)

108001 #1 거 뜯어 된, 해 된에 그 자리에 이거 짓어십주.(거 뜯어 두고, 해 두고 그 자리에 이거 지었지요.)

108001 @1 계난 이거 원래가 초가집이우짜?(그러니까 이거 원래가 초가집입니까?)

108001 #1 예. 원래가 초가.(예. 원래가 초가.)

108001 @1 새, 새, 새로 짓은 집도?(새, 새, 새로 지은 집도?)

108001 #1 아니, 게, 초가집 뜯어 버려 된, 새로 이거 부루꾸로 해연 짓었지게.(아니, 게, 초가집 뜯어서 버려 두고, 새로 이거 벽돌로 해서 지었지.)

108001 @1 아아아.(아아아.)

108001 #1 전부 부루꾸로 새로 짓어지. 문.(전부 벽돌로 새로 지었지. 문.)

108001 @1 계난, 옛날 그 집이 아니로구나?(그러니까, 옛날 그 집이 아니로구나?)

108001 #1 예. 아니. 당초 아니. 새로 짓어.(예. 아니. 당초 아니. 새로 지었어.)

108001 @1 새로.(새로.)

108001 #1 옛날 그 집은 이제, 하나토 엇우다. 이 동네.(옛날 그 집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동네.)

108001 @1 음.(음.)

108001 #1 옛날 집은, 다 새로 짓어.(옛날 집은, 다 새로 지었어.)

108001 @1 계민 요 앞이 저, 쉼막 해난 저디도 새로 짓은 거우짜?(그러면 요 앞에 저, 외양간 했던 저기도 새로 지은 겁니까?)

108001 #1 예게. 다. 저기.(예. 다. 저기.)

108001 @1 부루꾸로?(벽돌로?)

108001 #1 예에. 부루꾸로 새로.(예에. 벽돌로 새로.)

108001 @1 아아.(아아.)

108001 #1 쉼막 행 창고로 다 새로.(외양간 해서 창고로 다 새로.)

108001 @1 음.(음.)

108001 #1 전부 다 **. 이, 이 동네 그, 저, 그, 옛날 집 남은 거는, 그때 지은 집 초가집 하나 남아 있어. 하나, 요기.(전부 다 **. 이, 이 동네 그, 저, 그, 옛날 집 남은 거는, 그때 지은 집 초가집 하나 남아 있어. 하나, 요기.)

108001 @1 음.(음.)

108001 #1 하나, 한 집.(하나, 한 집.)

108001 @1 그 집이나 이 집이나 계민, 안거리 현 다음에, 안거리 현 다음에 또

짓지 안헛수과 옆이?(그 집이나 이 집이나 그러면, 안채 한 다음에, 안채 한 다음에 또 짓지 않았습니까 옆에?)

108001 #1 아, 아니. 옆이 안 짓고 쉼막만.(아, 아니. 옆에 안 짓고 외양간만.)

108001 @1 쉼막만 짓어서마썰?(외양간만 지었어?)

108001 #1 예. 어려와 가지고.(예. 어려워 가지고.)

108001 @1 밧거리는 안 짓고?(바깥채는 안 짓고?)

108001 #1 안 짓고.(안 짓고.)

108001 @1 음.(음.)

108001 #1 쉼막만 짓단, 저기, 이, 나가 결혼허난에, 아버지네가 이 땅, 쉼 저, 집을 초가집을 날 물려줘 두고 뜯 집이 산, 간 살아십주게.(외양간만 짓다가, 저기, 이, 내가 결혼하니까, 아버지네가 이 땅, 소, 저, 집을 초가집을 나에게 물려줘 두고 뜯 집에 사서, 가서 살았습니다.)

108001 @1 아. 그 집이 간. 음.(아. 그 집에 가서. 음.)

108001 #1 뜯 집이 산 간. 아버지가. 일단 날, 날 쥐 두고.(뜯 집에 사서 갔어. 아버지가. 일단 날, 날 쥐 두고.)

108001 @1 예.(예.)

108001 #1 집터 집을 날 쥐 두고 뜯 집이 간. 계난 난 살단에, 그 저디, 그때에 지붕개량이라고 현 그, 때가 셔낫수다게.(집터 집을 날 쥐 두고 뜯 집에 갔어. 그러니까 난 살다가, 그 저기, 그때에 지붕개량이라고 하는 그, 때가 있었습니다.)

108001 @1 예.(예.)

108001 #1 처음에 스투트도 나오고. 지붕개량. 그, 나 때에, 초가집이 그 아무케 나 짓어노니까, 다 헐떨어져 가지고, 못 살안. 저, 스투트 처음 나온 때난. 벽돌, 스투트 나오난 다 이제.(처음에 슬레이트도 나오고. 지붕개량. 그, 나 때에, 초가집이 그 아무렇게나 지어 놓으니까, 다 헐어져 가지고, 못 살았어. 저, 슬레이트 처음 나온 때니까. 벽돌, 슬레이트 나오니까 다 이제.)

108001 @1 음.(음.)

108001 #1 그때 뭐. 부, 뭐, 이 중산간 마을에 집 짓느라고. 헛단 집 짓었어. 새로 그 스투트 집으로 다 무너 뛴. 초가집은게, 해년마다 새 비어당 일곡, 허젠 허면은 줄 메영. 일쟁 허민 복잡허난 스투트로 전부 이제 돈 들어도. 그 저 쉼 풀멍 헤영은에 돈 만들안.(그때 뭐. 부, 뭐, 이 중산간 마을에 집 짓느라고. 하다가 집 지었어. 새로 그 슬레이트 집으로 다 허물어 두고. 초가집은, 매해마다 떠 비어다가 이고, 하려고 하면은 줄 매어서. 이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슬레이트로 전부 이제 돈 들어도. 그 저 소 팔면서 해서 돈 만들어서.)

108001 @1 게, 스투트 올렸단에 또 그걸 뜯어 뛴 이걸 짓은 겨우짜? 아니민.(그럼, 슬레이트 올렸다가 또 그걸 뜯어 두고 이걸 지은 겁니까? 아니면.)

108001 #1 아, 초가집 뜯어 뛴 이거 짓은 거.(아, 초가집 뜯어 두고 이거 지은 거.)

108001 @1 그렇게 험.(그렇게 해서.)

108001 #1 그땐 이거, 이거 짓건 지도 혼 스십 년.(그땐 이거, 이거 지은 지도 한 사십 년.)

108001 @1 스십 년양? 음. 이 동넨 계민, 안거리, 밧거리 이신 디도 이수과? 엇?(사십 년요? 음. 이 동넨 그러면, 안채, 바깥채 있는 데도 있습니까? 없?)

108001 #1 그때?(그때?)

108001 @1 예, 아니 지금 계난. 그 요 남아 잇젠 혼 디. 옛날 그.(예,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요 남아 있다고 하는 데. 옛날 그.)

108001 #1 거 남아 잇젠 혼 디, 초가집. 하나 남아 잇는데, 그건 밧거리, 밧거리라.(거 남아 있다고 하는 데, 초가집. 하나 남아 잇는데, 그건 바깥채, 바깥채야.)

108001 @1 밧거리만 남아 잇고?(바깥채만 남아 잇고?)

108001 #1 예. 그 막 부잣집이라났어.(예. 그 막 부잣집이었었어.)

108001 @1 음.(음.)

108001 #1 밧거리도 잘 짓언. 벌른 돌로 험 다완 저디 짓은디. 그, 저, 지금도, 안거리는 이런, 이 우리 집추록 짓고.(바깥채도 잘 지었어. 깐 돌로 해서 쌓아서 저기 지었는데. 그, 저, 지금도, 안채는 이런, 이 우리 집처럼 짓고.)

108001 @1 짓고.(짓고.)

108001 #1 밧거리는 옛날 그대로.(바깥채는 옛날 그대로.)

108001 @1 옛날 그대로 잇고.(옛날 그대로 잇고.)

108001 #1 뜯지 안 험 고만이 나뉘.(뜯지 안 해서 가만히 놔뒀어.)

108001 @1 쉼막도 그 집인 이수과? 따로.(외양간도 그 집에는 있습니까? 따로.)

108001 #1 쉼막? 근, 옛날에, 쉼막도 그, 뒀, 왕이 이섯는디, 쉼막은 지금은 다 뜯언 엇고. 안거리허고 밧거리만.(외양간? 근, 옛날에, 외양간도 그, 뒀, 외양간도 잇었는데, 외양간은 지금은 다 뜯어서 없고. 안채하고 바깥채만.)

108001 @1 안거리 밧거리만. 계민, 이디 새로 짓은 디 말아 요 그때 그 일구이, 옛날, 원래 살던 사름네는.(안채 바깥채만. 그러면, 여기 새로 지은 데 말고 요 그때 그 일구이, 옛날, 원래 살던 사름네는.)

108001 #1 거기도 다 새로 집 짓언.(거기도 다 새로 집 지었어.)

108001 @1 으. 원래.(으. 원래.)

108001 #1 더 원래 살단 사름도 안팎거리 이신디. 예, 그 전부 초가집 아니파게. 그때는.(더 원래 살단 사름도 안팎거리 잇는데. 예, 그 전부 초가집 아닙니까. 그때는.)

108001 @1 예, 예.(예, 예.)

108001 #1 그 사름덜토 전부 그, 저, 지붕 개량허명 살안.(그 사름들도 전부 그, 저, 지붕개량하면서 살았어.)

108001 @1 개량허기 전이 그 제일 잘 사는 집이, 집이 몇 채나 잇어났수과? 혼, 그.(개량하기 전에 그 제일 잘 사는 집에, 집이 몇 채나 있었습니까? 한, 그.)

108001 #1 그디는 우리 저.(거기는 우리 저.)

108001 @1 제일 잘 사는.(제일 잘 사는.)

108001 #1 제일 강○○라고 말장 태수. 옛날, 조선시대, 말장이엔 허민.(제일 강○○라고 말장 태수. 옛날, 조선시대, ‘말장’이라고 하면.)

108001 @1 음.(음.)

108001 #1 엄청난 부젠디. 제주시 서쪽 대정, 제주 서문통에서 모슬포 사이에서 일등 부제엔 헤여.(엄청난 부자인데. 제주시 서쪽 대정, 제주 ‘서문통’에서 모슬포 사이에서 일등 부라고 해.)

108001 @1 예.(예.)

108001 #1 서문 밖 일등부제. (서문 밖 일등부자.)

108001 @1 예.(예.)

108001 #1 말장 태수라고 허는디. 거기는, 예, 집이, 그때 우리 그 당시에는, 집이 한 삼백 년, 스백 년.(말장 태수라고 하는데. 거기는, 예, 집이, 그때 우리 그 당시에는, 집이 한 삼백 년, 사백 년.)

108001 @1 음.(음.)

108001 #1 웬 집들이 일곱 채.(된 집들이 일곱 채.)

108001 @1 아.(아.)

108001 #1 한 오, 천, 천 오백 평이고.(한 오, 천, 천오백 평이고.)

108001 @1 아.(아.)

108001 #1 이 땅덜. 일곱 채디, 어떻게 살게 됐냐면은. 이, 저, 손님덜 왕, 그 친족덜 제도 먹으레 왕. 그때 제서를, 제서를 엄청 많이 험주게. 계민, 제주도 어디 남군 웬당덜토 다 와. 저 안덕 웬당, 창천이 웬당, 다 오면은. 그때는 걸영덜 원, 다 읍디다, 제서 때, 묘제 때 보면은. 한 삼사일 동안, 저디 그 손님덜 재우는 집 싯고.(이 땅들. 일곱 채데, 어떻게 살게 됐느냐면은. 이, 저, 손님들 와서, 그 친족들 제도 지내러 와서. 그때 제사를, 제사를 엄청 많이 했지요. 그러면, 제주도 어디 남군 권당들도 다 와. 저 안덕 권당, 창천 권당, 다 오면은. 그때는 걸어서들 원, 다 읍디다, 제사 때, 묘제 때 보면은. 한 삼사일 동안, 저기 그 손님들 재우는 집 싯고.)

108001 @1 그건 무시거엔 불릅니까? 그, 무시.(그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 무슨.)

108001 #1 그, 그 저, 소칭이엔 허던가? 소칭 집?(그, 그 저, ‘소칭’이라고 하던가? 소칭 집?)

108001 @1 소칭. 어.(소칭. 어.)

108001 #1 손님 청허는 집. 소칭.(손님 청하는 집. 소칭.)

108001 @1 소, 손칭.(소, ‘손칭’.)

108001 #1 에 건 따로. 건 아무것도 아녀고. 손님만, 웬당덜만 재우는, 벵이곡.(에 그건 따로. 건 아무것도 아니 하고. 손님만, 권당들만 재우는, 먹이고.)

108001 @1 손청거리.(사랑채.)
108001 #1 예, 손청거리.(예, 사랑채.)
108001 @1 계란, 안거리.(그러니까, 안채.)
108001 #1 예.(예.)
108001 @1 밧거리.(바깥채.)
108001 #1 예. 손청거리.(예, 사랑채.)
108001 @1 손청거리.(사랑채.)
108001 #1 허고, 제 녁기는 제단 집.(하고, 제 지내는 제단 집.)
108001 @1 아, 제단도 따로 잇고?(아, 제단도 따로 잇고?)
108001 #1 예. 따로 집 짓, 짓언, 제단 집 짓곡.(예. 따로 집 짓, 지어서, 제단 집 잇고.)
108001 @1 잇고.(잇고.)
108001 #1 또, 안, 하이튼 그 집 안네, 집이 혼 으섯 거리는 혼 천오백 평 땅 안 예. 일, 봉성 설립헌 땅이주게.(또, 안, 하여튼 그 집 안에, 집이 한 여섯 채는 한 천 오백 평 땅 안에. 일, 봉성 설립한 땅이지.)
108001 @1 음.(음.)
108001 #1 혼 스백 년 전에 지은 집이 그대로 그 집뿐이니까.(한 사백 년 전에 지은 집이 그대로 그 집뿐이니까.)
108001 @1 그 사름덜이 무시거엔 불리실 거 아니우파? 안거리 가보라 밧거리 가보라.(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안채 가 보라, 바깥채 가 보라.)
108001 #1 예, 예. 아이고. 저디 그.(예, 예. 아이고. 저기 그.)
108001 @1 그다음.(그다음.)
108001 #1 손청거리는 소님 왕.(사랑채는 손님 와서.)
108001 @1 손청거리 가보라.(사랑채 가 보라.)
108001 #1 겨고, 제, 제 지내는 제청 잇고.(그리고, 제, 제 지내는 제청 잇고.)
108001 @1 예.(예.)
108001 #1 겐, 그때는, 이제는, 그, 혼, 삼분지일은, 그 집 시거리는 끊언 뜬 사 름한티 풀아 불었어.(그래서, 그때는, 이제는, 그, 한, 삼분지일은, 그 집 세 채는 끊 어서 뜬 사름한테 팔아 버렸어.)
108001 @1 예.(예.)
108001 #1 그 집덜 이제 그냥 셔. 터랑 거 사름. 그디 종손은, 그 아덜 그냥 살고. 지금도 살고 현디, 유명헌 사름 살암서. 지금도.(그 집들 이제 그냥 있어. 터랑 그 사름. 거기 종손은, 그 아들 그냥 살고. 지금도 살고 하는데, 유명한 사름 살고 있어. 지금도.)
108001 @1 이문간도 그디 잇어수과?(‘이문간’도 거기 있었습니까?)
108001 #1 봉성은 이문간¹³⁰⁾ 엇은 동네. 옛날부터.(봉성은 ‘이문간’ 없는 동네.

130) ‘이문간’은 집의 입구에 대문 곁에 있는 집채이다. 달리 ‘문간채’라고 한다.

옛날부터.)

108001 @1 아, 엇은.(아, 없는.)

108001 #1 으. 이문간 허민 집이 망헌다 해 가지고 이.(으. 문간채 하면 집이 망헌다 해 가지고 이.)

108001 @1 아.(아.)

108001 #1 이문간은, 허나토 엇어. 아무 집도. 이.(문간채은, 하나도 없어. 아무 집도. 이.)

108001 @1 아.(아.)

108001 #1 봉성, 어도리는. 이문간[간]은.(봉성, 어도리는. 문간채는.)

108001 @1 모커리는? 모, 모커리.(결채는? 결채.)

108001 #1 모커리는 다 싯지. 그건 부잣집.(결채는 다 있지. 그건 부잣집.)

108001 @1 모커리는 잇고.(결채는 잇고.)

108001 #1 이 본 동네 사름덜. 모커리. 밧거리.(이 본 동네 사름들. 결채. 바깥채.)

108001 @1 원래 일구.(원래 일구.)

108001 #1 모커리는게, 밧거리 앓앗당 또 옆이 짓는 게 모커리주게.(결채는, 바깥채 앓앗다가 또 옆에 짓는 게 결채이지.)

108001 @1 음. 밧거리 말아 옆, 옆으로 이신 게 모커리.(음. 바깥채 말고 옆, 옆으로 잇는 게 결채.)

108001 #1 예. 이신게 모커리. 안거리, 밧거리, 모커리.(예. 잇는 게 결채. 안채, 바깥채, 결채.)

108001 @1 이, 이문간이 엇엇구나게. 이문간 엇이 게문 쉼막은 따로 짓언마씀?(이, 문간채가 없엇구나. 문간채 없이 그러면 외양간은 따로 지었나요?)

108001 #1 아이구, 쉼막도 그 집 안네 다 싯주게.(아이구, 외양간도 그 집 안에 다 있지.)

108001 @1 음.(음.)

108001 #1 게난 집이 밧거리, 모커리, 쉼막. 그 부잣집은 그렇게 웬 이신, 거기.(그러니까 집이 바깥채, 결채, 외양간. 그 부잣집은 그렇게 되어 잇는, 거기.)

108001 @1 으음.(으음.)

108001 #1 원 동네 사름덜은. 건디 이 구멸동¹³¹⁾이엔 현 디가 잇어. 이이 구머리, 구머리. 요요 딱 별도로 하천 알쪽에.(원 동네 사름들은. 그런데 이 구멸동이라고 하는 데가 잇어. 이이 구머리, 구머리. 요요 또 별도로 하천 아래쪽에.)

108001 @2 예.(예.)

108001 #1 그게 구멸동이는. 거 옛날에는 아주 그 춤 못 사는 사름덜만 모연, 흥씨허고. 이게 강씨 마을이라, 강씨.(그게 구멸동에는. 거 옛날에는 아주 그 춤 못 사는 사름들만 모여서, 흥씨하고. 이게 강씨 마을이라, 강씨.)

131) '구멸동'은 제주시 애월읍 어도리에 있는 자연부락 이름이다.

108001 @1 음.(음.)

108001 #1 완전 강씨 촌. 흥씨허고 현씨만 산디, 그디는 이문간, 구멸동만 이문간 있어.(완전 강씨 촌. 흥씨하고 현씨만 사는데, 거기는 문간채, 구멸동만 문간채 있어.)

108001 @1 아.(아.)

108001 #1 이문간 하면 문, 이문 더끄곡, 올레¹³²⁾ 안네 들어가재 허면은, 지방 턱 놓곡.(문간채 하면 문, 이문 닫고, ‘올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지방 턱 놓고.)

108001 @1 음.(음.)

108001 #1 이문 더끄곡 현디. 이, 그때 영 말허는 게. 그, 웨, 이디, 웃동네는 이문간이, 흥 집도 엇이 그 풍속이 경 똬냐면은, 전부 그. 스촌, 오촌, 강씨덜만 살아 노니까. 이문 허면은 들어가지지 허고 그 저, 그, 좋지 안 현디.(대문 닫고 하는데. 이,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왜, 여기, 윗 동네는 문간채가, 한 집도 없이 그 풍속이 그렇게 똬냐면은, 전부 그. 사촌, 오촌, 강씨들만 살아 놓으니까. 대문 하면은 들어가지가 뭐하고 그, 저, 그, 좋지 않다.)

108001 @1 음.(음.)

108001 #1 그, 풍습에. 이문 들민 그 집이.(그, 풍습에. 대문 달면 그 집이.)

108001 @1 음.(음.)

108001 #1 게난 전설이 똬 가지고. 이 어도 이구는, 이문간 흥나토 엇어난, 이 동네도 이문 이신 집 흥나토, 새로.(그러니까 전설이 똬 가지고. 이 어도 이구는, 문간채 하나도 없었어, 이 동네도 대문 있는 집 하나도, 새로.)

108001 @1 게민.(그러면.)

108001 #1 이렇게 올레만 내와.(이렇게 올레만 내.)

108001 @1 게민 그 전이.(그러면 그 전에.)

108001 #1 정낭만 영 걸쳐 낫주.(정낭만 이렇게 걸쳐 낫지.)

108001 @2 음.(음.)

108001 @1 소개허기 전이 그 어도 이구에.(소개하기 전에 그 어도 이구에.)

108001 #1 예. 그저 이문간 엇언.(예. 그저 문간채 없었어.)

108001 @1 엇어낫수과?(없었습니까?)

108001 #1 예, 이문간 흥 집이 엇어난, 구멸이나벳기.(예, 문간채 한 집이 없었어, 구멸이나밖에.)

108001 @1 그때에 이구에 그, 자연마을 그, 으섯?(그때에 이구에 그, 자연마을 그, 여섯?)

108001 #1 으섯 마을.(여섯 마을.)

108001 @1 으답마썰?(여덟요?)

108001 #1 으섯. 으섯.(여섯, 여섯.)

132) ‘올레’는 거릿길 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이다.

108001 @1 으섯. 그 이름은 뭐 뭐, 뭐짜?(여섯, 그이름은 뭐 뭐, 뭐입니까?)

108001 #1 제 본부가 자리동.(제 본부가 자리동.)

108001 @1 자.(자.)

108001 #1 자리왓이렌 헨.(‘자리왓’이라고 했어.)

108001 @1 자리왓.(‘자리왓’.)

108001 #1 자리왓. 지금 저디, 잃어버린 막을 폭낭 싣고 헨. 자리왓.(‘자리왓’. 지금 저기, 잃어버린 마을 팽나무 있고 한. ‘자리왓’.)

108001 @1 예.(예.)

108001 #1 그다음 이디 쨌당 사는, 열리왓.(그다음 여기 쨌당 사는, ‘열리왓’.)

108001 @2 열리왓. 예.(‘열리왓’. 예.)

108001 @1 여, 열리왓.(여, ‘열리왓’.)

108001 #1 열리왓. 저 지름기엔 헨 디 이수다. 그 자리왓 즈꿏디.(‘열리왓’. 저 ‘지름기’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자리왓’ 옆에.)

108001 @1 지름기.(‘지름기’.)

108001 #1 지름기. 그 끝에 일기둥이엔도 허고 지름기. 그 지름통 이신 동네엔 지름기.(‘지름기’. 그 끝에 일기둥이라고도 하고 ‘지름기’. 그 ‘지름통’ 있는 동네라고 지름기.)

108001 @1 지름기.(‘지름기’.)

108001 # 또, 들팻. 마전동.(또, ‘들팻’. 마전동.)

108001 @1 들팻.(‘들팻’.)

108001 #1 음. 들, 들팻. 그 흥씨만 사는 디.(음. 들, ‘들팻’. 그 흥씨만 사는 데.)

108001 @1 예.(예.)

108001 #1 마전동. 딱시 고도리왓.(마전동. 다시 ‘고도리왓’.)

108001 @1 고도리왓.(‘고도리왓’.)

108001 #1 예, 상시므름. 근디 그 지역이, 흥, 삼키로씩은 다 떨어전 이렇게 살 았어.(예, ‘상시므름’. 그런데 그 지역이, 한, 삼 킬로씩은 다 떨어져서 이렇게 살 았어.)

108001 @1 아.(아.)

108001 #1 계난, 계, 자리왓이영 열리왓 오쟁 허면은 삼 키롭주게.(그러니까, 그, ‘자리왓’과 ‘열리왓’ 오려고 하면은 삼 킬로이지요.)

108001 @1 아.(아.)

108001 #1 회의 보레 이, 그디 자리왓으로 올라가. 열리왓 사름덜이.(회의 보러 이, 거기 ‘자리왓’으로 올라가. ‘열리왓’ 사름들이.)

108001 @1 ㄱ튼.(같은.)

108001 #1 계, 본부가 자리왓이난.(계, 본부가 ‘자리왓’이니까.)

108001 @1 아.(아.)

108001 #1 자리왓디 그디 큰, 제일 큰 막을입주. 그때는, 흥, 흥, 허고, 자리왓이

흔 육십 호. 나머지는 흔 이십 호. 경.('자리왓'이 거기 큰, 제일 큰 마을이지요. 그때는, 한, 한, 하고, '자리왓'이 한 육십 호. 나머지는 한 이십 호. 그렇게.)

108001 @1 계난 삼촌네가 잇어난 데가 자리왓이우파?(그러니까 삼촌네가 잇었던 데가 '자리왓'입니까?)

108001 #1 자리왓. 그디.('자리왓'. 거기.)

108001 @1 아.(아.)

108001 #1 원, 원래가 자리왓. 겐디, 자리왓이 그디, 잇는 서당도 잇고, 말짜엔 그 학교ㄴ치 공부도 가르치고 현디. 그 옛날에는, 자리왓 서당을 나와야 과걸 현디 해서.(원, 원래가 '자리왓'. 그런데, '자리왓'이 거기, 잇는 서당도 잇고, 말짜엔 그 학교같이 공부도 가르치고 했는데. 그 옛날에는, '자리왓' 서당을 나와야 과거를 한 다 했어.)

108001 @1 아.(아.)

108001 #1 유명헌 서당입주게, 그디. 그디 서당, 그, 훈장이 최고 실력가이난. 하여튼 자리왓 서당은, 계난 납읍서도 그딜 서당 공부허레 자리왓을. 일부러 그딜 강 공부해야 잘 공부, 그 실력가 웬다 헨 그디 자리왓디 간털.(유명한 서당이지요, 거기. 거기 서당, 그, 훈장이 최고 실력가이니까. 하여튼 '자리왓' 서당은, 그러니까 납 읍에서도 거기를 서당 공부하러 '자리왓'을. 일부러 가기에 가서 공부해야 잘 공부, 그 실력가 된다 해서 거기 '자리왓'에 가서들.)

108001 @1 아.(아.)

108001 @2 자리왓허고 제랏허고 ㄴ튼 말?('자리왓'하고 '제랏'하고 같은 말?)

108001 #1 거 ㄴ튼 말. 자리왓게.(거 같은 말. '자리왓'.)

108001 @2 ㄴ튼 거지게? 그 제랏. 그 자리왓. 제랏.(같은 거지? 그 '제랏'. 그 '자리왓'. '제랏'.)

108001 #1 그게 자리동이엔 허고. 저디, 열리동, 열리왓. 그 열리왓.(그게 자리동 이라고 하고. 저기, 열리동, '열리왓'. 그 '열리왓'.)

108001 @1 예.(예.)

108001 #1 그 으섯 개 막을. 저 마젠동이라는 디는 저 막 우에.(그 여섯 개 막을. 저 마젠동이라는 데는 저 막 위에.)

108001 @1 음.(음.)

108001 #1 그디 흔 이십 호 살고. 그디가 흥씨덜만. 남양 흥씨덜만 바로.(거기 한 이십 호 살고. 거기가 흥씨들만. 남양 흥씨들만 바로.)

108004 @1 요 집은 삼간집이우파? 스간집이우파?(요 집은 삼간집입니까? 사간 집입니까?)

108004 #1 스간. 스간.(사간. 사간.)

108004 @1 스간집. 음.(사간집. 음.)

108004 #1 원래 스간. 초가집 때 스간이라났어. 스간.(원래 사간. 초가집 때 사간이었었어. 사간.)

108004 @1 아.(아.)

108004 #1 계난 이 저 보통, 보통 다 스간. 오간칩은 드물어.(그러니까 이 저 보통, 보통 다 사간. 오간칩은 드물어.)

108004 @1 으음.(으음.)

108004 #1 드물어. 전부 스간.(드물어. 전부 사간.)

108004 @1 원래가 스간집?(원래가 사간집?)

108004 #1 원래 이, 이 이 마을이 뜬 마을도 마찬가지로일 거우다. 스간칩이 유행이우다. 스간.(원래 이, 이, 이 마을이 뜬 마을도 마찬가지로일 겁니다. 사간칩이 유행입니다. 사간.)

108004 @1 스간.(사간.)

108004 #1 겨난 저, 혼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부엌 허면은. 스간칩.(그러니까 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부엌 허면은. '사간칩'.)

108004 @1 음. 그 집 짓는 과정을 혼번 곁아 봄서. 계난, 그때사 뭐 원래 이것 단 집 뜬언에.(음. 그 집 짓는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야 뭐 원래 있었던 집 뜬어서.)

108001 #1 예. 그 집 뜬언 완.(예. 그 집 뜬어서 왔어.)

108004 @1 그거 다 들렁 왕은에.(그거 다 들고 와서.)

108004 #1 이디 빈터에 세웠단 그 집으로 다 짓었는데. 그, 우리, 집집마다 혼 번에 짓젠 허민 뭐, 다 자기 일만 헐 거 아니우파게. 다 혼 번에 백 호가 다 개인 집 짓젠 허난.(여기 빈터에 세웠다가 그 집으로 다 지었는데. 그, 우리, 집집마다 혼 번에 지으려고 하면 뭐, 다 자기 일만 할 거 아닙니까. 다 한 번에 백 호가 다 개인 집 지으려고 하니까.)

108004 @1 음.(음.)

108004 #1 우리는 그 한림, 우리 팔촌네가 살아났수다. 우리도 저 스삼스건에, 구멸동 살단 집 태와 부난, 폭도 들언 불 태와 부난, 한림 그 권당네 집이 간 살아나고 헤신디. 그 권당덜이 목수난 돌아단 집을 지어수다. 우리 집을.(우리는 그 한림, 우리 팔촌네가 살았었습니다. 우리도 저 사삼사건에, 구멸동 살다가 집 태워 버리니까, 폭도 들어서 불 태워 버리니까, 한림 그 권당네 집에 가서 살았었고 했는데. 그 권당들이 목수니까 데려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집을.)

108004 @1 음. 그 과정을 혼번 곁아 봄서. 처음, 맨 처음. 어떻 헛수과? 이, 이 터에다가.(음. 그 과정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처음, 맨 처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 터에다가.)

108004 #1 이 땅이, 이거, 그, 담덜, 저 다 갈랐지, 처음에.(이 땅이, 이거, 그, 담들, 저 다 나눴지, 처음에.)

108004 @1 예, 예.(예, 예.)

108004 #1 혼 백 평씩 갈란 영 현디. 그냥 영 말뚝 박안에 허단에 담덜 다 다완 말짜엔 헛주만은. 줄 메언에 말뚝 박안덜 혼연. 그게 혼번에 그 혼 날 혼 시 시작을

헌 거라이. 집 짓기 시작을 허난. 각자, 수단껏. 자기 다 자기 능력대로. 가지 이녁. 어디 놓이 이수파게? 문딱 혼번[뻔] 이녁 집 짓젠 허난. 능력대로 짓는다. 켜디, 조금 뭐 헌 사름덜은. 집도 잘 짓고 안팓거리도 지은 덧 사름도 짓고.(한 백 평씩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말뚝 박아서 하다가 담들 다 쌓아서 말쑤엔 했지 마는. 줄 매어서 말뚝 박아서들 했어. 그게 한번에 그 한 날 한 시 시작을 헌 거야. 집짓기 시작을 하니까. 각자, 수단껏. 자기 다 자기 능력대로. 가지 이녁. 어디 놓이 있습니까? 모두 한번 이녁 집 지으려고 하니까. 능력대로 짓는데. 그런데, 조금 뭐 한 사람들은. 집도 잘 짓고 안채, 바깥채도 지은 데 사람도 있고.)

108004 @1 음.(음.)

108004 #1 해신디, 우리는 그자 단지 이 스간집 하나하고 쉼막 하나. 것만 짓언 해연.(했는데, 우리는 그저 단지 이 사간집 하나하고 외양간 하나. 그것만 지어서 했어.)

108004 @1 맨 처음에 뭐, 요 벽, 그 돌허고 흑 헤근에 벽을 먼저 헛수과? 저, 지등을 먼저 세와수과? 맨 침 집 짓을 때 처음에 무시거부터 험니까?(맨 처음에 뭐, 요 벽, 그 돌하고 흑 해서 벽을 먼저 했습니까? 저, 기등을 먼저 세웠습니까? 맨 처음 집 지을 때 처음에 무엇부터 합니까?)

108004 #1 처음에는. 저, 이거, 그, 돌아가명. 담부터 올려낫주. 담부터.(처음에는. 저, 이거, 그, 돌아가면서. 담부터 올렸었지. 담부터.)

108004 @1 담부터 올려수과?(담부터 올렸습니까?)

108004 #1 예, 예. 담부터.(예, 예. 담부터.)

108004 @1 으음.(으음.)

108004 #1 담부터. 이 초가집은 담부터 올령, 그, 저 니 귀 지동 세왕 안네 지동 세우곡. 이디, 이, 이디 지동이 제일 큰 지동이 앞이 한반에.(담부터. 이 초가집은 담부터 올려서, 그, 저 네 귀 기동 세워서 안에 기동 세우고. 여기, 이, 여기 기동이 제일 큰 기동이 앞에 한반에.)

108004 @1 이거 무슨 지동이엔 험니까?(이거 무슨 기동이라고 합니까?)

108004 #1 그게 저. 그.(그게 저. 그.)

108004 @1 니 귀 지동은 아니 아니우파양? 요 앞이 거는.(네 귀 기동은 아니 아닙니까? 요 앞의 거는.)

108004 #1 예. 주춧, 주춧돌을 허여 가지고.(예. 주춧, 주춧돌을 하여 가지고.)

108004 @1 주춧돌 헤영은에.(주춧돌 해서.)

108004 #1 그, 그거 제일 큰 지동 하나 세왕에.(그, 그거 제일 큰 기동 하나 세워서.)

108004 @1 예에.(예에.)

108004 #1 제일 큰 지동 하나 세왕. 그, 삼, 지동 그거 세와 가명 담이영 ㄴ찌 올라갑주게.(제일 큰 기동 하나 세워서. 그, 삼, 기동 그거 세워 가면서 담과 같이 올라가지요.)

108004 @1 으음.(으음.)

108004 #1 저디도 지둥, 니 귀에 다 지둥 세와 낭. ㄴ찌 올라강 담을 꼭 ㄴ찌 영 이디 높이 올라 가면은 목수덜이 이제 방을 가르는 거라. 방을 가르면은 대를 비어다가 이, 대로 다 방을 갈라. 여꺼 가지고.(저기도 기둥, 네 귀에 다 기둥 세워 놓고. 같이 올라가서 담을 꼭 같이 이렇게 여기 높이 올라 가면은 목수들이 이제 방을 가르는 거라. 방을 가르면은 대를 비어다가 이, 대로 다 방을 갈라. 엮어 가지고.)

108004 @2 음. 음.(음. 음.)

108004 @1 그, 그 전이 일단. 지둥.(그, 그 전에 일단. 기둥.)

108004 #1 이것들 세운 후에.(이것들 세운 후에.)

108004 @1 지, 지둥 세운 후엔 그 위 또 뭐.(기, 기둥 세운 후엔 그 위 또 뭐.)

108004 #1 거 저디 아이고, 저 상므를¹³³⁾ 걸치고.(거 저기 아이고, 저 용마루 걸치고.)

108004 @1 상므루.(용마루.)

108004 #1 서, 서리 허곡.(서, 서까래 하고.)

108004 @1 상므루 걸치곡 서리 허곡.(용마루 걸치고 서까래 하고.)

108004 #1 서, 서리 허곡.(서, 서까래 하고.)

108004 @1 음.(음.)

108004 #1 허곡 또, 또 저디, 저 그것ㄴ라 그.(하고 또, 또 저기, 저 그것을 그.)

108004 @2 보도 걸고.(보도 걸고.)

108004 #1 그.(그.)

108004 @1 포.(보.)

108004 #1 대. 저디. 나무로.(대. 저기. 나무로.)

108004 @1 포, 걸.(보, 걸.)

108004 #1 서슬¹³⁴⁾.(‘서슬’.)

108004 @1 그난 서슬로.(그러니까 ‘서슬’로.)

108004 #1 서슬로 얹영. 서슬 위에 흙을 또 뒤치는. 서슬 위에. 흙 뒤쳐 낱 서슬 위에 흙 뒤치면은 그 우엔 새를 더끌 겹주.(산자로 얹어서. 산자 위에 흙을 또 뒤덮는. 산자 위에. 흙 뒤덮어 놓고 산자 위에 흙 뒤덮으면은 그 위엔 띠를 덮을 거지요.)

108004 @1 새 덮을 거고.(띠 덮을 거고.)

108004 #1 예.(예.)

108004 @1 경 현 다음에 영 다 뱃짓달로 다 영 만들어지민 그 다음은 요 방을 갈르는데, 그걸 낫사 대로마썰? 대?(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다 바깥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은 요 방을 가르는데, 그걸 아까 대로요? 대?)

133) ‘상므루’는 용마루의 가장 높은 곳이다. 달리 ‘상므르, 상므로’라고 한다.

134) ‘서슬’은 지붕 서까래 위나 고미 위에 흙을 받쳐 기와를 이기 위하여 가는 나무오리나 싸리나무 따위로 엮은 것을 말한다. 표준어로는 ‘산자’다.

- 108004 #1 그게 그, 축. 저 저, 대로.(그게 그, 축. 저 저, 대로.)
- 108004 @1 예. 여꺼근에.(예. 엮어서.)
- 108004 #1 여꺼근앵에.(엮어서.)
- 108004 @2 축브름¹³⁵.(바람벽.)
- 108004 #1 축브름을 다 멘들아.(바람벽을 다 만들어.)
- 108004 @1 음.(음.)
- 108004 #1 온 집안을, 게면은 그 축브름을, 흑 켜 가지고 그 축브름을 다 블라. 겨민 이제 블랑 이제 문도만 내 똥. 그 흑으로 다 블라.(온 집안을, 그러면은 그 바람벽을, 흑 이겨 가지고 그 바람벽을 다 발라. 그러면 이제 발라서 이제 ‘문도’만 내 두고. 그 흑으로 다 발라.)
- 108004 @1 예.(예.)
- 108004 #1 문도¹³⁶만 내 똥, 다. 문도는 예, 이런 문이 아니고, 영 더꿏다 열었다 하는 문 도만 내 똥.(‘문도’만 내 두고, 다. ‘문도’는 예, 이런 문이 아니고,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하는 ‘문도’만 내 두고.)
- 108004 @1 예, 예, 예.(예, 예, 예.)
- 108004 #1 다 그 저디 그 축브름 브르듯이. 축브름이엿 해여. 축브름 브르는 거. 대로 여경.(다 그 저기 그 바람벽 바르듯이. 바람벽이라고 해. 바람벽 바르는 거. 대로 엮어서.)
- 108004 @1 그, 그거 허젠 허민 막 흑 헤다근에 막.(그, 그거 하려고 하면 막 흑 헤다가 막.)
- 108004 #1 예, 예. 거.(예, 예. 거.)
- 108004 @1 꺾어야 똥 거 아니짜?(반죽해야 될 거 아닙니까?)
- 108004 #1 예. 꺾어근에 손으로 다 영 블릅주. 손으로.(예. 반죽해서 손으로 다 이렇게 바르지요. 손으로.)
- 108004 @1 그거 흔꺼번에 므을 다 지, 지내 집덜.(그거 한꺼번에 마을 다 자, 자기네 집들.)
- 108004 #1 아. 이녁침서 흡니다. 자이네.(아. 이녁 집에서 합니다. 자기네.)
- 108004 @1 경 허멍 헤 부난에.(그렇게 하면서 해 버리니까.)
- 108004 #1 아주, 멧날 메틀 헛주게. 거.(아주, 멧날 며칠을 했지. 거.)
- 108005 @1 멧 날 메틀양. 흔 번에 못 헤여근에양. 음. 게민 네 귀에 지등 세우 꼭 또 그 안에 또 다른 또 지등 세와근에.(멧 날 며칠요. 한 번에 못 해서. 음. 그러면 네 귀에 기등 세우고 또 그 안에 또 다른 또 기등 세워서.)
- 108005 #1 예게.(예.)
- 108005 @1 쫓지등 세왕. 포 걸영.(보 기등 세워서. 보 걸고.)
- 108005 #1 예. 저디, 썩, 저디, 산전 이런, 이런 디도 다 지등 세왕.(예. 저기,

135) ‘축브름’은 돌과 흙 따위로 둘러막은 집의 둘레. 또는 흙 따위를 걸로 발라 막은 방의 칸막이다.

136) ‘문도’는 방으로 드나들게 된 곳이다.

땡, 저기, ‘산전’ 이런, 이런 데도 다 기둥 세워서.)

108005 @1 음.(음.)

108005 #1 방 킬립마다 지둥 세왕. 이디도 지둥 세우곡 저, 저 방도 지둥 세완.
(방 ‘킬립’마다 기둥 세워서. 여기도 기둥 세우고 저, 저 방도 기둥 세웠어.)

108005 @1 음. 그 지둥.(음. 그 기둥.)

108005 #1 그 저 사이에는.(그 저 사이에는.)

108005 @1 그 지둥을 무슨 지둥이런 헛수과? 요 방허고 요 방 사이에 요 지둥.
(그 기둥을 무슨 기둥이라고 했습니까? 요 방하고 요 방 사이에 요 기둥.)

108005 #1 폐, 펜방?(폐, ‘펜방’?)

108005 @1 폐?(폐?)

108005 #1 예, 펜방.(예, ‘펜방’)

108005 @1 펜방? 펜방.(‘펜방’? ‘펜방’.)

108005 #1 예. 펜방. 펜방 세왕.(예. ‘펜방’. ‘펜방’ 세워서.)

108005 @1 세왕?(세워서?)

108005 #1 펜방 세우면 이제는 그, 대로 하여 가지고 축브름 브르는 거라. 축브름.
(‘펜방’ 세우면 이제는 그, 대로 하여 가지고 바람벽 바르는 거라. 바람벽.)

108005 @1 브르고. 그다음 펜방에다가 이제 문 들어서 또.(바르고. 그다음 ‘펜방’에다가 이제 문 달아서 또.)

108005 #1 예, 예. 문 사이에 또 대 여경 거 곶아.(예, 예. 문 사이에 또 대 엮어서 거 곶아.)

108005 @1 허고. 이 열었다 더꼐다 허는 요.(하고. 이 열었다 닫았다 하는 요.)

108005 #1 예. 건.(예. 건.)

108005 @1 요 문은 그자 통 널로 헛수과? 기냥.(요 문은 그냥 통 널로 했습니까? 그냥.)

108005 #1 아니. 거 짜십주게.(아니. 거 짰습니다.)

108005 @1 짜근에?(짜서?)

108005 #1 예. 목수가.(예. 목수가.)

108005 @1 아. 짜근에 영.(아. 짜서 이렇게.)

108005 #1 이, 저 통 널은 대문이라고 해 가지고.(이, 저 통 널은 대문이라고 해 가지고.)

108005 @1 대문.(대문.)

108005 #1 정젯문허고 대문만 통널로.(부엌문하고 대문만 통 널로.)

108005 @1 정젯문허고 요.(부엌문하고 요.)

108005 #1 대문만.(대문만.)

108005 @1 대문만 통 널로 허고?(대문만 통 널로 하고?)

108005 #1 통 널로 하여 가지고 크게 해, 큰 낭 헤영.(통 널로 하여 가지고 크게 해, 큰 나무 해서.)

108005 @1 으음. 요건 짜근에양.(으음. 요건 짜서요.)
 108005 #1 짜근에. 이런 짜.(짜서. 이런 짜.)
 108005 @1 으음. 펜방.(으음. ‘펜방’.)
 108005 #1 펜방이 이거주 이거, 저거.(‘펜방’이 이거지 이거, 저거.)
 108005 @1 이, 이, 이거.(이, 이, 이거.)
 108005 #1 그 사이는 저기 축벽름이라고 해 가지고.(그 사이는 저기 바람벽이라고 해 가지고.)
 108005 @1 축벽름. 음.(바람벽. 음.)
 108005 #1 막 흙으로 문 딱 블라낫주.(막 흙으로 모두 발랐었지.)
 108005 @1 그. 음.(그. 음.)
 108005 @2 문 지등.(문 기등.)
 108005 #1 문 지등.(문 기등.)
 108005 @1 케민 요디도 문 열었다 더갯닥 허젠 허민 아래도 뭐 있어야 할 거 아니우파? 그.(그러면 요기도 문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려고 하면 아래도 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108005 #1 지방게.(지방.)
 108005 @1 지방.(지방.)
 108005 #1 음. 지방. 문지방.(음. 지방. 문지방.)
 108005 @1 으음. 문지방. 우이도 영.(으음. 문지방. 위에도 이렇게.)
 108005 #1 예.(예.)
 108005 @1 지등허고 지등 사이에도 허면.(기등하고 기등 사이에도 하면.)
 108005 #1 지방은 이 위에 딱 맞게.(지방은 이 위에 딱 맞게.)
 108005 @1 으음.(으음.)
 108005 #1 우알로 부트게끔.(위아래로 붙게끔.)
 108005 @1 그것도 지방이렌 흡니까? 아니면.(그것도 지방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108005 #1 창문. 거 창문 들주게.(창문. 거 창문 달지.)
 108005 @1 예.(예.)
 108005 #1 이거. 이 또 하나, 문 하나. 영 열었다 더갯닥.(이거. 이 또 하나, 문 하나.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108005 @1 으음. 여기에?(으음. 여기에?)
 108005 #1 음.(음.)
 108013 @1 사간이민 요디 대문 말아 또 대문 옆이 또 따로.(사간이면 요기 대문 말고 또 대문 옆에 또 따로.)
 108013 #1 아. 건 저디 호령창¹³⁷이엔 해 가지고.(아. 그건 저기 ‘호령창’이라고

137) ‘호령창’은 마루방인 상방의 큰 대문 옆에 시설한 조그만 창이다. 달리 ‘호량창, 호령청’이라고 한다.

해 가지고.)

108013 @1 어.(어.)

108013 #1 그, 옛날 그 저디 부젓칩이 종덜 질룰 때.(그, 옛날 그 저기 부젓집에 서 종들 부릴 때.)

108013 @1 예.(예.)

108013 #1 그 종덜이 이 대문으로 아니 멩경 글로 멩겨. 호량. 그, 저 그, 그디 서 불르고.(그 종들이 이 대문으로 아니 다니고 거기로 다녀. ‘호량’. 그, 저 그, 거기서 부르고.)

108013 @1 글로 불르고.(거기로 부르고.)

108013 #1 대문 읍이 요만인 흔 문이 돌아났어.(대문 옆에 요만큼 한 문이 달렸었어.)

108013 @1 예.(예.)

108013 #1 게, 거 호량창이엔 햅여 그거.(게, 거 ‘호령창’이라고 햅여 그거.)

108013 @1 호량창.(‘호령창’.)

108013 #1 거, 거 부제칩이만 거 싯고. 그냥 보통 집은 거 엇어.(거, 거 부젓집에만 거 있고. 그냥 보통 집은 거 없어.)

108013 @1 여긴 엇어났수과?(여긴 없었습니까?)

108013 #1 우린 집은 옛날부터 엇어난.(우린 집은 옛날부터 없었어.)

108013 @1 엇어나고. 그 저.(없었었고. 그 저.)

108013 #1 그, 저디 장남 빌영, 부젓칩 ㄱ튼.(그, 저기 장정 빌려서, 부젓집 같은.)

108013 @1 그 강칩 잇는 부젓칩은.(그 강씨택 잇는 부젓집은.)

108013 #1 예.(예.)

108013 @1 호령창 이십디가?(‘호령창’ 있었습니까?)

108013 #1 아이고, 그 집이사 싯곡. 그거 스백 년 쉼 집, 그냥 셔났어. 이제도 룝.(아이고, 그 집에야 있고. 그거 사백 년 된 집, 그냥 있었어. 이제도 룝.)

108013 @1 예.(예.)

108013 #1 거 봉성 윗동네 또 어도, 설립힐 때 지은 집이주게.(거 봉성 윗동네 또 어도, 설립할 때 지은 집이지.)

108013 @1 으음. 요 앞엔 또, 요 대문 앞이 또 영 무시거 마루 널 햅꿈 놓아지 지 안햅수과?(으음. 요 앞엔 또, 요 대문 앞에 또 이렇게 뭐 마루 널 조금 놓아지지 않았습니까?)

108013 #1 아이고, 놓아십주게. 그 낭간이라고.(아이고, 놓았지요. 그 텃마루라고.)

108013 @1 낭간이엔 헤근에.(텃마루라고 해서.)

108013 #1 예예.(예예.)

108013 @1 허곡.(하고.)

108013 #1 낭간 놔야지 대문 앞에.(뿔마루 놔야지 대문 앞에.)

108015 @1 그 우에 지붕, 지붕 아래 무시거 또 흐끔 더 영 뭐 더꺼나지 안했수
과?(그 위에 지붕, 지붕 아래 뭐 또 조금 더 이렇게 뭐 덮었었지 않았습니까?)

108015 #1 아, 그거 저 풍채¹³⁸, 풍채.(아, 그거 저 차양, 차양.)

108015 @1 풍채.(차양.)

108015 #1 음.(음.)

108015 @1 으음.(으음.)

108015 #1 풍채, 집집마다 거 비바람 허민 막게[폐].(차양, 집집마다 거 비바람
하면 막게.)

108015 @1 예.(예.)

108015 #1 영 누리곡 그거 영 작대기 헛당, 비 와 가민 누리민 그게 얹우민 비
브름 아이 채와 가지고.(이렇게 내리고 그거 이렇게 작대기 했다가, 비 와 가면 내
리면, 그게 낮추면 비바람 아니 쳐 가지고.)

108015 @1 아아.(아아.)

108015 #1 또 노피곡. 작대기로.(또 높이고. 작대기로.)

108015 @1 평상신 영 올렛당.(평상신 이렇게 올렸다가.)

108015 #1 올렛당. 작, 풍채 작대기 올렛당.(올렸다가. 작, 차양 작대기 올렸다
가.)

108015 @1 풍채 작대기로.(차양 작대기로.)

108015 #1 비브름 해 가민, 거 내리우민 이레 비가 덜 들이칩주게.(비바람 해 가
면, 거 내리면 이리로 비가 덜 들이치지요.)

108015 @1 아아.(아아.)

108015 #1 풍채, 집집마다 풍채 헤영, 진 나무 숙대낭이나 쫄라당 만들앙은에게.
거 새로 여경 돌아낫주게.(차양, 집집마다 차양 해서, 긴 나무 삼나무나 잘라다가
만들어서. 거 띠로 엮어서 달았었지.)

108015 @1 으음. 기냥 맨날 돌아정 잇구나. 이 풍채 작대기로.(으음. 그냥 늘 달
려 잇구나. 이 차양 작대기로.)

108015 #1 예, 예. 돌아 잇당 그냥 평상시에는 그, 그, 풍채가 영 바투는 작대기
가 있어. 양쪽에.(예, 예. 달아 있다가 그냥 평상시에는 그, 그, 차양이 이렇게 받치
는 작대기가 있어. 양쪽에.)

108015 @1 예.(예.)

108015 #1 올리면은 노프곡, 누리면은 얹으곡 허민. 그냥 이추룩 뱃 난 때는 노
피곡.(올리면은 높고, 내리면은 낮고 하면. 그냥 이렇게 햇빛 나는 때는 높이고.)

108015 @1 예.(예.)

108015 #1 비브름 칠 땐 영 얹으게 그 바, 방지허는.(비바람 칠 땐 이렇게 낮게

138) '풍채'는 차양이다. 나무 둘로 기둥을 삼고, 가로 나뭇가지를 드물게 질러 붙여, 겉으로 띠를 덮고 세워서, 눈,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는 물건이다.

그 바, 방지하는.)

108015 @1 계민 여긴 방이 몇 개나 있어수과? 그때는?(그러면 여긴 방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그때는?)

108015 #1 우리 집이?(우리 집에?)

108015 @1 초, 초가집 할 때.(초, 초가집 할 때.)

108015 #1 아, 이게 스간이난게.(아, 이게 사간이니까.)

108015 @1 음.(음.)

108015 #1 방 네 개. 퀘팡허곡 허민 방 다섯 개.(방 네 개. 고방하고 하면 방 다섯 개.)

108015 @1 계민 요펜 짝에.(그러면 요 편 쪽에.)

108015 #1 하나.(하나.)

108015 @1 방 하나.(방 하나.)

108015 #1 마루.(마루.)

108015 @1 마루.(마루.)

108015 #1 이디 이것도 방.(여기 이것도 방.)

108015 @1 방.(방.)

108015 #1 그것도 방. 두 개. 그다음에 부엌.(그것도 방. 두 개. 그다음에 부엌.)

108015 @1 부엌.(부엌.)

108015 #1 그 퀘팡이엔 해 가지고.(그 고방이라고 해 가지고.)

108015 @1 퀘팡 어디 있어수과? 여기.(고방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108015 #1 그, 저, 저 부엌 즈꿋디 항상 따로. 부엌 반착 끈영.(그, 저, 저 부엌 옆에 항상 따로. 부엌 반쪽 끊어서.)

108015 @1 그쪽에 퀘팡이 있어수과?(그쪽에 고방이 있었습니까?)

108015 #1 예. 그 반착 끈영 그, 저, 죽은 마루 허곡 퀘팡 허고.(예. 그 반쪽 끊어서 그, 저, 작은 마루 하고 고방 하고.)

108015 @1 음.(음.)

108015 #1 부엌 퀘 그디. 부엌에 죽은 마루 만들곡 퀘팡 만들면은, 그자 일반 보통 식사허는 날은 다 죽은, 죽은 마루. 다 식구덜 모영 그디서 식사허고.(부엌 퀘 거기. 부엌에 작은 마루 만들고 고방 만들면은, 그저 일반 보통 식사하는 날은 다 작은, 작은 마루. 다 식구들 모여서 거기서 식사하고.)

108015 @1 그레 강은에. 예.(그리로 가서. 예.)

108015 #1 퀘팡은게. 그 쓸 ㄱ튼 거 그디 부엌 즈꿋디 놓양 향에 놓으면은, 그 쓸 거려당 게서 부엌에서 밥 헤영 떡곡.(고방. 그 쌀 같은 거 거기 부엌 옆에 놓고서 향에 놓으면은, 그 쌀 거려다가 거기서 부엌에서 밥 해서 먹고.)

108015 @1 계민 이쪽 방에 이거 막 너무 커 배우다. 이거 이 뒤에도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우과.(그러면 이쪽 방에 이거 막 너무 커 보입니다. 이거 이 뒤에도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8015 #1 아니, 아니. 험나. 방 험나.(아니, 아니. 하나. 방 하나.)

108015 @1 방 험나라낫수과? 이거, 이 펜이가?(방 하나였습니까? 이거, 이쪽에 가?)

108015 #1 예, 예. 방 하나. 초가집 때.(예, 예. 방 하나. 초가집 때.)

108015 @1 초가집일 때.(초가집일 때.)

108015 #1 계난 영 집 넓진 안 헛주. 요만이 족아[쪽아]낫주.(그러니까 이렇게 집 넓진 안헛지. 요만큼 작았었지.)

108015 @1 게메. 아, 방 험나?(글쎄. 아, 방 하나?)

108015 @2 넓힌 거지.(넓힌 거지.)

108015 @1 아아.(아아.)

108015 #1 방 험나. 험나. 또 방 험나. 저 부엌만 족은 삼방 식곡, 퀘팡 식곡.(방 하나. 하나. 또 방 하나. 저 부엌만 작은 마루 있고, 고방 있고.)

108015 @1 으음. 그 족은 삼방이엔 헛수과? 다른 말로 무시거엔 곧지 안헛수과?(으음. 그 작은 마루라고 했습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108015 #1 아이고. 우리 헛 땀 족은 삼방에 강 족은 삼방이엔만 헤. 그디 식사. 식사허는 방. 모다정.(아이고. 우리 헛 땀 작은 마루에 가서 작은 마루라고만 헤. 거기 식사. 식사하는 방. 모여서.)

108015 @1 아.(아.)

108015 #1 부엌 즈꿏디. 그, 그것ㄴ라 삼방, 마루엔, 삼방이엔 헤서 삼방. 마루.(부엌 옆에. 그, 그것을 마루, 마루라고, 마루라고 헛어 마루. 마루.)

108015 @2 삼방.(마루.)

108015 @1 삼방. 이기 큰 방은 어디라낫수과? 계난 아버지가 살, 이 방이?(마루. 여기 큰 방은 어디였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 이 방이?)

108015 #1 이 방이 그, 그 저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같이 살아수다게. 할아버지.(이 방이 그, 그 저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같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108015 @1 할아버지?(할아버지?)

108015 #1 예.(예.)

108015 @1 계난 할아버지. 요 방.(그러니까 할아버지. 요 방.)

108015 #1 예. 할아버지허곡 큰 손자 나허곡 둘만. 할아버지허곡 나허곡.(예. 할 아버지하고 큰 손자 나하고 둘만.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108015 @1 음. 할아버지허고.(음. 할아버지하고.)

108015 #1 예.(예.)

108015 @1 계민 굴묵은 저.(그러면 굴묵은 저.)

108015 #1 저쪽으로.(저쪽으로.)

108015 @1 저.(저.)

108015 #1 저쪽으로가 굴묵 식고. 영 돌아간 디.(저쪽으로가 굴묵 있고. 이렇게 돌아간 데.)

108015 @1 서낙펜이.(서쪽 편에.)

108015 #1 음.(음.)

108015 @1 으음. 굴묵 있고. 계민 이걸 큰방이엔 헛구나양.(으음. 굴묵 있고. 그러면 이걸 큰방이라고 했군요.)

108015 #1 예. 큰구들.(예. 큰구들.)

108015 @1 여기 뭐 굴묵 짚는 그 우이 무시거 뭐 잇어나지 안헛수과? 이.(여기 뭐 굴묵 짚는 그 위에 뭐, 뭐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108015 #1 백장, 백장.(벽장, 벽장.)

108015 @1 백장?(벽장?)

108015 #1 음. 백장 허민게.(음. 벽장 하면.)

108015 @1 백장 우이.(벽장 위에.)

108015 #1 백장 우이 퀘 헤연.(벽장 위에 퀘 해서.)

108015 @1 퀘 올려놓고.(퀘 올려놓고.)

108015 #1 예. 그 퀘 우의 옷덜 그 놓곡. 퀘도 우에.(예. 그 퀘 위에 옷들 그 놓고. 퀘도 위에.)

108015 @1 으음. 백장. 퀘 올려놓고. 이불도 그디 올려놓고양?(으음. 벽장. 퀘 올려놓고. 이불도 거기 올려놓고?)

108015 #1 이불도 백장에 올려놓고.(이불도 벽장에 올려놓고.)

108015 @1 음. 그냥 이불은 그냥 올려놔수가? 아니민.(음. 그냥 이불은 그냥 올렸었습니까? 아니면.)

108015 #1 그냥, 그냥.(그냥, 그냥.)

108015 @1 그냥 올려봐?(그냥 올려봐?)

108015 #1 그 백장 우의, 저런 칸 엇으난에 그냥, 올려 난.(그 벽장 위에, 저런 칸 없으니까 그냥, 올려놔어.)

108015 @1 이불상이엔 헤근에 따로는 안 흐고양?(이불 상이라고 해서 따로는 안 하고요?)

108015 #1 예.(예.)

108015 @1 으음.(으음.)

108015 #1 계민 우리 집이 좀 가난헌 집이라 부난 그런 거 엇이.(그러니까 우리 집이 좀 가난한 집이라 버리니까 그런 거 없어.)

108015 @1 계민 요 방은.(그러면 요 방은.)

108015 #1 그, 부모네.(그, 부모네.)

108015 @1 아. 부모님.(아. 부모님.)

108015 #1 부모네허고, 허고 동생덜허고.(부모네하고, 하고 동생들하고.)

108015 @1 동생들허고 요 방에 살안. 요 방엔 추워시쿠다. 이디. 이 방은 어땡.(동생들하고 요 방에 살았어. 요 방엔 추웠겠습니다. 여기. 이 방은 어떻게.)

108015 #1 것도 굴묵 짚연.(그것도 '굴묵' 때었어.)

108014 @1 아, 굴묵 짚어수가? 이디도?(아, ‘굴묵’ 때었습니까? 여기도?)
 108014 #1 게. 굴묵 만들안. 부억으로.(게. ‘굴묵’ 만들었어. 부억으로.)
 108014 @2 부억으로.(부억으로.)
 108014 @1 아, 부억 쪽으로.(아, 부억 쪽으로.)
 108014 #1 예. 부억으로 굴묵 만들고. 저디, 밥 헨 먹으면 맞은편에 돌 놔 가지고 솥 앞전 밥해 먹곡. 맞은편에.(예. 부억으로 ‘굴묵’ 만들고. 저기, 밥해서 먹으면 맞은편에 돌 놔 가지고 솥 앞쳐서 해 먹고. 맞은편에.)
 108014 @1 저펜이.(저쪽에.)
 108014 #1 예. 저펜이 밥해 먹곡.(예. 저쪽에 밥해 먹고.)
 108014 @1 저펜이가 밥해 먹는.(저쪽이 밥해 먹는.)
 108014 #1 예. 이제.(예. 이제.)
 108014 @1 그 솥 맞지는 거구나양.(그 솥 안치는 거군요.)
 108014 #1 예, 저펜이 솥 맞지고.(예, 저쪽에 솥 안치고.)
 108014 @1 이펜이.(이쪽에.)
 108014 #1 이쪽은 굴묵 짚고.(이쪽은 ‘굴묵’ 때고.)
 108014 @1 굴묵 짚고. 아.(‘굴묵’ 때고. 아.)
 108014 #1 이 굴묵 잇어.(이 ‘굴묵’ 잇어.)
 108014 @1 정지 안네 굴묵 짚는 디가.(부억 안에 ‘굴묵’ 때는 데가.)
 108014 #1 경허고.(그렇게 하고.)
 108014 @1 이섯구나양. 여기는.(있었군요. 여기는.)
 108014 #1 그 밥 허는 데는 저디 불치통¹³⁹⁾ 싯고.(그 밥 하는 데는 저기 ‘불치통’ 싯고.)
 108014 @1 으음.(으음.)
 108014 #1 영 솥 허민 그 불치를 뒤터레 다 들어냈당.(이렇게 솥 하면 그 불치를 뒤쪽으로 다 들어냈다가.)
 108014 @1 예.(예.)
 108014 #1 그걸 그때 옛날 비료 엇을 때난 불치가 거름이라.(걸 그때 옛날 비료 없을 때니까 불치가 거름이라.)
 108014 @1 예, 예.(예, 예.)
 108014 #1 그 모멸 농사 흥젠 허민.(그 메밀 농사 하려고 하면.)
 108014 @1 음.(음.)
 108014 #1 불치 엇으면 모멸 농사를 못 해낫주.(불치 없으면 메밀 농사를 못 했었지.)
 108014 @1 그디, 게민 그디 짚을커는 어느 펜쪽에 잇어낫수과? 그디.(거기, 그러면 거기 빨감은 어느 편 쪽에 있었습니까? 거기.)
 108014 #1 짚을컬? 정지 안네 그냥 안아당 그냥 짚어. 빠당.(빨감을? 부억 안에

139) ‘불치통’은 재거름을 보관하는 공간이다.

그냥 안아다가 그냥 때어. 빼다가.)

108014 @1 아.(아.)

108014 #1 매 때마다 빠당.(매 때마다 빼다가.)

108014 @1 매 때마다 빠당.(매 때마다 빼다가.)

108014 #1 예. 그 정지레 빠당.(예. 그 부엌에 빼다가.)

108014 @1 예.(예.)

108014 #1 경허당은에 딱시 짚을커 그영 하영, 어떤 화재가 그 정제로, 화재가 계속 나는데.(그렇게 하다가 다시 빨감을 그렇게 많이, 어떤 화재가 그 부엌에, 화재가 계속 나는데.)

108014 @1 음.(음.)

108014 #1 그때는 초가집이 이 동넨 아이고, 겨울 들면 화재가 윈. 계속 나났어.(그때는 초가집이 이 동넨 아이고, 겨울 들면 화재가 윈. 계속 나났어.)

108014 @1 음.(음.)

108014 #1 집 불이 타(집 불이 타.).

108010 @1 정지에는 물항 잇어났수께?(부엌에는 ‘물항’ 있었지요?)

108010 #1 물항 농곡.(물항 농고.)

108010 @1 물항 하나 잇어수과? 두 개 잇어수과?(‘물항’ 하나 있었습니까? 두 개 있었습니까?)

108010 #1 물항 하나 싯곡. 또 술. 술 멘드는 항.(‘물항’ 하나 있고. 또 술. 술 만 드는 항.)

108010 @1 항.(항.)

108010 #1 따로.(따로.)

108010 @1 술항이 잇어났구나.(술항이 있었구나.)

108010 #1 따로 땅 팡은에 거 묻영 놔두고. 정지에.(따로 땅 파서 거 묻어서 놔 두고. 부엌에.)

108010 @1 오. 살레는 어디 잇어수과?(오. ‘살레’는 어디 있었습니까?)

108010 #1 살레¹⁴⁰개. 정지 안네 잇주.(‘살레’. 부엌 안에 있지.)

108010 @1 정지 안네?(부엌 안에?)

108010 #1 예. 정지 안네.(예, 부엌 안에.)

108010 @1 죽은 삼방 안네 아니고?(작은 마루 안에 아니고?)

108010 #1 아이. 살레명말명 헨에 그자.(아이. ‘살레’며 말며 해서 그저.)

108010 @1 음.(음.)

108010 #1 낭 영 놓안 그레 사발 ㄱ튼 거.(나무 이렇게 놓아서 거기에 사발 같은 거.)

108010 @1 으음.(으음.)

140) ‘살레’는 찬장 모양으로 간략히 짜서 부엌 안에 세워 놓고 식기 따위를 넣는 물건이다. 달리 ‘정짓 궤’라고도 한다.

108010 #1 그때는. 그, 식기가 전부 남박세기¹⁴¹⁾. 낭으로.(그때는. 그, 식기가 전부 ‘남박세기’. 나무로.)

108010 @1 음.(음.)

108010 #1 낭으로.(나무로.)

108010 @1 음.(음.)

108010 #1 밥도 낭으로 만든 거 혜영 떡곡. 국도 낭으로 만든 걸로 행 떡곡.(밥도 나무로 만든 거 해서 먹고. 국도 나무로 만든 걸로 해서 먹고.)

108010 @1 아. 경 혜낫수과?(아. 그렇게 했었습니까?)

108010 #1 그 저 부잣집은 그, 유리, 저 것이라 낫그릇. 그 왜정 때.(그 저 부잣집은 그, 유리, 저 그것을 낫그릇. 그 일제강점기 때.)

108010 @1 음.(음.)

108010 #1 낫그릇덜 허고. 보통 집은 다 남박세기로.(낫그릇들 하고. 보통 집은 다 남박세기로.)

108010 @1 음. 숯은 몇 개나 안쳐난 거 닥읍디가?(음. 숯은 몇 개나 앓혔었던 거 같습니까?)

108010 #1 숯 혼 세 개.(숯 한 세 개.)

108010 @1 세 개쯤. 게도 식구 하난에 혼 번 밥 허민 막 큰 거 필요헤시쿠다.(세 개쯤. 그래도 식구 많으니까 한번 밥 하면 막 큰 거 필요했겠습니다.)

108010 #1 예. 큰 숯 안쳐나십주.(예. 큰 숯 안쳤었지요.)

108010 @1 뭐 몇 말띠기. 뭐.(뭐 몇 말띠기. 뭐.)

108010 #1 혼말띠기여, 두말띠기여 현디. 보통 우리 경, 식구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동생 들, 이, 할아버지. 혼 다섯 식구, 여섯.(‘한말띠기’다, ‘두말띠기’다 하는데. 보통 우리 그렇게, 식구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동생 들, 이, 할아버지. 한 다섯 식구, 여섯.)

108010 @1 음.(음.)

108010 #1 우린 식구가 하질 안헤낫수다게.(우린 식구가 많질 앓았었습니다.)

108010 @1 예.(예.)

108010 #1 동생.(동생.)

108010 @1 그때, 그때에. 으음.(그때, 그때에. 으음.)

108010 #1 저 다, 회관 우리 누님도 결혼해 볼 때고. 스삼스건 때. 우리 저디 누님 혼나는 어디 보내 불고.(저 다, 회관 우리 누님도 결혼해 버릴 때고. 사삼사건 때. 우리 저기 누님 하나는 어디 보내 버리고.)

108008 @1 마루 널도 그때 저디서 가정 온 거?(마루 널도 그때 저기서 가지고 온 거?)

108008 #1 가정온 거.(가지고 온 거.)

108008 @1 음.(음.)

141) ‘남박세기’는 나무를 파서 만든 바가지이다. 달리 ‘남박’이라고도 한다.

108008 #1 마루 널은 우리가 아이고, 그 스삼스건 날 줄 몰라 가지고. 그 구장
칩이엔 해연 죽으니까, 큰 땅을 사 가지고 저 어도 자리왓디덜. 집 시 거털 안팓거
리 허고 쉼막 크게 짓고, 마리널도 그 미송 마리널이라고 최고 좋은 마리널로 흥연
지었는데, 그 집 지어 가지고 삼년 만에 소개령을 내 분 거라.(마루 널은 우리가 아
이고, 그 사삼사건 날 줄 몰라 가지고. 그 구장집이라고 해서 작으니까, 큰 땅을 사
가지고 저 어도 ‘자리왓’에들. 집 세 채를 ‘안팓거리’ 하고 외양간 크게 짓고, 마루
널도 그 미송 마루 널이라고 최고 좋은 마루 널로 해서 지었는데, 그 집 지어 가지
고 삼년 만에 ‘소개령’을 내 버린 거라.)

108008 @1 아.(아.)

108008 #1 불 태완.(불 태웠어.)

108008 @1 아.(아.)

108008 #1 계난 어이가 엇은 겁주게. 저 죽게 지언 살단, 큰 땅 사 난 집을 크
게, 안팓거리 짓고 흥연 살단에게.(그러니까 어이가 없었던 거지요. 저 작게 지어서
살다가, 큰 땅 사 놓고 집을 크게, ‘안팓거리’ 짓고 해서 살다가.)

108008 @1 짓언 삼 년만이.(지어서 삼 년만에.)

108008 #1 삼 년만이 소개령 내 부난.(삼 년만에 ‘소개령’ 내 버리니까.)

108008 @1 음.(음.)

108008 #1 그 밧거리허고 쉼막은 내 불고, 그 마리 널 그튼 것도 좋은 걸로 헛
단에 다 튼언 내려 완.(그 바깥채하고 외양간은 내버리고, 그 마루 널 같은 것도 좋
은 걸로 했다가 다 뜯어서 내려왔어.)

108008 @1 트, 튼언.(뜨, 뜯어서.)

108008 #1 그, 그 마리 널로.(그, 그 마루 널로.)

108008 @1 여기.(여기.)

108008 #1 여기 허단.(여기 하다가.)

108008 @1 여기 허단.(여기 하다가.)

108008 #1 나가 이제 이 허단 그 마리 널이 하도 좋아 가지고, 이 죽은 삼방이
엔 현디, 그걸 또 마리 널을 그 마리 널로 죽은 삼방을 내와났어.(내가 이제 이 하
니까 그 마루 널이 하도 좋아 가지고, 이 작은 마루라고 하는 데, 그걸 또 마루 널
을, 그 마루 널로 작은 마루를 내었었어.)

108008 @1 음. 그 마리 널은 뭐 곳사 무신 무신.(음. 그 마루 널은 뭐 아까 무
슨 무슨.)

108008 #1 미송, 미송.(미송, 미송.)

108008 @1 미송. 으음.(미송. 으음.)

108008 #1 건 아주 좋은, 장마리.(건 아주 좋은, 장마루.)

108008 @1 음.(음.)

108008 #1 그 옛날에는 굴무기낭으로 부잣집은 요만씩 끈잉은앵에 재각하게 놓
읍주게.(그 옛날에는 느티나무로 부잣집은 요만큼씩 끊어서 뻑뻑하게 놓지요.)

108008 @1 음.(음.)

108008 #1 마리틀.(마루틀.)

108008 @1 예.(예.)

108008 #1 겐디 우리 마리 널은 장마리로 질게덜.(그런데 우리 마루 널은 장마루로 질게덜.)

108008 @1 음.(음.)

108008 #1 미송을 너, 넓게 놓안.(미송을 너, 넓게 놓았어.)

108008 @1 질게. 으음. 마리에 무시거 뭐 불 피우는, 무시거 만들진 안해낫수과? 이딘?(질게. 으음. 마루에 무엇 뭐 불 피우는, 뭐 만들진 않았었습니까? 여긴?)

108008 #1 마리에에는 곡식덜 그냥 멩텅이덜 농곡. 불 피우는 건 화리 해 가지고.(마루에는 곡식들 그냥 망태기들 놓고. 불 피우는 건 화로 해 가지고.)

108008 @1 기냥 화리양?(그냥 화로요?)

108008 #1 예. 거는 저디, 담배 피우곡. 우리 하르방.(예. 그거는 저기, 담배 피우고. 우리 할아버지.)

108008 @1 으음.(으음.)

108008 #1 그, 허곡. 그 담배 재떨이허곡 화리허곡 담배 피우곡. 그 통 담배.(그, 하고. 그 담배 재떨이하고 화리하고 담배 피우고. 그 통 담배.)

108008 @1 부섭¹⁴²이엔 현 거는 엇어낫수과?(‘부섭’이라고 하는 거는 없었습니까?)

108008 #1 뭐?(뭐?)

108008 @1 부섭. 부섭. 뭐 돌화리. 돌화리.(‘부섭’. ‘부섭’. 뭐 돌화로. 돌화로.)

108008 #1 아. 돌화리는 우리 봐 보질 안해낫수다.(아. 돌화로는 우리 봐 보질 않았었습니다.)

108008 @1 돌화리는 못 봐 보고양. 으음.(돌화로는 못 봐 보고요. 으음.)

108008 #1 그 정동화리엔 해 가지고 왜정 때에.(그 청동화로라고 해 가지고 일제강점기 때에.)

108008 @1 예에.(예에.)

108008 #1 나와수다. 발 돌은 거.(나왔습니다. 발 돌은 거.)

108009 @1 켈팡에 무시거, 무시거 놔낫수과?(고방에 무엇, 무엇 놓았었습니까?)

108009 #1 항게. 항. 전부 항.(항. 항. 전부 항.)

108009 @1 쓸 항.(쌀 항.)

108009 #1 쓸항덜.(쌀 항들.)

108009 @1 음.(음.)

108009 #1 그냥 그, 그냥 일반 조도 농곡, 보리도 놓고.(그냥 그, 그냥 일반 조도 놓고, 보리도 놓고.)

142) ‘부섭’은 상방이라는 초가 마루 뒤편에 마룻장 밑으로 문어 고정시키거나 부엌 바닥에 고정시켜 놓고, 삭정이나 장작 또는 콩깍지 등으로 불을 때는 화로이다. 달리 ‘봉덕’이라고 한다.

108009 @1 음.(음.)

108009 #1 쓸도 놓고.(쌀도 놓고.)

108009 @1 켈팡에 식게 때에 무시거 올려?(고방에 제사 때에 무엇 올려?)

108009 #1 아, 거는 올리지 아녀 받.(아, 거는 올리지 안해 봤어.)

108009 @1 건 안 해 봤수가?(건 안 해 봤습니까?)

108009 #1 어. 일절 안 해 받.(어. 일절 안 해 봤어.)

108009 @1 음.(음.)

108009 #1 그런 집이 그 저, 제사 때 먼저 켈팡에 강제 뭐 케우린덴 헨. 거 부젯칩이. 거 부제 뉘렌.(그런 집이 그 저, 제사 때 먼저 고방에 가서 제 뭐 고수레한다고 했어. 거 부젯집에. 거 부자 되라고.)

108009 @1 아.(아.)

108009 #1 그 부제 뉘 드렌 거 켈팡에 강. 켈팡이 쓸독 아니우파게. 쓸.(그 부자 돼 달라고 거 고방에 가서. 고방이 쓸독 아닙니까. 쌀.)

108009 @1 예, 예.(예, 예.)

108009 #1 부제 뉘 드렌 행. 그런 말은 들어났어.(부자 되게 해 달라고 해서. 그런 말은 들었었어.)

108009 @1 예.(예.)

108009 #1 우리 집은. 그런 건 일절.(우리 집은. 그런 건 일절.)

108009 @1 건 안 해 보고양?(건 안 해 보고요?)

108009 #1 음.(음.)

108009 @1 켈팡에도 영 들어가는 문 말아 또 따로 뭐 잇어났수과?(고방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문 말고 또 따로 뭐 있었습니까?)

108009 #1 아, 정제. 정제로 켈팡더레 문.(아, 부엌. 부엌에서 고방으로 문.)

108009 @1 정제로 들어가곡.(부엌으로 들어가고.)

108009 #1 문이.(문이.)

108009 @1 그다음은 킴킴허니까 뭐.(그다음은 킴킴하니까 뭐.)

108009 #1 아니. 거 저 창곰¹⁴³ 내낫주.(아니. 거 저 ‘창곰’ 냈었지.)

108009 @1 창곰.(창곰.)

108009 #1 음. 저 요요요 요만이 문에 고망 뜰랑.(음. 저 요요요 요만이 문에 구멍 뚫어서.)

108009 @1 게민.(그러면.)

108009 #1 축담 다올 때.(축담 쌓을 때.)

108009 @1 예, 예. 아, 거.(예, 예. 아, 거.)

108009 #1 축담 다올 때 일부러부터 그, 그디는 고망 뜰랑 놔 뉘.(축담 쌓을 때 일부러 그, 거기는 구멍 뚫어서 놔뉘어.)

108009 @1 축담 다올 때부터.(축담 쌓을 때부터.)

143) ‘창곰’은 밝게 하려고 바람벽에 뚫어 낸 구멍이다. 달리 ‘장곰, 창곰’이라고 한다.

108009 #1 예. 창공이엔 헤영.(예. ‘창공’이라고 해서.)

108009 @1 으음. 경혜영 무시겨 탕기지 못허게 영 낭 영.(으음. 그렇게 해서 무슨 거 다니지 못하게 이렇게 나무 이렇게.)

108009 #1 예. 막곡.(예. 막고.)

108009 @1 막으로. 영 창살추룩.(막으로. 이렇게 창살처럼.)

108009 #1 예, 경호연. 낭으로.(예, 그렇게 했어. 나무로.)

108009 @1 음.(음.)

108009 #1 계난, 에이고, 그 배염도 나오곡 쥐덜이.(그러니까, 에이고, 그 뱀도 나오고 쥐들이.)

108009 @1 글로 막 들어완.(거기로 막 들어왔어.)

108009 #1 막 천장으로 쥐덜이 막 들곡. 아, 이 배염도 영 다녀났어. 천장으로. (막 천장으로 쥐들이 막 달리고. 아, 이 뱀도 이렇게 다녔었어. 천장으로.)

108009 @1 예.(예.)

108009 #1 그, 저 어딴 사람은 누원 자단 서누롱 헤연. 배염이 영 사려전.(그, 저 어디 사람은 누워서 자다가 서늘해서. 뱀이 이렇게 사려져 있어.)

108009 @2 아.(아.)

108009 #1 ㄱ치 선에. 누원 자는디. 서누롱 헤연.(같이 있었어. 누워서 자는데. 서늘해서.)

108009 @1 아.(아.)

108009 #1 배염은 건드리지 았으면 물질 안헤마썸.(뱀은 건드리지 았으면 물질 았아요.)

108003 @1 예에.(예에.)

108003 #1 음.(음.)

108003 @1 이 상방에 이 천장을 했수과? 그냥 그 상마루 보이게 잇어났수과? (이 마루에 이 천장을 했습니까? 그냥 그 용마루 보이게 있었습니까?)

108003 #1 아, 천장은 했주.(아, 천장은 했지.)

108003 @1 천장.(천장.)

108003 #1 저, 저, 무신 거 했주기게. 서슬, 서슬.(저, 저, 무슨 거 했지. 산자, 산자.)

108003 @1 서슬.(산자.)

108003 #1 서슬에 흑 불랏주게. 그 옷데 새.(산자에 흙 발랐지. 그 위에 띠.)

108003 @1 아.(아.)

108003 #1 새 일언 했주게.(띠 일어서 했지.)

108003 @1 아.(아.)

108003 #1 서슬 우에. 흑 불른 우에 새를 더껏주.(산자 위에. 흙 바른 위에 띠를 덮었지.)

108003 @1 예.(예.)

108003 #1 계난 새는 못 볼 철이주게.(그러니까 떠는 못 볼 철이지.)

108003 @1 음.(음.)

108003 #1 서슬은 낭 깨 가지고 요만씩 줌진 낭으로 깡 무경. 다 그 온 상마를 다 더경 그.(산자는 나무 깨 가지고 요만씩 자잘한 나무로 깨어서 묶고. 다 그 온 용마루를 다 덮어서 그.)

108003 @1 으음.(으음.)

108003 #1 먼 발 완료헌 후에 서슬을 끌아났주.(모든 발 완료한 후에 산자를 깔았었지.)

108003 @1 으음.(으음.)

108003 #1 그 우에 서슬 끌면은 새 더경 완료헨 거. 계난 이 동네서 지금 저 집 원래 임제. 다 풀아 불엇주마는 그 오칸이라고 헌 집이, 이 봉성에서 오칸집 이디 하르방이 짓엇는다. 오칸집을.(그 위에 산자 깔면은 떠 덮어서 완료된 거. 그러니까 이 동네서 지금 저 집 원래 임자. 다 팔아 버렸지마는 그 오칸이라고 한 집이, 이 봉성에서 오칸집 여기 할아버지가 지엇는데. 오칸집을.)

108003 @1 아.(아.)

108003 #1 그때에 그 유학자 학 그, 완전 그 구황본을 채고. 열리왓, 열리왓디 살아난 그 문씨네 살아난. 그 동넛 하르방이 이디 완 오칸집을 짓는 거라.(그때에 그 유학자 학 그, 완전 그 구황본을 채고. ‘열리왓’, ‘열리왓’에 살앗던 그 문씨네 살앗던. 그 동네 할아버지가 여기 와서 오칸집을 짓는 거라.)

108003 @2 음.(음.)

108003 #1 갱 동네 사름이 왜 무사 경 오칸 집을 지엄수과? 다 후까지 헐 거 [꺼] 아니우파. 영 얼떡게.(그래서 동네 사름이 왜, 왜 그렇게 오칸 집을 짓고 있습니까? 다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얼떡게.)

108003 @1 음.(음.)

108003 #1 오칸 집을 지언. 예, 내가 죽은 후에 이 집을 알리기 위해서 짓노라. 게, 나는 몇 월 며칠날 죽을 거니까 앞으로 삼 년 잇다가 예,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글았어. 동네 사름보고. 계난 죽을 거니까 그리 해서 이 오칸 집을 짓노라 허니. 겐 이놈의 하르방이 그 원래는 그 의사. 이, 저, 침.(오칸 집을 지엇어. 예, 내가 죽은 후에 이 집을 알리기 위해서 짓노라. 게, 나는 몇 월 며칠날 죽을 거니까 앞으로 삼 년 잇다가 예,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말했어. 동네 사름보고. 그러니까 죽을 거니까 그리 해서 이 오칸 집을 짓노라 하니. 그렇게 해서 이놈의 할아버지가 그 원래는 그 의사. 이, 저, 침.)

108003 @1 음.(음.)

108003 #1 침 주는 하르방이라. 어린아이덜, 어디 환자 그튼디 강 허면은 침 놓 곡 병 고찌곡. 그자 글만 허는 하르방이난. 동네 사름덜이 어떻게영 그 죽을 날 알아집니까 허명, 흘 거 아니우파게.(침 놓는 할아버지라. 어린아이들, 어디 환자 같은 데 가서 하면은 침 놓고 병 고치고. 그저 글만 하는 할아버지니까. 동네 사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죽을 날 알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할 거 아닙니까?)

108003 @1 음.(음.)

108003 #1 동기간 권당덜도 우리 형님 좀 멍청해연 노망들엄젠, 어디 죽을 날을 알 사름 이시넨. 겐 ○○이엔 헌 하르방인디, 우리 욱은 후에 혼 열다섯 후에 그, 그 말을 헌 거라 그 하르방이. 게난게 이 동네 사름덜이, 어린아이 그때 병원은 웃곡 허민, 아프민 그 하르방안티만 업영 강 침, 그냥 바로 의사주게. 의사 헤난. 다 공이 있을 거 아니우파게? 허난.(동기간 권당들도, 우리 형님 좀 멍청해서 노망들고 있다고, 어디 죽을 날을 알 사람 있느냐고. 그래서 ○○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 우리 성장한 후에 한 열다섯 후에 그, 그 말을 한 거라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어린아이 그때 병원은 없고 하면, 아프면 그 할아버지한테만 업어 가서 침, 그냥 바로 의사지. 의사 했었어. 다 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니까.)

108003 @1 음.(음.)

108003 #1 아이, 죽을 날 돌아와 가도 변동이 엇이 곤는 거라. 나는 며칠날, 이제 열흘 남았다 이런 식으로. 뭐 몇 시간, 그, 저, 이, 그 딱 열두 시까지 곤고. 낮이. 아프도 안 허고, 밥은 먹고, 썩썩허고. 아, 그런 하르방이 이션. 우리 열댓 살 넘언 우리 알아져. 게난 이제 동네 사름덜이 날은 가까와 가난에 변동은 안 헌 거라. 틀림없이 나는 며칠날 죽는다 선언해 놓으니까. 하이고 이젠, 그 저, 집집마다 공이 시난 곤밥덜 흥영 츠레로, 오닐은 누구네 집 그 하르방에 강 대접허곡, 또 혼 집은 또 그 하르방 대접허곡, 헐 거 아니우파. 그 저 죽어 부난. 선포, 세상 죽을 날 삼년 전이 선포허는 사름이 어디 이수과.(아이, 죽을 날 돌아와 가도 변동이 없이 말하는 거라. 나는 며칠날, 이제 열흘 남았다 이런 식으로. 뭐 몇 시간, 그, 저, 이, 그 딱 열두 시까지 말하고. 낮에. 아프지도 않고, 밥은 먹고, 정정하고. 아, 그런 할아버지가 있었어. 우리 열댓 살 넘어서 우리 알아져.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날은 가까워 가니까 변동은 앓는 거라. 틀림없이 나는 며칠 죽는다 선언해 놓으니까. 하이고 이젠, 그 저, 집집마다 공이 있으니까 쌀밥들 해서 차례로, 오늘은 누구네 집 그 할아버지께 가서 대접하고, 또 한 집은 또 그 할아버지 대접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저 죽어 버리니까. 선포, 세상 죽을 날 삼년 전에 선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8003 @1 (웃음).((웃음).)

108003 #1 가까와 가난에 아시여 권당이여 그 날은 죽을 날이엔 헌디 다 온 거지. 아시도 시 분이 다 오난 우리 형님이 정말로 저 멍청, 경 허카마썸. 아인 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밥까지 먹고, 열두 시 돼난에 예, 그, 그, 창호지에 썸, 각시 죽을 날 딱 썸단, 것까지 알안 썸단 걸 그 앞이서 헤근에 내가 불 태와서, 불 태와 두고 구들에 간 앓안 죽어 불언.(가까워 가니까 동생이다, 권당이다, 그 날은 죽을 날이라고 하는데 다 온 거지. 동생도 세 분이 다 오니까, 우리 형님이 정말로 저 멍청, 그렇게 할까요. 아닌 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밥까지 먹고, 열두 시 되니까 예, 그, 그, 창호지에 써서, 각시 죽을 날 딱 썸다가, 그것까지 알아서 썸다가 걸 그 앞에서

해서 내가 불 태웠어, 불 태워 두고 구들에 간 앉아서 죽어 버렸어.)

108003 @2 음.(음.)

108003 #1 거 바로 신화. 계난 그 분 우리, 우리가, 소문이 우리 그 열댓 살 넘은 후에 훤히 알주게. 계난 그런 귀신, 계난 그때에 경 혼, 앓안 죽은 소문이 날 거 아니우파게. 주위에서 소문이 나난, 그보단 더 글을 혼 하르방이 있어, 글을. 그 더 혼 하르방은 그 아까 곪았지마는, 우리 종손 땅인데 강○○○엔 현 사름이, 제주도 일등 글을 혼 하르방인디. 그 하르방신디 간 다 들은 거라. 신명동 강○○는 어떻게 죽을 날을 알안 그 글을 그, 어르신보단 더 글을 허, 혼 하르방이젠 막 ○○ 들은 거 아니우파게. 그 죽을 시간까지 알안게 딱 죽영.(거 바로 신화. 그러니까 그 분 우리, 우리가, 소문이 우리 그 열댓 살 넘은 후에 훤히 알지. 그러니까 그런 귀신, 그러니까 그때에 그렇게 한, 앉아서 죽은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주위에서 소문이 나니까, 그보다 더 글을 한 할아버지가 있어, 글을. 그 더 한 할아버지는 그 아까 말했지마는, 우리 종손 땅인데 강○○라고 하는 사람이, 제주도 일등 글을 한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다 들은 거라. 신명동 강○○는 어떻게 해서 죽을 날을 알아서, 그 글을 그, 어르신보단 더 글을 하, 한 할아버지냐고 막 ○○ 들은 거 아닙니까. 그 죽을 시간까지 알아서 딱 죽어서.)

108003 @2 음.(음.)

108003 #1 그 강○○도 경 곪아렌. 육효를 공부헌, 이 나도 죽을 날 안다. 죽을 날 시까지. 계난 그 선포는 아년다 이녁은. 그, 막 육효에 공불 허면은 그게 나타난덴 죽을 날이. 경 곪았덴. 계난 그 강○○엔 현 하르방은 아프지도 안허고 조반 먹고 말 썩썩 곤단에 아이, 구덜에 들어간 앓안 그 시간에 죽어 불연.(그 강○○도 그렇게 말하더라고. 육효를 공부한, 이 나도 죽을 날 안다. 죽을 날, 시까지. 그러니까 그 선포는 아니 한다 이녁은. 그, 막 육효에 공부를 하면은 그게 나타난다고 죽을 날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그 강○○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아프지도 앓고 조반 먹고 말 썩썩 말하다가 아이, 구들에 들어가서 앉아서 그 시간에 죽어 버렸어.)

108003 @1 아.(아.)

108003 #1 그때 무신 약이, 농약이 있어수가? 아무것도 엇어주겐.(그때 무슨 약이, 농약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108003 @1 음. 할망은 그때 살아 잇고양?(음. 할머니는 그때 살아 잇고요?)

108003 #1 예, 할망은 오래 살고.(예, 할머니는 오래 살고.)

108003 @1 음.(음.)

108003 #1 그러고 몇 년씩, 혼 십 년, 이십 년 살고.(그러고 몇 년씩, 한 십 년, 이십 년 살고.)

108003 @1 음.(음.)

108003 #1 그 할망 죽을 날 이거 불 태와 불켄 허명.(그 할머니 죽을 날 이거 불 태워 버리겠다고 하면서.)

108003 @1 음.(음.)

108003 #1 불 태와 된 들어간 앓양.(불 태워 두고 들어가서 앓아서.)

108003 @1 오칸 집은 이제도 이수과?(오칸 집은 이제도 있습니까?)

108003 #1 오칸 집 뜯언게. 풀안 시에 가 부난 아덜. 그 집 풀안.(오칸 집 뜯었어. 팔고 시에 가 버리니까 아덜. 그 집 팔고.)

108003 @1 아, 아덜이 풀아 된 시에 간.(아, 아들이 팔아 두고 시에 갔어.)

108003 #1 예. 아덜이 풀안게. 새로 사 온 사름이 이제 살암주게.(예. 아들이 팔았어. 새로 사 온 사람이 이제 살고 있지.)

108003 @1 아, 계난 새로 산 온 사름이 살암수과? 오칸 집이 살암수과? 아니민.(아, 그러니까 새로 사서 온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오칸 집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108003 #1 아이, 그 집 뜯어 된 새로 지언, 스투트집 지언 살암수게게.(아이, 그 집 뜯어 두고 새로 지어서, 슬레이트집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108003 @2 아아.(아아.)

108003 @1 아아. 새로. 으음.(아아. 새로. 으음.)

108003 #1 바로 이 우리 앞집이난 우리 모릅니까게.(바로 이, 우리 앞집이니까 우리 모릅니까.)

108003 @1 으음.(으음.)

108003 #1 오칸 집. 유일허게 이 집이 오칸이 그 하르방이 오칸 집 짓언. 그 죽을날 알고 건 우리가, 나가 바로 보난에.(오칸 집. 유일하게 이 집이, 오칸이, 그 할아버지가 오칸 집 지었어. 그 죽을 날 알고 건 우리가, 나가 바로 보았으니까.)

108003 @1 으음.(으음.)

108003 #1 동네 사름이 다 밥 해 가고.(동네 사름이 다 밥 해 가고.)

108011 @1 아이고. 대문 영 이시민양.(아이고. 대문 이렇게 있으면요.)

108011 #1 으음.(으음.)

108011 @1 여기 영 헤근에.(여기 이렇게 해서.)

108011 #1 대문 양쪽이주.(대문 양쪽이지.)

108011 @1 대문은 영.(대문은 이렇게.)

108011 #1 영 여껏당 더끄곡.(이렇게 열었다가 닫고.)

108011 @1 음.(음.)

108011 #1 두 개 지게.(두 개 지게.)

108011 @1 예, 맞수다. 게민 요디 대문이.(예, 맞습니다. 그러면 요기 대문이.)

108011 #1 지방, 지방.(지방, 지방.)

108011 @1 문지방에.(문지방에.)

108011 #1 귀떨이. 귀, 그디, 저 튀어나게끔 문을, 고망에 찢르는 거 있어. 그, 저, 지방에.(귀떨이. 귀, 거기, 저 튀어나게끔 문을, 구멍에 찢르는 거 있어. 그, 저, 지방에.)

108011 @1 요, 요디 요만이.(요, 요기 요만이.)

108011 #1 요만이. 들어.(요만이. 들어.)
108011 @1 요만이.(요만이.)
108011 #1 그거 빙빙 돌아가는 거주게.(그거 빙빙 돌아가는 거지.)
108011 @1 뱅뱅 돌릴 거 아니우파. 영, 양.(뱅뱅 돌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108011 #1 예, 예, 예.(예, 예, 예.)
108011 @1 케민 그디 그 고망은 무시거옌 험니까. 이디?(그러면 거기 그 구멍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
108011 #1 거 지방 고망. 지방에 흠치 고망을 뜯라.(거 지방 구멍. 지방에 한꺼번에 같이 구멍을 뚫어.)
108011 @1 처음부터.(처음부터.)
108011 #1 예. 대문 지방에.(예. 대문 지방에.)
108011 @1 지방에 고망을 뜯르고. 요, 요요 뽀족 나온 거 요거 ***(지방에 구멍을 뚫고. 요, 요요 뽀족 나온 거 요거 ***)
108011 #1 요거 그만이. 흐뎡 슬지게 요요요.(요거 그만이. 조금 굵게 요요요.)
108011 @1 슬지게. 이건 뭐옌 험니까? 이거 이거, 요요요, 요 뽀록 나온 건. 문에.(굵게. 이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이거, 요요요, 요 뽀록 나온 건. 문에.)
108011 #1 아, 저, 그, 그, 대문에?(아, 저, 그, 그, 대문에?)
108011 @1 예.(예.)
108011 #1 쥐, 쥐도리옌 쥐도리.(지, 지도리라고. 지도리.)
108011 @1 쥐도리?(지도리?)
108011 #1 음.(음.)
108011 @1 쥐도리가 아래도 잇고.(지도리가 아래도 잇고.)
108011 #1 우에도 싯곡게.(위에도 잇고.)
108011 @1 우에도 잇어야.(위에도 잇어야.)
108011 #1 우에도 셔야지. 꼭 ㄴ찌.(위에도 잇어야지. 꼭 같이.)
108011 @1 똑같이.(똑같이.)
108011 #1 꼭 ㄴ찌 저, 지방에 쥐도리가 고망에 들어전.(꼭 같이 저, 지방에 지도리가 구멍에 들어져서.)
108011 @1 예.(예.)
108011 #1 으.(으.)
108011 @1 경혜영 열었다 닫았다 허는다. 영 닫아근에 안으로 영 무시거를 겁니까? 베껏딜로.(그렇게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이렇게 닫아서 안으로 이렇게 무엇을 겁니까? 바깥으로.)
108011 #1 바껏딜로.(바깥으로.)
108011 @1 베껏딜로 거는 거 그건 뭐옌.(바깥으로 거는 거 그건 뭐라고.)
108011 #1 열쇄?(열쇠?)
108011 @1 양? 거, 거, 거, 걸.(예? 거, 거, 거, 걸.)

108011 #1 그 저, 저, 저, 그 저, 그게, 그냥 어떤 거는 그냥 내 불곡.(그 저, 저, 저, 그 저, 그게, 그냥 어떤 거는 그냥 내 버리고.)

108011 @1 음.(음.)

108011 #1 그 걸영 그 저 저 특 허영 탁 더끄는 거 있어.(그 걸어서 그, 저, 저, 특 해서 탁 닫는 거 있어.)

108011 @1 더끄는 거.(닫는 거.)

108011 #1 그 든든하게.(그 단단하게.)

108011 @1 예, 거 뭇이엔 해?(예, 거 뭐라고 해?)

108011 #1 그, 그것이 문, 문.(그, 그것이 문, 문.)

108011 @2 문걸쇄? 걸쇄?(문걸쇠? 걸쇠?)

108011 #1 문걸쇄.(문걸쇠.)

108011 @1 낭으로 만든 거파? 췌로.(나무로 만든 겁니까? 쇠로.)

108011 #1 낭으로. 낭으로.(나무로. 나무로.)

108011 @1 낭으로 만든 거양. 그건.(나무로 만든 거요. 그건.)

108011 #1 그건 영 허영.(그건 이렇게 해서.)

108011 @2 음.(음.)

108011 #1 그, 저, 탁 허면은 열어지지 안허게.(그, 저, 탁 허면은 열어지지 않게.)

108011 @1 올라지지 안허게양.(열어지지 않게요.)

108011 #1 그 트명이 그런 집이 셔낫수다.(그 사이에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108011 @1 베껏딜로양?(바깥으로요?)

108011 #1 음. 베껏딜로.(음. 바깥으로.)

108011 @1 베껏딜로. 음.(바깥으로. 음.)

108011 #1 게 아녀면은 저, 보통 통췌라고 해 가지고.(그러지 않으면 저, 보통 자물쇠라고 해 가지고.)

108011 @1 통췌?(자물쇠?)

108011 #1 중, 중그는 거.(잠, 잠그는 거.)

108011 @1 아, 건 이제 나중에.(아, 건 이제 나중에.)

108011 #1 내중에.(나중에.)

108012 @1 음. 췌, 췌 나오난 허는 거고. 음. 게민 식게 헐 땀 이디서 헛수과? 그디서 헛수과?(음. 쇠, 쇠 나오니까 하는 거고. 음. 그러면 제사 할 땀 여기서 헛수과? 거기서 헛수과?)

108012 #1 아이. 이디서.(아이. 여기서.)

108012 @1 이디서?(여기서?)

108012 #1 음.(음.)

108012 @1 이디도 영 문 두 개가 잇지 안헛수과? 하나만 잇어수과? 두 개 영 열었다, 저.(여기도 이렇게 문 두 개가 잇지 않았습니까? 하나만 있었습니까? 두 개

이렇게 열었다, 저.)

108012 #1 아이, 저 창문.(아이, 저 창문.)

108012 @1 창문?(창문?)

108012 #1 음. 창문이. 흐, 흐, 흐나일 거라. 흐나. 그디.(음. 창문이. 하, 하, 하나일 거라. 하나. 거기.)

108012 @1 이거 무신 문이엔 헛수과? 이거 영, 이것도.(이거 무슨 문이라고 했습니까? 이거 이렇게, 이것도.)

108012 #1 앞에 창문. 이거 셋문¹⁴⁴.(앞에 창문. 이거 ‘셋문’.)

108012 @1 셋문. 여긴 대문.(‘셋문’. 여긴 대문.)

108012 #1 대문. 저 앞인 창문.(대문. 저 앞엔 창문.)

108012 @1 저거.(저거.)

108012 #1 저쪽은 창문.(저쪽은 창문.)

108012 @1 앞인 창문.(앞엔 창문.)

108012 @2 셋문.(‘셋문’.)

108012 @1 셋문.(‘셋문’.)

108012 #1 응, 이건 대문.(응, 이건 대문.)

108012 @1 으음.(으음.)

108012 #1 정젹문.(부엌문.)

108012 @1 이 셋문은.(이 ‘셋문’은.)

108012 #1 거 흐나, 흐나. 통, 저디 영, 이레 지등 흐영 흐나 영, 영 줍앗당 더끄곡.(거 하나, 하나. 통, 저기 이렇게, 여기 지등 해서 하나 이렇게, 이렇게 잡았다가 닫고.)

108012 @1 예, 예.(예, 예.)

108012 #1 줍아뎡겻당 더끄곡. 지방에 흐영 이것도.(잡아당졌다가 닫고. 지방에 해서 이것도.)

108012 @1 그, 막아진 게 아니라 이추록 창호지 불, 불르는 거?(그, 막아진 게 아니라 이렇게 창호지 바, 바르는 거?)

108012 #1 창호지 불르는 거.(창호지 바르는 거.)

108012 @1 불르는 거지양?(바르는 거지요?)

108012 #1 창호지가 웃일 때 하간 무슨, 히여뜩헌 종이로 흐난.(창호지가 없을 때 여러 가지 무슨, 잡스러운 종이로 했으니까.)

108012 @2 신문지로. (웃음).(신문지로. (웃음).)

108012 #1 신문지 ㄱ튼 거로 곳당.(신문지 같은 걸로 가져다가.)

108012 @1 으음. 이런 건, 널문이 아니라 무신 문마썸? 저건 아까 요 대문은 널문이고.(으음. 이런 건, 널문이 아니라 무슨 문이요? 저건 아까 요 대문은 널문이고.)

144) ‘셋문’은 부엌과 마루 사이 혹은 방과 마루 사이에 있는 문이다.

108012 #1 널문이고.(널문이고.)

108012 @1 통널로 널문이고.(통널로 널문이고.)

108012 #1 이, 이거 이거는, 저거는 창문이고, 이거, 이거 셋문.(이, 이거 이거는, 저거는 창문이고, 이거, 이거 ‘셋문’.)

108012 @1 셋문. 으음.(‘셋문’. 으음.)

108007 @2 그 흑 블라근에 벽에 뭐 뭘로, 뭘로 뭐 도배 ㄱ튼 건 뭘로 헛수과?
(그 흑 발라서 벽에 뭐 뭘로, 뭘로 뭐 도배 같은 건 뭘로 헛수과?)

108007 #1 도비 흑는, 도비 흑? 도비는 안 해서.(도배 하는, 도배 흑? 도배는 안 했어.)

108007 @1 그때에는 못 헛주양?(그때에는 못 헛지요?)

108007 #1 안 해서.(안 했어.)

108007 @1 나중에 허고. 음.(나중에 하고. 음.)

108007 #1 우리 나중에 우리, 도비 안 해연 살아서.(우리 나중에 우리, 도배 안 해서 살았어.)

108007 @2 게, 바닥 구들은 또 뭘 블라수과?(그럼, 바닥 구들은 또 뭘 발랐습니까?)

108007 #1 구들?(구들?)

108007 @1 바닥. 구들에는, 뭐.(바닥. 구들에는, 뭐.)

108007 #1 구들에 흑, 저디게 굴묵만 영 낭은에게. 흑 깎양은에게.(구들에 흑, 저기 굴묵만 이렇게 놓고서. 흑 깔아서.)

108007 @1 흑 깎안? 그다음에 흑 우이?(흑 깔았어? 그다음에 흑 위에?)

108007 #1 흑 우이게 초석.(흑 위에 초석.)

108007 @1 초석만 헛수과?(초석만 헛수과?)

108007 #1 음. 그디, 저디, 도비도 안 헛 초석만 깎안 헛단.(음. 거기, 저기, 도배도 안 하고 초석만 깔아서 헛다가.)

108007 @2 도비도 안 허고?(도배도 안 하고?)

108007 #1 음. 말짜이는 저, 전문으로 어디 군인 주둔헌 디 강 종이덜을 막 ㄱ겨와났어. 어떤 사름덜 그디 강. 군인 종이.(음. 말짜이는 저, 전문으로 어디 군인 주둔한 데 가서 종이들을 막 가져왔었어. 어떤 사람들 거기 가서. 군인 종이.)

108007 @1 음.(음.)

108007 #1 그 미국 종이덜. 그걸로 다 도비헛주.(그 미국 종이들. 그걸로 다 도배헛지.)

108007 @2 음.(음.)

108007 #1 구들. 거.(구들. 거.)

108007 @1 도비헤영 또 다끄젠[따끄젠] 물 흐끔 흘리고 허민 안 뉘난에 그 우이 무시거 블라, 블라수과?(도배해서 또 닦으려고 물 조금 흘리고 하면 안 되니까 그 위에 무슨 거 발라, 발랐습니까?)

108007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8007 @1 종이 한 다음에, 종이 우이.(종이 한 다음에, 종이 위에.)

108007 #1 종이. 종이 우에.(종이. 종이 위에.)

108007 @1 지름, 지름 불리지 안해서마썸?(기름, 기름 바르지 않았나요?)

108007 #1 거는 그루후에, 거는 장판지 멘들앙.(거는 그 후에, 거는 장판지 만들어서.)

108007 @2 장판지, 장판지 나오난. (웃음).(장판지, 장판지 나오니까. (웃음).)

108007 #1 그거를 유지름으로 막 절여.(그거를 들깨기름으로 막 절여.)

108007 @2 음.(음.)

108007 #1 유, 유, 유 뭐 단 지름 뽕.(유, 유, 유 뭐 단 기름 빼어서.)

108007 @1 유지름으로.(들깨기름으로.)

108007 #1 유지름으로 막 불르민 그계, 바로 낭쳐록 빈질빈질 허민 그걸 그거는 다까낫주게. 그거로.(들깨기름으로 막 바르면 그계, 바로 나무처럼 반들반들 하면 그걸 그거는 닦았었지. 그거로.)

108007 @1 음.(음.)

108007 #1 그건 막 부잣집이나 허영 장판지. 말짜이는 거의 장판지 그추록 다 허고. 구들에.(그건 막 부잣집이나 해서 장판지. 말짜에는 거의 장판지 그렇게 다 하고. 구들에.)

108007 @1 음.(음.)

108007 #1 켜에 그 유지름으로 행 뭐, 뭐, 불르고 행 빈직빈직 헤난.(그래서 그 들깨기름으로 해서 뭐, 뭐, 바르고 해서 반들반들 했었어.)

108007 @1 음.(음.)

108007 #1 처음에는 흑 우이 그냥 초석 깔앙 살아서. 게, 보리낭 깔아 낫, 초석 깔아난.(처음에는 흑 위에 그냥 초석 깔아서 살았어. 거기, 보릿짚 깔아 놓고, 초석 깔았었어.)

108007 @1 아아.(아아.)

108007 #1 흑 우이 보리낭 깔아 낫. 그 초석 깔안.(흑 위에 보릿짚 깔아 놓고. 그 초석 깔았어.)

108007 @1 방에도마썸?(방에도요?)

108007 #1 예. 방에, 잠자는 방에.(예. 방에, 잠자는 방에.)

108014 @1 으음. 굴묵은 무시걸로 진어낫수과?(으음. ‘굴묵’은 무엇으로 때었었습니까?)

108014 #1 무신걸로게. 쉼, 들똥, 들똥 좇어당 진엇주, 보통.(무엇으로. 소, 말똥, 말똥 주워다가 때었지, 보통.)

108014 @1 들똥 좇어당.(말똥 주워다가.)

108014 #1 응, 말짜에 ㄱ스락 시난 ㄱ스락으로 진고.(응, 말짜에 까끄라기 있으니까 까끄라기로 때고.)

108014 @1 ㄹ스락으로도 짚고.(까끄라기로도 때고.)

108014 #1 보리 ㄹ스락으로.(보리 까끄라기로.)

108014 @1 음.(음.)

108014 #1 굴묵은 또, 짚을커도 엇으면은 그때는 추워 배도 안행 살아서. 추, 추, 춥텐을 안 허데 윈. 그, 그, 그 냉방에도.(‘굴묵’은 또, 떨감도 없으면은 그때는 추워 보이지도 안해서 살았어. 추, 추, 춥다고 안 하데 윈. 그, 그, 그 냉방에도.)

108014 @1 게, 굴묵.(그거, ‘굴묵’.)

108014 #1 이불도, 이불도 아주, 아주 요즘 이불답지 안 해연 나중엔, 저, 무명으로 만든 이불 해영 더끄곡 해연 살안.(이불도, 이불도 아주, 아주 요즘 이불답지 안 해서 나중엔, 저, 무명으로 만든 이불 해서 덮고 해서 살았어.)

108016 @1 으음. 물팡은 어느 펜이 있어낫수과?(으음. ‘물팡’은 어느 편에 있었습니까?)

108016 #1 물팡¹⁴⁵⁾은 정제에게. 정제 앞이.(‘물팡’은 부엌에. 부엌 앞에.)

108016 @1 정제 앞이?(부엌 앞에?)

108016 #1 예. 거는 물구덕¹⁴⁶⁾ 해영 놔, 놔 두곡. 언제나.(예. 거는 ‘물구덕’ 해서 놔, 놔 두고. 언제나.)

108016 @1 으음.(으음.)

108016 #1 정제 앞이. 거는, 그, 물 질레 가곡.(부엌 앞에. 거는, 그, 물 길러 가고.)

108016 @1 물 질레 어디ㄱ장 갖다 읍디가?(물 길러 어디까지 갔다 오셨습니까?)

108016 #1 요, 하이고 그때는 저을에 윈 그렇게 비도 아니 와 가지고. 요디, 저디, 세미덜 헨 떡단, ㄱ물아 불면은 그 세미가 물이 웃어. 경허면은 저 광지¹⁴⁷⁾ 가면은 그 물 올려.(요, 하이고 그때는 저을에 윈 그렇게 비도 아니 와 가지고. 요기, 저기, 샘덜 해서 떡다가, ㄱ물아 버리면은 그 샘이 물이 없어. 그러면은 저 광지 가면은 그 물 올려.)

108016 @2 음. 과물.(음. 과물.)

108016 #1 그, 광지, 금성¹⁴⁸⁾.(그, 광지, 금성.)

108016 @1 과물?(과물?)

108016 #1 예. 그, 가면은 그 해변 가에 강 물 나오는, 샘물 나옵주게.(예. 그, 가면은 그 해변 가에 가서 물 나오는, 샘물 나옵니다.)

108016 @2 산물.(산물.)

108016 #1 예. 그디 구루마 꾀영 도로기, 도로무짱에 췌구루마 꾀영 강 그, 광지 사름안티 스정해영 물 질레 와수텐 해영 강.(예. 거기 마차 끌고 드럼, 드럼통에 소,

145) ‘물팡’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올려놓아 두는 대이다.

146) ‘물향’은 물동이를 넣고 지어 다니게 된, 대로 만든 조금 큰 바구니이다.

147) ‘광지’는 제주시 애월읍 광지리를 말한다.

148) ‘금성’은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를 말한다.

마차 끌고 가서 그, 괘지 사람한테 사정해서, 물 길러 왔습니다, 하고 해서 가서.)

108016 @1 아.(아.)

108016 #1 질언 꾀영 왕 물 먹곡.(길어서 끌고 와서 물 먹고.)

108016 @1 아. 그 동네 사름안티.(아. 그 동네 사람한테.)

108016 #1 예. 괘지나 금성.(예. 괘지나 금성.)

108016 @1 굴양.(말해서.)

108016 #1 그디 가낫주. 물 질레 이디서.(거기 갔었지. 물 길러 여기서.)

108016 @1 음. 여긴 계난 세미가 어느 펜이 잇어낫수과?(음. 여긴 그러니까 세미가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108016 #1 요 우에게.(요 위에.)

108016 @1 음.(음.)

108016 #1 우에 저디, 우에 이 마을에서 세미를. 우선 동네 허쟁 허면은 못 파곡 세미 파야 돼.(위에 저기, 위에 이 마을에서 세미를. 우선 동네 하려고 하면은 못 파고 세미 파야 돼.)

108016 @1 으음.(으음.)

108016 #1 동네 형성돼쟁 허면. 못 파쟁 허민 겨울에 췌 맥이는 물.(동네 형성되려고 하면. 못 파려고 하면 겨울에 소 먹이는 물.)

108016 @1 아아.(아아.)

108016 #1 못 팡. 저, 지금 저 나무 신디가 못이난 못. 저을에 들민 그디 강 물 맥이곡. 저 세미는, 그 뭐 혼 들포 파. 모다들영. 목광이 허곡.(못 파서. 저, 지금 저 나무 있는 데가 못이니까 못. 겨울에 들면 거기 가서 물 먹이고. 저 세미는, 그 뭐 한 달포 파. 모여들어서. ‘목광이’ 하고.)

108016 @1 음.(음.)

108016 #1 걸 저 망텡이에 흑 담양 내치곡, 그냥 혼 들포 파 가지고 세미 만들양.(걸 저 망태기에 흑 담아서 내치고, 그냥 한 달포 파 가지고 세미 만들어서.)

108016 @1 그디 물 골르게 혼 겨우파? 나온 거, 물.(거기 물 피게 한 겁니까? 나온 거, 물.)

108016 #1 아, 골르게.(아, 피게.)

108016 @1 골르게.(피게.)

108016 #1 물, 물, 물 골르는 디 그디 알아지주게. 물을 이디 못. 건 논이, 논밭 가튼 디 강 파민 물 앓아마썸.(물, 물, 물 피는 데 거기 알 수 있지. 물을 여기 못. 건 논이, 논밭 같은 데 가서 파면 물 피어요.)

108016 @1 예.(예.)

108016 #1 일반 자갈밭은 물 아니. 아뻥 파도. 저, 논밭이 이섯어. 요디.(일반 자갈밭은 물 아니. 아무리 파도. 저, 논밭이 있었어. 요기.)

108016 @1 예.(예.)

108016 #1 그 논밭, 그 하나 사 가지고.(그 논밭, 그 하나 사 가지고.)

108016 @1 음.(음.)

108016 #1 거, 저, 물, 아마 혼 두어 덜 해서. 멧 사름 허연 지금 혼, 이, 혼 오십 평 주위 못 판에.(거, 저, 물, 아마 한 두어 달 했어. 멧 사람 해서 지금 한, 이, 한 오십 평 주위 못 파서.)

108016 @1 음.(음.)

108016 #1 그계 계, 집집마다 그 물, 해당 떡곡 화재 나민 그디 물 길어당 뿌리 곡.(그계, 거, 집집마다 그 물, 해다가 먹고 화재 나면 거기 물 길어다가 뿌리고.)

108016 @1 으음. 지금도 이수과? 그거?(으음. 지금도 있습니까? 그거?)

108016 #1 아니. 메와 불언. 다.(아니. 메워 버렸어. 다.)

108016 @1 메와 불언.(메워 버렸어.)

108016 #1 메완에 밧 만들안, 거 저디 마을에서 것도 풀아 불언. 밧 만들안.(메워서 밧 만들어서, 거 저기 마을에서 그것도 팔아 버렸어. 밧 만들어서.)

108016 @1 아.(아.)

108016 #1 못 신 디 옆에 지금도 잇는 딴 잇어.(못 잇는 데 옆에 지금도 잇는 데는 잇어.)

108016 @1 물허벅, 물허벅에 물구덕양.(‘물허벅’, 물허벅에 ‘물구덕’요.)

108016 #1 음.(음.)

108016 @1 물허벅 그 아래에 영 깎는 건 무시거엔 흡니까?(‘물허벅’ 그 아래에 이렇게 까는 건 무엇이라고 합니까?)

108016 #1 대?(대?)

108016 @1 예예. 대로 영 여끈 거.(예예. 대로 이렇게 엮은 거.)

108016 #1 대로 여끈 거. 그 물허벅¹⁴⁹⁾ 대로 여끈 거 뭇이엔 흐여? 어?(대로 엮은 거. 그 ‘물허벅’ 대로 엮은 거 뭐라고 해? 어?)

108016 #2 뭐?(뭐?)

108016 #1 물허벅 아래 그 저디.(‘물허벅’ 아래 그 저기.)

108016 #2 대로 여끄민 대엔 흐주. 뭇이엔 흡니까게? (웃음).(대로 엮으면 대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웃음))

108016 #1 대 여깁 아래 구치.(대 엮어서 아래 받치.)

108016 #2 계메, 물구덕이영 흐영은에.(글쎄, ‘물구덕’이랑 해서.)

108016 @1 물구덕 아래.(‘물구덕’ 아래.)

108016 #2 **** 대. 그거 대로 헤영 대.(**** 대. 그거 대로 해서 대.)

108016 @1 계난 물구덕 아래. 받치는 거.(그러니까 ‘물구덕’ 아래. 받치는 거.)

108016 #2 그거 받치는 것가 거 대로 여끄민 그거 그냥 흡니다게.(그거 받치는 것이 거 대로 엮으면 그거 그냥 합니다.)

108016 @1 으음.(으음.)

108016 #1 그.(그.)

149) ‘물허벅’은 물을 길는 데 쓰는 허벅이다.

108016 @1 물허벅도 큰 거 잇고 작은 거 잇잖아우파?(‘물허벅’도 큰 거 잇고, 작은 거 잇지 않습니까?)

108016 #1 아이고, 대바지¹⁵⁰가 섯곡.(아이고, ‘대바지’가 잇고.)

108016 @1 대바지?(‘대바지’?)

108016 #1 큰 거 허벅이가 잇고.(큰 거 허벅이 잇고.)

108016 @1 대바지?(‘대바지’?)

108016 #1 대바기. 어린 아이들은 대바기.(‘대바기’. 어린 아이들은 ‘대바기’.)

108016 #2 작은 건, 작은 건 대바지고 큰 거는 허벅이고.(작은 건, 작은 건 ‘대바지’고 큰 거는 허벅이고.)

108017 @1 아아. 이, 이 우리 올레는 요디서 이펜이우파? 아니민 저, 요펜부터 올레파? 올레가.(아아. 이, 이 우리 ‘올레’는 요기에서 이 쪽입니까? 아니면 저, 요 쪽부터 올레입니까? 올레가.)

108017 #1 이, 이거는 저, 저, 저, 저 앞에는 저디 저 공동이고, 저 일레 들어오는 디는 다 우리 땅이주게.(이, 이거는 저, 저, 저, 저 앞에는 저기 저 공동이고, 저 이리로 들어오는 데는 다 우리 땅이지.)

108017 @ 음, 계난.(음, 그러니까.)

108017 #1 저, 저 질은 게 공동이고.(저, 저 길은 거 공동이고.)

108017 @1 계난 그 공동인 그디도 올레파? 이디도?(그러니까 그 공동인 거기도 올레입니까? 여기도?)

108017 #1 아이. 올레가 아니고 거는 거, 저, 공동으로 이 동네 설촌 할 때 저 끈언. 끈언 마을에서 공동으로.(아이. 올레가 아니고 거는 거, 저, 공동으로 이 동네 설촌 할 때 저 끊어서. 끊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108017 @1 골목이엔 홉니까? 올레엔 헉니까?(골목이라고 합니까? 올레라고 합니까?)

108017 #1 골목. 골목. 골목이고.(골목. 골목. 골목이고.)

108017 @1 골목. 이펜이는 올레?(골목. 이쪽은 올레?)

108017 #1 이건, 이건 우리 땅에서 현 거. 허지 말 걸 현 거. 이거.(이건, 이건 우리 땅에서 한 거. 하지 말 걸 한 거. 이거.)

108017 @1 정낭은 어디 놓았수과? 요, 계난.(‘정낭’은 어디 놓았습니까? 요, 그러니까.)

108017 #1 정낭¹⁵¹은 저 이거, 이거, 이것이 이 담이 엇어났수다게.(‘정낭’은 저 이거, 이거, 이것이 이 담이 없었습니다.)

108017 @1 음.(음.)

108017 #1 엇어난에. 이것에 저쪽 바껏딜로 정낭을 낫주.(없었었어. 이것에 저쪽

150) ‘대바지’는 모양이 둥그스름하여서 가운데 배는 불룩하고 위아래는 좁아지되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게 된, 물을 길어 나르는 작은 동이다. 달리 ‘대배기, 대베기’라고 한다.

151) ‘정낭’은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대문 대신 가로 걸쳐 놓는 길고 굽직한 나무이다. 달리 ‘정, 정남, 정살, 정살낭, 정술낭’이라고 한다.

바깥으로 ‘정낭’을 놓았지.)

108017 @1 바깥딜로.(바깥으로.)

108017 #1 예, 이 땅이 엇엇단 말썸.(예, 이 땅이 없었다가 말썸에.)

108017 @1 음.(음.)

108017 #1 이 집 지을 때, 이 집 짓젠 허난 누가 이디서 다우렌. 올레 헤영 멘들렌 헨에.(이 집 지을 때, 이 집 지으려고 하니까 누가 여기서 쌓으라고. 올레 해서 만들라고 해서.)

108017 @1 올레를 멘들렌.(올레를 만들라고.)

108017 #1 나가, 나가 멘든 거주게. 이거, 이거, 이 담을.(내가, 내가 만든 거지. 이거, 이거, 이 담을.)

108017 @1 담, 요 담?(담, 요 담?)

108017 #1 예, 건 나가 멘든 거주. 엇어났수다. 이 담. 저 절로. 정낭을 절로.(예, 건 내가 만든 거지. 없었습니다. 이 담. 저 저리로. ‘정낭’을 저리로.)

108017 @1 정낭을 저웬짜.(‘정낭’을 저쪽.)

108017 #1 예. 게난 이디는 대문 엇은 찜, 저디 것ᄇ라, 어디ᄇ라. 예, 아까 곶은 그것 대신에 저 정낭, 다 정낭으로만.(예. 그러니까 여기는 대문 엇은 찜, 저기 곶을, 어디를. 예, 아까 말한 그것 대신에 저 ‘정낭’, 다 ‘정낭’으로만.)

108017 @1 이문간 대신에.(‘이문간’ 대신에.)

108017 #1 이문간 대신에 저 정낭.(‘이문간’ 대신에 저 ‘정낭’.)

108017 @1 정낭.(정낭.)

108017 #1 구멸동만 이문간.(구멸동만 ‘이문간’.)

108017 @1 저웬짜에 보난에 정낭 영 거는 돌, 영.(저쪽에 보니까 ‘정낭’ 이렇게 거는 돌, 이렇게.)

108017 #1 돌, 예, 예.(돌, 예, 예.)

108017 @1 이십디다. 고망 뜰라진 거.(있었습니다. 구멍 뚫어진 거.)

108017 #1 고망. 그, 그.(구멍. 그, 그.)

108017 @1 걸 무신거엔 흡니까? 그건?(걸 뭐라고 합니까? 그건?)

108017 #1 그거, 그디 집 임제 그거, 저 그때 그, 저거 옛날 이녁 냥으로 현 건디.(그거, 거기 집 임자 그거, 저 그때 그, 저거 옛날 이녁 냥으로 한 건데.)

108017 @1 음.(음.)

108017 #1 정낭 고망.(‘정낭 고망’.)

108017 @1 정낭 고망이엔 흡니까?(‘정낭 고망’이라고 합니까?)

108017 #1 응, 정낭 고망.(응, ‘정낭 고망’.)

108017 @1 음.(음.)

108017 #1 정낭 저디 저, 그 고망더레 찢러났어. 그 사름. 원래 집 임제가 이제 도 손지, 손지가 살암구나[살암꾸나]. 원래 그 집이.(정낭 저기 저, 그 구멍으로 찢러났어. 그 사름. 원래 집 임자가 이제도 손자, 손자가 살고 있구나. 원래 그 집에.)

108017 @1 으음.(으음.)

108017 #1 손지 그냥 살았습니다. 요 멧 해째.(손자 그냥 살고 있습니다. 요 멧 해째.)

108017 #2 정낭 흐면은 사름이 웃은 거. 정낭 알려레 내려 놓으면 사름 신 거. 경 현 건, 경허는 거주기.(정낭 하면은 사름이 없는 거. 정낭 아래로 내려 놓으면 사름 있는 거. 그렇게 현 건, 그렇게 하는 거지.)

108017 @1 이디, 이딘 정낭 고망 저런 돌로 안 해수가?(여기, 여기 정낭 구멍 저런 돌로 안 했습니까?)

108017 #1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108017 @1 무시걸로 헛수과?(무엇으로 했습니까?)

108017 #1 그, 담 우이만 걸천.(그, 담 위에만 걸쳤어.)

108017 @1 담 우이?(담 위에?)

108017 #1 응, 바로.(응, 바로.)

108017 @1 아, 담 우이 걸천양.(아, 담 위에 걸쳤어요.)

108017 #1 저거는 이 저 고냥, 고, 고망 만든 건 이 동네 저 집밖기 엇어. 정낭 고망 만든 건.(저거는 이 저 구멍, 구, 구멍 만든 건 이 동네 저 집밖에 없어. 정낭 구멍 만든 건.)

108017 #2 (웃음). 그건 이녁냥으로 만든 거 아니파?((웃음). 그건 이녁 냥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108017 #1 그 저 완전 석공, 기술자 신인인디, 신인인디, 완전 석공 기술자 뭐. 비석도 다 새기곡 허는 사름이난. 돌 봉가단에 이녁냥으로 만들안 저거 허더라고. 원래 집 짓일 때.(그 저 완전 석공, 기술자 신인인데, 신인인데, 완전 석공 기술자 뭐. 비석도 다 새기고 하는 사람이니까. 돌 주워다가 이녁 냥으로 만들어서 저거 하더라고. 원래 집 지을 때.)

108017 @1 아.(아.)

108017 #1 원래 옛날에 현 칠십년 전 그때 현 스십구 년 ** 때 이션. 신인이.(원래 옛날에 한 칠십년 전 그때 한 스십구 년 ** 때 있었어. 신인이.)

108017 @1 음. 지금 손지가 살고양?(음. 지금 손자가 살고요?)

108017 #1 지금 손지가.(지금 손자가.)

108017 @1 음. 그, 높은 어느, 어느 펜이.(음. 그, 가리는 어느, 어느 쪽에.)

108017 #1 아이고, 우리 이 앞이 다 늘.(아이고, 우리 이 앞에 다 가리.)

108017 @1 그, 그디 그, 늘굽.(그, 거기 그, '늘굽'.)

108017 #1 늘굽¹⁵²⁾ 저디 저 돌로 헤영 만들안. 자갈[자깔] 좇어당.(‘늘굽’ 저기 저 돌로 해서 만들었어. 자갈 주워다가.)

108017 @1 자갈 좇어단에?(자갈 주워다가?)

108017 #1 예, 예. 노프게 헤야, 비가 와야.(예, 예. 높게 헤야, 비가 와야.)

152) ‘늘굽’은 짚이나 풀 따위를 둥그렇게 쌓은 자리의 밑바닥이다.

108017 @1 으음.(으음.)

108017 #1 아래 썩지 안 해.(아래 썩지 안 해.)

108017 @1 놀굽, 놀굽이 몇 개나 영 있어났수과?(‘놀굽’, ‘놀굽’이 몇 개나 이렇게 있었습니까?)

108017 #1 아, 보리낭 놀, 출놀게.(아, 보릿짚 가리, 풀가리.)

108017 @1 보리낭 놀, 출놀.(보릿짚 가리, 풀가리.)

108017 #1 그디 조집 놀.(거기 조짚 가리.)

108017 @1 음. 조집 놀.(음. 조짚 놀가리)

108017 #1 문밖 앞이 놀굽이라서. 이디.(전부 앞에 ‘놀굽’이었어. 여기.)

108017 @1 음.(음.)

108017 #1 놀, 이 앞이.(가리, 이 앞에.)

108020 @1 돛통은마썸? 돛통은 어디에?(돼지우리는요? 돼지우리는 어디에?)

108020 #1 돛통은 아이고, 도새기 질르고 흘 때.(돼지우리는 아이고, 돼지 기르고 할 때.)

108020 #2 (웃음).(웃음).

108020 #1 이디 헛단, 옛날엔.(여기 했다가, 옛날엔.)

108020 @1 이편짜.(이쪽.)

108020 #1 예, 예.(예, 예.)

108020 @1 정지가 이편이 이시난에.(부엌이 이쪽에 있으니까.)

108020 #1 예, 예. 이디.(예, 예. 여기.)

108020 @1 돛통도 이편에 있어?(돼지우리도 이쪽에 있어?)

108020 #1 이디 잇단. 말짜에는 나가 집을 짓으난, 이 집 짓으난 그, 돛통은 지금, 지금 저 화장실 허는 쪽으로, 글로 간 저 변기통, 돛통을 만들안.(여기 있다가. 말짜에는 내가 집을 지으니까, 이 집 지으니까 그, 돼지우리는 지금, 지금 저 화장실 하는 쪽으로, 거기로 가서 저 변기통, 돼지우리를 만들었어.)

108020 @1 음.(음.)

108020 #1 흥단, 이제 도새기 아이 질루게 돼난 글 메와 불어십주.(하다가, 이제 돼지 아니 기르게 되니까 그걸 메워 버렸지요.)

108020 @1 음. 원래는 이편 짝에 돛통이 있어수과?(음. 원래는 이편 쪽에 돼지우리가 있었습니까?)

108020 #1 원래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뎨 이디 돛통이 이션.(원래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뎨 여기 돼지우리가 있었어.)

108020 @1 이쪽에 돛통양. 음. 도새기 질루고양.(이쪽에 돼지우리요. 음. 돼지 기르고요.)

108020 #1 도새기 질루곡. 쉼걸, 쉼걸름 쉼막에 거 낫당 걸름 내우곡.(돼지 기르고. 소걸, 소두엄 외양간에 거 낫다가 거름 내고.)

108020 @1 음.(음.)

108020 #1 돛통에서.(돼지우리에서.)

108020 @1 음. 쉼막에 잇어난 것들 뭐엔 굴읍니까? 거 쉼 먹어난 나머지 그거.
(음. 외양간에 있었던 것들 뭐라고 이릅니까? 거 소 먹었던 나머지 그거.)

108020 #1 저디, 예, 저.(저기, 예, 저.)

108020 #2 쉼 먹단 남은 건 데취¹⁵³엔 홉니다, 데취. 쉼데취.(소 먹다가 남은 건 ‘데취’라고 합니다, ‘데취’. ‘쉼데취’.)

108020 #1 쉼데치.(‘쉼데치’.)

108020 @1 쉼?(쉼?)

108020 #1 데치, 데치.(‘데치’, ‘데치’.)

108020 @1 데취.(‘데취’.)

108020 #1 음. 그, 그거 마져당 불, 그거 꼭 데치를 넘겨. 쉼가 문 아이 먹영.
(음. 그, 그거 가져다가 불, 그거 꼭 ‘데치’를 넘겨. 소가 전부 아니 먹고.)

108020 @1 게메양.(그러게요.)

108020 #1 음. 그거 마져당 불, 저 진영.(음. 그거 가져다가 불, 저 때었어.)

108020 @1 거 먹다 남은 거 이제.(거 먹다 남은 거 이제.)

108020 #1 마져당 진영은에.(가져다가 때어서.)

108020 @1 돛통더레 또 허고?(돼지우리에 또 하고?)

108020 #1 아니 진을커.(아니, 빨감.)

108020 @1 진을컬로 허곡.(빨감으로 하고.)

108020 #1 거, 쉼 깔양 누워 불면은. 것마라 쉼가 그 데취를, 깔양 누워 불어.
(거, 소 깔아 누워 버리면은. 그것을 소가 그 ‘데취’를, 깔아서 누워 버려.)

108020 @1 으음.(으음.)

108020 #1 게문 그건 마치 똥거름에 거 돛통더레 곳다 놓곡.(그러면 그건 같이 똥거름에 거 돼지우리에 갖다 놓고.)

108020 @1 음.(음.)

108020 #1 앞이 신 거는 걷어당 진을커 허곡.(앞에 있는 거는 걷어다가 빨감 하고.)

108020 @1 음. 아, 깔양 누워난 것덜은 돛통에.(음. 아, 깔아 누웠던 것들은 돼지우리에.)

108020 #1 돛통에.(돼지우리에.)

108020 @1 가져가고.(가져가고.)

108020 #1 마른 거는 그냥 앞이 시민 걷어당 진을커.(마른 거는 그냥 앞에 있으면 걷어다가 빨감.)

108020 @1 아, 쉼데치.(아, ‘쉼데치’.)

108020 #1 쉼데치.(‘쉼데치’.)

108020 @1 음. 그 도새기도 집 짓어 줘야. 줘야 텔 거.(음. 그 돼지도 집 지어

153) ‘데취’는 마소가 먹다가 남은 꼴의 찌꺼기 따위를 말하는데, ‘데치’라고도 한다.

쥐야. 쥐야 될 거.)
 108020 #1 아이고, 집 짓어야지. 돛집.(아이고, 집 지어야지. ‘돛집’.)
 108020 #2 짓꼭말꼭.(짓고말고.)
 108020 #1 짓꼭말꼭.(짓고말고.)
 108020 #2 거 도새기 줌자는 디 짓어야지.(거 돼지 잡자는 데 지어야지.)
 108020 #1 저디 돛, 새끼도 내우꼭.(저기 돼지, 새끼도 내우고.)
 108020 @1 예.(예.)
 108020 #1 도야. 게, 새끼 내왕 강, 또 그 시장에 강 거 풀고.(도야. 거, 새끼 내
 워서 가서, 또 그 시장에 가서 거 팔고.)
 108020 @1 음.(음.)
 108020 #1 득도 질르고.(답도 기르고.)
 108020 @1 도새기 집이 잇고, 또 그디 무시거.(돼지 집이 잇고, 또 거기 무슨
 거.)
 108020 #1 통. 저, 지들팡게.(통. 저, 부출돌.)
 108020 @1 지들팡.(부출돌.)
 108020 #1 변소. 똥 누는 디.(변소. 똥 누는 데.)
 108020 @1 예.(예.)
 108020 #1 영, 돌 영 행 걸청.(이렇게, 돌 이렇게 해서 걸쳐서.)
 108020 @1 거기 지들팡.(거기 부출돌.)
 108020 #1 케민 도야지가 그걸 왕, 다 먹어.(그러면 돼지가 그걸 와서, 다 먹어.)
 108020 @1 음.(음.)
 108020 #1 사름 변 보민.(사람 변 보면.)
 108020 @1 그다음 또 것 주는 디도.(그다음 또 먹이 주는 데도.)
 108020 #1 아이고, 돛도고리¹⁵⁴라고.(아이고, ‘돛도고리’라고.)
 108020 @1 돛도고리예.(‘돛도고리’요.)
 108020 #1 거, 저 돌로 영 크게 만들양.(거, 저 돌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108020 @1 음.(음.)
 108020 #1 딱 놓으면은. 허꼭, 그디 그, 것 통은 맛껏디 큰, 곳인 향 곳다 낱.
 그.(딱 놓으면은. 하고, 거기 그, 것 통은 바깥에 큰, 곳은 향 갖다 놓고. 그.)
 108020 @1 곳인 향으로양.(곳은 향으로요.)
 108020 #1 예. 그 낯당, 낯당, 그 돛것, 돛것 향이엔 허영은앵에.(예. 그 낯다가,
 낯다가, 그 돼지 먹이, 돼지 먹이 향이라고 해서.)
 108020 @1 아, 돛것 향.(아, 돼지 먹이 향.)
 108020 #1 예, 그거.(예, 그거.)
 108020 @1 음.(음.)
 108020 #1 그디 거 평 주고.(거기 거 퍼서 주고.)

154) ‘돛도고리’는 돼지에게 먹이를 넣어 주기 위해서 돌을 둥글넓적하게 파서 만든 돌그릇이다.

108020 @1 돛것 항 옆이 또 무시거 다른 거 또.(돼지 먹이 항 옆에 또 무엇 다른 거 또.)

108020 #1 아이. 그거 앞이 돛도고리 이시난 돛것.(아이. 그거 앞에 ‘돛도고리’ 있으니까 돼지 먹이.)

108020 @1 예, 예.(예, 예.)

108020 #1 항만 하나 낳.(항만 하나 놓고.)

108020 @1 또 다른, 단지 닭은 거 놔나진 안헛수과? 돛것 항 옆이 뭐 저 오즘 항 그런 거.(또 다른, 단지 닭은 거 놔졌지 았았습니까? 돼지 먹이 항 옆에 뭐 저 오즘 항 그런 거.)

108020 #1 아이 오즘단지.(아이 오즘단지.)

108020 @1 오즘단지?(오즘단지?)

108020 #1 음. 거 오즘단지는, 그, 그 오즘항도 잇었어. 오즘항.(음. 거 오즘단지는, 그, 그 오즘항도 잇었어. ‘오즘항’.)

108020 @1 음.(음.)

108020 #1 그거, 그거, 걸름 그거 막 메왓당.(그거, 그거, 거름 그거 막 메웠다가.)

108020 @1 예.(예.)

108020 #1 그, 아유. 그걸 그 무슨 그 오즘허벅도 잇어, 오즘허벅.(그, 아유. 그걸 그 무슨 그 오즘허벅도 잇어, 오즘허벅.)

108020 @1 음.(음.)

108020 #1 그, 오즘을 저당 밧디 뿌리는. 밧디, 보리밧디 그걸 뿌려나십주.(그, 오즘을 저다가 밧에 뿌리는. 밧에, 보리밧에 그걸 뿌렸었지요.)

108020 @1 예.(예.)

108020 #1 허. 그 오즘을 걸렁.(허. 그 오즘을 걸게 해서.)

108020 @1 예. 오즘허벅에.(예. 오즘허벅에.)

108020 #1 오즘허벅. 굿은.(오즘허벅. 굿은.)

108020 #2 옛날은 비료 엇으난 그걸 거름으로 으져당 뿌린 거 아니파게.(옛날은 비료 없으니까 그걸 거름으로 가져다가 뿌린 거 아닙니까.)

108020 @1 아, 오즘단지가 잇고 오즘허벅이 잇고.(아, 오즘단지가 잇고 오즘허벅이 잇고.)

108020 #1 오즘허벅이 셔.(오즘허벅이 잇어.)

108020 @1 오즘항이 잇고.(‘오즘항’이 잇고.)

108020 #1 오즘허벅은 오즘만 지영 텅기는 허벅.(오즘허벅은 오즘만 지어 다니는 허벅.)

108020 @1 예. 오즘항에 그거 막 그 모아 낳당.(예. ‘오즘항’에 그거 막 그 모아 낳다가.)

108020 #1 예. 모아 낳당, 그것ㄴ라 썩은 오즘이엔 헨.(예. 모아 낳다가, 그것을

썩은 오줌이라고 했어.)

108020 @1 썩은 오줌.(썩은 오줌.)

108020 #1 그, 생 오줌은 거름 안 돼어. 곡식 죽어 불고.(그, 생 오줌은 거름 안 되어. 곡식 죽어 버리고.)

108020 @1 음.(음.)

108020 #1 그 오줌이 썩어야.(그 오줌이 썩어야.)

108020 @1 으음. 게민 보릿낭은, 보릿낭 높은 어느 펜이 이서수과? 그, 그, 일 보젠 허민 보릿낭 영.(으음. 그러면 보릿짚은, 보릿짚 가리는 어느 편에 있었습니까? 그, 그, 일보려고 하면 보릿짚 이렇게.)

108020 #1 게메.(글쎄.)

108020 @1 멧 번 영 빵 가야 할 거 아니우과?(멧 번 이렇게 빼서 가야 할 거 아십니까?)

108020 #1 게메, 그 옛날 말로 그, 또꼬냥 쓸 보릿낭도 그 집인 웃텐 말도 허여. 가난헌 집이엔. 그 집인 또꼬냥 쓸 보릿낭도, 그 저 보릿낭으로 또꼬냥을 쓸어낫주 게. 옛날은. 다.(글쎄, 그 옛날 말로 그, 똥구멍 쓸 보릿짚도 그 집엔 없다는 말도 해. 가난한 집이라고. 그 집엔 똥구멍 쓸 보릿짚도, 그 저 보릿짚으로 똥구멍을 쓸 었었지. 옛날은. 다.)

108020 @1 예, 예.(예, 예.)

108020 #1 게난게, 저디 늘엇당 그 빠당 변소 옆이 놔 두주게. 또꼬냥 쓸 용으로.(그러니까, 저기 쌓았다가 그 빠다가 변소 옆에 놔두지. 똥구멍 쓸 용으로.)

108020 @1 아, 따로.(아, 따로.)

108020 #1 따로.(따로.)

108020 @1 음.(음.)

108020 #1 그, 침 누구네 집은 또고냥 쓸 보릿낭도 었텐 흐엿주게. 가난헌 집은.(그, 침 누구네 집은 똥구멍 쓸 보릿짚도 없다고 했지. 가난한 집은.)

108020 @1 크. 그, 그만큼 가난허다.(크. 그, 그만큼 가난하다.)

108020 #1 응, 가난허텐.(응, 가난하다고.)

108020 @1 으음. 도새기 새끼 내우젠 허민, 게민 암토새기 질럿구나양.(으음. 돼지 새끼 내우려고 하면, 그러면 암돼지 질렀군요.)

108020 #1 암토새기. 예, 예.(암돼지. 예, 예.)

108020 @1 그거.(그거.)

108020 #1 우리도 새끼 내완 풀아낫수다.(우리도 새끼 내워서 팔았었습니다.)

108020 @1 음. 갱 막, 어드레 담 튀엉 들곡 헤나진 안헛수과?(음. 그럼 막, 어디로 담 넘어서 도망가고 했었지 않았습니까?)

108020 #1 무사 안 헤여? 이 저, 그 돼야지가, 그, 수돼야지도 질루곡, 암돼야지도 질루는디. 이 암돼야지 질렁 허젠 허면은 그 새끼 베젠 수툯을 좇일 때, 때가 있어. 허면.(왜 안 해? 이 저, 그 돼지가, 그, 수돼지도 기르고, 암돼지도 기르는데. 이

암돼지 길러서 하려고 하면은 그 새끼 배려고 수돼지를 찾을 때, 때가 있어. 하면.)

108020 @1 예.(예.)

108020 #1 헌디, 저 스정허여. 수토 지르는 집이 강.(한데, 저 사정하여. 수돼지 기르는 집에 가서.)

108020 @1 동네에 잇어났구나양.(동네에 있었군요.)

108020 #1 예, 동네에. 근디 스정허면 또 잘 안 빌려줘.(예, 동네에. 그런데 사정 하면 또 잘 안 빌려줘.)

108020 @1 (웃음).((웃음).)

108020 #1 수툯놓아¹⁵⁵나민 그거 수툯이 또 튀어난 돌아나 부니. 그 생각헨. 아 이 빌려줘도.(‘수툯놓아’ 나면 그거 수툯지가 또 도망가 달아나 버리니. 그 생각해서. 아니 빌려줘도.)

108020 @1 (웃음).((웃음).)

108020 #1 그, 풍습으로, 아이 빌려줄 수가 없어. 돌아가명 허는 사름이난. 그 집이도 허민 또 늪이. 겨난 빌려 드렌 허민 아이 빌려줄 수가 없어. 의무적으로 빌려줘야 돼. 막 속상헤여도. 헤영, 헤영 수토 낱 오면은 그디 강 흐를 질봐. 암툯 몰 양 그 돛통에.(그, 풍습으로, 아니 빌려줄 수가 없어. 돌아가면서 하는 사람이니까. 그 집에도 하면 또 남이. 그러니까 빌려 달라고 하면 아니 빌려줄 수가 없어. 의무적으로 빌려줘야 돼. 막 속상하여도. 해서, 해서 ‘수툯놓고’ 오면은 거기 가서 하루 길러. 암돼지 몰고 그 돼지우리에.)

108020 @1 아.(아.)

108020 #1 흐를 질봐. 그 집이 강.(하루 길러. 그 집에 가서.)

108020 @1 그 돛통에 가근에.(그 돼지우리에 가서.)

108020 #1 음. 이녁 것도 이녁이 낫다 주멍 수토 먹을 거영.(음. 이녁 것도 이녁이 낫다 주면서 수툯지 먹을 것과.)

108020 @1 음.(음.)

108020 #1 다 낫다 주멍. 흐를 질봐. 게민 게 몰아당 질루면은 저 석덜만이 나는가? 새끼?(다 낫다 주면서. 하루 길러. 그러면 그 몰아다가 기르면은 저 석 달만이 나는가? 새끼?)

108020 @1 으음.(으음.)

108020 #1 흔 일고여 대, 예 일곱 개씩 나주.(한 일고여 대, 예 일곱 개씩 나지.)

108020 @1 그 품으로 무시거 영, 주진 안흙, 안헛수과?(그 품으로 무엇 이렇게, 주진 안합, 았았습니까?)

108020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8020 @1 안 허곡. 그자.(안 하고. 그저.)

108020 #1 예.(예.)

108020 @1 (웃음). 의무적으로?((웃음). 의무적으로?)

155) ‘수툯놓다’는 암돼지에게 수툯지를 넣어 교미를 시키다.

108020 #1 의무적으로 돌아가मंत्री 다 그디 또, 또 암툏 질황 늬이 수토 빌레 가 꼭.(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다 거기 또, 또 암툏지 길러서 남의 수툏지 빌리러 가고.)

108020 @1 음.(음.)

108020 #1 허고 수툏, 그때는 집집마다 도야지 허난에. 어느 날 그, 날 뵙 불치는 날이다 허면은.(하고 수툏지, 그때는 집집마다 돼지 하니까. 어느 날 그, 날 봐서 불까는 날이다 하면은.)

108020 @1 음.(음.)

108020 #1 에, 그 슷, 도야지, 돏 막 어려울 때난, 돏불 다 칠 거 아니우파게? 에, 그 나가 치, 이 동네 돏 불은 나, 나가 다 쳐낫주게. 그 칼로.(에, 그 슷, 돼지, 돼지 막 어려울 때니까, 돼지 불 다 깔 거 아닙니까? 에, 그 내가 치, 이 동네 돼지 불은 나, 내가 다 깔었지. 그 칼로.)

108020 @1 예에.(예에.)

108020 #1 쟁 헤영, 불청 그것도 요령 이성. 딱 그, 저 실로 즐마메영 끈어야지. 게난 게영 그때 아까진끼 불랏당 그 불라비영 막인디.(그렇게 해서, 불까서 그것도 요령 있어서. 딱 그, 저 실로 잡아매어서 끊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아까진끼’ 발랐다가 그 발라버리면 막인디.)

108020 @1 음.(음.)

108020 #1 게영 현디 혼 요남은 집이, 모아당 허면은 그 어려울 때난 돏불이 이, 저 허나에 들이난에, 열 집이 스무 개 돼는 거라게.(그렇게 한테 한 여남은 집에, 모아다가 하면은 그 어려울 때니까 돼지 불이 이, 저 하나에 들이니까, 열 집에 스무 개 되는 거야.)

108020 @1 (웃음).((웃음).)

108020 #1 그거를 다, 그거 회쳐 먹어. 술 받아 낵 그걸. 그거 좋은 안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거 맛 십니다. 그 술 그 어려울 때난.(그거를 다, 그거 회쳐 먹어. 술 받아 놓고 그걸. 그거 좋은 안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거 맛있습니다. 그 술 그 어려울 때니까.)

108020 @1 (웃음).((웃음).)

108020 #1 술 혼 되 받아다 낵. 돏 불 치는 날 헤영. 게민 혼 요남은이 이 동네가 다 모이주. 그거.(술 한 되 받아다 놓고. 돼지 불까는 날 해서. 그러면 한 여남은이 이 동네가 다 모이지. 그거.)

108023 @1 저, 쉼막이 영 통째로 쉼막이라낫수과? 아니믄 갈라근에.(저, 외양간이 이렇게 통째로 외양간이었습니까? 아니면 갈라서.)

108023 #1 아이, 처음에는 통채로 허단.(아니, 처음에는 통채로 하다가.)

108023 @1 통채로 허단.(통채로 하다가.)

108023 #1 에, 나가 새로 이, 저, 초가 쉼막을 뜯어 뵐. 또 두 번채 또 쉼막을 또 초가집으로.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 쉼막은 오뿔 뻐라져 불언. 요만이 짓어낫단.

(예, 내가 새로 이, 저, 초가 외양간을 뜯어 두고. 또 두 번째 또 외양간을 또 초가 집으로.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 외양간은 그만 무너져 버렸어. 요만이 지었다가.)

108023 @1 (웃음).((웃음).)

108023 #1 새로 짓었던 아 이제, 그 크게 쇠막을 짓었. 쇠도 댓 머리 질르고 현디.(새로 지었다가 아 이제, 그 크게 외양간을 지었어. 소도 댓 마리 기르고 했는데.)

108020 @1 음.(음.)

108023 #1 그, 국가에서가 예, 축사 개량을 보조가 나왔어.(그, 국가에서 예, 축사 개량을 보조가 나왔어.)

108023 @1 아.(아.)

108023 #1 축사 개량을 허라고.(축사 개량을 하라고.)

108023 @1 아.(아.)

108023 #1 그때 그 저, 저저 공화당 땡가? 지붕 개량 허단에 또 이제 축사 개량을 헐. 축사 개량은 이 동네 두 갠가 나오난, 나가 저디 저, 조끔 뭐, 뭐 동장 떼고 허난에 나 우선 허곡 헐 사람은 요디 사람 현디. 그, 그, 그 초가집을 문딱 뜯어 댜.(그때 그 저, 저저 공화당 땡가? 지붕 개량 하다가 또 이제 축사 개량을 했어. 축사 개량은 이 동네 두 갠가 나오니까, 내가 저기 저, 조금 뭐, 뭐 동장 떼고 하니까 나 우선 하고 한 사람은 요기 사람 했는데. 그, 그, 그 초가집을 전부 뜯어 두고.)

108023 @1 음.(음.)

108023 #1 또 이제는 저, 저, 지 지금 그때 그 지은 집이라. 그 축사 개량 그쪽 저디.(또 이제는 저, 저, 지 지금 그때 그 지은 집이라. 그 축사 개량 그쪽 저기.)

108023 @1 예.(예.)

108023 #1 그 쇠 질루단 쇠 풀아 부난. 이제는 헐 때, 방, 그 창고도 싯단 그것도 뿔란, 저 헐, 헐 방.(그 소 기르다가 소 팔아 버리니까. 이제는 한 때, 방, 그 창고도 있다그것도 뜯어서, 저 한, 한 방.)

108023 @1 아, 원래 영 갈란에.(아, 원래 이렇게 나눠서.)

108023 #1 쇠, 쇠 질.(소, 소, 기르.)

108023 @1 쇠이.(소이.)

108023 #1 쇠 질루고.(소 기르고.)

108023 @1 질루고.(기르고.)

108023 #1 창고 싯고. 방 헐나 싯고.(창고 있고. 방 하나 있고.)

108023 @1 창고. 방 헐나 이편이.(창고. 방 하나 이편에.)

108023 #1 방 헐나 만들고.(방 하나 만들고.)

108023 @1 아, 창고 헛간, 헛간으로?(아, 창고 헛간, 헛간으로?)

108023 #1 예. 헛간 만들고 이젠 말짜에는, 그 창고, 고팡.(예. 헛간 만들고 이젠 말짜에는, 그 창고, 고팡.)

108023 @1 음.(음.)

108023 #1 그 합천 멘들아 불었주. 계난 아이덜 저디, 결혼허게 뉘난, 큰 방 멘 들젠 허난, 저 방은 하나로 멘들안.(그 합쳐서 만들어 버렸지. 그러니까 아이들 저 기, 결혼하게 되니까, 큰 방 만들려고 하니까, 저 방은 하나로 만들어서.)

108023 @1 음.(음.)

108023 #1 창고를 해수다.(창고를 했습니다.)

108023 @1 음. 그 창고에 무시겨, 무시겨 막 놔놔수과?(음. 그 창고에 무엇, 무엇 막 놔놔습니까?)

108023 #1 아이고, 게, 도라무깡덜 이제도 싹 채워. 요 창고에. 도라무깡덜 짝 낱은에 그디 조도 농곡 보리도 농곡.(아이고, 거, 드럼통들 이제도 싹 채워. 요 창고에. 드럼통들 짝 놔서 거기 조도 농고 보리도 농고.)

108023 @1 지금 이신 저 잠댄 어디 놔놔수과?(지금 있는 저 쟁기는 어디 놔놔습니까?)

108023 #1 잠댄 쉼막에.(쟁기는 외양간에.)

108023 @1 쉼막에?(외양간에?)

108023 #1 예.(예.)

108023 @1 아, 쉼막에 옆이?(아, 외양간에 옆에?)

108023 #1 옆에.(옆에.)

108023 @1 그거를 걸어 놔수과?(그거를 걸어 놔놔습니까?)

108023 #1 예. 쉼막에.(예. 외양간에.)

108023 @1 미신 저, 마레, 정마레 마튼 거 이런 거.(무슨 저, 맷돌, 맷돌 같은 거 이런 거.)

108023 #1 거 창고에 그 저. 마레는 주로 생활용으로 겨울 들면은 예편이 마레 만 골았주게. 모밀, 모밀 마난 그 썰 만들안 장에 강 푸는 거라. 그 마레로.(거 창고에 그 저. 맷돌은 주로 생활용으로 겨울 들면은 여편이 맷돌만 갈았지. 메밀, 메밀 가니까 그 썰 만들어서 장에 가서 파는 거라. 그 맷돌로.)

108023 @1 예, 예.(예, 예.)

108023 #1 겨곡, 개역 마튼 것도 마레로 곱앙 허곡.(그리고, 미숫가루 같은 것도 맷돌로 갈아서 하고.)

108023 @1 으음. 계난 그건 창고에.(으음. 그러니까 그건 창고에.)

108023 #1 예. 창고에.(예. 창고에.)

108023 @1 넣고.(넣고.)

108023 #1 지금도 마레 이수다. 저디, 좋은 마레.(지금도 맷돌 있습니다. 저기, 좋은 맷돌.)

108023 @1 잠댄 쉼막에 해낫구나양.(쟁기는 외양간에 했었군요.)

108023 #1 예.(예.)

108023 @1 멍석 마튼 거는 어디, 어디 놔놔수가?(멍석 같은 거는 어디, 어디 놔

있습니까?)

108023 #1 멍석도 다 다, 창고 안네. 세왕.(멍석도 다 다, 창고 안에. 세워서.)

108023 @1 세왕?(세워서?)

108023 #1 예. 세왕 영 우터레 질게.(예. 세워서 이렇게 위로 질게.)

108023 @1 으음. 영 메달아 놓질 안해근예.(으음. 이렇게 매달아 놓질 않고.)

108023 #1 예, 예. 세왕.(예, 예. 세워서.)

108023 @1 세왕.(세워서.)

108023 #1 세와 난. 견디 예, 멍석이 흔, 우리 집 그뜨민 세 개, 어떤 집은 흔
멧 개에 막 부잣집은 허곡.(세와 봤어. 그런데 예, 멍석이 한, 우리 집 같으면 세
개, 어떤 집은 한 멧 개에 막 부잣집은 하고.)

108023 @1 음.(음.)

108023 #1 우리 집은 흔 세 개 정도 허곡. 그렛방석이엔 현 거 동골락흔 방석.
(우리 집은 한 세 개 정도 하고. 멧방석이라고 하는 거 동그란 방석.)

108023 @1 예, 예.(예, 예.)

108023 #1 거는 그 그레에 흐쟁 허민 그 그렛방석 낱.(거는 그 멧돌에 하려고
하면 그 멧방석 낱서.)

108023 @1 예.(예.)

108023 #1 그레 낱은에 그 안에서. 건 곱닥[딱]허게 줄아야. 그렛방석 즈는 기
술자는 그게 그물이역 헐 거난 아주 즘질게 줄아야 텔 거 아니우파게?(멧돌 낱서
그 안에서. 건 곱게 곁어야. 멧돌방석 곁는 기술자는 그게 가루와 할 거니까 아주
츰츰하게 곁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8023 @1 그럽주게.(그렇죠.)

108023 #1 멍석 답지 안흐영.(멍석 같지 안해서.)

108023 @1 맞수다.(맞습니다.)

108023 #1 잘 즘는 사름. 거 이시민 사당 그렛방석 즐앙 푸는 사름이 잇어낱어.
(잘 곁는 사람. 거 있으면 사다가 멧돌방석 곁어서 파는 사람이 있었어.)

108023 @1 맞수다. 트멍더레 그레, 저, 저, 그루 막 들어가민 안 텔 거난.(맞습
니다. 틈으로 멧돌, 저, 저, 가루 막 들어가면 안 될 거니까.)

108023 #1 게난. 아주 그렛방석이언 곱게 즘는 사름이 잇엇어.(그러니까. 아주
멧방석이라 곱게 곁는 사람이 있었어.)

108023 @1 음.(음.)

108023 #1 요디서 게 사곡. 도께도 그 사름이 멘들면 사오곡.(요기서 거 사고.
도리께도 그 사람이 만들면 사오고.)

108023 @1 음.(음.)

108023 #1 또 어디 그때는 바구리, 바구리, 차롱, 동고량은 주로 생활이 이견.
(또 어디 그때는 바구니, 바구니, 채롱, '동고량'은 주로 생활이 이견.)

108023 @1 음.(음.)

108023 #1 이 동고량이엔 허면은, 요만이는 그, 저, 벤또답게 허영 우알 착.(이 ‘동고량’이라고 하면은, 요만이는 그, 저, 도시락같이 해서 위아래 짝.)

108023 @1 예.(예.)

108023 #1 그 목장에 가면 동고량 허여야 밥도 맛있꼭 쉬지 안이꼭.(그 목장에 가면 동고량 허여야 밥도 맛있고 쉬지 않고.)

108023 @1 예.(예.)

108023 #1 벤또는 썰 거 아니우짜? **지.(도시락은 썰 거 아닙니까? **지.)

108023 @1 예, 예.(예, 예.)

108023 #1 동고량은 고망, 대로 여끈 거난 쉬질 안허꼭.(‘동고량’은 구멍, 대로 엮은 거니까 쉬질 않고.)

108023 @1 음.(음.)

108023 #1 허민. 또 차롱 허영 허면은 놉 빌영 일헐 때는 차롱에 밥을 거렁 가야 돼.(하면. 또 채롱 해서 하면은 놉 빌려서 일할 때는 채롱에 밥을 담아서 가야 돼.)

108023 @1 음.(음.)

108023 #1 그자 대구덕. 대, 구덕, 대로 전문으로 경 헤영 그 저 대 존는 사름 빌어당. 빌어당 전문으로, 대 존는, 구덕 존는 사름이 셔났어. 대 전문.(그저 대바구니. 대, 바구니, 대로 전문으로 그렇게 해서 그 저 대 결는 사름 빌려다가. 빌려다가 전문으로, 대 결는, 구덕 결는 사름이 있었어. 대 전문.)

108023 @1 꺫사 그, 마렛방석은 어, 어디레, 어디 잘 놔났수가? 어떤?(아까 그, 맷돌방석은 어, 어디에, 어디 잘 놔났습니까? 어떤?)

108023 #1 마레 마는 디. 그.(맷돌 가는 데. 그.)

108023 @1 아, 계난.(아, 그러니까.)

108023 #1 정지에.(부엌에.)

108023 @1 그거.(그거.)

108023 #1 마렛방석은 정지에 놓주. 정지에.(맷돌방석은 부엌에 놓지. 부엌에.)

108023 @1 어떻 놔났수가? 거.(어떻게 놔났습니까? 거.)

108023 #1 영 몰양. 몰양.(이렇게 말아서. 말아서.)

108023 @1 몰양?(말아서?)

108023 #1 예. 뱅뱅 영 몰양 멍석 몰듯이 몰양.(예. 뱅뱅 이렇게 말아서 멍석 말듯이 말아서.)

108023 @1 멍석마찌 것도 몰안?(멍석같이 그것도 말아서?)

108023 #1 예, 예. 몰안.(예, 예. 말아서.)

108023 @1 놔났구나양. 쉼막에는 쉼, 그거 무시거 영 무끄젠 허민 무시거 가운데 뭐 낭 놔나지 안헐수가? 쉼막에. 거 무신 낭이엔 헤수가?(놔났군요. 외양간에는 소, 그거 뭐 이렇게 묶으려고 하면 뭐 가운데 뭐 나무 놔났지 않았습니까? 외양간에. 거 무슨 나무라고 했습니까?)

108023 #1 그거, 저.(그거, 저.)

108023 #2 옛날에는 행경¹⁵⁶)이엿 해영은에.(옛날에는 ‘행경’이라고 해서.)

108023 #1 행경낭. 행경낭.(‘행경낭’. ‘행경낭’.)

108023 #2 쉼 매는 거기 행경.(소 매는 거기 ‘행경’.)

108023 #1 행경낭. 쉼 매꼭 저기래 나오지 못하게 그 안에, 글로 허영 행경낭 영 놓으면은 걸로 출 거러 주꼭.(‘행경낭’. 소 매고 저기로 나오지 못하게 그 안에, 저기로 해서 ‘행경낭’ 이렇게 놓으면은 저기로 끌 거러 주고.)

108023 @1 아, 행경낭.(아, ‘행경낭’.)

108023 @2 행경낭. 예.(‘행경낭’. 예.)

108023 @1 행경낭. 행경낭 가운데 영.(‘행경낭’. ‘행경낭’ 가운데 이렇게.)

108023 #1 예. 쪽 하게 행경낭 낭.(예. 쪽 하게 ‘행경낭’ 놓고.)

108023 @1 행경낭 양쪽으로 이제 쉼.(‘행경낭’ 양쪽으로 이제 소.)

108023 #1 양쪽으로, 행경낭에 쉼을 땀 겁주게.(양쪽으로, ‘행경낭’에 소를 땀 거지요.)

108023 @1 쉼을 매어양. 음. 행경낭. 지둥 세와근에.(소를 매어요. 음. ‘행경낭’. 지둥 세워서.)

108023 #1 지둥 세왕 행경낭.(지둥 세워서 ‘행경낭’.)

108023 @1 지둥 세왕 행경낭.(지둥 세워서 ‘행경낭’.)

108023 #1 예.(예.)

108023 @1 게민 먹을 거 줄 땀 그 행경낭 그 알러레 쪽쪽쪽쪽.(그러면 먹을 거 줄 땀 그 ‘행경낭’ 그 아래에 쪽쪽쪽쪽.)

108023 #1 예. 행경낭 알러레.(예. ‘행경낭’ 아래로.)

108023 @1 으음.(으음.)

108023 #2 쉼 매꼭 이제 그.(소 매고 이제 그.)

108023 #1 겨꼭 그 행경낭 아래 쉼밥통을 만들어.(그리고 그 ‘행경낭’ 아래 소 밥통을 만들어.)

108023 @1 아.(아.)

108023 #1 세멘트로. 영 행 질게 해영 그 통을 만들어.(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길게 해서 그 통을 만들어.)

108023 @1 만들어났수과? 이디도?(만들었었습니까? 여기도?)

108023 #1 예, 이디도 만들안. 나 다 그 혼 이틀 부수아서. 그 짓젠 허난.(예, 여기도 만들었어. 나 다 그 한 이틀 부수었어. 그 지으려고 하니까.)

108023 @1 아.(아.)

108023 #2 이젠사 우린 부수아 버렸주마는.(이제야 우린 부수어 버렸지마는.)

108023 #1 쉼 밥통.(소 밥통.)

156) ‘행경낭’은 소의 외양간에 옆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로지른 나무이다. 달리 ‘매낭, 멩낭, 행경낭, 행경’이라고 한다.

108023 #2 다 쉼 밥통 헤낫수다게.(다 소 밥통 했었습니다.)
108023 @1 쉼 밥통.(소 밥통.)
108023 #2 예.(예.)
108023 #1 그 세멘으로.(그 시멘트로.)
108023 @1 아.(아.)
108023 #1 세멘으로 크게씩 통 헤영, 그 쉼 밥통더레 그레 낱은에게 물 뿌리곡 허영.(시멘트로 크게 통 해서, 그 소 밥통에 거기에 넣어서 물 뿌리고 해서.)
108024 @1 여기 장항은 어디 낱수과?(여기 장독은 어디 낱었습니까?)
108024 #1 뒤에, 뒤에.(뒤에, 뒤에.)
108024 @1 뒤에?(뒤에?)
108024 #1 장항은. 집집마다 뒤에. 집 뒤에. 지금도 장항 이디 셔.(장독은. 집집마다 뒤에. 집 뒤에. 지금도 장독 여기 있어.)
108024 @1 케민 이, 요 감낭 저펜더레?(그러면 이, 요 감나무 저쪽으로?)
108024 #1 예. 저펜이 장항 시우다. 지금.(예. 저쪽에 장독 있습니다. 지금.)
108024 @1 장항 이수과?(장독 있습니까?)
108024 #1 음. 장도 잇고.(음. 장도 있고.)
108024 @1 그디 무시거엔 곱습니까? 장?(거기 뭐라고 부릅니까? 장?)
108024 #1 장? 장항. 장, 저디.(장? 장항. 장, 저기.)
108024 #2 이제 장독이엔 흐주마는 옛날은 뒤에 그자 장항만 낱수다게. 겨난.(이제 장독이라고 하지마는 옛날은 뒤에 그저 장독만 낱었습니다. 그러니까.)
108024 #1 장독, 장독.(장독, 장독.)
108024 #2 이제 뭐 장독 허영은에 다덜 세멘 블랑은에.(이젠 뭐 장독 해서 다들 시멘트 발라서.)
108024 @1 아.(아.)
108024 #2 묻곡 헤낱주마는 옛날에는 세멘 엇으난 그냥 그자 맨땅에도 농곡 자갈 우이도 농곡.(묻고 했었지만은 옛날에는 시멘트 없으니까 그냥 그저 맨땅에도 놓고 자갈 위에도 놓고.)
108024 @1 자갈 농곡.(자갈 놓고.)
108024 #1 응 자갈 놓앙.(응 자갈 놓아서.)
108024 #2 자갈 낱낱 장항을 낱수다게.(자갈 낱놓고 장독을 낱었습니다.)
108024 @1 케민 그디를 장독대엔 헛수과? 장항대엔 헛수과?(그러면 거기를 장독대라고 했습니까? ‘장항대’라고 했습니까?)
108024 #2 장독대, 장독대.(장독대, 장독대.)
108024 @1 장독대. 음. 무시거 영, 돌아가명 영 막진 안헤낫수과?(장독대. 음.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진 았았었습니까?)
108024 #1 막지 안헤.(막지 았아.)
108024 #2 막음도 홉니다게.(막음도 합니다.)

108024 @1 음.(음.)

108024 #1 우린 그냥 내놓아난.(우린 그냥 내놓았었어.)

108025 @1 내놓아났수과? 음. 물, 요디 세미 물, 질어당 먹엇주마는 따로 뭐 영
춤¹⁵⁷)이엔 헌 거 해나진 안헛수과? 춤.(내놓았었습니까? 음. 물, 요기 세미 물, 길어
다가 먹엇지마는 따로 뭐 이렇게 ‘춤’이라고 한 거 했었지 않았습니까? ‘춤’.)

108025 #1 안 헨, 안 헨.(안 했어, 안 했어.)

108025 @1 저디, 저 그 소개허기 전에.(저기, 저 그 소개하기 전에.)

108025 #1 소개허기 전에는 아무 그 하천 물 먹어나고, 그디선.(소개하기 전에는
아무 그 하천 물 먹었었고, 거기선.)

108025 @1 아. 낭에 무시거 영 새 해근에 영 무꺼근에.(아. 나무에 뭐 이렇게
떠 해서 이렇게 묶어서.)

108025 @2 지.(지.)

108025 #2 아, 건 두루박 해여근에 저 무슨건가 우물 판 디 그런 거 해났지. 촌
엔 그런 두리박 행 물 떠 보지안혜수다게.(아, 건 두레박 해서 저 무엇인가 우물 판
데 그런 거 했었지. 촌엔 그런 두레박 해서 물 떠 보지 않았습디다.)

108025 @1 아. 게 춤, 춤향은 엇어났구나양?(아. 거 ‘춤’, ‘춤향’은 없었군요?)

108025 #1 엇어난.(없었어.)

108025 #2 예. 두리박 행 물 떠 보지 안혜수다. 이 어디, 시내나 경 아니른 육지
나 해서 두리박으로 물 뜨지. 이어 무슨건가 이 제주도 안엔 경, 두리박으로 물 떠
보지 안혜실 거우다.(예. 두레박 해서 물 떠 보지 않았습디다. 이 어디, 시내나 그렇
게 아니면 육지나 해서 두레박으로 물 뜨지. 이거 무엇인가 이 제주도 안엔 그렇게,
두레박으로 물 떠 보지 않았을 겁니다.)

108025 @1 자리왓 살 때, 큰 낭 그, 영 이시민 요 낭에 뱅뱅뱅 영 그 저, 새로
새, 저 집 이는 새로 해근에 영 무경 울로 물 영 받아나진 안헛수과?(‘자리왓’ 살
때, 큰 나무 그, 이렇게 있으면 요 나무에 뱅뱅뱅 이렇게 그 저, 띠로 띠, 저 집이는
띠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요기로 물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108025 #1 안 헨.(안 했어.)

108025 @1 아, 엇어났구나.(아, 없었었구나.)

108025 #1 거, 폭낭인디 그디 사름, 정자 나무난.(거, 팽나무인데 거기 사름, 정
자나무니까.)

108025 @1 음.(음.)

108025 #1 사름 모영 놀곡, 그 아래서 회 허곡.(사름 모여서 놀고, 그 아래서 회
하고.)

108025 @1 음.(음.)

108025 #1 다 그디. 지금도 그 폭낭 이수다. 큰 폭낭.(다 거기. 지금도 그 팽나

157) ‘춤’은 띠를 머리 땅듯이 땅아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빗물 따위를 받아 그 밑에 둔 항아리에 들어
가게 하는 물건이다.

무 있습니다. 큰 팽나무.)

초가지붕 이기

108026 @1 그, 새 이 저, 지붕 초가지붕이난에 몇 년에 흔 번 일어수과?(그, 띠 이 저, 지붕 초가지붕이니까 몇 년에 한 번 이었습니까?)

108026 #1 두 년. 이 년에 흔 번.(두 년. 이 년에 한 번.)

108026 @1 이 년에 흔 번?(이 년에 한 번?)

108026 #1 그거 꼭 규칙적으로 이 년에 흔 번.(그거 꼭 규칙적으로 이 년에 한 번.)

108026 @1 어.(어.)

108026 #1 겨난에 안팓거리면은 해년마다 일어야주. 이, 이, 이 년에 흔 번이난. 흔 해는 안거리, 흔 해는 밧거리.(그러니까 안팓채면은 해년마다 이어야지. 이, 이, 이년에 한 번이니까. 한 해는 안채, 한 해는 바깥채.)

108026 @1 음.(음.)

108026 #1 또 쉼막 시민 흔 해는 쉼막, 흔 해는 안거리.(또 외양간 있으면 한 해는 외양간, 한 해는 안채.)

108026 @1 으음.(으음.)

108026 #1 계난 이 년에 흔 번.(그러니까 이 년에 한 번.)

108026 @1 이 년에 흔 번. 스간집이난에 그 새 하영 들어서쿠다.(이 년에 한 번. 사간집이니까 그 띠 많이 들었겠습니까.)

108026 #1 새 쉼 못.(띠 쉼 ‘못’.)

108026 @1 쉼 못?(쉼 ‘못’?)

108026 #1 예. 쉼 못 요만씩 무꾼 거. 새, 크게 무끄지 안 흡니까게?(예. 쉼 ‘못’ 요만씩 묶은 거. 띠, 크게 묶지 안 합니까?)

108026 @1 예.(예.)

108026 #1 거 쉼 못, 마흔 못. 쉼 못.(거 쉼 ‘못’, 마흔 ‘못’. 쉼 ‘못’.)

108026 @1 계민 그거 허젠 허면은 각단도.(그러면 그거 하려고 하면은 ‘각단’도.)

108026 #1 각단¹⁵⁸은 흔 스무 못.(각단은 한 스무 못.)

108026 @1 스무 못?(스무 못?)

108026 #1 예.(예.)

108026 @1 아.(아.)

108026 #1 거 규정이 있어. 스간 집에는 새 마흔 못에서, 그 이는 사람이, 그 기술자는 마흔 못으로 일고 조끔 서툰 사람은 좀 더 들곡.(거 규정이 있어. 사간 집에는 띠 마흔 못에서, 그 이는 사람이, 그 기술자는 마흔 못으로 이고 조끔 서툰 사람은 좀 더 들고.)

158) ‘각단’은 굵은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이다.

108026 @1 더 들고양.(더 들고요.)

108026 #1 그 줄 놓는 것도 그, 혼 열 닷, 각단이엔 혼 거. 각단이엔. 줄 놓는 건 각단이다.(그 줄 놓는 것도 그, 한 열 닷, 각단이라고 하는 거. 각단이라고. 줄 놓는 건 각단인데.)

108026 @1 예.(예.)

108026 #1 그 혼, 잘 놓양 허는 사름은 열댓 못, 스무 못에도 허곡.(그 한, 잘 놓아서 하는 사름은 열댓 못, 스무 못에도 하고.)

108026 @1 허곡. 갱 안 허민 기자 스무 못.(하고. 그렇게 얹으면 그저 스무 못.)

108026 #1 음. 계난 시 바리, 시 바리 싣거 와야지. 옷 못씩 시 바리.(음. 그러니까 세 ‘바리’, 세 바리 싣어 와야지. 옷 못씩 세 바리.)

108026 @1 옷 못씩 시 바리.(옷 못씩 세 바리.)

108026 #1 저, 각단.(저, 각단.)

108026 @1 각단. 그다음, 샌 멧 못씩?(각단. 그다음, 띠 멧 못씩?)

108026 #1 새도 옷 못씩 시켜야주게.(띠도 옷 못씩 싣어야지.)

108026 @1 옷 못씩. 계민 여러 번 시켜 와수다양.(옷 못씩. 그러면 여러 번 싣어 왔습니다.)

108026 #1 예, 예.(예, 예.)

108026 @1 음.(음.)

108026 #1 중간에 강 머쳤당 또 시켜 오곡.(중간에 가서 맡겼다가 또 싣어 오고.)

108026 @1 음. 새왓 따로.(음. 띠발 따로.)

108026 #1 새왓이영 허면은 저 막, 목장에.(띠발이라고 하면은 저 막, 목장에.)

108026 @1 예.(예.)

108026 #1 저, 솔도, 화전. 그런 디 강 새를 비어 읍주게, 겨민.(저, 솔도, 화전. 그런 데 가서 띠를 베어 오지요, 그러면.)

108027 @1 음. 따로 삼촌네 새왓이 있어났수과? 아니민?(음. 따로 삼촌네 띠발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108027 #1 저, 젓새왓¹⁵⁹⁾ 따로. 저 젓이 혼, 혼, 열 사름이 합동으로. 새왓을 저, 저, 저, 새왓이 영 저, 목장에 다 사 가지고 젓밧 헤영.(저, ‘젓새왓’ 따로. 저 계가 한, 한, 열 사름이 합동으로. 띠발을 저, 저, 저, 저, 띠발이 이렇게 저, 목장에 다 사 가지고 젓밧 해서.)

108027 @1 젓밧.(‘젓밧’.)

108027 #1 예.(예.)

108027 @1 젓새왓.(‘젓새왓’.)

108027 #1 이제 그디서, 그디서, 궤에서 살명, 혼 오 일간 살명 새 허영 갈랑.(이제 거기서, 거기서, 궤에서 살면서, 한 오 일간 살면서 띠 해서 나눠서.)

159) ‘젓새왓’은 계원 여러 사름이 공동으로 마련한 띠발이다.

108027 @1 음.(음.)

108027 #1 이제, 이, 다 이제 시켜 오는다. 그때는 그 새가 귀해 놓으니까 면 해경이라고 해서. 이 면에서 새 비라 혼 날, 해경 해야.(이제, 이, 다 이제 실어 오는데. 그때는 그 띠가 귀해 놓으니까 ‘면 해경’이라고 해서. 이 면에서 띠 베어라 하는 날, 해경 해야.)

108027 @1 음.(음.)

108027 #1 해경 해야 강 새 비지, 아무나 못 비어.(해경 해야 가서 띠 베지, 아무나 못 베어.)

108027 @1 아.(아.)

108027 #1 아무 때나. 면, 새 해경은 면장이 내려.(아무 때나. 면, 띠 해경은 면장이 내려.)

108027 @1 이녁네 새도?(이녁네 띠도?)

108027 #1 이녁네 새도.(이녁네 띠도.)

108027 @1 아무 때나 못 비어?(아무 때나 못 베어?)

108027 #1 아무 때나 못 해.(아무 때나 못 해.)

108027 @1 아.(아.)

108027 #1 해경¹⁶⁰, 새 해경 허면은 그 혼 십일월 말쑤 돼 가면 그 해경 면. 면에서가, 애월면에서가 새, 오는 며칠 날부터 새 해경 허라 허면 그때 알앗당 혼번에 강 허고, 또 새가 귀해 놓으니까 도둑덜이 많이 잇고. 새.(‘해경’, 띠 ‘해경’ 하면은 그 한 십일월 말쑤 돼 가면 그 해경 면. 면에서가, 애월면에서가 띠, 오는 며칠부터 띠 해경 하라, 하면 그때 알앗다가 한꺼번에 가서 하고, 또 띠가 귀해 놓으니까 도둑덜이 많이 잇고. 띠.)

108027 @1 음.(음.)

108027 #1 영 비영, 비영, 막 비어 가 불고.(이렇게 베어서, 베어서, 막 베어 가 버리고.)

108027 @1 음.(음.)

108027 #1 비영 놔둔 것도 가져가 불곡.(베어서 놔둔 것도 가져가 버리고.)

108027 @1 으흠.(으흠.)

108027 #1 쟁 그때에 새가 어리와십주게.(그렇게 그때에 띠가 어려웠었지요.)

108027 #2 나는 초가집만 다 해나난게.(나는 초가집만 다 했었으니까.)

108027 #1 이 귀, 귀덕 해변들도 전부 초가집이라노난 그디가 더 어려울 거 아니우파게. 겨민.(이 귀, 귀덕 해변들도 전부 초가집이라 놓으니까 거기가 더 어려울 거 아녘니까. 그러면.)

108027 @1 경혈 겁주.(그렇겠쥬.)

108027 #1 계난에 막걸리덜 해당 술 주멍 새에 바짱 먹곡. 허고, 이 그, 그때는

160) ‘해경’은 해산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채취를 금했다가 일정한 날짜에 금지를 풀고 캐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띠밭의 띠도 일정기간 베는 것을 금했다가 일정한 날짜에 베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새는, 해변 사람이 더 어려워서. 더. 새는.(그러니까 막걸리들 해다가 술 주면서 띠에 바꿔서 먹고. 하고, 이 그, 그때는 띠는, 해변 사람이 더 어려웠어. 더. 띠는.)

108027 @1 경 해실 겁주.(그렇게 했었겠지요.)

108027 #1 지금, 전부 그 해변도 초가집이라노니까.(지금, 전부 그 해변도 초가집이라 놓으니까.)

108027 @1 음.(음.)

108027 #1 그, 스몛, 새, 그, 그디덜토, 해변덜토 꽤 차근에 새 들이는 밧덜 상덜 해 가곡. 이 귀덕¹⁶¹⁾ 사름덜토 이디 왕 새왓덜, 새 해 가고.(그, 사몛, 띠, 그, 거기 들도, 해변들도 꽤 짜서 띠 들이는 밧들 사서들 해 가고. 이 귀덕 사람들도 여기 와서 띠밭들, 띠 해 가고.)

108027 @1 음.(음.)

108027 #1 옛날에는 이 한림 귀덕이, 귀덕이엔 현 디가 한림음인디. 귀덕하고 봉성만 인연이 돼어. 광지는 인연이, 애월은 인연이 아니 뤼고.(옛날에는 이 한림 귀덕이, 귀덕이라고 하는 데가 한림음인데. 귀덕하고 봉성만 인연이 되어. 광지는 인연이, 애월은 인연이 아니 되고.)

108027 @1 예.(예.)

108027 #1 출도 ㄴ짜 허곡. 새도 ㄴ짜 허곡. 귀덕 사름허고만.(꼴도 같이 하고. 띠도 같이 하고. 귀덕 사람하고만.)

108027 @1 예.(예.)

108027 #1 일도 강, 귀덕만 강 해 주곡, 이디 사름덜이. 귀덕 사름덜이 문딱 쉼도 이디 왕 질루쟁 뭉치도 주곡. 이, 이, 유대 강화가 귀덕 사름허고만.(일도 가서, 귀덕만 가서 해 주고, 여기 사람들이. 귀덕 사람들이 전부 소도 여기 와서 기르려고 뭉치도 주고. 이, 이, 유대 강화가 귀덕 사람하고만.)

108027 @1 음.(음.)

108027 #1 봉성이. 이 귀덕 사름이 문딱 이 봉성 왕 출왓이라.(봉성이. 이 귀덕 사람이 전부 이 봉성 와서, 꼴밭이야.)

108027 @1 음.(음.)

108027 #1 광지는 저, 어음 이, 이, 이쪽으로 이, 이, 일리 쪽이고. 귀덕은 문딱 이, 봉성 쪽이고.(광지는 저, 어음 이, 이, 이쪽으로 이, 이, 일리 쪽이고. 귀덕은 전부 이, 봉성 쪽이고.)

108027 @1 아. 경혜영 새도 흥뽀 영.(아. 그렇게 해서 띠도 조금 이렇게.)

108027 #1 ㄴ짜 허곡.(같이 하고.)

108027 @1 남으민 영.(남으면 이렇게.)

108027 #1 나뵤주곡.(나뵤주고.)

108027 @1 저 무시거에 바꾸기도 허곡.(저 무엇에 바꾸기도 하고.)

108027 #1 허곡, 그 귀덕 사름이. 조금 그때 잘 사니까. 맡겨. 우리 집을 왕 일

161) '귀덕'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를 말한다.

어 주면은 한 번에 새 값, 일헌 값 다 줘, 돈.(하고, 그 귀덕 사람이. 조금 그때 잘 사니까. 맡겨. 우리 집을 와서 이어 주면은 한 번에 띠 값, 일헌 값 다 줘, 돈.)

108027 @1 아.(아.)

108027 #1 갱 맡아당. 귀덕 누구네 집 맡아당 게, 집 일레 걸라 흥영 강. 계난게 귀덕 사름은 돈만 주면, 이 봉성 사름안티 강 맡경은에 다.(그렇게 맡아다가. 귀덕 누구네 집 맡아다가 거, 집 이러 가자 해서 가서. 그러니까 귀덕 사름은 돈만 주면, 이 봉성 사름한테 가서 맡겨서 다.)

108027 @1 으음.(으음.)

108027 #1 집 일곡 허영 그만이 앓앙 뒤 거 경헌 사름이 상당히 많아서.(집 이 고 해서 가만히 앓아서 뒤 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

108027 @1 ,그 집 일젠 허면은, 아, 계난 곳사, 언제쯤 비었어마썸, 새?(그, 집 이려고 하면은, 아, 그러니까 아까, 언제쯤 베었어요? 띠.)

108027 #1 십일월.(십일월.)

108027 @1 양력 십일월?(양력 십일월?)

108027 #1 예, 양력 십일월 말.(예, 양력 십일월 말.)

108027 @1 말.(말.)

108027 #1 썸 뒤면 해경 혜영. 그 새가 익어, 익어야 되기 때문에. 퍼렁헌 게 해 양게 몰라야 뒤주게.(썸 되면 해경 해서. 그 띠가 익어, 익어야 되기 때문에. 퍼렁 게 하얗게 말라야 되지요.)

108027 @1 아.(아.)

108027 #1 계난 막 겨울 거저 눈 맞아야 이게 몰라. 갱 새 빌 때는 눈이 왕. 읍 니다게.(그러니까 막 겨울 거저 눈 맞아야 이게 말라. 그래서 띠 벨 때는 눈이 와. 읍니다.)

108027 @1 으음.(으음.)

108027 #1 눈이.(눈이.)

108027 @1 눈이 올 때썸에.(눈이 올 때썸에.)

108027 #1 눈 올 때. 갱 안 허민 새가 몰르질 안허주게.(눈 올 때. 그러지 않으면 띠가 마르질 않지.)

108027 @1 예.(예.)

108027 #1 몰라야 질겨. 청새는 금방, 금방 삭아 불주게.(말라야 질겨. ‘청새’는 금방, 금방 삭아 버리지.)

108027 @1 아, 그 몰르지 안헌 거, 퍼렁헌 건 청새.(아, 그 마르지 않은 거, 퍼렁 건 ‘청새’.)

108027 #1 청새.(‘청새’.)

108027 @1 계민 요건 무신 새우파?(그러면 요건 무슨 띠입니까?)

108027 #1 이건 그냥 일반 새.(이건 그냥 일반 띠.)

108027 @1 그냥 새.(그냥 띠.)

108027 #1 새가 몰라야 새가 돼어. 허양헤야.(띠가 말라야 띠가 되어. 하애야.)
 108027 @1 기.(기.)
 108027 #2 옛날은 계난 그슬 그거 다 허곡 보리 다 갈곡 헤여 뒤근에 새가 다 익어근에 허양 허여야만.(옛날은 그러니까 가을 그거 다 하고 보리 다 갈고 해 두고서 띠가 다 익어서 하얗게 되어야만.)
 108027 @1 음.(음.)
 108027 #2 흐는 거난. 거는 마주막 이, 이, 일거리가 마주막이주게.(하는 거니까. 거는 마지막 이, 이, 일거리가 마지막이지.)
 108027 @1 아아.(아아.)
 108027 #2 저을에는. 한저을에는.(겨을에는. 한겨을에는.)
 108027 @1 이제 각단으로 줄 비어야 될 거 아니우파?(이제 각단으로 줄 베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8027 #1 예게.(예.)
 108028 @1 즈른 줄, 긴, 진줄.(짧은 줄, 긴, 긴 줄.)
 108028 #1 진 줄, 즈른 줄, 진 줄.(긴 줄, 짧은 줄, 긴 줄.)
 108028 @1 몇 개씩, 헛수과?(몇 개씩, 했습니까?)
 108028 #1 예, 진 줄이, 흐 서른 개.(예, 긴 줄이, 한 서른 개.)
 108028 #2 거 집 큼에 조끔.(거 집 크기에 조금.)
 108028 #1 서른 개 정도 진 줄이.(서른 개 정도 긴 줄이.)
 108028 @1 진 줄이.(긴 줄이.)
 108028 #1 즈른 게 흐 오십 개.(짧은 게 한 오십 개.)
 108028 @1 아, 즈른 줄이 해야 될 거구나양.(아, 짧은 줄이 많아야 될 거군요.)
 108028 #1 음. 이쪽으로 현 게 즈른 줄.(음. 이쪽으로 한 게 짧은 줄.)
 108028 @1 이, 영 현 게 즈른 줄.(이, 이렇게 한 게 짧은 줄.)
 108028 #1 질게 현 게 진 줄.(길게 한 게 긴 줄.)
 108028 @1 진 줄.(긴 줄.)
 108028 #1 거, 사림도, 진 줄은 동골락허게 사리곡, 줄 놓으멍.(거, 사리기도, 긴 줄은 동그랗게 사리고, 줄 놓으면서.)
 108028 @1 예.(예.)
 108028 #1 진 줄부떠 문여 놓으민 거, 동골락허게 흐 설남은 개난 즈근즈근 제 기곡. 즈른 줄은 영 오그령 줄마메영 영 놓곡.(긴 줄부터 먼저 놓으면 거, 동그랗게 한 삼십여 개이니까 차근차근 쌓고. 짧은 줄은 이렇게 오그려서 잡아매어서 이렇게 놓고.)
 108028 @1 음.(음.)
 108028 #1 거 즈르난에.(거 짧으니까.)
 108028 @1 계민 집 일젠 허민 그거 집줄¹⁶²⁾ 놓젠 허민 누게.(그러면 집 이려고

162) '집줄'은 초가지붕을 인 다음 바둑판처럼 얹어매는 줄이다.

하면 그거 ‘집줄’ 놓으려고 하면 누구.)

108028 #1 거 다 수놓영 동네.(거 다 품앗이해서 동네.)

108028 @1 수놓영?(품앗이해서?)

108028 #1 예.(예.)

108028 @1 몇 사람이?(몇 사람이?)

108028 #1 예, 예. 거 저, 그때는 혼 동네 저, 혼 열 사람 정도 되면은 그자, 오늘은 두 집 거[꺼].(예, 예. 거 저, 그때는 한 동네 저, 한 열 사람 정도 되면은 그 저, 오늘은 두 집 거.)

108028 @1 예.(예.)

108028 #1 딱 딱 두 집 거 영 해영.(또 딱 두 집 거 이렇게 해서.)

108028 @1 경허민 혼 오 일이민?(그렇게 하면 한 오 일이면?)

108028 #1 예, 예. 두 집. 수놓영.(예, 예. 두 집. 품앗이해서.)

108028 @1 그자 왜는구나양.(그저 되는군요.)

108028 #1 흐를에 두 집씩은 흡주게. 모다들영.(하루에 두 집씩은 하지요. 모여 들어서.)

108029 @1 으음. 게민 인제 그 줄 비는 사람.(으음. 그러면 인제 그 줄 뒤트는 사람.)

108029 #1 놓는 사람.(놓는 사람.)

108029 @1 놓는 사람.(놓는 사람.)

108029 #1 어울리는 사람.(어우르는 사람.)

108029 @1 어울리는 사람. 비는 사람 요거 영 비는 걸 뭐엔, 무시거엔 흡니까? 영 손에.(어우르는 사람. 뒤트는 사람 요거 이렇게 뒤트는 걸 뭐라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손에.)

108029 #1 예, 호랑이¹⁶³, 호랑이, 호롱이?(예, ‘호랑이’, ‘호랑이’, ‘호롱이’?)

108029 @1 호롱이?(‘호롱이’?)

108029 #1 으.(으.)

108029 @1 호랑이? 호롱이?(‘호랑이’? ‘호롱이’?)

108029 #1 으. 저디 호롱이. 호롱이허곡 예.(으. 저기 ‘호롱이’. ‘호롱이’하고 예.)

108029 #2 그 영 뒤치는 사람이엔 현 건 영, 영 허민 그 *아지고.(그 이렇게 ‘뒤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아지고.)

108029 #1 그거 저, 것ㄴ라는 그, 그, 그 줄 놓는, 그 말뚝 박앙.(그거 저, 그것을 그, 그, 그 줄 놓는, 그 말뚝 박아서.)

108029 @1 말뚝 박아근에.(말뚝 박아서.)

108029 #1 영 뒤치는 거.(이렇게 뒤치는 거.)

108029 @1 뒤치기.(‘뒤치기’.)

108029 #1 두치기¹⁶⁴ 영.(‘두치기’ 이렇게.)

163) ‘호랑이’는 줄, 참바 따위를 뒤트는 제구이다. 달리 ‘휼롱, 휼롱이, 호롱이’라고 한다.

108029 @1 음.(음.)

108029 #1 말톡.(말톡.)

108029 @1 계민 영 두 개 잡앙 영 허는 사름은 어울리는.(그러면 이렇게 두 개 잡아서 이렇게 하는 사름은 어우르는.)

108029 #1 어울리는 사름.(어우르는 사름.)

108029 @1 어울리는 사름. 계민 네 사름이 필요허겄다양.(어우르는 사름. 그러면 네 사름이 필요하겠네요.)

108029 #1 으음.(으음.)

108029 @1 줄 비는 사름은.(줄 뒤트는 사름은.)

108029 #1 줄 비는 사름은 네 사름.(줄 뒤트는 사름은 네 사름.)

108029 @1 네 사름.(네 사름.)

108029 #1 뒤치, 뒤치는 거.(‘뒤치’, ‘뒤치는’ 거.)

108029 @1 뒤치는 거.(‘뒤치는’ 거.)

108029 #1 뒤치는 것이 거 뒤치긴디.(‘뒤치는’ 것이 거 뒤치긴데.)

108029 @1 으음.(으음.)

108029 #1 거 하나에 네 사름.(거 하나에 네 사름.)

108029 @1 으음. 계민.(으음. 그러면.)

108029 #1 뒤치기 둘 허면은 으답 사름.(뒤치기 둘 하면은 여덟 사름.)

108029 @1 으답 사름. 이디 흘 뎌 으답 사름이 헤나기도 헛수과?(여덟 사름. 여기 할 뎌 여덟 사름이 했었기도 했습니까?)

108029 #1 아, 허여낫주. 모다들영.(아, 했었지. 모여들어서.)

108029 @1 아, 계민 양쪽으로, 이제.(아, 그러면 양쪽으로, 이제.)

108029 #1 즈미나계계.(재미나계.)

108029 @1 음.(음.)

108029 #1 그, 아메도 어려와도 집이는 날은 큰 대스주계.(그, 아무래도 어려워도 집이는 날은 큰 대사지.)

108029 @1 음.(음.)

108029 #1 이, 흔 열 사름, 열댓 사름 오면은, 밥도 춤 쏘 서끄곡.(이, 한 열 사름, 열댓 사름 오면은, 밥도 참 쌀 섞고.)

108029 @1 음.(음.)

108029 #1 맛있게 허영 ㄹ 솟디 밥헿 거려냥 저디, 콩국, 콩국, 꼭 콩국 끌리고.(맛있게 해서 이제 금방 술에 밥해서 떠 놓고 저기, 콩국, 콩국, 꼭 콩국 끓이고.)

108029 @1 음.(음.)

108029 #1 쟁 헤영 소주는 뒷술로 받아 낱, 그때는 그 술이 막 어려울 때. 어려울 때난 그, 사름덜이 술을 그렇게 좋아해서. 영 보면은.(그렇게 해서 소주는 뒷술

164) ‘뒤치기’는 두 가닥의 집줄을 하나로 만들 때 뒤에서 돌리는 기구이다. 달리 ‘뒤치기’라고도 한다.

로 받아 놓고, 그때는 그 술이 막 어려울 때. 어려울 때니까 그,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좋아했어. 이렇게 보면은.)

108029 @1 으음.(으음.)

108029 #1 경혜영 영 보니까 나는, 경 술을 별로 아이 먹어 봐신디.(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나는, 그렇게 술을 별로 아니 먹어 봤는데.)

108029 @1 으음.(으음.)

108029 #1 술 먹는 사람은 그 술, 돼, 흐 돼라도 웃을 때까지 먹어.(술 먹는 사람은 그 술, 돼, 한 돼라도 없을 때까지 먹어.)

108029 @1 (웃음).((웃음).)

108029 #1 막 어려왕. 그, 그려, 막, 막 그리왕, 춤앗당.(막 어려워서. 그, 그려, 막, 막 그리워서, 참았다가.)

108029 @1 게민 줄 비는 날 줄 저, 저.(그러면 줄 비는 날 줄 저, 저.)

108029 #1 흐 번[뻔]에, 그 날.(한 번에, 그 날.)

108029 @1 집 일어 베어마썰?(집 이어 버려요?)

108029 #1 예.(예.)

108029 @1 아.(아.)

108029 #1 경 허젠 흐난 수눌영 흐는 거주. 경 안 혜영 어떤 사람은, 가족만 흐는 사람은, 흐 이틀 사흘 걸려. 흐루는, 이녀 가족만 허니까.(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품앗이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안 해서 어떤 사람은, 가족만 하는 사람은, 한 이틀 사흘 걸려. 하루는, 이녀 가족만 하니까.)

108029 @1 예. 게민 줄, 줄 비곡.(예. 그러면 줄, 줄 비고.)

108029 #1 흐루는 줄 비곡. 저 막대기 꽃앗당 비어 강 이레 강 꽃아. 꽃앙 헛당, 저디, 아이들이나 오렝 허민, 영 허영 그찌 허곡. 가족만 흐는 사람네. 말짜에는 이 동네 막 젊은 사람덜이 하영 사난 수눌영덜.(하루는 줄 비고. 저 막대기 꽃았다가 비어 가서 이쪽에 가서 꽃아. 꽃아서 헛다가, 저기, 아이들이나 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가족만 하는 사람네. 말짜에는 이 동네 막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품앗이해서들.)

108029 @1 수눌영.(품앗이해서.)

108029 #1 오닐은 우리 누구네 집이엔 의논들 혜영.(오늘은 우리 누구네 집이라고 의논들 해서.)

108029 @1 줄 비는 날 그자 인척.(줄 비는 날 그저 일찍.)

108029 #1 인척.(일찍.)

108029 @1 일어 불어양.(이어 버려요.)

108029 #1 일어.(이어.)

108029 @1 음.(음.)

108029 #1 겨곡 저,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담배 흐 갑씩은 다 태와주곡.(그리고 저,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담배 한 갑씩은 다 나눠주고.)

108029 @1 집 일젠 허면은, 그 지붕 우인 멧 사름이 올라가수과?(집 이려고 허면은, 그 지붕 위엔 멧 사름이 올라갔습니까?)

108029 #1 두 사름.(두 사름.)

108029 @1 두 사름 올라가곡.(두 사름 올라가고.)

108029 #1 보통 두 사름.(보통 두 사름.)

108029 @1 게민 또.(그러면 또.)

108029 #1 집 이는, 저 줄 매는 사름은.(집 이는, 저 줄 매는 사름은.)

108029 @1 줄 매는 사름.(줄 매는 사름.)

108029 #1 저, 너이도 웨곡 들이도 웨곡.(저, 너이도 되고 들이도 되고.)

108029 @1 들이도 웨곡 너이도 웨곡.(들이도 되고 너이도 되고.)

108029 #1 하여간 양쪽에서 매니까. 둘 아니면 보통 너이주, 너이.(하여간 양쪽에서 매니까. 둘 아니면 보통 너이지, 너이.)

108029 @1 으음.(으음.)

108029 #1 이쪽에서 매영.(이쪽에서 매어서.)

108031 @1 으음. 건, 줄 매엇당 또 새로 매곡 헛수과?(으음. 그건, 줄 매었다가 또 새로 매고 했습니까?)

108031 #1 아, 이 년에 혼 번.(아, 이 년에 한 번.)

108031 @1 줄, 줄. 아니, 아니. 줄 매, 줄 줄. 줄 멜 거 아니우파? 양쪽으로 영.(줄, 줄. 아니, 아니. 줄 매, 줄 줄. 줄 멜 거 아닙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108031 #1 매엇당.(매었다가.)

108031 @1 매영.(매어서.)

108031 #2 그거 다 끈어근에 이제 묵은 줄은 놔 뒷당 이제 밥 행 먹는 걸로 그건 땡 허곡.(그거 다 끊어서 이제 묵은 줄은 놔뒀다가 이제 밥 해서 먹는 걸로 그건 매어서 하고.)

108031 #1 그 저, 줄 처음에 인제 이런 줄 허면은, 혼 들포씩은 그제 늦어. 줄 이.(그 저, 줄 처음에 인제 이런 줄 허면은, 한 달포씩은 그제 늦어져. 줄이.)

108031 @1 예.(예.)

108031 #1 또, 또, 또, 문딱 이녁 건, 집주인만 이녁만.(또, 또, 또, 전부 이녁 건, 집주인만 이녁만.)

108031 @1 혼자만?(혼자만?)

108031 #1 응, 혼자만.(응, 혼자만.)

108031 @1 잡아텅경?(잡아당겨서?)

108031 #1 잡아텅경 해야 될 철 아니파게.(잡아당겨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8031 @1 예, 예.(예, 예.)

108031 #1 이녁 혼자만 혼 착 메시민 잡아텅경. 혼 쪽만 클렁 잡아텅경 메곡.(이녁 혼자만 한 쪽 매지면 잡아당겨서. 한 쪽만 끌러서 잡아당겨서 매고.)

108031 @1 경헤영 메곡.(그렇게 해서 매고.)

108031 #1 예. 경해야 든든혜영 이 년간. 경 아녀믄 태풍 불면은 다 불려나 불 거난.(예. 그렇게 해야 단단해서 이 년간. 그렇게 않으면 태풍 불면은 다 날려가 버 릴 거니까.)

108031 @1 건 무시거에 무꺼수과? 그 줄은. 집줄.(그건 무엇에 묶었습니까? 그 줄은. 집줄.)

108031 #1 아이고, 집줄 무끄는 저, 그 대가, 대나 낭이나.(아이고, 집줄 묶는 저, 그 대가, 대나 나무나.)

108031 @1 계난 그거 무시거옌 ㄴ, 곱습니까?(그러니까 그거 무엇이라고 이, 이 립니까?)

108031 #1 저.(저.)

108031 #2 것도 췌끼 꼬왕.(그것도 새끼 꼬아서.)

108031 #1 아니게. 그 저, 저, 지, 줄 매는 거. 것ㄴ라 무신.(아니. 그 저, 저, 지, 줄 매는 거. 그것을 무슨.)

108031 @1 줄 매는 무신, 무신 낭 이실 거 아니꽈?(줄 매는 무슨, 무슨 나무 있 을 거 아닙니까?)

108031 #1 낭 이시메. 낭. 낭이나 큰 왕대나.(나무 있어. 나무. 나무나 큰 왕대 나.)

108031 @1 왕대예.(왕대요.)

108031 @2 췌고대?(췌고대?)

108031 #1 어?(어?)

108031 @2 췌고대는 안 험니까?(췌고대는 안 합니까?)

108031 @1 거왕대?('거왕대')

108031 #1 거왕¹⁶⁵, 거왕.('거왕', 거왕.)

108031 @2 거왕. 음.('거왕'. 음.)

108031 @1 거왕.('거왕')

108031 #1 거왕이주. 거왕게. 거왕.('거왕'이지. '거왕'. '거왕')

108031 #2 (웃음). 아이고, 오래난 이젠 알아지크라?((웃음). 아이고, 오래니까 이젠 알 수 있겠어?)

108031 @1 크, 그 줄 매는 디가 거왕이고.(크, 그 줄 매는 데가 연속이고.)

108031 #1 거왕이 그때. 거왕은.(연죽이 그때. 연죽은.)

108029 @1 음.(음.)

108031 #1 저, 숙대낭 요만이 흘 거, 진 거나.(저, 삼나무 요만이 한 거, 긴 거 나.)

108031 @1 긴 거.(긴 거.)

108031 #1 허영 가깁. 그, 저, 저 신사라로 노 꼬양은에 이 서, 서슬에.(해서 깁

165) '거왕'은 처마 끝 서까래 아래에 이영을 누르는 줄을 묶기 위한 장대이다. 표준어 '연죽'에 해당한다.

아서. 그, 저, 저 뉴지랜드삼으로 노 꼬아서 이 서, ‘서슬’에.)

108031 @1 서슬에 무경.(산자에 묶어서.)

108031 #1 저, 저, 서슬이엿 허주게이. 여기 영.(저, 저, 산자라고 하지. 여기 이
렇게.)

108031 @1 예, 예.(예, 예.)

108031 #1 초가집 서슬.(초가집 산자.)

108031 @1 서슬.(산자.)

108031 #1 서슬에 다 무끄면은. 돌아가명.(서슬에 다 묶으면은. 돌아가면서.)

108031 @1 돌아가명.(돌아가면서.)

108031 @2 음.(음.)

108031 #1 다 허면은 그것에 집줄을 맵주게. 거왕대.(다 하면은 그것에 집 줄을
매지요. ‘거왕대’.)

108031 @1 거왕 말아 그, 서슬 우이 이신 건 또 무시거옴 꼴옵니까? 거, 무신
대?(연죽 말고 그, 산자 위에 있는 건 또 무엇이라고 이릅니까? 거, 무슨 대?)

108031 #1 음, 서슬.(음, 산자.)

108031 #2 아니, 꺾사 거왕이사 집 줄.(아니, 아까 연죽이야 집 줄.)

108031 @1 그, 새 아래. 새보다 아래 이신 거.(그, 띠 아래. 띠보다 아래 있는
거.)

108031 #2 밑에만 거왕 허는 거주기게.(밑에만 연죽 하는 거지.)

108031 @1 저.(저.)

108031 #1 아, 게메, 저, 저기 아까 곤지 안해서게. 그거 저디.(아, 글썸, 저, 저
기 아까 말하지 않았어. 그거 저기.)

108031 @2 우, 우이.(위, 위에.)

108031 #1 새 아래.(띠 아래.)

108031 @1 새 아래 이신 거.(띠 아래 있는 거.)

108031 #1 그계.(그계.)

108031 @1 그계 꿩고대우파?(그계 꿩고대입니까?)

108031 #1 아까 곶아나신디 것ㄴ라.(아까 말했었는데 그것을.)

108031 #2 (웃음).(웃음.)

108031 #1 그, 흑 불르, 그디 흑 불르고.(그, 흑 바르, 거기 흑 바르고.)

108031 @1 예예.(예예.)

108031 #1 흑 불르곡.(흑 바르고.)

108031 @2 서슬? 서슬 아니고 뭐라?(산자? 산자 아니고 뭐라?)

108031 @1 서슬 우이.(산자 위에.)

108031 @2 음.(음.)

108031 #1 아이, 서슬, 서슬.(아니, 산자, 산자.)

108031 @1 서슬.(산자.)

108031 #1 서슬이.(산자.)
108031 @1 서리, 서리 우이.(서까래, 서까래 위에.)
108031 #1 서리는, 서리는 큰 낭이고.(서까래는, 서까래는 큰 나무이고.)
108031 @1 큰 낭이고.(큰 나무이고.)
108031 @2 음.(음.)
108031 #1 서슬은.(산자는.)
108031 @1 그 우이.(그 위에.)
108031 #1 서슬, 서리 우이 서슬이주.(산자, 서까래 위에 산자이지.)
108031 @1 서슬 헤여근에.(산자 해서.)
108031 #1 예. 흙 불량. 서슬.(예. 흙 발라서. 산자.)
108031 @1 흙 불르고, 계난 그 서슬 꺾뎡이로 영 지붕, 영 또 뭐 잇지 안흐우파 영? 저, 거왕 님은 거.(흙 바르고, 그러니까 그 서슬 끝으로 이렇게 지붕, 이렇게 또 뭐 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 연죽 님은 거.)
108031 #2 아이, 그것에 거왕을 메는 겹주기게.(아이, 그것에 연죽을 매는 거지요.)
108031 @2 으음.(으음.)
108031 #1 서슬에 거왕을 메주.(산자에 연죽을 매지.)
108031 @2 그 우에. 맞아 맞아.(그 위에. 맞아 맞아.)
108031 #2 서슬에 거왕을 메주.(산자에 연죽을 매지.)
108031 #1 서슬에 거왕.(산자에 연죽.)
108031 @1 서슬에 거왕 메곡.(산자에 연죽 매고.)
108031 #1 음.(음.)
108031 @1 우알로 영 허지 안 홉니까?(위아래로 이렇게 하지 안 합니까?)
108031 #1 서리, 서리에 거왕을 메주. 서리에.(서까래, 서까래에 연죽을 매지. 서까래에.)
108031 @1 옆에 서리에 요건 영 거왕이고. 영 허민, 혼 지붕이 영 이시민.(옆에 서까래에 요건 이렇게 연죽이고. 이렇게 하면, 한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108031 #1 예.(예.)
108031 @1 집줄 영 오면은 요래.(집줄 이렇게 오면은 요기에.)
108031 #1 그, 그, 그래.(그, 그, 거기에.)
108031 @1 요래 무끝 거고.(요기에 묵을 거고.)
108031 #1 서슬 이레, 이레 즐라메.(산자 여기에, 여기에 잡아매어.)
108031 @1 요 새, 새 일기 전이 요, 요 혹 우이 무시거 또 잇지 안흐우파? 요 거? 요디. 지붕, 지붕 우이, 우이.(요 띠, 띠 이기 전에 요, 요 흙 위에 뭐 또 잇지 않습니까? 요거? 요기. 지붕, 지붕 위에, 위에.)
108031 #1 지붕 우의.(지붕 위에.)
108031 @1 거 든든허게, 든든허게 영.(거 단단하게, 단단하게 이렇게.)

108031 #1 그 바위 돌린 거?(그 가에 돌린 거?)
108031 @1 예, 예. 바위 돌린.(예, 예. 바위 두른.)
108031 #1 네, 너, 널착으로 돌령 널착으로.(네, 너, 널빤지로 둘러서 널빤지로.)
108031 @1 예, 예, 예, 예. 돌아가명.(예, 예, 예, 예. 돌아가면서.)
108031 #1 돌아가명. 그, 것ㄴ라 저, 그 으듭, 그건 메집은 경 안 혀곡, 그런 집 이 셔. 바위 들랑은에.(돌아가면서. 그, 그것을 저, 그 여덱, 그건 매 집은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집이 있어. 가에 둘러서.)
108031 @1 예, 예.(예, 예.)
108031 #1 든든하게.(단단하게.)
108031 @1 음.(음.)
108031 #1 그, 저, 서슬 우에.(그, 저, 산자 위에.)
108031 @1 예, 예, 서슬 우이. 대.(예, 예, 산자 위에. 대.)
108031 #1 예.(예.)
108031 @1 왕대나 무신.(왕대나 무슨.)
108031 #1 왕대나 아니믄 긴, 긴 낭이나.(왕대나 아니면 긴, 긴 나무나.)
108031 @1 긴 낭양. 음.(긴 나무요. 음.)
108031 #1 건 못 박양 건. 못.(그건 못 박아서 그건. 못.)
108031 @1 그거, 그거. 예, 예.(그거, 그거. 예, 예.)
108031 #1 못, 못. 소도리로 못 박는 거.(못, 못. 끝부분에 못 박는 거.)
108031 #2 건 아무 집이나 허는 거 아니우다.(그건 아무 집이나 하는 거 아닙니다.)
108031 #1 건, 건 드물어.(그건, 그건 드물어.)
108031 @1 음. 게민 이제.(음. 그러면 이제.)
108031 #2 야속헌 집이나 허주.(‘야속헌’ 집이나 하지.)
108031 @1 무꺼, 영, 흐뎡, 늦어, 늘어지난 혼 덜 후에 영 새로.(뭉어, 이렇게, 조금, 늘어져, 늘어지니까 한 달 후에 이렇게 새로.)
108031 #1 새로 줍아댕경.(새로 잡아당겨서.)
108032 @1 새로 무경 줍아댕경 무꾼 다음에 이제 끈을 거 아니우파. 이젠 저, 지랑지랑 헌 것덜. 끈어근에 그거 또 무시걸로 써수과?(새로 묶어서 잡아당겨서 묶은 다음에 이제 꿇을 거 아닙니까. 이젠 저, 치렁치렁 한 것들. 꿇어서 그거 또 무엇으로 썼습니까?)
108032 #1 끈은, 끈은 걸로는, 끈은 걸로는 다 진을킵주마는.(꿇은, 꿇은 걸로는, 꿇은 걸로는 다 땀감이지마는.)
108032 @1 진을커 허고.(땀감 하고.)
108032 #1 끈질 안혀고 영 여경.(꿇질 앓고 이렇게 엮어서.)
108032 @1 예.(예.)
108032 #1 이영, 영, 줄 영 여경.(이렇게, 이렇게, 줄 이렇게 엮어서.)

108032 @1 예. 영 뱅뱅 헤근에 무경.(예. 이렇게 뱅뱅 해서 묶어서.)
 108032 #1 무경.(묶어서.)
 108032 @1 경해도 남은 것덜 잇잖우파? 그 줄.(그렇게 해도 남은 것들 잇잖습
 니까? 그 줄.)
 108032 #1 저, 끈어 불 거.(저, 끊어 버릴 거.)
 108032 @1 끈어, 끈어 분 거는 그자.(끊어, 끊어 버린 거는 그저.)
 108032 #1 뭐 저.(뭐 저.)
 108032 @1 질을컬로만 써수가?(빨감으로만 썼습니까?)
 108032 #1 그거 질을컬로나 썬주. 예. 줄 헤나면은 보통 다 끊어. 호미로. 아, 그
 거는 무경 영 허고. 저, 새가 영 질게 나온 거 잇잖여.(그거 빨감으로나 썬지. 예.
 줄 하고 나면은 보통 다 끊어. 호미로. 아, 그거는 묶어서 이렇게 하고. 저, 띠가 이
 렇게 질게 나온 거 잇잖아.)
 108032 @1 예, 예, 예.(예, 예, 예.)
 108032 #1 그거는 거, 저, 것ㄴ라 뵈이엔. 거 눈썹¹⁶⁶.(그거는 거, 저, 그것을 뵈
 이라고. 거 ‘눈썹’.)
 108032 @1 눈썹.(‘눈썹’.)
 108032 #2 눈썹 그치는 거.(눈썹 자르는 거.)
 108032 #1 눈썹 그췈 호미로 ㄴ췈허게. 그걸 잘 끊어야 고와. 집이.(‘눈썹’ 잘라
 서 낮으로 가지런하게. 그걸 잘 잘라야 고와. 집이.)
 108032 @1 아, 눈썹도 기차 뵈구나양.(아, ‘눈썹’도 잘라 뵈군요.)
 108032 #1 예게. 눈썹을 집 다 일영 끝내 줄 맨 후에 눈썹을 ㄴ췈허게 그차야.
 (예. ‘눈썹’을 집 다 이어서 끝에 줄 맨 후에 ‘눈썹’을 가지런하게 잘라.)
 108032 @1 줄 맨 후에.(줄 맨 후에.)
 108032 #1 예, 눈썹.(예, ‘눈썹’.)
 108032 @1 ㄴ췈허게 영.(가지런하게 이렇게.)
 108032 #1 예. ㄴ췈. 돌아가멍 다. 호미로.(예. 가지런히. 돌아가면서 다. 낮으
 로.)
 108032 @1 호미로.(낮으로.)
 108032 #1 예. 거 집 임제가 경허난.(예. 거 집 임자가 그렇게 하니까.)
 108032 @1 집 임제나.(집 임자나.)
 108032 #1 집 임제나 그디 ㄴ췈 일허레 온 사름덜이 모다들영. 경 허믄.(집 임자
 나 거기 같이 일하러 온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렇게 하면.)
 108032 @1 음. 기치젠 허민 흐뵈 호미 흐뵈 늘씨게.(음. 끊으려고 하면 조금 낮
 을 조금 날카롭게.)
 108032 #1 예, 예.(예, 예.)
 108032 @1 곶아사쿠다양.(갈아야겠습니다.)

166) ‘눈썹’은 초가지붕을 일 때 지붕 가장자리에 띠가 길이가 일정하지 않게 나와 있는 것을 말한다.

108032 #1 그, 저 뭐.(그, 저 뭐.)

108032 @1 신돌로양.(숫돌로요.)

108032 #1 무신 거 노픈 거 낡 올라상은앵에. 팡돌¹⁶⁷⁾ 낡 올라상.(무슨 거 높은 거 낡서 올라서서. ‘팡돌’ 놓고 올라서서.)

108032 @1 음.(음.)

연장

108033 @1 집 짓을 때 무시거 연장덜이 하영 필요혜실 건디, 무신 연장덜, 생각나는 거 한번 곶아 봅서. 집 짓을 때 필요헌 연장덜.(집 지을 때 뭐 연장들이 많이 필요했을 건데, 무슨 연장들,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집 지을 때 필요한 연장들.)

108033 #1 집 짓을 때는 그 저디, 그 자귀, 도치.(집 지을 때는 그 저기, 그 자귀, 도끼.)

108033 @1 자귀, 도치.(자귀, 도끼.)

108033 #1 도치. 톱.(도끼. 톱.)

108033 @1 톱.(톱.)

108033 #1 예.(예.)

108033 #2 끝이영.(끝이랑.)

108033 @1 끝.(끝.)

108033 #1 대패.(대패.)

108033 @1 대패. 음.(대패. 음.)

108033 #2 것사 저 목시 연장 하는 사람이 다 집짓는 거난에. 그냥 우린.(그거야 저 목수 연장 하는 사람이 다 집짓는 거니까. 그냥 우린.)

108033 #1 그 사람이.(그 사람이.)

108033 #2 모릅니다게.(모릅니다.)

108033 @1 게도 봐난 거 이제 곶아 줍서.(그래도 봤던 거 이제 말해 주십시오.)

108033 #1 다 곶아 줘 봅주. 그, 그 사람이 ㄴ정 왕 허면은.(다 말해 줘 보지요. 그, 그 사람이 가져 와서 하면은.)

108033 @1 음.(음.)

108033 #1 허곡. 톱도 요랏 질이라. 영 안팍디 늘씬 톱이 있어. 이디.(하고. 톱도 여러 갈래라. 이렇게 안팍에 날카로운 톱이 있어. 여기.)

108033 @1 예, 예.(예, 예.)

108033 #1 곶은 거. 밧권 줍진 거 영.(곶은 거. 밖엔 가는 거 이렇게.)

108033 @1 예.(예.)

108033 #1 영 넙작허게 넙, 요만이 널븐 거. 이디 늘 싯고.(이렇게 넙적하게 넙,

167) ‘팡돌’은 말을 타고 내리거나 집을 지고 부리거나 할 적에 대가 되게끔 놓인 넓적한 큰 돌 따위를 말한다. 달리 ‘팡’이라고도 한다.

요만이 넓은 거. 여기 날 있고.)

108033 @1 예.(예.)

108033 #2 *****.(*****.)

108033 #1 그런 톱 싹고.(그런 톱 있고.)

108033 @1 그건 무신 톱이엔?(건 무슨 톱이라고?)

108033 #1 그거 목시 톱.(그거 목수 톱.)

108033 @1 으음. 허고.(으음. 하고.)

108033 #1 거도엔 해 가지고 흔 쪽으로만 허는 거허고.(거도라고 해 가지고 한 쪽으로만 하는 거하고.)

108033 @1 예.(예.)

108033 #1 거도, 거 톱.(거도, 그거 톱.)

108033 @1 건 냥.(그건 냥.)

108033 #1 그, 저, 그 큰, 서리 ㄴ튼 거 자르는 거.(그, 저, 그 큰, 서까래 같은 거 자르는 거.)

108033 @1 냥 그치는 거양.(나무 자르는 거요.)

108033 #1 도, 도치는 냥 가끄는 거.(도, 도끼는 나무 깎는 거.)

108033 @1 가끄는 거.(깎는 거.)

108033 #1 예. 자귀도 그 족은 냥 가끄는 거, 자귀.(예. 자귀도 그 작은 나무 깎는 거, 자귀.)

108033 @1 자귀.(자귀.)

108033 #1 도치는 이런, 큰 냥 ㄴ튼 건 도치로 다 가까.(도끼는 이런, 큰 나무 같은 건 도끼로 다 깎아.)

108033 @1 음. 도치도 여러 가지 잇지 않우파?(음. 도끼도 여러 가지 잇지 않습니까?)

108033 #1 도치도 좋은 도치가 싹곡, 도치도 으라 질이 잇어. 도치도.(도끼도 좋은 도끼가 있고, 도끼도 여러 등급이 잇어. 도끼도.)

108033 @1 음.(음.)

108033 #1 거, 잘 가까지는 도치가 그, 그.(거, 잘 깎아지는 도끼가 그, 그.)

108033 #2 냥 깨명.(나무 깨면서.)

108033 #1 그, 기술자가 그, 그 도치 멘드는 대장이 철공소 닳은, 그 대장이.(그, 기술자가 그, 그 도끼 만드는 대장이 철공소 닳은, 그 대장이.)

108033 @1 음.(음.)

108033 #1 도치를 잘 만들어야 돼. 자귀도 마찬가지로.(도끼를 잘 만들어야 돼. 자귀도 마찬가지로.)

108033 @1 자귀도 여러 종류 잇지 않우파?(자귀도 여러 종류 잇지 않습니까?)

108033 #1 예게.(예.)

108033 @1 무신 자귀.(무슨 자귀.)

108033 #1 곱은 자귀가 잇고.(곱은 자귀가 잇고.)
108033 @1 곱은 자귀.(곱은 자귀.)
108033 #1 음. 딱시 그냥 평 자귀가 잇고.(음. 또 그냥 평 자귀가 잇고.)
108033 @1 평 자귀는 무시거 헐 때 쓰는 겨우파?(평 자귀는 무엇 할 때 쓰는 겁니까?)
108033 #1 그냥, 그 곱은 자귀는 오그라진 거난에. 즈록이 질고.(그냥, 그 곱은 자귀는 오그라진 거니까. 자루가 길고.)
108033 @1 음.(음.)
108033 #1 평 자귀는 그냥 보통, 가끄는 거고.(평 자귀는 그냥 보통, 깎는 거고.)
108034 @1 으음. 곱은 자귀, 평자귀. 음. 툇 양쪽으로 영 해근에 툇.(으음. 곱은 자귀, 평 자귀. 음. 툇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툇.)
108034 #1 건 거도.(그건 거도.)
108034 @1 아, 그게 거도우파?(아, 그게 거도입니까?)
108034 #1 예. 양쪽으로 들린 거는.(예. 양쪽으로 달린 거는.)
108034 @1 두 사름이.(두 사름이.)
108034 #1 아, 건 널, 널, 널 만드는 거. 오리는 거.(아, 건 널, 널, 널 만드는 거. ‘오리는’ 거.)
108034 @1 널 오릴 때 쓰는 겨우파 거도?(널 오릴 때 쓰는 겁니까? 거도?)
108034 #1 예. 이런 큰 낭덜 오리는 거.(예. 이런 큰 나무들 오리는 거.)
108034 @1 예.(예.)
108034 #1 거 양쪽으로, 두 사름이 즈양 이런 디도.(거 양쪽으로, 두 사름이 잡아서 이런 데도.)
108035 @1 못 뽑을 때 무시거 쓰는 건? 못?(못 뽑을 때 뭐 쓰는 건? 못?)
108035 #1 아이고, 그거는 못 뽑을 때는, 그 저디, 그 망치 닳은 게 그, 그, 것ㄴ라 췌 오그라진 거. 장철.(아이고, 그거는 못 뽑을 때는, 그 저기, 그 망치 닳은 게 그, 그, 그것을 쇠 오그라진 거. ‘장철’.)
108035 @1 장철?(‘장철’?)
108035 #1 예.(예.)
108035 @1 음.(음.)
108035 #1 그거 못 뽑는 거. 췌 요만이 술진 거 햏여 가지고.(그거 못 뽑는 거. 쇠 요만이 굵은 거 햏여 가지고.)
108035 @1 예.(예.)
108035 #1 질게 햏영. 질게 햏영 그디 영, 가리가게 만들양 그레 영 즈정.(길게 해서. 길게 해서 거기 이렇게, 가로가게 만들어서 거기 이렇게 집어서.)
108035 @1 장철이엔 햏는구나.(‘장철’이라고 햏는구나.)
108035 #1 장철은 못.(‘장철’은 못.)
108036 @1 아. 장철. 대패는 여러 가지 잇지 앗우파? 대패.(아. ‘장철’. 대패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패.)

108036 #1 대패도 큰 거 잇곡, 작은 거 잇곡.(대패도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108036 @1 게메.(글썸.)

108036 #1 대패 뭐, 건, 목수들뵈기 못 짜.(패 뭐, 건, 목수들밖에 못 짜.)

108036 @1 목수들 그자 민짜허게시리? 하튼. 가끄는 거 아니우파양?(목수들 그저 미끈하고 평평하게끔? 하여튼. 깎는 거 아닙니까?)

108036 #1 예. 대문덜.(예. 대문들.)

108036 @1 멘짜하게시리 허는 거.(미끈하고 평평하게 하는 거.)

108036 #1 문 가튼 거 대패로 다 가까야지.(문 같은 거 대패로 다 깎아야지.)

108036 @1 요런 디 영 따로 영 홈 내는 그, 것도 잇지 않우파? 대패.(요런 데 이렇게 따로 이렇게 홈 내는 그, 그것도 잇지 않습니까? 대패.)

108036 #1 아, 것도 셔. 것도 셔.(아,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어.)

108036 @1 거 뵈이엔 글읍니까?(거 뵈이라고 부릅니까?)

108036 #1 거, 거, 문 멘들젠 허민 홈, 지방에 홈 멘드는 거?(거, 거, 문 만들려고 하면 홈, 지방에 홈 만드는 거?)

108036 @1 예에.(예에.)

108036 #1 그, 거 곡췌엔 흐는가? 곡췌?(그, 거 호비칼이라고 하는가? 호비칼?)

108036 @1 곡췌.(호비칼.)

108036 #2 끝 아니우파? 그거 끝.(끝 아닙니까? 그거 끝.)

108036 #1 아이 그.(아이 그.)

108036 @1 끝 말앙.(끝 말고.)

108036 #1 곡췌.(호비칼.)

108036 @1 대패는 대판디.(대패는 대판데.)

108036 #2 대패주, 대패는 잘 가끄는 거가 대패지.(대패지, 대패는 잘 깎는 것이 대패지.)

108036 #1 홈 멘드는 게 것ㄴ라 곡췌엔 흐던가? 요만이 헨에.(홈 만드는 게 그것을 호비칼이라고 하던가? 요만이 해서.)

108036 @1 예.(예.)

108036 #1 흔 거 있어. 영, 영. 그레 가지고 요영 저디.(한 거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저기.)

108036 @1 영 내려가는 거양.(이렇게 내려가는 거요.)

108036 #2 *** 잘 글아 줍서.(*** 잘 말해 주십시오.)

108036 @1 (웃음).((웃음).)

108036 #1 곡췌엔 헤신가? 것ㄴ라.(호비칼이라고 했던가? 그것을.)

108037 @1 자도 잇어야 뵈 거 아니우파양? 집 짓을 때.(자도 잇어야 뵈 거 아닙니까? 집 지을 때.)

108037 #1 아이, 곱은자 잇주.(아이, 곱자 있지.)

108037 @1 곱은자우짱? 문딱.(곱자입니까? 전부.)

108037 #1 으.(으.)

108037 @1 그냥.(그냥.)

108037 #1 곱은자가 영 기억자 난 건디.(곱자가 이렇게 기억자 난 건데.)

108037 @1 음.(음.)

108037 #1 그, 저, 그디 센치로 다 표시웁 곱은자가 있어. 영 게민. 목수는 그걸, 그걸 ㄱ지곡 그 저 다 재곡. 또 먹통이엔 해 가지고.(그, 저, 거기 센치로 다 표시웁 곱자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목수는 그걸, 그걸 가지고 그 저 다 재고. 또 먹통이라고 해 가지고.)

108038 @1 먹통.(먹통.)

108037 #1 먹술.(먹술.)

108038 @1 먹술.(먹술.)

108038 #1 먹통이엔 허면은 먹물 영 거떻게, 영 낭으로 멘든 요만이는 현 게 낮당. 썰로 뭐 저디 줍아텡겨 가지고 탁 태우면은.(먹통이라고 하면은 먹물 이렇게 거떻게, 이렇게 나무로 만든 요만큼은 한 게 낮다가. 실로 뭐 저기 잡아당겨 가지고 탁 태우면은.)

108038 @1 음.(음.)

108038 #1 그거, 그, 그, 그릇 굿어질 거 아니라게? 게민 글로 톱질허는 거라.(그거, 그, 그, 금 굿어질 거 아니라? 그러면 거기로 톱질하는 거야.)

108038 @1 음.(음.)

108038 #1 그거는. 먹통. 먹술.(그거는. 먹통. 먹술.)

108038 @1 음. 먹술이엔 흡니까?(음. 먹술이라고 합니까?)

108038 #1 먹술. 먹술.(먹술. 먹술.)

108038 @1 먹술? 먹.(먹술? 먹.)

108038 #1 예. 거 줄. 그 썰 닳은 거 영 진 거.(예. 거 줄. 그 실 닳은 거 이렇게 긴 거.)

108038 @1 줄.(줄.)

108038 #1 하이튼 목수한테는 영 먹통, 먹술은 꼭 있어야. 곱은자허곡.(하여튼 목수한테는 이렇게 먹통, 먹술은 꼭 있어야. 곱자하고.)

108039 @1 음. 흑질힐 때 무시거, 영 흑 받아 놓는 거 흑?(음. 흑질할 때 뭐, 이렇게 흑 받아 놓는 거 흑?)

108039 #1 아니, 손으로만.(아니, 손으로만.)

108039 @1 손으로만?(손으로만?)

108039 #1 예. 그 받정.(예. 그 받아서.)

108039 @1 다른 걸로 밀진 안했수과?(다른 걸로 밀진 않았습니까?)

108039 #1 아니, 아니. 저디 저, 손으로만, 완전 흑질은 손으로만.(아니, 아니. 저기 저, 손으로만, 완전 흑질은 손으로만.)

108039 @1 맨손으로만?(맨손으로만?)

108039 #1 맨손으로만. 게도 원. 아프기도 안혀고, 거 나도 건. 저 천아, 천장도
흑질로 현, 손으로.(맨손으로만. 그래도 원. 아프지도 않고, 거 나도 건. 저 천아, 천
장도 흑질로 한, 손으로.)

108039 @1 손으로만 흡디가? 낭으로 만든 거.(손으로만 하셨습니까? 나무로 만
든 거.)

108039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8039 @1 납작하게 만들앙 허진.(납작하게 만들어서 하진.)

108039 #1 아니, 손으로만 흑질은 다 헨.(아니, 손으로만 흑질은 다 했어.)

108039 @1 아.(아.)

108039 #1 이런 벽 그 저디, 이디 천장, 이런 거 헐 때도 다 손으로만 밀언. 흑
을 손으로.(이런 벽 그 저기, 여기 천장, 이런 거 할 때도 다 손으로만 밀었어. 흑을
손으로.)

108039 @1 저디도 이거.(저기도 이거.)

108039 #1 그 천장도 손으로만.(그 천장도 손으로만.)

108039 @1 아.(아.)

108039 #1 빈, 빈손으로만 헤영. 그게 싹 허게 고와집니다. 손이. 그 재주진 사
름은.(빈, 빈손으로만 해서. 그게 싹 하게 고와집니다. 손이. 그 재주 있는 사람은.)

108039 @1 낭손은 안 써 밥디가? 낭손.(‘낭손’은 안 써 보셨습니까? ‘낭손’.)

108039 #1 낭손¹⁶⁸은 아니 써 보고. 그냥 손으로만 우린 다 헤연.(‘낭손’은 아니
써 보고. 그냥 손으로만 우린 다 했어.)

108039 @1 다른 사름덜은?(다른 사름들은?)

108039 #1 그냥 사름도. 그 손으로만 그거는 그, 그것도 그, 브르는 그 재주꾼이
있어. 이 손으로만 브르는 재주꾼이.(그냥 사름도. 그 손으로만 그거는 그, 그것도
그, 바르는 그 재주꾼이 있어. 이 손으로만 바르는 재주꾼이.)

108039 @1 예, 예.(예, 예.)

108039 #1 이 천장, 여기를 브르는 재주꾼이. 그게 이 원래 그 소질이, 나도 그
걸 전문으로 동넛 가면 나가 다 블라났주. 공동으로.(이 천장, 여기를 바르는 재주
꾼이. 그게 이 원래 그 소질이, 나도 그걸 전문으로 동네에 가면 내가 다 발랐었지.
공동으로.)

108039 @1 으음.(으음.)

108039 #1 이 손으로 영 싹 허민 꼭 그 낭손, 췌손처럼 민뜱 허게 만들어져.
건.(이 손으로 이렇게 싹 하면 꼭 그 낭손, 흡손처럼 미끈하게 만들어져. 그건.)

108039 @1 근디 이디 이 우이 영 허젠 허면 아래서 흑을 쥐야 될 거 아니파?
(그런데 여기 이 위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래서 흑을 쥐야 될 거 아닙니까?)

108039 #1 쥐야지.(쥐야지.)

168) ‘낭손’은 나무로 만든 흡손으로 흑을 떠서 바르고 걸 표면을 반반하게 하는 연장이다.

108039 @ 무시거 그거 받.(뭐 그거 받.)

108039 #1 아니, 게, 무신 박세기레 낫당 췌멍 다. 거.(아니, 거, 무슨 바가지에 낫다가 쥐면서 다. 거.)

108039 @1 박세기에 낫다근에. 위에서부터 알려레 해 봅디가? 아래서부터 우터 레 영 해 가수가?(바가지에 낫다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 보셨습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해 갔습니까?)

108039 #1 위에서부터 알려레.(위에서부터 아래로.)

108039 @1 위에서부터 알려레? 음.(위에서부터 아래로? 음.)

108039 #1 겨곡 그 천아반은 그거는 흘, 흘, 해운 거 그 혼자. 다 블름 직하게. 그 집주인은 걸 다 떠 주곡, 나가 걸 블라나신디. 게난 그 블르는, 그 기술잔 손이 풀 부떠야 돼어. 손이. 흑이 싹 허면은, 그제 손으로 싹 밀면은 이런 벽더레 강 대 변에 싹 문드러져 붙어야지. 서툰 사름은 거 못허여.(그리고 그 천장은 그거는 흘, 흘, 해운 거, 그 혼자. 다 바름 직하게. 그 집주인은 그걸 다 떠 주고, 내가 그걸 발 랐었는데. 그러니까 그 바르는, 그 기술잔 손이 풀 붙어야 되어. 손이. 흑이 싹 하면 은, 그제 손으로 싹 밀면은 이런 벽에 가서 한 번에 싹 문드러져 버려야지. 서툰 사 람은 거 못해.)

108039 @1 음.(음.)

108039 #1 미끈하게. 곱닥하게.(미끈하게. 곱게.)

108039 @1 아이고. 오늘 고맙수다. 이거 다.(아이고. 오늘 고맙습니다. 이거 다.)

108039 #1 (웃음).((웃음).)

7. 신앙

109003 @1 절기마다 해난 얘기 들어보쿠다. 그전이 춤. 우리 그 제사 전이 문전 제¹⁶⁹⁾ 허지 안합니까양?(절기마다 했었던 얘기 물어 보겠습니다. 그전에 참, 우리 그 제사 전에 ‘문전제’ 하지 않습니까?)

109003 #1 음. 문전제, 문전 문여. 그다음.(음. 문전제, 문전 먼저. 그다음.)

109003 @1 누구안티 허는 거짜?(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109003 #1 문전, 문제[문제]라는 게 제주도에서만 허는 겁주게.(문전, 문제라는 게 제주도에서만 하는 거지요.)

109003 @1 음.(음.)

109003 #1 그 저, 무당, 옛날에 무당 전설이 있어.(그 저, 무당, 옛날에 무당 전 설이 있어.)

109003 @1 음.(음.)

169) ‘문전제’는 제사 때 문전에서 지내는 제이다. 달리 ‘문제’라고도 한다.

109001 #1 무당에, 그거 때문에 허는 건데. 문전, 조왕.(무당에, 그거 때문에 허는 건데. 문전, 조왕.)

109001 @1 예. 조왕.(예. 조왕.)

109001 #1 변소 그계 다 동티, 귀신이 잇단 겁주게. 귀신이.(변소 그계 다 동티, 귀신이 있다는 거지요. 귀신이.)

109001 @2 조왕신.(조왕신.)

109001 #1 조왕신, 문전, 변소 잇는데. 그것 나도 연구허연 배와십주게. 이 문제, 제주도만 잇는 거에 대해서. 헌디 옛날에 남선비¹⁷⁰)라는 사람이 살앗던 모양이라. 수천년 전에.(조왕신, 문전, 변소 잇는데. 그것 나도 연구하여서 배웠지요. 이 문제, 제주도만 잇는 거에 대해서. 한데 옛날에 ‘남선비’라는 사람이 살앗던 모양이야. 수천년 전에.)

109001 @1 음.(음.)

109001 #1 남선비가 큰각시 죽어 부니까. 아들 일곱 성제 놔둑 죽어 부난, 죽은 각시 노일저대¹⁷¹)엔 현 할망을 얻어 와서. 얻어 왔는데, 그 노일저대엔 현 할망이 아주 다른 태를 해서. 아주 못웁 먹음을 먹어 가지고, 그 하르방을 막 꼬수우면은 하르방은 할망 말만 듣는 거라. 노일저대 말만.(남선비가 큰각시 죽어 버리니까. 아들 일곱 형제 놔 두고 죽어 버리니까, 작은각시 노일저대라는 할머니를 얻어 왔어. 얻어 왔는데, 그 노일저대라고 하는 할머니가 아주 다른 태를 했어. 아주 못된 마음을 먹어 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막 꼬시면은 할아버지는 할머니 말만 듣는 거라. 노일저대 말만.)

109001 @1 음.(음.)

109001 #1 아주 나쁜 여자²라 노일저대엔 곧주게. 그 아덜 일곱 성제에 간을 내영 먹고 싶다는 거라.(아주 나쁜 여자를 노일저대라고 이르지. 그 아들 일곱 형제의 간을 내어서 먹고 싶다는 거야.)

109001 @1 아.(아.)

109001 #1 간을, 간을 내영 먹고 싶다고 하니, 이놈이 하르방은 허여볼 수가 셔? 아덜 일곱 성제 간을. 그거 사름을 죽여사 내는 거 아니우파게?(간을, 간을 내어서 먹고 싶다고 하니, 이놈의 할아버지는 해볼 수가 있어? 아들 일곱 형제 간을. 그거 사람을 죽여야 내는 거 아닙니까?)

109001 @1 예.(예.)

109001 #1 그 일곱 성제 난 아들이 문, 이젠, 그 하르방은 아들덜 모아 놓고 어명이 너네 간 일곱을 먹고싶다 하니, 할 수 없이 너네 다 내놔야겠다.(그 일곱 형제니까 아들이 문, 이젠, 그 할아버지는 아들들 모아 놓고, 어머니가 너네 간 일곱을 먹고 싶다 하니, 할 수 없이 너네 다 내놔야겠다.)

109001 @1 예.(예.)

170) ‘남선비’는 정살신을 말하는데, 문전신의 아버지로 죽어서 정살신이 된다.

171) ‘노일저대’는 측간신이다. 문전본풀이에 등장하는 악인형 계모로 측간신이 된다.

109001 #1 간을. 그때에도, 옛날부터 죽은아들이 머리가 좋든 험 말이 있어. 죽은아들이, 그때 적 내리는 거주게.(간을. 그때에도, 옛날부터 작은아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 말이 있어. 작은아들이, 그때 적 내리는 거지.)

109001 @1 (웃음).((웃음).)

109001 #1 일곱 성제 막내아들이, 형들은 이제 다 항복을 험 거라. 험 수 었이. 간을 내주켄 다 험디. 막내아들이 연구를 험 가지고. 기가 막히거든. 이 죽은어멍 행동이, 형들은 무식쟁이고 아방 말만 듣는 거라. 아방은 노일저대 말 들엉 아들 일곱 성제 간을 내여도렌 허연. 이제는 죽은아들이엔 험 사름이 연구를 험 가지고 목장에 가서 산뜻을, 일곱을 잡아서. 간을 일곱 개를 험 가지고, 으덥 개를 묶어가지고 내려와서. 이거 성들 간이라고 해서. 그 으덥 간을 어멍안티 드린거라이. 노일저대안티 드렁. 창고망으로 먹는가 마는가 영 보니까, 입에 데영만 허멍 읍에 놔 불거든 그 할망이.(일곱 형제 막내아들이, 형들은 이제 다 항복을 험 거라. 험 수 없이. 간을 내주겠다고 다 했는데. 막내아들이 연구를 험 가지고. 기가 막히거든. 이 작은어머니 행동이, 형들은 무식쟁이고 아버지 말만 듣는 거라. 아버지는 노일저대 말 들어서 아들 일곱 형제 간을 내어 달라고 해서. 이제는 작은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험 가지고 목장에 가서 산돼지를, 일곱을 잡아서. 간을 일곱 개를 험 가지고, 으덥 개를 묶어 가지고 내려왔어. 이거 형들 간이라고 해서. 그 여덥 간을 어머니한테 드린 거라. 노일저대한테 드려서. 창구멍으로 먹는가, 마는가, 이렇게 보니까, 입에 대기만 하면서 옆에 놔 버리거든 그 할머니가.)

109001 @1 예.(예.)

109001 #1 성들은 저레 ㄱ만이 지경 시렌 허고. 죽은아덜 궂다 주고 성들 간, 이것 먹은 다음에 내 간 먹읍센 험가지고. 창구멍으로 영 보니까. 경 허영 먹는 듯 마는 듯 허난, 그땐 죽은아들이 이녁 간 내 놀 직시 돼니까, 문을 확 을아 가지고, 간 일곱 개를 확 끌어 내가지고, 어멍 이거 먹은 거냐고, 우털 죽일냐고 험 게 아니냐.(형들은 저리 가만히 지켜 있으라 하고. 작은아들이 궂다 주고 형들 간, 이것 먹은 다음에 내 간 먹읍시오 험 가지고. 창구멍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해서 먹는 듯 마는 듯하니까, 그땐 작은아들이 이녁 간 내 놀 때 되니까, 문을 확 열어 가지고, 간 일곱 개를 확 끌어 내 가지고, 어머니 이거 먹은 거냐고, 우털 죽이려고 험 게 아니냐.)

109001 @1 음.(음.)

109001 #1 이거 간 일곱 갠 먹어도 이녁이 오래 살켄. 나쁜 벵이 걸렸젠 험 게 이거 거짓말이렌 험연. 성들 이레 다 읍센. 이놈이 할망 때렁 못앙 죽여불켄, 우리 일곱 성제 다 죽이젠 험 어멍이렌. 형이영 왈각 모다드난, 그때 노일저대는 들음이엔 험 거는 칙간에, 변소에서 강 털어정 죽고.(이거 간 일곱 갠 먹어도 이녁이 오래 살겠다고. 나쁜 벵이 걸렸다고 험 게 이거 거짓말이라고 해서. 형들 이리 다 오시라고. 이놈의 할머니 때려서 마서 죽여 버리겠다고, 우리 일곱 형제 다 죽이려고 험 어머니라고. 형들과 왈각 모여드니까, 그때 노일저대는 달린다고 험 것이 측간에,

변소에 가서 떨어져 죽고.)

109001 @1 음.(음.)

109001 @1 또, 남선비엔 헌 하르방은 문전에 야게 돌아정 죽고, 큰할망 조왕은, 이녀 난 큰어명은 부엌 아니라? 조왕.(또, 남선비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문전에 목 매달아 죽고, 큰할머니 조왕은, 이녀 난 큰어머니는 부엌 아니라? 조왕.)

109001 @1 예. 부엌.(예. 부엌.)

109001 #1 부엌, 부엌이 제일 음식이 거의 다 나오는 디난, 어머니는 이디서 음식을 먹영 삼셴. 조왕 귀신이 뉘 거고.(부엌, 부엌이 제일 음식이 거의 다 나오는 데니까, 어머니는 여기서 음식을 먹고 사시라고. 조왕 귀신이 뉘 거고.)

109001 @1 음.(음.)

109001 #1 남선비는 문전에 야게 돌아정 죽으난, 변소에는 노일저대 귀신이 썻 켜 허여. 그 뒤로 동티 난텐 해낫주게. 경허난 모든 무당덜 빌영 옛날에 곳 헤어나 지 안 헛수과양 허민.(남선비는 문전에 목 매달아 죽으니까, 변소에는 노일저대 귀신이 있다고 해. 그 뒤로 동티난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모든 무당들 빌려서 옛날에 곳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109003 @1 예.(예.)

109003 #1 문제 문여 허여.(문제 먼저 해.)

109003 @1 예.(예.)

109003 #1 문전, 그디도, 문전 다 들이렌. 문제 문여 심방질 허여. 그디도 큰어 명, 조왕 귀신 헌 그디도 강 허고 헌디. 문제 옛날에 우리 어머니네 허영 무당덜 허 여 가지고 데려당 허는 것ㄴ라. 문안제. 아프지 안혀도.(문전, 거기도, 문전 다 들이 라고. 문제 먼저 무당질 해. 거기도 큰어머니, 조왕 귀신 한 거기도 가서 하고 한테. 문제 옛날에 우리 어머니네 해서 무당들 해 가지고 데려다가 하는 것을 ‘문안제’. 아프지 안 해도.)

109003 @1 예.(예.)

109003 #1 가정에 잘살게 허고, 농스도 잘허고, 앞으로 즈식들이나 병들게 말게 허영. 정월 나면은 집집마다 곳을 허여.(가정에 잘살게 하고, 농사도 잘하고, 앞으로 자식들이나 병들게 말게 해서. 정월 나면은 집집마다 곳을 해.)

109003 @1 아, 해낫수과?(아, 했었습니까?)

109003 #1 음. 집집마다 정월 들에. 음력 정월 들. 지금도 헤여. 지금도.(음. 집 집마다 정월 달에. 음력 정월 달. 지금도 해. 지금도.)

109003 @1 심방 빌어당?(무당 빌려다가?)

109003 #1 음. 심방 빌어당 집집마다 허여. 지금도 이 동네 영 보면은 혼 팔십 프로는 정월 들에 그거 허여.(음. 무당 빌려다가 집집마다 해. 지금도 이 동네 이렇게 보면은 한 팔십 프로는 정월에 그거 해.)

109003 @1 아.(아.)

109003 #1 영 허는 거 보면은, 문제 상 벌인 게 쉼 처음 심방이 시작이라. 문전

시작인다.(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문제 상 벌인 게 젤 처음 무당이 시작이야. 문전 시작인데.)

109003 @1 궂 할 때도 그거 먼저 허는구나.(궂 할 때도 그거 먼저 하는구나.)

109003 #1 음. 궂 할 때도. 영 곤는 거 보면은 문전에서 비는 거이, 조상님네를 다 불러들이는 거라. 집더래.(음. 궂 할 때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문전에서 비는 것이, 조상님네를 다 불러들이는 거야. 집으로.)

109003 @1 음.(음.)

109003 #1 조상님들을 위한 모든 음식을 체려시니 왕 잡수십센 그 문전에 허는 거라. 경 허더라고, 심방이.(조상님들을 위한 모든 음식을 차렸으니 와서 잡수십사고 그 문전에 하는 거라. 그렇게 하더라고, 무당이.)

109003 @1 음.(음.)

109003 #1 다, 옷대 조상들 전부 불러들여. 영 허민 그것이 문전 궂이엔 허여. 젤 처음 궂. 내중에는 조상 덕으로 허여 가지고 농스 잘뵈고, 즈식도 아프지 안 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당들이 별말 허고, 조왕에도 강 그런 식으로. 젤 끝에 조왕은. 젤 내중에 가서 빌고 험디다. 저, 이 통시는 빌지 안 허고, 옛날 말로 동티 난텐 헤영만 내려오고.(다, 윗대 조상들 전부 불러들여. 이렇게 하면 그것이 문전 궂이라고 해. 젤 처음 궂. 나중에는 조상 덕으로 해 가지고 농사 잘 되고, 자식도 아프지 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당들이 별말 하고, 조왕에도 가서 그런 식으로. 젤 끝에 조왕은. 젤 나중에 가서 빌고 험디다. 저, 이 화장실은 빌지 았고, 옛날 말로 동티난 다고 해서만 내려오고.)

109003 @1 예.(예.)

109003 #1 몽니 궂인 할망이난.(몽니 궂은 할머니니까.)

109003 @1 (웃음).((웃음).)

109003 #1 그런 문전이 남선비 말미로 문제가 생겨난 거라. 제주도에는, 아들 일곱 성제 간 내어 먹으켄 헨 노일저대 할망 변소에 강 털어정 죽언.(그런 문전이 남선비 말미로 문제가 생겨난 거라. 제주도에는. 아들 일곱 형제 간 내어 먹겠다고 해서 노일저대 할머니 변소에 가서 떨어져 죽었어.)

109003 @1 거난, 우리집 조상들을 다 불러들이는 게 여기 문전제.(그러니까, 우리집 조상들을 다 불러들이는 게 여기 문전제.)

109003 #1 예. 다 불러들이는 게 문체. 문전.(예. 다 불러들이는 게 문제. 문전.)

109003 @1 음.(음.)

109003 #1 거난에, 제스 할 때도 문제부터 먼저 해 낵 우리 본 제스, 질 높은 남선비 귀신이 질 높은 거로 허영. 그 문제부터 먼저.(그러니까, 제사 할 때도 문제부터 먼저 해 낵고 우리 본 제사, 제일 높은 남선비 귀신이 제일 높은 거로 해서. 그 문제부터 먼저.)

109002 @1 성주 내린텐 허지 안험니까?(성주 내린다고 하지 았습니까?)

109002 #1 성주풀이¹⁷²?(성주풀이?)

109002 @1 예.(예.)

109002 #1 그건, 주택.(건, 주택.)

109002 @1 아, 집 짓엉양.(아, 집 짓고요.)

109002 #1 집 짓엉, 집 완료 현 후에.(집 지어서, 집 완료한 후에.)

109002 @1 예.(예.)

109002 #1 옛날부터 강태공 서목시라고, 성주풀이가 목적은 강태공 서목시가 중국 역살 테주마는 성주풀이, 것도 무당 허는 겁주게.(옛날부터 강태공 서목수라고, 성주풀이가 목적은 강태공 서목수가 중국 역살 테지마는 성주풀이, 것도 무당 하는 거지요.)

109002 @1 예.(예.)

109002 #1 거, 집 완료 돼어시니까 앞으로 이 집에서 영구로 잘 행복하게 살게 도와 줘서 허는 게 성주풀인데, 강태공 서목시엔 현 역할이 현 부락에 하나씩, 현 사람씩 있어. 강태공 서목시는 그때 보수도 주고 빌어당(거, 집 완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집에서 영구로 잘 행복하게 살게 도와 주십시오, 하는 게 성주풀인데, 강태공 서목수라고 하는 역할이 한 부락에 하나씩, 한 사람씩 있어. 강태공 서목수는 그때 보수도 주고 빌려다가.)

109002 @1 예.(예.)

109002 #1 그 목시질 허고 자기 도치, 도치 뚜러메영 왕, 이 집집마다 다 이거, 동네 성주풀이 할 때 경 허여.(그 목수질 하고 자기 도끼, 도끼 둘러메고 와서, 이 집집마다 다 이거, 동네 성주풀이 할 때 그렇게 해.)

109002 @1 계난, 심방이 요건, 허면서.(그러니까, 무당이 요건, 하면서.)

109002 #1 성주풀이 허면서 강태공 서목시가 집을 완료 허엿다 해 가지고, 도끼로, 다.(성주풀이 하면서 강태공 서목수가 집을 완료하였다 해 가지고, 도끼로, 다.)

109002 @1 아.(아.)

109002 #1 도치 뚜러메영 왕. 스몫 춤을 추멍, 옛날에 강태공 서목시 헤난, 현 부락에 하나씩 있어. 제주 분이라. 소리 좋고 춤추곡 허는 사름, 그 사름이 이 부락에도, 것도 목시가 헤여. 목시 일도 허고 허는 사름. 그게 성주풀이주.(도끼 둘러메고 와서. 사몫 춤을 추면서, 옛날에 강태공 서목수 했었어, 한 부락에 하나씩 있어. 제주 분이라. 소리 좋고 춤추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부락에도, 그것도 목수가 해. 목수 일도 하고 하는 사람. 그게 성주풀이지.)

109004 @1 조왕에 제 지낼 때. 조왕에 따로 젓상을 마련했수과?(조왕에 제 지낼 때. 조왕에 따로 젓상을 마련했습니까?)

109004 #1 마련허여. 따로. 조왕¹⁷²에.(마련해. 따로. 부엌에.)

109004 @1 아, 따로 올려낫수과?(아, 따로 올렸었습니까?)

109004 #1 따로 올려. 조왕제¹⁷⁴.(따로 올려. 조왕제.)

172) '성주풀이'는 집을 새로 지었을 때 하는 곳이다. 달리 '성주낙성대풀이, 성주대풀이, 성주연맛이'라고도 한다.

173) '조왕'은 부엌을 맡은 여신인데, '조왕할망'이라고도 한다.

109004 @1 음.(음.)

109004 #1 그디 조왕제. 그 디는 차룽 잇지.(거기 조왕제. 거기는 차룽 잇지.)

109004 @1 예.(예.)

109004 #1 차룽 ㄹ튼 거 놓앙, 간단히게 놓앙. 쫄이영 돈도 그디 올리고. 조왕에, 조왕제는 쫄 내중에 허데. 내중에. ㄹ칠 때 조왕에, 조왕제 허영 그날, 그, 심방이 다 끝난 거라.(차룽 같은 거 놓아서, 간단히게 놓아서. 쌀과 돈도 거기 올리고. 조왕에, 조왕제는 쫄 나중에 하데. 나중에. 마칠 때 조왕에, 조왕제 해서 그날, 그, 무당이 다 끝난 거야.)

109004 @1 조왕은 계민 큰할망이고, 원래 할망.(‘조왕’은 그러면 큰할머니이고, 원래 할머니.)

109004 #1 큰할망, 남선비 큰할망. 아들덜 일곱 성제 난.(큰할머니, 남선비 큰할머니. 아들들 일곱 형제 낳은.)

109004 @1 할망.(할머니.)

109004 #1 그 아들 난 할망. 조왕, 음식을 계속, 그디는 배고프지 안허는 디가, 정지난에.(그 아들 난 할머니. 조왕, 음식을 계속, 거기는 배고프지 않는 데가, 부엌이니까.)

109004 @1 (웃음).((웃음).)

109004 #1 먹읍센 그 뜻이주게.(먹으십사 하는 그 뜻이지.)

109005 @1 칠성¹⁷⁵이엔 허여근에. 고팡에도 무시거 올려낫수과?(칠성이라고 해서. 고팡에도 뭐 올렸었습니까?)

109005 #1 올려낫지. 고팡에도.(올렸었지. 고팡에도.)

109005 @1 제 전이 따로 상 올려낫수과? 아니민.(제 전에 따로 상 올려놓았습니까? 아니면.)

109005 #1 그건 허는 집 싯곡, 아니 허는 집 잇어. 칠성¹⁷⁶은, 그 쫄팡에.(그건 하는 집 있고, 아니 하는 집 잇어. 칠성은, 그 고팡에.)

109005 @1 예.(예.)

109005 #1 조왕 허듯이 그래도 올려 놔.(조왕 하듯이 거기에도 올려 놔.)

109005 @1 조왕 허듯이.(조왕 하듯이.)

109005 #1 꼭 ㄹ찌 쫄팡에. 건 뒤, 농스 잘 뒤엔 비는 거주게.(꼭 같이 고팡에. 건 뒤, 농사 잘되라고 비는 거지.)

109005 @1 예.(예.)

109005 #1 고팡은 쌀 창고 아이라게?(고팡은 쌀 창고 아니라?)

109005 @1 창고난, 예. 밧칠성¹⁷⁷이엔 헤근에 저, 우영에.(창고니까, 예. ‘밧칠

174) ‘조왕제’는 원래는 조왕을 모시는 의례로서 ‘조왕굿’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제사 때 따로 쟈상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175) ‘칠성’은 부를 관장하는 신으로 뱀을 말한다. ‘안칠성’과 ‘밧칠성’이 있다.

176) ‘칠성’은 여기서 ‘안칠성’을 말한다.

177) ‘밧칠성’은 칠성신 중 집 뒤에 모시는 신이다. 달리 ‘뒫칠성, 뒫할망, 뒫할마님’이라고도 한다.

성'이라고 해서 저, 텃밭에.)

109005 #1 아, 그 칠성은, 칠성 우에. 그 옛날부터 칠성굿이엔 허영 베염을, 베염.(아, 그 칠성은, 칠성 우에. 그 옛날부터 칠성굿이라고 해서 뱀을, 뱀.)

109005 @1 예.(예.)

109005 #1 베염 일곱 마리를 뜻하는 거라. 베염. 칠성은.(뱀 일곱 마리를 뜻하는 거라. 뱀. 칠성은.)

109005 @1 아.(아.)

109005 #1 겐디, 이 동네 모시는 집이, 두 집이 잇어나신디, 건 문제보단도 문여 그 디 제를 허여.(그런데, 이 동네 모시는 집이, 두 집이 있었는데, 건 문제보다도 먼저 거기 제를 해.)

109005 @1 아.(아.)

109005 #1 제스 때도 문여 그덜. 뒤에 주쟁기렌. 주쟁이라고 잇어. 새로 여꾼 놀 놀영 꼭대기 더끄는 거.(제사 때도 먼저 거길. 뒤에 주저리라고. 주저리라고 잇어. 띠로 엮은 가리 쌓아서 꼭대기 덮는 거.)

109005 @1 예. 놀 꼭대기에 거.(예. 가리 꼭대기에 거.)

109005 #1 비 아이 맞게. 그걸 꼭 놓아. 우리 강 봤주게.(비 아니 맞게. 그걸 꼭 놓아. 우리 가서 봤지.)

109005 @1 예.(예.)

109005 #1 그 소꿉에 베염이 잇다고.(그 속에 뱀이 잇다고.)

109005 @1 음.(음.)

109005 #1 그거 모시는 집은 일 년에 한번씩 그디 칠성굿을, 큰심방 돌아당 막 크게 허여.(그거 모시는 집은 일 년에 한 번씩 거기 '칠성굿'을, 큰무당 데려다가 막 크게 해.)

109005 @1 아.(아.)

109005 #1 칠성굿이라. 옛날 부제침이 종손침이 헛는다. 우스갯말이나 허주마는 건 진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전이 곱아난 부자침 강○○이라고 허는.(칠성굿이라. 옛날 부갓집이, 종손침이 헛는데. 우스갯말이나 하지마는, 건 진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전에 말했던 부갓집 ○○이라고 하는.)

110001 @1 예예.(예예.)

109005 #1 완전 서문밖과 일등 부자로 소문난 디, 그 아들이 옛날에 우리 종손 인디, 오현고를 그 당시엔 수석 졸업 한 사람이라. 최고 머리 좋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종손이라 부니까, 아시도 수석 졸업 허고, 저 이년 후벤디. 서울 대학을 보내고, 이녁은 아시를 공부 시기기 때문에 집안에 종가 일을, 어멍, 하, 몬 늙영 봉가 부니까 막내 혼 칠십, 육십 난 후에 난 아들들이난, 그 집이 칠성굿을, 부제침이난 해 년마다 굿을 허는다.(완전 서문 밖 일등 부자로 소문난 데, 그 아들이 옛날에 우리 종손인데, 오현고를 그 당시엔 수석 졸업 한 사람이라. 최고 머리 좋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종손이라 버리니까, 동생도 수석 졸업 하고, 저 이년 후벤디. 서울 대

학을 보내고, 이 녀석은 동생을 공부시키기 때문에 집안에 종가 일을, 어머니, 하, 다 늙어서 주워 버리니까 막내 한 칠십, 육십 난 후에 난 아들들이니까, 그 집에 칠성 곳을, 부잣집이니까 해 년마다 곳을 하는데.)

109005 @1 음.(음.)

109005 #1 이 사람 아들이 강○○엔 현 사람이, 집이 와 가지고 대학 포기하고 종손 노릇하고 농술 짓겠다 해 가지고, 이것부터 웃이데끼켄 허영, 주쟁이 현 걸 불태워 버리니까.(이 사람 아들이 ○○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와 가지고 대학 포기하고 종손 노릇하고 농살 짓겠다, 해 가지고, 이것부터 없애 버리겠다고 해서, 주저리 한 걸 불태워 버리니까.)

109005 @1 아.(아.)

109005 #1 그 주쟁이 놓은 걸. 불 태우니까 베염이 드러 나오는 거 아니라? 난 아이 들었는디. 그 당시엔 이 놈이 흔 마리씩 심영, 그 더 큰 감냥이 지금도 있어. (그 주저리 놓은 걸. 불태우니까 뺨이 드러 나오는 거 아니라? 난 아니 들었는데. 그 당시엔 이놈이 한 마리씩 잡아서, 거기 큰 감나무가 지금도 있어.)

109005 @1 예.(예.)

109005 #1 다 돌아매어. 다 나오는 양. 베염을. 겐 다 죽었텐. 지금도 살아 잇주게. 강씨. 겐디 이 사람 머리가 천재라 노니까 대화도 안 돼고, 우리하고 일절 올레 베꼈디도 안 가고.(다 달아매어. 다 나오는 대로. 뺨을. 그래서 다 죽었다고. 지금도 살아 있지. 강씨. 그런데 이 사람 머리가 천재라 놓으니까 대화도 안 되고, 우리하고 일절 올레 밖에도 안 가고.)

109005 @1 아.(아.)

109005 #1 서울에 강 종교 책만 백만 원어치 사당 책만 지금도 익는덴 해. 종교에 대한 책하고, 모든 신문 다 받아 보고. 읍집이 사람 죽어도 모른 사람이라. 동네 사람이고 뭐이고 이 사람하고 말도 못 곶아. 워낙 실력이 뛰어나고 고집이 이 녀 말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나 말만, 나 말이 옳다. 정치도 이 녀 말 현 게 옳다. 겐 신문은 다 봐 노니까 정치를 다 알주게. 올리고 묘제라고 현 게 이수다. 묘제.(서울에 가서 종교 책만 백만 원어치 사다가 책만 지금도 읽는다고 해. 종교에 대한 책하고, 모든 신문 다 받아 보고. 옆집의 사람 죽어도 모른 사람이라. 동네 사람이고 뭐이고 이 사람하고 말도 못 해. 워낙 실력이 뛰어나고 고집이 이 녀 말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나 말만, 나 말이 옳다. 정치도 이 녀 말 한 게 옳다. 그래 신문은 다 봐 놓으니까 정치를 다 알지. 올해도 묘제라고 한 게 있습니다. 묘제.)

109005 @1 예.(예.)

109005 #1 옛날 삼일 허단에 올해 그 집에서 허주게, 동네 권당들이 강, 나도 강 영 허는디, 이 사람 허고는 대화가 안 돼여. 우리 ㄱ튼 사람은, 옛날 오고 수석 해난 사람하고 어떻 대화를 허여. 신문 메날 보고, 책만, 종교에 대한 책만, 불교에 대한 관심을 뒤 가지고.(옛날 삼일 하다가 올해 그 집에서 지, 동네 권당들이 가서, 나도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하고는 대화가 안 되어. 우리 같은 사람은, 옛날

오고 수석 했던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 신문 매일 보고, 책만, 종교에 대한 책만, 불교에 대한 관심을 뒤 가지고.)

109005 @1 예.(예.)

109005 #1 그런 공부만 허는 사람. 그때, 그, 칠성, 이제는 칠성 허는 집이 없어. 옛날이주. 배엄 모신 거.(그런 공부만 하는 사람. 그때, 그, 칠성, 이제는 칠성 하는 집이 없어. 옛날이지. 뱀 모신 거.)

109005 @1 그디 말앙 또 혼 집 여기.(거기 말고 또 한 집 여기.)

109005 #1 여기. 잊어났어. 우리도 주쟁이 이신 거 봐났어. 겐디 집 팔아동 나가 불언.(여기. 있었어. 우리도 주저리 있는 거 봤었어. 그런데 집 팔아 두고 나가 버렸어.)

109005 @1 아, 지금은 계난 주쟁이.(아, 지금은 그러니까 주저리.)

109005 #1 그 집 아이 살아. 다 죽어 불언.(그 집 아니 살아. 다 죽어 버렸어.)

8. 세시풍속

정월

110001 @1 지난번이 그 초가집 짓어난 얘기 해수다마는.(지난번에 그 초가집 지었던 얘기 했습니다마는.)

110001 #1 음.(음.)

110001 @1 매달마다 이, 그때가 되면 헤난 일들 양. 명절이나.(매달마다 이, 그때가 되면 했었던 일들요. 명절이나.)

110001 @2 절기마다.(절기마다.)

110001 @1 아, 예. 정월부터 들어보쿠다. 정월 멧질 지금도 허지 안햐수과양?(아, 예. 정월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정월 명절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110001 #1 예게. 정월 멧질이 쥬 큰 멧질, 옛날엔 스 멧질이엔 헤났다. 한식, 단오, 팔월, 추석, 정월 멧질, 정월 멧질이 쥬 큰 멧질인디게. 이제는 추석허고 정월 멧질은 다 험니께겐. 단오허고 한식은 다 폐지헤 불고.(예. 정월 명절이 제일 큰 명절, 옛날엔 사 명절이라고 했었다. 한식, 단오, 팔월, 추석, 정월 명절, 정월 명절이 쥬 큰 명절인데. 이제는 추석하고 정월 명절은 다 하지요. 단오하고 한식은 다 폐지해 버리고.)

110001 @1 안 허고.(안 하고.)

110001 #1 스 멧질 헤낫주.(사 명절 했었지.)

110001 @1 정월 멧질 이 집이서도 햐수과?(정월 명절 이 집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110001 #1 아, 우리 허단에, 우리 아들네가 시에 살암수다게.(아, 우리 하다가, 우리 아들네가 시에 살고 있습니다.)

110001 @1 예.(예.)

110001 #1 허난, 큰아덜이 혼 십년 전에 다 멩질허고 제사허고 다 말앙, 시에서 험수다. 시에.(하다가, 큰아들이 한 십년 전에 다 멩질하고 제사하고 다 말아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

110001 @1 게민. 멩질 웨민 시에 감수과?(그러면, 멩절 되면 시에 가고 있습니까?)

110001 #1 예게. 아들네 집. 큰아들네 집.(예. 아들네 집. 큰아들네 집.)

110001 @1 요즘 다 현대식으로 험구나양. 옛날엔 어떻 헤낫수과, 여기서 멩질 할 땐.(요즘 다 현대식으로 하고 있군요. 옛날엔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기서 멩질 할 땐.)

110001 #1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권당덜 혼 팔촌까지 집집마다.(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권당들 한 팔촌까지 집집마다.)

110001 @1 예.(예.)

110001 #1 돌아댕기멍 다 멩질 헤낫주게. 거난, 으덥 집이민, 으덥 집을 다녀야 웨어. 그날 문딱.(돌아다니면서 다 멩질 했었지. 그러니까, 여덥 집이면, 여덥 집을 다녀야 되어. 그날 모두.)

110001 @1 아.(아.)

110001 #1 팔촌, 육촌덜 어린 아이덜 들앙 이 집이 가곡, 또 저 집이 가고, 제일 나중에 종손집이 왕 헤 가면은 밤 들엉 옛날엔 불 쌍도 멩질 허곡, 겐디 종손집은, 아이, 그것 춤 그때는 피곤할 때, 영 허는 거 보면은. 그 고조7장 종손이 다 멩질 험주게. 옛날에는 보통으로 할망이 둘이라.(팔촌, 육촌들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 집에 가고, 또 저 집에 가고, 제일 나중에 종손집에 와서 헤 가면은 밤 들어서 옛날엔 불 켜서도 멩절 하고, 그런데 종손집은, 아이, 그것 참 그때는 피곤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 고조까지 종손이 다 멩절 하지요. 옛날에는 보통으로 할머니가 둘이라.)

110001 @1 (웃음).((웃음).)

110001 #1 게민, 혼 배 허젠 허민, 고조 허젠 허민 세 배를 츠려야 웨. 증조도 그렇게 허고, 그냥 할아버지 봉메. 게민 혼 번 넘겨 똥 또 영 헤 가면은 아주 피곤 허주게. 종손집은, 딴 그냥 집은 그자 혼 번에 다 넘기는데 종손집만은 전부 그걸 맡으는 거라. 고조7장, 지금은 성제 지간에도 갈라 불데, 멩질 칩이 스촌 간에도 다 갈랑. 이 동네 문칩이 켈 하나신디, 이 동네 문씨가 켈 많앗주게. 거기도 스촌 간에도 다 갈라서. 멩질을. 게난, 이녁만이 딱로. 자기 가지, 부모만.(그러면, 한 배 하려고 하면, 고조 하려고 하면 세 배를 차려야 돼. 증조도 그렇게 하고, 그냥 할아버지 봉메. 그러면 한 번 넘겨 두고 또 이렇게 헤 가면은 아주 피곤하지. 종손집은, 딴 그냥 집은 그저 한 번에 다 넘기는데 종손집만은 전부 그걸 맡으는 거라. 고조까지, 지금은 형제지간에도 나눠 버리데, 멩절 집이 사촌 간에도 다 나눠서. 이 동네 문씨 덕이 켈 많앗었는데, 이 동네 문씨가 켈 많앗지. 거기도 사촌 간에도 다 나

웠어. 명절을. 그러니까, 이 녀만이 따로. 자기 가지, 부모만.)

110001 @1 스촌까진 험고, 육촌.(사촌까진 하고 있고, 육촌.)

110001 #1 아니. 스촌도 갈란. 이디 문칩이, 다 갈란. 우리 옛날에는 팔촌7장 허당, 육촌7장 허당 이제는, 육촌7장만 험서. 우린 가문이 하지 안 허난, 우리 큰 집이. 큰아버지네. 나에 큰아버지네가 시에서 조케가 허고. 그디 집허고, 우리 집허고, 큰아버지네 집허고 우리 집이, 두 집만.(아니. 사촌도 나웠어. 여기 문씨 덕이, 다 나웠어. 우리 옛날에는 팔촌까지 하다가, 육촌까지 하다가 이제는, 육촌까지만 하고 있어. 우린 가문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큰집에. 큰아버지네. 나에 큰아버지네가 시에서 조카가 하고. 거기 집하고, 우리 집하고, 큰아버지네 집하고 우리 집에, 두 집만.)

110001 @1 죽은 가지부터 시작하여근에 큰 가지더레 가는 거파?(작은 가지부터 시작해서 큰 가지로 가는 겁니까?)

110001 #1 옛날에는 죽은 가지부터 헛주마는, 이젠 시에 가난 편허기 좋게 저디 사라봉에 사난, 신제주 살면은 그디 해 똥, 신제주 우리 아들네 집이 왕 허면은.(옛날에는 작은 가지부터 헛지마는, 이젠 시에 가니까 편하기 좋게 저기 사라봉에 사니까, 신제주 살면은 거기 해 두고, 신제주 우리 아들네 집에 와서 하면은.)

110001 @1 아.(아.)

110001 #1 정월 멧질 때는 웨손덜토 과세허레 다 오지 안험니까게?(정월 멧질 때는 외손들도 과세하러 다 오지 않습니까?)

110001 @1 맞수다.(맞습니다.)

110001 #1 우리 집이 오민 전부 모입주. 웨손덜.(우리 집에 오면 전부 모이지요. 외손들.)

110001 @1 이디마썸? 아니민 저디.(여기요? 아니면 저기.)

110001 #1 시에. 큰아들네 집들. 웨손덜 과세허레. 세배허레. 또시 제사 때도 오고 웨손덜. 웨가침에서덜 다 오고.(시에. 큰아들네 집들. 외손들 과세하러. 세배하러. 또 제사 때도 오고 외손들. 외갓집에서들 다 오고.)

110001 @1 멧질 허젠 허민 돛추렴도 허고, 경 해낫수과?(멧질 하려고 하면 ‘돛추렴’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까?)

110001 #1 아이고, 허고말고. 건 의무적이라. 돛추렴¹⁷⁸⁾은.(아이고, 하고말고. 건 의무적이라. ‘돛추렴’은.)

110001 @1 아.(아.)

110001 #1 혼 서너, 다섯 사람이, 옛날엔 혼 댓 사람이. 이제는 니 사람이 혼 마리 헤영, 니 개 갈랑 돛추렴 다 허여.(한 서너, 다섯 사람이, 옛날엔 한 댓 사람이. 이제는 네 사람이 한 마리 해서, 네 개 나눠서 ‘돛추렴’ 다 해.)

110001 @1 아.(아.)

110001 #1 팔월 추석허고 정월 멧질. 지금도 허여 돛추렴.(팔월 추석하고 정월

178) ‘돛추렴’은 각기 돈을 얼마씩 내어 돼지를 잡아먹는 일이다.

명절. 지금도 해 ‘돛추럼’.)

110001 @1 아, 지금도 험니까?(아, 지금도 험니까?)

110001 #1 예. 지금은. 옛날에는 그 돈사에서 산 채 사단에 돌아뎡 그스렁 잡았 거든.(예. 지금은. 옛날에는 그 돈사에서 산 채 사다가 달아매어서 그을려서 잡았 거든.)

110001 @1 예.(예.)

110001 #1 지금은 공판장에서 완전히 갈라줘. 딱 허게.(지금은 공판장에서 완전히 나눠 줘. 딱 하게.)

110001 @1 아.(아.)

110001 #1 그거 사당. 너이가 혼 마리 허민, 갈랑 왕 가당 술 혼 잔 먹고.(그거 사다가. 너이가 한 마리 하면, 갈라서 와서, 가다가 술 한 잔 먹고.)

110001 @1 음.(음.)

110001 #1 혼 빼 숲양 먹고 허여. 거난 그디서 다 갈랑 오는 거라. 반착 허민은 꼭 니 사람이 갈르기 좋주게.(한 빼 삶아서 먹고 해. 그러니까 거기서 다 나눠 오는 거라. 반쪽 하면은 꼭 네 사람이 나누기 좋지.)

110001 @1 예.(예.)

110001 #1 지금은 공판장에서 다 사당 허여.(지금은 공판장에서 다 사다가 해.)

110001 @1 다 해 주는구나양. 돛추럼도 헤영 갈르고. 멍질 전이 무시거들 준비 들 허젠 허민, 돛 추럼 말아도 무시거 헐 거 잊지 안허파?(다 해 주는군요. ‘돛추럼’도 해서 나누고. 명절 전에 뭐들 준비들 하려고 하면, ‘돛추럼’ 말고도 뭐 할 거 있지 않습니까?)

110001 #1 이녁 가정에게 하간 떡도 허고, 제물도 허고, 집집마다.(이녁 가정에 여러 가지 떡도 하고, 제물도 하고, 집집마다.)

110001 @1 그건 전날 허는 거 아니파예? 아시날 미리 곶아당 놔두고.(그건 전날 하는 거 아닙니까? 전날 미리 갈아다 놔두고.)

110001 #1 떡도 허고, 아시날 다 준비헛당 뒷날 제사 허는 거주게. 멍질 허는 거주. 옛날에는 남자들은 돛추럼 허영 아시날, 또 아시날.(떡도 하고, 전날 다 준비했다가 뒷날 제사 하는 거지. 명절 하는 거지. 옛날에는 남자들은 ‘돛추럼’ 해서 전 전날.)

110001 @1 아, 아시날.(아, 전날.)

110001 #1 예. 그때 헤영 그자 놓고, 먹고, 지금도 경 헤여.(예. 그때 해서 그자 놓고, 먹고, 지금도 그렇게 해.)

110001 @1 아.(아.)

110001 #1 지금, 이디는.(지금, 여기는.)

110001 @1 전날은 여자 어른들만 모영 떡 허고.(전날은 여자 어른들만 모여서 떡 하고.)

110001 #1 떡 허고.(떡 하고.)

110001 @1 떡은, 무신 떡들 해놔수과? 멧질에.(떡은, 무슨 떡들 했었습니까? 멧질에.)

110001 #1 어이,○○이 어멍. 이레 왕 떡 해난 말 곶아 줘. 멧질에.(어이, ○○이 어머니. 이리 와서 떡 했던 말 해 줘. 멧질에.)

110001 #2 멧질에 문여 곶아신디 무시거 또 곶을 것이 이수과?(멧질에 먼저 말 했는데 뭐 또 말할 것이 있습니까?)

110001 #1 또 왕 곶아 봐.(또 와서 말해 봐.)

110001 @1 멧질 허젠 허민 전날 떡 허지 안헛수과양?(멧질 하려고 하면 전날 떡 하지 않았습니까?)

110001 #2 전날 허여사 넬 멧질 헐 거 아니파?(전날 허여야 넬 멧질 할 거 아닙니까?)

110001 @1 예.(예.)

110001 #2 멧질 떡을 오늘 헤사 넬 멧질을 헐 거난에 아시날 멧질 떡은 험니다 게.(멧질 떡을 오늘 헤야 넬 멧질을 할 거니까, 전날 멧질 떡은 험니다.)

110001 @1 시리떡도 헛수과?(시루떡도 했습니까?)

110001 #2 아이고, 시리떡 허고말고. 옛날엔 시리떡이 대중으로 헤수다게.(아이고, 시루떡 하고말고. 옛날엔 시루떡이 대중으로 했습니다.)

110001 @1 그다음은 지난번이 본 헐 거 그것들양?(그다음은 지난번에 본 한 거 그것들요?)

110001 #2 예. 그자, 절벤, 솔벤.(예. 그저, 절편, ‘솔변’.)

110001 @1 절변, 솔변.(절편, ‘솔변’.)

110001 #2 인절미.(인절미.)

110001 @1 인절미.(인절미.)

110001 #2 예.(예.)

110001 @1 그디 무시거 올릴 거 그것만이파? 무시거 또 갱거리.(거기 뭐 올릴 거 그것만입니까? 뭐 또 국거리.)

110001 #1 적갈도게. 과일도, 갱거리.(적도. 과일도, 국거리.)

110001 #2 갱거리사 막 올리민, 국은 올리는 거난 갱거리 허고.(국거리야 막 올리면, 국은 올리는 거니까 국거리 하고.)

110001 @1 갱거리 무시걸로 헛수과?(국거리 무엇으로 했습니까?)

110001 #2 바다 퀘기로 험주게.(바닷고기로 하지요.)

110001 @1 바다 퀘기 사당 놔두고.(바닷고기 사다가 놔두고.)

110001 #2 예. 게난 무시건가 침떡 허영 올리민, 절벤, 솔벤, 인절미, 그런 거 허여근에 올리곡, 또 그 다음엔게 돼지적같이여, 소고기적같이여, 둠비적같이여, 다 그런 거 험니까.(예. 그러니까 뭔가 침떡 해서 올리면, 절편, ‘솔변’, 인절미, 그런 거 해서 올리고, 또 그 다음엔 돼지적이다, 소고기적이다, 두부적이다, 다 그런 거 합니다.)

110001 @1 둬비 적도 헛구나.(두부 적도 헛구나.)

110001 #2 예. 둬비 적도 허고, 고사리 탕쉬 콩나물 다 그거 헛니께게.(예. 두부 적도 하고, 고사리 ‘탕쉬’, 콩나물, 다 그거 합니다.)

110001 @1 고사리 탕쉬, 콩나물. 고사리 탕쉬, 콩나물 말아 또 무시거 놔수과?
(고사리 탕쉬, 콩나물. 고사리 탕쉬, 콩나물 말고 또 뭐 놓았습니까?)

110001 #1 잡채도 허고.(잡채도 하고.)

110001 #2 아이, 이제는 문 잡채도 헤영 먹고.(아이, 이제는 모두 잡채도 해서 먹고.)

110001 #1 고사리는 필수.(고사리는 필수.)

110001 @1 필수.(필수.)

110001 #1 거는 어떤 제스에도, 제스엔 허면은 고사리 탕쉬.(거는 어떤 제사에도, 제사엔 하면은 고사리 탕쉬.)

110001 @1 음.(음.)

110001 #1 고사리는 옛날부터 고사리 서자라. 서수예천 협사상향 허는데. 옛날 그 풀이허면은 서수예천이엔 헌 게, 고사리 탕쉬여 다 헤영 올림시메 먹어줍서. 음향협서 허는 거. 서수예천 상사상향 허는 게 잊주게 모든 게.(고사리는 옛날부터 고사리 서자라. 서수예천 협사상향 하는데. 옛날 그 풀이하면은 서수예천이라고 하는 게, 고사리 탕쉬와 다 해서 올리니 먹어 주십시오. 흠향하십시오 하는 거. 서수예천 상사상향 하는 게 있지. 모든 게.)

110001 @1 음.(음.)

110001 #1 거 고사리 서자엔. 서수예천이 고사리 올리는 뜻이엔 곱아.(거 고사리 서자라고. 서수예천이 고사리 올리는 뜻이라고 말해.)

110001 @1 양옛근¹⁷⁹도 올려놔수과?(‘양옛근’도 올렸었습니까?)

110001 #2 고사리는 쉼도 아이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난 그런 제스엔 쓰는 거.
(고사리는 소도 아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그런 제사엔 쓰는 거.)

110001 @1 게메양. 양옛근도 올려놔수과?(글쎄요. 양옛근도 올렸었습니까?)

110001 #1 아이고, 올리고말고. 건 최고 좋은 거주. 양옛근이 완전, 양에간. 건 팔월 멧질에만.(아이고, 올리고말고. 건 최고 좋은 거지. ‘양옛근’이 완전, ‘양에간’. 건 팔월 멧질에만.)

110001 @1 팔월 멧질에만 그때 나는 거난.(팔월 멧질에만 그때 나는 거니까.)

110001 #1 예. 그때만 나는 거.(예. 그때만 나는 거.)

110001 @1 호박은마썸.(호박은요.)

110001 #2 호박도 허긴 헛니다마는 전추룩 먹지 안허여.(호박도 하긴 헛니다마는 전처럼 먹지 않아.)

110001 #1 집집마다 호박은 경 아니 올리고.(집집마다 호박은 그렇게 아니 올리

179) ‘양옛근’은 양하의 땅속줄기에서 솟아나는, 죽순 비슷한 꽃 이삭이다. 달리 ‘양옛간’, ‘양에간’이라고도 한다.

고.)

110001 #2 그자 고사리 탕쉬 현 거.(그저 고사리 탕쉬 한 거.)

110001 #1 고사리, 콩누멸, 잡채.(고사리, 콩나물, 잡채.)

110001 #2 이제나 잡채 했주. 옛날은 잡채도 허지 안해서.(이제나 잡채 했지. 옛날은 잡채도 하지 않았어.)

110001 @1 잡채 대신에 무시거 다른 거. 옛날에 올려난 게 팔월 멥질엔 양엿간.(잡채 대신에 뭐 다른 거. 옛날에 올려난 게 팔월 멥질엔 양엿간.)

110001 #2 예. 그자 콩누물 탕쉬 그것만 그자 해낫수다게.(예. 그저 콩나물 탕쉬 그것만 그저 했었습니다.)

110001 @1 둬비 적 말아, 목 따로 안 했수과?(두부 적 말고, 목 따로 안 했습니까?)

110001 #2 목은 그거게, 메밀 신 때는 목 허고.(목은 그거, 메밀 있을 때는 목 하고.)

110001 @1 아, 메밀목으로 허고.(아, 메밀목으로 하고.)

110001 #1 예. 팔월에는, 겨울에는 메밀목으로 허고, 팔월 멥질광 으름 식게 ㄱ튼 거는 그냥 이제 둬비로 험니겐게.(예. 팔월에는, 겨울에는 메밀목으로 하고, 팔월 멥질과 으름 제사 같은 거는 그냥 이제 두부로 합니다.)

110001 @1 둬비로만.(두부로만.)

110001 #2 두부 나난, 이젠 두부로만 험니다게.(두부 나니까, 이젠 두부로만 합니다.)

110001 @1 요새도 큰 옷, 멥질에 큰 옷 입엄수과?(요새도 도포, 멥질에 도포 입고 있습니까?)

110001 #1 도포?(도포?)

110001 @1 예.(예.)

110001 #1 아니.(아니.)

110001 @1 안 허고양.(안 하고요.)

110001 #2 도포 입는 사람은 입어도.(도포 입는 사람은 입어도.)

110001 #1 종가침이나 싯주. 우리집은 육 대가 족은아들이라 부난.(종갓집이나 있지. 우리 집은 육 대가 작은아들이라 버리니까.)

110001 @1 아.(아.)

110001 #1 아주 아무것도 엇어났주. 우리 아버지까장. 나가 큰아들이주.(아주 아무것도 없었지. 우리 아버지까지. 내가 큰아들이지.)

110001 @1 예.(예.)

110001 #1 육대가 족은아들, 할아버지 족은아들 증조 족은아들 고조, 육 대, 칠대가 족은아들이라. 나가 육 대 칠 대째 큰아들.(육대가 작은아들, 할아버지 작은아들 증조 작은아들 고조, 육 대, 칠대가 작은아들이야. 내가 육 대, 칠 대째 큰아들.)

110001 @1 예.(예.)

110001 #1 종갓집은 다 있어. 종갓집 아까 곶은 강○○네 집은.(종갓집은 다 있어. 종갓집 아까 말한 강○○네 집은.)

110001 #2 강○○네 집은 옛날이나 경 해낫주.(강○○네 집은 옛날이나 그렇게 했었지.)

110001 #1 이제는 그건 일절 아니 허여.(이제는 그건 일절 아니 해.)

110001 #2 이제 마을에 포제나 허젠 허민, 그런 도포 입곡, 무슨 관 닭은 거 쓰곡, 그런 거 허지. 이젠 그런 거 아니 합니다. 식게 멩질 헐 때는.(이제 마을에 포제나 하려고 하면, 그런 도포 입고, 무슨 관 닭은 거 쓰고, 그런 거 하지. 이젠 그런 거 아니 합니다. 제사 멩질 할 때는.)

110001 #1 포제 헐 때는 마을에 도포, 이제 다 보관 행 싯주게.(포제 할 때는 마을에 도포, 이제 다 보관해 있지.)

110001 @1 게민, 옛날에 멩질 돌아가명 으답 밧디 다 허민, 강 멩질 끝냥 세배는 헛지양? 아니면 세배.(그러면, 옛날에 멩질 돌아가면서 여덱 군데 다 하면, 가서 멩질 끝나서 세배는 헛지요? 아니면 세배.)

110001 #2 옛날엔 세배는 뒷날사 해낫주게.(옛날엔 세배는 뒷날에야 했었지.)

110001 @1 뒷날에야 했습니까?

110001 #2 예.(예.)

110001 @1 아니. 아니. 그 집이.(아니. 아니. 그 집에.)

110001 #1 그 집이는 그날게.(그 집에는 그날.)

110001 @1 그날양. 멩질 헐 집이는.(그날요. 멩질 한 집에는.)

110001 #1 허기 전이. 처음 세배 해 낱 멩질 헤여.(하기 전에. 처음 세배 해 놓고 멩질 해.)

110001 @1 아, 세배 해 낱 멩질.(아, 세배 해 놓고 멩질.)

110001 #1 문여 세배 해 낱 멩질 허주.(먼저 세배 해 놓고 멩질 하지.)

110001 @1 으답 밧디 세배 다 끝난 거고, 멩질 헤시난양. 멩질 먹으레 가시난 끝난 거고, 게민 나머진 뒷날 세배 다녔구나양? 어디?(여덱 군데 세배 다 끝난 거고, 멩질 했으니까요. 멩질 지내러 갔으니까 끝난 거고, 그러면 나머진 뒷날 세배 다녔군요? 어디?)

110001 #1 동네 세배.(동네 세배.)

110001 @1 동네 어른들 안티양.(동네 어른들한테요.)

110001 #1 옛날에는 아이구 춤 시국도. 이제는 일포나 헤염주마는, 소상, 대상 다 해낫주게. 상 놓양 메날 저 삼시에 밥 올리곡 허난, 동네 사름이 이디 상시집을 다 알아. 메날 헤가면은 다 알 거 아니라? 게민 동네 사름은 우선 상에 강 다 절허여. 건디 그 상주는 지켜야 돼여. 상에 오는 사름. 절허레 오면. 소상 허듯이 지켜민 술도 대접허고 동네 사름이 다 와. 그디 지각허여. 그 상 심는 집은. 소상 대상까지 헤 노난에.(옛날에는 아이구 참, 시국도. 이제는 일포나 하고 있지마는, 소상, 대상

다 했었지. 상 놓고 매일 저, 삼시에 밥 올리고 하니까, 동네 사람이 여기 상시 집을 다 알아. 매일 해 가면은 다 알 거 아니라? 그러면 동네 사람은 우선 상에 가서 다 절해. 그런데 그 상주는 지켜야 되어. 상에 오는 사람. 절하러 오면. 소상 하듯이 지키면 술도 대접하고 동네 사람이 다 와. 거기 가득해. 그 상 차린 집은. 소상, 대상까지 해 놓으니까.)

110001 @1 케민 뒷날은 상 싱근 디 그자 세배 탕기당 보민.(그러면 뒷날은 젓상 차린 데 그저 세배 다니다 보면.)

110001 #1 어디 나이 많은 사름 집이.(어디 나이 많은 사람 집에.)

110001 @1 예.(예.)

110001 #1 그 디도 다 남이 집. 친척집은 멩절날 다 알앙 허주마는 친척 아닌 사름, 동네 나이 많은 사름.(거기도 다 남의 집. 친척집은 멩절날 다 알아서 하지마는 친척 아닌 사람, 동네 나이 많은 사람.)

110001 @1 예.(예.)

110001 #1 다 세배 허레 거주.(다 세배 하러 가지.)

110001 @1 경 허영, 세배 다 허영 동네 사름들 모아근에 무시거 허지는 안헤낫 수과?(그렇게 해서, 세배 다 해서 동네 사름들 모여서 뭐 하지는 않았습니까?)

110001 #1 이제는, 옛날에는 그자 개인으로다. 이제는 이 동네는 양력으로. 일월 일일 날 행사 해 가지고, 청년들이영 동네 사람 다 모여 서로 절허고 허영, 그날 다 끝나 부난. 양력으로.(이제는, 옛날에는 그저 개인으로 다. 이제는 이 동네는 양력으로. 일월 일일 날 행사 해 가지고, 청년들과 동네 사람 다 모여서 서로 절하고 해서, 그날 다 끝나 버리니까. 양력으로.)

110001 @1 양력으로.(양력으로.)

110001 #1 구정 때는 이녀 집만덜 허고.(구정 때는 이녀 집만들 하고.)

110002 @1 정월대보름날은 어떻 헤낫수과? 옛날에.(정월대보름날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옛날에.)

110002 #1 정월 대보름날은. 정월 대보름날은 뭐 현 거 엇고, 동네 청년덜, 젊은 아이들, 그날은 놉안티 욱 들어야 재수 좋넨 허멍.(정월대보름날은. 정월대보름날은 뭐 한 거 없고, 동네 청년들, 젊은 아이들, 그날은 남한테 욱 들어야 재수 좋다고 하면서.)

110002 @1 아.(아.)

110002 #1 그런 풍습이 잇엇어. 대보름날은 놉안티 욱을 들어야.(그런 풍습이 잇엇어. 대보름날은 남한테 욱을 들어야.)

110002 @1 예.(예.)

110002 #1 그날 제 운이 좋넨 허멍 헤 가지고.(그날 제 운이 좋다고 하면서 헤 가지고.)

110002 @1 아.(아.)

110002 #1 그때 집집마다 이런 정낭이엔 현 거 셔낫주게.(그때 집집마다 이런

정낭이라고 하는 거 있었지.)

110002 @1 예.(예.)

110002 #1 그거 문밖 ㄴ저당 못더레 다 데껴 붙어.(그거 모두 가져다가 연못에 다 던져 버려.)

110002 @1 (웃음).((웃음).)

110002 #1 그 주인신디 욱 듣젠.(그 주인한테 욱 들으려고.)

110002 @1 아.(아.)

110002 #1 그런 풍습이 밖엔 없어. 그날 저녁은 청년덜이, 청년은 아니고 혼 이십 세 미만 아이덜.(그런 풍습밖엔 없어. 그날 저녁은 청년들이, 청년은 아니고 한 이십 세 미만 아이들.)

110002 @1 예.(예.)

110002 #1 파쪽, 나왕 모다 데니멍 정낭을 문밖 물리레 곳다 데껴 붙어. 케민 집 주인은 막 욱할 거 아니꽈? 거 ㄴ지레 가멍 욱먹어야 재수 좋넨 허멍.(파쪽, 나와서 모여 다니면서 정낭을 모두 물에 가져다가 던져 버려. 그러면 집 주인은 막 욱할 거 아닙니까? 거 가지러 가면서, 욱먹어야 재수 좋다고 하면서.)

110002 @1 그런 풍습이 있어났수과?(그런 풍습이 있었습니까?)

110002 #1 거 대보름날은 의무적으로 경 허데. 우리 커 올 때 보민.(거 대보름날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데. 우리 커 올 때 보면.)

110002 @1 아이고, 삼춘 저레 가 부난에, 정월 멩질이나 대보름, 요때에 당에 가거나 허지 안헛수과?(아이고, 삼춘 저리 가 버리니까, 정월 멩질이나 대보름, 요때에 당에 가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110002 #1 당에는 대보름날이 아니고, 음력 정월 들엉.(당에는 대보름날이 아니고, 음력 정월 들어서.)

110002 @1 예.(예.)

110002 #1 정일에.(정일에.)

110002 @1 어느 날.(어느 날.)

110002 #1 음. 어느 날짜. 갑 을 병 정 허는.(음. 어느 날짜. 갑 을 병 정 하는.)

110002 @1 예.(예.)

110002 #1 정일에 못 허면은 그, 좋은 날이엔 허영, 토끼날 허고.(정일에 못 허면은 그, 좋은 날이라고 해서, 토끼날 하고.)

110002 @1 예.(예.)

110002 #1 개날, 좋은 날이엔 허여. 술일, 묘일 영 허영, 그자 택허영 당에, 다 음식들 준비헿 그디 강.(개날, 좋은 날이라고 해. 술일, 묘일 이렇게 해서, 그저 택해서 당에, 다 음식들 준비해서 거기 가서.)

110002 @1 준비 헤영양.(준비해서요.)

110002 #1 다 케우려 동 와낫주게. 밤이 혼 새로 세시쫼 돼민. 아침 세시쫼 돼민.(다 고수레하여 두고 왔었지. 밤에 한 새로 세시쫼 되면. 아침 세시쫼 되면.)

110002 @1 아, 새벽 세 시에 그처럼 당에 강.(아, 새벽 세 시에 그렇게 당에 가서.)

110002 #1 음. 그 시간에 당에 강 케우리고.(음. 그 시간에 당에 가서 고수레하고.)

110002 @1 여기 당은 어디 있어났수과?(여기 당은 어디 있었습니까?)

110002 #1 이 동네 우리 집이 탕겨난 디는 어음 이리에. 어음 이리가 있어. 저디. 그디 큰, 옛날부터 이 주위 사름은 거 당 폭낭이라고 해 가지고.(이 동네 우리 집이 다녔던 데는 어음 이리에. 어음 이리가 있어. 저기. 거기 큰, 옛날부터 이 주위 사름은 거 당 팽나무라고 해 가지고.)

110002 @1 예.(예.)

110002 #1 거, 태풍 때가 육백년 쉰 폭낭이엔 현 건디 오꼴 췌져났주게. 막 오래 부난.(거, 태풍 때가, 육백 년 된 팽나무라고 하는 건데 그만 구멍 났었지. 막 오래 버리니까.)

110002 @1 음.(음.)

110002 #1 꺼꺼전 죽어 불언. 죽어 불어도, 지금도 그 당에 가는 사름은 가.(꺼어져서 죽어 버렸어. 죽어 버려도, 지금도 그 당에 가는 사름은 가.)

110002 @1 아.(아.)

110002 #1 지금도 그, 제 해난 디.(지금도 그, 제 했던 데.)

110002 @1 게난, 여자 삼촌도, 이제도 갑니까?(그러니까, 여자 삼촌도, 이제도 갑니까?)

110002 #1 아니. 아이 가. 이젠, 흔 십년, 오년 전까장은 데니단, 매년마다. 게난 세 시 뉘민, 가젠 허민 경운기로나 시경 강.(아니. 아니 가. 이젠, 한 십년, 오년 전까지는 다니다가, 매해마다. 그러니까 세 시 되면, 가려고 하면 경운기로나 싣고 가서.)

110002 @1 (웃음).(웃음.)

110002 #1 그 디 싣당은에 와났주게.(거기 있다가 왔었지.)

110002 @1 게메. 그냥 가젠 허민 므스왕, 그 새벽에 가젠 허민.(글쎄. 그냥 가려고 하면 무서워서, 그 새벽에 가려고 하면.)

110002 #1 ㄴ짜 가난.(같이 갔었어.)

110004 @1 마을에 포제 지금도 험수과?(마을에 포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110004 #1 허여. 아이고, 멍심허여 그거는.(해. 아이고, 명심해 그거는.)

110004 @1 어디서 험니까? 포제는.(어디서 합니까? 포제는.)

110004 #1 포제단이 잇주게.(포제단이 있지.)

110004 @1 포제단이 이수과?(포제단이 있습니까?)

110004 #1 포제단. 집도 잇곡 포제¹⁸⁰⁾ 제단도 잇고. 집도 짓곡.(포제단. 집도 잇고, 포제 제단도 잇고. 집도 짓고.)

180) '포제'는 마을을 지킨다는 신에게 온 마을이 정성을 다하여 소원을 비는 의식이다.

110004 @1 어디마썸?(어디요?)

110004 #1 이 어도봉¹⁸¹에.(이 ‘어도봉’에.)

110004 @1 오름에?(오름에?)

110004 #1 오름 밑에. 그게 한 이삼백 년 역사가, 포제 역사가.(오름 밑에. 그게 한 이삼백 년 역사가, 포제 역사가.)

110004 @1 아.(아.)

110004 #1 흔 백 년 전에 서부 청년 당시에, 좀 아는데, 흔 이조 말일. 포제가 어떤 마을은, 포제, 바닷가는, 바닷가 마을은 바다에 강제 하고.(한 백 년 전에 서부 청년 당시에, 좀 아는데, 한 이조 말. 포제가 어떤 마을은, 포제, 바닷가는, 바닷가 마을은 바다에 가서 제 하고.)

110004 @1 음.(음.)

110004 #1 웃드르만, 중산간 마을은 포제 하여. 포제엔 헛 게 천제주게. 하늘 포제주게.(‘웃드르’만, ‘중산간’ 마을은 포제 해. 포제라고 하는 게 천제지. 하늘 포제지.)

110004 @1 아.(아.)

110004 #1 포제. 겐디, 포제라는 게 하늘에 비는 거주게.(포제. 그런데, 포제라는 게 하늘에 비는 거지.)

110004 @1 언제 했수과? 계난에.(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110004 #1 음력 정월 낭 정일에.(음력 정월 나서 정일에.)

110004 @1 아.(아.)

110001 #1 초 정일에. 사름이나, 옛날이나 지금은 일허는데, 동네에서 다 사망허지 안했어게? 옛날엔.(초 정일에. 사람이나, 옛날이나, 지금은 일하는데, 동네에서 다 사망하지 않았어? 옛날엔.)

110004 @1 예예.(예예.)

110004 #1 병원 엇일 땐, 사름 죽으면 정일 못 하여. 열흘 안네는, 지나야, 열흘 지나야. 초정일 못 허민 다음 정일에. 나도 죽 허게 삼십 대 후반부터 마을 일 아, 보기 시작허영 그디 제관을 죽 다녀신디.(병원 없을 땐, 사람 죽으면 정일 못 해. 열흘 안에는, 지나야, 열흘 지나야. 초정일 못하면 다음 정일에. 나도 죽 허게 삼십 대 후반부터 마을 일 아, 보기 시작해서 거기 제관을 죽 다녀셨는데.)

110004 @1 아.(아.)

110004 #1 보민은 대축, 축이 잇주게.(보민은 대축, 축이 있지.)

110004 @1 예.(예.)

110004 #1 전체 마을에 대한 걸 비는 거라이.(전체 마을에 대한 걸 비는 거야.)

110004 @1 예.(예.)

110004 #1 옛날에는 오곡풍등이라고 해서 조, 보리, 콩, 팥 해서 풍년 들게 해

181) ‘어도봉’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북서쪽에 있는 오름이다. 조선 때 봉수대가 있었다. 달리 ‘도내산, 도노미, 어도악, 어도오름’이라고 한다.

줍서, 허고, 육축번성이라 해 가지고 쉼, 그런 가축들도 다 번창하게 해 줍서, 밭고, 병도, 밭을 사름덜 병도 들지 말게 해 줍서, 허여 주는, 비는 게 포젠디, 더 열심히 허여. 젊은 아이덜.(옛날에는 오곡풍등이라고 해서 조, 보리, 콩, 팥 해서 풍년 들게 해 주십시오, 하고, 육축번성이라 해 가지고 소, 그런 가축들도 다 번창하게 해 주십시오, 밭고, 병도, 마을 사람들 병도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여 주는, 비는 게 포젠데, 더 열심히 해. 젊은 아이들.)

110004 @1 예.(예.)

110004 #1 이젠 옛날보단도, 영 허는 거 보면은 관심을 더 뒤 가지고. 요즘 이장덜이.(이젠 옛날보다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관심을 더 뒤 가지고. 요즘 이장들이.)

110004 @1 계민 제관은 누게, 누게? 그때마다.(그러면 제관은 누구, 누구? 그때마다.)

110004 #1 옛날에는 우리 혼 서남은 해 시작 할 때깁장은 포제 제관 허는 총회를 열어.(옛날에는 우리 한 서남은 해 시작 할 때까지는 포제 제관 하는 총회를 열어.)

110004 @1 예.(예.)

110004 #1 향회, 거기서 제관 아무나 헤져게? 옛날 제관 허젠 해도 스몫 양반이 현다고 해서.(향회, 거기서, 제관 아무나 할 수 있어? 옛날 제관 하려고 해도 사몫 양반이 한다고 해서.)

110004 @1 예.(예.)

110004 #1 높은 사름이 현다고 해서 제관 허젠들 스몫, 향장이라고 해서 향장, 술 ㄱ정다 대접해 가명 나 제관 허쿠다.(높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제관 하려고들 사몫, 향장이라고 해서 향장, 술 가져다가 대접해 가면서 나 제관 하겠습니까.)

110004 @1 아.(아.)

110004 #1 막 허고, 경 해낫주게. 제관 선출허는 밭 총회를 허여. 혼 백 명 모이면은 거기에서 조금 똑똑헌 사름으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제일 중요한 게 그거.(막 하고, 그렇게 했었지. 제관 선출하는 마을 총회를 해. 한 백 명 모이면은 거기에서 조금 똑똑헌 사름으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제일 중요한 게 그거.)

110004 @1 예.(예.)

110004 #1 그다음은 집례라고 해 가지고 흘기 부르는 건디, 이거는 사회자라.(그다음은 집례라고 해 가지고 흘기 부르는 건데, 이거는 사회자야.)

110004 @1 예. 집례.(예. 집례.)

110004 #1 집례는 나도 그걸 해 봤는디, 포제 허는 걸 다 알아, 웨워야 돼.(집례는 나도 그걸 해 봤는데, 포제 하는 걸 다 알아, 외워야 돼.)

110004 @1 예예.(예예.)

110004 #1 집례가 초헌관 저레 강 절 허라, 곧곡 허민 절 허고, 집례가 다 허는 거주게. 허난 집례, 그 다음은 대축은 축문을 허는 거고, 알자엔 헌 거는 헌관들 모

서 다니는 거고, 포제 때 알자엔 헌 거는.(집례가 초헌관 저리 가서 절하라, 말하고 하면 절하고, 집례가 다 하는 거지. 하니까 집례, 그다음은, 대축은 축문을 하는 거고, 알자라고 하는 거는 헌관들 모셔 다니는 거고, 포제 때 알자라고 하는 거는.)

110004 @1 게민 집례 혼 사름, 대축 혼 사름 그다음.(그러면 집례 한 사람, 대축 한 사람, 그다음.)

110004 #1 삼헌관.(삼헌관.)

110004 @1 알자는?(알자는?)

110004 #1 알자는 초헌관 배례 허면은, 국배 허면은, 알자가 초헌관을 모셔 심부름꾼 허는 사름게. 옛날에 종 같은 거지 종.(알자는 초헌관 배례 하면은, 국배 하면은, 알자가 초헌관을 모시고 심부름꾼 하는 사람. 옛날에 종 같은 거지 종.)

110004 @1 게민 여러 사름이 필요허쿠다예. 알자는.(그러면 여러 사름이 필요하겠습시다. 알자는.)

110004 #1 알자는 혼 사름만.(알자는 한 사람만.)

110004 @1 혼 사름?(한 사람?)

110004 #1 초헌관, 초헌관 해 나민 아헌관 7지 강 혼 사름 허고, 그다음은 국궁배 허면은, 집례가 국궁배 허면은 절을 허렌 말이주게.(초헌관, 초헌관 하고 나면 아헌관까지 가서 한 사람 하고, 그다음은 국궁배 하면은, 집례가 국궁배 하면은 절을 하라는 말이지.)

110004 @1 예.(예.)

110004 #1 배례 허면은, 혼 사름은 찬자엔 해 가지고 일흥제라. 일어삼서, 허는 거라. 뜯 사름은 집례는 배 허면은, 스배 허면은 스배 해난 다음은, 찬자엔 허여 그 거7라. 흥아 허면은, 일 흥제난, 일어났당 제자리 가고, 경, 찬자 잇곡, 집례 잇곡, 집사가 두 개.(배례를 하면은, 한 사람은 찬자라고 해 가지고 일 흥 자야. 일어서십시오, 하는 거야. 뜯 사름은, 집례는 배, 하면은, 사배, 하면은 사배 하고 난 다음은, 찬자라고 해 그것을. 흥아 하면은, 일 흥 자니까, 일어났다가 제자리 가고, 그렇게, 찬자 있고, 집례 있고, 집사가 두 개.)

110004 @1 예.(예.)

110004 #1 집사질 허는 사람 잇지 안 허여?(집사질 하는 사람 있잖아?)

110004 @1 집사, 집사 둘.(집사, 집사 둘.)

110004 #1 거난, 삼헌관허고, 집례허고, 대축허고, 알자, 찬자 혼 아홉 사름 텔로 구나 제관.(그러니까, 삼헌관하고, 집례하고, 대축하고 알자, 찬자, 한 아홉 사람 되겠구나. 제관.)

110004 @1 올리젠 허민 그디 담당 허는 사름 잇지 안허파?(올리려고 하면 거기 담당하는 사람 잇지 않습니까?)

110004 #1 전사관이라고.(전사관이라고.)

110004 @1 전사관.(전사관.)

110004 #1 전체 책임지는 건디. 음식이영 튀여.(전체 책임지는 건데. 음식이다

뭐다.)

110004 @1 음식 같은 거예.(음식 같은 거요.)

110004 #1 저, 산제는, 하늘 귀신은 산 것만 먹어, 산 것만.(저, 산제는, 하늘 귀신은 산 것만 먹어, 산 것만.)

110004 @1 아.(아.)

110004 #1 삶은 거, 죽은 거 아이 먹어.(삶은 거, 죽은 거 아니 먹어.)

110004 @1 생것만.(생것만.)

110004 #1 생것만, 계란 모든 게 다 생. 밥도 청 해야 돼. 청.(생것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생. 밥도 찌서 해야 돼. 찌서.)

110004 @1 올려 난 거 한번 돌아봅서. 포제 할 때 올려난 거.(올렸던 거 한번 말해 보십시오. 포제 할 때 올렸던 거.)

110004 #1 돼야지 한 마리, 두 마리.(돼지 한 마리, 두 마리.)

110004 @1 두 마리?(두 마리?)

110004 #1 음. 저 포제 쇠고기, 하늘제 쇠고기, 땅귀신 쇠고기. 포제 쇠고기, 토제 쇠고기, 토지지신.(음. 저 포제 있고, 하늘제 있고, 땅귀신 있지. 포제 있고, 토제 있고, 토지지신.)

110004 @1 아, 동시에 허는 거봐? 포제, 토제.(아, 동시에 하는 겁니까? 포제, 토제.)

110004 #1 음. 거난 그거 다 올리는데. 산 채 갖, 산 때에 피 뽑양.(음. 그러니까 그거 다 올리는데. 산 채 갖 산 때에 피 뽑아서.)

110004 @1 예.(예.)

110004 #1 이거 산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피 뽑양 올려.(이거 산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피 뽑아서 올려.)

110004 @1 아.(아.)

110004 #1 산 거, 살아있는 거. 도야지 산 채, 삶지 말양. 그냥 잡아근영에 올리곡.(산 거, 살아있는 거. 돼지 산 채, 삶지 말고. 그냥 잡아서 올리고.)

110004 @1 아, 삶지 아니헌 거 올려놔수과?(아, 삶지 않은 거 올렸었습니까?)

110004 #1 생선도 늘거. 다 늘거.(생선도 날거. 다 날거.)

110004 @1 아.(아.)

110004 #1 생선 고기도 늘거. 밥은 솟디 치영.(생선 고기도 날거. 밥은 솥에 찌서.)

110004 @1 아.(아.)

110004 #1 치영 해근에.(찌서 해서.)

110004 @1 익히긴 해도 청.(익히긴 해도 찌서.)

110004 #1 예. 제사관이 이거 다 해야 돼여.(예. 제사관이 이거 다 해야 되어.)

110004 @1 삶는 게 아니라 청.(삶는 게 아니라 찌서.)

110004 #1 제사관, 옛날에는 이장이 제사관 해냈는디, 이제는 이장이 아니고 청

년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허여.(제사관, 옛날에는 이장이 제사관 했었는데, 이제는 이장이 아니고 청년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

110004 @1 예.(예.)

110004 #1 이장은, 이제는, 나 할 때, 나 허기 전부떠 이장은 제사관만 해놔주게. 제관이 아니라. 므를 총회에서 우리 동네는, 이장이 최고 아니라게?(이장은, 이제는, 나 할 때, 나 하기 전부떠 이장은 제사관만 했었지. 제관이 아니라. 마을 총회에서 우리 동네는, 이장이 최고 아니야?)

110004 @1 예.(예.)

110004 #1 이장이 초헌관으로 못을 박아 붙었어. 초헌관은 이장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게다가 아헌관은 개발위원장, 나머지 종헌관은 동장에서 수석 동장, 영 해가지고 못을 박아 부난, 제관도, 이 동네 봉성리는 오 개동이 있어.(이장이 초헌관으로 못을 박아 버렸어. 초헌관은 이장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게다가 아헌관은 개발위원장, 나머지 종헌관은 동장에서 수석 동장, 이렇게 해가지고 못을 박아 버리니까, 제관도, 이 동네 봉성리는 오 개동이 있어.)

110004 @1 예.(예.)

110004 #1 오 개 동, 동마다, 므를 보민 동장이 있고, 개발위원이 있고 허민, 경헨 혼 이십 명 돼주게. 그디안티 완전 위임 허자. 포제를.(오 개 동, 동마다, 마을 보면 동장이 있고, 개발위원이 있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한 이십 명 되지. 거기한테 완전 위임 하자. 포제를.)

110004 @1 음.(음.)

110004 #1 동장허고 이장, 개발위원회에서 위임, 그 사람들만 알앙 허여. 젊은 사람들.(동장허고 이장, 개발위원회에서 위임, 그 사람들만 알아서 해. 젊은 사람들.) 110004 @1 그, 음식 장만은 어디서 했수과?(그, 음식 장만은 어디서 했습니까?)

110004 #1 음식 장만은 집, 부녀회에서 식사허고, 그디서.(음식 장만은 집, 부녀회에서 식사하고, 거기서.)

110004 @1 마을회관에서마썸?(마을회관에서요?)

110004 #1 집을 지어 있어. 포제 허래.(집을 지어 있어. 포제 하러.)

110004 @1 아.(아.)

110004 #1 그디서 전부 식사허고, 주택이 잇주게.(거기서 전부 식사하고, 주택이 잇지.)

110004 @1 예.(예.)

110004 #1 그디서 줌자고.(거기서 잠자고.)

110004 @1 포제단.(포제단.)

110004 #1 응. 포제단.(응. 포제단.)

110004 @1 포제단에 집이 잇어마썸?(포제단에 집이 잇어요?)

110004 #1 예. 읍이서, 그디서 줌자고.(예. 옆에서, 거기서 잠자고.)

110004 @1 케민 제관들은 그디서 줌자수과?(그러면 제관들은 거기서 잠갔습니까?)

110004 #1 흔 삼일 간, 이틀간 줌을 자야 돼여.(한 삼일 간, 이틀간 잠을 자야 되어.)

110004 @1 어디 다른 디 안 강 그디서만.(어디 다른 데 안 가고 거기서만.)

110004 #1 그디서만, 들어갔다 허면은 흐룻저낙 장, 뒷날 열두시 웨영 제 할 거라 부난에, 이틀이나 그디서 딱 나오지 못 허주게. 들어가민.(거기서만, 들어갔다 허면은 흐룻저녁 자서, 뒷날 열두 시 되어서 제 할 거라 버리니까, 이틀이나 거기서 딱 나오지 못 하지. 들어가면.)

110004 @1 음.(음.)

110004 #1 포제 방에 옛날 검줄 맨다고 해 가지고, 아무도 오지 못허게.(포제 방에 옛날 검줄 맨다고 해 가지고, 아무도 오지 못하게.)

110004 @1 음.(음.)

110004 #1 다 나오질 못허여. 제관들 들어가면.(다 나오질 못해. 제관들 들어가면.)

110004 @1 그때는 큰옷 입어근에.(그때는 도포 입어서.)

110004 #1 음. 그 안에 다 있어. 제복, 건 도포이라고 해서.(음. 그 안에 다 있어. 제복, 건 도포라고 해서.)

110004 @1 도포.(도포.)

110004 #1 사모관대 다 쓰고.(사모관대 다 쓰고.)

110004 @1 검줄은 언제부터 맵니까?(검줄은 언제부터 맵니까?)

110004 #1 삼일 전이.(삼일 전에.)

110004 @1 삼일 전에.(삼일 전에.)

110004 #1 그디 들어가는 날, 들어가민 검줄 메 붙어야주.(거기 들어가는 날, 들어가면 검줄 메 버려야지.)

110004 @1 포제 할 때쯤에 마을 어귀나 집집마다, 이디 올레에 검줄 매진 안헛수과?(포제 할 때쯤에 마을 어귀나 집집마다, 여기 올레에 검줄 매진 안헛았습니까?)

110004 #1 아니 허여.(아니 해.)

110004 @1 그디만.(거기만.)

110004 #1 그디만, 우이 포제 제관들이 제단에 들어가민, 옛날에 집 엇일 때는 천막 청 살아났어.(거기만, 위에 포제 제관들이 제단에 들어가면, 옛날에 집 없을 때는 천막 치고 살았었어.)

110004 @1 아, 천막 청도 해났구나양.(아, 천막 쳐서도 했었군요.)

110004 #1 그디 들어가민 올레에 딱 검줄 메영덜 나오도 못허게.(거기 들어가면 올레에 딱 검줄 매어서들 나오지도 못하게.)

110004 @1 그디 올려난 음식들 혼번 곶아 볍서.(거기 올렸던 음식들 한번 말해 보십시오.)

110004 #1 올려난 음식은 게. 돼야지 허고.(올렸던 음식은 거. 돼지 하고.)
 110004 @1 돼야지 두 마리양.(돼지 두 마리오.)
 110004 #1 명태 허고.(명태 하고.)
 110004 @1 명태?(명태?)
 110004 #1 늘거. 생선 고기 늘거. 그거뿐이고.(날거. 생선 고기 날거. 그거뿐이고.)
 110004 @1 예.(예.)
 110004 #1 뜯 음식은 세우리, 미나리.(뜯 음식은 부추, 미나리.)
 110004 @1 예예.(예예.)
 110004 #1 탕쉬¹⁸², 미나리만 허여당.(‘탕쉬’. 미나리만 해다가.)
 110004 @1 아.(아.)
 110004 #1 올리고, 미나리만 올리더라고.(올리고, 미나리만 올리더라고.)
 110004 @1 미나린 것도 늘걸로?(미나린 것도 날걸로?)
 110004 #1 아니게 삶양.(아니, 삶아서.)
 110004 @1 삶양 탕쉬로.(삶아서 ‘탕쉬’로.)
 110004 #1 삶양.(삶아서.)
 110004 @1 미나리.(미나리.)
 110004 #1 음. 거뿐 뜯 거, 무슨 적갈 ㄴ튼 것도 듯 혼 마리 올리꼭게, 득도 늘 채 혼 마리 올리고.(음. 거뿐 뜯 거, 무슨 적 같은 것도, 돼지 한 마리 올리고, 닭도 날 채 한 마리 올리고.)
 110004 @1 아.(아.)
 110004 #1 장득으로.(장답으로.)
 110004 @1 장득.(장답.)
 110004 #1 황계장득으로 구해당.(황계 장답으로 구해다가.)
 110004 @1 별경 현 거로.(별건 거로.)
 110004 #1 별경 현 거 잡양 늘 채로 그걸 올리고. 돼야지 올리꼭, 득 올리고.(별건 거 잡아서 날 채로 그걸 올리고. 돼지 올리고, 닭 올리고.)
 110004 @1 예.(예.)
 110004 #1 그다음엔 명태 혼 마리, 생선 고기 혼 마리.(그다음엔 명태 한 마리, 생선 고기 한 마리.)
 110004 @1 생선 고기엔 현 말은 솔라니.(생선 고기라고 하는 말은 옥돔.)
 110004 #1 아니, 늘거.(아니, 날것.)
 110004 @1 예.(예.)
 110004 #1 날채, 시장에 강 사당 경 허영 올리고, 미나리 올리고, 뜯 거 경 올리는 거 엇어.(날짜, 시장에 가서 사다가 그렇게 해서 올리고, 미나리 올리고, 뜯 거

182) ‘탕쉬’는 고사리, 콩나물 따위를 삶아 참깨 등의 양념을 넣고 버무려 제사에 쓰는 나물이다. 달리 ‘탕수, 탕쉬’라고 한다.

그렇게 올리는 거 없어.)

110004 @1 과일은 무시 거 올려놔수과?(과일은 뭐 올렸었습니까?)

110004 #1 과일도 올려놔주.(과일도 올렸었지.)

110004 @1 예.(예.)

110004 #1 과일은 각종 과일 전부, 대추 ㄱ튼 거, 것ㄱ라 뵈이엔 허느니?(과일은 각종 과일 전부, 대추 같은 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110004 @1 밤?(밤?)

110004 #1 밤. 대추, 밤 ㄱ튼 거 올려.(밤. 대추, 밤 같은 거 올려.)

110004 @1 사과, 배 이런 거는?(사과, 배 이런 거는?)

110004 #1 그런 거는 올리지 아니하고 대추, 밤 ㄱ튼 거로 올리고.(그런 거는 올리지 아니하고 대추, 밤 같은 거로 올리고.)

110004 @1 귤 중에 뭐과? 땡유지.(귤 중에 뵈니까? 당유자.)

110004 #1 음. 땡유지도 올려.(음. 당유자도 올려.)

110004 @1 땡유지.(당유자.)

110004 #1 땡유지 구해당 그거 꼭 올리고, 옛날에는 과일들 헌 때는, 땡유지가 질, 땡유지벧기는 과일이 엇어놔주게.(당유자 구해다가 그거 꼭 올리고, 옛날에는 과일들 헌 때는, 당유자가 제일, 당유자밖에는 과일이 없었었지.)

110004 @1 계란, 제관을 오래 헤놔구나양?(그러니까, 제관을 오래 했었군요?)

110004 #1 아, 난 으라 번 이장 헐 때도 허난게, 책임도 허연 허어나고.(아, 난 여러 번 이장 헐 때도 했으니까, 책임도 해서 했었고.)

110004 @1 음.(음.)

110004 #1 스십 전이부떠 대축을 허어나십주.(사십 전부터 대축을 했었죠.)

110004 @1 대축.(대축.)

110004 #1 뵈, 하여튼 청년회장 허멍 ㅁ을 가면은, 내 젊을 때는 ㅁ을 사름덜이 날, 동네 사름덜이 조금 달리 봐 가지고, 대축은 한자라도 알아야주게.(뵈, 하여튼 청년회장 하면서 마을 가면은, 내 젊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날, 동네 사람들이 조금 달리 봐 가지고, 대축은 한자라도 알아야지.)

110004 @1 예.(예.)

110004 #1 그디 강 이녁냥으로 다 쓰고 익고, 또 초안이 있어. 대축 초안이 그디.(거기 가서 자기대로 다 쓰고 익고, 또 초안이 있어. 대축 초안이 거기.)

110004 @1 음.(음.)

110004 #1 그디서 혼 세 시쫘, 낮 세 시쫘 뵈민은 그디 붓이영 먹이영 다 곳다냥, 대축 말은 사름은 대축 쓰고, 집례 말은 사름은 흘기엔 헌 거, 그거 쓰고 이녁냥으로.(거기서 한 세 시쫘, 낮 세 시쫘 뵈면은 거기 붓이랑 먹이랑 다 갖다 놓고, 대축 말은 사름은 대축 쓰고, 집례 말은 사름은 흘기라고 하는 거, 그거 쓰고 자기대로.)

110004 @1 음.(음.)

110004 #1 계난게 조금 글도 쓰고 한자도 아는 사람이 그런 걸 해야주.(그러니까 조금 글도 쓰고 한자도 아는 사람이 그런 걸 해야지.)

110004 @1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초정일 드는.(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초정일 드는.)

110004 #1 초정일이 최고.(초정일이 최고.)

110004 @1 열두 시에.(열두 시에.)

110004 #1 음. 열두 시 딱 돼영.(음. 열두 시 딱 되어서.)

110001 @1 열두시에. 딱 돼영 허는 거로구나양.(열두시에. 딱 되어서 하는 거로군요.)

110004 #1 거난, 모두에 신은, 귀신은, 조상신이나 토지지신이나 모든 신은 즈시에만 활동한다는 거여. 즈시가 열한시부터 한시까지주게.(그러니까, 모든 신은, 귀신은, 조상신이나 토지지신이나 모든 신은 자시에만 활동한다는 거야. 자시가 열한시부터 한 시까지지.)

110004 @1 예예.(예예.)

110004 #1 즈시가 넘으면은 신은 활동을 못 한다는 가르침을 헛주게. 계난 즈시에만 제살 지내라.(자시가 넘으면은 신은 활동을 못 한다는 가르침을 헛지. 그러니까 자시에만 제살 지내라.)

110004 @1 계민 그 제 지내는 디 다른 사름덜은 강 보지 못헛수과?(그러면 그 제 지내는 데 다른 사람들은 가서 보지 못헛습니까?)

110004 #1 아이고, 옛날이야, 지금은 안 가.(아이고, 옛날이야, 지금은 안 가.)

110004 @1 안 가고.(안 가고.)

110004 #1 이제는 낮에들 강 그자 음식들이나 먹고 허주. 옛날에는 어려운 때난 므를 사름이 전부 끝나면 와 가지고.(이제는 낮에들 가서 그저 음식들이나 먹고 하지. 옛날에는 어려운 때니까 마을 사름이 전부 끝나면 와 가지고.)

110004 @1 아.(아.)

110004 #1 그걸 슣양 반 혜영 나누와.(그걸 삶아서 반 해서 나누어.)

110004 @1 맞수다.(맞습니다.)

110004 #1 집집마다, 고기 어려울 때난.(집집마다, 고기 어려울 때니까.)

110004 @1 맞수다. 도새기 두 마리에.(맞습니다. 돼지 두 마리에.)

110004 #1 므를 사름들을 전부 동원허영.(마을 사름들을 전부 동원해서.)

110004 @1 예.(예.)

110004 #1 또, 풍습이 나쁜 풍습인데, 부량 현 놈 잊지 안허여? 므을마다, 세고 싸움 잘허는 놈들은 그디, 제, 포제 할 때 허면은, 포제가 거의 끝났다 허면은, 이디 싯당 덕 두 마리 잊지 안허여. 덕, 확 심영 가. 도망가 붙어. 가정 가 붙어.(또, 풍습이 나쁜 풍습인데, 불량한 놈 있잖아? 마을마다, 세고 싸움 잘하는 놈들은 거기, 제, 포제 할 때 허면은, 포제가 거의 끝났다 허면은, 여기 있다가 닭 두 마리 있잖아. 닭, 확 잡고 가. 도망가 버려. 가지고 가 버려.)

110004 @1 음.(음.)

110004 #1 득 두 마리 심영 가 붙어. 깡패덜이. 계민 누계, 썸 놈이난게 뭣이엔
근지 못허민 경 허고, 나머지 사름덜은 옛날에는 향사엔 헌 디, 다 동네 사름덜이
그디 기다렸당, 오면은 고기 삶양 고기 석 점 먹젠.(닭 두 마리 잡고 가 버려. 깡패
들이. 그러면 누구, 썸 놈이니까 뭐라고 말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름들
은 옛날에는 향사라고 하는 데, 다 동네 사람들이 거기 기다렸다가, 오면은 고기 삶
아서 고기 석 점 먹으려고.)

110004 @1 예예.(예예.)

110004 #1 고기가 얼마나 귀한 때라게?(고기가 얼마나 귀한 때라?)

110004 @1 예.(예.)

110004 #1 그거 먹젠 옛날은 다 행, 나 시작헌 후에는 그런 바는 엇고, 고기 삶
양 반반 엇고, 나 흔 서른으다 아홉에 들어강 시작을 해신디, 그때는 제관만 갈라.
(그거 먹으려고 옛날은 다 해서, 나 시작한 후에는 그런 바는 없고, 고기 삶아서 반
반 없고, 나 한 서른여덟 아홉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제관만 나뉘.)

110004 @1 음.(음.)

110004 #1 것도 초헌관이 흔 다리씩 제일 좋은 걸로 허고, 그다음은 니 번째 서
열이 집례, 집서, 다섯 번째가 대축.(그것도 초헌관이 한 다리씩 제일 좋은 걸로 하
고, 그다음은 네 번째 서열이 집례, 집사, 다섯 번째가 대축.)

110004 @1 예.(예.)

110004 #1 그, 좋은 고기로만 분배헤영 늘 채로 끈영 헤영 다 허지. 나 들어가
기 전이 옛날에는 경 허엿젠. 삶안에 다 허고, 그날 아니 온 사름은 집이 곳다 주고
헤낫젠 말도 있어.(그, 좋은 고기로만 분배해서 날 째로 끊어서 해서 다 하지. 나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는 그렇게 하였다고. 삶아서 다 하고, 그날 아니 온 사름은 집
에 갖다 주고 했었다는 말도 있어.)

110004 @1 요새 어떻게 허는 거 닭수과?(요새 어떻게 하는 거 같습니까?)

110004 #1 요새는 그 제관들만 분배허여. 뜯 사름은 하나토 엇고.(요새는 그 제
관들만 분배해. 뜯 사름은 하나도 없고.)

110004 @1 그레 가지도 안허고?(거기로 가지도 안고?)

110004 #1 음. 가지도 안허고. 옛날에는 제 구경허고, 사름들 많이 갖는데 이제
는 그날 낮이 갖당덜 집이 와 붙어. 이젠 집이 고기가 바글바글 헌디. 그거 먹젠 그
디 강.(음. 가지도 안고. 옛날에는 제 구경하고, 사름들 많이 갖는데 이제는 그날 낮
에 갔다가들 집에 와 버려. 이젠 집에 고기가 바글바글한데. 그거 먹으려고 거기 가
서.)

110004 @1 맞수다게.(맞습니다.)

110004 #1 건디, 돼야지 허면 내장은 다 빼주게. 내장은.(그런데, 돼지 하면 내
장은 다 빼지. 내장은.)

110004 @1 아.(아.)

110004 #1 다 빼면은, 내장도 많잖아게.(다 빼면은, 내장도 많잖아.)

110004 @1 예.(예.)

110004 #1 두 마리 잡으면, 간이나 배설이나.(두 마리 잡으면, 간이나 창자나.)

110004 @1 맞수다.(맞습니다.)

110004 #1 그거 삶양 그디 간 사름덜 안주 해영 먹고.(그거 삶아서 거기 간 사람들 안주 해서 먹고.)

110004 @1 미리 제 지내기.(미리 제 지내기.)

110004 #1 제 지내기 전에.(제 지내기 전에.)

110004 @1 전에.(전에.)

110004 #1 아시날게. 아시날.(전날. 전날.)

110004 @1 계난, 오늘 열두시면, 밤 열두시 할 거면 지금.(그러니까, 오늘 열두시면, 밤 열두시 할 거면 지금.)

110004 #1 지금. 아침부터 내장 삶양 점심도 거기서 먹고, 막 먹을 거 아니잖게?(지금. 아침부터 내장 삶아서 점심도 거기서 먹고, 막 먹을 거 아닙니까?)

110004 @1 예.(예.)

110004 #1 내장이 얼마나 많아게? 돛 두 마리난. 간, 배설, 북부기, 하간 거 허민, 그것들 허영 회원 그디 놀래 간 사름덜, 건디 이제는 제주시는, 우리 마을은 아니지만 뜬 마을, 제주시 향우회라는 게 있어.(내장이 얼마나 많아? 돼지 두 마리니까. 간, 창자, 허파, 여러 가지 하면, 그것들 해서 회원 거기 놀러 간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제주시는, 우리 마을은 아니지만 뜬 마을, 제주시 향우회라는 게 있어.)

110004 @1 예.(예.)

110004 #1 봉성 출신들이 시에 간 향우회가 있어.(봉성 출신들이 시에 간 향우회가 있어.)

110004 @1 예예.(예예.)

110004 #1 엄청 더 많아. 이디 똑똑헌 사름덜. 관직에, 공무원들에, 그디서 다 와. 낮에, 거기서 돈들 가정 와. 시사 허젠. 시사 흔 멧 백만 원 들어오주게. 우리도 가젠 허면 흔 오만 원 ㄴ정 갖다 줘야 돼.(엄청 더 많아. 여기 똑똑한 사람들. 관직에, 공무원들에, 거기서 다 와. 낮에, 거기서 돈들 가지고 와. 회사 하려고. 회사 한 멧 백만 원 들어오지. 우리도 가려고 하면 한 오만 원 가지고 갖다 줘야 돼.)

110004 @1 아.(아.)

110004 #1 결산보고도 총회에, 포제 결산 보고도 다 허여. 시사 들어온 명단 다 허고, 얼마 허고.(결산보고도 총회에, 포제 결산 보고도 다 해. 회사 들어온 명단 다 하고, 얼마 하고.)

110004 @1 음.(음.)

110004 #1 하여튼 요즘은 향우회에서 완, 전부 와. 별미라고 웨방 사름덜이 구경, 그디 왕 어떻 험신고, 보레.(하여튼 요즘은 향우회에서 왔어, 전부 와. 별미라고 웨방 사람들이 구경, 거기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러.)

110004 @1 낮이.(낮에.)

110004 #1 낮이 왓당.(낮에 왔다가.)

110004 @1 낮이 와근에.(낮에 와서.)

110004 #1 술이여, 꿩이여, 대접해 주민 먹영 가고. 봉투 해영 와.(술이다, 고기다, 대접해 주민 먹고 가고. 봉투 해서 와.)

110004 @1 봉투 해영 와. 잔치 먹으레 가듯이 그자.(봉투 해서 와. 잔치 먹으러 가듯이 그저.)

110004 #1 잔치 먹으레 가듯이, 겐디 이디 봉성은 포제 제사는 잘 해여. 위치도 최고 좋고.(잔치 먹으러 가듯이, 그런데 여기 봉성은 포제 제사는 잘 해. 위치도 최고 좋고.)

110004 @1 음.(음.)

110004 #1 지금 집도, 주택도 잘 짓고, 거 오름에 허가 안 날 건데 어떻 해연 쥬 좋게 문 개간해연. 농사짓는 거, 유채 뭐 싱건에 농사짓는 거, 허가 받안에 이거 집을 지어서. 거, 산림보호 지역이라고 주택을 못 짓주게.(지금 집도, 주택도 잘 짓고, 거 오름에 허가 안 날 건데 어떻게 해서 쥬 좋게 모두 개간해서. 농사짓는 거, 유채 뭐 심어서 농사짓는 거, 허가 받아서 이거, 집을 지어서. 거, 산림보호 지역이라고 주택을 못 짓지.)

110004 @1 예.(예.)

110004 #1 오름에. 고막, 아무것도 못 허게 웬 딘디, 우리 마을은 제단도 짓곡 주택도 짓고 허연.(오름에. 까막, 아무것도 못 하게 된 텐데, 우리 마을은 제단도 짓고 주택도 짓고 했어.)

110004 @1 음.(음.)

110004 #1 성도 들르곡, 제단부지가 이거 혼 천오백 평.(성도 두르고, 제단 부지가 이거 한 천오백 평.)

110004 @1 오. 잘도 넓다예.(오. 꽤 넓군요.)

110004 #1 성 다 들르고, 돌로 제단 들르고.(성 다 두르고, 돌로 제단 두르고.)

110006 @1 마을제 혈 만헌게마썸. 음력 정월이민 보리밭 밟아 쥐야 돼지 안헐 니까?(마을제 할 만하네요. 음력 정월이면 보리밭 밟아 쥐야 되지 않습니까?)

110006 #1 밟지 안허여. 이디는 땅이 자갈 토지난에.(밟지 안 해. 여기는 땅이 자갈 토지니까.)

110006 @1 예. 밟을 일이.(예. 밟을 일이.)

110006 #1 밟을 일이 엇고, 옛날에 보리 갈 때는 이월 입춘 넘으면은 보리밭디 강 검질 메서.(밟을 일이 없고, 옛날에 보리 갈 때는 이월 입춘 넘으면은 보리밭에 가서 김 땀어.)

110006 @1 검질.(김.)

110006 #1 음. 이디 자갈밭은 땅이 탄탄해 가지고 밟질 안허주게.(음. 여기 자갈밭은 땅이 탄탄해 가지고 밟질 않지.)

110006 @1 아. 뽕질 안햇구나양.(아, 뽕질 안았군요.)

110006 #1 자갈밭 ㄱ튼 디나 뽕주.(자갈밭 같은 데나 뽕지.)

110007 @1 걸궁도 헤낫수과?('걸궁'도 했었습니까?)

110007 #1 걸궁도 허여낫주. 옛날에 걸궁은 일제강점기에 한창 해서.('걸궁'도 했었지. 옛날에 '걸궁'은 일제강점기에 한창 했어.)

110007 @1 아.(아.)

110007 #1 젊은 사름덜 모아 땡기면서, 영 보면은, 이 동네도 걸궁 헤난 디가 우리 혼 삼십, 오십 년 전까지 해서. 해년마다, 걸궁 허면은 동네 사름덜이, 청년들이 걸궁을 허는 거라이. 동네 청년들이, 그때에는 청년들이 다 사난에 식구덜토 워낙 많고 허니까, 혼 몇 십 명 청년회에서 연습을 허여.(젊은 사람들 모여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 동네도 '걸궁' 했던 지가 우리 한 삼십, 오십 년 전까지 했어. 해년마다, 걸궁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청년들이 걸궁을 하는 거라. 동네 청년들이, 그때에는 청년들이 다 사니까 식구들도 워낙 많고 하니까, 한 몇 십 명 청년회에서 연습을 해.)

110007 @1 예.(예.)

110007 #1 걸궁 연습을 허민, 거기 걸궁 헐 때도 다 계급 잇주게. 말은 분야, 것 ㄱ라 뵈이엔 허느니. 대장, 걸대 쓰고 통대 물고 질 앞이 나장 허고, 동녕, 집집마다 강 돈 동녕 허는 거는, 스몛 갈 옷 입고 옛장시 모양 출렁, 무슨 바구리 들렁 강 돈 놓으런 행 집이마다 돌아 허민, 옛날엔 걸궁 허면은 푸다시¹⁸³)엔 허영. 걸궁이 막 푸다실 허여 주는 거라이.('걸궁' 연습을 하면, 거기 '걸궁' 할 때도 다 계급 있지. 말은 분야, 그것을 뵈라고 하느냐. 대장, 걸대 쓰고 통대 물고 제일 앞에 나가서 하고, 동녕, 집집마다 가서 돈 동녕 하는 거는, 사몛 갈옷 입고 옛장수 모양 차려서, 무슨 바구니 들고 가서 돈 놓으라고 해서 집집마다 돌아서 하면, 옛날엔 '걸궁' 하면은 푸닥거리라고 해서. '걸궁'이 막 푸닥거리를 해 주는 거야.)

110007 @1 아.(아.)

110007 #1 경허영 돈을 받아 가.(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가.)

110007 @1 액막이로.(액막이로.)

110007 #1 음. 액막이로.(음. 액막이로.)

110007 @1 푸다시 해 주는 거로구나양.(푸닥거리 해 주는 거로군요.)

110007 #1 응. 돈 받았. 계난 돈 받는 놈은 꼭, 요즘 ㄱ트면 개그맨 님은 놈들이 있어. 옛날 동네에. 웃기고 자파리¹⁸⁴) 허고.(응. 돈 받고. 그러니까 돈 받는 놈은 꼭, 요즘 같으면 개그맨 님은 놈들이 있어. 옛날 동네에. 웃기고 '자파리' 하고.)

110007 @1 예.(예.)

110007 #1 그러면은 스몛 갈중이도 찢영 허고 허영, 둘러메영 거지 식, 거지 행동을 허는 거라.(그러면은 사몛 '갈중의'도 찢어서 하고 해서, 둘러메어서 거지 식,

183) '푸다시'는 잡귀가 몸에 범접하여 일어난 병을 고치는 곳이다.

184) '자파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놀이 또는 장난이다. 달리 '잡파리'라고 한다.

거지 행동을 하는 거야.)

110007 @1 예예.(예예.)

110007 #1 가민 그레 돈 들이치고. 결국, 옛날, 하여튼 일제강점기는 결국이 그때가 제일, 요샌 해난 지 혼 오십 년 다 돼여 가.(가면 거기로 돈 들이치고. 결국, 옛날, 하여튼 일제강점기는 결국이 그때가 제일, 요샌 했던 지 한 오십 년 다 되어 가.)

110007 @1 다른 마을하고 합쳐 허는 게 아니라.(다른 마을하고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110007 #1 이 동네만. 이 웨동이난, 신흥동만. 뜬 동만.(이 동네만. 이 외동이니까, 신흥동만. 뜬 동만.)

110007 @1 아.(아.)

110007 #1 허고, 봉성은 동마다 풍습이 달르고, 생활이 달르고, 이제는 다 하나로 됐었지만, 옛날엔 어느 동네 부자만 사는 동네, 어느 동네 막 가난한 사람만 사는 동네, 경 해 가지고, 구분이.(하고, 봉성은 동마다 풍습이 달르고, 생활이 달르고, 이제는 다 하나로 되었지만, 옛날엔 어느 동네 부자만 사는 동네, 어느 동네 막 가난한 사람만 사는 동네, 그렇게 해 가지고, 구분이.)

110007 @1 음.(음.)

110007 #1 부자만 사는 동네 사름안티는, 모든, 그디는, 부자만 사는 동네는게 한문 공부도 많이 허고 할 거 아니라게? 또 가난한 사람덜은 글도 못 허곡게, 어떻게 할 말이라게? 다 그디 명령만 따라. 부자만 사는 사람들.(부자만 사는 동네 사름한테는, 모든, 거기는, 부자만 사는 동네는 한문 공부도 많이 하고 할 거 아니라? 또 가난한 사람덜은 글도 못 하고, 어떻게 할 말이라? 다 거기 명령만 따라. 부자만 사는 사람들.)

110007 @1 여기는 스삼 때 만들어진 동네.(여기는 사삼 때 만들어진 동네.)

110007 #1 이디는 스삼 때 만들어진 동네난 질 가난한 동넨디 이제는 평균화 됐주마는, 봉성에는 옛날부터 부자만 사는 동네는, 저 오름 앞에 중화동이엔 헌 디가 있어.(여기는 사삼 때 만들어진 동네니까 제일 가난한 동넨디 이제는 평준화 됐지마는, 봉성에는 옛날부터 부자만 사는 동네는, 저 오름 앞에 중화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110007 @1 예.(예.)

110007 #1 농협 붙은 저쪽 그디가 완전 부자고 장남덜 들양 일허고 허는 그 동네. 우리 종손도 그 동네주게. 지금 부자 많은데 강○○ 그 동네라. 거긴 부자만 사는 동네. 이쪽 동대동은 가난한 사름만 사는 동네. 거난 그 동네 사름안티 그딱도 못 허여.(농협 붙은 저쪽 거기가 완전 부자고 장정들 데려서 일하고 하는 그 동네. 우리 종손도 그 동네지. 지금 부자 많은 데 강○○ 그 동네라. 거긴 부자만 사는 동네. 이쪽 동대동은 가난한 사람만 사는 동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름한테 까딱도 못 해.)

110007 @1 음.(음.)

110007 #1 부자들안티, 그디 강, 쓸도 꺾당 먹어야 돼여. 저 동네 사름덜안티.
(부자들한테, 거기 가서, 쓸도 꺾다가 먹어야 돼. 저 동네 사름들한테.)

110007 @1 걸궁은 언제 헤낫수과?(걸궁은 언제 했었습니까?)

110007 #1 걸궁은 혼 삼스월, 음력으로.(걸궁은 한 삼사월, 음력으로.)

110007 @1 음력?(음력?)

110007 #1 봄에, 봄에 허드라고. 나 옥은 후에는 딱 혼 번 허는 거 봐서. 우리 혼 스무 남은 해에.(봄에, 봄에 하더라고. 나 성장한 후에는 딱 한 번 하는 거 봤어. 우리 한 스무 남은 해에.)

110007 @1 아, 혼 번 봐났구나.(아, 한 번 봤었구나.)

110007 #1 응. 혼 번 봐난. 우린 어린 못 허고 선배들이 다 허는 거 연습을 혼 들 전이부터 저 목장에 출왓디 강 연습들 드리 허고.(응. 한 번 봤었어. 우린 어려서 못 하고 선배들이 다 하는 거, 연습을 한 달 전이부터 저 목장에 꼴밭에 가서 연습들 들이 하고.)

110007 @1 케민, 다른 동도 따로따로 걸궁 헤난 거는.(그러면, 다른 동도 따로 따로 걸궁 했던 거는.)

110007 #1 뜬 동네는, 이 동네가 걸궁을 마지막으로 헛는데, 뜬 동네는 걸궁을 웨정때도 헤낫주마는 아니 허는 거 같아. 이 동네는 청년들이 단합이 잘웨언에 헤어나고, 뜬 동네는.(뜬 동네는, 이 동네가 걸궁을 마지막으로 헛는데, 뜬 동네는 걸궁을 일제강점기 때도 했었지마는 아니 하는 거 같아. 이 동네는 청년들이 단합이 잘되어서 했었고, 뜬 동네는.)

110007 @1 새로 만들어진 동네난양.(새로 만들어진 동네니까요.)

110007 #1 이 동네는 새로 만들어진 동네난 처음에는 아주 재건지엔 헤 가지고 뽀박도 많이 받고, 서러움도 많이 받고, 그 열리왓 동네 사름들도 다 이디 동네 오고, 동네.(이 동네는 새로 만들어진 동네니까, 처음에는 아주 재건지라고 헤 가지고 뽀박도 많이 받고, 서러움도 많이 받고, 그 ‘열리왓’ 동네 사름들도 다 여기 동네 오고, 동네.)

110007 @1 경 허난 더 단체.(그렇게 하나까 더 단체.)

110007 #1 이디 어도 이구, 더 단체는 잘웨어 가지고, 워낙 처음에는 잘웨어 가지고, 말짜에는 평균화 웨어 가지고.(여기 어도 이구, 더 단체는 잘되어 가지고, 워낙 처음에는 잘되어 가지고, 말짜에는 평균화 되어 가지고.)

110008 @1 보난, 입춘에 삼촌이 썸 붙였수과?(보니까, 입춘에 삼촌이 써서 붙였습니까?)

110008 #1 아니. 이거 저, 나가 글 가르쳐 놔두난에 썸 그전 완. 우리 친헌 놈이, 나가 저거 글을 가르친 놔두니까. 아이, 이젠 잘 배웠고렌 허멍 썸 그져 완.(아니. 이거 저, 나가 글 가르쳐 놔두니까 써서 가져 왔어. 우리 친한 놈이, 나가 저거 글을 가르쳐서 놔두니까. 아이, 이젠 잘 배웠다고 하면서 써서 가져 왔어.)

110008 @1 아, 경 해십디가?(아, 그렇게 했었나요?)

110008 #1 나는 이만이 못써. 지금은 이놈은, 서예가 그디 작가로 등록돼언.(나는 이만큼 못 써. 지금은 이놈은, 서예가 거기 작가로 등록되었어.)

110008 @1 아.(아.)

110008 #1 나가 한문을 가르쳐난 거라. 소길 놈이다.(내가 한문을 가르쳤던 거라. 소길 놈인데.)

110008 @1 겐, 입춘에는.(그래서, 입춘에는.)

110008 #1 아, 입춘은 새철 드는 날이엔 해 가지고.(아, 입춘은 새철 드는 날이라고 해 가지고.)

110008 @1 새철 드는 날.(새철 드는 날.)

110008 #1 음. 입춘에는, 옛날에는 입춘에 모연덜 놀고 해낫주마는, 지금은 그제 입춘이 이월 스일이주게.(음. 입춘에는, 옛날에는 입춘에 모여서들 놀고 했었지마는, 지금은 그제, 입춘이 이월 사일이지.)

110008 @1 예.(예.)

110008 #1 음력으로, 양력으로 명절 할 때에, 음력으로 입춘이 이월 스일, 양력으로 이월 스일 날이난에.(음력으로, 양력으로 명절 할 때에, 음력으로 입춘이 이월 사일, 양력으로 이월 사일 날이니까.)

110008 @1 음력 명절 그레 아니파예?(음력 명절 즈음 아닙니까?)

110008 #1 음력 명절 그렌디. 음력으로 명절 아니 허영 양력으로 명절 할 때는.(음력 명절 즈음인데. 음력으로 명절 아니 해서 양력으로 명절 할 때는.)

110008 @1 예.(예.)

110008 #1 거, 입춘은 게 명절 현 후에 아니우파게?(거, 입춘은 명절 한 후에 아닙니까?)

110008 @1 예.(예.)

110008 #1 거난, 입춘에 내가 처음에 모연에 동네 사름덜 대접허여 본 후에는 그제 전통이 돼 가지고, 나가 혼 서른쭈, 청년회장 뎨디, 애월 면장이 강○○이엔 현 면장이 나신디 와 가지고 이 도로를, 어음 위에 버스를 놓을 테니, 이 집을,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도로 확장허젠 허민, 처음엔 요만이 현 도론디 집터를 많이 끈어야 될 거 아니라게? 계난에 집 임자에 동의를 봐야 될 거 아니파?(그러니까, 입춘에 내가 처음에 모여서 동네 사람들 대접해서 본 후에는 그제 전통이 돼 가지고, 나가 혼 서른쭈, 청년회장 뎨데, 애월면장이, 강○○이라고 하는 면장이 나한테 와 가지고 이 도로를, 어음 위에 버스를 놓을 테니, 이 집을,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도로 확장하려고 하면, 처음엔 요만큼 한 도론데 집터를 많이 끊어야 될 거 아니라? 그러니까 집 임자의 동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110008 @1 음.(음.)

110008 #1 생각, 생각헌 게, 입춘에 단합 대회를 헤여서 술허고 돼야지 잡고 허영, 다 모여 가지고 막 술이영 맥인 후에, 그 질 때문에 입춘 풍속을 현 거라.(생각,

생각한 게, 입춘에 단합 대회를 해서 술하고 돼지 잡고 해서, 다 모여 가지고 막 술 이랑 먹인 후에, 그 길 때문에 입춘 풍속을 한 거야.)

110008 @1 음.(음.)

110008 #1 그 도로 확장하게 됐으니 동의해 줘서. 허영 시작을 헌 게 지금까지도 허여. 지금까지, 지금은 일월 일일날 그 행사가.(그 도로 확장하게 됐으니 동의해 주십시오. 해서 시작을 한 게 지금까지도 해. 지금까지, 지금은 일월 일일 날 그 행사가.)

110008 @1 케난, 그 후에 그런 전통이 생겨 분 거로구나예.(그러니까, 그 후에 그런 전통이 생겨 버린 거로군요.)

110008 #1 음. 나 총회장 때 시작을 헌 거라. 이제 그게 입춘 허단에, 이제는 음력으로 명절 허게 돼난, 일월 일일 날로 변경을 해서.(음. 나 총회장 때 시작을 한 거라. 이제 그게 입춘 하다가, 이제는 음력으로 명절 하게 되니까, 일월 일일 날로 변경을 했어.)

110008 @1 아, 양력 일월 일일로.(아, 양력 일월 일일로.)

110008 #1 음. 그게 동네 대잔치로 돛 잡고, 돛 두어 마리 잡곡, 경 행 허는 거.(음. 그게 동네 대잔치로 돼지 잡고, 돼지 두어 마리 잡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110008 @1 그 전인 입춘 날 어떻 헤났수가?(그 전엔 입춘 날 어떻게 했었습니까?)

110008 #1 엇어났어. 아무것도 아니 허여.(없었어. 아무것도 아니 해.)

110008 @1 아무것도 아니 허여마씀?(아무것도 아니 해요?)

110008 #1 입춘 날은 새철 드는 날이엔 허영 놈이 집 가도 아니허여.(입춘 날은 새철 드는 날이라고 해서 남의 집 가지도 아니해.)

110008 @1 아.(아.)

110008 #1 이녁 집이만 ㄴ만이 이성. 놈이 집이 갓당 큰일 나. 옥먹어. 예편들은 놈이 집 가민 큰일 나. 일절 집이만, 입춘 날 놈이 집이 가민 채수 없넨 헤 가지고 집주인이.(이녁 집에만 가만히 있어서. 남의 집에 갔다가 큰일 나. 옥먹어. 여편들은 남의 집 가면 큰일 나. 일절 집에만, 입춘 날 남의 집에 가면 채수 없다고 헤 가지고. 집주인이.)

110008 @1 아.(아.)

110008 #1 ㄴ만이 앓아. 이녁 집이만. 경 헤났어. 옛날엔.(가만히 앓아. 이녁 집에만. 그렇게 했었어. 옛날엔.)

110008 @1 예.(예.)

110008 #1 새철 드는 날, 옛날엔 새철 드는 날이엔 헤난.(새철 드는 날, 옛날엔 새철 드는 날이라고 했어.)

110008 @1 그날 금줄 메거나 허진 안헛수과?(그날 금줄 매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110008 #1 아니 허여. 내가 스물, 혼 이십오 세 때까지는 촌에 살, 제주도에 이십 대까지 하도 고생을 해 가지고, 제주도에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딱 고런 마음이 들데.(아니 해. 내가 스물, 한 이십오 세 때까지는 촌에 살, 제주도에 이십 대까지 하도 고생을 해 가지고, 제주도에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딱 그런 마음이 들데.)

110008 @1 아.(아.)

110008 #1 내가 혼 이십 대 됐니까, 공부, 독학으로, 놈덜은, 그때는 자유당일 때난 이십 대 되는 사름덜은 꽤거리로 깡패만 됐더라고, 영 보니까, 나쁜 짓만 하고, 싸움판만 하고, 뜬 마을에 강 꽤싸움 하고.(내가 한 이십 대 되니까, 공부, 독학으로, 남들은, 그때는 자유당일 때니까 이십 대 되는 사람들은 꽤거리로 깡패만 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나쁜 짓만 하고, 싸움판만 하고, 뜬 마을에 가서 꽤싸움 하고.)

110008 @1 예.(예.)

110008 #1 난 그런 거를, 난 그저 조금 공부에 소질 있어났어. 이 제주도는 억울해 가지고 춤, 고등학교만 가서도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중학교, 애월 중학교에서 내가 톱으로 달려났수게. 그로후에 무조건 스물흔 설 돼난 육지 간 거지. 아무 연고도 없이. 서울 가고, 대구도 가고, 전국 인천, 부천 소산 잇는데도 강 살았는디, 밥값을 못 허여. 그때 오일륙 군사 혁명 때난, 계난 억울 헨에 집이 완, 혈 수 엇이 고향은 와 가지고, 난 취미가 책, 옛날 역사책 같은 것을 취미로 공부, 집이서도 책만 많았는데, 동네 우리 연거리 사름덜은 화투나 치고, 꿩 잡으레나 멍기고, 누리 잡으레나 데니고 허더라고, 또 싸움판덜만 하고, 계난 난 벗이 없어. 난 그런 아이덜하고 말도 아니 곧고, 계난 어른덜은 몰명 현 걸로 날 본 모양이라. (난 그런 거를, 난 그저 조금 공부에 소질 있었어. 이 제주도는 억울해 가지고 참, 고등학교만 갔어도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중학교, 애월 중학교에서 내가 톱으로 달렸었어요. 그 후에 무조건 스물한 살 되니까 육지 간 거지. 아무 연고도 없이. 서울 가고, 대구도 가고, 전국 인천, 부천 소산 있는 데도 가서 살았는데, 밥값을 못 해. 그때 오일륙 군사 혁명 때니까, 그러니까 억울해서 집에 와서, 할 수 없이 고향은 와 가지고, 난 취미가 책, 옛날 역사책 같은 것을 취미로 공부, 집에서도 책만 많았는데, 동네 우리 연배 사람들은 화투나 치고, 꿩 잡으러나 다니고, 노루 잡으러나 다니고 하더라고, 또 싸움판들만 하고, 그러니까 난 벗이 없어. 난 그런 아이들하고 말도 아니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시원찮은 걸로 날 본 모양이야.)

110008 @1 예.(예.)

110008 #1 우리 어른들은, 꽤에도 아이 멍기고, 계난 깡패가 으망진 거라. 아, 결혼을 허게 돼난, 스무세 살에 결혼을 허니까, 이건 도저히, 부모네가 딱 말경 이 집 살림을, 어디 외방 출타를 못 허커라.(우리 어른들은, 꽤에도 아니 다니고, 그러니까 깡패가 푹푹한 거라. 아, 결혼을 하게 되니까, 스무세 살에 결혼을 하니까, 이 건 도저히, 부모네가 딱 맡겨서 이집 살림을, 어디 외방 출타를 못 하겠어.)

110008 @1 음.(음.)

110008 #1 계난 므을 일이나 보자고, 므을 일을 가면게 실력도 싯곡, 우리만이 글 현 사름이 셔게? 우리 청년덜이 가면은, 나가 강 압장 성 헤 가난, 우리 므을 사 람들이 전체서, 본가 사름들이 나를, 그 당시에 최고로 젊을 때, 최고로 사름이라 고.(그러니까 마을 일이나 보자고, 마을 일을 가면 실력도 있고, 우리만이 글 한 사 람이 있어? 우리 청년들이 가면은, 나가 가서 앞장서서 헤 가니까, 우리 마을 사 람들이 전체서, 본가 사름들이 나를, 그 당시에 최고로 젊을 때, 최고로 사름이라고.)

110008 @1 예.(예.)

110008 #1 형님이라고 인정을 받으니까 므을 부락회, 청년회장도 허고, 동장도 허고, 이장까지 아니 해본 게 옅어. 한 아이가 경 큰대, 년 젊을 때는, 쓰무 남은 전 이는 병신이카부덴 헛고렌. 벗도 아니 허고, 놀래도 아니 텅기고, 그때 화투치고 아 주 나쁜 짓거리만 허더라고. 그때 젊은 아이들.(형님이라고 인정을 받으니까 마을 부락회, 청년회장도 하고, 동장도 하고, 이장까지 아니 해 본 게 없어. 한 아이가 그 령게 말하데, 년 젊을 때는, 스무 남은 전에는 병신인가 보다고 했다고. 벗도 아니 하고, 놀러도 아니 다니고, 그때 화투치고 아주 나쁜 짓거리만 허더라고. 그때 젊은 아이들.)

110033 @1 친구간이엔. 여기도 친구간 풍습이 잇지양?('친구간'이라고. 여기도 친구간 풍습이 잇지요?)

110033 #1 아이고, 싯고말고, 친구간이 대한 후 입춘 전 삼일이주게.(아이고, 잇 고말고, 친구간이 대한 후 입춘 전 삼일이지.)

110033 @1 예.(예.)

110033 #1 대한 잇잖여게. 대한, 십이월 이십이일인가? 대한이.(대한 잇잖아. 대 한, 십이월 이십이일인가? 대한이.)

110033 @1 예.(예.)

110033 #1 입춘 전 대한이 일주일간이라.(입춘 전 대한이 일주일간이야.)

110033 @1 예.(예.)

110033 #1 친구간이, 계난, 친구간이 잇는 것도 제주도만 잇는 풍습이여. 것도, 친구간이, 친구간에 이사도 허고, 제주시 ㄴ튼 디도 경 허여낫어. 친구간에만 이사 들.('친구간'이, 그러니까, '친구간'이 잇는 것도 제주도만 잇는 풍습이야. 것도, 친구 간이, '친구간'에 이사도 하고, 제주시 같은 데도 그렇게 했었어. '친구간'에만 이사 들.)

110033 @1 음.(음.)

110033 #1 그 친구간이엔 현 뜻이 새로 들어온 귀싯하고, 묵은 귀싯하고 교대허 는, 교체허는 그 사일이라. 인계인수 풍습이 그게 친구간이라. 일주일간. 그날은 그 때 뒤편은 집이 동티도 아니 난덴 허여. 변소 고쳐도, 친구간에 변소 고쳐도, 변소 가 옛날부터 제일 동티가 많이 난덴 허는디.(그 '친구간'이라고 하는 뜻이 새로 들 어온 귀싯하고, 묵은 귀싯하고 교대하는, 교체하는 그 사일이라. 인계인수 풍습이

그게 ‘신구간’이야. 일주일간. 그날은 그때 되면은 집에 동티도 아니 난다고 해. 변소 고쳐도, ‘신구간’에 변소 고쳐도, 변소가 옛날부터 제일 동티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110033 @1 음.(음.)

110033 #1 변소 ㄱ튼 것도 고치고, 신구간에 조상 이묘도 그때 내령 좋은덴 허고, 뭇 하건, 신구간 풍습이, 아마 지금까지도 신구간 거느려. 뭇 허젠 허민 신구간에 허켄덜 허여.(변소 같은 것도 고치고, ‘신구간’에 조상 이묘도 그때 내려서 좋다고 하고, 뭇 여러 가지, ‘신구간’ 풍습이, 아마 지금까지도 ‘신구간’ 들먹여. 뭇 하려고 하면 ‘신구간’에 하겠다고들 해.)

110033 @1 계난, 신구간에 통시 할망도 어디 가 불 때로구나양.(그러니까, 신구간에 화장실 할머니도 어디 가 버릴 때로군요.)

110033 #1 귀신이 엇어. 그때는.(귀신이 없어. 그때는.)

110033 @1 엇일 때난.(없을 때니까.)

110033 #1 거난, 새 귀신허고 묵은 귀신허고 교대허는 기간이 신구간이라. 묵은 귀신은 하늘에 오르고, 하늘에 새 귀신 내려오고 그게 신구간이주게.(그러니까, 새 귀신하고 묵은 귀신하고 교대하는 기간이 ‘신구간’이야. 묵은 귀신은 하늘에 오르고, 하늘에 새 귀신 내려오고 그게 ‘신구간’이지.)

110033 @1 시에 사는 아덜네도 신구간에 이사 험니까?(시에 사는 아덜네도 ‘신구간’에 이사 합니까?)

110033 #1 아, 그런 건 아니 허여.(아, 그런 건 아니 해.)

110033 @1 안 험수과?(안 험습니까?)

110033 #1 일절 날도 아니 봐. 몰라, 아파트 살당, 우성아파트 새로 산 살당, 지금 아라동에 완. 혼 오십 평 이상 되는.(일절 날도 아니 봐. 몰라, 아파트 살다가, 우성아파트 새로 산 살다가, 지금 아라동에 왔어. 한 오십 평 이상 되는.)

110033 @1 아이고.(아이고.)

110033 #1 큰 아파트. 계난에 우리 손지가 서이라.(큰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서이라.)

110033 @1 예.(예.)

110033 #1 계난 그것이 방 험나씩게.(그러니까 그것이 방 하나씩.)

110033 @1 아.(아.)

110033 #1 공부, 험나씩 허여 주고, 거 방이 네 개여야 돼어. 경 허여도, 하여튼 최고 재목을, 도지에 간 문딱 ㄱ져당 지엇젠 허는 아파트라. 막 비싸게 사서. 아라동에, 대학교수 아파트라고.(공부, 하나씩 해 주고, 거 방이 네 개여야 되어. 그렇게 해도, 하여튼 최고 재목을, 도지에 가서 모두 가져다가 지었다고 하는 아파트라. 막 비싸게 샀어. 아라동에, 대학교수 아파트라고.)

110033 @1 아, 예.(아, 예.)

110033 #1 우리 아덜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대학교 박사까지 험주마는 곧 줄

업행 선생을 헛주게. 학사장교로 갔다 왕 선생허고 메누리도 선생허난, 괜참애.(우리 아들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대학교 박사까지 했지마는 곧 졸업해서 선생을 했지. 학사장교로 갔다 와서 선생 하고, 며느리도 선생 하니까, 괜참아.)

110033 @1 음.(음.)

110033 #1 나도 좀 도와주고 허난, 경 헨애. 처음에는 곧 결혼허영 우성 아파트, 혼 삼십 평짜리 살단 그디서 야기 서이 난, 이젠 중학교 가게 돼 가난 방 하나씩 허젠 해 가난, 그디 막 널러.(나도 좀 도와주고 하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곧 결혼해서 우성 아파트, 한 삼십 평짜리 살다가 거기서 야기 서이 나서, 이젠 중학교 가게 돼 가니까 방 하나씩 하려고 해 가니까, 거기 막 넓어.)

110033 @1 옛날에 골목이라나신디, 새 길 난 디양.(옛날에 골목이었었는데, 새 길 난 데요.)

110033 #1 대학교수들만 헨애 아파트 허는, 아주 튼튼헌 아파트라.(대학교수들만 해서 아파트 하는, 아주 튼튼한 아파트야.)

110033 @1 친구간에 무신, 허라 허는 게. 곳사 이장, 이묘허는 거 허고, 도통 고치는 거.(친구간에 무슨, 하라 하는 게. 아까 이장, 이묘하는 거 하고, 돼지우리 고치는 거.)

110033 #1 집, 새 집 짓젠 해도 친구간에 기초 허고.(집, 새 집 지으려고 해도 '친구간'에 기초 하고.)

110033 @1 기초를, 아.(기초를, 아.)

110033 #1 택일 헐 때, 택일 허지 아니헤게?(택일 할 때, 택일 하지 않아?)

110033 @1 예.(예.)

110033 #1 새집덜, 친구간 그게 제일 좋덴 헤영 그때 허고.(새집들, '친구간' 그게 제일 좋다고 해서 그때 하고.)

2월

110009 @1 영등할망 그런 얘기 들어 봐수과? 건, 여기 산촌이라 부난 옛인가마 씬?('영등할망' 그런 얘기 들어 봤습니까? 건, 여기 산촌이라 버리니까 없는가요?)

110009 #1 무사, 영등할망.(왜, '영등할망'.)

110009 @1 영등곳.(‘영등곳’.)

110009 #1 영등곳, 영등할망.(‘영등곳’, ‘영등할망’.)

110009 #2 영등곳은, 저 해변 사름덜.(‘영등곳’은, 저 해변 사름들.)

110009 @1 해변 사름덜양.(해변 사름들요.)

110009 #1 해변 사름이나 허고, 배 부리는 사름이나 험니께.(해변 사름이나 하고, 배 부리는 사름이나 합니다.)

110009 @1 배 부리는 사름.(배 부리는 사름.)

110009 #2 예. 배 부리는 사름허고.(예. 배 부리는 사름하고.)

110009 #1 영등할망¹⁸⁵이 바다에서.(‘영등할망’이 바다에서.)

110009 #2 경 허난, 영등할망은 바다에서 배 부리는 사름허고, 해녀덜 그거, 바다에 제 드리는 거 아니꽈?(그러니까, ‘영등할망’은 바다에서 배 부리는 사람하고, 해녀들 그거, 바다에 제 드리는 거 아닙니까?)

110009 @1 계난, 여기 바당 엇어 부난에 그런 거.(그러니까, 여기 바다 없어 버리니까 그런 거.)

110009 #2 예. 우린 그런 거 모릅니다.(예. 우린 그런 거 모릅니다.)

3월

110011 @1 안 봐났구나양. 한식 멩질도 해났수과?(안 봤었군요. 한식 멩질도 했었습니까?)

110011 #1 나 알기론, 우리 집안은 단오 해난 건 알아지키여.(나 알기론, 우리 집안은 단오 했던 건 알겠어.)

5월

110015 @1 단오는 해나고양.(단오는 했었고요.)

110015 #1 단오 마치는 해가, 우리 집이서가 단오 아니 현 지가 지금 오십일 년 전에.(단오 마치는 해가, 우리 집에서가 단오 아니 한 지가 지금 오십일 년 전에.)

110015 @1 음.(음.)

110015 #1 마지막 잇어 불지 안힐 거여. 우리 할망도 잇주마는 우리 딸이 이제 쉰둘가, 그 딸이 단오날 낫어.(마지막 잇어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 집사람도 잇지 마는 우리 딸이 이제 쉰둘인가, 그 딸이 단오 날 낳았어.)

110015 @1 아.(아.)

110015 #1 바로 단오 날 난에. 그날 멩질 현 거, 뒷해부떠는 단오 멩질 설러 불연. 그뻐 허고.(바로 단오날 낳고. 그날 멩질 한 거, 다음해부터는 단오 멩질 끝내 버렸어. 그뻐 하고.)

110015 @1 아.(아.)

110015 #2 오십이 년 돼수다. 오십이 년.(오십이 년 됐습니다. 오십이 년.)

110015 @1 그뻐 멩질 헛구나양.(그뻐 멩질 했군요.)

110015 #1 그날, 난 날 멩질 허연.(그날, 낳은 날 멩질 했어.)

110015 @1 이 집이서 헛수과?(이 집에서 했습니까?)

110015 #1 아니, 우리 큰아버지네 집이서.(아니, 우리 큰아버지네 집에서.)

110015 @1 단오 멩질도 다른 멩질이나 마찬가지로 올리는 거 다.(단오 멩질도 다른 멩질이나 마찬가지로 올리는 거 다.)

110015 #1 꼭 ㄴ트게.(꼭 같게.)

110015 @1 똑같이양.(똑같이요.)

110015 #1 단오도 큰 멩질이랏주. 그때는.(단오도 큰 멩질이었지. 그때는.)

185) ‘영등할망’은 영등신이다. 음력 이월 일일에 입도하여 이월 십오일에 나간다고 하는 신의 이름이다.

110015 @1 조상들 다 출리고양.(조상들 다 차리고요.)

110015 #1 집집마다 먹으러 다니고.(집집마다 먹으러 다니고.)

110015 @1 아.(아.)

110015 #1 단오나 팔월 멧질이나 꼭 ㄱ타났주.(단오나 팔월 멧질이나 꼭 같았었지.)

110015 @1 계난, 으답 밧디 다.(그러니까, 여덟 군데 다.)

110015 #1 계계. 다 다니고, 일가칩이.(그렇지. 다 다니고, 일가집에.)

110015 @1 아, 경 헛수과?(아, 그렇게 했습니까?)

110015 #1 응. 단오도 경 헛주게. 꼭 ㄱ트게. 팔월 멧질허고, 경 허단에 갑자기 단오 흔 해, 두 해 더 헛 사름 아직까지 살아 있어. 두 해까지.(응. 단오도 그렇게 했지. 꼭 같게. 팔월 멧질하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단오 한 해, 두 해 더 한 사람 아직까지 살아 있어. 두 해까지.)

110015 @1 음.(음.)

110015 #1 두 해 더 헛 사름. 경 허단 딱 끊어 불언. 어느 집은 허염저. 아니 허염저 허단에 전부 끊어전. 단오, 우리는 우리 딸 나는 해가 단오 날 나난에, 그해 마지막으,로 단오 멧질 뒷해부떠 아니 해났주.(두 해 더 한 사람. 그렇게 하다가 딱 끊어 버렸어. 어느 집은 하고 있다. 아니 하고 있다 하다가 전부 끊어졌어. 단오, 우리는 우리 딸 나는 해가 단오 날 낳았으니까, 그해 마지막으로, 단오 멧질 다음해부터 아니 했었지.)

110015 @1 육십팔 년생이파? 쉰들이민 육십구년생?(육십팔 년생입니까? 쉰들이면 육십구년생?)

110015 #1 육십구 년생.(육십구 년생.)

110015 @1 거난, 육십구 년ㄱ장은 단오를.(그러니까, 육십구 년까지는 단오를.)

110015 #1 아니, 육십구 년ㄱ장은 단오 허고.(아니, 육십구 년까지는 단오 하고.)

110015 @1 단오 허고.(단오 하고.)

110015 #1 그 뒷해부떠는 끊어 불언.(그 다음해부터는 끊어 버렸어.)

110015 @1 칠십년대부떠는 끊언양. 게메 나도 초등학교 때 단오 멧질 해연에 학교 가난 거 닳아. 멧질 먹어 아전 학교 간 거 닳아.(칠십년 대부터는 끊었어요. 글썽 나도 초등학교 때 단오 멧질 해서 학교 갔던 거 같아. 멧질 먹어 가지고 학교 간 거 같아.)

110015 #1 우리 집은 잊어 불지도 안허게. 우리 딸 나난, 단오날 나난에, 음력 오월 오일 아니라?(우리 집은 잊어 버리지도 않게. 우리 딸 낳으니까, 단오 날 낳았으니까, 음력 오월 오일 아니라?)

110015 @1 음.(음.)

110015 #1 그날 나난 그 뒷해부떠 아니 허더라고, 단오 멧질. 집안에서.(그날 낳으니까 그 다음해부터 아니 하더라고, 단오 멧질. 집안에서.)

110012 @1 청명에는 무시거 헌덴 험니까?(청명에는 뭐 한다고 합니까?)

110012 #1 한식, 청명은.(한식, 청명은.)

110012 @1 한식, 청명에.(한식, 청명에.)

110012 #1 거, 한식 청명에는, 아무 것도.(거, 한식 청명에는, 아무 것도.)

110012 #2 거, 산에, 떼 벗어지면은 떼 허곡 허는.(거, 산에, 떼 벗겨지면은 떼 하고 하는.)

110012 #1 떼 하고, 청명에, 청명 날 가서 떼 올리곡.(떼 하고, 청명에, 청명 날 가서 떼 올리고.)

110012 @1 떼 올리곡.(떼 올리고.)

110012 #1 산에 별초 비슷하게 깨끗이 정돈하고, 청명 날 가근에.(산에 별초 비슷하게 깨끗이 정돈하고, 청명 날 가서.)

110012 @1 청명 날예.(청명 날요.)

110012 #1 계난개, 한식, 청명이라고, 스월 오일 휴무일달이주게. 그날이.(그러니까, 한식, 청명이라고, 사월 오일 휴무일들이지. 그날이.)

110012 @1 예. 딱 그때쯤이다양.(예. 딱 그때쯤이네요.)

110012 #2 스월 오일, 스월 육일.(사월 오일, 사월 육일.)

110012 #1 그제 청명이라. 그제.(그제 청명이라. 그제.)

110012 @1 음.(음.)

110012 #1 한식 다음 청명.(한식 다음 청명.)

4월

110013 @1 초파일날 어디, 가고 해낫수과?(초파일날 어디, 가고 했었습니까?)

110013 #2 초파일은 건, 법당에 데니는 날이 초파일이주.(초파일은 건, 법당에 다니는 날이 초파일이지.)

110013 @1 거난, 어디, 절엔 안 가 봐수과?(그러니까, 어디, 절엔 안 가 봤습니까?)

110013 #1 우리 집은 이디 아래 금천사라고 그, 절이 잇었어. 하나.(우리 집은 여기 아래 금천사라고 그, 절이 있었어. 하나.)

110013 @1 예.(예.)

110013 #1 이 동네 사람은 다 다니당 그때 아이 다니고, 우리 집에는 절에는 가 입 아니 허여. 가입을 해야 되어 절에 가젠 허민.(이 동네 사람은 다 다니다가 그때 아니 다니고, 우리 집에는, 절에는 가입 아니 해. 가입을 해야 되어. 절에 가려고 하면.)

110013 @1 음.(음.)

110013 #1 신도로 가입을 해야 돼.(신도로 가입을 해야 돼.)

110016 @1 예예. 단오 멩질이 얼마 전에 지난 거 아니파양. 유월 달에, 양력 유월에. 음력 오월이난에양.(예예. 단오 멩질이 얼마 전에 지난 거 아닙니까. 유월 달에, 양력 유월에. 음력 오월이니까.)

110016 #1 맞아. 얼마전에 윤달 서 부난 요적이 지났주게.(맞아. 얼마 전에 윤달 있어 버리니까 요번에 지났지.)

110016 @1 그때쯤에, 단오 멧질쯤에 망종이 잇지 안허파양? 망종에 무슨 저.(그때쯤에, 단오 멧질쯤에 망종이 잇지 않습니까? 망종에 무슨 저.)

110016 #1 망종은 절기게.(망종은 절기.)

110016 @1 절긴데. 검질 관련 해 가지고.(절긴데. 김 관련 해 가지고.)

110016 #1 아니, 아니. 망종은 옛날에 보리체시¹⁸⁶.(아니, 아니. 망종은 옛날에 ‘보리체시’.)

110016 #2 보리 헐 때에.(보리 할 때에.)

110016 #1 ‘보리체시’엔 해 가지고.(‘보리체시’라고 해 가지고.)

110016 @1 보리체시.(‘보리체시’.)

110016 #1 보리가 망종엔 다 익어 분다.(보리가 망종엔 다 익어 버린.)

110016 @1 음.(음.)

110016 #1 보리체시엔 허주 망종이.(‘보리체시’라고 하지. 망종이.)

110016 @1 아, 보리체시.(아, ‘보리체시’.)

110016 #1 보리를 다 익게 허는 게, 망종 날이민 다 익나. 보리체시엔 허여.(보리를 다 익게 하는 게, 망종 날이면 다 익는다. 보리체시라고 해.)

110016 @1 게민, 그 전이 보릴 비엄구나양.(그러면, 그 전에 보릴 베고 있군요.)

110016 #1 하여튼, 망종 뒤편은 보리가 다 익어. 옛날엔 주곡으로 보리만 갈 때엔.(하여튼, 망종 뒤편은 보리가 다 익어. 옛날엔 주곡으로 보리만 갈 때엔.)

110016 @1 보리체시.(‘보리체시’.)

110016 #1 보리체시엔 허영, 망종.(‘보리체시’라고 해서. 망종.)

110016 @1 하지에 관련 해 가지고 뭐 엇우과? 농사짓는 디.(하지에 관련 해 가지고 뭐 없습니까? 농사짓는 데.)

110016 #1 하지, 유월절?(하지, 유월절?)

110016 @1 예.(예.)

110016 #1 게, 농사짓는 디가 옛날부터 유월절에, 하여튼 장마가 유월절에 가 불면은 최고 풍년이 돼어나신디, 유월절 전에 농스를 마쳐야 돼. 유월절이 마지막 절기주게. 하간 거 농사짓는, 콩이건, 조건, 농사허는 건.(거, 농사짓는 데가 옛날부터 유월절에, 하여튼 장마가 유월절에 가 버리면은 최고 풍년이 되었었는데, 유월절 전에 농사를 마쳐야 돼. 유월절이 마지막 절기지. 여러 가지 농사짓는, 콩이건, 조건, 농사하는 건.)

110016 @1 음.(음.)

110016 #1 유월절 전에 다 마쳐야 돼어.(유월절 전에 다 마쳐야 돼어.)

110016 @1 거난, 지금 콩도 다 갈았지양?(그러니까, 지금 콩도 다 갈았지요?)

110016 #1 음. 다 갈안.(음. 다 갈았어.)

186) ‘보리체시’는 보리 농사가 끝나는 망종을 이르는 말로 ‘체시’는 저승사자를 뜻하는 제주어다.

110016 @1 조도 다 간 철이파?(조도 다 간 차례입니까?)

110016 #1 조는 이제 안 갈아.(조는 이제 안 갈아.)

110016 @1 아니, 계난, 헌텐 허민. 만약에.(아니,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만약에.)

110016 #1 지금 칠월 칠일 날 아니라? 그 전이.(지금 칠월 칠일 날 아니라. 그 전에.)

110016 @1 그 전이 다 마쳐야 헌텐 말이구나양.(그 전에 다 마쳐야 한다는 말이군요.)

110016 #1 그 전이 다 마쳐야 돼. 유월절이라고, 하지.(그 전에 다 마쳐야 돼. 유월절이라고, 하지.)

110016 @1 콩이여. 조여. 다.(콩이다. 조다. 다.)

110016 #1 농사를 그때 전이 다 마쳐야 농사가 된다는 거라.(농사를 그때 전에 다 마쳐야 농사가 된다는 거야.)

110016 @1 놈삐 썬 언제 뿌릅니까? 이제 흥끔 있어야.(무 썬 언제 뿌릅니까? 이제 조금 있어야.)

110016 #1 무?(무?)

110016 @1 예.(예.)

110016 #1 무는, 아, 무는 팔월.(무는, 아, 무는 팔월.)

110016 @1 팔월에.(팔월에.)

110016 #1 양력 팔월.(양력 팔월.)

110016 @1 양력 팔월.(양력 팔월.)

110016 #1 혼 이십일 경에. 전도적으로 그때 다 심어.(한 이십일 경에. 전도적으로 그때 다 심어.)

110016 @1 그때.(그때.)

110016 #2 양배추 싱글 때 다 합니다.(양배추 심을 때 다 합니다.)

110016 #1 팔월 이십일 경에.(팔월 이십일 경에.)

110016 @1 아, 양배추 싱글 때.(아, 양배추 심을 때.)

110016 #1 꼭 ㄱ찌 싱겨.(꼭 같이 심어.)

110016 #2 양배추 뽑을 때 것도 뽑읍니다.(양배추 뽑을 때 그것도 뽑습니다.)

110016 #1 구좌, 조천 저레도 더 무가 많주게. 저 동더레. 이디도 장사, 상인이 있어. 무, 선과 행 올리는 사람. 그때 계약제로 행 문, 팔월 이십일 경에 전부 싱그렌 허고.(구좌, 조천 저쪽에도 더 무가 많지. 저 동쪽에. 여기도 장사, 상인이 있어. 무, 선과 해서 올리는 사람. 그때 계약제로 해서 모두, 팔월 이십일 경에 전부 심으라고 하고.)

6월

110017 @1 음력 유월 이십일이파? 득 잡아먹는 날이?(음력 유월 이십일입니까?)

닭 잡아먹는 날이?)

110017 #2 유월 스무날.(유월 스무날.)

110017 @1 유월 스무날?(유월 스무날?)

110017 #2 예. 유월 스무날.(예. 유월 스무날.)

110017 @1 음력이짜?(음력입니까?)

110017 #2 예. 옛날 유월 스무날 득 잡아먹는 날.(예. 옛날 유월 스무날 닭 잡아먹는 날.)

110017 #1 유월 스무날이 득 잡아먹는 날이다. 그날이 고양이 코가 멘도롱흔텐 허메.(유월 스무날이 닭 잡아먹는 날인데. 그날이 고양이 코가 따뜻해진다고 해.)

110017 @1 고양이 코가 멘도롱흔텐 허는 날이?(고양이 코가 따뜻해진다고 하는 날이?)

110017 #1 질 더운 날이 그날.(제일 더운 날이 그날.)

110017 @1 켈 더운 날.(제일 더운 날.)

110017 #1 음. 고양이 코가 멘도롱흔텐 말이 있어. 유월 스무날 돼민. 그날은 고양이 코도 멘도롱흔다 허여.(음. 고양이 코가 따뜻하다는 말이 있어. 유월 스무날 되면. 그날은 고양이 코도 따뜻해진다 해.)

110017 @1 경 더울 때난애.(그렇게 더울 때니까.)

110017 #1 경허는 옛말이, 득 잡아먹영 보신을 허라 허는 말이주.(그러는 옛말이, 닭 잡아먹고 보신을 하라 하는 말이지.)

110017 @1 힘내라.(힘내라.)

110017 #1 득 잡아먹는 날로 돌아났어 옛날은, 그날 고양이 코도 멘도롱흔 날, 득 잡아먹는 날.(닭 잡아먹는 날로 말했었어. 옛날은, 그날 고양이 코도 따뜻해지는 날, 닭 잡아먹는 날.)

110017 @1 유월 스무날이민 양력으로 칠월 이십 며칠 켈 거난양?(유월 스무날이면 양력으로 칠월 이십 며칠 될 거니까요?)

110017 #1 초복, 중복, 말복.(초복, 중복, 말복.)

110017 @1 음.(음.)

110017 #1 삼복더위가 그쯤이주.(삼복더위가 그쯤이지.)

110017 @1 그때가 초복?(그때가 초복?)

110017 #1 삼복 사이라 유월 스무날이.(삼복 사이라 유월 스무날이.)

110017 @1 예예.(예예.)

110017 #1 케난, 그때가 최고 더운 때주. 유월 스무날이, 고양이 코가 멘도롱흔텐 말이라. 고양이 코가 썬헨 생이라.(그러니까, 그때가 최고 더운 때지. 유월 스무날이, 고양이 코가 따뜻해진다는 말이야. 고양이 코가 차가운 모양이야.)

110017 @1 (웃음).((웃음).)

110017 #1 그런 말이 있어. 고양이 코도 멘도롱흔다 허여. 그날은.(그런 말이 있어. 고양이 코도 따뜻해진다고 해. 그날은.)

110017 @1 득만 잡아먹고 허는 게 아니라, 개도 잡아먹고 헛수과?(닭만 잡아먹고 하는 게 아니라, 개도 잡아먹고 했습니까?)

110017 #1 아니.(아니.)

110017 @1 안 허고.(안 허고.)

110017 #1 개는 아이 먹어. 이 동네 사름덜.(개는 아니 먹어. 이 동네 사름들.)

110017 @1 아.(아.)

110017 #1 별로 잡는 사름은, 먹는 사름은 저디 한림 ㄱ튼 사름도 잇주마는, 보통 개는 재수 엇덴 아이 먹어.(별로 잡는 사름은, 먹는 사름은 저기 한림 같은 사름도 잇지마는, 보통 개는 재수 없다고 해서 아니 먹어.)

110017 @1 아니 먹고, 봉성리 동네에서는.(아니 먹고, 봉성리 동네에서는.)

110017 #1 먹는 사름도 있어. 잇주마는.(먹는 사름도 있어. 잇지마는.)

110017 @1 요새 어디 강, 식당에서 강 먹는 거고.(요새 어디 가서, 식당에서 가서 먹는 거고.)

110017 #1 식당에서 먹지.(식당에서 먹지.)

110017 @1 잡아먹진 안헤낫구나양.(잡아먹진 았앗었군요.)

110017 #1 잡양 먹지 안허여. 옛날에 개 잡아먹는 사름덜토 잇어난 거 같아 웨다. 건디 거 재수 없넌 허영.(잡아서 먹지 았아. 옛날에 개 잡아먹는 사름들도 잇었던 거 같아 보인다. 그런데 거 재수 없다고 해서.)

110017 @1 음. 재수 엇덴 허영.(음. 재수 없다고 해서.)

110017 #1 양반이 집에선 아니 먹어났주게. 몰도 경 허고.(양반이 집에선 아니 먹었었지. 말도 그렇게 하고.)

7월

110020 @1 절에 안 다니민 칠월칠석날도 무시거 더 안험구나양?(절에 안 다니면 칠월칠석날도 뭐 더 안 하는군요?)

110020 #2 칠월칠석날, 스월 초파일, 칠월칠석.(칠월칠석날, 사월 초파일, 칠월칠석.)

110021 #1 백중이라고 허는 말 들어난?(백중이라고 하는 말 들었었어?)

110021 @1 예.(예.)

110021 #1 백중. 칠월 음력으로 열나흘 날. 백중이렌 현 건 사름 이름이라. 백중이.(백중. 칠월 음력으로 열나흘 날. 백중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라. 백중이.)

110021 @1 아.(아.)

110021 #1 옛날 장남, 쉼 모는 장남인디 백중이, 쉼을 따라다니단 더위 먹영 죽은 모양이여.(옛날 장정, 소 모는 장정인데 백중이, 소를 따라다니다가 더위 먹어서 죽은 모양이야.)

110021 @1 아.(아.)

110021 #1 장남이, 계난에, 칠월에, 그날에 죽으난, 칠월 열나흘 날.(장정이, 그

러니까, 칠월에, 그날에 죽으니까, 칠월 열나흘 날.)

110021 @1 예예.(예예.)

110021 #1 그 날에 죽으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쉼 질르는 사름덜이.(그 날에 죽으니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소 기르는 사름덜이.)

110021 @1 예.(예.)

110021 #1 그날, 장남안티 제를 허는 거라. 그 장남. 백중안티.(그날, 장정한테 제를 하는 거라. 그 장정. 백중한테.)

110021 @1 아.(아.)

110021 #1 지금도 허여. 저 봉성 사람들은 저 켜이오름에 소이터엔 현 디.(지금도 해. 저 봉성 사람들은 저, ‘켜이오름’에 ‘소이터’라고 하는 데.)

110021 @1 예.(예.)

110021 #1 백중날도 세 시에, 새로 두 시에 강 제를 지내주게. 밤.(백중날도 세 시에, 새로 두 시에 가서 제를 지내지. 밤.)

110021 @1 새벽.(새벽.)

110021 #1 새벽 세시에 강, 즈물어 가민덜 제물들 지영, 지금 거기가 현 칠 키로 쉼 거여.(새벽 세시에 가서, 저물어 가면들 제물들 지어서, 지금 거기가 한 칠 킬로 쉼 거야.)

110021 @1 예.(예.)

110021 #1 아, 칠팔 키로가 뭐야, 현 십이 키로 뉘어. 저 켜이오름.(아, 칠팔 킬로가 뭐야, 한 십이 킬로 뉘어. 저 ‘켜이오름’.)

110021 @1 예예.(예예.)

110021 #1 소이터엔 현 디 그디 강, 밤 살당 세시 뉘민 제 지냉 와. 쉼 질르는 사름덜. 이 동네도 현 서너 사름이 가고, 우린 그디 쉼 아이 질러난 아이 거주마는, 건 옛날에 조상들이 쉼 질러난 사름.(‘소이터’라고 하는 데, 거기 가서, 밤 살다가 세시 되면 제 지내고 와. 소 기르는 사름들. 이 동네도 한 서너 사름이 가고, 우린 거기 소 아니 기르니까 아니 가지마는, 건 옛날에 조상들이 소 길렀던 사름.)

110021 @1 음.(음.)

110021 #1 겐, 꼭 강 허더라고, 백중.(그래서, 꼭 가서 하더라고, 백중.)

110021 @1 아, 지금도 경 가마썸?(아, 지금도 그렇게 가요?)

110021 #1 예. 소이터엔 현 디. 그 물 나는 디가 있어. 그디 강 제 지내여. 그디 가 보면은 흰히 알아져. 제 지내는 거 음식도 허영.(예. ‘소이터’라고 하는 데. 그 물 나는 데가 있어. 거기 가서 제 지내. 거기 가 보면은 흰히 알아져. 제 지내는 거. 음식도 해서.)

110021 @1 음.(음.)

110021 #1 혼꼴이엔 현 디도 경 허고.(‘혼꼴’이라고 하는 데도 그렇게 하고.)

110021 @1 어디마썸?(어디요?)

110021 #1 혼꼴.(‘혼꼴’.)

110021 @1 혼꿀?('혼꿀')

110021 #1 혼꿀, 저 바리메 읍에, 새로 길, 옛날에 혼꿀 물 수도로 다 먹었지.
('혼꿀', 저 '바리메' 옆에, 새로 길, 옛날에 '혼꿀' 물 수도로 다 먹었지.)

110021 @1 예.(예.)

110021 #1 어승생 물 허기 전이. 혼꿀 물 녹용수가 다 이디도, 지금도 그 혼꿀 물도, 옛날에는 그 혼꿀이엔 현 디가 생수 나는 곳이라. 생수 나는 곳인데 워정 때에 일본놈들이 잘 정리헐에 수도를 만들었더라고.('어승생' 물 허기 전이. '혼꿀' 물 녹용수가 다 여기도, 지금도 그 '혼꿀' 물도, 옛날에는 그 '혼'꿀이라고 하는 데가 생수 나는 곳이야. 생수 나는 곳인데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놈들이 잘 정리해서 수도를 만들었더라고.)

110021 @1 예.(예.)

110021 #1 경 현디 막 ㄱ물 때 잇잖아이. 막 한기 들엉 농스가 아니 웨영. 으름에 막 물을 때엔 거기 강, 혼꿀 강 기우제를 허여. 물 나는 구멍이 이신 모양이라. (그런데 막 가물 때 잇잖아. 막 한기 들어서 농사가 아니 되어서. 여름에 막 마를 때엔 거기 가서, 혼꿀 가서 기우제를 해. 물 나는 구멍이 있는 모양이야.)

110021 @1 예.(예.)

110021 #1 계난 이 동네 옛날 하르방, 혼 하르방, 그 구멍에 제 지냉, 기우제 헤영 허민 비가 와나고 허여난 거. 혼꿀.(그러니까 이 동네 옛날 할아버지, 한 할아버지, 그 구멍에 제 지내서, 기우제 해서 하면 비가 왔었고 했던 거. '혼꿀'.)

110021 @1 그디도 강, 백중 날 강.(거기도 가서, 백중 날 가서.)

110021 #1 지금은 무당덜이 그디 강 막 굻허여. 혼꿀.(지금은 무당들이 거기 가서 막 굻해. '혼꿀'.)

110021 @1 계난, 백중 날 췌 질르는 사름덜.(그러니까 백중 날 소 기르는 사람들.)

110021 #1 응. 췌 질르는 사름덜. 백중이엔 현 계 옛날 장남 이름이.(응. 소 기르는 사람들. 백중이라고 하는 계 옛날 장정 이름이.)

110021 @1 음.(음.)

110021 #1 목동 아니라게? 목동인디, 그 사름 이름이 백중이란 그런 말이 들언, 옛날부터 들언, 사름 이름이라고 백중, 아이 장남이.(목동 아니라? 목동인데, 그 사름 이름이 백중이란 그런 말이 들었어, 옛날부터 들었어, 사름 이름이라고 백중, 아니 장정이.)

110022 @1 더울 때 모리찜질 허레는 안 가 봐수과?(더울 때 모래찜질 하러는 안 가 봤습니까?)

110022 #1 아이 가 봤. 일절 아이 가 봤.(아니 가 봤어. 일절 아니 가 봤어.)

110023@1 바당 예염이 아니라 부난. 물 맞으러 안 가났수과? 백중 때.(바다 옆이 아니라 버리니까. 물 맞으러 안 갔었습니까? 백중 때.)

110023 #1 물 맞으러도 아이 가고, 우리 자동차도 엇곡 허난 그런디 다니지도

아니하고.(물 맞으려도 아니 가고, 우리 자동차도 없고 하니까 그런 데 다니지도 않고.)

110023 @1 예. 바당허고 멀어 놓으난.(예. 바당하고 멀어 놓으니까.)

110023 #1 나, 학교 데닐 때 애월중학교서 걸영오당 매날 그 으름엔 그찌 모래판에 강 모옥 헤낫주.(나, 학교 다닐 때 애월중학교서 걸어오다가 매일 그 여름엔 같이 모래판에 가서 목욕 했었지.)

110023 @1 음.(음.)

110023 #1 한담¹⁸⁷⁾허고.(한담하고.)

8월

110025 @1 벌초는 팔월 초흐를 날 그자, 쪽 헛수과?(벌초는 팔월 초하룻날 그저, 죽 했습니까?)

110025 #1 옛날부터 벌초 허는 날이 팔월 초흐를 날인디 팔월 명질 전이 허젠 허면은, 요즘도 공동 벌초는 팔월 초흐를 날 허는 모양이라.(옛날부터 벌초 하는 날이 팔월 초하룻날인데 팔월 명질 전에 하려고 하면은, 요즘도 공동 벌초는 팔월 초하룻날 하는 모양이야.)

110025 @1 예.(예.)

110025 #1 거 집안 벌초는 집안끼리 아무나 허고, 우리 집이도 아무나 허고.(거 집안 벌초는 집안끼리 아무나 하고, 우리 집에서도 아무나 하고.)

110025 @1 날 안 뵤양.(날 안 뵤서요.)

110025 #1 공동, 모뎀 벌초라는 게 잇주게.(공동 모뎀 벌초라는 게 있지.)

110025 @1 예.(예.)

110025 #1 팔구 대 산들. 그날은 팔월 초흐를 날 켤당덜 다 가고.(팔구 대 산들. 그날은 팔월 초하룻날 켤당들 다 가고.)

110025 @1 요센 벌초 기계 시난 현디 옛날엔 무시걸로 헛수과?(요센 벌초 기계 없으니까 하는데 옛날엔 무엇으로 했습니까?)

110025 #1 기계 엇으난, 호미로 다 헛주게.(기계 없으니까, 낫으로 다 했지.)

110025 @1 호미로.(낫으로.)

110025 #1 우리 벌초를 혼 오일 간 헤낫어.(우리 벌초를 한 오일 간 했었어.)

110025 @1 오일 간.(오일 간.)

110025 #1 오일 간 벌초를. 걸영 데니멍. 왜 그러냐 허면은 아이, 나 벌초엔 허민 지긋지긋 허여. 그때 육이오사변, 스삼사건 땀디 그 군인덜이 다 우리 켤당덜 가고, 남은 게 우리 할아버지허고 나허고 우리 아버지라. 그것이 고조⁷장 벌초를 허여. 서이가.(오일 간 벌초를. 걸어다니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아이, 나 벌초라고 하면 지긋지긋해. 그때 육이오사변, 사삼사건 땀디 그 군인들이 다 우리 켤당 가고, 남은 게 우리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우리 아버지라. 그것이 고조까지 벌초를 해. 서

187) '한담'은 제주시 애월읍의 해안가 지명이다.

이가.)

110025 @1 예.(예.)

110025 #1 산 흔 여남은 자리를, 그게 걸엉, 흔 십 키로 잇이민 저레 강 허고, 하루 세 자릴 더 못 허여.(묘 한 여남은 자리를, 그게 걸어서, 한 십 킬로 있으면 저리 가서 하고, 하루 세 자릴 더 못 해.)

110025 @1 음.(음.)

110025 #1 걸엉 텅이저. 망텅이 밥, 경허민 난 어릴 때부떠게 열댓 설 나난 ㄱ 쨌덜 쫓아 텅겨주게. 아이고, 배고프고 지긋지긋허여. 내 흔 대여섯 설 때부터 쫓아 다년.(걸어 다니랴. 망태기 밥, 그러면 난 어릴 때부터 열댓 살 나니까 같이들 따라 다녔지. 아이고, 배고프고 지긋지긋해. 내 한 대여섯 살 때부터 따라 다녔어.)

110025 @1 아.(아.)

110025 #1 아버지허고, 나머진 다 군인 가 부난게. 젊은 사름덜, 죽어 불고, 군인 가 불고, 게난게 우리 서이가, 하르버지, 아버지, 서이가 흔 삼스오 일을 벌초허레 다녀서. 호미로.(아버지하고, 나머진 다 군인 가 버리니까. 젊은 사름들, 죽어 버리고, 군인 가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서이가, 할아버지, 아버지, 서이가 한 삼사오 일을 벌초하러 다녔어. 낫으로.)

110025 #2 이제덜은 벌초 좋게 허주.(이제들은 벌초 좋게 하지.)

110025 #1 아이고, 나 그때 그 생각허면.(아이고, 나 그때 그 생각하면.)

110025 #2 원, 산덜 문딱 흔빳디 메왓주마는.(원, 산들 모두 한군데 모았지마는.)

110025 @1 아.(아.)

110025 #2 옛날은 좋은 산 보고 험이엔.(옛날은 좋은 산 보고 함이라고.)

110025 #1 요디 흔 십오 키로 웬 디 강 식곡, 막 드문, 하루 세 자리, 네 자리 더 못 허주게.(요기 한 십오 킬로 된 데 가서 있고, 막 드문, 하루 세 자리, 네 자리 더 못 하지.)

110025 @1 멀어도 거, 좋은 자리 간에 산 쓰난 잘뵈지 안헛수과?(멀어도 거, 좋은 자리 가서 산 쓰니까 잘뵈지 않았습니까?)

110025 #1 아이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까장 영 보면은 집안에 흥망이 산으로 만 알아.(아이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까지 이렇게 보면은 집안의 흥망이 산으로 만 알아.)

110025 @1 예.(예.)

110025 #1 우리 아버지 때덜은, 이기 제일 그것에, 조상 묘에 관심 둔 분이 문○○이네 아방이라. 동네선.(우리 아버지 때들은, 여기 제일 그것에, 조상 묘에 관심 둔 분이 문○○이네 아버지야. 동네선.)

110025 @1 예.(예.)

110025 #1 그분은 그자 드러 데니명 묘만, 조상 묘만 일 년에 네 번씩 천릴 허여. 천리를.(그분은 그저 줄곧 다니면서 묘만, 조상 묘만 일 년에 네 번씩 이장을 해. 이장을.)

110025 @1 아.(아.)

110025 #1 경 허더라고 그 하르방이, 경 허난, ○○이네가 잘땀신고라. 거기가
흔 오 형젤 거라. ○○이네, 그 ○○이 아방이 문○○이엔 헤 가지고 하여튼 조상,
산만 보레 다녀.(그렇게 허더라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이네가 잘되
고 있는 건지. 거기가 한 오 형젤 거라. ○○이네, 그 ○○이 아방이 문○○이라고
헤 가지고 하여튼 조상 묘만 보러 다녀.)

110025 @2 하긴, 자기도 좋은 땅에 강 묻혀십주게.(하긴, 자기도 좋은 땅에 가
서 묻혔지요.)

110025 @1 가족묘지 말아 다른 디.(가족묘지 말고 다른 데.)

110025 #1 가족묘지 해서.(가족묘지 했어.)

110025 @2 아니우다. 가족묘지 말앙 다른 디.(아닙니다. 가족묘지 말고 다른
데.)

110025 #1 안 허연?(안 했어?)

110025 @2 예.(예.)

110025 #1 아, 흘축밭디 강 헛저.(아, ‘흘축밭’에 가서 했다.)

110025 @1 흘축밭디.(‘흘축밭’에.)

110025 #1 흘축밭디 강 묻엇저. 좋은 땅 반에.(‘흘축밭’에 가서 묻었다. 좋은 땅
봐서.)

110025 @1 미리 반 놔뒀다예.(미리 봐 놔뒀네요.)

110025 #1 미리 빵 놔뒀에.(미리 봐 놔뒀서.)

110025 @1 나 요디 묻으라 허연에.(나 요기 물어라 해서.)

110025 #1 흘축밭에 가서, 그 이장 터, 이장 터라. 좋은 이장 터.(‘흘축밭’에 가
서, 그 이장 터, 이장 터야. 좋은 이장 터.)

110025 @1 아.(아.)

110025 #1 하여튼 그 하르방, 조상 묘 최고 잘 다니는 하르방.(하여튼 그 할아버
지, 조상 묘 최고 잘 다니는 할아버지.)

110026 @1 팔월 멧질도 그자 정월 멧질이나 단오나 마찬가지로 해 부난 뒤.(팔
월 멧질도 그자 정월 멧질이나 단오나 마찬가지로 해 버리니까 뒤.)

110026 #1 예.(예.)

110026 #2 멧질은 똑ㄴ뚝니다게. 똑ㄴ타.(멧질은 똑같습디다. 똑같아.)

110026 @1 으답밧디 돌아가멍 허고양.(여덟 군데 돌아가면서 하고요.)

110026 #2 이제 다 그자 이녁만씩들 헤 먹으난 그거주.(이제 다 그자 이녁 만씩
들 헤 먹으니까 그거지.)

110026 #1 팔촌, 고조, 우리 아버지까지 작은아덜까지, 팔촌네는 전부 한림 살아
부니까, 멧질을 ㄴ찌 먹단, 가난 끊엇단에, 우리는 중손네 전부 일본 간, 후손덜이
전부 일본 가 부난.(팔촌, 고조, 우리 아버지까지 작은아들까지, 팔촌네는 전부 한림
살아 버리니까, 멧질을 같이 먹다가, 가니까 끊엇다가, 우리는 중손네 전부 일본 가

서, 후손들이 전부 일본 가 버리니까.)

110026 @1 음.(음.)

110026 #1 지금도 일본 가도, 에이고, 그렇게 똑똑한 사름덜인디 우리 종손네가 나영 육촌인디, 육촌 팔촌, 거 어떻게 보니까 조총련에 다 들었더라고.(지금도 일본 가도, 에이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우리 종손네가. 나와 육촌인데, 육촌, 팔촌, 거 어떻게 보니까 조총련에 다 들었더라고.)

110026 @1 아.(아.)

110026 #1 조총련에, 조총련 학교 갔던 모양이라. 일본에 그 선생이라. 거난 즈손들이 엄청 많이 살았주마는 일절 고향, 종손이 경 해 붙어. 종손이.(조총련에, 조총련 학교 갔던 모양이라. 일본에 그 선생이라. 그러니까 자손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지마는 일절 고향, 종손이 그렇게 해 버려. 종손이.)

110026 @1 음.(음.)

110026 #1 조총련 들어가부난, 즈손덜토 일절 한국 아니 와. 조총련 들어가지고, 경 웨었어. 게난, 우리 아버지 손들만 살았주게. 문딱 일본 간 조총련에 들어가부난.(조총련 들어가버리니까, 자손들도 일절 한국 아니 와. 조총련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손들만 살고 있지. 모두 일본 가서 조총련에 들어가버리니까.)

9월

110028 @1 백로 상강 전이 무시거 헌덴 허지 안헐니까? 농사에 관련해 가지고.(백로 상강 전에 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사에 관련해 가지고.)

110028 #1 상강일은 시월 전, 음력으로 구월 전인가? 상강, 건 ㄱ를 चे시. (상강일은 시월 전, 음력으로 구월 전인가? 상강, 건 가을 차사.)

110028 @1 ㄱ를 चे시?(가을 차사?)

110028 #1 망종은 보리 चे시.(망종은 보리 차사.)

110028 @1 보리 चे시.(보리 차사.)

110028 #1 상강은, 상강일 넘으면은 조고 뒤이고 다 끝나. 다 익어 붙어, 경 해 낫어. 옛날은, 상강일.(상강은, 상강일 넘으면은 조고 뒤고 다 끝나. 다 익어 버려. 그랬었어. 옛날은, 상강일.)

11월

110030 @1 동지 팥죽 썬 먹어났지양?(동지 팥죽 썬 먹었었지요?)

110030 #1 팥죽이사게 동짓날은 팥죽을 좋아해 가지고, 지금도 동짓날은 팥죽 썬 먹어. 집에서.(팥죽이야 동짓날은 팥죽을 좋아해 가지고, 지금도 동짓날은 팥죽 썬 먹어. 집에서.)

110030 @1 무사, 동짓날 팥죽 썬 먹습니까?(왜, 동짓날 팥죽 썬 먹습니까?)

110030 #1 거, 저, 액막이게. 그 팥이.(거, 저, 액막이. 그 팥이.)

110030 @1 예.(예.)

110030 #1 귀신을 좇으는 거라.(귀신을 쫓는 거야.)

110030 @1 예.(예.)

110030 #1 풋이. 계난, 풋죽을 썬 먹으면은 귀신이, 잡귀가 안 들어온다는 그날, 그 해에.(팔이. 그러니까, 팔죽을 썬 먹으면은 귀신이, 잡귀가 안 들어온다는 그날, 그 해에.)

110030 @1 잡귀.(잡귀.)

110030 #1 잡귀는 따리는 거. 거, 푸다시 헐 때도 끝날 때 풋 해 가지고 막 뿌리지 안허여게?(잡귀는 때리는 거. 거, 푸닥거리 할 때도, 끝날 때 팔 해 가지고 막 뿌리지 않아?)

110030 @1 예예.(예예.)

110030 #1 귀신 내쫓젠. 잡귀를, 나쁜 귀신을 내쫓기는 그 풋이라 해 가지고, 풋죽, 붉은 풋, 옛날도 귀신 따리는, 계난, 동지에 풋죽을 해 먹어야 귀신덜이 아니 온다 해. 그 집이.(귀신 내쫓으려고. 잡귀를, 나쁜 귀신을 내쫓는 그 팔이라 해 가지고, 팔죽, 붉은 팔, 옛날도 귀신 때리는, 그러니까, 동지에 팔죽을 해 먹어야 귀신들이 아니 온다 해. 그 집에.)

110030 @1 풋죽은 그 소곱에 무시거 놓지 안힙니까? 풋죽 쏠 때.(팔죽은 그 속에 뭐 놓지 않습니까? 팔죽 쏠 때.)

110030 #1 우리 헐 때는 곤살허고 풋만 낱.(우리 할 때는 흰쌀하고 팔만 넣어서.)

110030 @1 곤살, 풋만?(흰쌀, 팔만?)

110030 #1 겐디, 요즘은 쌀 즈베기 닳은 거 허영, 것ㄴ라 무슨, 지금은 놓아.(그런데, 요즘은 쌀 수제비 닳은 거 해서, 그것을 무슨, 지금은 넣어.)

110030 @1 예.(예.)

110030 #1 즐게 조그만 허게, 것ㄴ라 빛이엔 곱아. 득세기 모양 흐끔씩 꿇영 낱. 즈베기 모양.(잘게 조그만 하게, 그것을 뭐라고 말해. 달걀 모양 조금씩 꿇어서 넣어서. 수제비 모양.)

110030 @1 알?(알?)

110030 #1 음. 알.(음. 알.)

110030 @1 무슨 알?(무슨 알?)

110031 @2 새알.(새알.)

110031 @1 납평날이엔 헤근에 이수과?(납평날이라고 해서 있습니까?)

110031 @2 납평제. 제 올리고 헤나지 안헛수과?(납평제. 제 올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110031 #1 그 말은, 납평날, 납평날은.(그 말은, 납평날, 납평날은.)

110031 @2 납이 아니고, 납, 납, 납평제.(납이 아니고, 납, 납, '납평제'.)

110031 #1 납?(납?)

110031 @1 납평제¹⁸⁸)라고 제를 지내어? 건, 뭐 집안에서?(‘납평제’라고 제를 지내어? 건, 뭐 집안에서?)

110031 @2 납일, 예. 농사를 다 끝낸 다음에 이걸, 추석하고 몬 지나갓주만, 모든 농사들이 마무리 된 상태에서 납일에 제를 지낸다고 해서 납평제라고 했는데.(납일, 예. 농사를 다 끝낸 다음에 이걸, 추석하고 다 지나갓지만, 모든 농사들이 마무리 된 상태에서, 납일에 제를 지낸다고 해서 납평제라고 했는데.)

110031 #1 납날?(납날?)

110031 @2 납날.(납날.)

110031 #1 납 신, 납 신 제주게. 납날이. 납날이 원숭일 건데.(납 신, 납 신 자지. 납날이. 납날이 원숭일 건데.)

110031 @1 예. 원숭이.(예. 원숭이.)

110031 #1 그런 거, 행사 허는 거는 이 동네는 엇어난.(그런 거, 행사 하는 거는 이 동네는 없었어.)

12월

110035 @1 친구간에 이사 할 땐 제일 먼저 무시겨 ㄹ져감수과?(‘친구간’에 이사 할 땐 제일 먼저 뭐 가져가고 있습니까?)

110035 #1 솟단지계.(솟단지.)

110035 @1 솟단지 먼저?(솟단지 먼저?)

110035 #1 쨌 먼저 ㄹ져가는 게 솟단지하고 쨌.(쨌 먼저 가져가는 게 솟단지하고 쨌.)

110035 @1 쨌.(쨌.)

110035 #1 쨌하고, 경 해야 잘 산덴.(쨌하고, 그렇게 해야 잘 산다고.)

110035 @1 솟단지 허고, 쨌 허고 몬여.(솟단지하고, 쨌하고 먼저.)

110035 #1 쨌 몬여가. 솟단지 허영. 옛날 친구간 이사 할 때는 거기서 밥을 허여. 쨌 ㄹ져 강, 질 먼저.(쨌 먼저가. 솟단지 해서. 옛날 친구간 이사 할 때는 거기서 밥을 해. 쨌 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110035 @1 밥을 먼저 해 먹어마썸? 다른 거 다 가져가기도 전이?(밥을 먼저 해 먹어요? 다른 거 다 가져가기도 전에?)

110035 #1 전이. 그거 행. 말짜엔 그릇들 시경 가고.(전에. 그거 해서. 말짜엔 그릇들 실어 가고.)

110037 @1 다른 집, 어디 새집 짓영 이사 허민 부지 헤영 가곡, 영.(다른 집, 어디 새집 짓고 이사 하면 부조해서 가고, 이렇게.)

110037 #1 집들이 할 때?(집들이 할 때?)

110037 @1 예.(예.)

110037 #1 부지 헤영 가는 거.(부조해서 가는 거.)

188) ‘납평제’는 납일에 한 해 동안 이룬 농사와 그 밖의 일들을 여러 신에게 고하는 제사를 말한다.

110037 @1 요새 ㄹ트민 봉투만 들렁 가민 돼주마는 옛날엔 어떻 헤낫수과?(요새 같으면 봉투만 들고 가면 되지만 옛날엔 어떻게 했었습니까?)

110037 #1 옛날엔 쫄, 보리쫄 혼 돼 ㄹ정 가나, 좁쌀 혼 텔 ㄹ정 가나, 쫄 ㄹ정 가나, 경.(옛날엔 쌀, 보리쌀 한 되 가지고 가나, 좁쌀 한 될 가지고 가나, 쌀 가지고 가나, 그렇게.)

110037 @1 쫄 들렁양. 가민 케민, 그디서 밥을 헤영 멕이고.(쌀 들고요. 가면, 그러면, 거기서 밥을 해서 먹이고.)

110037 #1 멕이곡, 먹고.(먹이고, 먹고.)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	분야	지역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외도동, 안덕면 덕수리
김미진	"	"	연구 책임 대정읍 인성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	교열 및 감수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제주시 외도동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토평동
최연미	돈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안덕면 덕수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인성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	대정읍 구억리
문덕찬	(사)제주어연구소	"	한림읍 대림리
고창근	제주어보전 및 육성위원회	"	애월읍 봉성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	위촉연구원
서수빈	"	"	연구 보조
현혜경	"	국어국문	"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6

발행인 김순자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모사전송: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